

발간등록번호	11-1383000-000253-12
연구보고	23-수탁25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2023. 12.

발간등록번호	11-1383000-000253-12
연구보고	23-수탁25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주 관 기 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 구 진 연구책임자 김지경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공동연구원 송현주 대표(H통계연구소)
 김균희 초빙교수(인하대학교)
 연구보조원 윤현솔 연구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 사 기 관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

본 보고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여성가족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이용자를 위하여

1. 이 보고서는 「청소년 기본법」 제15조의2 제1항에 의해 실시되는 「청소년종합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154013호)의 2023년 조사 결과를 수록한 것임.
 - 「청소년종합실태조사」는 「청소년보호법」 제15조의2 제1항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등 효율적인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에 의거하여 실시되며,
 - 2011년부터 9세-24세 청소년과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3년 주기의 조사가 실시되고, 2023년 조사는 2016년 청소년가치관조사를 흡수·통합한 이래 세 번째 조사임.
2. 이 조사는 9세-24세 청소년이 거주하는 전국 5,000가구의 청소년과 주 양육자를 조사 대상으로 하며, 청소년은 3개 연령대(9세-12세, 13세-18세, 19세-24세)로 구분함.
 - 2023년 조사 참여 가구수는 총 5,135가구이며, 여기에는 19세-24세 연령대 1인가구인 332가구가 포함됨(주양육자가 있는 4,803가구와 1인가구 332가구).
 - 총 5,135가구의 9세-24세 청소년 7,423명과 주양육자 4,803명이 응답함.
 - 청소년 연령대별 비중은 9세-12세 33.1%, 13세-18세 39.8%, 19세-24세 27.1%임.
3. 조사는 2023년 7월 11일부터 2023년 9월 3일까지 총 55일 동안 실시되었음.
4. 통계표에 수록된 결과는 표본조사 결과에 가중치를 적용한 가중표본 평균 또는 비율이며, 가중치는 표본추출률, 응답률 및 가중치 사후 보정률을 반영하였음.
5. 통계표에 수록된 ‘학교급 및 재학여부’의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가중치 반영 총 570명이며, 고교 졸업 후 미진학 234명, 대학 졸업 302명, 대학 휴학 및 중퇴 26명, 대학원 재학 3명, 학교 밖 청소년 6명으로 구성됨.
6. 본 보고서에 수록된 통계수치는 반올림하여 보정되었으며, 표 내의 수치와 전체 합계의 수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7. 통계표에 사용된 부호의 뜻은 다음과 같음.
 - [—] : 해당 숫자 없음. [0.0] : 단위 미만(0 포함)

목 차

I. 조사 개요	3
1. 조사 목적	3
2. 조사 연혁	5
3. 조사 체계	5
3-1. 조사 대상	5
3-2. 조사 기간	5
3-3. 조사 방법	5
3-4. 조사 기관	6
3-5. 조사시행 근거 법률 및 국가승인통계 내역	6
4. 표본 설계	6
4-1. 모집단 분석	6
4-2. 표본 설계	9
5. 조사 내용의 구성	22
5-1. 조사 영역 및 주요 측정 내용의 구성	22
5-2. 조사 문항 및 내용	23
II. 조사 결과 분석	31
1. 주관적 웰빙 및 일상생활 만족도	31
1-1. 주관적 웰빙	31
1-2. 일상생활 만족도	34
1-3. 코로나로 인한 삶의 변화	37
1-4.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인한 삶의 변화	49
2. 건강	54
2-1. 수면	54
2-2. 식습관 및 신체활동	64
2-3. 정신 건강	72
2-4. 주관적 건강 평가 및 자존감	84
3. 부모와의 관계 및 지원 기대 인식	99
3-1. 부모와의 대화 및 활동	99
3-2. 부모와의 대화 시간	103
3-3. 부모와의 돌봄 및 지원기대	106

4. 참여·권리 및 사회의식	115
4-1. 의견존중 인식 및 청소년증 발급	115
4-2. 자기의존지향성 및 참여경험	121
4-3. 결혼 및 성역할의식, 다문화수용성	128
4-4. 사회관 및 사회문제인식, 사회문제 위험인식	134
5. 학습과 활동	144
5-1. 학습	144
5-2. 활동 경험	156
5-3. 학업 중단 경험	184
5-4. 대학 입학 이후 경험	198
6. 진로 및 직업탐색	204
6-1. 진로 교육 및 체험활동	204
6-2. 장래 희망 직업	208
7. 사회진입 및 이행	226
7-1. 아르바이트, 취업 및 구직활동 여부	226
7-2. 취업 내용	239
7-3. 부당행위 경험	250
Ⅲ. 주요 결과 요약 및 제언	263
1. 주요 결과의 요약	263
2. 조사 개선을 위한 제언	305
참 고 문 헌	311
부 록	315
1. 분석 결과 부표	315
2. 주요 지표 상대표준오차	318
3. 2023년 청소년 조사표 변경내역	323
4. 조사표 4종	349

표 목차

〈표 I-1〉 시/도, 동부/읍면부별 모집단 조사구 현황	7
〈표 I-2〉 시/도, 동부/읍면부별 모집단 가구 현황	8
〈표 I-3〉 시/도, 동부/읍면부별 모집단 인구 현황	9
〈표 I-4〉 표본 크기에 대한 특성	10
〈표 I-5〉 모집단 층화 변수와 층화 특성	11
〈표 I-6〉 시/도, 동부/읍면부별 모집단 조사구·가구·인구 현황	12
〈표 I-7〉 시/도, 동·부/읍·면부별 조사 대상 가구와 표본배분 결과	13
〈표 I-8〉 시/도, 동부/읍면부, 주택유형별 표본배분 결과 - 가구 기준	14
〈표 I-9〉 시/도, 동부/읍면부, 주택유형별 표본배분 결과 - 조사구 기준	15
〈표 I-10〉 가구 통계 유의사항 표기 및 해석	19
〈표 I-11〉 시·도별 조사 완료 가구 수	20
〈표 I-12〉 응답자 유형별 조사 완료 가구원 수	21
〈표 I-13〉 청소년용 조사 항목	22
〈표 I-14〉 2023년 조사 문항 및 내용	23
〈표 II-1〉 주관적 웰빙	33
〈표 II-2〉 학업중단 여부에 따른 주관적 웰빙	33
〈표 II-3〉 일상생활 만족도	35
〈표 II-4〉 일상생활 만족도(12개 항목)	36
〈표 II-5〉 코로나로 인한 삶의 변화 : 전반적인 생활	39
〈표 II-6〉 코로나로 인한 삶의 변화 : 가족관계	40
〈표 II-7〉 코로나로 인한 삶의 변화 : 친구관계	41
〈표 II-8〉 코로나로 인한 삶의 변화 : 학교생활	42
〈표 II-9〉 코로나로 인한 삶의 변화 : 사회에 대한 신뢰	43
〈표 II-10〉 코로나로 인한 삶의 변화 :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전망	44
〈표 II-11〉 코로나로 인한 삶의 변화 인식에 따른 주관적 웰빙	45
〈표 II-12〉 코로나로 인한 가족관계 변화에 따른 가족관계 만족도	46
〈표 II-13〉 코로나로 인한 친구관계 변화에 따른 친구관계 만족도	47
〈표 II-14〉 코로나로 인한 학교생활 변화에 따른 학교 만족도	47
〈표 II-15〉 코로나로 인한 전반적인 생활 변화 인식에 따른 일상생활 만족도	48
〈표 II-16〉 디지털 기술로 인한 삶의 변화	50

〈표 II-17〉 디지털 기술로 인한 삶의 변화에 따른 주관적 웰빙	51
〈표 II-18〉 디지털 기술로 인한 삶의 변화에 따른 일상생활 만족도	53
〈표 II-19〉 주중 및 주말 수면 시간	55
〈표 II-20〉 걱정 수면시간 비율 : 주중	57
〈표 II-21〉 걱정 수면시간 비율 : 주말	59
〈표 II-22〉 학교급 및 가구소득에 따른 주중 걱정 수면시간 비율	60
〈표 II-23〉 거주지역 및 가구소득에 따른 주중 걱정 수면시간 비율	60
〈표 II-24〉 수면 시간 충분성	62
〈표 II-25〉 수면시간 걱정 수준에 따른 수면시간 충분성	63
〈표 II-26〉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비율	65
〈표 II-27〉 지난 일주일 동안 운동 및 신체활동을	67
〈표 II-28〉 지난 일주일 동안 운동 및 신체활동 시간	69
〈표 II-29〉 운동 및 신체활동 적정시간	71
〈표 II-30〉 스트레스 및 무기력감 경험률	74
〈표 II-31〉 부모의 스트레스 경험에 따른 청소년의 스트레스 및 무기력감 경험률	75
〈표 II-32〉 회복탄력성	77
〈표 II-33〉 스트레스 경험별 회복탄력성 수준	78
〈표 II-34〉 회복탄력성 수준에 따른 코로나로 인한 삶의 변화 인식	79
〈표 II-35〉 회복탄력성 수준에 따른 디지털 기술로 인한 삶의 변화 인식	80
〈표 II-36〉 심리상담 경험률	82
〈표 II-37〉 스트레스 경험 및 정신 건강 수준별 심리상담 경험률	83
〈표 II-38〉 신체적 건강 수준	85
〈표 II-39〉 수면 시간, 식습관, 운동습관에 따른 신체적 건강 수준	86
〈표 II-40〉 정신적 건강 수준	88
〈표 II-41〉 스트레스 경험 및 회복탄력성에 따른 정신적 건강 수준	89
〈표 II-42〉 정신적 건강 수준에 따른 신체적 건강 수준	90
〈표 II-43〉 대인관계 역량	92
〈표 II-44〉 대인관계 역량 수준에 따른 주관적 웰빙, 일상생활 만족도	93
〈표 II-45〉 대인관계 역량 수준에 따른 스트레스 경험률,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	94

〈표 II-46〉 대인관계 역량 수준에 따른 부모의 방임 및 관심도	94
〈표 II-47〉 자존감	96
〈표 II-48〉 학업 중단 여부별 자존감	96
〈표 II-49〉 주관적 웰빙, 회복탄력성, 대인관계 역량에 따른 자존감 수준	97
〈표 II-50〉 주관적 웰빙, 회복탄력성, 대인관계 역량, 자존감 상관관계 분석 ...	98
〈표 II-51〉 부모와의 활동 및 대화 : 매일 한다	100
〈표 II-52〉 부모와의 활동 및 대화 : 주 4-6회	101
〈표 II-53〉 부모와의 활동 및 대화 : 주 1-3회	101
〈표 II-54〉 부모와의 활동 및 대화 : 월 1-3회	101
〈표 II-55〉 부모와의 활동 및 대화 : 거의 없다	102
〈표 II-56〉 부모와의 대화 시간 : 아버지	104
〈표 II-57〉 부모와의 대화 시간 : 어머니	104
〈표 II-58〉 부모님과의 대화 시간 : 어머니	105
〈표 II-59〉 방임 비율	107
〈표 II-60〉 주양육자 특성에 따른 방임 비율	108
〈표 II-61〉 방과 후 돌봄 공백 일수	110
〈표 II-62〉 방과 후 돌봄공백 시 불안도	111
〈표 II-63〉 방과 후 돌봄공백 일수별 불안도	112
〈표 II-64〉 부모의 경제적 비용 부담 인식	114
〈표 II-65〉 청소년 의견 존중도	116
〈표 II-66〉 부모가 인식하는 가족의 청소년 존중 여부에 따른 청소년의 존중 인식	116
〈표 II-67〉 부모가 인식하는 가족의 청소년 존중에 따른 청소년의 주관적 웰빙, 회복탄력성, 자존감, 대인관계역량	117
〈표 II-68〉 청소년증 발급 여부(13-18세)	119
〈표 II-69〉 청소년증 미발급 이유	120
〈표 II-70〉 자기의존지향성 : 1순위	123
〈표 II-71〉 자기의존 지향성에 따른 주관적 웰빙 및 자존감	124
〈표 II-72〉 청소년 사회참여율	126
〈표 II-73〉 청소년 사회참여 필요에 대한 인식	127
〈표 II-74〉 청소년 의견 존중 여부에 따른 사회참여 비율(13-18세)	127

〈표 II-75〉 결혼에 대한 인식	129
〈표 II-76〉 부모의 결혼에 대한 인식과 청소년 자녀의 결혼에 대한 인식 비교	129
〈표 II-77〉 성역할 의식	131
〈표 II-78〉 다문화 수용성	133
〈표 II-79〉 사회관	136
〈표 II-80〉 사회이슈나 쟁점, 정치문제에 대한 관심도	138
〈표 II-81〉 가장 염려되는 문제(1순위)	140
〈표 II-82〉 사회문제 위험 인식	142
〈표 II-83〉 사회문제의 위험 노출 인식 비율	143
〈표 II-84〉 학교생활 만족도(9-18세)	145
〈표 II-85〉 학업성취도(13-18세)	147
〈표 II-86〉 학업성취도와 자존감 수준(13-18세)	147
〈표 II-87〉 사교육 경험(9-18세)	150
〈표 II-88〉 주당 사교육 시간(9-18세)	152
〈표 II-89〉 하루 동안 혼자 공부한 시간(9-18세)	155
〈표 II-90〉 사교육 경험 여부별 하루 동안 혼자 공부한 시간(9-18세)	155
〈표 II-91〉 청소년 활동 경험률(9-18세)	158
〈표 II-92〉 본인이 직접 활동 주제와 내용에 대해 아이디어를 내거나 진행한 경험(9-18세)	160
〈표 II-93〉 청소년 활동여부와 청소년 정서(9-18세)	162
〈표 II-94〉 주 양육자의 청소년 활동(체험활동, 동아리활동)에 대한 관심도와 청소년 활동 참여 여부	165
〈표 II-95〉 주 양육자의 청소년 활동(체험활동, 동아리활동)에 관심을 두는 주된 이유와 청소년 활동	167
〈표 II-96〉 주 양육자의 자녀 학습 및 활동 관심도	168
〈표 II-97〉 참여 희망 활동(1순위)(9-18세)	171
〈표 II-98〉 참여 희망 활동(1+2순위)(9-18세)	173
〈표 II-99〉 청소년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거나 진행하는 활동에 참여할 기회에 대한 인식(9-18세)	175
〈표 II-100〉 현재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단체(동아리)(9-18세)	178

〈표 II-101〉 청소년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단체(동아리)와 주 양육자가 청소년 활동에 관심을 두는 주된 이유(9-18세)	181
〈표 II-102〉 시설 이용률(9-18세)	183
〈표 II-103〉 학업 중단(초·중·고등학교) 경험(13-24세)	185
〈표 II-104〉 학업 중단(초·중·고등학교) 경험 있는 청소년의 향후 3년 이내 진로 계획(13-24세)	186
〈표 II-105〉 가장 최근 학업 중단 시기(13-24세)	187
〈표 II-106〉 학업 중단 사유(1순위)(13-24세)	189
〈표 II-107〉 가구소득 수준별 학업 중단 사유(1순위)(13-24세)	190
〈표 II-108〉 학업 중단 사유(1+2+3순위) : 13-24세 ①	191
〈표 II-109〉 학업 중단 사유(1+2+3순위) : 13-24세 ②	192
〈표 II-110〉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 이용 경험(13-24세)	194
〈표 II-111〉 향후 진로 계획(13-24세)	197
〈표 II-112〉 대학 입학 이후 휴학 경험(19-24세)	199
〈표 II-113〉 휴학 사유(19-24세)	201
〈표 II-114〉 대학 재학 중 받은 사교육 경험(19-24세)	203
〈표 II-115〉 진로 교육 경험(9-24세)	205
〈표 II-116〉 진로 체험활동 경험(13-24세)	207
〈표 II-117〉 장래 희망 직업 결정 여부(9-24세)	210
〈표 II-118〉 장래 희망 직업 결정 여부별 대학 재학 중 사교육 경험 (19-24세)	210
〈표 II-119〉 직업선택 기준(1순위)(13-24세)	213
〈표 II-120〉 직업선택 기준(1+2순위)(13-24세)	214
〈표 II-121〉 주 양육자가 생각하는 자녀의 직업 선택 기준(1순위)	216
〈표 II-122〉 주 양육자가 생각하는 자녀의 직업 선택 기준(1+2순위)	217
〈표 II-123〉 주 양육자와 청소년 자녀의 직업 선택 주요 기준 응답 비교	217
〈표 II-124〉 진로성숙도(9-24세)	220
〈표 II-125〉 장래 희망 직업 결정 여부에 따른 진로성숙도(9-24세)	221
〈표 II-126〉 진로성숙도 수준별 주관적 웰빙, 자존감(9-24세)	221
〈표 II-127〉 대학 재학 중 사교육 경험 여부별 진로성숙도(19-24세)	221
〈표 II-128〉 직업관 측정 항목(13-24세)	223

〈표 II-129〉 대학 재학 중 사교육 경험별 직업관 지수(19-24세)	224
〈표 II-130〉 주 양육자의 자녀 진로 관심 및 선택에서의 관여 정도	225
〈표 II-131〉 아르바이트 경험(13-24세)	228
〈표 II-132〉 주 양육자의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생각과 자녀 아르바이트 경험	229
〈표 II-133〉 주 양육자의 자녀 아르바이트 경험과 자녀 현장실습 및 인턴경험 동의 정도	230
〈표 II-134〉 취업 여부(13-24세)	233
〈표 II-135〉 지난 주 일하지 않았던 기간 동안 한 일(19-24세)	236
〈표 II-136〉 구직활동 여부 및 구직 기간(13-24세)	238
〈표 II-137〉 취업 내용 : 13-24세 ①	243
〈표 II-138〉 취업 내용 : 13-24세 ②	244
〈표 II-139〉 취업내용 : 13-24세 ③	245
〈표 II-140〉 직업 선택 이유(13-24세)	249
〈표 II-141〉 일을 하면서 경험한 부당행위(13-24세)	253
〈표 II-142〉 고용주/다른 직원으로부터 경험한 부당행위(13-24세)	256
〈표 II-143〉 손님으로부터 경험한 부당행위(13-24세)	258
〈표 II-144〉 생애 아르바이트 경험과 사회에 대한 인식(13-24세)	259
〈표 III-1〉 코로나로 인한 일상생활 주요 변화 인식에 따른 만족도 (9-24세)	266
〈표 III-2〉 디지털 기술로 인한 전반적인 삶의 변화에 따른 일상생활 만족도 (9-24세)	268
〈표 III-3〉 생활 습관: 수면, 식습관, 운동(9-24세)	273
〈표 III-4〉 스트레스 및 무기력 상태 경험 여부에 따른 회복탄력성 (9-24세)	275
〈표 III-5〉 회복탄력성 수준에 따른 코로나로 인한 삶의 변화 인식 (9-24세)	276
〈표 III-6〉 주 양육자가 자녀의 청소년활동에 관심 갖는 주된 이유	293
〈표 III-7〉 청소년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활동 종류(9-18세) : 1-3순위	293

〈표 Ⅲ-8〉 주 양육자가 자녀의 단체 및 동아리 활동에 관심을 갖는 주된 이유	294
〈표 Ⅲ-9〉 학업 중단 유경험 청소년의 향후 3년 이내 진로 계획	296
〈표 Ⅲ-10〉 주 양육자와 청소년 자녀의 직업선택 기준 3순위	297

그림 목차

【그림 Ⅲ-1】 주관적 웰빙	264
【그림 Ⅲ-2】 일상생활 만족도	264
【그림 Ⅲ-3】 일상생활 만족도: 12개 측정 항목 비교	265
【그림 Ⅲ-4】 코로나로 인한 삶의 변화	265
【그림 Ⅲ-5】 코로나로 인한 전반적인 생활 변화 인식에 따른 주관적 웰빙 수준	266
【그림 Ⅲ-6】 디지털 기술로 인한 삶의 변화: 긍정적으로 변화함 비율(%)	267
【그림 Ⅲ-7】 디지털 기술로 인한 삶의 변화 인식에 따른 주관적 웰빙 수준 ..	267
【그림 Ⅲ-8】 청소년의 주중 수면시간 적정수준	269
【그림 Ⅲ-9】 청소년의 주말 수면시간 적정수준	270
【그림 Ⅲ-10】 청소년 특성별 주중 수면시간 : 적정시간 미만 비율(%)	270
【그림 Ⅲ-11】 학교급 및 가구소득별 주중 수면시간 : 적정시간 미만 비율(%)	270
【그림 Ⅲ-12】 지역 및 가구소득별 주중 수면시간 : 적정시간 미만 비율(%)	271
【그림 Ⅲ-13】 아침 식사 비율	271
【그림 Ⅲ-14】 지난 일주일 동안의 운동 및 신체활동 시간	272
【그림 Ⅲ-15】 지난 일주일 동안의 운동 및 신체활동 적정시간 수준	272
【그림 Ⅲ-16】 부모의 스트레스 경험 유무에 따른 청소년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경험률	274
【그림 Ⅲ-17】 부모의 스트레스 경험 유무에 따른 청소년의 SNS 스트레스 경험률	274
【그림 Ⅲ-18】 부모의 스트레스 경험에 따른 청소년의 무기력감 경험률	274
【그림 Ⅲ-19】 청소년의 스트레스 경험, 회복탄력성에 따른 정신적 건강 수준	275
【그림 Ⅲ-20】 회복탄력성 수준에 따른 디지털 기술로 인한 삶의 변화 인식	277
【그림 Ⅲ-21】 대인관계 역량 수준에 따른 주관적 웰빙, 일상생활 만족도, 주관적 건강 인식, 부모의 방임 및 관심 수준	278

【그림 Ⅲ-22】 대인관계 역량 수준에 따른 스트레스 경험률	278
【그림 Ⅲ-23】 대인관계 역량 수준	279
【그림 Ⅲ-24】 청소년 특성별 대인관계 역량 수준 :	
전체 평균보다 낮은 집단	279
【그림 Ⅲ-25】 긍정 정서에 따른 자존감 수준	280
【그림 Ⅲ-26】 대인관계 역량에 따른 자존감 수준	280
【그림 Ⅲ-27】 부모와의 활동 및 대화 : 주 4-6회	281
【그림 Ⅲ-28】 부모와의 활동 및 대화 : 주 1-3회	281
【그림 Ⅲ-29】 부모와의 대화 시간 : 아버지	282
【그림 Ⅲ-30】 부모와의 대화 시간 : 어머니	282
【그림 Ⅲ-31】 방과 후 돌봄 공백 일수	283
【그림 Ⅲ-32】 방임 비율 : 학교 수업(학원 포함)이 끝난 후 집에 늦게 들어와도 관심이 없다	283
【그림 Ⅲ-33】 방임 비율 : 고열이 나도 아파도 내버려둔다	283
【그림 Ⅲ-34】 청소년 존중 비율	284
【그림 Ⅲ-35】 부모가 인식하는 가족의 청소년 존중 여부에 따른 청소년의 존중 인식	285
【그림 Ⅲ-36】 부모가 인식하는 가족의 청소년 존중에 따른 청소년의 주관적 웰빙, 회복탄력성, 자존감, 대인관계역량	285
【그림 Ⅲ-37】 청소년증 발급률 및 미발급 사유	285
【그림 Ⅲ-38】 결혼에 대한 인식 : 결혼해야 한다 응답 비율(%)	286
【그림 Ⅲ-39】 특성별 결혼에 대한 인식 : 결혼해야 한다 응답 비율(%)	286
【그림 Ⅲ-40】 부모의 결혼에 대한 인식에 따른 청소년의 결혼에 대한 인식	286
【그림 Ⅲ-41】 사회관	287
【그림 Ⅲ-42】 사회문제 중 염려가 되는 문제	287
【그림 Ⅲ-43】 연도별 학교생활 만족도	288
【그림 Ⅲ-44】 연도별 사교육 경험률	289
【그림 Ⅲ-45】 사교육 경험률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집단(9-12세)	289
【그림 Ⅲ-46】 사교육 경험률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집단(13-18세)	290
【그림 Ⅲ-47】 연령대별 특성에 따른 사교육 경험률 격차	290
【그림 Ⅲ-48】 연도별 주당 사교육 시간	290

【그림 Ⅲ-49】 주당 사교육 시간이 전체 평균보다 많은 집단(9-12세)	291
【그림 Ⅲ-50】 주당 사교육 시간이 전체 평균보다 많은 집단(13-18세)	291
【그림 Ⅲ-51】 연령대별 특성에 따른 주당 사교육 시간 격차	292
【그림 Ⅲ-52】 사교육 경험 여부별 하루 평균 혼자 공부한 시간	292
【그림 Ⅲ-53】 연도별 청소년 단체(동아리) 활동을	294
【그림 Ⅲ-54】 연도별 청소년수련관 이용률	295
【그림 Ⅲ-55】 연도별 유스호스텔 이용률	295
【그림 Ⅲ-56】 연도별 학업 중단 경험률	295
【그림 Ⅲ-57】 연도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률	296
【그림 Ⅲ-58】 장래 희망 직업 결정 여부별 진로성숙도	298
【그림 Ⅲ-59】 진로성숙도 수준별 주관적 웰빙과 자존감	298
【그림 Ⅲ-60】 연도별 아르바이트 경험률	299
【그림 Ⅲ-61】 아르바이트 경험률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집단(13-18세)	300
【그림 Ⅲ-62】 아르바이트 경험률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집단(19-24세)	300
【그림 Ⅲ-63】 주 양육자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항목의 동의 비율과 자녀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300
【그림 Ⅲ-64】 연도별 지난 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했다는 응답	301
【그림 Ⅲ-65】 지난 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했다는 응답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집단(13-18세)	301
【그림 Ⅲ-66】 지난 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했다는 응답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집단(19-24세)	301
【그림 Ⅲ-67】 연도별 주요 직업(1~3순위 응답)	302
【그림 Ⅲ-68】 연도별 취업형태	302
【그림 Ⅲ-69】 연령대별 임금근로자가 경험한 부당행위	303
【그림 Ⅲ-70】 고용주/다른 직원으로부터 당한 부당행위 경험률	303
【그림 Ⅲ-71】 손님으로부터 당한 부당행위 경험률	303
【그림 Ⅲ-72】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별 사회 인식 동의 비율	304

제 I 장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2. 조사 연혁
3. 조사 체계
4. 표본 설계
5. 조사 내용의 구성

제 | 장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 ‘청소년종합실태조사’는 「청소년 기본법」 제49조제1항 및 동법 제15조의2제1항에 의거, 청소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3년 주기로 실시하는 법정 조사임.
- 법률 제49조제1항에서는 청소년들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국가가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제15조의2제1항에서는 기본계획 등 효율적인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여성부장관이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청소년 기본법」제49조제1항	「청소년 기본법」제15조의2제1항
① 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등 효율적인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 마다 청소년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23.6.28 시행)

- 2011년 「청소년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9세-24세 청소년 및 주 양육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 주기의 법정 조사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하여 2014년 조사까지 동일 표본 구성 및 규모의 조사가 실시되었고, 2015년에는 2007년부터 2년 주기로 통계작성이 이루어진 ‘청소년가치관 조사’가 흡수·통합되면서 일부 내용이 주요 구성항목으로 포함과 더불어 조사 문항이 정비되었으며, 2017년 조사에서는 표본 가구의 수가 5,000가구로 확대되었음(김지경·김균희·이민정, 2019, pp.3~4).
- [2011년 및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표본 구성 및 규모 : 청소년(9세-12세, 13세-24세) 및 주양육자 대상의 표본가구 2,000여 가구(청소년 3,000여명)
- [2015년] ‘청소년가치관조사’ 표본 구성 및 규모 : 청소년(초등5-6학년, 중·고생) 4,500가구
- [2017년] 조사 문항 정비 및 표본 가구 수 확대 : 2,000가구 → 5,000가구(청소년 7,600여명)

○ 2017년 조사문항의 정비와 표본 규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서 기능 및 활용도가 낮다는 문제 및 조사내용 구성의 기준 등 체계성이 낮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2019년에 2020년 조사를 앞두고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사전 연구」를 통해 조사내용 설계의 기본 틀 마련 및 기본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문항 개발 등 체계성과 정책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음.

- [2019년] 주요 개선 사항 : ①조사 내용 구성의 기본 틀(생활·의식·태도) 마련을 통해 조사 내용 구성의 체계성 강화, ②청소년조사와 주 양육자 응답 연계 구조의 틀 마련을 통해 응답 내용 분석 다각화 및 결과의 합의 도출 방식 확대, ③조사 내용 설계의 기본방향에 따르는 영역 및 항목 구성 체계 마련으로 조사 문항 개선 및 관리 방식 체계화(4가지 핵심 측정 및 공통 영역+연령대별 추가 영역)
- [2020년] 표본 구성 및 규모 : 연령 세 집단(9세-12세, 13세-18세, 19세-24세), 5,000가구(청소년 7,000여명)

○ 조사의 기본 틀, 즉 내용 설계 측면에서의 근거와 체계성이 강화된 후 2020년 조사가 실시되었으나, 코로나 팬데믹 영향 하에서 기본적으로 가구 방문 면접조사로 자료가 수집되는 조사가 안정적으로 실시되기는 어려웠으며, 자료수집부터 분석 단계까지 과업 일정이 지연되면서 정책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분석 결과 및 제언 도출로 이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음.

- [2020년] 조사의 주요 한계 : ①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실사 착수 시기 및 조사 일정 지연(2020년 11월 2일~2021년 2월 21일까지 약 4개월), ②정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문항 간, 응답자 간(청소년-주양육자) 연계 분석 결과 비도출

○ 이상과 같은 그 간의 흐름 하에서 본 연구는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수행의 구체적인 목적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설정하고, 설정된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 첫째, 3개년 시계열 변화의 추이 및 기존 조사와 비교 가능한 국가승인통계자료 구축
- 둘째, 청소년 특성에 따른 측정값 비교를 통한 청소년 생활·의식·태도 관련 실태분석
- 셋째, 청소년 응답 문항 간 및 청소년과 주 양육자 연계 분석
- 넷째, 주요 분석 결과에 따른 정책 합의 도출

2. 조사 연혁

○ 주요연혁

- 2011년 : 제1차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승인번호 제154013호)
(2,200가구의 주 양육자 2,200명, 9-24세 청소년 3,492명 대상)
- 2014년 : 제2차 청소년종합실태조사
(2,000가구의 주 양육자 2,000명, 9-24세 청소년 3,000명을 대상)
- 2015년 : '청소년 가치관조사 (승인번호 제16706호)' 흡수 통합 (통계청 고시 제2015-89호)
- 2017년 : 제3차 청소년종합실태조사
(5,000가구의 주 양육자 5,000명, 가구에 속한 9-24세 청소년 전원 대상)
- 2020년 : 제4차 청소년종합실태조사
(5,000가구의 주 양육자 5,000명, 가구에 속한 9-24세 청소년 전원 대상)
- 2023년 : 제5차 청소년종합실태조사
(5,000가구의 주 양육자 5,000명, 가구에 속한 9-24세 청소년 전원 대상)

3. 조사 체계

3-1. 조사 대상

- 전국 9-24세 청소년이 거주하는 5천 가구를 대상으로 청소년 및 주 양육자 조사
- 주 양육자 5,000명, 청소년 7,100명을 목표 표본으로 하며, 2021년 기준 등록 기반 가구 부문 표본추출틀(통계청)을 활용하여 확률표집방식으로 표본 가구 추출함.

3-2. 조사 기간

- 2023년 7월 11일 ~ 9월 3일 (조사 기준시점: 2023년 6월 1일)

3-3. 조사 방법

- 전문조사기관인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전국에서 조사원을 선발하여 권역별로 조사원 집체 교육을 실시하고, 표본으로 추출된 조사구의 가구를 방문하여 면접조사로 실시함.
- 교육 내용은 조사 내용 전반에 대한 이해, 현장 발생 문제 대처 능력, 조사 완료 후 수집된 자료의 완결성 검토, 자료 최종 확정 등에 대한 사항으로 구성되었음.

3-4. 조사 기관

- 주관기관: 여성가족부
- 전담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공동수행기관: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

3-5. 조사시행 근거 법률 및 국가승인통계 내역

- 근거 법률: 「청소년 기본법」 제15조의2
- 승인 내역: 승인번호 제154013호

4. 표본 설계

4-1. 모집단 분석

- 본 조사 확률표집의 모집단은 조사 기준 시점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9-24세 청소년 및 주 양육자임.
 - 구체적으로 등록센서스 조사구 상의 섬,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관광호텔 및 외국인 조사구를 제외한 전국의 아파트 조사구 및 일반 조사구 내에 거주하는 만 9-24세 청소년 및 주 양육자임.
- 전국 시/도, 동부/읍면부별 모집단 조사구 현황은 다음 <표 I-1>과 같음.
 - 전체 388,604개 조사구 중 만 9-24세 청소년이 거주하는 조사구는 384,767개로 전체의 99.0%임.
 - 9-24세 청소년이 거주하는 조사구는 동부 313,305개, 읍면부 71,462개임.

표 I-1 시/도, 동부/읍면부별 모집단 조사구 현황

(단위: 개)

구분	전국		동부		읍면부	
	전체 조사구	9-24세 거주 조사구	전체 조사구	9-24세 거주 조사구	전체 조사구	9-24세 거주 조사구
전체	388,604	384,767	315,356	313,305	73,248	71,462
서울	72,334	71,859	72,334	71,859	-	-
부산	26,543	26,342	26,543	26,342	-	-
대구	17,166	17,087	17,166	17,087	-	-
인천	20,868	20,793	20,868	20,793	-	-
광주	10,596	10,560	10,596	10,560	-	-
대전	10,891	10,835	10,891	10,835	-	-
울산	8,313	8,254	8,313	8,254	-	-
세종	2,665	2,646	2,665	2,646	-	-
경기	93,870	93,231	77,333	76,833	16,537	16,398
강원	12,941	12,587	7,287	7,217	5,654	5,370
충북	12,837	12,664	7,053	7,001	5,784	5,663
충남	16,967	16,760	7,462	7,434	9,505	9,326
전북	14,366	14,147	9,780	9,694	4,586	4,453
전남	14,683	14,442	6,053	6,010	8,630	8,432
경북	22,135	21,568	10,985	10,895	11,150	10,673
경남	26,053	25,653	16,187	16,028	9,866	9,625
제주	5,376	5,339	3,840	3,817	1,536	1,522

* 자료: 통계청 2021년 기준 등록기반 가구부문 표본추출틀

○ 시/도, 동부/읍면부별 모집단 가구 현황은 다음 <표 I-2>와 같음.

- 9-24세 청소년이 거주하는 가구는 경기 1,443,980호(26.9%), 서울 975,202호(18.2%), 부산 328,968호(6.1%) 순 등으로 많으며, 울산 117,024호(2.2%), 제주 69,426호(1.3%), 세종 44,520호(0.8%) 순 등으로 적음.
- 동부/읍면부별 9-24세 청소년이 거주하는 가구는 동부 4,635,111호, 읍면부 729,901호임.

표 1-2 시/도, 동부/읍면부별 모집단 가구 현황

(단위: 가구)

시도	전국		동부		읍면부	
	전체 가구	9-24세 거주 가구	전체 가구	9-24세 거주 가구	전체 가구	9-24세 거주 가구
전체	21,347,713	5,365,012	17,618,190	4,635,111	3,729,523	729,901
서울	4,037,203	975,202	4,037,203	975,202	-	-
부산	1,427,305	328,968	1,427,305	328,968	-	-
대구	999,367	258,510	999,367	258,510	-	-
인천	1,174,245	306,522	1,174,245	306,522	-	-
광주	614,731	175,526	614,731	175,526	-	-
대전	638,470	182,910	638,470	182,910	-	-
울산	449,754	117,024	449,754	117,024	-	-
세종	144,936	44,520	144,936	44,520	-	-
경기	5,270,918	1,443,980	4,378,431	1,229,528	892,487	214,452
강원	672,383	152,136	403,452	104,108	268,931	48,028
충북	693,566	167,592	398,124	110,291	295,442	57,301
충남	910,918	221,844	421,737	123,238	489,181	98,606
전북	769,926	187,486	543,059	152,709	226,867	34,777
전남	752,782	157,580	326,817	84,754	425,965	72,826
경북	1,152,150	247,111	597,081	154,718	555,069	92,393
경남	1,371,334	328,675	870,632	233,281	500,702	95,394
제주	267,725	69,426	192,846	53,302	74,879	16,124

* 자료: 2021년 기준 등록기반 가구부문 표본추출틀(통계청)

○ 시/도, 동부/읍면부별 모집단 인구 분포 현황은 다음 <표 I-3>과 같음.

- 전체 인구수 대비 9-24세 청소년 인구는 7,638,040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5.3%이며, 세종이 청소년 인구 비중이 18.2%로 가장 높고, 경북이 13.7%로 가장 낮음.
- 시/도별 9-24세 청소년 인구는 경기 2,098,586명(27.5%), 서울 1,347,309명(17.6%) 순으로 많고, 제주와 세종이 각각 103,859명(1.4%)과 64,670명(0.8%)으로 적음.
- 동부의 9-24세 청소년 인구는 6,591,357명, 읍면부는 1,046,683명으로 동부가 읍면부 대비 6.3배 가량 더 많음.

표 1-3 시/도, 동부/읍면부별 모집단 인구 현황

(단위: 명)

시도	전국		동부		읍면부	
	전체	9-24세 청소년	전체	9-24세 청소년	전체	9-24세 청소년
전체	49,989,438	7,638,040	41,668,361	6,591,357	8,321,077	1,046,683
서울	9,257,937	1,347,309	9,257,937	1,347,309	-	-
부산	3,219,917	458,266	3,219,917	458,266	-	-
대구	2,319,727	367,193	2,319,727	367,193	-	-
인천	2,865,331	439,747	2,865,331	439,747	-	-
광주	1,425,767	256,203	1,425,767	256,203	-	-
대전	1,424,193	253,614	1,424,193	253,614	-	-
울산	1,087,266	167,596	1,087,266	167,596	-	-
세종	356,236	64,670	356,236	64,670	-	-
경기	13,245,361	2,098,586	11,068,650	1,785,072	2,176,711	313,514
강원	1,461,820	211,525	889,809	144,824	572,011	66,701
충북	1,555,144	237,591	911,096	156,585	644,048	81,006
충남	2,075,179	317,104	991,928	176,269	1,083,251	140,835
전북	1,709,516	269,623	1,235,360	220,006	474,156	49,617
전남	1,656,522	228,510	748,887	122,994	907,635	105,516
경북	2,510,018	343,249	1,343,728	215,256	1,166,290	127,993
경남	3,175,403	473,395	2,055,653	335,522	1,119,750	137,873
제주	644,101	103,859	466,876	80,231	177,225	23,628

* 자료: 2021년 기준 등록기반 가구부문 표본추출틀(통계청)

4-2. 표본 설계

① 표본 크기

- 표본 크기를 결정하는데 고려해야 할 요소는 생산할 주요 통계의 허용 목표 오차의 크기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와 통계생산 단위의 수준 등임.
- 본 실태조사에서의 통계생산 단위는 광역자치단체인 시/도 단위와 연령대(9-12세, 13-18세와 19-24세의 3개 범주)이며, 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예산 규모임.

- 가용 예산을 고려하여 전체 표본 규모를 기존 조사와 동일한 5,000가구로 결정하며, 조사 적격 가구인 만 9-24세의 가구원이 거주하는 5,000가구를 조사할 경우, 주 양육자 5,000명과 해당 가구의 청소년 약 7,100명(= 5,000 가구 × 가구 당 적격 청소년 1.42명, 2021년 기준 등록기반 가구부문 표본추출률(통계청)) 정도의 규모임.

※ 가구당 청소년 수는 <표 I-2>와 <표 I-3>의 「2021년 기준 등록기반 가구부문 표본추출률」에서 전체 9-24세 청소년 7,638,040명, 가구는 21,347,713호이므로 가구당 적격 청소년 수는 0.36명이지만, 청소년이 거주하는 가구(5,365,012호)만을 기준으로 할 때 1.42명임.

- 5,000가구 조사 시 표본 크기 및 오차 특성은 다음과 같음.

표 I-4 표본 크기에 대한 특성

구분	내용
표본크기	5,000가구(주양육자 5,000명, 청소년 7,100명)
표본오차	비율 추정시 95% 신뢰수준 $\pm 1.39\%p$ (설계효과 1.3~1.5 적용 시 $\pm 1.58\%p \sim \pm 1.70\%p$)

② 층화

-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한 모수 추정에서 정확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조사 항목과 상관성이 크고, 명시적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변수를 층화변수로 선택해야 하며, 안정적 시계열 유지를 위해 과거 조사 설계와 일관성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3년 실태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층화변수를 적용함.

- 1차 층화 : 17개 시/도

- 2차 층화 : 동부/읍면부

※ 특별(시/자치시)·광역시에서 읍면 지역은 규모가 작고, 사회·경제적 환경 등 도시 지역과 유사 생활권으로 판단하여 동부로 분류. 단, 세종시는 동부와 읍면부의 규모가 유사하나 전체적으로 규모가 작아 편의상 통합. 표본추출 시에는 동부/읍면부로 정렬 후 선정하므로 모집단 구성비와 유사하게 됨.

- 3차 층화 : 동부의 조사구 특성(주택유형 : 아파트/일반)

- 이상 명시적 층화변수와 그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 <표 I-5>와 같음.

표 I-5		모집단 층화 변수와 층화 특성		
지역	1차 층화	2차 층화	3차 층화	총수
특별·광역시 세종시	· 특별·광역시, 세종시 : 8개	· 8개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 동부	· 조사구 특성(아파트/일반)	16
도 지역	· 도 지역 : 9개	· 동부 · 읍면부	· 조사구 특성(아파트/일반)	36
합계				52

○ 9-24세 청소년이 거주하는 층별 모집단을 세부적으로 나타내면 다음 <표 I-6>과 같음.

표 1-6

시/도, 동부/읍면부별 모집단 조사구·가구·인구 현황

(단위: 개, 가구, 명)

구분		9-24세 거주 조사구			9-24세 거주 가구			9-24세 거주 인구		
		아파트	일반	합계	아파트	일반	합계	아파트	일반	합계
전체		194,205	190,562	384,767	3,361,118	2,003,894	5,365,012	4,965,219	2,672,821	7,638,040
서울	동부	30,845	41,014	71,859	509,394	465,808	975,202	740,180	607,129	1,347,309
부산		14,378	11,964	26,342	205,562	123,406	328,968	296,827	161,439	458,266
대구		8,597	8,490	17,087	153,058	105,452	258,510	224,896	142,297	367,193
인천		11,341	9,452	20,793	200,651	105,871	306,522	294,875	144,872	439,747
광주		6,999	3,561	10,560	129,624	45,902	175,526	196,555	59,648	256,203
대전		5,926	4,909	10,835	108,287	74,623	182,910	160,608	93,006	253,614
울산		4,180	4,074	8,254	69,781	47,243	117,024	101,391	66,205	167,596
세종		1,769	877	2,646	32,197	12,323	44,520	48,702	15,968	64,670
경기	동부	46,300	30,533	76,833	888,823	340,705	1,229,528	1,319,246	465,826	1,785,072
	읍면부	6,532	9,866	16,398	119,507	94,945	214,452	180,370	133,144	313,514
강원	동부	4,387	2,830	7,217	69,988	34,120	104,108	102,316	42,508	144,824
	읍면부	1,584	3,786	5,370	19,934	28,094	48,028	28,939	37,762	66,701
충북	동부	4,242	2,759	7,001	74,243	36,048	110,291	109,995	46,590	156,585
	읍면부	2,036	3,627	5,663	30,145	27,156	57,301	44,862	36,144	81,006
충남	동부	4,597	2,837	7,434	90,184	33,054	123,238	134,600	41,669	176,269
	읍면부	3,167	6,159	9,326	50,096	48,510	98,606	75,739	65,096	140,835
전북	동부	6,006	3,688	9,694	104,420	48,289	152,709	157,866	62,140	220,006
	읍면부	752	3,701	4,453	10,982	23,795	34,777	16,752	32,865	49,617
전남	동부	3,891	2,119	6,010	63,430	21,324	84,754	94,467	28,527	122,994
	읍면부	2,110	6,322	8,432	33,605	39,221	72,826	50,802	54,714	105,516
경북	동부	6,203	4,692	10,895	100,414	54,304	154,718	146,010	69,246	215,256
	읍면부	3,062	7,611	10,673	43,921	48,472	92,393	64,157	63,836	127,993
경남	동부	10,001	6,027	16,028	170,589	62,692	233,281	251,986	83,536	335,522
	읍면부	3,710	5,915	9,625	59,976	35,418	95,394	88,706	49,167	137,873
제주	동부	1,453	2,364	3,817	20,894	32,408	53,302	32,211	48,020	80,231
	읍면부	137	1,385	1,522	1,413	14,711	16,124	2,161	21,467	23,628

* 자료: 2021년 기준 등록기반 가구부문 표본추출틀(통계청)

③ 표본 배분

- 전체 표본가구인 5,000 가구를 시/도별 통계생산을 위해서 안정적 표본 크기가 확보되도록 우선 할당 후 비례배분 방식을 적용함.
 - 20가구를 우선 할당한 후 나머지 4,660가구는 비례배분 함.
- 시/도별로 할당된 표본 크기의 시/도내 동부/읍면부 층의 표본 배분은 9-24세의 가구원이 거주하는 가구의 수를 기준으로 비례배분법을 적용.
- 시/도별, 동부/읍면부별 표본 배분의 결과는 다음 <표 I-7>과 같음.

표 I-7 시/도, 동·부/읍·면부별 조사 대상 가구와 표본배분 결과 (단위: 가구)

구분	전국		동부		읍·면부	
	모집단 가구	목표 표본 가구	모집단 가구	목표 표본 가구	모집단 가구	목표 표본 가구
전체	5,365,012	5,000	4,635,111	4,308	729,901	692
서울	975,202	867	975,202	867	-	-
부산	328,968	306	328,968	306	-	-
대구	258,510	245	258,510	245	-	-
인천	306,522	286	306,522	286	-	-
광주	175,526	172	175,526	172	-	-
대전	182,910	179	182,910	179	-	-
울산	117,024	122	117,024	122	-	-
세종	44,520	59	44,520	59	-	-
경기	1,443,980	1,273	1,229,528	1,084	214,452	189
강원	152,136	152	104,108	104	48,028	48
충북	167,592	166	110,291	109	57,301	57
충남	221,844	213	123,238	118	98,606	95
전북	187,486	183	152,709	149	34,777	34
전남	157,580	157	84,754	84	72,826	73
경북	247,111	235	154,718	147	92,393	88
경남	328,675	305	233,281	216	95,394	89
제주	69,426	80	53,302	61	16,124	19

○ 시/도별, 동부/읍면부 내 주택유형(아파트/일반)별 표본배분은 만 9-24세의 가구원이 거주하는 가구를 기준으로 비례배분법을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I-8>과 같음.

표 I-8 시/도, 동부/읍면부, 주택유형별 표본배분 결과 - 가구 기준

(단위: 호)

구분		모집단 가구			표본 가구		
		아파트	일반	합계	아파트	일반	합계
전체		3,361,118	2,003,894	5,365,012	3,128	1,872	5,000
서울	동부	509,394	465,808	975,202	453	414	867
부산		205,562	123,406	328,968	191	115	306
대구		153,058	105,452	258,510	145	100	245
인천		200,651	105,871	306,522	187	99	286
광주		129,624	45,902	175,526	127	45	172
대전		108,287	74,623	182,910	106	73	179
울산		69,781	47,243	117,024	73	49	122
세종		32,197	12,323	44,520	43	16	59
경기	동부	888,823	340,705	1,229,528	784	300	1,084
	읍면부	119,507	94,945	214,452	105	84	189
강원	동부	69,988	34,120	104,108	70	34	104
	읍면부	19,934	28,094	48,028	20	28	48
충북	동부	74,243	36,048	110,291	73	36	109
	읍면부	30,145	27,156	57,301	30	27	57
충남	동부	90,184	33,054	123,238	86	32	118
	읍면부	50,096	48,510	98,606	48	47	95
전북	동부	104,420	48,289	152,709	102	47	149
	읍면부	10,982	23,795	34,777	11	23	34
전남	동부	63,430	21,324	84,754	63	21	84
	읍면부	33,605	39,221	72,826	34	39	73
경북	동부	100,414	54,304	154,718	95	52	147
	읍면부	43,921	48,472	92,393	42	46	88
경남	동부	170,589	62,692	233,281	158	58	216
	읍면부	59,976	35,418	95,394	56	33	89
제주	동부	20,894	32,408	53,302	24	37	61
	읍면부	1,413	14,711	16,124	2	17	19

- 조사구당 평균 적격 가구는 동부 14.8가구, 읍·면부 10.2가구가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어 조사구당 표본 조사 가구의 수를 동부 7가구, 읍·면부 5가구를 기준으로 확정함.
- 이는 통계의 정도(precision)와 조사비용, 표본 대체 등 현장조사 업무 관리 편의성 등을 고려한 결과이며, 읍·면 지역의 경우 청소년 수가 적다는 사실도 동시에 고려되었음.
- 이상의 내용을 반영하여 배분된 표본 가구 수를 조사구로 환산하면 다음 <표 I-9>와 같음.

표 I-9 시/도, 동부/읍면부, 주택유형별 표본배분 결과 - 조사구 기준 (단위: 개)

구분		모집단 조사구			표본 조사구		
		아파트	일반	합계	아파트	일반	합계
전체		194,205	190,562	384,767	467	285	752
서울	동부	30,845	41,014	71,859	65	59	124
부산		14,378	11,964	26,342	27	16	43
대구		8,597	8,490	17,087	21	14	35
인천		11,341	9,452	20,793	27	14	41
광주		6,999	3,561	10,560	18	6	24
대전		5,926	4,909	10,835	15	10	25
울산		4,180	4,074	8,254	10	7	17
세종		1,769	877	2,646	6	2	8
경기	동부	46,300	30,533	76,833	112	43	155
	읍면부	6,532	9,866	16,398	21	17	38
강원	동부	4,387	2,830	7,217	10	5	15
	읍면부	1,584	3,786	5,370	4	6	10
충북	동부	4,242	2,759	7,001	10	5	15
	읍면부	2,036	3,627	5,663	6	5	11
충남	동부	4,597	2,837	7,434	12	5	17
	읍면부	3,167	6,159	9,326	10	9	19
전북	동부	6,006	3,688	9,694	15	7	22
	읍면부	752	3,701	4,453	2	5	7
전남	동부	3,891	2,119	6,010	9	3	12
	읍면부	2,110	6,322	8,432	7	8	15
경북	동부	6,203	4,692	10,895	14	7	21
	읍면부	3,062	7,611	10,673	8	9	17
경남	동부	10,001	6,027	16,028	23	8	31
	읍면부	3,710	5,915	9,625	11	7	18
제주	동부	1,453	2,364	3,817	3	5	8
	읍면부	137	1,385	1,522	1	3	4

④ 표본 추출

- 층화변수인 시/도, 동부/읍면부, 조사구 특성(아파트, 일반)별 층 내의 조사구를 행정구역 코드별로 정렬한 후에 확률 추출함.
- 1단계: 1차 추출 단위(psu) : 조사구
 - 조사구 내 9-24세가 거주하는 가구의 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계통추출
- 2단계: 2차 추출 단위(ssu) : 가구
 - 본 조사구 내 가구 명부를 확인한 후, 동부 7가구, 읍·면부는 5가구를 계통추출법으로 선정
- 3단계: 최종 조사 단위인 가구원은 선정된 가구의 주 양육자 1명과 9-24세 청소년에 해당하는 가구원을 모두 조사함.
- 표본으로 선정된 조사구 유고(재개발, 아파트 관리소 강력 거절 등) 시 표본 대체를 위해 층 내 유사한 특성(층화분류지표 기준)의 조사구로 대체함.

⑤ 가중치와 모수 추정

■ 가중치

- 설계 가중치
 - 표본 조사구에 대한 추출률의 역수와 표본 조사구에서 가구조사 착수율의 역수를 곱하여 산정

$$w_{1hij} = \frac{\sum_{h=1}^{N_h} M_{hi}}{n_h \cdot M_{hi}} \times \frac{M_{hi}^*}{m_{hi}}$$

- 여기서, n_h 는 h 층에 할당된 표본 조사구 수, N_h 는 h 층의 모집단 조사구 수, M_{hi} 는 h 층의 i 조사구 내의 명부상 가구 수, M_{hi}^* 는 h 층의 i 조사구 내의 실제 가구 수, m_{hi} 는 h 층 내의 i 조사구 내의 표본 가구 수를 나타내며, m_{hi} 는 원칙상 7가구 또는 5가구임.
- 일반적으로 모집단 가구 수와 모집단 적격 가구 수가 유사할 것으로 기대함.
($M_{hi} \cong M_{hi}^*$ 가정함)

○ 무응답 조정계수

- 해당 지역 내 세부 층에서 조사 가구에 대한 설계가중치는 원칙적으로 동일하며, 무응답 조정은 표본 조사구 단위로 진행함.

$$w_{2hi} = \frac{m_{hi}}{r_{hi}}$$

- 여기서, m_{hi} 는 h 층 내의 i 조사구 내의 표본가구 수(원칙적으로 7가구 또는 5가구)를 나타내며, r_{hi} 는 h 층 내의 i 조사구 내 실제 응답한 가구 수를 나타냄.

○ 표본 가구 내 가구원 응답률 반영

- 표본 가구 내에서 적격 가구원을 전수 조사하지만 조사 불능 및 조사 불응의 사유로 전수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가구마다 가구원 추출률이 상이하므로 이를 보정함.

$$w_{3hij} = \frac{e_{hij}}{e_{hij}^{(r)}}$$

- 여기서, e_{hij} 는 h 층 내의 i 조사구, j 가구 내의 적격 가구원 수, $e_{hij}^{(r)}$ 는 h 층 내의 i 조사구, j 가구 내의 실제 응답 가구원 수를 나타냄.

○ 사후 층화 보정

- 모집단과 표본의 구조가 유사하도록 2023년 주민등록인구통계(행정안전부) 또는 추계인구(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사후 층(시/도(17), 성별(2), 연령대별(3))별 구성비를 보정함.

○ 최종가중치 (w_{hij}) = 설계가중치 × 무응답 조정 계수 × 표본 가구내 가구원 응답률 역수 × 사후층화 보정 계수

■ 모수 추정

○ 본 실태조사의 표본설계는 여러 가지 추출법을 혼합하여 설계된 복합표본설계 기법이므로 이에 적합한 모수추정식을 적용함.

○ 첨자 정의

- $h = 1, 2, \dots, H$, 층을 나타내는 첨자
- $i = 1, 2, \dots, n_h$, h 층 내 집락을 나타내는 첨자

- $j = 1, 2, \dots, m_{hi}$, h 층 내 i 집락 내 조사 단위를 나타내는 첨자

○ 모평균(모비율) 추정량

$$\hat{\bar{Y}} = \frac{\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y_{hij}}{w_{...}}, \quad w_{...} = \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 모평균(모비율)에 대한 분산 추정식

$$\hat{V}(\hat{\bar{Y}}) = \sum_{h=1}^H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cdot} - \bar{e}_{h\cdot})^2$$

$$- f_h = \frac{n_h}{N_h}$$

$$- e_{hi\cdot} = \left[\sum_{j=1}^{m_{hi}} w_{hij} (y_{hij} - \hat{\bar{Y}}) \right] / w_{h\cdot}$$

$$- \bar{e}_{h\cdot} = (\sum_{i=1}^{n_h} e_{hi\cdot}) / n_h$$

○ 모평균(모비율)에 대한 표준오차 산출

$$\widehat{SE}(\hat{\bar{Y}}) = \sqrt{\hat{V}(\hat{\bar{Y}})}$$

○ 모평균(모비율)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추정

$$\widehat{RSE}(\hat{\bar{Y}}) = \frac{\sqrt{\hat{V}(\hat{\bar{Y}})}}{\hat{\bar{Y}}} \times 100(\%)$$

- 모수 추정에서 추정치, 표준오차와 상대표준오차의 계산은 신뢰성과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결과를 얻도록 SAS PROC SURVEYMEANS를 사용하며 적용 사례는 아래와 같음.

```
proc surveymeans data=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데이터 total = 모집단 정보 mean cv ;
    var 분석변수들 ;
    cluster 집락변수 ;
    strata 층화변수 ;
    weight 가중치변수 ;

run ;
```


- 한편, 통계자료 공표 시 또는 공표가 예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통계표 셀 내의 유효표본크기가 너무 작거나 상대표준오차가 큰 경우 등 신뢰성이 높지 않은 경우(분류, 항목)에는 유사한 층을 통합하여 통계표를 작성해야 하며, 그 기준은 통계청의 「표본설계 및 관리 지침」의 제10조(표본오차의 기준) 따름(※ <표 I-10> 참조).

표 I-10 가구 통계 유의사항 표기 및 해석

구분	$RSE < 30\%$		$25\% \leq RSE < 50\%$	$50\% \leq RSE$
	$n \geq 10$	$n < 10$		
표기	표기 없음	*	*	**
해석	신뢰도 높음	신뢰도 다소 낮음	신뢰도 다소 낮음	신뢰도 낮음

[6] 표본 현황

- 본 실태조사의 최종 응답 표본은 5,135가구로 9-24세 청소년 표본은 7,423명
- 전체 청소년 표본 7,423명 중 9-12세 청소년은 2,458명(33.1%), 13-18세 청소년 2,956명(39.8%), 19-24세 청소년 2,009명(27.1%)으로 구성
 - 5,135가구에는 1인 가구 332가구가 포함되어 주 양육자 표본은 4,803명임.

표 1-11 시·도별 조사 완료 가구 수

(단위: 가구)

구분	전체			동부			읍면부		
	목표 표본	조사 완료	완료율 (%)	목표 표본	조사 완료	완료율 (%)	목표 표본	조사 완료	완료율 (%)
전체	5,000	5,135	102.7	4,308	4,410	102.4	692	725	104.8
서울	867	881	101.6	867	881	101.6	-	-	-
부산	306	310	101.3	306	310	101.3	-	-	-
대구	245	250	102.0	245	250	102.0	-	-	-
인천	286	287	100.3	286	287	100.3	-	-	-
광주	172	175	101.7	172	175	101.7	-	-	-
대전	179	180	100.6	179	180	100.6	-	-	-
울산	122	119	97.5	122	119	97.5	-	-	-
세종	59	66	111.9	59	66	111.9	-	-	-
경기	1,273	1,309	102.8	1,084	1,111	102.5	189	198	104.8
강원	152	170	111.8	104	121	116.3	48	49	102.1
충북	166	179	107.8	109	114	104.6	57	65	114.0
충남	213	220	103.3	118	121	102.5	95	99	104.2
전북	183	192	104.9	149	158	106.0	34	34	100.0
전남	157	169	107.6	84	88	104.8	73	81	111.0
경북	235	237	100.9	147	149	101.4	88	88	100.0
경남	305	305	100.0	216	215	99.5	89	90	101.1
제주	80	86	107.5	61	65	106.6	19	21	110.5

표 1-12

응답자 유형별 조사 완료 가구원 수

(단위: 명, %)

구분	전체 응답자						청소년 연령대					
	주양육자/1인가구			청소년			9-12세		13-18세		19-24세	
	목표 표본	조사 완료	완료율 (%)	목표 표본	조사 완료	완료율 (%)	조사 완료	비중 (%)	조사 완료	비중 (%)	조사 완료	비중 (%)
전체	5,000	5,135	102.7	7,100	7,423	104.5	2,458	33.1	2,956	39.8	2,009	27.1
서울	867	881	101.6	1,231	1,321	107.3	492	37.2	548	41.5	281	21.3
부산	306	310	101.3	435	480	110.3	155	32.3	181	37.7	144	30.0
대구	245	250	102.0	348	400	114.9	132	33.0	148	37.0	120	30.0
인천	286	287	100.3	406	415	102.2	141	34.0	164	39.5	110	26.5
광주	172	175	101.7	244	231	94.7	61	26.4	77	33.3	93	40.3
대전	179	180	100.6	254	290	114.2	74	25.5	121	41.7	95	32.8
울산	122	119	97.5	173	164	94.8	62	37.8	67	40.9	35	21.3
세종	59	66	111.9	84	92	109.5	18	19.6	29	31.5	45	48.9
경기	1,273	1,309	102.8	1,807	1,844	102.0	615	33.4	765	41.5	464	25.2
강원	152	170	111.8	216	204	94.4	76	37.3	74	36.3	54	26.5
충북	166	179	107.8	236	252	106.8	67	26.6	100	39.7	85	33.7
충남	213	220	103.3	302	333	110.3	59	17.7	170	51.1	104	31.2
전북	183	192	104.9	260	243	93.5	102	42.0	76	31.3	65	26.7
전남	157	169	107.6	223	199	89.2	66	33.2	81	40.7	52	26.1
경북	235	237	100.9	334	366	109.6	142	38.8	114	31.1	110	30.1
경남	305	305	100.0	433	488	112.7	167	34.2	205	42.0	116	23.8
제주	80	86	107.5	114	101	88.6	29	28.7	36	35.6	36	35.6

5. 조사 내용의 구성

5-1. 조사 영역 및 주요 측정 내용의 구성

○ 2023년 조사는 청소년 조사표 3종(9-12세, 13-18세, 19-24세)과 주 양육자 조사표 1종으로 구분하여 내용 구성

표 1-13 청소년용 조사 항목

구분	항목	9-12세	13-18세	19-24세
Ⅰ. 주관적 웰빙 및 일상생활 만족도	· 주관적 안녕감	○	○	○
	· 일상생활 만족도	○	○	○
	· 삶의 변화	○	○	○
Ⅱ. 건강	· 신체적 건강: 수면, 식습관, 운동	○	○	○
	· 정신건강 : 스트레스 및 무기력감, 회복탄력성, 상담경험	○	○	○
	· 주관적 건강평가 및 자존감	○	○	○
Ⅲ. 부모와의 관계 및 지원기대 인식	· 부모와의 대화 및 활동	○	○	○
	· 부모와의 대화 시간	○	○	○
	· 부모의 돌봄	○	○	-
	· 부모의 지원 기대	-	○	○
Ⅳ. 참여·권리 및 사회의식	· 의견 존중	○	○	-
	· 청소년증	-	○	-
	· 자기의존경향성	○	○	○
	· 사회참여	-	○	○
	· 결혼 및 성역할 의식, 다문화수용성	-	○	○
	· 사회관 및 사회문제 인식	-	○	○
	· 사회문제 위험 인식	-	○	○
Ⅴ. 학습과 활동	· 학습	○	○	-
	· 활동	○	○	-
	· 학업 중단	-	○	○
	· 대학 입학 이후 경험	-	-	○
Ⅵ. 진로 및 직업탐색	· 진로 교육 및 체험활동	○	○	○
	· 장래희망	○	○	○
	· 직업 선택	○	○	○
Ⅶ. 사회 진입 및 이행	· 아르바이트 경험	-	○	○
	· 취업 여부	-	○	○
	· 취업 내용	-	○	○
	· 비취업상태 및 특성	-	○	○
Ⅷ. 응답자 특성	· 성별	○	○	○
	· 연령	○	○	○
	· 교육 정도	-	○	○

5-2. 조사 문항 및 내용

- 국가승인통계로서 안정적인 자료 구축 및 시계열 비교가 가능한 선에서 기존 조사 문항을 검토하고, 청소년의 일상생활 환경의 변화 및 지난 조사 이후 변화된 정책 사항을 고려하여 2020년 조사표를 수정·보완함.
 - 조사 문항의 삭제, 문항 대체, 선택 항목 추가, 문구 또는 용어 수정의 네 가지 기준으로 2020년 조사 문항을 검토
 - 2020년 조사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정책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신규 문항 개발·작성
 - 2020년 조사 문항 대비 2023년 변경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부록】 내용 참조
- 8개 조사 영역별 구성된 조사 문항 및 내용은 <표 I-14>와 같음.

표 I-14 2023년 조사 문항 및 내용

영역	내용(항목)	문항번호 ¹⁾
주관적 웰빙 및 일상생활 만족도	[유지] 주관적 안녕감 - 행복감	문1-1
	[유지] 주관적 안녕감 - 근심, 걱정 정도	문1-2
	[유지] 주관적 안녕감 - 우울 정도	문1-3
	[유지] 주관적 안녕감 - 삶의 만족도	문1-4
	[유지] 주관적 안녕감 - 일에 대한 자부심	문1-5
	[유지] 만족도 - 가족과의 관계	문2-1
	[유지] 만족도 - 내가 사는 집	문2-2
	[유지] 만족도 - 내 삶에서 선택의 자유	문2-3
	[유지] 만족도 - 친구들과의 관계	문2-4
	[유지] 만족도 - 내가 다니는 학교	문2-5
	[유지] 만족도 - 나의 외모	문2-6
	[유지] 만족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물건	문2-7
	[유지] 만족도- 나의 건강	문2-8
	[유지] 만족도 - 나의 미래	문2-9
	[유지] 만족도 - 나의 자유 시간	문2-10
	[유지] 만족도 - 우리 동네	문2-11
	[유지] 만족도 - 생활에서의 안전	문2-12
	[유지] 코로나19 이후 삶의 변화 - 전반적인 생활	문3-1
	[유지] 코로나19 이후 삶의 변화 - 가족관계	문3-2
	[유지] 코로나19 이후 삶의 변화 - 친구관계	문3-3

영역	내용(항목)	문항번호 ¹⁾
	[유지] 코로나19 이후 삶의 변화 - 학교생활	문3-4
	[유지] 코로나19 이후 삶의 변화 - 사회에 대한 신뢰	문3-5
	[추가] 코로나19 이후 삶의 변화 -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전망	문3-6
	[추가] 디지털기술 발전으로 인한 삶의 변화	문4
건강	[유지] 수면	문5
	[유지] 충분한 수면	문6
	[유지] 식습관 - 아침	문7-1
	[유지] 식습관 - 점심	문7-2
	[유지] 식습관 - 저녁	문7-3
	[유지] 운동	문8
	[유지] 스트레스 -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느낀다	문9-1
	[추가] 스트레스 - SNS 소셜미디어 사용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	문9-2
	[추가] 스트레스 - 어떠한 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상태를 느낀다	문9-3
	[추가] 회복탄력성 - 힘든 시간을 보낸 후에는 빨리 회복하는 편이다	문10-1
	[추가] 회복탄력성 - 스트레스가 많은 사건을 이겨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10-2
	[추가] 회복탄력성 - 스트레스가 많은 사건에서 회복하는 데 그다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문10-3
	[추가] 회복탄력성 -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돌이키기가 어렵다	문10-4
	[추가] 회복탄력성 - 보통 별 어려움 없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낸다	문10-5
	[추가] 회복탄력성 - 내 인생의 좌절을 극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향이 있다	문10-6
	[유지] 심리상담 도움 여부	문11
	[유지] 건강평가 - 나는 신체적으로 건강하다	문12-1
	[유지] 건강평가 - 나는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문12-2
	[유지] 정서 -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린다	문13-1
	[유지] 정서 - 다른 사람과 협력을 잘 한다	문13-2
	[유지] 정서 - 다른 사람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잘 해결한다	문13-3
	[유지] 정서 -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문13-4
	[유지] 정서 -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문13-5
	[유지] 정서 -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문13-6
부모와의 관계 및 지원기대 인식	[수정] 부모(또는 양육자)와의 대화 및 활동 - 나의 고민에 대한 대화	문14-1
	[수정] 부모(또는 양육자)와의 대화 및 활동 -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	문14-2
	[수정] 부모(또는 양육자)와의 대화 및 활동 - 책, 텔레비전, 영화에 대한 대화	문14-3
	[수정] 부모(또는 양육자)와의 대화 및 활동 - 정치, 사회적 주제에 관한 대화(선거 등)	문14-4
	[수정] 부모(또는 양육자)와의 대화 및 활동 - 여가 활동	문14-5
	[수정] 부모(또는 양육자)와의 대화 및 활동 - 저녁 식사	문14-6
	[수정] 부모(또는 양육자)와의 대화 시간 - 아버지	문15-1

영역	내용(항목)	문항번호 ¹⁾
	[수정] 부모(또는 양육자)와의 대화 시간 - 어머니	문15-2
	[수정] 부모(또는 양육자)와의 대화 시간 - 양육자	문15-3
	[수정] 부모(또는 양육자)의 관심 - 집에 늦게 들어와도 관심이 없다	문16-1
	[수정] 부모(또는 양육자)의 관심 - 내가 고열이 나거나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다	문16-2
	[유지] 평일 방과 후 어른 없이 있는 시간(1주일 평균)	문17
	[유지] 평일 방과 후 어른 없을 때 느끼는 불안 정도	문17-1
	[추가] 부모의 자녀에 대한 비용부담 범위 -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문18-1
	[유지] 부모의 자녀에 대한 비용부담 범위 -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문18-2
	[유지] 부모의 자녀에 대한 비용부담 범위 - 취업할 때까지	문18-3
	[유지] 부모의 자녀에 대한 비용부담 범위 - 결혼할 때까지	문18-4
참여·권리 및 사회익식	[유지] 의견 존중 - 우리 가족은 나의 의견을 존중한다	문19-1
	[유지] 의견 존중 - 내 친구들은 나의 의견을 존중한다	문19-2
	[유지] 의견 존중 - 내가 다니는 학교는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문19-3
	[유지] 의견 존중 - 우리 사회는 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한다	문19-4
	[유지] 청소년증 발급 여부	문20
	[유지] 청소년증 미발급 이유	문20-1
	[추가] 자기의존지향성(1순위)	문21-1
	[추가] 자기의존지향성(1+2순위)	문21-2
	[추가] 자기의존지향성(1+2+3순위)	문21-3
	[유지] 참여도 -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해 참여하거나 의견 제시함(교칙 제정 등)	문22-1
	[유지] 참여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이나 수립 과정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함	문22-2
	[유지] 참여도 - 청소년이 사회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참여함(인터넷 의견 제시, 집회 참여, 단체 가입 등)	문22-3
	[유지] 필요도 -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해 참여하거나 의견 제시함(교칙 제정 등)	문22-4
	[유지] 필요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이나 수립 과정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함	문22-5
	[유지] 필요도 - 청소년이 사회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참여함(인터넷 의견 제시, 집회 참여, 단체 가입 등)	문22-6
	[수정] 결혼 및 성역할 의식·다문화 수용성 -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문23-1
	[수정] 결혼 및 성역할 의식·다문화 수용성 - 결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	문23-2
	[수정] 결혼 및 성역할 의식·다문화 수용성 - 결혼을 해서 맞벌이를 하는 경우, 공동으로 가사를 분담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23-3
	[수정] 결혼 및 성역할 의식·다문화 수용성 -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할 책임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 크다	문23-4
	[수정] 결혼 및 성역할 의식·다문화 수용성 - 나와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 속하는 또래를 친구로 사귄 수 있다	문23-5

영역	내용(항목)	문항번호 ¹⁾
	[수정] 결혼 및 성역할 의식·다문화 수용성 - 나와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 속하는 또래를 이성친구로 사귄 수 있다	문23-6
	[유지]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 - 우리 사회는 대체로 공정하다	문24-1
	[유지]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 - 우리 사회는 인권을 존중한다	문24-2
	[유지]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 - 우리 사회는 다양성을 인정한다	문24-3
	[유지]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 - 우리 사회는 부정부패가 없다	문24-4
	[추가]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 - 우리 사회는 믿을 수 있다	문24-5
	[유지] 사회적 이슈나 쟁점, 정치문제에 대한 관심도	문25
	[추가] 염려되는 문제(1순위)	문26-1
	[추가] 염려되는 문제(1+2순위)	문26-2
	[추가] 사회문제 위험 노출 정도 - 마약류 접촉	문27-1
	[추가] 사회문제 위험 노출 정도 - 인터넷매체를 이용한 성범죄 피해	문27-2
	[추가] 사회문제 위험 노출 정도 - 유해한 업소의 이용	문27-3
학습과 활동	[유지] 학교생활 만족도 - 나는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	문28-1
	[유지] 학교생활 만족도 - 우리 학교는 우리들의 의견을 잘 반영한다	문28-2
	[유지] 학교생활 만족도 - 우리 학교는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다	문28-3
	[유지] 학교생활 만족도 - 우리 학교는 교칙이 엄격하다	문28-4
	[유지] 학교생활 만족도 - 선생님, 친구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생활이 만족스럽다	문28-5
	[유지] 학업 성취도	문29
	[유지] 사교육 경험	문30
	[유지] 청소년 활동 경험 - 문화/예술 관련 활동	문32A-1
	[유지] 청소년 활동 경험 - 과학/정보 관련 활동	문32A-2
	[유지] 청소년 활동 경험 - 모험/개척 관련 활동	문32A-3
	[유지] 청소년 활동 경험 - 자원봉사 활동	문32A-4
	[유지] 청소년 활동 경험 - 직업/진로 관련 활동	문32A-5
	[유지] 청소년 활동 경험 - 국제 교류 활동	문32A-6
	[유지] 청소년 활동 경험 - 건강/보건 관련 활동	문32A-7
	[유지] 청소년 활동 경험 - 자기(인성)개발 관련 활동	문32A-8
	[유지] 청소년 활동 경험 - 환경 보존 관련 활동	문32A-9
	[유지] 청소년 활동 경험 - 본인이 직접 활동 주제와 내용에 대해 아이디어를 내거나 진행한 경험	문32-1
	[유지] 참여 희망 활동(1순위)	문33-1
	[유지] 참여 희망 활동(1+2순위)	문33-2
	[유지] 청소년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거나 진행하는 활동에 참여할 기회	문34
	[유지] 단체(동아리) 활동 경험 - 청소년 단체, 동아리	문35-1

영역	내용(항목)	문항번호 ¹⁾
	[유지] 단체(동아리) 활동 경험 -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단체나 동아리	문35-2
	[유지] 단체(동아리) 활동 경험 - 기타 단체나 동아리	문35-3
	[유지] 시설 이용 경험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야영장	문36-1
	[유지] 시설 이용 경험 - 유스호스텔	문36-2
	[유지] 시설 이용 경험 - 도서관	문36-3
	[유지] 시설 이용 경험 - 공연 시설	문36-4
	[유지] 시설 이용 경험 - 전시 시설	문36-5
	[유지] 시설 이용 경험 - 사회복지관	문36-6
	[유지] 시설 이용 경험 - 수목원/수목림/자연 휴양림	문36-7
	[유지] 학업중단 경험(초·중·고등학교)	문37
	[유지] 학업중단 시기(가장 최근 기준)	문37-1
	[유지] 학업중단 사유(1순위)	문37-2-1
	[유지] 학업중단 사유(1+2순위)	문37-2-2
	[유지] 학업중단 사유(1+2+3순위)	문37-2-3
	[유지] 학업중단 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 이용 경험	문37-3
	[유지] 향후 진로 계획	문38
진로 및 직업탐색	[유지] 진로교육 - 수업 중 진로 탐색	문39-1
	[유지] 진로교육 - 진로 심리 검사	문39-2
	[유지] 진로교육 - 진로 체험	문39-3
	[유지] 진로교육 - 진로 상담	문39-4
	[유지] 진로교육 - 창업 체험하기	문39-5
	[유지] 진로체험활동 - 진로 박람회에 간 경험	문40-1
	[유지] 진로체험활동 - 청소년 수련관, 사회복지관 등에서 실시하는 진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	문40-2
	[유지] 진로체험활동 - 산업체에서 실시하는 진로 및 취업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	문40-3
	[유지] 진로체험경험 - 대학에서 실시하는 학과(전공) 관련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	문40-4
	[유지] 장래 희망 직업 결정 여부	문41
	[유지] 직업 선택 기준(1순위)	문42-1
	[유지] 직업 선택 기준(1+2순위)	문42-2
	[유지] 진로 및 직업선택 - 내가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	문43-1
	[유지] 진로 및 직업선택 -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문43-2
	[유지] 진로 및 직업선택 - 장래희망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적이 있다	문43-3
	[유지] 진로 및 직업선택 - 나는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문43-4
	[유지] 진로 및 직업선택 -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본 적이 있다	문43-5

영역	내용(항목)	문항번호 ¹⁾
	[유지] 진로 및 직업선택 - 나는 관심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직업에 대하여 알아본 적이 있다	문43-6
	[유지] 진로 및 직업선택 - 나는 분명한 인생목표가 있다	문44-1
	[유지] 진로 및 직업선택 - 진로나 직업을 선택할 시기가 되면 내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선택할 것이다	문44-2
	[유지] 진로 및 직업선택 - 내가 희망하는 직업을 미래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44-3
사회 진입 및 이행	[유지]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문45
	[유지] 취업 여부 - 지난 1주간 수입 목적 일했는지 여부	문46
	[유지] 취업 여부 - 무급가족종사자 여부	문46-1
	[유지] 취업 여부 - 일시 휴직 여부	문46-2
	[유지] 직업 분류	문47
	[유지] 월평균 소득	문48
	[유지] 종사상 지위	문49
	[유지] 정규직 여부	문49-1
	[유지] 전일제 여부	문49-2
	[유지] 경험 여부	문49-3
	[유지] 근로형태	문49-4
	[유지] 직업 선택 이유	문50
	[유지] 고용주 혹은 직원 / 손님- 욕설, 폭언, 모욕적인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문51-1
	[유지] 고용주 혹은 직원 / 손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문51-2
	[유지] 고용주 혹은 직원 / 손님- 무시당하거나, 왕따를 당한 적이 있다	문51-3
	[유지] 고용주 혹은 직원 / 손님- (성, 외모, 연령 등으로) 차별을 당한 적이 있다	문51-4
	[유지] 고용주 혹은 직원 / 손님-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	문51-5
	[유지] 비취업 기간 동안 한 일	문52
	[유지] 구직활동 여부 및 구직기간	문53
	[유지] 교육 정도	문54
	[유지] 현재 주 학업상태	문54-1
	[유지] 대학 입학 이후 휴학 경험	문55
	[유지] 휴학 사유	문55-1
	[유지] 대학 재학 중 사교육 - 전공 공부를 위한 사교육	문56-1
	[유지] 대학 입학 이후 휴학 경험 - 영어 사교육	문56-2
	[유지] 대학 입학 이후 휴학 경험 - 제2외국어(영어 제외) 사교육	문56-3
	[유지] 대학 입학 이후 휴학 경험 - 여타 취업 준비를 위한 사교육	문56-4
	[유지] 대학 입학 이후 휴학 경험 - 기타	문56-5

1) 조사표 3종(9-12세용, 13-18세용, 19-24세용)에 포함된 모든 문항에 대해 순차적으로 번호를 부여한 것이므로, 실제 조사표 상의 문항 번호와 일치하지 않음

제 II 장

조사 결과 분석

1. 주관적 웰빙 및 일상생활 만족도
2. 건강
3. 부모와의 관계 및 지원 기대 인식
4. 참여·권리 및 사회의식
5. 학습과 활동
6. 진로 및 직업탐색
7. 사회진입 및 이행

제 II 장

조사 결과 분석

1. 주관적 웰빙 및 일상생활 만족도

1-1. 주관적 웰빙

- 전체 청소년(9-24세)의 주관적 웰빙 인식 수준은 10점 중 6.97점으로, '20년(6.77점) 대비 소폭 상승함.
- 주관적 웰빙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긍정 정서, 부정 정서, 삶의 만족도) 중 긍정 정서와 삶의 만족도는 엔데믹 이후 증가하고, 부정 정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거나 코로나 이전 수준만큼 개선된 것은 아님.
- 연령대별 비교해 보면, 19세를 기점으로 차이를 보임. 즉, 9-12세, 13-18세 청소년은 긍정 정서와 삶의 만족도는 감소하고 부정 정서는 증가하는 반면, 19-24세 후기 청소년은 긍정 정서와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고 부정 정서는 감소하는 긍정적인 변화 경향을 보임.
- 특성별 비교해보면, 9-12세 저연령 청소년,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의 집단에서 긍정 정서 및 삶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연령대가 높은 고등학생과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 집단이 부정 정서가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으로 나타남.
- 학업중단 경험여부에 따라 비교해보면, 학업중단 유경험 청소년들의 주관적 웰빙 수준(6.79 점)이 경험 없는 청소년(6.87점)보다 낮음.

○ 0~10점 척도로 측정한 전체 청소년(9세-24세)의 주관적 웰빙 인식 수준은 6.97점으로 '20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코로나 이전인 '17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함.

- 엔데믹 이후 주관적 웰빙 인식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긍정 정서, 부정 정서, 삶의 만족도) 중 긍정 정서 및 삶의만족도는 증가하였고, 부정 정서는 감소한 경향으로 나타남.
-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19-24세 청소년의 주관적 웰빙 수준의 긍정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보임.

- 연령대별로 비교해 보면, 18세 미만 집단은 코로나 이전 시기보다 긍정 정서 및 삶의 만족도 점수가 낮아지고, 부정 정서 점수는 높아진 반면, 19-24세 집단은 긍정 정서 및 삶의 만족도 점수가 높아지고, 부정 정서 점수가 낮아짐.
 - 9-12세 청소년의 주관적 웰빙 인식 수준은 '17년 7.57점에서 '20년 7.23점으로 감소했으나, '23년에는 약간 증가하여 7.30점임. 하위요소별로는 삶의 만족도와 긍정 정서는 '17년보다 낮아졌고, 부정 정서는 높아짐.
 - 13-18세 청소년의 주관적 웰빙 인식 수준은 '17년 6.96점에서 '23년 6.82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함. 하위요소별로는 긍정 정서는 감소하고, 부정 정서는 증가함.
 - 19-24세 청소년의 주관적 웰빙 인식 수준은 '17년 6.76점, '20년 6.52점에서 '23년에는 6.92점으로 증가함. 이들은 삶의 만족도와 긍정 정서가 높아지고 부정 정서가 낮아짐.
- 주관적 웰빙 점수가 높은 집단은 9-12세 청소년(7.30점), 초등학생(7.31점), 월 소득 600만원 이상 청소년(7.20점)이었으며, 낮은 집단은 고등학생(6.64점)과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6.65점)으로 나타남.
 - 9-12세 청소년(7.30점)은 13-24세 청소년에 비해 주관적 웰빙 수준이 높음.
 - 학교급 및 재학 여부별로는 초등학생(7.31점)이 가장 높고, 고등학생(6.64점),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6.65점)이 가장 낮음.
 - 가구 특성에 따라서는 대도시 거주 청소년(7.12점), 월 소득 600만원 이상 가구의 청소년(7.20점)이 주관적 웰빙 수준이 높음.
- 학업 중단 경험에 따라 주관적 웰빙 수준에 차이를 보여, 학업 중단 유경험 청소년(6.79점)은 학업 무경험 청소년(6.87점)보다 주관적 웰빙 수준이 낮음.
 - 학업 중단 경험에 따른 주관적 웰빙 차이는 13-18세 청소년에게서 두드러짐. 13-18세 청소년 중 학업 중단 유경험자의 주관적 웰빙 수준은 5.97점으로, 중단 무경험자(6.82점)보다 0.85점 낮음.
 - 19-24세 청소년들의 학업 중단 경험에 따른 주관적 웰빙 수준 차이는 0.01점으로 거의 없음.

표 II-1

주관적 웰빙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주관적 웰빙 (0-10점)				삶의 만족도 (0-10점)				긍정 정서 (0-10점)				부정 정서 (0-10점)			
			전체	9-12세	13-18세	19-24세	전체	9-12세	13-18세	19-24세	전체	9-12세	13-18세	19-24세	전체	9-12세	13-18세	19-24세
연도별	2017	7,676	6.99	7.57	6.96	6.76	6.75	7.39	6.77	6.46	6.99	7.44	6.95	6.83	2.89	2.22	2.92	3.15
	2020	7,170	6.77	7.23	6.84	6.52	6.59	6.99	6.67	6.35	6.85	7.20	6.91	6.66	3.21	2.62	3.15	3.54
	2023	7,423	6.97	7.30	6.82	6.92	6.87	7.19	6.72	6.81	7.04	7.30	6.89	7.01	3.04	2.66	3.21	3.12
청소년 성별	남자	3,837	6.96	7.31	6.79	6.89	6.85	7.18	6.70	6.78	7.01	7.31	6.87	6.96	3.05	2.62	3.24	3.13
	여자	3,586	6.99	7.28	6.84	6.95	6.89	7.21	6.73	6.85	7.06	7.30	6.91	7.05	3.04	2.71	3.17	3.11
학교급 및 재학 여부	초등학교	1,626	7.31	7.32	6.84	-	7.21	7.22	6.93	-	7.31	7.32	6.82	-	2.64	2.63	3.18	-
	중학교	1,354	6.99	7.02	6.98	-	6.86	6.92	6.85	-	7.00	7.10	6.99	-	2.97	3.00	2.97	-
	고등학교	1,264	6.64	-	6.64	6.56	6.57	-	6.57	6.52	6.76	-	6.77	6.66	3.46	-	3.46	3.51
	대학교	2,608	6.99	-	7.10	6.98	6.89	-	6.87	6.90	7.09	-	7.30	7.08	3.07	-	2.98	3.08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	570	6.65	-	5.85	6.66	6.46	-	5.71	6.48	6.67	-	5.72	6.69	3.28	-	3.95	3.27
거주 지역	대도시	3,124	7.12	7.57	6.96	7.01	6.99	7.40	6.81	6.93	7.12	7.50	6.97	7.04	2.82	2.28	2.98	2.98
	중소도시	3,263	6.85	7.11	6.72	6.81	6.74	7.04	6.66	6.65	6.98	7.20	6.86	6.96	3.23	2.96	3.38	3.27
	농산어촌	1,036	6.93	7.14	6.72	6.98	6.89	7.10	6.65	6.98	6.97	7.11	6.76	7.07	3.09	2.82	3.29	3.11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418	6.77	6.99	5.99	6.91	6.67	6.94	6.14	6.75	6.87	6.92	6.04	7.04	3.28	2.92	4.13	3.14
	200~400만원 미만	1,392	6.73	7.11	6.57	6.57	6.61	7.00	6.39	6.49	6.77	7.11	6.62	6.62	3.24	2.83	3.39	3.43
	400~600만원 미만	3,654	6.96	7.27	6.82	6.89	6.89	7.18	6.75	6.83	7.07	7.31	6.93	7.04	3.11	2.71	3.26	3.22
	600만원 이상	1,959	7.20	7.57	7.04	7.18	7.07	7.47	6.91	7.02	7.21	7.55	7.06	7.18	2.73	2.35	2.91	2.75
가구 형태	양부모	6,607	6.98	7.31	6.84	6.89	6.88	7.21	6.74	6.81	7.05	7.32	6.92	6.99	3.04	2.65	3.18	3.16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372	6.76	6.97	6.21	7.02	6.60	6.84	6.14	6.78	6.79	6.92	6.33	7.03	3.19	2.92	3.87	2.88

* 주: 1) 주관적 웰빙의 하위 변인인 삶의 만족도, 긍정 정서, 부정 정서를 측정하기 위한 개별 문항의 평균은 다음과 같으며, 개별 문항별 응답항목 빈도는 기초통계표 참고

- 삶의 만족도(1문항) : '요즘 자신의 삶(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평균 6.87점)'
- 긍정 정서(2문항) : '어제 어느 정도 행복했다고 생각합니까?(평균 7.19점)', '요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까?(평균 6.89점)'
- 부정 정서(2문항) : '어제 어느 정도 근심 또는 걱정을 하였습니까?(평균 3.36점)', '어제 어느 정도 우울하였습니까?(평균 2.73점)'

* 자료: 백혜정 외 (2017).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김기현 외 (20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표 II-2

학업중단 여부에 따른 주관적 웰빙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주관적 웰빙		
			전체	13-18세	19-24세
학업중단 여부	중단경험 있음	33	6.79	5.97	6.91
	중단경험 없음	5,647	6.87	6.82	6.92

1-2. 일상생활 만족도

- 0~10점으로 측정한 '23년 전체 청소년(9-24세)의 일상생활 만족도 점수는 평균 7.37점으로 '20년 대비(7.62점) 대비 낮아짐.
- 연령대별로는 9-12세가 7.62점으로 전체 평균보다 높고, 13-18세(7.30점)과 19-24세(7.30점)는 전체 평균보다 낮음.
- 측정 항목별로 비교해 보면, 12개의 항목 모두에서 '20년 대비 낮아졌으며, 특히 가족관계, 나의 건강, 생활에서의 안전 측면에서의 만족도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큼.
- 특성별로 비교해 보면,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고, 400만원 미만인 집단에서 상대적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0~10점으로 측정한 '23년 전체 청소년(9-24세)의 일상생활 만족도 점수는 평균 7.37점으로 '20년 대비(7.62점) 대비 낮아짐. 특히 13-18세의 일상생활 만족도의 감소폭이 큼.
 - 모든 연령대에서 일상생활 만족도가 '20년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확인됨.
 - 특히 13-18세 청소년이 일상생활 만족도가 '20년 7.64점에서 '23년 7.30점으로 0.34점 감소하여, 9-12세, 19-24세 청소년에 비해 일상생활 만족도가 가장 많이 낮아짐.
- 연령대별로는 9-12세(7.62점)의 일상생활 만족도는 13-18세(7.30점), 19-24세(7.30점)의 일상생활 만족도보다 높음. 만족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나의 건강이었으며, 가장 낮은 항목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물건임.
 - 9-12세, 13-18세, 19-24세 청소년 모두 나의 건강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가족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
 - 일상생활 만족도 12개 항목 중 만족도가 가장 낮은 항목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물건이었으며, 나의 외모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
- 일상생활 만족도 12개의 항목 모두 '20년 대비 낮아졌으며, 특히 가족관계, 나의 건강, 생활에서의 안전 측면에서의 만족도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큼.
 - 일상생활 만족도 12가지 항목 중 가족과의 관계, 나의 건강, 생활에서의 안전은 '20년에 비해 가장 많이 감소한 항목으로 나타남.
 - 한편, 13-18세에서는 나의 자유시간, 19-24세에서는 생활에서의 안전에 대한 만족도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큼.

- 청소년 특성, 가구 특성별 일상생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학교급 및 재학여부와 가구소득에 따른 일상생활 만족도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확인됨.
- 학교급 및 재학 여부에 따라서는 초등학생이 7.62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이 7.06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임.
 -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400만원을 기점으로 일상생활 만족도 점수가 높아지는 차이가 나타남.

표 11-3 일상생활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일상생활 만족도(0-10점)			
			전체	9-12세	13-18세	19-24세
연도별	2020	7,170	7.62	7.87	7.64	7.49
	2023	7,423	7.37	7.62	7.30	7.30
청소년 성별	남자	3,837	7.36	7.61	7.29	7.29
	여자	3,586	7.39	7.63	7.31	7.31
학교급 및 재학여부	초등학교	1,626	7.62	7.63	7.22	-
	중학교	1,354	7.37	7.51	7.35	-
	고등학교	1,264	7.23	-	7.25	6.71
	대학교	2,608	7.36	-	7.42	7.36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	570	7.06	-	6.36	7.08
거주 지역	대도시	3,124	7.46	7.74	7.42	7.35
	중소도시	3,263	7.29	7.52	7.22	7.21
	농산어촌	1,036	7.40	7.58	7.22	7.45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418	7.10	7.37	6.67	7.16
	200~400만원 미만	1,392	7.10	7.41	7.00	6.95
	400~600만원 미만	3,654	7.37	7.60	7.31	7.28
	600만원 이상	1,959	7.63	7.90	7.53	7.59
가구 형태	양부모	6,607	7.39	7.63	7.32	7.31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372	7.19	7.35	6.84	7.34

* 주: 1) 일상생활 만족도는 2020년부터 측정함.

* 자료: 김기현 외 (20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표 II-4 일상생활 만족도(12개 항목)

(단위: 명, 점)

구분	전체		9-12세		13-18세		19-24세	
	2020	2023	2020	2023	2020	2023	2020	2023
가족과의 관계	8.05	7.71	8.33	8.02	8.1	7.62	7.88	7.62
내가 사는 집	7.68	7.43	7.99	7.74	7.79	7.42	7.47	7.27
내 삶에서 선택의 자유	7.65	7.40	7.79	7.52	7.62	7.28	7.60	7.44
친구들과의 관계	7.83	7.63	7.98	7.82	7.83	7.58	7.75	7.56
내가 다니는 학교	7.55	7.36	7.84	7.67	7.56	7.26	7.38	7.25
나의 외모	7.29	7.06	7.54	7.31	7.23	6.97	7.22	6.99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물건	6.98	6.78	7.28	7.09	6.95	6.75	6.86	6.62
나의 건강	8.16	7.85	8.36	8.04	8.22	7.82	8.04	7.77
나의 미래	7.47	7.31	7.82	7.59	7.51	7.25	7.28	7.19
나의 자유시간	7.58	7.38	7.73	7.49	7.55	7.14	7.54	7.52
우리 동네	7.55	7.30	7.82	7.58	7.59	7.25	7.40	7.18
생활에서의 안전	7.65	7.30	7.91	7.53	7.69	7.27	7.50	7.20

* 주: 1) 일상생활 만족도는 2020년부터 측정한 항목임.

* 자료: 김기현 외 (20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1-3. 코로나로 인한 삶의 변화

① 코로나로 인한 삶의 변화

- 9-24세 청소년 중 절반 가량은 코로나로 인해 삶의 변화가 없다고 응답함. 다만, '20년 대비 전반적인 생활, 가족 및 친구관계, 학교생활, 사회 신뢰, 진로 및 취업 전망 등이 코로나로 인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는 응답은 증가함.
- 연령별로는 18세 이하 청소년이 19-24세보다 코로나로 인한 변화를 더 긍정적으로 인식함.
- 특성별로는 중학생,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청소년이 코로나로 인한 변화를 보다 긍정적으로,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은 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함. 농산어촌 청소년은 전반적인 생활, 학교생활, 진로 및 취업 전망에서 코로나로 인해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인식함.
- 측정항목별로 살펴보면, 청소년들은 코로나로 인해 가족 관계(32.1%)가 가장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응답했으며, 사회에 대한 신뢰(28.9%)는 가장 부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응답함.

- 전체 청소년(9-24세)을 대상으로 코로나로 인한 변화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청소년들은 전반적인 생활, 가족관계, 친구관계, 학교생활, 사회에 대한 신뢰, 진로 및 취업 전망 등 6개 영역에서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느끼는 비율이 '20년 대비 증가함.
 - 전반적인 생활, 가족관계, 친구관계, 학교생활, 사회에 대한 신뢰,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전망 등 6개 영역에서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는 비율은 '20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다는 비율은 '20년 대비 감소함.
 - 엔데믹의 전환과 함께 청소년들이 코로나로 인한 생활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짐.
- 연령별로는 18세 이하 청소년이 19-24세 청소년보다 코로나로 인한 삶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9-12세 청소년은 13-18세, 19-24세에 비해 코로나로 인한 전반적인 생활, 가족관계, 친구관계의 변화를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음.
 - 코로나로 인한 학교생활의 변화에 대한 인식은 13-18세 청소년이 9-12세, 19-24세 청소년보 긍정적인 변화(30.0%)와 부정적인 변화(22.4%)를 모두 높게 인식함.
 - 코로나로 인한 사회에 대한 신뢰, 진로 및 취업 전망의 변화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19-24세 청소년이 13-18세 청소년보다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는 응답 비율이 낮고, 부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 비율이 높음.

- 특성별로 코로나로 인한 삶의 변화를 인식하는 경향에 차이가 있음.
 - 학교급 및 재학여부별로 살펴보면 중학생이 코로나로 인해 전반적인 생활, 친구관계, 학교생활, 사회에 대한 신뢰,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이 부정적으로 변했다고 인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가 400만원 미만인 경우에 비해 코로나로 인한 삶의 변화를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농산어촌 지역 청소년은 대도시, 중소도시 청소년에 비해 코로나로 인해 전반적인 생활, 학교생활, 진로 및 취업에 대한 변화를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함.
- 항목별로 살펴보면, 청소년들은 코로나로 인해 가족관계(32.1%)가 가장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응답했으며, 사회에 대한 신뢰(28.9%)는 가장 부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응답함.
 - 가족관계(변화 없음: 63.5%, 긍정적으로 변화함: 32.1%), 친구관계(변화 없음: 57.0%, 긍정적으로 변화함: 31.5%), 전반적인 생활(변화 없음: 58.5%, 긍정적으로 변화함: 29.6%)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변화가 없거나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즉, 청소년 10명 중 약 9명이 코로나로 인해 가족관계, 친구관계, 전반적인 생활이 변화가 없거나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인식함.
 - 사회에 대한 신뢰와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전망에 있어서는 코로나로 인해 부정적으로 변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11-5 코로나로 인한 삶의 변화 : 전반적인 생활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체			9-12세			13-18세			19-24세		
			부정적으로 변화함	변화 없음	긍정적으로 변화함	부정적으로 변화함	변화 없음	긍정적으로 변화함	부정적으로 변화함	변화 없음	긍정적으로 변화함	부정적으로 변화함	변화 없음	긍정적으로 변화함
연도별	2020	7,170	30.4	56.1	13.4	22.5	62.8	14.8	26.8	58.6	14.6	36.7	51.3	12.0
	2023	7,423	11.9	58.5	29.6	9.3	58.4	32.2	11.7	57.6	30.7	13.4	59.4	27.2
청소년 성별	남자	3,837	12.0	58.6	29.4	10.2	58.6	31.1	11.5	58.5	30.0	13.4	58.6	28.0
	여자	3,586	11.7	58.5	29.8	8.4	58.2	33.3	11.9	56.5	31.6	13.4	60.3	26.3
학교급 및 재학여부	초등학교	1,626	9.5	58.8	31.7	9.5	59.0	31.5	11.5	50.7	37.8	-	-	-
	중학교	1,354	9.9	57.2	32.9	8.1	52.7	39.2	10.1	57.8	32.1	-	-	-
	고등학교	1,264	12.9	57.4	29.7	-	-	-	13.0	57.5	29.5	12.1	54.6	33.3
	대학교	2,608	12.2	59.7	28.0	-	-	-	13.3	59.2	27.5	12.2	59.8	28.0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	570	19.1	58.1	22.9	-	-	-	26.7	48.9	24.4	18.9	58.2	22.8
거주지역	대도시	3,124	10.8	60.2	29.0	7.5	58.4	34.0	10.5	60.4	29.1	12.6	61.0	26.4
	중소도시	3,263	12.5	59.0	28.5	10.5	58.1	31.4	12.7	56.6	30.6	13.4	61.6	25.1
	농산어촌	1,036	13.2	51.9	34.9	10.5	59.3	30.1	11.8	52.7	35.4	16.9	44.7	38.4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18	15.5	57.6	26.9	3.4	68.6	27.9	14.1	56.5	29.4	17.2	56.5	26.3
	200~400만원 미만	1,392	12.7	58.8	28.4	8.6	61.6	29.9	10.3	55.9	33.8	18.0	59.3	22.7
	400~600만원 미만	3,654	11.5	61.8	26.7	10.3	60.8	28.9	11.7	62.5	25.7	11.9	61.8	26.2
	600만원 이상	1,959	11.2	52.4	36.4	8.4	48.4	43.2	12.2	49.9	37.9	11.6	56.4	32.0
가구형태	양부모	6,607	11.3	58.6	30.1	9.4	57.9	32.7	11.7	57.7	30.6	12.2	60.0	27.9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372	10.2	60.2	29.5	7.8	69.1	23.1	11.8	55.4	32.8	10.4	59.3	30.3

* 주: 1) 리커트 척도의 항목별 응답 빈도(매우 부정적으로 변화함, 부정적으로 변화함, 변화 없음, 긍정적으로 변화함,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함)는 기초통계표 참고

* 자료: 김기현 외 (20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표 11-6

코로나로 인한 삶의 변화 : 가족관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체			9-12세			13-18세			19-24세		
			부정적으로 변화함	변화 없음	긍정적으로 변화함	부정적으로 변화함	변화 없음	긍정적으로 변화함	부정적으로 변화함	변화 없음	긍정적으로 변화함	부정적으로 변화함	변화 없음	긍정적으로 변화함
연도별	2020	7,170	9.6	68.3	22.1	7.0	70.0	23.0	9.6	68.1	22.3	10.7	67.6	21.7
	2023	7,423	4.4	63.5	32.1	3.9	60.7	35.4	4.3	63.2	32.5	4.9	65.3	29.9
청소년 성별	남자	3,837	4.7	63.7	31.6	4.1	60.8	35.2	4.2	63.9	31.9	5.5	65.2	29.3
	여자	3,586	4.1	63.2	32.6	3.7	60.6	35.7	4.4	62.4	33.1	4.1	65.4	30.5
학교급 및 재학여부	초등학교	1,626	4.0	61.3	34.7	4.0	61.0	35.0	4.4	74.9	20.6	-	-	-
	중학교	1,354	3.9	61.0	35.1	2.9	58.0	39.1	4.0	61.4	34.6	-	-	-
	고등학교	1,264	5.5	63.3	31.2	-	-	-	4.8	63.9	31.3	21.6	50.3	28.1
	대학교	2,608	4.4	64.6	30.9	-	-	-	1.5	71.2	27.2	4.5	64.4	31.1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	570	4.7	70.7	24.5	-	-	-	7.6	67.9	24.4	4.7	70.8	24.5
거주지역	대도시	3,124	3.0	62.4	34.6	1.8	58.4	39.8	2.3	64.2	33.6	4.1	63.1	32.8
	중소도시	3,263	6.0	64.8	29.2	5.1	61.6	33.3	6.5	63.0	30.5	6.1	68.2	25.8
	농산어촌	1,036	3.9	62.5	33.6	5.8	63.7	30.5	3.2	61.2	35.6	3.2	62.8	34.1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18	4.0	70.2	25.8	7.9	59.7	32.5	8.4	64.3	27.3	2.6	72.7	24.7
	200~400만원 미만	1,392	6.7	66.7	26.5	4.7	68.1	27.2	5.3	66.4	28.2	9.5	65.9	24.6
	400~600만원 미만	3,654	4.6	63.4	32.0	4.2	59.9	35.9	4.2	64.9	30.9	5.1	64.4	30.5
	600만원 이상	1,959	2.7	59.9	37.5	1.8	54.8	43.4	3.4	58.1	38.5	2.4	63.7	33.9
가구형태	양부모	6,607	4.4	62.6	32.9	3.7	60.4	35.9	4.3	63.3	32.4	5.1	63.5	31.5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372	3.8	66.3	29.9	8.6	66.9	24.6	5.1	60.6	34.3	0.7	69.8	29.5

* 주: 1) 리커트 척도의 항목별 응답 빈도(매우 부정적으로 변화함, 부정적으로 변화함, 변화 없음, 긍정적으로 변화함,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함)는 기초통계표 참고

* 자료: 김기현 외 (20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표 11-7

코로나로 인한 삶의 변화 : 친구관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체			9-12세			13-18세			19-24세		
			부정적으로 변화함	변화 없음	긍정적으로 변화함	부정적으로 변화함	변화 없음	긍정적으로 변화함	부정적으로 변화함	변화 없음	긍정적으로 변화함	부정적으로 변화함	변화 없음	긍정적으로 변화함
연도별	2020	7,170	26.6	57.9	15.4	26.9	58.1	15.0	27.1	56.3	16.6	26.2	58.9	14.9
	2023	7,423	11.6	57.0	31.5	12.7	53.3	34.0	11.2	55.4	33.4	11.2	60.3	28.5
청소년 성별	남자	3,837	11.5	57.4	31.0	13.2	54.2	32.6	11.4	55.4	33.2	10.6	60.9	28.4
	여자	3,586	11.6	56.5	31.9	12.1	52.4	35.5	11.0	55.4	33.6	11.9	59.6	28.5
학교급 및 재학여부	초등학교	1,626	12.8	53.7	33.5	12.8	53.4	33.8	13.5	63.7	22.8	-	-	-
	중학교	1,354	11.4	52.1	36.5	11.4	51.8	36.8	11.5	52.1	36.4	-	-	-
	고등학교	1,264	11.5	56.8	31.7	-	-	-	11.3	57.3	31.4	17.1	45.9	37.0
	대학교	2,608	10.1	59.9	30.0	-	-	-	5.3	68.8	26.0	10.3	59.5	30.2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	570	15.1	65.1	19.8	-	-	-	23.4	58.5	18.1	14.9	65.2	19.9
거주지역	대도시	3,124	12.6	54.7	32.7	11.9	49.9	38.3	12.5	52.0	35.5	13.0	59.2	27.8
	중소도시	3,263	11.0	58.9	30.2	12.9	55.3	31.9	11.2	57.2	31.6	9.7	62.3	28.0
	농산어촌	1,036	10.4	57.6	32.0	14.1	56.2	29.6	7.8	59.2	33.0	10.0	57.2	32.8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18	10.4	62.3	27.3	7.5	57.6	34.9	11.4	57.6	31.0	10.6	63.9	25.6
	200~400만원 미만	1,392	14.5	56.7	28.8	14.6	54.7	30.7	12.5	54.9	32.5	16.0	59.9	24.1
	400~600만원 미만	3,654	12.3	56.7	31.0	13.4	55.4	31.2	12.9	55.9	31.2	11.1	58.2	30.7
	600만원 이상	1,959	8.3	56.5	35.1	9.4	46.3	44.3	7.3	54.7	38.1	8.8	62.8	28.4
가구형태	양부모	6,607	11.7	56.1	32.2	12.9	52.7	34.5	11.3	55.4	33.3	11.3	59.0	29.7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372	8.7	61.2	30.1	9.0	65.9	25.1	9.2	56.0	34.8	8.2	62.4	29.4

* 주: 1) 리커트 척도의 항목별 응답 빈도(매우 부정적으로 변화함, 부정적으로 변화함, 변화 없음, 긍정적으로 변화함,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함)는 기초통계표 참고

* 자료: 김기현 외 (20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표 II-8

코로나로 인한 삶의 변화 : 학교생활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체				9-12세				13-18세				19-24세			
			부정적 으로 변화함	변화 없음	긍정적 으로 변화함	해당 없음	부정적 으로 변화함	변화 없음	긍정적 으로 변화함	해당 없음	부정적 으로 변화함	변화 없음	긍정적 으로 변화함	해당 없음	부정적 으로 변화함	변화 없음	긍정적 으로 변화함	해당 없음
연도별	2020	7,170	48.4	40.1	11.4	-	47.2	41.0	11.8	-	47.3	40.7	11.9	-	49.8	39.2	11.0	-
	2023	7,423	19.2	46.4	26.8	7.6	18.0	52.2	29.8	-	22.4	47.2	30.0	0.5	17.2	42.5	22.5	17.8
청소년 성별	남자	3,837	19.1	47.1	26.9	6.9	19.3	51.5	29.1	-	21.9	47.1	30.5	0.5	16.7	44.6	22.7	16.0
	여자	3,586	19.2	45.7	26.7	8.4	16.7	52.8	30.5	-	22.9	47.3	29.4	0.4	17.6	40.3	22.3	19.8
학교급 및 재학 여부	초등학교	1,626	17.9	52.4	29.6	-	17.9	52.6	29.6	-	20.8	47.2	32.0	-	-	-	-	-
	중학교	1,354	21.0	46.2	32.7	-	20.0	48.2	31.8	-	21.2	46.0	32.8	-	-	-	-	-
	고등학교	1,264	23.0	48.1	28.9	-	-	-	-	-	23.3	48.1	28.5	-	15.3	46.8	37.9	-
	대학교	2,608	21.3	51.9	26.8	-	-	-	-	-	28.3	55.0	16.7	-	21.0	51.8	27.2	-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	570	-	0.5	-	99.5	-	-	-	-	-	-	-	100.0	-	0.5	-	99.5
거주 지역	대도시	3,124	19.0	45.8	28.3	6.9	15.2	51.4	33.4	-	23.0	45.1	31.4	0.5	17.8	43.6	23.4	15.2
	중소도시	3,263	19.4	48.0	24.3	8.3	20.5	53.3	26.3	-	22.7	49.8	27.1	0.4	16.1	43.5	20.9	19.5
	농산어촌	1,036	18.9	43.1	30.2	7.7	18.5	51.2	30.3	-	19.7	45.0	34.7	0.6	18.5	34.2	25.5	21.9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418	17.7	51.4	19.5	11.3	4.9	68.6	26.5	-	19.8	50.0	28.2	2.1	18.8	49.7	16.8	14.7
	200~400만원 미만	1,392	18.9	43.5	25.2	12.4	17.8	55.0	27.2	-	20.6	44.6	33.3	1.5	18.3	33.5	16.7	31.5
	400~600만원 미만	3,654	19.9	48.0	26.7	5.4	19.3	52.6	28.1	-	22.6	50.0	27.3	0.1	18.0	43.2	25.3	13.6
	600만원 이상	1,959	18.2	44.4	29.7	7.7	16.7	46.5	36.9	-	23.3	43.5	32.9	0.2	14.5	44.3	23.5	17.7
가구 형태	양부모	6,607	19.7	46.8	27.8	5.7	18.3	51.5	30.2	-	22.6	47.4	29.7	0.3	17.8	43.1	24.4	14.7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372	12.9	46.7	25.7	14.7	12.4	65.6	22.0	-	18.8	42.7	35.4	3.1	9.3	40.7	21.1	28.9

* 주: 1) 리커트 척도의 항목별 응답 빈도(매우 부정적으로 변화함, 부정적으로 변화함, 변화 없음, 긍정적으로 변화함,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함, 해당없음)는 기초통계표 참고

2) '해당 없음'은 응답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 2020년에는 해당 없음을 제외한 비율을, 2023년에는 해당 없음을 포함한 비율을 제시함.

* 자료: 김기현 외 (20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표 11-9 코로나로 인한 삶의 변화 : 사회에 대한 신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체			13~18세			19~24세		
			부정적으로 변화함	변화 없음	긍정적으로 변화함	부정적으로 변화함	변화 없음	긍정적으로 변화함	부정적으로 변화함	변화 없음	긍정적으로 변화함
연도별	2020	7,170	43.7	48.0	8.3	42.3	49.5	8.3	48.3	43.5	8.1
	2023	5,680	28.9	49.3	21.8	26.3	50.1	23.6	31.1	48.7	20.2
청소년 성별	남자	2,942	29.6	48.6	21.8	27.3	48.8	23.9	31.4	48.5	20.1
	여자	2,737	28.3	50.0	21.7	25.2	51.4	23.3	30.8	48.9	20.3
학교급 및 재학여부	초등학교	37	18.4	63.2	18.5	18.4	63.2	18.5	-	-	-
	중학교	1,200	24.7	49.5	25.8	24.7	49.5	25.8	-	-	-
	고등학교	1,264	27.4	49.4	23.1	27.8	49.5	22.7	20.3	47.6	32.1
	대학교	2,608	30.2	49.1	20.7	29.3	57.1	13.6	30.2	48.8	21.0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	570	36.2	48.6	15.2	41.1	58.9	0.0	36.1	48.4	15.5
거주지역	대도시	2,430	30.6	50.7	18.7	27.8	51.6	20.7	32.7	50.1	17.2
	중소도시	2,511	28.9	47.4	23.7	26.1	47.8	26.1	31.2	47.1	21.7
	농산어촌	738	23.5	51.3	25.2	22.8	53.0	24.2	24.2	49.6	26.2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381	29.2	52.3	18.6	27.1	56.3	16.7	29.6	51.4	19.0
	200~400만원 미만	979	29.7	50.2	20.1	22.5	55.6	21.9	35.8	45.6	18.6
	400~600만원 미만	2,744	29.0	49.8	21.1	27.4	50.8	21.8	30.5	48.9	20.6
	600만원 이상	1,576	28.2	47.1	24.6	26.6	44.7	28.7	29.6	49.3	21.1
가구형태	양부모	4,945	28.6	49.1	22.3	26.5	49.8	23.7	30.6	48.5	20.9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291	27.3	50.7	22.0	21.4	56.7	21.8	31.1	46.8	22.1

* 주: 1) 리커트 척도의 항목별 응답 빈도(매우 부정적으로 변화함, 부정적으로 변화함, 변화 없음, 긍정적으로 변화함,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함)는 기초통계표 참고

2) 이 문항은 20년도에는 9~24세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23년도에는 13~24세를 대상으로 조사함. 2020년 전체값은 9~24세의 결과임.

* 자료: 김기현 외 (20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표 11-10 코로나로 인한 삶의 변화 :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전망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체			13-18세			19-24세		
			부정적으로 변화함	변화 없음	긍정적으로 변화함	부정적으로 변화함	변화 없음	긍정적으로 변화함	부정적으로 변화함	변화 없음	긍정적으로 변화함
연도별	2020	7,170	41.6	51.3	7.0	38.5	54.4	7.1	50.4	42.8	6.8
	2023	5,680	23.6	56.1	20.3	18.4	59.2	22.4	27.8	53.6	18.6
청소년 성별	남자	2,942	23.0	57.0	19.9	17.6	60.2	22.3	27.5	54.5	18.0
	여자	2,737	24.2	55.1	20.7	19.3	58.2	22.5	28.2	52.6	19.2
학교급 및 재학여부	초등학교	37	4.9	77.4	17.7	4.9	77.4	17.7	-	-	-
	중학교	1,200	14.8	60.2	25.0	14.8	60.2	25.0	-	-	-
	고등학교	1,264	21.3	57.5	21.2	21.0	58.4	20.7	29.4	38.3	32.3
	대학교	2,608	26.7	54.1	19.3	31.8	51.8	16.4	26.5	54.2	19.4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	570	34.1	52.4	13.5	46.7	53.3	0.0	33.9	52.4	13.8
거주지역	대도시	2,430	23.4	59.6	17.0	18.2	62.5	19.3	27.2	57.4	15.3
	중소도시	2,511	24.8	53.0	22.3	19.6	55.9	24.5	29.1	50.5	20.4
	농산어촌	738	20.4	55.3	24.4	15.5	60.1	24.4	25.5	50.1	24.4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381	31.1	52.9	16.0	16.1	64.6	19.3	34.3	50.4	15.3
	200~400만원 미만	979	29.1	53.1	17.8	20.8	58.9	20.4	36.2	48.2	15.6
	400~600만원 미만	2,744	22.4	57.5	20.0	19.7	60.8	19.5	24.9	54.6	20.5
	600만원 이상	1,576	20.4	56.2	23.4	14.8	56.0	29.1	25.2	56.4	18.4
가구형태	양부모	4,945	22.6	56.5	20.9	18.2	59.3	22.5	26.8	53.8	19.4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291	25.5	56.2	18.3	23.0	57.3	19.7	27.1	55.6	17.3

* 주: 1) 리커트 척도의 항목별 응답 빈도(매우 부정적으로 변화함, 부정적으로 변화함, 변화 없음, 긍정적으로 변화함,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함)는 기초통계표 참고

2) 이 문항은 20년도에는 9-24세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23년도에는 13-24세를 대상으로 조사함. 2020년 전체값은 9-24세의 결과임.

* 자료: 김기현 외 (20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② 코로나로 인한 삶의 변화 인식에 따른 주관적 웰빙

- 코로나로 인한 전반적인 삶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한 집단(7.18점)이 변화가 없다고 인식(6.98점)하거나 부정적으로 변했다고 인식한 집단(6.42점)보다 주관적 웰빙 수준이 높음.

- 코로나로 인한 전반적인 삶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주관적 웰빙 수준이 높음.
 - 코로나로 인한 전반적인 삶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한 집단(7.18점)이 변화가 없다고 인식(6.98점)하거나 부정적으로 변했다고 인식한 집단(6.42점)보다 주관적 웰빙 수준이 높음.
- 연령별 코로나로 인한 삶의 변화 인식에 따른 주관적 웰빙에는 다소 차이가 있음.
 - 9-12세 청소년들은 긍정적인 변화(7.33점)와 변화가 없음을 느낀 집단(7.36점)이 비슷한 주관적 웰빙 수준을 보였고, 부정적으로 변화했다고 느낀 집단(6.81점)의 웰빙 수준은 낮음.
 - 13-18세 및 19-24세 청소년들은 전반적인 생활이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인식한 집단의 주관적 웰빙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변화 없음과 부정적 변화함 순으로 나타남.

표 11-11 코로나로 인한 삶의 변화 인식에 따른 주관적 웰빙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주관적 웰빙			
			전체	9-12세	13-18세	19-24세
코로나로 인한 삶의 변화 : 전반적인 생활	긍정적으로 변화함	2,197	7.18	7.33	7.09	7.17
	변화 없음	4,346	6.98	7.36	6.79	6.92
	부정적으로 변화함	880	6.42	6.81	6.22	6.40

③ 코로나로 인한 삶의 변화 인식에 따른 일상생활 만족도

- 코로나로 인한 삶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한 집단이 일상생활 만족도가 높음.
- 구체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가족관계의 변화, 친구관계의 변화, 학교생활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한 집단이 각각 가족관계의 만족도, 친구관계 만족도, 학교 만족도가 높음.
- 코로나로 인한 전반적인 생활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내 삶에서 선택의 자유, 나의 건강, 나의 미래, 나의 자유 시간, 생활에서의 안전 등의 일상생활 만족도가 높음.

○ 코로나로 인한 가족관계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한 청소년의 가족관계 만족도가 가장 높음. 연령별로도 유사한 경향을 보임.

- 코로나로 인한 가족관계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한 집단(8.02점)이 변화가 없다고 인식(7.64점)하거나 부정적으로 변했다고 인식한 집단(7.64점)에 비해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음.
- 9-12세 : 긍정적으로 변화함(8.23점) > 변화 없음(7.98점), 부정적으로 변화함(7.98점)
- 13-18세 : 긍정적으로 변화함(7.95점) > 변화 없음(7.52점), 부정적으로 변화함(7.52점)
- 19-24세 : 긍정적으로 변화함(7.93점) > 변화 없음(7.56점), 부정적으로 변화함(7.56점)

표 11-12 코로나로 인한 가족관계 변화에 따른 가족관계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일상생활 만족도 : 가족관계			
			전체	9-12세	13-18세	19-24세
코로나로 인한 삶의 변화 : 가족관계	긍정적으로 변화함	2,380	8.02	8.23	7.95	7.93
	변화 없음	4,713	7.64	7.98	7.52	7.56
	부정적으로 변화함	330	7.64	7.98	7.52	7.56

○ 코로나로 인한 친구관계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친구관계 만족도가 증가함. 연령별로도 비슷한 경향을 보임.

- 코로나로 인한 친구관계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한 집단(7.88점)이 변화가 없다고 인식(7.61점)하거나 부정적으로 변했다고 인식한 집단(7.05점)에 비해 친구관계 만족도가 높음.
- 9-12세 : 긍정적으로 변화함(8.07점) > 변화 없음(7.77점) > 부정적으로 변화함(7.37점)
- 13-18세 : 긍정적으로 변화함(7.84점) > 변화 없음(7.54점) > 부정적으로 변화함(7.02점)
- 19-24세 : 긍정적으로 변화함(7.80점) > 변화 없음(7.58점) > 부정적으로 변화함(6.88점)

표 II-13 코로나로 인한 친구관계 변화에 따른 친구관계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일상생활 만족도 : 친구관계			
			전체	9-12세	13-18세	19-24세
코로나로 인한 삶의 변화 : 친구관계	긍정적으로 변화함	2,335	7.88	8.07	7.84	7.80
	변화 없음	4,229	7.61	7.77	7.54	7.58
	부정적으로 변화함	858	7.05	7.37	7.02	6.88

○ 청소년의 코로나로 인한 학교생활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학교 만족도가 증가함.

- 코로나로 인한 학교생활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한 집단(7.71점)이 변화가 없다고 인식(7.33점)하거나 부정적으로 변했다고 인식한 집단(6.96점)에 비해 학교 만족도가 높음.
- 9-12세 : 긍정적으로 변화함(8.01점) > 변화 없음(7.59점) > 부정적으로 변화함(7.34점)
- 13-18세 : 긍정적으로 변화함(7.60점) > 변화 없음(7.27점) > 부정적으로 변화함(6.79점)
- 19-24세 : 긍정적으로 변화함(7.61점) > 변화 없음(7.19점) > 부정적으로 변화함(6.92점)

표 II-14 코로나로 인한 학교생활 변화에 따른 학교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일상생활 만족도 : 학교			
			전체	9-12세	13-18세	19-24세
코로나로 인한 삶의 변화 : 학교생활	긍정적으로 변화함	2,046	7.71	8.01	7.60	7.61
	변화 없음	3,590	7.33	7.59	7.27	7.19
	부정적으로 변화함	1,487	6.96	7.34	6.79	6.92

○ 코로나로 인한 전반적인 생활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내 삶에서 선택의 자유, 나의 건강, 나의 미래, 나의 자유 시간, 생활에서의 안전 등의 일상생활 만족도가 높음.

- 내 삶에서 선택의 자유 : 긍정적으로 변화함(7.77점) > 변화 없음(7.32점) > 부정적으로 변화함(6.91점)
- 나의 건강 : 긍정적으로 변화함(8.02점) > 변화 없음(7.84점) > 부정적으로 변화함(7.50점)
- 나의 미래 : 긍정적으로 변화함(7.66점) > 변화 없음(7.23점) > 부정적으로 변화함(6.80점)
- 나의 자유시간 : 긍정적으로 변화함(7.69점) > 변화 없음(7.33점) > 부정적으로 변화함(6.90점)
- 생활에서의 안전 : 긍정적으로 변화함(7.62점) > 변화 없음(7.26점) > 부정적으로 변화함(6.73점)

표 11-15 코로나로 인한 전반적인 생활 변화 인식에 따른 일상생활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전체	9-12세	13-18세	19-24세
코로나로 인한 전반적인 삶의 변화에 따른 일상 생활 만족도	내 삶에서 선택의 자유	긍정적으로 변화함	2,197	7.77	7.88	7.70	7.77
		변화 없음	4,346	7.32	7.39	7.18	7.39
		부정적으로 변화함	880	6.91	7.08	6.67	7.02
	나의 건강	긍정적으로 변화함	2,197	8.02	8.19	7.92	8.00
		변화 없음	4,346	7.84	8.03	7.82	7.75
		부정적으로 변화함	880	7.50	7.61	7.56	7.41
	나의 미래	긍정적으로 변화함	2,197	7.66	7.79	7.60	7.64
		변화 없음	4,346	7.23	7.54	7.17	7.10
		부정적으로 변화함	880	6.80	7.22	6.75	6.68
	나의 자유 시간	긍정적으로 변화함	2,197	7.69	7.74	7.54	7.80
		변화 없음	4,346	7.33	7.45	7.07	7.46
		부정적으로 변화함	880	6.90	6.90	6.42	7.24
	생활에서의 안전	긍정적으로 변화함	2,197	7.62	7.77	7.61	7.52
		변화 없음	4,346	7.26	7.46	7.20	7.20
		부정적으로 변화함	880	6.73	7.19	6.76	6.54

1-4.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인한 삶의 변화

①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인한 삶의 변화

- 13-24세 청소년 중 51.8%가 디지털 기술로 삶이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응답했으며,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41.8%, 부정적으로 변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6.4%임.
- 연령대별로는 19-24세 청소년(54.0%)이 13-18세(49.2%)보다 디지털 기술로 인한 삶의 변화를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함.
- 특성별로는 대학생(55.2%), 농산어촌 지역의 청소년(56.0%),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청소년(57.0%)이 디지털 기술로 인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음.

- 디지털 기술로 인한 삶의 변화에 대한 13-24세 청소년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디지털 기술로 삶이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인식한 비율이 51.8%로 가장 많음.
 -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41.8%였으며, 부정적으로 변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6.4%임.
- 연령별로 살펴보면, 19-24세 청소년이 13-18세보다 디지털 기술로 인한 삶의 변화를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19-24세 청소년이 디지털 기술로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는 비율은 54.0%로 13-18세(49.2%)보다 높고,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39.6%)은 13-18세(44.5%)보다 낮음.
- 특성별 디지털 기술로 인한 삶의 변화 인식에 차이를 살펴본 결과, 대학생(55.2%), 농산어촌 지역의 청소년(56.0%),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청소년(57.0%)이 디지털 기술로 인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음.
 - 13-18세에서는 남자 청소년(51.4%)이 여자 청소년(46.8%)보다 디지털 기술로 인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인식한 반면, 19-24세에서는 여자 청소년(55.0%)이 남자 청소년(53.0%)보다 더 긍정적인 변화했다고 인식함.
 - 학교급별로는 대학생(55.2%)이 디지털 기술로 인한 삶의 긍정적 변화를 가장 높게 인식함.
 - 가구특성별로 농산어촌 지역의 청소년들(56.0%)과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청소년들(57.0%)은 평균보다 높은 비율로 디지털 기술로 인한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인식했으며, 이는 13-18세와 19-24세 모두에서 동일하게 나타남.
 - 가구소득별로는 400-600만원 미만의 청소년들이 디지털 기술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를 가장 크게 인식했으며, 특히 19-24세 청소년들 중에서 이 소득 구간의 긍정적 인식 비율이 가장 높음.

표 11-16

디지털 기술로 인한 삶의 변화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체			13-18세			19-24세		
			부정적으로 변화함	변화 없음	긍정적으로 변화함	부정적으로 변화함	변화 없음	긍정적으로 변화함	부정적으로 변화함	변화 없음	긍정적으로 변화함
연도별	2023	5,680	6.4	41.8	51.8	6.4	44.5	49.2	6.4	39.6	54.0
청소년 성별	남자	2,942	6.1	41.6	52.3	6.0	42.6	51.4	6.2	40.8	53.0
	여자	2,737	6.6	42.1	51.3	6.7	46.5	46.8	6.6	38.4	55.0
학교급 및 재학여부	초등학교	37	6.3	50.5	43.2	6.3	50.5	43.2	-	-	-
	중학교	1,200	5.9	45.8	48.3	5.9	45.8	48.3	-	-	-
	고등학교	1,264	7.1	43.7	49.2	6.8	43.5	49.8	14.4	49.4	36.1
	대학교	2,608	6.4	38.3	55.2	5.4	39.3	55.2	6.5	38.3	55.2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	570	5.6	44.7	49.7	19.2	41.0	39.8	5.3	44.8	49.9
거주지역	대도시	4,945	6.3	41.8	51.9	6.1	44.4	49.5	6.5	39.4	54.1
	중소도시	291	8.7	44.3	47.0	11.6	47.1	41.3	6.8	42.5	50.6
	농산어촌	2,430	3.4	40.7	56.0	3.4	41.3	55.3	3.3	40.2	56.5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511	8.6	42.2	49.3	9.0	45.0	46.1	8.2	39.8	52.0
	200~400만원 미만	738	8.9	44.5	46.6	6.4	51.6	42.0	11.6	36.8	51.6
	400~600만원 미만	381	8.3	35.5	56.2	14.6	39.1	46.3	6.9	34.8	58.3
	600만원 이상	979	10.0	46.1	43.9	10.2	51.0	38.8	9.8	42.0	48.3
가구형태	양부모	2,744	5.7	43.3	51.0	5.4	45.5	49.2	5.9	41.3	52.8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1,576	4.9	38.1	57.0	4.9	39.2	55.8	4.9	37.2	57.9

* 주: 1) 2023년부터 신규 측정한 문항임.

2) 리커트 척도의 항목별 응답 빈도(매우 부정적으로 변화함, 부정적으로 변화함, 변화 없음, 긍정적으로 변화함,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함)는 기초통계표 참고

②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인한 삶의 변화에 따른 주관적 웰빙

◦ 13-24세 청소년들이 디지털 기술로 인한 삶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주관적 웰빙 수준이 높음. 즉, 긍정적으로 인식한 집단(6.95점)이 변화가 없거나(6.88점) 부정적 인식한 집단(6.23점)보다 주관적 웰빙 수준이 높음.

○ 13-24세 청소년들이 디지털 기술로 인한 삶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주관적 웰빙 수준이 높음.

- 디지털 기술로 인한 삶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한 집단(6.95점)이 변화가 없다고 인식(6.88점)하거나 부정적으로 변했다고 인식한 집단(6.23점)에 비해 주관적 웰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도 위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 디지털 기술로 인한 삶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주관적 웰빙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 13-18세 : 긍정적으로 변화함(6.87점) > 변화 없음(6.86점) > 부정적으로 변화함(6.09점)

- 19-24세 : 긍정적으로 변화함(7.00점) > 변화 없음(6.89점) > 부정적으로 변화함(6.35점)

표 11-17 디지털 기술로 인한 삶의 변화에 따른 주관적 웰빙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주관적 웰빙		
			전체	13-18세	19-24세
디지털 기술로 인한 삶의 변화	긍정적으로 변화함	2,942	6.95	6.87	7.00
	변화 없음	2,375	6.88	6.86	6.89
	부정적으로 변화함	362	6.23	6.09	6.35

②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인한 삶의 변화에 따른 일상생활 만족도

- 디지털 기술로 인한 삶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가족과의 관계, 내 삶에서 선택의 자유, 친구들과의 관계, 나의 미래, 나의 자유시간 등 일상생활 만족도가 높음.
- 디지털 기술로 삶의 변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할 때 19-24세 청소년보다 13-18세 청소년의 일상생활 만족도가 보다 낮아짐. 즉, 디지털 기술의 변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13-18세 청소년이 19-24세 청소년보다 가족관계, 선택의 자유, 친구들과의 관계, 자유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보다 낮음.

- 디지털 기술로 인한 삶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가족과의 관계, 내 삶에서 선택의 자유, 친구들과의 관계, 나의 미래, 나의 자유시간 등 일상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
 - 가족과의 관계 : 긍정적으로 변화함(7.79점) > 변화 없음(7.52점) > 부정적으로 변화함(6.87점)
 - 내 삶에서 선택의 자유 : 긍정적으로 변화함(7.54점) > 변화 없음(7.24점) > 부정적으로 변화함(6.77점)
 - 친구들과의 관계 : 긍정적으로 변화함(7.76점) > 변화 없음(7.44점) > 부정적으로 변화함(6.90점)
 - 나의 미래 : 긍정적으로 변화함(7.37점) > 변화 없음(7.15점) > 부정적으로 변화함(6.41점)
 - 나의 자유시간 : 긍정적으로 변화함(7.48점) > 변화 없음(7.26점) > 부정적으로 변화함(6.89점)
- 디지털 기술로 삶의 변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할 때 19-24세 청소년보다 13-18세 청소년의 일상생활 만족도가 보다 낮아짐. 즉, 디지털 기술의 변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13-18세 청소년이 19-24세 청소년보다 가족관계, 선택의 자유, 친구들과의 관계, 자유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보다 낮음.
 - 디지털 기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집단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집단 간의 가족과의 관계, 선택의 자유, 친구들과의 관계, 자유시간에 대한 만족도 차이는 19-24세 청소년보다 13-18세 청소년에게 더 크게 나타남.
 - 반대로 디지털 기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집단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집단 간의 나의 미래에 대한 만족도 차이는 13-18세 청소년보다 19-24세 청소년에게 더 크게 나타남.

표 II-18

디지털 기술로 인한 삶의 변화에 따른 일상생활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전체	13-18세	19-24세
디지털 기술로 인한 삶의 변화에 따른 일상생활 만족도	가족과의 관계	긍정적으로 변화함	2,942	7.79	7.77	7.79
		변화 없음	2,375	7.52	7.55	7.49
		부정적으로 변화함	362	6.87	6.81	6.92
	내 삶에서 선택의 자유	긍정적으로 변화함	2,942	7.54	7.44	7.62
		변화 없음	2,375	7.24	7.19	7.29
		부정적으로 변화함	362	6.77	6.64	6.88
	친구들과의 관계	긍정적으로 변화함	2,942	7.76	7.76	7.76
		변화 없음	2,375	7.44	7.47	7.41
		부정적으로 변화함	362	6.90	6.88	6.91
	나의 미래	긍정적으로 변화함	2,942	7.37	7.37	7.37
		변화 없음	2,375	7.15	7.23	7.09
		부정적으로 변화함	362	6.41	6.46	6.37
	나의 자유 시간	긍정적으로 변화함	2,942	7.48	7.24	7.66
		변화 없음	2,375	7.26	7.11	7.40
		부정적으로 변화함	362	6.89	6.60	7.12

2. 건강

2-1. 수면

① 주중 및 주말 수면 시간

- 전체 청소년(9-24세)의 주중 수면 시간은 8시간 12분, 주말 수면 시간은 9시간 11분으로 '20년 대비 각각 8분, 4분 감소함.
- 연령대별로는 9-12세 청소년의 주중 및 주말 수면 시간이 13-24세보다 많음.
- 주중 및 주말 수면 시간이 짧은 집단은 고등학생,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임.

- 전체 청소년(9-24세)의 주중 수면 시간은 8시간 12분, 주말 수면 시간은 9시간 11분으로, 주중 및 주말 수면 시간은 '20년 대비 각각 8분, 4분 감소함.
 - 전체 청소년(9-24세)의 주중 수면 시간은 8시간 12분, 주말 수면 시간은 9시간 11분으로, 주말 수면 시간이 약 1시간 정도 많음.
 - 청소년의 주중 수면 시간은 '17년 7시간 52분, '20년 8시간 20분, '23년 8시간 12분으로 변화하였으며, '20년에 비해 약 8분 감소함.
 - 청소년의 주말 수면 시간은 '17년 9시간 4분, '20년 9시간 15분, '23년 9시간 11분으로 변화하였으며, '20년 대비 약 4분 감소함.
- 연령대별로는 9-12세 청소년의 주중 및 주말 수면 시간이 13-24세 청소년보다 많음.
 - 주중 수면 시간은 9-12세가 9시간 7분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9-24세(7시간 55분), 13-18세(7시간 54분) 순으로 나타남.
 - 주말 수면 시간은 9-12세가 9시간 54분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3-18세(9시간 3분), 19-24세(8시간 53분) 순으로 나타남.
- 특성별로 비교해보면, 주중 수면 시간이 짧은 집단은 고등학생,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로 나타남.
 -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의 주중 수면 시간이 7시간 26분, 주말 수면이 8시간 40분으로 가장 낮음.
 -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으로 높은 청소년의 주중(7시간 58분) 및 주말 수면 시간이 짧음. 9-12세, 13-18세, 19-24세 모든 연령대에서 동일한 양상을 보임.

- 가구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청소년의 경우도 주말 수면 시간(8시간 53분)도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9-12세(9시간 47분), 19-24세(8시간 44분)가 수면 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19 주중 및 주말 수면 시간

(단위: 명, 시간:분)

구분		사례수	주중 수면 시간				주말 수면 시간			
			전체	9-12세	13-18세	19-24세	전체	9-12세	13-18세	19-24세
연도별	2017	7,676	7:52	9:04	7:28	7:39	9:04	9:49	8:57	8:49
	2020	7,170	8:20	9:13	8:04	8:06	9:15	9:56	9:10	8:58
	2023	7,423	8:12	9:07	7:54	7:55	9:11	9:54	9:03	8:53
청소년 성별	남자	3,837	8:11	9:06	7:53	7:55	9:09	9:52	9:00	8:52
	여자	3,586	8:12	9:08	7:56	7:55	9:13	9:57	9:07	8:54
학교급 및 재학 여부	초등학교	1,626	9:11	9:10	9:18	-	9:56	9:56	9:50	-
	중학교	1,354	8:23	8:28	8:23	-	9:28	9:36	9:27	-
	고등학교	1,264	7:26	-	7:24	8:01	8:40	-	8:38	9:18
	대학교	2,608	7:53	-	7:50	7:54	8:53	-	9:05	8:52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	570	7:59	-	8:05	7:59	8:52	-	9:12	8:51
거주 지역	대도시	3,124	8:13	9:11	7:56	7:57	9:11	9:57	9:00	8:56
	중소도시	3,263	8:10	9:05	7:53	7:53	9:06	9:51	8:59	8:47
	농산어촌	1,036	8:13	9:02	7:56	7:50	9:26	9:58	9:25	9:00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418	8:03	9:07	7:57	7:57	8:53	9:47	9:09	8:44
	200~400만원 미만	1,392	8:21	9:10	7:59	8:00	9:26	10:00	9:23	9:02
	400~600만원 미만	3,654	8:17	9:07	8:00	8:00	9:14	9:54	9:04	8:58
	600만원 이상	1,959	7:58	9:02	7:42	7:42	8:58	9:49	8:50	8:41
가구 형태	양부모	6,607	8:13	9:07	7:55	7:55	9:13	9:54	9:03	8:54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372	8:07	9:10	7:46	7:52	9:03	9:50	9:07	8:40

* 주: 1) 주중 및 주말의 잠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은 기초통계표 참고

* 자료: 백혜정 외 (2017).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김기현 외 (20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② 적정 수면시간

- **(주중 적정 수면시간)** 전체 청소년(9-24세)의 주중 수면시간이 적정시간 초과인 비율은 30.9%로 '17년(19.6%) 대비 증가함.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적정시간 초과일 비율이 증가함.
- 연령별로는 주중 적정수면 시간 비율은 9-12세가 95.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9-24세(58.0%), 13-18세(51.7%) 순으로 나타남.
- 특성별로는 적정시간 미만인 비율은 고등학생(11.2%), 600만원 이상(6.4%)인 경우가 가장 높음.
- **(주말 적정 수면시간)** 전체 청소년(9-24세)의 주말 수면시간이 적정시간인 비율은 '20년 대비 증가, 적정시간 초과인 비율은 '20년 대비 감소함.
- 연령대별로는 13-24세 청소년의 적정시간 초과 비율이 적정시간 비율보다 높음.
- 특성별로는 적정시간 미만인 비율은 고등학생(2.7%), 600만원 이상(2.3%)인 경우가 높음.

○ 전체 청소년(9-24세)의 주중 수면시간을 적정시간 미만, 적정시간, 적정시간 초과로 구분해 본 결과, 적정시간 초과인 비율은 30.9%로 '17년(19.6%) 대비 증가함.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적정시간 초과일 비율이 증가함.

- 주중 수면시간이 적정시간 미만인 비율은 '17년 6.1%에서 '20년 2.2%로 감소하였다가 '23년 4.5%로 증가함.
- 주중 수면시간이 적정시간인 비율은 '17년 74.2%에서 '20년 62.5%로 감소하였다가 '23년 64.6%로 증가함.
- 주중 수면시간이 적정시간 초과인 비율은 '17년 19.6%에서 '20년 35.3%로 증가하였다가 '23년 30.9%로 감소함.

○ 연령대별로 주중 수면시간이 적정시간인 비율을 살펴보면, 9-12세가 95.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9-24세(58.0%), 13-18세(51.7%) 순으로 나타남.

- 9-12세 청소년의 95.1%는 주중 수면시간이 적정 수준임. 적정시간 미만인 비율은 4.8%, 적정시간 초과인 비율은 0.1%임.
- 13-18세 청소년의 절반 수준(51.7%)은 주중 수면시간이 적정 수준임. 적정 초과인 비율은 42.3%, 적정시간 미만인 비율은 5.9%임.
- 19-24세의 주중 수면시간은 적정시간이 58.0%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적정시간 초과가 38.8%, 적정시간 미만이 3.2%임.

○ 특성별로 살펴보면, 걱정시간 미만인 비율은 고등학생(11.2%), 600만원 이상(6.4%)인 경우가 가장 높음.

- 걱정시간 초과인 비율은 중학생(50.8%), 대도시 청소년(31.8%), 가구소득이 400-600만원 미만인 경우(32.7%)에 높음.

표 11-20

적정 수면시간 비율 : 주중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주중 적정 수면시간											
			전체			9-12세			13-18세			19-24세		
			적정 시간 미만	적정 시간	적정 시간 초과	적정 시간 미만	적정 시간	적정 시간 초과	적정 시간 미만	적정 시간	적정 시간 초과	적정 시간 미만	적정 시간	적정 시간 초과
연도별	2017	7,676	6.1	74.2	19.6	7.5	92.3	0.2	8.6	66.2	25.3	3.6	72.8	23.6
	2020	7,170	2.2	62.5	35.3	4.6	95.1	0.2	2.5	51.8	45.7	0.8	54.9	44.3
	2023	7,423	4.5	64.6	30.9	4.8	95.1	0.1	5.9	51.7	42.3	3.2	58.0	38.8
청소년 성별	남자	3,837	4.5	64.7	30.8	4.6	95.2	0.2	6.4	51.8	41.8	2.8	58.4	38.8
	여자	3,586	4.5	64.4	31.0	5.0	95.0	-	5.4	51.7	42.9	3.5	57.6	38.8
학교급 및 재학 여부	초등학교	1,626	3.2	94.6	2.2	3.3	96.6	0.1	-	5.3	94.7	-	-	-
	중학교	1,354	3.1	46.1	50.8	20.5	79.5	-	0.9	41.9	57.3	-	-	-
	고등학교	1,264	11.2	61.6	27.2	-	-	-	11.6	61.8	26.7	3.3	57.0	39.8
	대학교	2,608	3.3	57.9	38.8	-	-	-	1.5	65.6	33.0	3.4	57.6	39.0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	570	2.2	59.8	37.9	-	-	-	-	50.5	49.5	2.3	60.0	37.7
거주 지역	대도시	3,124	3.7	64.5	31.8	3.1	96.9	-	5.1	54.3	40.5	2.9	56.0	41.1
	중소도시	3,263	5.3	63.7	30.9	5.7	94.0	0.3	7.0	49.7	43.3	3.7	58.8	37.5
	농산어촌	1,036	4.3	67.4	28.3	6.4	93.6	-	4.8	50.8	44.4	2.1	63.3	34.7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418	2.0	67.5	30.4	5.8	94.2	-	1.0	65.1	34.0	1.8	64.9	33.2
	200~400만원 미만	1,392	4.7	65.2	30.1	4.5	95.5	-	6.8	49.5	43.8	3.1	54.9	42.0
	400~600만원 미만	3,654	3.7	63.5	32.7	4.7	95.3	-	4.4	50.9	44.7	2.5	54.9	42.6
	600만원 이상	1,959	6.4	65.4	28.2	5.3	94.3	0.5	8.6	53.4	38.0	4.9	62.8	32.3
가구 형태	양부모	6,607	4.6	64.3	31.1	4.8	95.1	0.1	5.9	51.3	42.8	3.3	56.5	40.3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372	3.5	72.5	24.0	4.4	95.6	-	7.0	60.8	32.2	0.7	69.6	29.7

* 주: 1) 9-12세 적정 수면시간은 8-12시간, 13-24세 적정 수면시간은 6-8시간으로 함.

* 자료: 백혜정 외 (2017).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김기현 외 (20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전체 청소년(9-24세)의 주말 수면시간을 적정시간 미만, 적정시간, 적정시간 초과로 구분해본 결과, 적정시간인 비율은 '20년 대비 증가, 적정시간 초과인 비율은 '20년 대비 감소함.
 - 주말 수면시간이 적정시간 미만인 비율은 '17년 1.6%에서 '20년 0.7%로 감소하였다가 '23년 1.4%로 증가함.
 - 주말 수면시간이 적정시간인 비율은 '17년 45.3%에서 '20년 39.2%로 감소하였다가 '23년 44.7%로 증가함.
 - 주말 수면시간이 적정시간 초과인 비율은 '17년 53.1%에서 '20년 60.2%로 증가하였다가 '23년 53.9%로 감소함.
- 연령대별로 주말 수면시간을 살펴보면, 13-24세 청소년의 적정시간 초과 비율이 적정시간 비율보다 높음.
 - 9-12세 청소년의 96.8%는 주말 수면시간이 적정 수준임. 적정시간 미만인 비율은 1.8%, 적정시간 초과인 비율은 1.4%임.
 - 13-18세 청소년의 72.8%는 주말 수면시간이 적정시간 초과였으며, 25.9%는 적정시간, 1.3%는 적정시간 미만임.
 - 19-24세 청소년의 67.7%는 주말 수면시간이 적정시간 초과였으며, 31.0%는 적정시간, 1.2%는 적정시간 미만임.
- 특성별로 살펴보면, 적정시간 미만인 비율은 고등학생(2.7%), 600만원 이상(2.3%)인 경우가 높음.
 - 적정시간 초과인 비율은 중학생(75.0%), 대학생(67.9%),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67.3%)인 경우가 높음.

표 II-21 적정 수면시간 비율 : 주말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주말 적정 수면시간											
			전체			9-12세			13-18세			19-24세		
			적정 시간 미만	적정 시간	적정 시간 초과	적정 시간 미만	적정 시간	적정 시간 초과	적정 시간 미만	적정 시간	적정 시간 초과	적정 시간 미만	적정 시간	적정 시간 초과
연도별	2017	7,676	1.6	45.3	53.1	3.1	95.3	1.6	1.2	29.5	69.3	1.3	36.2	62.5
	2020	7,170	0.7	39.2	60.2	1.5	96.7	1.8	0.6	20.3	79.1	0.4	25.5	74.1
	2023	7,423	1.4	44.7	53.9	1.8	96.8	1.4	1.3	25.9	72.8	1.2	31.0	67.7
청소년 성별	남자	3,837	1.4	45.4	53.2	1.8	96.9	1.3	1.5	27.0	71.5	1.1	31.9	66.9
	여자	3,586	1.4	44.0	54.6	1.8	96.7	1.5	1.2	24.7	74.2	1.3	30.1	68.6
학교급 및 재학 여부	초등학교	1,626	1.6	94.8	3.6	1.6	97.0	1.4	-	2.3	97.7	-	-	-
	중학교	1,354	0.5	24.4	75.0	3.8	95.6	0.6	0.1	15.3	84.6	-	-	-
	고등학교	1,264	2.7	36.4	60.9	-	-	-	2.6	37.0	60.4	3.3	23.6	73.1
	대학교	2,608	1.3	30.8	67.9	-	-	-	0.8	27.0	72.2	1.3	30.9	67.7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	570	0.7	32.1	67.3	-	-	-	-	25.0	75.0	0.7	32.2	67.1
거주 지역	대도시	3,124	0.9	43.3	55.8	1.2	97.8	1.1	0.9	26.3	72.8	0.9	28.8	70.4
	중소도시	3,263	2.0	45.8	52.2	2.3	96.2	1.4	2.2	26.9	70.9	1.6	33.8	64.6
	농산어촌	1,036	1.0	45.8	53.3	1.9	96.2	1.9	-	21.6	78.4	1.2	29.5	69.3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418	1.8	40.5	57.7	1.9	98.1	-	-	23.5	76.5	2.2	37.4	60.5
	200~400만원 미만	1,392	1.1	45.6	53.3	1.7	95.9	2.4	0.6	22.8	76.6	1.1	25.5	73.3
	400~600만원 미만	3,654	1.0	45.1	54.0	1.9	97.2	0.9	0.8	26.1	73.1	0.6	29.3	70.2
	600만원 이상	1,959	2.3	44.3	53.3	1.7	96.8	1.4	2.9	27.5	69.6	2.1	35.1	62.8
가구 형태	양부모	6,607	1.4	45.2	53.4	1.8	96.8	1.4	1.4	25.9	72.8	1.1	29.8	69.0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372	1.2	48.0	50.8	2.8	97.2	-	-	26.5	73.5	1.3	39.4	59.4

* 주: 1) 9-12세 적정 수면시간은 8-12시간, 13-24세 적정 수면시간은 6-8시간으로 함.

* 자료: 백혜정 외 (2017).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김기현 외 (20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집단에서 청소년의 주중 적정수면시간 미만인 비율이 높음. 특히,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의 고등학생인 경우 16.1%가 주중에 적정시간 미만 수면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1-22 학교급 및 가구소득에 따른 주중 적정 수면시간 비율

(단위: 명, %)

구분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00~400만원 미만			400~600만원			600만원 이상		
		적정 시간 미만	적정 시간	적정 시간 초과	적정 시간 미만	적정 시간	적정 시간 초과	적정 시간 미만	적정 시간	적정 시간 초과	적정 시간 미만	적정 시간	적정 시간 초과
학교급 및 재학여부	초등학교	2.7	94.6	2.7	3.2	92.8	4.0	3.4	95.2	1.4	2.6	95.0	2.3
	중학교	2.8	61.1	36.1	3.6	49.4	47.0	2.5	43.1	54.4	3.6	48.1	48.3
	고등학교	2.6	76.3	21.1	13.2	56.2	30.6	8.3	62.0	29.6	16.1	62.2	21.7
	대학교	2.3	63.8	33.9	3.7	54.1	42.2	2.3	54.9	42.7	5.2	63.1	31.7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	0.0	64.0	36.0	1.2	57.2	41.6	3.0	59.4	37.6	3.3	62.7	34.0

- 대도시, 중소도시에 거주하면서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 600만원 미만인 경우보다 주중 적정시간 미만으로 수면하는 비율이 높음. 특히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의 중소도시 거주 청소년의 8.4%가 적정시간 미만 수면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1-23 거주지역 및 가구소득에 따른 주중 적정 수면시간 비율

(단위: 명, %)

구분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00~400만원 미만			400~600만원			600만원 이상		
		적정 시간 미만	적정 시간	적정 시간 초과	적정 시간 미만	적정 시간	적정 시간 초과	적정 시간 미만	적정 시간	적정 시간 초과	적정 시간 미만	적정 시간	적정 시간 초과
거주지역	대도시	1.4	70.9	27.7	2.6	63.9	33.6	3.7	61.9	34.4	4.7	68.4	26.9
	중소도시	2.6	69.7	27.7	5.7	63.9	30.4	4.0	62.8	33.3	8.4	64.1	27.5
	농산어촌	1.4	55.4	43.2	6.6	70.0	23.4	2.9	72.1	25.0	5.5	58.0	36.5

③ 수면 시간 충분성

- 전체 청소년(9-24세)의 68.5%가 수면 시간이 충분하다고 응답함. 수면 시간이 충분하다는 응답률은 9-18세에서는 '20년 대비 감소, 19-24세에서는 '20년 대비 증가함.
- 연령대별로는 13-18세 청소년이 수면 시간이 충분하다고 인식한 비율이 55.6%로 가장 낮음. 즉, 13-18세 청소년 10명 중 약 4명은 수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인식함.
- 특성별로 살펴보면, 중학생(65.1%), 고등학생(44.8%), 농산어촌 청소년(65.3%),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청소년(65.0%)이 수면 시간이 충분하다고 인식한 비율이 낮음.
- 주중 및 주말 수면시간이 적정시간이거나 적정시간 초과인 경우가 적정시간 미만인 경우보다 수면시간이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음.

- 전체 청소년(9-24세)의 68.5%가 수면 시간이 충분하다고 응답함. 수면 시간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18세는 '20년에 비해 감소, 19-24세는 20년에 비해 증가함.
 - 9-12세 청소년의 79.2%, 13-18세 청소년의 55.6%가 수면 시간이 충분하다고 응답하여 '20년 대비 각각 1.1%p, 4.1%p 감소함. 특히 13-18세 청소년에게서 수면 시간이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함.
 - 19-24세 청소년이 수면 시간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3.0%로 '20년 66.4%에 비해 6.6%p 증가함.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3-18세 청소년이 수면 시간이 충분하다고 인식한 비율이 55.6%로 가장 낮음.
 - 수면 시간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12세 청소년이 79.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9-24세 청소년(73.0%)인 것으로 나타남.
 - 13-18세 청소년 중 수면 시간이 충분하다고 인식한 비율이 55.6%, 수면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4.4%로, 13-18세 청소년 10명 중 약 4명이 수면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특성별로 살펴보면, 중학생(65.1%), 고등학생(44.8%), 농산어촌 청소년(65.3%),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청소년(65.0%)이 수면 시간이 충분하다고 인식한 비율이 낮음.
 - 13-18세에서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수면 시간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 19-24세에서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수면시간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학교급에 따라서는 중학생(65.1%)과 고등학생(44.8%)이 수면시간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음.
- 가구특성에 따라서는 농산어촌 청소년(65.3%)이 대도시 청소년(71.0%)보다,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65.0%)이 600만원 이하보다 수면시간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음.

표 11-24

수면 시간 충분성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전체			9-12세			13-18세			19-24세		
			충분 하다	충분 하지 않다	평균	충분 하다	충분 하지 않다	평균	충분 하다	충분 하지 않다	평균	충분 하다	충분 하지 않다	평균
연도별	2020	7,170	67.2	32.8	2.71	80.3	19.7	2.89	59.7	40.3	2.62	66.4	33.6	2.70
	2023	7,423	68.5	31.5	2.71	79.2	20.8	2.85	55.6	44.4	2.55	73.0	27.0	2.77
청소년 성별	남자	3,837	68.3	31.7	2.71	79.0	21.0	2.85	54.9	45.1	2.53	73.3	26.7	2.77
	여자	3,586	68.7	31.3	2.71	79.4	20.6	2.85	56.4	43.6	2.56	72.7	27.3	2.76
학교급 및 재학 여부	초등학교	1,626	80.7	19.3	2.87	80.6	19.4	2.87	84.8	15.2	2.89	-	-	-
	중학교	1,354	65.1	34.9	2.67	64.3	35.7	2.63	65.2	34.8	2.67	-	-	-
	고등학교	1,264	44.8	55.2	2.40	-	-	-	43.2	56.8	2.38	80.0	20.0	2.82
	대학교	2,608	73.3	26.7	2.77	-	-	-	78.6	21.4	2.90	73.1	26.9	2.76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	570	71.9	28.1	2.76	-	-	-	72.7	27.3	2.79	71.9	28.1	2.76
거주 지역	대도시	3,124	71.0	29.0	2.74	80.9	19.1	2.89	57.1	42.9	2.56	76.5	23.5	2.81
	중소도시	3,263	67.0	33.0	2.69	78.2	21.8	2.84	55.2	44.8	2.54	70.8	29.2	2.74
	농산어촌	1,036	65.3	34.7	2.66	77.8	22.2	2.79	53.0	47.0	2.53	68.0	32.0	2.68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418	77.8	22.2	2.82	83.5	16.5	2.89	66.6	33.4	2.69	79.5	20.5	2.84
	200~400만원 미만	1,392	70.3	29.7	2.73	82.4	17.6	2.89	57.2	42.8	2.57	72.0	28.0	2.74
	400~600만원 미만	3,654	68.6	31.4	2.71	78.4	21.6	2.84	56.7	43.3	2.56	73.2	26.8	2.77
	600만원 이상	1,959	65.0	35.0	2.66	77.1	22.9	2.82	51.7	48.3	2.50	71.0	29.0	2.74
가구 형태	양부모	6,607	68.3	31.7	2.71	79.5	20.5	2.86	55.6	44.4	2.55	73.3	26.7	2.77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372	67.2	32.8	2.70	73.0	27.0	2.76	56.0	44.0	2.55	71.9	28.1	2.76

* 주: 1) 이 문항을 20년도부터 측정된 문항임.

2) 수면 시간의 충분성의 개별 문항별 응답항목 빈도는 기초통계표 참고

* 자료: 백혜정 외 (2017).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김기현 외 (20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주중 및 주말 수면시간은 적정시간 초과인 경우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반면, 적정시간 미만인 경우는 충분하지 않다는 비율이 높음.
- 주중 수면시간이 적정시간 초과, 적정시간인 경우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75.5%, 67.7%로 나타남. 반면, 적정시간 미만일 경우 수면시간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31.7%에 불과함.
 - 주말 수면시간이 적정시간 초과, 적정시간인 경우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69.2%, 68.5%로 나타남. 반면, 적정시간 미만일 경우 수면시간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39.4%에 불과함.
 - 13-18세의 경우 적정시간으로 수면하는 경우에도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주중: 51.8%, 주말: 62.0%)

표 II-25 수면시간 적정 수준에 따른 수면시간 충분성

(단위: 명, %)

구분		전체		9-12세		13-18세		19-24세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주중 수면시간 적정 수준	적정시간 미만	31.7	68.3	57.8	42.2	12.5	87.5	39.4	60.6
	적정시간	67.7	32.3	80.3	19.7	48.2	51.8	70.4	29.6
	적정시간 초과	75.5	24.5	100.0	0.0	70.8	29.2	79.7	20.3
주말 수면시간 적정 수준	적정시간 미만	39.4	60.6	61.3	38.7	20.6	79.4	36.8	63.2
	적정시간	68.5	31.5	79.5	20.5	38.0	62.0	70.2	29.8
	적정시간 초과	69.2	30.8	83.3	16.7	62.6	37.4	75.0	25.0

* 주: 1) 이 문항을 20년도부터 측정된 문항임.

2) 수면 시간의 충분성의 개별 문항별 응답항목 빈도는 기초통계표 참고

* 자료: 백혜정 외 (2017).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김기현 외 (20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2-2. 식습관 및 신체활동

① 아침, 점심, 저녁 식사비율

- 청소년들의 아침식사 비율은 66.8%였으며, 점심식사 비율은 99.2%, 저녁식사 비율은 98.9%임. 청소년들의 아침식사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점심식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저녁식사 비율은 '20년 대비 감소함.
- 연령대별로는 아침식사 비율에 차이가 있었으며, 13-18세(73.3%)와 19-24세(49.0%)의 아침식사 비율은 9-12세보다 낮음.
- 특성별로 비교해보면,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34.5%), 200만원 미만 가구의 청소년(43.9%),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청소년(52.7%)의 아침식사 비율이 낮음.

- 청소년들의 아침식사 비율은 66.8%였으며, 점심식사 비율은 99.2%, 저녁식사 비율은 98.9%임. 청소년들의 아침식사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점심식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저녁식사 비율은 '20년 대비 감소함.
 - 아침식사 비율은 '17년 71.2%, '20년 67.0%, '23년 66.8%로 지속적으로 감소함.
 - 점심식사 비율은 '17년 98.7%, '20년 98.8%, '23년 99.2%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 저녁식사 비율은 '17년 98.5%에서 '20년 99.3%로 증가하였다가 '23년에는 98.9%로 감소함.
- 연령대별로는 아침식사 비율에 차이가 있음. 특히, 19-24세의 아침식사 비율이 49.0%로 낮은 것으로 확인됨.
 - 아침식사 비율은 9-12세가 89.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3-18세(73.3%), 19-24세(49.0%)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별로 아침식사 차이가 큼.
 - 점심식사 비율은 연령대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9-12세의 점심식사 비율은 99.3%, 13-18세는 99.4%, 19-24세는 98.9%로 나타남.
 - 저녁식사 비율 또한 연령대별 차이가 미미함. 9-12세의 저녁식사 비율은 99.9%, 13-18세는 99.0%, 19-24세는 98.3%로 나타남.
- 특성별로 아침식사 비율을 비교해보면,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34.5%), 200만원 미만 가구의 청소년(43.9%),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청소년(52.7%)의 아침식사 비율이 낮음. 특히, 19-24세 청소년 중 200만원 미만 가구의 청소년의 아침식사 비율이 34.1%로 낮음.

- 학교급에 따라서는 대학생(51.7%),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34.5%)의 아침식사 비율이 낮음.
- 거주지역 및 가구형태별로는 농산어촌 지역의 청소년들이 중소도시나 대도시 지역 청소년보다,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청소년이 양부모 가족의 청소년보다 아침식사를 하는 비율이 낮음. 이는 9-12세, 13-18세, 19-24세 모든 연령대에서 일관되게 나타남.
- 가구소득별로는 2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청소년들 중 아침 식사 비율이 43.9%로 낮았는데, 연령대별로 다른 경향을 보임. 9-12세 청소년 중 200만원 미만 가구는 아침식사 비율이 92.2%로 높았지만, 13-24세 청소년들, 특히 19-24세에서는 200만원 미만 가구의 아침식사 비율이 34.1%로 현저히 낮음.

○ 특성별로 점식식사 및 저녁식사 비율을 살펴보면,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의 청소년의 점심식사(98.3%) 및 저녁식사 비율(96.6%)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11-26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비율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아침식사				점심식사				저녁식사			
		전체	9-12세	13-18세	19-24세	전체	9-12세	13-18세	19-24세	전체	9-12세	13-18세	19-24세
연도별	2017	7,676	71.2	93.1	76.5	57.4	98.7	99.7	99.0	98.0	98.5	99.7	98.3
	2020	7,170	67.0	90.7	74.3	50.6	98.8	99.6	99.4	98.1	99.3	99.8	99.3
	2023	7,423	66.8	89.1	73.3	49.0	99.2	99.3	99.4	98.9	98.9	99.9	99.0
청소년 성별	남자	3,837	68.4	89.7	74.4	51.8	99.2	99.7	99.6	98.5	99.3	99.8	99.2
	여자	3,586	65.1	88.4	72.2	45.9	99.1	98.9	99.2	99.2	98.5	100.0	98.8
학교급 및 재학 여부	초등학교	1,626	89.7	89.9	81.5	-	99.4	99.3	100.0	-	99.8	99.9	94.0
	중학교	1,354	78.6	80.7	78.3	-	99.2	99.0	99.2	-	99.4	100.0	99.3
	고등학교	1,264	70.3	-	70.9	54.7	99.5	-	99.5	100.0	98.8	-	98.8
	대학교	2,608	51.7	-	42.7	52.1	99.0	-	100.0	99.0	98.7	-	100.0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	570	34.5	-	42.1	34.4	98.3	-	100.0	98.3	96.6	-	100.0
거주 지역	대도시	3,124	69.2	92.4	78.1	51.1	99.4	99.4	99.2	99.4	98.8	99.9	98.8
	중소도시	3,263	66.5	88.5	74.2	47.9	99.0	99.5	99.6	98.3	99.0	100.0	99.0
	농산어촌	1,036	60.6	83.1	57.8	44.8	99.0	98.5	99.4	99.0	99.1	99.7	99.8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418	43.9	92.2	63.0	34.1	99.8	100.0	99.0	100.0	98.9	100.0	97.9
	200~400만원 미만	1,392	64.8	88.2	70.4	41.6	98.2	98.7	98.6	97.4	98.8	99.9	98.1
	400~600만원 미만	3,654	70.7	89.4	76.3	53.9	99.3	99.5	99.5	98.8	99.1	99.9	99.1
	600만원 이상	1,959	65.7	89.0	70.7	50.8	99.5	99.4	99.7	99.4	98.7	100.0	99.5
가구 형태	양부모	6,607	70.1	89.6	73.9	53.4	99.1	99.3	99.4	98.7	99.0	99.9	99.0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372	52.7	79.1	60.2	35.7	99.8	99.1	100.0	100.0	99.3	100.0	98.7

* 주: 1) 개별 문항별 응답항목 빈도는 기초통계표 참고

* 자료: 백혜정 외 (2017).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김기현 외 (20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② 운동 및 신체활동

- **(운동 및 신체활동률)** 전체 청소년(9-24세)의 지난 일주일 동안 운동 및 신체활동률은 53.8%로, '20년도에 비해서는 증가했으나 코로나 이전인 '17년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함.
- 연령대별로 지난 일주일 동안의 운동 및 신체활동률을 살펴보면, 9-12세가 73.1%로 높고, 19-24세가 40.3%로 낮음.
- 특성별로 비교해보면, 학교급과 성별에 따라 운동 및 신체활동률 차이가 큼. 여자 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학교급이 높을수록 운동 및 신체활동률이 낮음.
- **(운동 및 신체활동 시간)** 전체 청소년(9-24세)의 지난 일주일 동안 운동 및 신체활동 시간은 평균 4.23시간으로 '17년(3.84시간), '20년(2.12시간)에 비해 증가함.
- 연령별로는 9-12세 청소년의 운동 및 신체활동 시간이 4.59시간으로 많았으며, 13-18세가 3.80시간으로 적음.
- 지난 일주일 동안 운동 및 신체활동 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집단은 초등학생(4.63시간)과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청소년(4.63시간)이었으며, 여자 청소년(3.90시간), 고등학생(3.38시간),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집단(3.91시간)은 상대적으로 적음.
- **(운동 및 신체활동 적정시간)** 전체 청소년(9-24세) 중 적정시간 이상 신체활동을 했다는 비율은 '17년 13.8%에서 '20년 2.2%로 감소하였다가 '23년 13.3%로 증가함.

○ 전체 청소년(9-24세)의 지난 일주일 동안 운동 및 신체활동률은 53.8%로, '20년도에 비해서는 증가했으나 코로나 이전인 '17년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함.

- 9-12세, 13-18세, 19-24세 청소년 모두 동일한 경향을 보임.
- 9-12세는 '17년 74.6%에서 '20년 46.0%로 감소한 후 '23년 73.1%로 증가하였으며, 13-18세는 '17년 59.3%에서 '20년 38.6%로 감소한 후 '23년 57.2%로 증가함.
- 마찬가지로 19-24세는 '17년 46.9%에서 '20년 36.1%로 감소한 후 '23년 40.3%로 증가함.

○ 연령대로 지난 일주일 동안의 운동 및 신체활동률을 살펴보면, 9-12세가 73.1%로 가장 높음. 다음으로 13-18세(57.2%), 19-24세(40.3%) 순으로 나타남.

○ 지난 일주일 동안 운동 및 신체활동률이 학교급과 성별에 따른 차이가 뚜렷함. 즉,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학교급이 높을수록 운동 및 신체활동률이 낮음.

- 청소년의 운동 및 신체활동률은 여자 청소년(44.5%)이 남자 청소년(62.6%)보다 낮았으며, 특히 19-24세 여자 청소년이 29.0%로 가장 낮음.

-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운동 및 신체활동률이 감소함. 즉,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의 운동 및 신체활동률이 초등학생, 중학생보다 높음.
- 농산어촌 청소년이 대도시 청소년보다 높은 운동 및 신체활동률을 보였으나, 9-12세에서는 대도시 청소년의 운동 및 신체활동률이 높게 나타남.
- 가구소득별로는 400-600만원 미만 가구의 운동 및 신체활동률이 낮음.
- 가구형태에 따라서도 운동 및 신체활동률에 차이가 있어, 9-18세 청소년은 한부모 및 조손 가족에서, 19-24세 청소년은 양부모 가족에서 더 높은 운동 및 신체활동률을 보임.
- 19-24세 청소년 중 여자 청소년,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청소년의 운동 및 신체활동률이 특히 낮음.

표 11-27 지난 일주일 동안 운동 및 신체활동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체	9-12세	13-18세	19-24세
연도별	2017	7,676	56.7	74.6	59.3	46.9
	2020	7,170	39.1	46.0	38.6	36.1
	2023	7,423	53.8	73.1	57.2	40.3
청소년 성별	남자	3,837	62.6	77.6	66.8	50.9
	여자	3,586	44.5	68.4	46.9	29.0
학교급 및 재학여부	초등학교	1,626	73.5	73.6	70.7	-
	중학교	1,354	66.4	68.3	66.1	-
	고등학교	1,264	48.4	-	49.2	30.6
	대학교	2,608	42.9	-	43.3	42.9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	570	29.9	-	39.9	29.7
거주 지역	대도시	3,124	52.6	74.1	54.9	40.2
	중소도시	3,263	53.4	72.4	57.0	40.0
	농산어촌	1,036	58.9	72.5	63.9	42.1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418	53.0	80.9	64.1	47.3
	200~400만원 미만	1,392	58.9	76.9	63.5	40.7
	400~600만원 미만	3,654	51.0	72.2	53.6	35.2
	600만원 이상	1,959	55.7	70.4	58.9	46.3
가구 형태	양부모	6,607	54.5	72.6	56.7	40.3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372	52.2	82.8	66.6	28.9

* 주: 1) 활동시간에는 학교에서의 운동이 포함됨.

* 자료: 백혜정 외 (2017).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김기현 외 (20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지난 일주일 동안 운동 및 신체활동을 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청소년이 일주일 동안 운동 및 신체활동을 한 시간은 평균 4.23시간으로 '17년(3.84시간), '20년(2.12시간)에 비해 증가함.
- 연령별로는 9-12세 청소년의 운동 및 신체활동 시간이 4.59시간으로 많음.
 - 지난 일주일 동안의 운동 및 신체활동 시간은 9-12세가 4.59시간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9-24세(4.35시간), 13-18세(3.80시간) 순으로 나타남.
- 지난 일주일 동안 운동 및 신체활동 시간은 초등학생(4.63시간)과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청소년(4.63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여자 청소년(3.90시간), 고등학생(3.38시간),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집단(3.91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음.
 -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운동 및 신체활동 시간이 적었고, 특히 13-18세 여자 청소년의 운동 및 신체활동 시간이 3.40시간으로 적음.
 - 학교급에 따라서는 초등학생의 운동 및 신체활동 시간이 4.63시간으로 가장 많고, 고등학생이 3.38시간으로 가장 적음.
 - 가구특성에 따라서는 중소도시 청소년(4.41시간)이 대도시(4.08시간), 농산어촌 청소년(4.12시간)보다, 가구소득이 600만원 미만인 집단이 600만원 이상이 집단(3.91시간)보다, 한부모 및 조손가족 청소년(4.63시간)이 양부모 가족 청소년(4.21시간)보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운동 및 신체활동 시간이 많음.

표 11-28

지난 일주일 동안 운동 및 신체활동 시간

(단위: 명, 시간)

구분		사례수	전체	9-12세	13-18세	19-24세
연도별	2017	4,351	3.84	4.18	3.50	3.96
	2020	2,800	2.12	2.20	2.04	2.13
	2023	3,996	4.23	4.59	3.80	4.35
청소년 성별	남자	2,400	4.45	4.83	4.07	4.53
	여자	1,596	3.90	4.31	3.40	4.02
학교급 및 재학여부	초등학교	1,195	4.63	4.63	4.74	-
	중학교	899	4.06	4.19	4.04	-
	고등학교	612	3.38	-	3.42	2.03
	대학교	1,120	4.37	-	4.05	4.38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	171	4.43	-	4.74	4.42
거주지역	대도시	1,644	4.08	4.40	3.87	3.99
	중소도시	1,743	4.41	4.74	3.89	4.70
	농산어촌	610	4.12	4.68	3.43	4.43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21	4.18	4.39	5.48	3.76
	200~400만원 미만	820	4.49	5.01	3.94	4.45
	400~600만원 미만	1,864	4.30	4.50	3.91	4.60
	600만원 이상	1,091	3.91	4.37	3.37	4.20
가구형태	양부모	3,601	4.21	4.56	3.78	4.40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194	4.63	5.20	4.24	4.47

* 주: 1) 지난 일주일 동안 운동 및 신체활동을 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에 대한 분석결과임. 활동시간에는 학교에서의 운동이 포함됨.

* 자료: 백혜정 외 (2017).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지난 일주일 동안 운동 및 신체활동을 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적정시간 이상 신체활동을 했다는 비율은 '17년 13.8%에서 '20년 2.2%로 감소하였다가 '23년 13.3%로 증가함.
- 연령별로는 9-12세 청소년 중 적정시간 이상 운동 및 신체활동을 하는 비율(16.6%)이 많음.
 - 적정시간 운동 및 신체활동을 하는 9-12세는 16.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9-24세(13.6%), 13-18세(10.0%) 순으로 나타남.
- 적정시간 이상 운동 및 신체활동을 하는 비율은 초등학생(17.1%)과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청소년(19.7%)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여자 청소년(10.7%), 고등학생(6.6%),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집단(10.2%)이 상대적으로 적음.
 -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적정시간 이상 운동 및 신체활동하는 비율이 적음.
 - 학교급에 따라서는 초등학생이 적정시간 운동 및 신체활동하는 비율이 가장 많고, 고등학생이 가장 적음.
 - 가구특성에 따라서는 중소도시 청소년(15.2%)이 대도시(11.2%), 농산어촌 청소년(13.3%)보다, 가구소득이 600만원 미만인 집단이 600만원 이상이 집단(10.2%)보다, 한부모 및 조손가족 청소년(19.7%)이 양부모 가족 청소년(12.7%)보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적정시간 이상 운동 및 신체활동을 하는 비율이 높음.

표 II-29 운동 및 신체활동 적정시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적정 신체활동 시간							
			전체		9~12세		13~18세		19~24세	
			적정시간 미만	적정시간 이상	적정시간 미만	적정시간 이상	적정시간 미만	적정시간 이상	적정시간 미만	적정시간 이상
연도별	2017	4,351	86.2	13.8	81.7	18.3	90.5	9.5	85.0	15.0
	2020	2,800	97.8	2.2	97.9	2.1	97.8	2.2	97.7	2.3
	2023	3,996	86.7	13.3	83.4	16.6	90.0	10.0	86.4	13.6
청소년 성별	남자	2,400	85.1	14.9	82.0	18.0	88.1	11.9	84.3	15.7
	여자	1,596	89.3	10.7	85.0	15.0	92.9	7.1	90.2	9.8
학교급	초등학교	1,195	82.9	17.1	82.8	17.2	86.0	14.0	-	-
	중학교	899	87.7	12.3	89.5	10.5	87.4	12.6	-	-
	고등학교	612	93.4	6.6	-	-	93.5	6.5	91.8	8.2
	대학교	1,120	86.9	13.1	-	-	92.1	7.9	86.7	13.3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	171	83.5	16.5	-	-	86.0	14.0	83.5	16.5
거주 지역	대도시	1,644	88.8	11.2	85.9	14.1	90.2	9.8	90.2	9.8
	중소도시	1,743	84.8	15.2	81.0	19.0	89.4	10.6	83.0	17.0
	농산어촌	610	86.7	13.3	83.4	16.6	91.1	8.9	84.4	15.6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221	85.7	14.3	87.5	12.5	80.4	19.6	86.8	13.2
	200~400만원 미만	820	84.5	15.5	79.6	20.4	88.0	12.0	86.8	13.2
	400~600만원 미만	1,864	86.1	13.9	84.1	15.9	89.5	10.5	84.0	16.0
	600만원 이상	1,091	89.8	10.2	85.7	14.3	93.0	7.0	89.0	11.0
가구 형태	양부모	3,601	87.3	12.7	83.7	16.3	90.4	9.6	87.3	12.7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194	80.3	19.7	78.5	21.5	83.2	16.8	78.1	21.9

* 주: 1) 실내운동 및 야외활동 적정시간은 주 7시간을 기준으로 구분함.

* 자료: 백혜정 외 (2017).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김기현 외 (20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2-3. 정신 건강

① 스트레스 및 무기력감

- 전체 청소년(9-24세)의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 경험률은 74.6%, SNS 소셜미디어 사용으로 인한 스트레스 경험률은 31.7%, 무기력감 경험률은 20.6%임.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 경험률은 '17년(53.9%), '20년(52.4%)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함.
- 연령대별로는 살펴보면, 일상생활 스트레스는 19-24세가 81.2%로 높았으며, SNS로 인한 스트레스(35.7%), 무기력감(26.0%)은 13-18세가 높음.
- 일상생활 스트레스 경험률은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86.3%), 대학생(80.1%), 고등학생(83.1%),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청소년(78.7%), SNS로 인한 스트레스 경험률은 여자 청소년(35.4%)과 고등학생(38.2%)에서 높고, 초등학생(22.1%),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 청소년(28.3%), 무기력감 경험률은 은 농산어촌 지역 청소년(29.0%), 고등학생(27.8%), 가구소득이 400만원 미만인 집단(200만원 미만: 26.8%, 200-400만원 미만: 27.1%)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부모의 스트레스 경험에 따라 청소년의 스트레스 및 무기력감 경험률에 차이가 있음. 부모가 일상적인 스트레스, 양육 관련 스트레스, 슬픔, 절망감, 대인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 청소년도 일상 생활에서의 스트레스, SNS로 인한 스트레스, 무기력감을 더 많이 경험함.
- 청소년이 스트레스 및 무기력감 경험에 따른 주중 및 주말 수면 시간을 비교해보면, 일상적 스트레스를 자주 경험한 집단이 주중 및 주말 수면시간이 짧음. SNS 스트레스와 무기력감 경험에 따른 수면 시간은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임.

- 전체 청소년(9-24세)의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 경험률은 74.6%, SNS 소셜미디어 사용으로 인한 스트레스 경험률은 31.7%, 무기력감 경험률은 20.6%임.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 경험률은 '17년, '20년 대비 증가함.
 - 청소년이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비율은 74.6%로 나타났는데, 이는 '17년(53.9%), '20년(52.4%)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임.
 - 9-12세, 13-18세, 19-24세 청소년 모두 '20년보다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 경험률이 증가했는데, 이 중 13-18세의 스트레스 경험률 증가폭이 25.9%p로 가장 큼.

- 연령대별로 스트레스 및 무기력감 경험률을 비교해보면,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 경험률은 19-24세(81.2%)가 높았던 반면, SNS로 인한 스트레스 경험률과 무기력감 경험률은 13-18세(각 35.7%, 26.0%)가 높음.
 -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 경험률은 19-24세(81.2%)에서 가장 높았으며, 9-12세(56.4%)에서 가장 낮음.
 - SNS로 인한 스트레스 경험률은 13-18세가 35.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9-24세(33.5%), 9-12세(22.5%) 순임.
 - 무기력감 경험률도 13-18세가 26.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9-12세(17.9%), 19-24세(17.6%) 순임.
- 일상생활 스트레스 경험률은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86.3%), 대학생(80.1%), 고등학생(83.1%),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청소년(78.7%)의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 경험률이 높음.
 -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일상생활 스트레스 경험률이 높았으며, 특히 13-18세에서 성별의 차이가 비교적 큼.
 - 고등학생(83.1%), 대학생(80.1%),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86.3%)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경험률이 높음.
 - 농산어촌 청소년이 대도시, 중소도시 청소년보다 스트레스 경험률이 낮음. 그러나 9-12세의 경우는 대도시 청소년의 스트레스 경험률이 낮음.
 - 가구소득별로는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청소년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경험률이 높음. 이는 9-12세, 19-24세의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13-18세에서는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인 스트레스 경험률이 높음.
- SNS로 인한 스트레스는 여자 청소년(35.5%)과 고등학생(38.2%)에서 높고, 초등학생(22.1%),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 청소년(28.3%)에서 낮음.
 -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SNS로 인한 스트레스 경험률이 높고, 특히 13-24세 여자 청소년이 스트레스를 받는 비율이 높음.
 - 고등학생(38.2%)은 SNS로 인한 스트레스 경험률이 높고, 초등학생(22.1%)이 낮음.
 - 농산어촌 청소년은 대도시, 중소도시 청소년보다 SNS로 인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했고, 이러한 경향은 13-24세에서 두드러짐.
 -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으로 높은 청소년이 SNS로 인한 스트레스 경험률이 낮음. 반면, 가구소득이 200-400만원 미만인 13-24세 청소년은 SNS로 인해 스트레스 경험률이 높음.
 - 13-18세의 경우 한부모/조손가족 등 청소년이, 9-12세와 19-24세의 경우 양부모 가족이 SNS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비율이 높음.

- 무기력감 경험률이 높은 집단은 농산어촌 지역 청소년(29.0%), 고등학생(27.8%), 가구소득이 400만원 미만인 집단(200만원 미만: 26.8%, 200~400만원 미만: 27.1%)인 것으로 확인됨.
- 13~18세에서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19~24세에서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무기력감을 더 많이 경험함.
 - 중학생(24.1%)과 고등학생(27.8%)의 무기력감 경험률이 높음.
 - 가구특성별로는 농산어촌 청소년이 대도시, 중소도시 청소년보다 무기력을 더 많이 경험함. 특히 13~18세 농산어촌 청소년의 무기력감 경험률이 높음. 또한 가구소득이 400만원 미만인 집단이 400만원 이상보다, 한부모 조손가족 청소년이 양부모 가족 청소년보다 무기력감을 더 많이 경험함.

표 11-30 스트레스 및 무기력감 경험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				SNS 소셜미디어 사용으로 인한 스트레스				무기력감			
			전체	9-12세	13-18세	19-24세	전체	9-12세	13-18세	19-24세	전체	9-12세	13-18세	19-24세
연도별	2017	7,676	53.9	33.9	55.5	61.3	-	-	-	-	-	-	-	-
	2020	7,170	52.4	34.2	53.0	60.5	-	-	-	-	-	-	-	-
	2023	7,423	74.6	56.4	78.9	81.2	31.7	22.5	35.7	33.5	20.6	17.9	26.0	17.6
청소년 성별	남자	3,837	73.8	56.2	77.2	80.7	28.1	21.9	32.6	27.9	20.3	17.9	24.6	18.1
	여자	3,586	75.4	56.6	80.7	81.6	35.5	23.2	38.9	39.6	20.9	17.9	27.4	17.2
학교급 및 재학 여부	초등학교	1,626	55.0	54.8	66.9	-	22.1	21.7	36.6	-	18.0	17.4	48.3	-
	중학교	1,354	74.5	73.6	74.6	-	33.8	30.8	34.2	-	24.1	23.7	24.2	-
	고등학교	1,264	83.1	-	84.0	62.9	38.2	-	37.6	52.2	27.8	-	27.7	30.8
	대학교	2,608	80.1	-	73.6	80.4	33.5	-	29.2	33.6	16.8	-	18.8	16.7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	570	86.3	-	80.1	86.4	31.5	-	43.8	31.3	20.4	-	19.3	20.4
거주 지역	대도시	3,124	76.0	55.1	82.0	82.0	31.1	18.3	36.2	33.8	15.8	13.3	21.5	12.9
	중소도시	3,263	75.6	57.6	77.8	83.6	31.5	25.7	34.2	32.6	22.5	19.0	26.9	20.6
	농산어촌	1,036	67.1	56.6	74.0	68.4	33.8	24.7	38.8	36.0	29.0	26.0	35.1	24.9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418	73.8	54.5	82.7	74.2	33.0	24.6	37.3	33.1	26.8	22.2	29.4	26.9
	200~400만원 미만	1,392	72.7	53.4	78.8	82.8	33.1	18.9	42.0	36.5	27.1	17.3	38.7	24.8
	400~600만원 미만	3,654	73.1	55.5	78.5	79.4	32.8	24.4	36.2	35.1	19.3	17.6	23.2	16.9
	600만원 이상	1,959	78.7	62.0	79.3	85.8	28.3	21.8	30.7	29.1	16.9	19.0	22.7	11.0
가구 형태	양부모	6,607	74.4	56.5	78.9	82.0	31.9	22.7	35.4	34.6	19.9	17.7	25.5	16.0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372	73.0	55.7	79.1	76.9	30.8	19.3	42.3	28.5	24.9	22.6	36.0	18.7

* 주: 1) 'SNS 소셜미디어 사용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 '어떠한 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 상태를 느낀다' 등 2개 문항을 2023년도부터 신규로 측정함.

2) 개별 문항별 응답항목 빈도는 기초통계표 참고

* 자료: 백혜정 외 (2017).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김기현 외 (20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부모의 스트레스 경험에 따라 청소년의 스트레스 및 무기력감 경험률에 차이가 있음. 부모가 일상적인 스트레스, 양육 관련 스트레스, 슬픔, 절망감, 대인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 청소년도 일상 생활에서의 스트레스, SNS로 인한 스트레스, 무기력감을 더 많이 경험함.
- 부모가 슬픔과 절망감을 경험한 집단, 대인관계 어려움을 경험한 집단은 일상적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한 집단보다 청소년이 SNS로 인한 스트레스, 무기력감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현상은 모든 연령대에서 일관되게 나타남.

표 II-31 부모의 스트레스 경험에 따른 청소년의 스트레스 및 무기력감 경험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청소년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 경험률				SNS 소셜미디어 사용으로 인한 스트레스 경험률				무기력감 경험률			
				전체	9-12세	13-18세	19-24세	전체	9-12세	13-18세	19-24세	전체	9-12세	13-18세	19-24세
부 모	일상적 스트레스	경험함	5,723	80.4	61.5	85.7	87.6	33.1	23.1	37.7	35.4	20.8	18.2	27.2	16.5
		경험하지 않음	1,256	46.9	32.6	49.2	53.9	25.8	20.1	26.8	28.5	17.4	16.6	20.4	14.9
	양육관련 스트레스	경험함	4,312	80.8	63.1	85.9	89.8	35.6	25.4	39.3	39.7	22.9	19.6	27.9	19.6
		경험하지 않음	2,667	63.9	41.9	64.5	72.8	25.8	16.5	28.1	28.2	15.7	14.1	21.9	12.5
	슬픔, 절망감 경험	경험함	934	78.6	73.6	80.9	80.9	57.3	52.2	61.1	57.4	51.7	48.6	57.8	46.7
		경험하지 않음	6,045	73.7	53.0	78.6	81.7	27.9	16.6	31.4	31.5	15.3	11.8	20.6	12.7
	대인관계 어려움	경험함	1,288	81.4	73.5	84.5	84.6	54.2	48.1	57.6	55.4	46.1	45.0	54.4	37.7
		경험하지 않음	5,692	72.7	52.0	77.6	81.1	26.8	15.9	30.5	30.0	14.3	10.8	19.2	12.0

② 회복탄력성

- 전체 청소년(9-24세)의 회복탄력성 수준은 4점 만점 중 평균 2.81점임.
- 연령별로는 9-12세가 2.84점, 13-18세가 2.77점, 19-24세가 2.83점으로, 13-18세의 회복탄력성이 가장 낮음.
- 특성별로는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의 청소년이 회복탄력성이 높은 수준을 보였고, 농산어촌 청소년이 회복탄력성이 낮은 수준을 보임.
- SNS로 인한 스트레스 및 무기력감을 경험한 집단의 회복탄력성 수준이 높음.
- 회복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은 코로나로 인한 삶의 변화가 없다고 인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회복탄력성이 낮은 청소년은 코로나로 인한 변화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인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회복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은 낮은 청소년보다 디지털 기술로 인한 삶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함.

- 전체 청소년(9-24세)의 회복탄력성 수준을 1-4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회복탄력성 점수는 평균 2.81점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9-12세가 2.84점, 13-18세가 2.77점, 19-24세가 2.83점으로 나타나, 13-18세의 회복탄력성이 가장 낮음.
- 특성별로는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의 청소년이 회복탄력성이 높은 수준을 보였고, 농산어촌 청소년이 회복탄력성이 낮은 수준을 보임.
 -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회복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대학생,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의 회복탄력성 수준이 중학생, 고등학생보다 높음.
 - 거주지역별로는 대도시, 중소도시 청소년이 농산어촌 청소년보다 회복탄력성이 높고,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600만원 이상인 경우가 회복탄력성이 높음.

구분		회복탄력성(1-4점)				
		사례수	전체	9-12세	13-18세	19-24세
연도별	2023	7,423	2.81	2.84	2.77	2.83
청소년 성별	남자	3,837	2.83	2.86	2.79	2.85
	여자	3,586	2.80	2.82	2.76	2.81
학교급 및 재학여부	초등학교	1,626	2.84	2.85	2.68	-
	중학교	1,354	2.77	2.80	2.77	-
	고등학교	1,264	2.77	-	2.77	2.64
	대학교	2,608	2.84	-	2.85	2.83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	570	2.83	-	2.82	2.83
거주지역	대도시	3,124	2.85	2.92	2.82	2.85
	중소도시	3,263	2.80	2.80	2.76	2.83
	농산어촌	1,036	2.74	2.76	2.69	2.79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18	2.83	2.80	2.70	2.86
	200~400만원 미만	1,392	2.77	2.82	2.73	2.76
	400~600만원 미만	3,654	2.79	2.83	2.75	2.79
	600만원 이상	1,959	2.89	2.89	2.84	2.93
가구형태	양부모	6,607	2.81	2.84	2.78	2.82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372	2.78	2.84	2.71	2.81

* 주: 1) 회복탄력성은 20223년도부터 신규 측정된 문항으로 개별 문항의 평균은 다음과 같음.

‘힘든 시간을 보낸 후에는 빨리 회복하는 편이다(평균 2.90점)’, ‘스트레스가 많은 사건을 이겨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평균 2.27점)’, ‘스트레스가 많은 사건에서 회복하는 데 그다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평균 2.83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돌이키기가 어렵다(평균 2.19점)’, ‘보통 별 어려움 없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낸다(평균 2.84점)’, ‘내 인생의 좌절을 극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향이 있다(평균 2.23점)’

2) 개별 문항별 항목별 빈도는 기초통계표 참고

- 청소년의 스트레스 및 무기력 경험별 회복탄력성 수준을 살펴보면, SNS로 인한 스트레스, 무기력감을 경험한 집단의 회복탄력성 수준이 높음.
- 일상적 스트레스를 경험한 집단과 무경험 집단의 회복탄력성 수준은 각각 2.81점, 2.80점으로 유사함. 그러나 9-12세에서는 일상적 스트레스 무경험 집단의 회복탄력성 수준이 낮음.
 - SNS로 인한 스트레스 및 무기력 상태 경험 여부에 따라서는 경험한 집단은 모든 연령대에서 회복탄력성 수준이 높음.

표 11-33 스트레스 경험별 회복탄력성 수준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회복탄력성			
			전체	9-12세	13-18세	19-24세
일상적 스트레스	경험함	5,536	2.81	2.84	2.77	2.83
	경험하지 않음	1,887	2.80	2.77	2.77	2.83
SNS로 인한 스트레스	경험함	2,352	2.87	2.93	2.79	2.85
	경험하지 않음	5,071	2.67	2.58	2.66	2.70
무기력 상태	경험함	1,527	2.88	2.92	2.84	2.90
	경험하지 않음	5,896	2.59	2.57	2.59	2.62

○ 회복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은 낮은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삶의 변화가 없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고, 긍정적/부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인식한 비율은 낮음.

- 회복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은 낮은 청소년보다 코로나로 인한 변화를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즉, 이들은 전반적인 생활, 가족관계, 친구 관계, 학교생활, 사회에 대한 신뢰,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전망에 있어 변화가 없다고 인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회복탄력성이 낮은 청소년은 높은 청소년에 비해 코로나로 인한 변화를 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임. 즉, 이들은 전반적인 생활, 가족관계, 친구 관계, 학교생활, 사회에 대한 신뢰, 진로 및 취업 전망 등에 있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변화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34 회복탄력성 수준에 따른 코로나로 인한 삶의 변화 인식 (단위: 명, %)

구분			전체			9-12세			13-18세			19-24세		
			긍정적으로 변화	변화 없음	부정적으로 변화	긍정적으로 변화	변화 없음	부정적으로 변화	긍정적으로 변화	변화 없음	부정적으로 변화	긍정적으로 변화	변화 없음	부정적으로 변화
회복탄력성 수준에 따른 코로나로 인한 삶의 변화 인식	전반적인 생활	회복탄력성 높음	26.7	61.9	11.4	29.4	61.6	8.9	27.5	61.6	10.9	24.7	62.3	13.0
		회복탄력성 낮음	33.5	54.0	12.5	35.9	54.2	9.9	34.4	53.0	12.6	31.0	54.9	14.1
	가족 관계	회복탄력성 높음	30.4	66.5	3.2	33.9	63.9	2.2	30.0	66.9	3.1	28.7	67.6	3.7
		회복탄력성 낮음	34.4	59.5	6.2	37.4	56.5	6.1	35.3	59.1	5.6	31.6	61.7	6.7
	친구 관계	회복탄력성 높음	29.9	60.1	10.0	32.0	55.6	12.4	32.2	57.7	10.1	27.1	64.2	8.7
		회복탄력성 낮음	33.6	52.7	13.7	36.7	50.2	13.1	34.8	52.8	12.4	30.5	54.3	15.2
	학교 생활	회복탄력성 높음	26.2	54.7	19.2	27.6	55.3	17.1	27.6	51.5	20.9	24.3	56.8	19.0
		회복탄력성 낮음	32.1	44.7	23.2	32.7	48.1	19.2	33.0	42.6	24.4	30.7	44.8	24.5
	사회에 대한 신뢰	회복탄력성 높음	18.2	53.1	28.7	-	-	-	19.3	54.5	26.3	17.5	52.1	30.4
		회복탄력성 낮음	26.4	44.3	29.3	-	-	-	28.5	45.1	26.3	24.3	43.5	32.2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전망	회복탄력성 높음	16.8	59.9	23.3	-	-	-	18.2	64.7	17.1	15.8	56.5	27.7
		회복탄력성 낮음	25.0	51.0	24.0	-	-	-	27.1	53.0	19.9	23.0	49.0	28.0

* 주: 회복탄력성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은 평균 점수(2.81점)를 기준으로 평균 이상이면 높은 집단, 미만이면 낮은 집단으로 구분함.

- 회복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은 낮은 청소년에 비해 디지털 기술로 인한 삶의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함.
- 회복탄력성이 높은 청소년(56.0%)은 낮은 청소년(46.2%)에 비해 디지털 기술로 인한 삶의 변화를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함.
 - 회복탄력성이 낮은 청소년은 높은 청소년에 비해 디지털 기술로 인한 삶이 변화하지 않았거나 (높음: 39.4%, 낮음: 45.1%) 부정적으로 변했다고 인식하는 것(높음: 4.6%, 낮음: 8.7%)으로 나타남. 회복탄력성이 낮은 13-18세가 19-24세보다 디지털 기술로 인해 삶이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인식은 낮고, 변화가 없거나 부정적으로 변했다는 인식은 높음.

표 11-35 회복탄력성 수준에 따른 디지털 기술로 인한 삶의 변화 인식 (단위: 명, %)

구분		전체			13-18세			19-24세		
		긍정적으로 변화	변화 없음	부정적으로 변화	긍정적으로 변화	변화 없음	부정적으로 변화	긍정적으로 변화	변화 없음	부정적으로 변화
회복탄력성 수준에 따른 디지털 기술로 인한 삶의 변화 인식	회복탄력성 높음	56.0	39.4	4.6	54.8	41.4	3.8	56.8	37.9	5.2
	회복탄력성 낮음	46.2	45.1	8.7	42.9	47.9	9.2	49.5	42.2	8.3

* 주: 회복탄력성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은 평균 점수(2.81점)를 기준으로 평균 이상이면 높은 집단, 미만이면 낮은 집단으로 구분함.

③ 심리상담 경험

- 청소년의 심리상담 경험률은 '20년 2.3%에서 '23년 2.8%로 증가하였으며, 9-12세 청소년의 심리상담경험률 증가폭이 가장 큼.
- 연령별로는 13-18세 청소년의 심리상담 경험률이 4.1%로 가장 높고, 19-24세 청소년의 심리상담 경험률(1.8%)이 가장 낮음.
- 특성별로는 중고등학생과 9-12세의 고소득(600만원 이상), 13-18세의 저소득(200만원 미만) 청소년이 심리상담 경험률이 높았으며,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과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청소년의 심리상담 경험률이 낮음.
- 일상적 스트레스, 무기력 상태 경험집단,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응답한 집단의 심리상담 경험률이 높게 나타남. 일상적 스트레스를 자주 받는 9-12세 청소년,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응답한 13-18세 청소년의 심리상담 경험률이 특히 높음.

- 청소년에게 최근 1년 동안 학교상담실,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학과 전문의 상담 등 심리상담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지 조사함. 그 결과, 청소년의 심리상담 경험률은 '20년 2.3%에서 '23년 2.8%로 증가하였으며, 9-12세 청소년의 심리상담경험률이 증가폭이 가장 큼.
 - 9-12세 청소년의 심리상담 경험률은 2.8%로 '20년(1.8%)에 비해 1.0%p 증가함.
 - 13-18세 청소년의 심리상담 경험률은 4.1%로 '20년(4.0%)에 비해 0.1%p 증가함.
 - 19-24세 청소년의 심리상담 경험률은 1.8%로, '20년(1.3%)에 비해 0.5%p 증가함.
- 연령별로는 13-18세 청소년의 심리상담 경험률이 4.1%로 가장 높고, 19-24세 청소년의 심리상담 경험률(1.8%)이 가장 낮음.
- 특성별로는 중고등학생과 9-12세의 고소득(600만원 이상), 13-18세의 저소득(200만원 미만) 청소년이 심리상담 경험률이 높았으며,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과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청소년의 상담 경험률이 낮음.
 - 9-12세에서는 남자 청소년, 13-24세에서는 여자 청소년의 상담 경험률이 더 높음.
 - 중고등학생(4.0%)이 대학생,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보다 심리상담 경험률이 높음.
 - 대도시 거주 청소년은 농산어촌, 중소도시 청소년보다 심리상담을 더 많이 받음.
 - 가구소득별로는 13-18세 청소년 중 저소득(200만원 미만) 집단은 8.9%의 높은 상담 경험률을 보였으며, 9-12세와 13-18세 청소년 중 고소득(600만원 이상) 집단에서도 상담 경험률이 높음. 반면, 400-600만원 미만 소득 집단에서는 2.0%로 상담 경험률이 낮음.

- 한부모 및 조손가족 가구의 청소년 심리상담 경험률이 낮았으며, 이는 9-12세와 19-24세 연령대에서 나타난 결과임.

표 II-36 심리상담 경험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체	9-12세	13-18세	19-24세
연도별	2020	7,170	2.3	1.8	4.0	1.3
	2023	7,423	2.8	2.8	4.1	1.8
청소년 성별	남자	3,837	2.6	3.2	3.6	1.4
	여자	3,586	3.1	2.4	4.6	2.2
학교급 및 재학여부	초등학교	1,626	2.7	2.8	-	-
	중학교	1,354	4.0	3.2	4.1	-
	고등학교	1,264	4.0	-	4.2	-
	대학교	2,608	1.9	-	2.9	1.9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	570	1.6	-	13.9	1.4
거주지역	대도시	3,124	3.7	4.1	4.8	2.7
	중소도시	3,263	2.0	1.5	3.4	1.0
	농산어촌	1,036	2.9	3.5	4.3	0.9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18	2.9	3.8	8.9	1.5
	200~400만원 미만	1,392	3.3	2.2	6.9	1.0
	400~600만원 미만	3,654	2.0	1.7	2.9	1.4
	600만원 이상	1,959	3.9	6.2	3.9	2.9
가구형태	양부모	6,607	2.9	2.9	4.1	1.8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372	1.7	1.7	4.3	0.0

* 주: 개별 문항별 응답항목 빈도는 기초통계표 참고

* 자료: 김기현 외 (20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일상적 스트레스, 무기력 상태 경험집단,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응답한 집단의 심리상담 경험률이 높게 나타남. 일상적 스트레스를 자주 받는 9-12세 청소년,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응답한 13-18세 청소년의 심리상담 경험률이 특히 높음.
- 일상적 스트레스를 자주 경험한 청소년의 심리 상담 경험률이 6.0%로 다른 집단보다 높음. 저연령(9-12세)이면서 일상적 스트레스를 자주 경험한 집단이 심리상담 경험률이 특히 높음.
- 무기력 상태를 경험한 청소년 집단의 심리상담 경험률이 높음. 그러나 19-24세에서는 무기력 감 경험한 집단과 무경험 집단 간의 심리상담 경험률 차이가 0.2%p로 적음.
-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건강하다고 응답한 청소년보다 더 높은 심리상담 경험률을 보임.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응답한 13-18세 청소년의 심리상담 경험률이 특히 높음.

표 11-37 스트레스 경험 및 정신 건강 수준별 심리상담 경험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심리상담 경험률			
			전체	9-12세	13-18세	19-24세
일상 생활 스트레스	전혀 경험하지 않았다	231	1.6	2.6	1.3	-
	별로 경험하지 않았다	1,656	1.8	2.6	2.4	0.2
	가끔 경험했다	4,941	2.8	2.6	4.1	2.0
	자주 경험했다	594	6.0	10.2	7.9	3.5
무기력 상태	경험하지 않음	5,896	2.6	2.7	3.6	1.7
	경험함	1,527	3.7	3.5	5.3	1.9
주관적 정신 건강 수준	전혀 그렇지 않다	10	6.8	-	14.6	-
	그렇지 않은 편이다	225	16.2	12.8	19.2	13.5
	그런 편이다	4,616	2.0	1.6	3.1	1.2
	매우 그렇다	2,573	3.2	4.2	4.0	1.8

2-4. 주관적 건강 평가 및 자존감

① 신체적 건강 수준

- 청소년이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7.6%로 '17년, '20년 대비 소폭 증가함.
- 특히 19-24세 청소년이 '17년 96.7%에서 '23년 97.4%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 신체적으로 비교적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12세, 초등학생, 대도시 거주 청소년, 600만원 이상 가구의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높고, 건강하지 못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3-18세,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 농산어촌 청소년, 가구소득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음.
- 청소년의 수면 시간, 식습관, 운동습관에 따라서는 주중 및 주말 시간이 적정시간인 경우, 아침식사를 하는 경우, 운동 및 신체활동을 하면서 주당 7시간 이상 하는 경우 신체적으로 보다 건강하다고 인식함.

- 청소년이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7.6%로 '17년, '20년 대비 소폭 증가함.
특히 19-24세 청소년가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응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9-12세가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율을 '17년 98.6%에서 '20년 98.3%로 소폭 감소했다가 '23년에 98.6%로 증가함.
 - 13-18세 청소년은 '17년 97.8%에서 '20년 97.3%로 감소한 후, '23년에 변화가 없음.
 - 반면 19-24세 청소년은 '17년 96.7%에서 '23년 97.4%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 9-12세 청소년, 초등학생, 대도시 거주 청소년, 600만원 이상 가구의 청소년은 신체적으로 비교적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19-24세 청소년 중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4.2%), 농산어촌(4.7%), 200만원 미만(4.7%)에서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38 신체적 건강 수준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전체			9-12세			13-18세			19-24세		
			건강 하다	건강 하지 않다	평균	건강 하다	건강 하지 않다	평균	건강 하다	건강 하지 않다	평균	건강 하다	건강 하지 않다	평균
연도별	2017	7,676	97.4	2.6	3.46	98.6	1.4	3.58	97.8	2.2	3.46	96.7	3.3	3.40
	2020	7,170	97.4	2.6	3.46	98.3	1.7	3.53	97.3	2.7	3.46	97.0	3.0	3.43
	2023	7,423	97.6	2.4	3.40	98.6	1.4	3.46	97.3	2.7	3.37	97.4	2.6	3.40
청소년 성별	남자	3,837	97.9	2.1	3.44	99.0	1.0	3.49	97.8	2.2	3.41	97.5	2.5	3.44
	여자	3,586	97.4	2.6	3.36	98.2	1.8	3.43	96.8	3.2	3.32	97.3	2.7	3.36
학교급 및 재학 여부	초등학교	1,626	98.6	1.4	3.46	98.6	1.4	3.46	100.0	0.0	3.23	-	-	-
	중학교	1,354	97.6	2.4	3.37	98.7	1.3	3.43	97.4	2.6	3.36	-	-	-
	고등학교	1,264	97.2	2.8	3.37	-	-	-	97.1	2.9	3.37	100.0	0.0	3.37
	대학교	2,608	97.7	2.3	3.43	-	-	-	98.1	1.9	3.44	97.7	2.3	3.43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	570	95.8	4.2	3.31	-	-	-	93.9	6.1	3.19	95.8	4.2	3.31
거주지 역	대도시	3,124	98.2	1.8	3.46	99.0	1.0	3.54	98.7	1.3	3.43	97.5	2.5	3.43
	중소도시	3,263	97.7	2.3	3.37	98.7	1.3	3.43	96.8	3.2	3.32	97.8	2.2	3.37
	농산어촌	1,036	95.8	4.2	3.36	97.4	2.6	3.37	95.1	4.9	3.32	95.3	4.7	3.40
가구소 득	200만원 미만	418	95.9	4.1	3.34	100.0	0.0	3.36	96.5	3.5	3.22	95.3	4.7	3.37
	200~400만원 미만	1,392	96.1	3.9	3.33	98.4	1.6	3.42	94.7	5.3	3.28	95.4	4.6	3.32
	400~600만원 미만	3,654	97.8	2.2	3.41	98.1	1.9	3.48	97.4	2.6	3.36	97.9	2.1	3.41
	600만원 이상	1,959	98.9	1.1	3.46	99.8	0.2	3.47	98.9	1.1	3.45	98.6	1.4	3.47
가구형 태	양부모	6,607	97.8	2.2	3.41	98.5	1.5	3.47	97.6	2.4	3.37	97.5	2.5	3.41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372	96.8	3.2	3.36	100.0	0.0	3.37	92.2	7.8	3.25	98.4	1.6	3.43

* 주: 개별 문항별 응답항목 빈도는 기초통계표 참고

* 자료: 백혜정 외 (2017).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김기현 외 (20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수면 시간, 식습관, 운동습관에 따라서는 주중 및 주말 시간이 적정시간인 경우, 아침식사를 하는 경우, 운동 및 신체활동을 하면서 주당 7시간 이상 하는 경우 신체적으로 보다 건강하다고 인식함.
- 주중 및 주말 수면시간이 적정시간인 집단이 적정시간 미만이거나 초과한 집단보다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식함.
 - 아침식사를 하는 집단(3.44점)이 하지 않는 집단(3.34점)보다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운동습관에 따라서는 실내 운동 및 야외활동을 하는 경우가 하지 않는 경우보다, 실내운동 및 야외활동 시간이 적정시간 이상인 경우가 적정시간 미만인 경우보다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식함.

표 11-39 수면 시간, 식습관, 운동습관에 따른 신체적 건강 수준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신체적 건강 수준			
				전체	9-12세	13-18세	19-24세
수면 시간	주중 수면 시간	적정시간 미만	334	3.37	3.30	3.37	3.43
		적정시간	4,793	3.44	3.47	3.39	3.43
		적정시간 초과	2,296	3.35	3.00	3.34	3.36
	주말 수면 시간	적정시간 미만	104	3.40	3.25	3.55	3.41
		적정시간	3,319	3.44	3.47	3.39	3.42
		적정시간 초과	4,000	3.38	3.27	3.36	3.40
	수면 시간 충분도	충분함	5,083	3.42	3.48	3.38	3.42
		충분하지 않음	2,340	3.36	3.39	3.35	3.37
식습관	아침식사 여부	식사함	4,958	3.44	3.48	3.40	3.45
		식사하지 않음	2,465	3.34	3.34	3.28	3.36
운동	실내운동 및 야외활동 여부	있음	3,996	3.44	3.51	3.40	3.41
		없음	3,427	3.37	3.34	3.32	3.40
	실내운동 및 야외활동 시간	적정시간 미만	3,467	3.43	3.49	3.40	3.41
		적정시간 이상	530	3.49	3.57	3.47	3.42

주: 1) 수면 시간 적정시간 기준은 9-12세 8~12시간, 13-24세 6~8시간 기준으로 구분함.

2) 수면 시간 충분도는 청소년의 주관적 인식임.

3) 실내운동 및 야외활동 시간은 주 7시간을 기준으로 구분함.

② 정신적 건강 수준

- 청소년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6.8%로 '20년 대비 감소함.
- 9-18세 청소년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년 대비 감소, 19-24세 청소년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7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9-12세, 초등학생, 600만원 이상 가구소득 청소년은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식한 비율이 높음. 반면, 농산어촌,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한부모 및 조손가족 청소년 중 13-18세는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일상적 스트레스, SNS 스트레스, 무기력감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 회복탄력성 수준이 높은 집단이 자신의 정신적 건강 수준을 더 높게 평가함.

- 청소년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6.8%로 '20년 대비 감소함. 연령별로는 차이가 있어 9-18세 청소년은 '20년 대비 감소, 19-24세 청소년은 '17년 이후 증가함.
 - 9-12세 청소년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년 98.8%에서 '23년 98.6%로 소폭 감소함.
 - 13-18세 청소년도 마찬가지로 '20년 97.8%에서 '23년에는 95.5%로 감소함. 즉, 13-18세 청소년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식한 비율이 감소폭이 더 큼.
 - 19-24세 청소년은 '17년 95.5%, '20년 96.7%, '23년 97.2%로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 9-12세 청소년, 초등학생, 600만원 이상 가구의 청소년은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식함.
 - 반면, 농산어촌,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한부모 및 조손가족 청소년 중 13-18세인 경우가 특히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표 11-40

정신적 건강 수준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전체			9-12세			13-18세			19-24세		
			건강 하다	건강 하지 않다	평균	건강 하다	건강 하지 않다	평균	건강 하다	건강 하지 않다	평균	건강 하다	건강 하지 않다	평균
연도별	2017	7,676	96.6	3.4	3.43	98.5	1.5	3.58	97.0	3.0	3.43	95.5	0.5	3.37
	2020	7,170	97.5	2.5	3.41	98.8	1.2	3.49	97.8	2.2	3.40	96.7	3.3	3.37
	2023	7,423	96.8	3.2	3.31	98.6	1.4	3.46	95.5	4.5	3.27	97.2	2.8	3.31
청소년 성별	남자	3,837	97.4	2.6	3.35	99.0	1.0	3.49	96.6	3.4	3.32	97.5	2.5	3.33
	여자	3,586	96.3	3.7	3.28	98.2	1.8	3.43	94.3	5.7	3.22	96.9	3.1	3.28
학교급 및 재학 여부	초등학교	1,626	98.3	1.7	3.40	98.6	1.4	3.46	100.0	0.0	3.21	-	-	-
	중학교	1,354	95.9	4.1	3.29	98.7	1.3	3.43	95.8	4.2	3.28	-	-	-
	고등학교	1,264	94.9	5.1	3.25	-	-	-	94.8	5.2	3.25	96.7	3.3	3.21
	대학교	2,608	97.8	2.2	3.33	-	-	-	99.3	0.7	3.37	97.7	2.3	3.32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	570	94.9	5.1	3.23	-	-	-	88.3	11.7	3.07	95.1	4.9	3.23
거주 지역	대도시	3,124	97.6	2.4	3.35	99.0	1.0	3.54	97.0	3.0	3.30	97.3	2.7	3.32
	중소도시	3,263	96.8	3.2	3.28	98.7	1.3	3.43	95.1	4.9	3.25	97.5	2.5	3.28
	농산어촌	1,036	94.9	5.1	3.31	97.4	2.6	3.37	92.7	7.3	3.24	96.0	4.0	3.36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418	92.7	7.3	3.22	100.0	-	3.36	86.1	13.9	3.03	93.8	6.2	3.26
	200~400만원 미만	1,392	94.3	5.7	3.23	98.4	1.6	3.42	91.4	8.6	3.17	94.2	5.8	3.19
	400~600만원 미만	3,654	97.4	2.6	3.32	98.1	1.9	3.48	95.8	4.2	3.26	98.3	1.7	3.31
	600만원 이상	1,959	98.4	1.6	3.38	99.8	0.2	3.47	98.3	1.7	3.36	98.5	1.5	3.39
가구 형태	양부모	6,607	97.0	3.0	3.32	98.5	1.5	3.47	95.8	4.2	3.28	97.2	2.8	3.31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372	94.5	5.5	3.24	100.0	0.0	3.37	88.5	11.5	3.11	97.0	3.0	3.30

* 주: 개별 문항별 응답항목 빈도는 기초통계표 참고

* 자료: 백혜정 외 (2017).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김기현 외 (20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스트레스와 무기력감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 회복탄력성 수준이 높은 집단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식함.
- 일상적 스트레스, SNS 스트레스, 무기력감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낮음.
 - 회복탄력성 수준이 높을수록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41 스트레스 경험 및 회복탄력성에 따른 정신적 건강 수준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정신적 건강 수준			
				전체	9-12세	13-18세	19-24세
스트레스	일상적 스트레스	경험함	5,536	3.27	3.32	3.24	3.28
		경험하지 않음	1,887	3.43	3.50	3.37	3.40
	SNS 사용으로 인한 스트레스	경험함	2,352	3.19	3.20	3.17	3.22
		경험하지 않음	5,071	3.37	3.45	3.32	3.35
	무기력감	경험함	1,527	3.15	3.17	3.12	3.17
		경험하지 않음	5,896	3.36	3.45	3.32	3.33
회복탄력성		상(18-24점)	3376	3.44	3.52	3.41	3.41
		중(13-17점)	3778	3.23	3.30	3.19	3.23
		하(6-12점)	268	2.90	3.11	2.88	2.83

* 주: 1) 회복탄력성 총 6개 문항으로 상, 중, 하 3개 집단으로 구분함. 상은 18-24점, 중은 13-17점, 하는 6-12점임.

③ 신체적 건강수준과 정신적 건강수준의 관련성

◦ 청소년이 인식하는 정신적 건강 수준이 높을수록 신체적 건강 수준도 높게 인식.

○ 정신적 건강 수준에 따른 신체적 건강 수준이 다른지 분석한 결과, 청소년이 인식하는 정신적 건강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신체적 건강 수준도 높은 것으로 인식.

-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식한 집단이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식한 비율이 높았으며,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응답한 집단이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표 11-42 정신적 건강 수준에 따른 신체적 건강 수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신체적 건강 수준											
			9-12세				13-18세				19-24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정신적 건강 수준	전혀 그렇지 않다	10	33.0	67.0	-	-	42.4	-	14.6	43.0	45.6	-	54.4	-
	그렇지 않은 편이다	225	-	13.3	82.9	3.8	-	30.4	65.7	3.9	-	40.7	56.4	2.9
	그런 편이다	4,616	0.1	1.7	80.0	18.3	-	2.0	78.4	19.6	0.1	2.2	75.9	21.8
	매우 그렇다	2,573	-	0.1	10.4	89.5	-	0.1	14.8	85.1	-	0.1	13.0	86.9

④ 대인관계 역량

- 전체 청소년(9-24세)의 대인관계 역량 수준은 평균 3.09점으로, 이는 '17년에 비해 0.11점 감소한 것임.
- 특성별로 대인관계 역량 수준을 살펴보면,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가 명확함.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청소년이 600만원 미만인 청소년보다 더 높은 대인관계 역량 수준을 보임.
- 대인관계 역량 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낮은 청소년에 비해 주관적 웰빙 수준이 높고, 일상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4점 척도로 측정한 전체 청소년(9-24세)의 대인관계 역량 수준을 살펴보면, 평균 3.09점인 것으로 나타남. 이는 '17년에 비해 0.11점 감소한 것임.
 - 청소년의 대인관계 역량 수준은 '17년 3.20점에서 '20년 3.09점으로 낮아진 후 '23년도 3.09점으로 변화 없음.
- 특성별로 대인관계 역량수준을 살펴보면,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가 명확함.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청소년이 600만원 미만인 청소년보다 더 높은 대인관계 역량 수준을 보임.
 - 9-12세 청소년(3.12점)이 13-18세 청소년(3.06점)보다, 남자 청소년(3.11점)이 여자 청소년(3.08점)보다 대인관계 역량 수준이 높음.
 - 대도시 지역 청소년이 중소도시, 농산어촌 청소년보다, 양부모 가족 청소년이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청소년보다 더 높은 대인관계 역량 수준을 보임.
 - 다른 특성보다 가구소득에 따른 대인관계 역량 수준 차이가 컸는데,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집단이 600만원 미만보다 대인관계 역량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11-43 대인관계 역량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대인관계 역량(1-4점)			
			전체	9-12세	13-18세	19-24세
연도별	2017	7,676	3.20	3.29	3.22	3.15
	2020	7,170	3.09	3.08	3.09	3.09
	2023	7,423	3.09	3.12	3.06	3.10
청소년 성별	남자	3,837	3.11	3.13	3.08	3.11
	여자	3,586	3.08	3.11	3.05	3.09
학교급 및 재학여부	초등학교	1,626	3.12	3.13	2.99	-
	중학교	1,354	3.07	3.10	3.06	-
	고등학교	1,264	3.06	-	3.07	2.91
	대학교	2,608	3.11	-	3.05	3.12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	570	3.05	-	2.85	3.06
거주지역	대도시	3,124	3.13	3.19	3.10	3.12
	중소도시	3,263	3.06	3.07	3.03	3.08
	농산어촌	1,036	3.09	3.11	3.06	3.11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18	3.04	2.96	2.87	3.08
	200~400만원 미만	1,392	3.01	3.07	2.97	3.00
	400~600만원 미만	3,654	3.07	3.11	3.03	3.07
	600만원 이상	1,959	3.22	3.24	3.19	3.22
가구형태	양부모	6,607	3.09	3.13	3.07	3.10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372	3.06	3.06	2.96	3.12

* 주: 대인관계 역량 개별 문항의 평균은 다음과 같음. 개별 문항별 항목별 빈도는 기초통계표 참고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린다(평균 3.12점)', '다른 사람과 협력을 잘 한다(평균 3.16점)', '다른 사람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잘 해결한다(평균 3.00점)'

* 자료: 백혜정 외 (2017).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김기현 외 (20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대인관계 역량 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낮은 청소년에 비해 주관적 웰빙 수준이 높고, 일상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대인관계 역량이 높은 청소년이 낮은 청소년에 비해 삶의 만족도, 긍정 정서는 높고, 부정 정서는 낮음.
- 대인관계 역량이 높은 청소년은 낮은 청소년에 비해 일상생활 만족도 12개 항목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44 대인관계 역량 수준에 따른 주관적 웰빙, 일상생활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전체		9-12세		13-18세		19-24세	
		대인관계 역량 높음	대인관계 역량 낮음	대인관계 역량 높음	대인관계 역량 낮음	대인관계 역량 높음	대인관계 역량 낮음	대인관계 역량 높음	대인관계 역량 낮음
주관적 웰빙	주관적 웰빙 전체	7.32	6.67	7.68	6.93	7.17	6.53	7.22	6.65
	삶의 만족도	7.23	6.56	7.56	6.85	7.10	6.41	7.14	6.53
	긍정 정서	7.37	6.74	7.63	7.00	7.24	6.61	7.33	6.72
	부정 정서	2.69	3.35	2.20	3.10	2.85	3.49	2.84	3.36
일상생활 만족도	일상생활 만족도 전체	7.76	7.04	7.97	7.28	7.68	7.00	7.70	6.96
	가족과의 관계	8.08	7.39	8.38	7.67	7.99	7.32	7.98	7.31
	내가 사는 집	7.82	7.09	8.09	7.42	7.83	7.09	7.66	6.92
	내 삶에서 선택의 자유	7.75	7.11	7.86	7.19	7.60	7.02	7.80	7.14
	친구들과의 관계	8.02	7.29	8.20	7.46	7.95	7.28	7.97	7.21
	내가 다니는 학교	7.77	7.02	8.02	7.34	7.67	6.93	7.69	6.91
	나의 외모	7.44	6.73	7.63	7.01	7.40	6.62	7.37	6.66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물건	7.23	6.39	7.50	6.69	7.19	6.40	7.09	6.21
	나의 건강	8.24	7.51	8.44	7.66	8.17	7.53	8.18	7.41
	나의 미래	7.70	6.97	7.96	7.24	7.63	6.94	7.60	6.84
	나의 자유 시간	7.73	7.09	7.83	7.18	7.48	6.87	7.87	7.23
	우리 동네	7.68	6.97	7.93	7.26	7.61	6.96	7.59	6.82
	생활에서의 안전	7.67	6.98	7.84	7.24	7.60	7.01	7.63	6.82

* 주: 1) 대인관계 역량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은 평균 점수(3.09점)를 기준으로 평균 점수 이상을 '높음', 평균 점수 미만을 '낮음'으로 구분

- 대인관계 역량 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낮은 청소년에 비해 일상적 스트레스는 높고, SNS로 인한 스트레스, 무기력감은 낮으며, 신체적, 정신적 건강 수준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11-45 대인관계 역량 수준에 따른 스트레스 경험률,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 (단위: 명, %, 점)

구분		전체		9-12세		13-18세		19-24세	
		대인관계 역량 높음	대인관계 역량 낮음	대인관계 역량 높음	대인관계 역량 낮음	대인관계 역량 높음	대인관계 역량 낮음	대인관계 역량 높음	대인관계 역량 낮음
스트레스 및 무기력감 경험률	일상적 스트레스	75.2	74.1	57.3	55.6	80.4	77.7	81.5	80.8
	SNS로 인한 스트레스	27.3	35.5	18.5	26.4	32.7	38.0	28.1	38.2
	무기력감	16.3	24.2	14.2	21.5	21.4	29.6	13.5	21.2
주관적 건강 인식	신체적 건강 수준	3.57	3.26	3.60	3.33	3.51	3.25	3.59	3.24
	정신적 건강 수준	3.48	3.17	3.53	3.27	3.43	3.13	3.48	3.15

- 대인관계 역량 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낮은 청소년에 비해 부모의 방임 수준은 낮고, 부모의 관심도가 높음.

표 11-46 대인관계 역량 수준에 따른 부모의 방임 및 관심도 (단위: 명, 점)

구분		전체		9-12세		13-18세		19-24세	
		대인관계 역량 높음	대인관계 역량 낮음	대인관계 역량 높음	대인관계 역량 낮음	대인관계 역량 높음	대인관계 역량 낮음	대인관계 역량 높음	대인관계 역량 낮음
부모의 방임 및 관심도	부모의 방임 수준	1.34	1.45	1.34	1.44	1.33	1.45	-	-
	부모의 관심도	3.23	3.02	3.29	3.08	3.23	3.04	3.19	2.97

5 자존감

- 전체 청소년(9-24세)의 자존감 수준을 살펴보면, 평균 3.06점이며, '17년에 비해 소폭(0.06점) 감소함.
- 자존감 수준 변화는 연령별로 다르게 나타남. 9-12세, 13-18세 '17년 대비 감소, 19-24세는 '17년, '20년 대비 자존감 수준이 증가함.
- 특성별로 자존감 수준을 살펴보면,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짐.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청소년이 600만원 미만인 청소년보다 자존감이 높음. 자존감이 특히 낮은 집단은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청소년임.
- 학업중단 청소년(3.03점)은 중단경험이 없는 청소년(3.05점)보다 자존감 수준이 낮음.
- 주관적 웰빙, 회복탄력성, 대인관계 역량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나 무기력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 자존감 수준이 높음. 주목할만한 결과는 긍정 정서와 대인관계 역량이 낮은 집단에서 자존감이 낮은 비율이 현저히 높았다는 것임.
- 주관적 웰빙수준, 회복탄력성, 대인관계역량이 높을수록 자존감도 높은 것으로 확인됨. 자존감과 가장 관련 있는 변인은 대인관계 역량으로 나타남.

- 1-4점 척도로 측정한 전체 청소년(9-24세)의 자존감 수준을 살펴보면, 평균 3.06점인 것으로 나타남. 이는 '17년에 비해 0.06점 소폭 감소한 것임.
- 자존감 수준 변화는 연령별로 다르게 나타남. 9-12세, 13-18세 '17년 대비 감소, 19-24세는 '17년, '20년 대비 증가함.
 - 9-12세는 '17년 3.26점에서 '23년 3.10점으로, 13-18세는 '17년 3.14점에서 '23년 3.03점으로 자존감 수준이 낮아짐.
 - 19-24세의 자존감 수준은 '23년 3.07점으로 '17년(3.06점), '20년(3.02점) 대비 소폭 증가함.
- 특성별로 자존감 수준을 살펴보면,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가 명확함.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청소년이 600만원 미만인 청소년보다 더 높은 자존감 수준을 보임.
 - 9-12세 청소년(3.10점)이 13-18세 청소년(3.03점)보다, 남자 청소년(3.07점)이 여자 청소년(3.05점)보다 자존감 수준이 높음.
 - 대도시 지역 청소년이 중소도시, 농산어촌 청소년보다, 양부모 가족 청소년이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청소년보다 자존감 수준이 높음.

- 다른 특성보다 가구소득에 따른 자존감 수준 차이가 컸는데,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집단이 600만원 미만보다 자존감 수준이 두드러지게 높음.
- 자존감 수준이 특히 낮은 집단은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청소년임.

표 11-47

자존감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자존감(1-4점)			
			전체	9-12세	13-18세	19-24세
연도별	2017	7,676	3.12	3.26	3.14	3.06
	2020	7,170	3.04	3.09	3.04	3.02
	2023	7,423	3.06	3.10	3.03	3.07
청소년 성별	남자	3,837	3.07	3.10	3.04	3.08
	여자	3,586	3.05	3.09	3.01	3.06
학교급 및 재학여부	초등학교	1,626	3.10	3.10	3.02	-
	중학교	1,354	3.04	3.03	3.04	-
	고등학교	1,264	3.01	-	3.01	2.99
	대학교	2,608	3.09	-	3.09	3.09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	570	2.98	-	2.90	2.98
거주지역	대도시	3,124	3.10	3.16	3.07	3.09
	중소도시	3,263	3.03	3.05	3.00	3.05
	농산어촌	1,036	3.02	3.07	2.98	3.04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18	3.04	3.02	2.92	3.06
	200~400만원 미만	1,392	2.98	3.04	2.94	2.97
	400~600만원 미만	3,654	3.04	3.08	3.00	3.05
	600만원 이상	1,959	3.16	3.20	3.14	3.16
가구형태	양부모	6,607	3.06	3.10	3.03	3.07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372	2.99	2.98	2.92	3.04

* 주: 개별 문항별 응답항목 빈도는 기초통계표 참고

* 자료: 백혜정 외 (2017).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김기현 외 (20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학업중단 청소년의 자존감은 3.03점으로 중단경험이 없는 청소년(3.05점)보다 자존감 수준이 낮음.

표 11-48

학업 중단 여부별 자존감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자존감(1-4점)		
			전체	13-18세	19-24세
학업중단 여부	중단경험 있음	33	3.03	2.86	3.05
	중단경험 없음	5,647	3.05	3.03	3.07

○ 청소년의 주관적 웰빙 수준, 회복탄력성, 대인관계 역량이 높을수록, 자존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의 긍정적인 정서가 높고 부정적인 정서가 낮으며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존감도 높게 나타남. 주관적 웰빙 요소 중 긍정 정서에 따라 자존감 차이가 컸는데, 긍정 정서가 낮은 청소년 중 높은 자존감을 보고한 비율은 6.3%에 불과했으며, 낮은 자존감을 보고한 비율은 57.9%로 상당히 높음.
- 대인관계 역량수준이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음. 대인관계 역량이 '하'로 매우 낮은 집단에서 높은 자존감 수준을 보고한 비율은 1.3%에 불과했으며, 낮은 자존감을 보고한 비율은 42.9%로 상당히 높음. 즉, 청소년들의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는 기술에 따라 자존감 수준이 달라짐.

표 11-49 주관적 웰빙, 회복탄력성, 대인관계 역량에 따른 자존감 수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자존감 수준											
				전체			9-12세			13-18세			19-24세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주관적 웰빙	긍정 정서	상(14~20점)	4,854	45.6	53.3	1.2	46.1	52.5	1.3	42.1	56.8	1.1	47.8	51.1	1.1
		중(7~13점)	2,533	24.2	71.6	4.2	24.9	70.8	4.3	25.0	71.1	3.9	23.1	72.6	4.3
		하(0~6점)	36	6.3	35.8	57.9	-	41.8	58.2	11.2	39.7	49.0	-	24.4	75.6
	부정 정서	상(14~20점)	178	35.0	56.7	8.2	32.9	61.0	6.1	32.4	60.8	6.8	39.5	49.3	11.3
		중(7~13점)	2,968	28.1	68.8	3.1	22.4	73.8	3.8	28.3	69.1	2.7	30.3	66.5	3.2
		하(0~6점)	4,277	45.2	53.1	1.8	49.1	49.5	1.5	40.8	56.9	2.3	46.0	52.4	1.6
	삶의 만족	상(7~10점)	5,019	45.6	53.3	1.1	45.6	52.9	1.4	43.1	55.8	1.0	47.4	51.7	1.0
		중(4~6점)	2,244	22.5	73.4	4.1	22.9	72.4	4.6	21.9	74.1	4.0	22.9	73.1	4.0
		하(0~3점)	160	22.9	55.6	21.6	29.6	60.2	10.2	15.0	63.0	22.1	27.8	45.2	27.0
회복탄력성	상(18~24점)		774	57.2	41.7	1.1	50.4	48.7	0.9	44.3	54.8	0.9	49.1	49.9	1.1
	중(13~17점)		6,250	35.4	62.0	2.6	31.2	65.6	3.2	29.1	67.9	3.0	30.7	66.1	3.2
	하(6~12점)		399	43.2	53.5	3.3	38.4	52.0	9.5	20.4	65.1	14.6	25.0	64.3	10.8
대인관계 역량	상(10~12점)		3,434	61.1	38.6	0.3	64.3	35.4	0.3	57.7	42.0	0.3	62.0	37.7	0.3
	중(7~9점)		3,849	18.9	78.2	3.0	17.6	78.7	3.7	17.6	79.6	2.8	20.7	76.7	2.7
	하(3~6점)		139	1.3	55.8	42.9	9.4	60.8	29.8	-	51.1	48.9	-	57.7	42.3

* 주: 1) 자존감 수준 3개 집단으로 구분함. 상은 10-12점, 중은 7-9점, 하는 3-6점임.
 2) 주관적 웰빙의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는 각각 3개 집단으로 구분함. 상은 14-20점, 중은 7-13점, 하는 0-6점임.
 3) 주관적 웰빙의 삶의 만족도는 3개 집단으로 구분함. 상은 7-10점, 중은 4-6점, 하는 0-3점임.
 4) 회복탄력성은 3개 집단으로 구분함. 상은 18-24점, 중은 13-17점, 하는 6-12점으로 구분함.
 5) 대인관계는 3개 집단으로 구분함. 상은 10-12점, 중은 7-9점, 하는 3-6점임.

- 청소년의 주관적 웰빙, 회복탄력성, 대인관계 역량, 자존감 간에는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
- 주관적 웰빙수준, 회복탄력성, 대인관계역량이 높을수록 자존감도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자존감과 가장 관련이 있는 변인은 대인관계 역량으로 나타남.

표 11-50 주관적 웰빙, 회복탄력성, 대인관계 역량, 자존감 상관관계 분석

구분	1	2	3	4	5	6
1. 주관적 웰빙 : 긍정 정서	1					
2. 주관적 웰빙 : 부정 정서	-.36***	1				
3. 주관적 웰빙 : 삶의 만족	.72***	-.34***	1			
4. 회복탄력성	.23***	-.32***	.19***	1		
5. 대인관계 역량	.31***	-.19***	.26***	.33***	1	
6. 자존감	.37***	-.22***	.32***	.32***	.55***	1

***p<.001.

3. 부모와의 관계 및 지원 기대 인식

3-1. 부모와의 대화 및 활동

- 9-24세 청소년이 부모와 주 1-3회나 주 4-6회 활동 및 대화하는 비율은 '20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매일 또는 월 1-3회, 거의 대화하지 않는 비율은 '20년 대비 감소함.
- 연령별로 청소년들의 부모님과 대화 및 활동 빈도에 차이가 있음. 9-12세 청소년들은 13-24세 청소년들보다 부모와 더 자주 대화하고 활동하며, 주 4회이상 대화 및 활동하는 비율이 높음. 월 1-3회 이하로 부모님과 거의 활동 및 대화를 하지 않는 비율은 19-24세 청소년에게서 높게 나타남.
- 부모님과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은 저녁식사였으며, 정치 및 사회적 주제에 대한 대화는 가장 적게 이루어짐. 청소년은 주로 부모와 저녁식사, 학교생활에 대화 등 일상적인 대화 및 활동을 더 빈번히 함.

- 9-24세 청소년이 부모와 주 1-3회나 주 4-6회 활동 및 대화하는 비율은 '20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매일 또는 월 1-3회, 거의 대화하지 않는 비율은 '20년 대비 감소함.
 - 매일 부모와 대화 및 활동하는 비율이 '20년 대비 감소함. 부모와의 활동 및 대화 6개 항목에서 모두 감소했으며, 저녁식사 비율의 감소가 두드러짐.
 - 부모님과 대화 및 활동을 주 4-6회하는 비율은 '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함. 나의 고민, 책, 텔레비전, 영화에 대한 대화, 여가활동을 주 4-6회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0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함.
 - 부모님과 대화 및 활동을 주 1-3회 한다는 비율은 '20년 대비 증가함. 부모와의 활동 및 대화 6개 항목 중 나의 고민, 학교생활에 관한 대화를 주 1-3회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함.
- 연령별로 청소년들의 부모님과 대화 및 활동 빈도에 차이가 있음. 9-12세 청소년들은 13-24세 청소년들보다 부모와 더 자주 대화하고 활동하며, 주 4회 이상 대화 및 활동하는 비율이 높음.
 - 9-12세 청소년은 13-24세 청소년보다 부모님과 대화 및 활동을 주 4회 이상 한다는 비율이 높음. 부모와의 활동 및 대화 6개 항목에서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주 1-3회 부모님과 하는 대화 및 활동은 연령별로 달랐음. 9-12세에서는 나의 고민에 대한 대화, 여가활동이, 13-18세에서는 학교생활, 책, 텔레비전, 영화에 대한 대화가 높음.

- 19-24세는 정치, 사회적 주제에 대한 대화, 저녁식사를 하는 비율이 높음.
- 월 1-3회 이하로 부모님과 거의 활동 및 대화를 하지 않는 비율은 19-24세 청소년에게서 높게 나타남.

- 9-24세 청소년 중 부모님과 거의 활동 및 대화 빈도는 저녁식사가 가장 높았으며, 정치 및 사회적 주제에 대한 대화는 가장 적게 이루어짐. 청소년은 주로 부모와 저녁식사, 학교생활에 대화 등 일상적인 대화 및 활동을 더 빈번히 함.
- 부모님과 매일하는 대화 및 활동은 저녁식사가 26.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5.8%), 여가활동(4.4%), 나의 고민에 대한 대화(4.2%), 책과 텔레비전, 영화에 대한 대화(3.6%) 순임.
- 주 4-6회 하는 대화 및 활동에서도 저녁식사가 가장 많고, 정치 및 사회적 주제에 관한 대화는 가장 적음. 주 1-3회 이루어지는 대화 및 활동은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가 36.3%로 가장 많고, 월 1-3회 이루어지는 대화 및 활동은 나의 고민에 대한 대화(39.5%)가 많음.
- 부모님과 거의 대화하지 않는 경우 정치, 사회적 주제에 관한 대화가 56.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표 11-51 부모와의 활동 및 대화 : 매일 한다

(단위: 명, %)

구분	전체			9-12세			13-18세			19-24세		
	2017	2020	2023	2017	2020	2023	2017	2020	2023	2017	2020	2023
① 나의 고민에 대한 대화	5.3	5.0	4.2	11.5	10.3	11.2	5.0	5.1	2.9	2.8	2.4	1.4
②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	9.1	6.7	5.8	23.1	16.8	16.7	9.8	6.3	4.3	2.6	2.3	0.9
③ 책, 텔레비전, 영화에 대한 대화	5.0	4.5	3.6	9.8	8.7	9.3	4.9	4.4	2.9	3.0	2.6	1.1
④ 정치, 사회적 주제에 관한 대화(선거 등)	1.5	1.7	1.1	2.0	2.4	2.3	1.7	2.2	1.1	1.2	1.1	0.4
⑤ 여가 활동	5.0	4.5	4.4	9.7	8.8	9.1	5.6	4.5	3.8	2.6	2.6	2.3
⑥ 저녁 식사	27.0	31.4	26.1	55.8	54.2	52.9	30.4	37.0	26.5	12.0	16.7	10.8

* 주: ②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의 응답 비율은 '해당 없음'을 포함하여 분석된 수치임.

* 자료: 백혜정 외 (2017).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김기현 외 (20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표 II-52 부모와의 활동 및 대화 : 주 4-6회

(단위: 명, %)

구분	전체			9-12세			13-18세			19-24세		
	2017	2020	2023	2017	2020	2023	2017	2020	2023	2017	2020	2023
① 나의 고민에 대한 대화	5.9	5.9	10.2	11.1	10.8	16.6	6.2	6.9	10.0	3.4	3.0	6.8
②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	9.2	11.0	13.1	19.6	19.3	25.6	10.3	14.5	14.1	4.0	4.6	5.2
③ 책, 텔레비전, 영화에 대한 대화	6.8	8.5	12.8	13.5	13.6	21.7	5.8	10.2	12.0	4.6	4.9	8.4
④ 정치, 사회적 주제에 관한 대화(선거 등)	2.1	3.7	4.7	2.1	4.2	6.0	2.1	4.8	5.1	2.1	2.8	3.7
⑤ 여가 활동	7.9	9.9	14.3	13.3	14.7	22.2	7.9	10.5	13.9	5.5	7.1	10.3
⑥ 저녁 식사	24.0	26.1	30.2	24.2	21.4	27.3	23.3	28.2	33.7	24.6	26.8	29.0

* 주: ②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의 응답 비율은 '해당없음'을 포함하여 분석된 수치임.

* 자료: 백혜정 외 (2017).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김기현 외 (20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표 II-53 부모와의 활동 및 대화 : 주 1-3회

(단위: 명, %)

구분	전체			9-12세			13-18세			19-24세		
	2017	2020	2023	2017	2020	2023	2017	2020	2023	2017	2020	2023
① 나의 고민에 대한 대화	24.2	25.3	32.1	31.6	33.7	37.1	26.5	28.3	34.8	19.1	19.4	27.1
②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	28.1	30.0	36.3	32.9	35.3	35.8	34.6	36.4	43.0	21.0	23.0	31.1
③ 책, 텔레비전, 영화에 대한 대화	24.8	27.9	30.0	32.0	34.8	33.4	25.5	28.9	31.4	21.2	24.0	26.9
④ 정치, 사회적 주제에 관한 대화(선거 등)	9.3	10.8	11.5	7.0	8.7	10.1	8.4	10.8	11.0	11.1	11.8	12.7
⑤ 여가 활동	26.5	27.9	32.4	31.9	30.4	36.0	26.1	30.3	33.9	24.4	25.1	29.2
⑥ 저녁 식사	32.9	28.1	31.2	11.7	15.7	14.4	31.7	23.1	31.0	42.9	37.5	40.9

* 주: ②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의 응답 비율은 '해당없음'을 포함하여 분석된 수치임.

* 자료: 백혜정 외 (2017).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김기현 외 (20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표 II-54 부모와의 활동 및 대화 : 월 1-3회

(단위: 명, %)

구분	전체			9-12세			13-18세			19-24세		
	2017	2020	2023	2017	2020	2023	2017	2020	2023	2017	2020	2023
① 나의 고민에 대한 대화	38.8	44.9	39.5	28.2	36.5	28.4	38.5	44.8	40.9	43.5	48.9	44.6
②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	29.8	31.6	28.4	18.7	24.2	18.8	31.8	32.1	30.4	33.1	34.6	32.1
③ 책, 텔레비전, 영화에 대한 대화	36.4	35.9	31.2	29.3	29.5	24.3	35.9	36.8	32.1	39.8	38.2	34.4
④ 정치, 사회적 주제에 관한 대화(선거 등)	25.0	23.6	26.5	15.0	15.1	16.0	21.4	21.1	24.3	32.1	29.4	34.1
⑤ 여가 활동	41.4	37.9	37.5	33.6	34.0	27.5	40.5	38.2	37.8	45.5	39.4	42.8
⑥ 저녁 식사	11.6	11.0	9.3	5.8	6.7	4.3	9.6	9.8	7.4	15.5	13.8	13.6

* 주: ②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의 응답 비율은 '해당없음'을 포함하여 분석된 수치임.

* 자료: 백혜정 외 (2017).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김기현 외 (20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표 11-55 부모와의 활동 및 대화 : 거의 없다

(단위: 명, %)

구분	전체			9-12세			13-18세			19-24세		
	2017	2020	2023	2017	2020	2023	2017	2020	2023	2017	2020	2023
① 나의 고민에 대한 대화	25.9	18.9	13.9	17.5	8.7	6.7	23.8	15.0	11.4	31.2	26.4	20.1
②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	16.3	12.7	8.8	5.6	4.4	3.0	12.8	8.8	7.7	23.7	19.4	12.8
③ 책, 텔레비전, 영화에 대한 대화	27.0	23.3	22.4	15.4	13.4	11.4	27.8	19.9	21.5	31.4	30.2	29.3
④ 정치, 사회적 주제에 관한 대화(선거 등)	62.0	60.1	56.2	73.9	69.7	65.7	66.5	61.0	58.5	53.4	55.0	49.1
⑤ 여가 활동	19.2	19.8	11.3	11.5	12.1	5.2	19.9	16.5	10.7	22.0	25.8	15.4
⑥ 저녁 식사	4.5	3.4	3.2	2.5	2.0	1.2	5.0	1.9	1.5	5.0	5.2	5.7

* 주: ②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의 응답 비율은 '해당없음'을 포함하여 분석된 수치임.

* 자료: 백혜정 외 (2017).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김기현 외 (20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3-2. 부모와의 대화 시간

- 9-24세 청소년은 아버지와 1시간 미만(29.6%), 30분 미만(28.8%) 대화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어머니와 2시간 이상(33.5%) 대화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더 많은 대화를 함.
- 청소년이 아버지, 어머니와 2시간 이상 대화하는 비율은 '17년, '20년보다 증가했고, 30분 미만 대화하는 비율은 '17년, '20년보다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청소년이 부모와 대화하는 시간은 증가함.
- 연령별로는 저연령(9-12세) 청소년이 아버지와 대화시간이 길고, 전혀 대화하지 않거나 30분 미만으로 대화하는 비율이 낮음.
- 유사하게 연령이 낮을수록 어머니와 2시간 이상 대화하는 비율이 높고, 30분 미만 및 1시간 미만 대화하는 비율은 낮음.
- 아버지와 대화시간과 어머니와의 대화시간을 교차분석한 결과, 아버지와 대화시간이 길수록 어머니와의 대화시간도 많음.

- 9-24세 청소년은 아버지와 1시간 미만(29.6%), 30분 미만(28.8%) 대화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어머니와 2시간 이상(33.5%) 대화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더 많은 대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들이 아버지, 어머니와 2시간 이상 대화하는 비율은 '17년, '20년보다 증가했고, 30분 미만 대화하는 비율은 '17년, '20년보다 감소함. 이는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난 경향으로, 청소년이 부모와 대화하는 시간은 증가함.
 - 청소년이 아버지와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대화하는 비율은 '17년과 '20년에 비해 증가했으며, 30분 미만으로 대화하는 비율은 감소함. 이 경향은 9-12세, 13-18세, 19-24세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남.
 - 청소년이 어머니와의 2시간 이상 대화하는 비율은 '17년과 '20년보다 증가함. 특히 저연령층인 9-12세에서 이 증가 폭이 크게 나타남. 청소년이 어머니와 1시간 미만, 30분 미만으로 대화하는 비율은 '17년과 '20년보다 감소함.
- 연령별로는 9-12세 청소년이 13-24세 청소년보다 아버지와 더 긴 시간 대화하고, 전혀 대화하지 않거나 30분 미만 대화하는 비율이 낮음.

- 9-12세 청소년 중 아버지와 1시간 미만 대화하는 비율이 30.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이어서 2시간 미만 22.0%, 2시간 이상 21.3% 순으로 나타남.
- 13-18세 청소년은 아버지와 1시간 미만 대화하는 비율이 31.4%로 가장 높고, 19-24세는 아버지와 30분 미만 대화하는 비율이 33.8%로 가장 높음.

○ 연령이 낮을수록 어머니와 2시간 이상 대화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30분 미만 및 1시간 미만 대화하는 비율이 감소함.

- 9-12세 청소년 중 47.8%가 어머니와 2시간 이상 대화하여, 이 연령대의 절반 정도가 어머니와 2시간 이상 대화하는 것으로 나타남.
- 13-18세는 어머니와 2시간 이상 대화하는 비율이 34.2%로 가장 높고, 19-24세는 어머니와 1시간 미만 대화하는 비율이 30.1%로 높음.
- 어머니와 대화를 전혀 하지 않거나 30분 미만으로 하는 비율은 19-24세에서 높음.

표 11-56 부모와의 대화 시간 : 아버지

(단위: 명, %)

구분	전체			9-12세			13-18세			19-24세		
	2017	2020	2023	2017	2020	2023	2017	2020	2023	2017	2020	2023
① 전혀 하지 않는다	6.2	7.6	5.1	4.3	2.4	2.1	5.0	5.9	3.9	7.9	11.3	7.7
② 30분 미만	46.6	47.7	28.8	39.0	40.0	20.2	47.0	49.5	28.4	49.6	50.2	33.8
③ 1시간 미만	24.5	26.2	29.6	30.5	32.5	30.7	26.0	26.8	31.4	20.7	22.7	27.6
④ 2시간 미만	9.2	8.9	16.6	12.0	11.9	22.0	8.6	9.3	18.2	8.5	7.3	12.3
⑤ 2시간 이상	7.4	5.5	14.2	10.2	10.0	21.3	7.9	5.3	14.0	5.7	3.5	10.3
⑥ 해당 없음	6.1	4.0	5.8	3.9	3.2	3.7	5.5	3.2	4.0	7.6	5.0	8.3

* 자료: 백혜정 외 (2017).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김기현 외 (20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표 11-57 부모와의 대화 시간 : 어머니

(단위: 명, %)

구분	전체			9-12세			13-18세			19-24세		
	2017	2020	2023	2017	2020	2023	2017	2020	2023	2017	2020	2023
① 전혀 하지 않는다	1.4	1.9	1.7	0.8	0.2	0.5	1.2	0.9	0.2	1.7	3.5	3.6
② 30분 미만	23.2	19.8	10.4	13.5	9.6	3.6	21.7	18.1	9.2	28.6	25.7	15.3
③ 1시간 미만	35.5	37.1	27.2	33.1	33.9	21.8	35.6	37.4	27.4	36.5	38.4	30.1
④ 2시간 미만	19.1	23.6	24.0	23.3	28.6	23.5	20.7	26.1	26.9	16.1	19.5	21.9
⑤ 2시간 이상	18.3	15.5	33.5	27.2	26.1	47.8	17.9	15.7	34.2	14.8	10.3	24.8
⑥ 해당 없음	2.5	2.1	3.2	2.1	1.6	2.8	2.9	1.8	2.1	2.4	2.6	4.2

* 자료: 백혜정 외 (2017).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김기현 외 (20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아버지와의 대화시간과 어머니와의 대화시간을 교차분석한 결과, 아버지와의 대화시간이 길수록 어머니와의 대화시간이 많음. 즉, 가족 내에서 활발한 의사소통을 하는 청소년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와도 긴 시간 대화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1-58 부모님과의 대화 시간 : 어머니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어머니와의 대화시간					
				전혀 하지 않는다	30분 미만	1시간 미만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해당 없음
아버지와의 대화 시간	전체	전혀 하지 않는다	378	28.8	34.9	22.2	6.1	5.3	2.6
		30분 미만	2135	0.6	25.2	54.2	15.1	3.5	1.5
		1시간 미만	2199	0.3	2.3	29.7	40.1	25.8	1.8
		2시간 미만	1233	0.1	0.3	2.6	36.2	58.6	2.2
		2시간 이상	1051	0.0	0.3	0.5	2.5	93.6	3.1
		해당없음	427	0.0	11.0	21.1	19.2	26.9	21.8
	9-12세	전혀 하지 않는다	38	7.9	36.8	28.9	13.2	7.9	5.3
		30분 미만	354	1.7	10.5	59.6	21.5	5.6	1.1
		1시간 미만	536	0.2	1.1	25.0	40.5	31.7	1.5
		2시간 미만	385	0.3	0.3	2.6	24.4	70.4	2.1
		2시간 이상	371	0.0	0.3	0.5	2.7	93.0	3.5
		해당없음	63	0.0	7.9	19.0	11.1	39.7	22.2
	13-18세	전혀 하지 않는다	100	3.0	47.0	29.0	10.0	9.0	2.0
		30분 미만	728	0.1	20.5	58.1	15.9	4.0	1.4
		1시간 미만	805	0.2	3.0	27.8	43.1	24.3	1.5
		2시간 미만	466	0.0	0.6	1.9	39.9	56.0	1.5
		2시간 이상	360	0.0	0.8	0.0	2.8	93.9	2.5
		해당없음	104	0.0	8.7	17.3	19.2	42.3	12.5
	19-24세	전혀 하지 않는다	240	42.9	29.6	18.3	3.3	3.3	2.5
		30분 미만	1053	0.5	33.5	49.7	12.3	2.4	1.6
		1시간 미만	862	0.6	2.4	34.2	37.0	23.4	2.3
		2시간 미만	384	0.0	0.3	3.4	43.2	50.0	3.1
		2시간 이상	321	0.0	0.0	0.9	1.9	93.8	3.4
		해당없음	260	0.0	12.3	23.5	21.2	17.7	25.4

* 자료: 백혜정 외 (2017).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김기현 외 (20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3-3. 부모와의 돌봄 및 지원기대

① 방임

- 9-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임 비율을 살펴보면, 학교 수업이 끝난 후 집에 늦게 들어와도 무관심한 비율은 12.3%, 고열이 나도 아파도 내버려둔다는 비율을 12.3%로 '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함.
- 연령대별은 저연령층(9-12세)의 방임 비율이 13-18세보다 높음.
- 특성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 및 중학생, 중소도시 거주 청소년의 방임 비율이 높음.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 가정은 학교 후 늦은 귀가에 무관심한 비율이 높음.
- 주양육자 특성에 따라서는 30대 이하이거나 주양육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때 자녀가 학교 후 늦게 돌아와도 무관심하거나 아플 때 방치하는 등 방임 비율이 높음.

- 9-18세 청소년의 방임 비율을 살펴보면, 학교 수업이 끝난 후 집에 늦게 들어와도 무관심한 비율은 12.3%, 고열이 나도 아파도 내버려둔다는 비율을 12.3%로 '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함.
- 연령대별로 방임 비율을 살펴보면, 저연령대(9-12세) 청소년의 방임 비율이 13-18세보다 높음.
 - 학교 수업(학원 포함)이 끝난 후 집에 늦게 들어와도 관심이 없다는 비율은 9-12세가 13.0%로, 13-18세(11.8%)보다 높음. 고열이 나거나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다는 비율도 9-12세(13.8%)가 13-18세(11.3%)보다 높음.
- 특성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 및 중학생, 중소도시 거주, 저소득 가정에서의 청소년 방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청소년 특성별로는 여자 청소년, 초등 및 중학생의 방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거주지역별로는 중소도시 청소년의 방임 비율이 대도시나 농산어촌보다 높음.
 - 가구소득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음. 가구소득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학교 후 집에 늦게 돌아와도 부모의 관심이 부족한 비율이 높고,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의 9-12세 청소년, 200-400만원 미만의 13-18세 청소년은 아플 때 방치되는 비율이 높음.
 - 한부모 및 조손 가족의 경우 학교 후 늦게 돌아와도 부모의 관심이 부족한 비율이 높고, 양부모 가족은 아플 때 방치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59

방임 비율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학교 수업(학원 포함)이 끝난 후 집에 늦게 들어와도 관심이 없다			내가 고열이 나거나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다		
			전체	9-12세	13-18세	전체	9-12세	13-18세
연도별	2017	7,306	6.2	5.0	5.2	3.3	3.1	3.2
	2020	3,866	10.4	9.4	11.1	10.0	8.7	10.8
	2023	4,305	12.3	13.0	11.8	12.3	13.8	11.3
청소년 성별	남자	2,215	12.0	13.1	11.2	11.5	13.6	10.1
	여자	2,090	12.7	12.9	12.5	13.1	14.0	12.5
학교급 및 재학여부	초등학교	1,626	13.0	12.9	19.2	13.8	13.7	19.2
	중학교	1,354	13.9	14.7	13.8	13.9	14.7	13.8
	고등학교	1,211	10.3	-	10.3	9.3		9.3
	대학교	102	4.6	-	4.6	3.2		3.2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	12	12.0	-	12.0	6.2		6.2
거주지역	대도시	1,730	10.9	10.6	11.1	10.3	10.7	10.1
	중소도시	1,895	13.7	15.6	12.5	13.9	15.9	12.6
	농산어촌	680	11.9	12.1	11.8	12.7	15.9	10.3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04	15.1	14.9	15.2	9.7	9.5	9.8
	200~400만원 미만	866	18.2	15.3	20.9	15.1	13.1	16.9
	400~600만원 미만	2,217	10.9	11.3	10.6	12.5	14.0	11.5
	600만원 이상	1,117	10.4	14.5	8.2	9.9	14.5	7.4
가구형태	양부모	4,109	12.2	13.0	11.8	12.4	14.1	11.3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195	13.8	14.3	13.4	9.5	8.7	10.0

* 주: 부모의 방임 개별 문항의 평균은 다음과 같음. 개별 문항별 항목별 빈도는 기초통계표 참고

‘학교 수업(학원 포함)이 끝난 후 집에 늦게 들어와도 관심이 없다(평균 1.43점)’, ‘내가 고열이 나거나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 적이 있다(평균 1.36점)’

* 자료: 백혜정 외 (2017).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김기현 외 (20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주양육자 특성에 따라서는 30대 이하가 40대 이상보다, 주양육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보다 자녀가 학교 후 늦게 돌아와도 무관심하거나 아플 때 방치하는 비율이 높음.

표 11-60 주양육자 특성에 따른 방임 비율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학교 수업(학원 포함)이 끝난 후 집에 늦게 들어와도 관심이 없다			내가 고열이 나거나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다		
			전체	9-12세	13-18세	전체	9-12세	13-18세
주양육자 성별	남자	569	10.3	12.0	8.8	10.0	12.8	7.8
	여자	3,736	12.6	13.2	12.2	12.6	14.0	11.7
주양육자 연령	30대 이하	723	15.5	13.4	22.7	16.5	15.1	21.6
	40대	3,043	12.5	13.3	12.0	12.5	13.9	11.7
	50대 이상	539	7.1	7.0	7.1	5.4	3.9	5.6
주양육자 학력	고졸 이하	1,153	13.1	13.3	13.0	11.5	13.4	10.6
	대졸 이상	3,151	12.0	13.0	11.3	12.6	13.9	11.5
주양육자 경제활동 상태	활동 중	2,931	11.6	12.5	11.1	11.5	13.2	10.4
	활동하지 않음	1,373	13.8	13.9	13.8	14.1	14.9	13.3

* 주: 부모의 방임 수준 개별 문항의 평균은 다음과 같음. 개별 문항별 항목별 빈도는 기초통계표 참고

‘학교 수업(학원 포함)이 끝난 후 집에 늦게 들어와도 관심이 없다(평균 1.43점)’, ‘내가 고열이 나거나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 적이 있다(평균 1.36점)’

* 자료: 백혜정 외 (2017).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김기현 외 (20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② 방과 후 돌봄공백

- **(방과 후 돌봄공백 일수)** 9-18세 청소년 중 방과 후 돌봄 공백이 거의 없는 경우가 50.6%로 가장 많음.
- 방과 후 돌봄 공백 일수가 3-4일 이상인 경우는 '20년 대비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돌봄 공백 비율이 감소함.
- 방과 후 돌봄공백이 거의 매일인 비율은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청소년, 9-12세 저소득(400만원 미만) 및 13-18세 고소득(600만원 이상) 청소년에서 높음.
- 돌봄공백이 3-4일 정도인 비율은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청소년, 저소득(200만원 미만) 또는 고소득(600만원 이상) 청소년에서 높게 나타남.
- **(방과 후 돌봄공백 시 불안도)** 돌봄공백이 있는 9-18세 청소년 중 불안을 느낀 비율은 16.5%로, '20년 대비 증가함.
- 9-12세 청소년이 13-18세보다 방과 후 돌봄공백 시 불안을 느끼는 비율이 높음. 특히, 9-12세 중에서도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31.4%)이나 600만원 이상(26.8%)인 경우 불안도가 높음.
- 방과 후 돌봄공백 일수가 많을수록 청소년의 불안도가 낮아짐. 즉, 돌봄공백 일수가 거의 매일인 경우 불안도가 11.6%로 가장 낮음.
- **(방과 후 돌봄공백 일수별 돌봄 서비스 이용률)** 방과후 돌봄공백 일수에 따른 돌봄 서비스 이용률은 연령별로 차이가 있음. 9-12세는 돌봄공백이 많을수록, 13-18세는 거의 매일이거나 1-2일일 때 돌봄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함.

- 9-18세 청소년의 방과 후 돌봄 공백 일수를 살펴보면, 거의 없는 경우가 50.6%로 가장 많음. 방과 후 돌봄 공백 일수가 3-4일 이상인 경우는 '20년 대비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돌봄 공백 비율은 감소함.
 - 9-18세 청소년의 방과 후 돌봄 공백 일수는 거의 없는 경우가 50.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2일 정도(32.0%), 3-4일(11.5%), 거의 매일(6.0%) 순으로 나타남.
 - 방과 후 돌봄 공백 일수가 거의 없거나 1-2일인 경우는 '20년 대비 증가, 3-4일이거나 거의 매일인 경우는 '20년 대비 감소함.
- 방과 후 돌봄 공백이 거의 매일인 비율은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청소년, 가구소득이 400만원 미만인 9-12세, 600만원 이상인 13-18세 청소년에게서 높음.

- 9-12세 청소년 중에서 거의 매일 방과 후 돌봄 공백을 경험하는 비율은 가구소득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가정(8.9%)에서 높음.
- 13-18세 청소년 중 거의 매일 방과 후 돌봄 공백이 있는 비율은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9.2%),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가구(16.9%)에서 높음.

○ 방과 후 돌봄 공백이 3-4일 정도인 비율은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청소년, 가구소득이 저소득(200만원 미만)이거나 고소득(600만원 이상)인 경우 높게 나타남.

- 9-12세 청소년 중 주 3-4일 방과 후 돌봄공백이 있는 비율은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12.0%)으로 낮거나 600만원 이상(16.3%)으로 높은 경우,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가구(16.5%)에서 높음.
- 13-18세 청소년 중 주 3-4일 방과 후 돌봄 공백이 있는 비율은 농산어촌 청소년(15.6%),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15.2%)이거나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16.2%),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가구(17.1%)에서 높게 나타남.

표 II-61 방과 후 돌봄 공백 일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체				9-12세				13-18세			
			거의 없다	1-2일 정도	3-4일 정도	거의 매일	거의 없다	1-2일 정도	3-4일 정도	거의 매일	거의 없다	1-2일 정도	3-4일 정도	거의 매일
연도별	2017	4,013	50.8	28.0	12.8	8.4	56.8	24.9	10.7	7.7	47.2	29.8	14.1	8.9
	2020	3,841	45.9	31.4	13.0	9.7	53.5	28.3	11.2	7.1	40.4	33.4	14.5	11.7
	2023	4,305	50.6	32.0	11.5	6.0	56.9	29.6	9.6	4.0	46.3	33.6	12.8	7.4
청소년 성별	남자	2,215	49.9	31.3	12.6	6.2	56.0	29.6	10.9	3.6	45.9	32.5	13.8	7.9
	여자	2,090	51.2	32.7	10.3	5.9	57.8	29.5	8.2	4.5	46.7	34.8	11.7	6.8
학교급 및 재학 여부	초등학교	1,626	58.0	29.4	8.7	3.9	58.0	29.2	8.8	4.0	56.7	39.4	1.9	2.1
	중학교	1,354	44.0	34.7	14.4	6.9	45.3	33.3	17.0	4.4	43.8	34.9	14.1	7.3
	고등학교	1,211	48.7	32.6	11.6	7.1	-	-	-	-	48.7	32.6	11.6	7.1
	대학교	102	39.8	31.9	17.0	11.4	-	-	-	-	39.8	31.9	17.0	11.4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	12	66.4	6.2	-	27.4	-	-	-	-	66.4	6.2	-	27.4
거주 지역	대도시	1,730	51.0	30.0	13.1	6.0	57.2	27.5	10.6	4.7	46.9	31.6	14.7	6.8
	중소도시	1,895	50.3	33.6	9.4	6.7	57.0	30.3	8.5	4.3	45.9	35.7	10.1	8.3
	농산어촌	680	50.1	32.6	13.1	4.2	55.8	32.4	9.9	1.9	45.6	32.8	15.6	6.0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104	58.9	21.8	14.1	5.2	59.1	23.8	12.0	5.2	58.8	20.8	15.2	5.2
	200~400만원 미만	866	55.4	29.9	8.2	6.5	61.0	26.7	7.1	5.3	50.3	32.8	9.3	7.6
	400~600만원 미만	2,217	48.0	36.4	10.2	5.4	53.6	34.7	7.8	3.9	44.1	37.6	11.9	6.4
	600만원 이상	1,117	51.0	25.8	16.2	7.0	59.9	21.1	16.3	2.7	46.4	28.2	16.2	9.2
가구 형태	양부모	4,109	50.9	32.3	11.2	5.6	57.4	29.6	9.2	3.8	46.5	34.0	12.6	6.9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195	43.5	26.1	16.8	13.6	46.4	28.2	16.5	8.9	41.5	24.6	17.1	16.9

* 자료: 백혜정 외 (2017).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김기현 외 (20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방과 후 돌봄공백이 있는 9-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안도를 조사함. 그 결과,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6.5%로 '20년 12.6%에 비해 증가함.

○ 방과 후 돌봄공백에 대한 불안도는 연령에 따라 달라져, 9-12세 청소년(22.1%)이 13-18세 (13.4%)보다 불안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음.

- 9-12세 청소년 중에서는 여자 청소년(26.1%), 중소도시 거주자(26.3%),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31.4%)이나 600만원 이상(26.8%)인 경우 불안도가 더 높음.

- 13-18세 청소년은 농산어촌 거주(17.8%)와 200-40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16.1%)에서 불안도가 더 높게 나타남.

표 11-62 방과 후 돌봄공백 시 불안도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전체			9-12세			13-18세		
			불안 하다	불안 하지 않다	평균	불안 하다	불안 하지 않다	평균	불안 하다	불안 하지 않다	평균
연도별	2020	2,077	12.6	87.4	1.76	19.2	80.8	1.95	9.0	91.0	1.66
	2023	2,128	16.5	83.5	1.82	22.1	77.9	2.00	13.4	86.6	1.72
청소년 성별	남자	1,109	15.1	84.9	1.78	18.5	81.5	1.92	13.2	86.8	1.70
	여자	1,020	17.9	82.1	1.86	26.1	73.9	2.08	13.5	86.5	1.75
학교급 및 재학 여부	초등학교	684	22.5	77.5	2.03	22.4	77.6	2.02	28.2	71.8	2.28
	중학교	759	16.5	83.5	1.80	19.9	80.1	1.84	16.1	83.9	1.79
	고등학교	621	10.4	89.6	1.67	-	-	-	10.4	89.6	1.67
	대학교	61	10.0	90.0	1.38	-	-	-	10.0	90.0	1.38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	4	-	100.0	1.36	-	-	-	-	100.0	1.36
거주 지역	대도시	848	11.5	88.5	1.74	16.6	83.4	1.93	8.8	91.2	1.63
	중소도시	941	19.5	80.5	1.88	26.3	73.7	2.05	15.9	84.1	1.79
	농산어촌	340	20.4	79.6	1.87	24.4	75.6	2.04	17.8	82.2	1.76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43	18.1	81.9	1.97	31.4	68.6	2.36	10.9	89.1	1.75
	200~400만원 미만	386	17.4	82.6	1.89	19.3	80.7	1.98	16.1	83.9	1.82
	400~600만원 미만	1,152	16.7	83.3	1.82	21.2	78.8	1.98	14.1	85.9	1.73
	600만원 이상	547	15.2	84.8	1.76	26.8	73.2	2.05	10.7	89.3	1.65
가구 형태	양부모	2,018	16.4	83.6	1.82	22.0	78.0	2.00	13.3	86.7	1.72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110	18.0	82.0	1.83	24.0	76.0	2.00	14.1	85.9	1.72

* 주: 개별 문항별 항목별 빈도는 기초통계표 참고.

* 자료: 김기현 외 (20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방과 후 돌봄공백 일수별 불안도를 분석한 결과, 방과 후 돌봄공백 일수가 많을수록 불안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 돌봄공백 일수가 1-2일 경우가 불안하다(약간 불안하다 + 매우 불안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17.4%로 가장 높음. 다음으로 3-4일(16.4%), 거의 매일(11.6%)순으로 나타남.

표 11-63

방과 후 돌봄공백 일수별 불안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불안도											
			전체				9-12세				13-18세			
			전혀 불안 하지 않다	별로 불안 하지 않다	약간 불안 하다	매우 불안 하다	전혀 불안 하지 않다	별로 불안 하지 않다	약간 불안 하다	매우 불안 하다	전혀 불안 하지 않다	별로 불안 하지 않다	약간 불안 하다	매우 불안 하다
돌봄 공백 일수	1-2일	1,376	31.3	51.4	17.2	0.2	21.1	56.9	21.5	0.4	37.3	48.0	14.7	-
	3-4일	494	38.8	44.8	15.8	0.6	25.8	50.4	22.8	1.1	45.5	41.9	12.3	0.3
	거의 매일	259	45.8	42.5	10.7	0.9	27.6	52.9	18.5	1.0	52.6	38.7	7.8	0.9

③ 부모의 경제적 비용 부담에 대한 인식

- 13-24세 청소년이 부모가 대학 졸업, 취업, 결혼까지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20년 대비 감소했으며, 취업, 결혼까지 비용을 부분적으로 부담하거나 전혀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은 '20년 대비 증가함.
- 13-18세 청소년이 부모가 고등학교, 대학, 취업, 결혼까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더 높음.
- 항목별로 비교해보면,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고등학교 졸업까지가 85.0%로 가장 높고, 대학 졸업, 취업, 결혼 순으로 점차 줄어들음. 취업 시까지는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가장 높았으며(72.3%), 결혼 시까지는 전혀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가장 많음(40.1%).

- 13-24세 청소년이 부모가 대학 졸업, 취업, 결혼까지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20년 대비 감소했으며, 취업, 결혼까지 비용을 부분적으로 부담하거나 전혀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은 '20년 대비 증가함.
 -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부모가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는 비율은 '20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한다고 인식한 비율은 '20년 대비 증가함.
 - 취업할 때까지 부모가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비율은 '20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한다, 전혀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0년 대비 증가함.
 - 결혼할 때까지 부모가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한다는 비율은 '20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전혀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0년 대비 증가함.
- 연령대별로 비교하면, 13-18세 청소년이 부모가 고등학교, 대학, 취업, 결혼까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더 높음.
 - 19-24세 청소년은 13-18세보다 고등학교, 대학, 취업 시 부모가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더 높았으며, 결혼에 대해서는 13-18세가 더 높음.
 -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까지 전혀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13-18세가 더 높고, 취업, 결혼까지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19-24세가 더 높음.
- 항목별로 비교해보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고등학교 졸업까지가 85.0%로 가장 높고, 대학 졸업, 취업, 결혼 순으로 점차 줄어들음. 취업 시까지는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가장 높았으며(72.3%), 결혼 시까지는 전혀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가장 많음(40.1%).

- 부모가 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취업할 때까지가 72.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결혼(55.4%), 대학 졸업(42.3%), 고등학교 졸업(14.7%) 순으로 나타남.
- 부모가 비용을 전혀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결혼할 때까지가 40.1%가 가장 높고, 취업(11.5%), 대학 졸업(1.0%), 고등학교 졸업(0.3%) 순으로 나타남.

표 11-64

부모의 경제적 비용 부담 인식

(단위: 명, %)

구분	연도	사례수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한다			전혀 부담할 필요가 없다		
			전체	13-18세	19-24세	전체	13-18세	19-24세	전체	13-18세	19-24세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2023	5,680	85.0	85.2	84.8	14.7	14.5	14.9	0.3	0.4	0.3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2017	6,183	52.0	53.7	50.6	44.6	43.4	45.6	3.4	2.8	3.8
	2020	5,628	60.7	65.0	57.6	37.4	33.4	40.2	1.9	1.6	2.1
	2023	5,680	56.8	60.1	54.0	42.3	38.8	45.1	1.0	1.1	0.8
취업할 때까지	2017	6,183	18.6	19.6	17.7	64.4	62.4	66.0	17.0	18.0	16.3
	2020	5,628	21.1	25.6	18.0	69.5	66.5	71.6	9.4	7.9	10.4
	2023	5,680	16.2	18.2	14.6	72.3	71.5	72.9	11.5	10.3	12.5
결혼할 때까지	2017	6,183	5.7	6.1	5.3	53.8	53.4	54.2	40.5	40.5	40.5
	2020	5,628	5.4	7.3	4.1	62.4	61.9	62.8	32.2	30.8	33.2
	2023	5,680	4.4	5.1	3.9	55.4	57.7	53.6	40.1	37.2	42.5

* 자료: 백혜정 외 (2017).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김기현 외 (20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4. 참여·권리 및 사회의식

4-1. 의견존중 인식 및 청소년증 발급

① 청소년 의견 존중 인식

- 청소년이 가족, 친구, 학교, 사회로부터 존중받는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각각 96.3%, 94.7%, 83.2%, 71.5%였으며, '20년 대비 모두 감소함. 특히 사회로부터 존중받는다고 비율의 감소폭이 큼.
- 연령별로 비교해보면, 9-12세 청소년은 13-18세 청소년보다 가족, 학교, 사회가 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음. 특히, 학교와 사회의 존중에서 연령 간 차이가 두드러짐.
- 부모가 가족 내에서 청소년을 존중한다고 응답한 경우 청소년이 가족, 친구, 학교, 사회로부터의 존중을 더 높게 인식함. 즉, 부모의 청소년 존중에 따라 청소년이 가족, 친구, 학교, 사회로부터 존중받는다고 응답한 수준이 달라짐.
- 부모가 가족 내에서 청소년을 존중한다고 응답한 경우 주관적 웰빙 수준, 회복탄력성, 자존감, 대인관계 역량이 모두 높음.

- 청소년이 가족, 친구, 학교, 사회가 존중한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각각 96.3%, 94.7%, 83.2%, 71.5%였으며, '20년 대비 모두 감소함. 특히 사회가 존중한다고 응답한 비율의 감소폭이 큼.
 - 가족의 청소년 존중 비율은 '20년 97.5%에서 '23년 96.3%, 친구의 청소년 존중 비율은 '20년 96.5%에서 '23년 94.7%로 감소함.
 - 학교의 청소년 존중 비율은 '20년 86.1%에서 '23년 83.2%로 2.9%p 감소하였으며, 사회의 청소년 존중 비율은 '20년 78.3%에서 '23년 71.5%로 6.8%p 감소함.
- 연령별로 살펴보면, 9-12세 청소년은 13-18세 청소년보다 가족, 학교, 사회가 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음. 특히, 학교와 사회의 존중에서 연령 간 차이가 두드러짐.
 - 가족의 청소년 존중 비율은 9-12세가 96.8%로, 13-18세(96.0%)보다 약간 높았으며, 친구들의 청소년 존중 비율은 9-12세가 94.6%, 13-18세가 94.7%로, 두 연령대가 비슷함
 - 학교의 청소년 존중 비율은 9-12세가 87.4%로, 13-18세(80.3%)보다 7.1%p 더 높음.

- 사회의 청소년 존중 비율은 9-12세가 78.4%로 13-18세(66.7%)보다 11.7%p 더 높음.

표 11-65 청소년 의견 존중도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전체		9-12세		13-18세	
			존중 받는다	평균	존중 받는다	평균	존중 받는다	평균
가족에서의 존중	2020	3,870	97.5	3.51	98.0	3.54	97.2	3.49
	2023	4,305	96.3	3.45	96.8	3.50	96.0	3.42
친구들의 존중	2020	3,870	96.5	3.37	97.0	3.39	96.2	3.36
	2023	4,305	94.7	3.33	94.6	3.33	94.7	3.32
학교에서의 존중	2020	3,870	86.1	3.18	89.8	3.23	83.6	3.15
	2023	4,305	83.2	3.11	87.4	3.19	80.3	3.05
우리 사회의 존중	2020	3,870	78.3	3.04	82.2	3.11	75.8	3.00
	2023	4,305	71.5	2.88	78.4	2.98	66.7	2.81

* 주: 개별 문항별 항목별 빈도는 기초통계표 참고

* 자료: 김기현 외 (20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부모가 인식하는 가족의 청소년 존중 여부에 따라 청소년의 존중 인식이 달라지는지 살펴봄.
그 결과, 부모가 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응답한 경우 청소년이 가족, 친구, 학교, 사회로부터의 존중을 더 높게 인식함.

표 11-66 부모가 인식하는 가족의 청소년 존중 여부에 따른 청소년의 존중 인식

(단위: 명, 점)

구분			청소년이 인식하는 존중도			
			가족의 존중	친구들의 존중	학교에서의 존중	우리 사회의 존중
부모가 인식하는 가족의 청소년 존중 여부	전체	존중함	3.47	3.34	3.12	2.88
		존중하지 않음	2.93	3.13	2.87	2.74
	9-12세	존중함	3.52	3.34	3.20	2.98
		존중하지 않음	3.07	3.14	2.98	2.90
	13-18세	존중함	3.44	3.33	3.06	2.82
		존중하지 않음	2.82	3.11	2.78	2.62

- 부모가 인식하는 가족의 청소년 존중 여부에 따라 청소년의 주관적 웰빙, 회복탄력성, 자존감, 대인관계 역량은 차이가 있음.
- 부모가 가족 내에서 청소년을 존중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삶의 만족도와 긍정 정서뿐만 아니라 회복탄력성, 자존감, 대인관계역량 모두 높게 나타남.

표 11-67

부모가 인식하는 가족의 청소년 존중에 따른 청소년의 주관적 웰빙, 회복탄력성, 자존감, 대인관계역량

(단위: 명, 점)

구분			주관적 웰빙			회복 탄력성	자존감	대인관계 역량
			삶의 만족	긍정 정서	부정 정서			
부모가 인식하는 가족의 청소년 존중 여부	전체	존중함	6.91	7.07	3.00	2.82	3.07	3.10
		존중하지 않음	5.93	6.16	4.25	2.63	2.76	2.85
	9-12세	존중함	7.23	7.34	2.61	2.85	3.11	3.13
		존중하지 않음	6.37	6.50	3.88	2.71	2.87	2.98
	13-18세	존중함	6.76	6.94	3.16	2.78	3.04	3.08
		존중하지 않음	5.67	5.76	4.42	2.58	2.73	2.79
	19-24세	존중함	6.84	7.02	3.10	2.83	3.08	3.11
		존중하지 않음	5.86	6.30	4.36	2.62	2.70	2.80

* 주: 개별 문항별 항목별 빈도는 기초통계표 참고

② 청소년증 발급

- (청소년증 발급 여부) 13-18세 청소년들의 청소년증 발급여부를 살펴보면, 발급받은 비율이 41.0%로 '20년 26.2%에 비해 증가함.
- 청소년증 발급률이 높은 집단은 고등학생(48.4%), 저소득 가구(200만원 미만, 46.4%), 고소득 가구(600만원 이상, 45.0%)임.
- (청소년증 미발급 이유) 청소년증 미발급 이유를 살펴보면, '청소년증이 필요하지 않아서'가 70.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청소년증을 알지 못해서'(16.5%)임. '20년에 비해 청소년증이 필요하지 않아 발급받지 않은 비율은 증가, 청소년증을 알지 못해서 발급받지 않은 비율은 감소함.
- 특성별 청소년증 미발급 이유를 살펴보면, 청소년증이 필요하지 않다는 비율은 고등학생(77.5%)이 높음. 청소년증을 발급받는 절차가 까다롭다는 비율은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청소년(14.4%)이 높음.

- 13-18세 청소년이 청소년증을 발급받은 비율이 41.0%로 '20년 26.2%에 비해 증가함.
- 청소년증 발급률이 높은 집단은 고등학생(48.4%), 저소득 가구(200만원 미만, 46.4%), 고소득 가구(600만원 이상, 45.0%)임.
 - 청소년증을 미발급 비율은 초등학생(73.9%), 중학생(65.7%)에게서 높게 나타남.
- 청소년증 미발급 이유를 살펴보면, '청소년증이 필요하지 않아서'가 70.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청소년증을 알지 못해서'(16.5%)임. '20년에 비해 청소년증이 필요하지 않아 발급받지 않은 비율은 증가하고 청소년증을 알지 못해서 발급받지 않은 비율은 감소함.
- 특성별 청소년증 미발급 이유를 살펴보면, 청소년증을 알지 못한 비율은 초등학생이 높고, 청소년증이 필요하지 않다는 비율은 고등학생(77.5%)이 높음.
 - '청소년증을 알지 못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초등학생(46.0%), 중학생(20.0%), 가구소득이 200-400만원 미만(20.1%)인 경우가 높음.
 - '청소년증이 필요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은 고등학생(77.5%),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76.2%)이거나 600만원 이상(75.6%)인 경우가 높음.
 - '청소년증을 발급받는 절차가 까다로워서'라는 응답은 농산어촌 청소년(10.6%), 400-600만원 미만 청소년(11.4%),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청소년(14.4%)인 경우가 높음.

표 II-68

청소년증 발급 여부(13-18세)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연도별	2020	2,328	26.2	73.8
	2023	2,561	41.0	59.0
청소년 성별	남자	1,321	41.9	58.1
	여자	1,241	39.9	60.1
학교급 및 재학여부	초등학교	37	26.1	73.9
	중학교	1,200	34.3	65.7
	고등학교	1,211	48.4	51.6
	대학교	102	35.6	64.4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	12	40.4	59.6
거주지역	대도시	1,036	36.1	63.9
	중소도시	1,143	45.1	54.9
	농산어촌	382	41.8	58.2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67	46.4	53.6
	200~400만원 미만	453	36.0	64.0
	400~600만원 미만	1,307	40.1	59.9
	600만원 이상	734	45.0	55.0
가구형태	양부모	2,447	41.2	58.8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114	36.5	63.5

* 자료: 김기현 외 (20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표 11-69

청소년증 미발급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청소년증을 알지 못해서	청소년증이 필요하지 않아서	청소년증을 발급받는 절차가 까다로워서	청소년증 발급 대상이 아니어서	기타
연도별	2020	1,718	26.5	63.5	8.2	1.8	-
	2023	1,512	16.5	70.9	8.8	3.5	0.3
청소년 성별	남자	767	16.0	71.0	9.2	3.7	0.1
	여자	745	17.0	70.7	8.4	3.4	0.5
학교급 및 재학여부	초등학교	27	46.0	40.8	3.6	9.6	-
	중학교	788	20.0	66.6	9.4	3.6	0.3
	고등학교	624	11.2	77.5	8.7	2.4	0.2
	대학교	66	14.3	70.0	6.1	9.6	-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	7	-	78.8	-	10.4	10.7
거주지역	대도시	662	19.4	71.4	7.6	1.4	0.1
	중소도시	628	15.2	70.0	9.5	5.4	-
	농산어촌	222	11.8	71.6	10.6	4.5	1.5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36	13.7	76.2	7.0	3.1	-
	200~400만원 미만	290	20.1	69.2	5.2	4.4	1.0
	400~600만원 미만	782	16.5	68.8	11.4	3.2	0.1
	600만원 이상	404	14.1	75.6	6.6	3.6	-
가구형태	양부모	1,439	16.8	71.1	8.5	3.3	0.3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73	10.8	66.1	14.4	8.7	-

* 자료: 김기현 외 (20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4-2. 자기의존지향성 및 참여경험

① 자기의존지향성

- 자기의존지향성 1순위는 나 자신의 이성과 판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3.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부모/조부모 의견(29.0%), 느낌과 직관(7.2%), 친구들 의견(4.4%) 순임.
- 9-12세는 부모/조부모의 의견을, 13-24세는 나 자신의 이성과 판단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나 자신의 이성과 판단, 인터넷 정보라고 응답한 비율은 높아졌으며, 부모/조부모 의견, 형제 의견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감소함.
- 특성별로 살펴보면, 대학생과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 저소득 가구 청소년은 나 자신의 이성과 판단에,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소득 가구 청소년은 부모/조부모의 의견에, 그리고 중학생과 농산어촌 청소년은 형제와 친구들의 의견에 상대적으로 의존하는 비율이 높음.
- 자기의존지향성에 따른 주관적 웰빙, 자존감 수준을 비교한 결과, 부모/조부모 의견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주관적 웰빙, 자존감이 높고, 과거 경험, 종교적 신념, 인터넷 정보라고 응답한 경우가 주관적 웰빙, 자존감 수준이 낮음.

- 자기의존지향성 1순위를 분석한 결과, 나 자신의 이성과 판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3.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부모/조부모 의견(29.0%), 느낌과 직관(7.2%), 친구들 의견(4.4%) 순임.
- 9-12세는 부모/조부모의 의견을, 13-24세는 나 자신의 이성과 판단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나 자신의 이성과 판단, 인터넷 정보라고 응답한 비율은 높아졌으며, 부모/조부모 의견, 형제 의견이라고 한 비율은 감소함.
 - 9-12세는 부모/조부모 의견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1.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나 자신의 이성과 판단(32.6%), 느낌과 직관(7.0%), 친구들 의견(3.3%), 형제의견(2.7%) 순임.
 - 13-18세는 나 자신의 이성과 판단(48.0%)하는 응답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부모/조부모 의견(30.7%), 느낌과 직관(8.6%), 친구들 의견(5.8%), 인터넷 정보(2.9%) 순으로 나타남.
 - 19-24세는 나 자신의 이성과 판단이라는 응답이 68.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부모/조부모 의견(14.7%), 느낌과 직관(6.2%), 친구들 의견(3.8%), 인터넷 정보(3.2%) 순으로 나타남.

- 특성별로 살펴보면, 대학생과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의 청소년, 저소득 가구 청소년은 자신의 이성과 판단에,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소득 가구 청소년은 부모/조부모의 의견에, 그리고 중학생과 농산어촌 청소년은 형제와 친구들의 의견에 더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남.
 - 나 자신의 이성과 판단을 의지하는 비율은 대학생(68.0%),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69.1%), 저소득 가구(200만원 미만, 64.1%)인 경우가 높음.
 - 느낌과 직관을 의지하는 비율은 중학생(9.5%), 200-400만원 미만인 경우(9.6%)가 높음.
 - 부모/조부모 의견을 의지하는 비율은 초등학생(53.0%), 중학생(35.6%),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32.4%)가 높음.
 - 형제의견은 중학생(3.4%), 농산어촌 청소년(3.0%)이, 친구들 의견은 농산어촌 청소년(7.7%),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청소년(6.6%)이 상대적으로 의지하는 비율이 높음.
 - 종교적 신념을 의지하는 비율은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1.5%), 저소득 가구(200만원 미만, 2.0%)에서 높게 나타남.
 - 과거 경험은 저소득 가구(200만원 미만, 1.9%), 인터넷 정보는 대학생(3.5%), 200-400만원 미만인 경우(3.6%)가 의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자기의존지향성에 따른 주관적 웰빙, 자존감 수준을 비교한 결과, 부모/조부모 의견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주관적 웰빙, 자존감이 가장 높음.
 - 반면, 과거 경험, 종교적 신념, 인터넷 정보라고 응답한 경우가 주관적 웰빙, 자존감 수준이 낮음.

표 II-70

자기의존지향성 : 1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체									9-12세									13-18세									19-24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연도별	2023	7,423	53.0	7.2	29.0	2.2	4.4	0.7	1.0	2.6	0.0	32.6	7.0	51.8	2.7	3.3	0.4	1.1	1.1	-	48.0	8.6	30.7	2.6	5.8	0.5	0.8	2.9	0.0	68.4	6.2	14.7	1.6	3.8	0.9	1.0	3.2	0.1
청소년 성별	남자	3,837	53.0	7.5	28.6	2.1	4.5	0.6	1.0	2.6	0.1	34.3	6.7	50.4	2.3	3.7	0.4	1.1	1.1	-	48.7	8.5	30.0	2.9	5.7	0.5	0.8	2.9	-	66.9	7.0	15.4	1.4	4.0	0.9	1.1	3.1	0.2
	여자	3,586	52.9	7.0	29.4	2.3	4.2	0.7	0.9	2.6	0.0	30.8	7.3	53.3	3.2	2.8	0.5	1.1	1.0	-	47.3	8.7	31.5	2.2	5.9	0.6	0.9	2.9	0.0	70.1	5.3	14.0	1.8	3.6	0.9	0.9	3.3	-
학교급 및 재학 여부	초등학교	1,626	31.9	7.0	53.0	2.5	3.3	0.3	0.9	1.1	-	31.8	6.7	53.5	2.5	3.3	0.3	0.9	1.0	-	39.0	19.1	30.0	2.3	4.7	-	1.5	3.4	-	-	-	-	-	-	-	-	-	
	중학교	1,354	42.6	9.5	35.6	3.4	5.3	0.4	0.7	2.4	0.0	41.1	10.2	34.6	4.6	3.1	1.5	3.2	1.8	-	42.8	9.4	35.7	3.2	5.6	0.3	0.4	2.5	0.0	-	-	-	-	-	-	-	-	
	고등학교	1,264	52.9	7.9	26.2	2.1	6.1	0.8	1.1	3.0	-	-	-	-	-	-	-	-	-	-	52.6	8.0	26.4	2.1	6.1	0.8	1.2	2.9	-	60.5	4.8	21.5	1.9	8.1	-	-	3.3	-
	대학교	2,608	68.0	6.4	15.0	1.6	3.6	0.8	1.0	3.5	0.1	-	-	-	-	-	-	-	-	-	59.7	1.8	24.9	0.7	6.2	0.9	0.9	4.8	-	68.3	6.6	14.6	1.7	3.4	0.8	1.0	3.5	0.1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	570	69.1	4.7	14.7	1.1	5.1	1.5	1.4	2.4	-	-	-	-	-	-	-	-	-	-	35.8	11.9	18.6	-	-	-	5.7	27.9	-	69.8	4.5	14.6	1.2	5.2	1.5	1.3	1.9	-
거주 지역	대도시	3,124	56.1	7.0	28.6	1.6	3.3	0.4	0.7	2.1	0.1	32.7	6.8	52.1	2.8	3.1	0.5	1.1	1.0	-	51.9	8.0	30.6	1.9	4.3	0.4	0.7	2.2	-	72.0	6.7	13.1	1.5	3.1	0.4	0.6	2.4	0.2
	중소도시	3,263	51.4	7.1	30.0	2.5	4.3	0.7	1.2	2.8	-	30.1	12.4	46.2	1.7	6.0	-	0.9	2.7	-	46.1	8.7	32.2	2.8	5.9	0.4	1.0	3.0	-	65.9	5.6	16.2	1.9	4.0	1.1	1.6	3.7	-
	농산어촌	1,036	48.7	8.2	26.7	3.0	7.7	1.1	1.2	3.4	0.1	30.3	6.0	57.0	1.5	2.4	0.5	0.9	1.5	-	43.0	9.9	26.7	3.7	9.6	1.3	1.0	4.7	0.2	64.5	6.5	15.4	0.8	6.0	1.9	0.7	4.3	-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418	64.1	5.6	17.0	-	6.4	2.0	1.9	3.1	-	32.9	7.6	51.7	3.0	2.4	0.5	0.9	0.9	-	49.7	12.7	24.8	-	6.5	-	1.4	4.9	-	71.4	4.1	10.2	-	6.5	2.7	2.0	3.1	-
	200~400만원 미만	1,392	47.0	9.6	29.1	2.4	5.4	1.0	1.7	3.6	0.2	37.1	7.9	40.1	4.8	7.4	-	2.0	0.7	-	43.1	12.1	26.2	3.3	8.0	0.9	1.5	4.9	0.1	63.1	7.5	15.0	1.8	4.0	1.7	2.2	4.3	0.5
	400~600만원 미만	3,654	54.9	7.1	28.4	2.4	3.8	0.5	0.9	2.0	-	28.0	5.1	60.1	-	4.9	-	1.9	-	-	50.3	7.8	30.1	2.3	5.7	0.6	0.7	2.5	-	72.3	6.9	12.6	1.8	2.8	0.4	0.8	2.4	-
	600만원 이상	1,959	51.3	6.2	32.4	2.1	4.2	0.4	0.5	2.9	-	30.7	9.5	50.3	2.3	4.5	0.1	1.4	1.2	-	46.7	7.5	35.2	2.8	4.4	0.3	0.7	2.4	-	64.0	5.1	19.9	1.7	4.6	0.5	0.4	3.9	-
가구 형태	양부모	6,607	52.1	7.4	30.0	2.4	4.0	0.6	0.9	2.6	0.0	33.9	6.3	51.1	3.4	2.7	0.6	1.1	0.8	-	48.6	8.5	30.6	2.5	5.6	0.6	0.9	2.8	0.0	68.5	6.6	14.7	1.9	3.0	0.7	0.8	3.5	0.1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372	50.7	6.6	30.3	1.8	6.6	-	0.6	3.3	-	32.1	6.1	54.4	1.9	2.9	0.4	0.5	1.7	-	35.1	11.0	33.7	3.8	9.4	-	0.6	6.4	-	70.3	1.1	20.8	0.6	5.1	-	0.6	1.5	-

* 주: ① 나 자신의 이성과 판단, ② 느낌과 직관, ③ 부모/조부모 의견, ④ 형제 의견, ⑤ 친구들 의견, ⑥ 종교적 신념, ⑦ 과거 경험, ⑧ 인터넷 정보, ⑨ 기타

표 11-71 자기의존 지향성에 따른 주관적 웰빙 및 자존감

(단위: 명, 점)

구분	주관적 웰빙				자존감			
	전체	9-12세	13-18세	19-24세	전체	9-12세	13-18세	19-24세
나 자신의 이성과 판단	6.98	7.36	6.81	6.94	3.07	3.11	3.03	3.07
느낌과 직관	6.93	7.26	6.83	6.83	3.04	3.09	3.01	3.05
부모/조부모 의견	7.08	7.42	6.91	7.01	3.09	3.12	3.05	3.10
형제 의견	7.03	7.27	6.91	6.94	3.06	3.07	3.05	3.08
친구들 의견	6.91	7.20	6.73	6.88	3.03	3.07	3.00	3.04
종교적 신념	6.84	6.65	6.83	6.97	3.07	3.07	3.11	3.04
과거 경험	6.75	6.97	6.66	6.71	3.02	3.02	2.98	3.04
인터넷 정보	6.85	7.16	6.70	6.85	3.03	3.07	3.00	3.03

② 참여경험

- **(청소년 사회참여율)** 13-24세 청소년의 사회참여율을 살펴보면, 청소년 관련 문제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비율(21.2%), 사회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참여하는 비율(17.5%)은 '20년 대비 증가,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청소년 정책이나 수립과정에서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비율(12.7%)은 '17년, '20년 대비 감소함.
- 13-18세 청소년은 청소년 관련 문제와 정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19-24세 청소년은 사회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참여하는 비율이 더 높음.
- **(청소년 사회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 13-24세 청소년이 청소년 관련 문제, 청소년 정책 수립 과정, 그리고 사회 문제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 등 청소년의 사회참여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20년에 비해 모두 증가함.
- 연령별로는 19-24세 청소년이 13-18세 청소년보다 청소년 관련 문제, 청소년 정책 수립 과정, 그리고 사회 문제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 등 청소년의 사회참여가 더 필요하다고 응답함.
- **(청소년 존중 여부에 따른 청소년 사회참여율)** 가족, 친구, 학생, 사회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응답한 집단이 청소년 관련 문제, 청소년 정책 수립 과정, 그리고 사회 문제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사회참여 비율이 높음.

- 13-24세 청소년의 사회참여율을 살펴보면, 청소년 관련 문제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비율(21.2%), 사회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참여하는 비율(17.5%)은 '20년 대비 증가,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청소년 정책이나 수립과정에서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비율(12.7%)은 '17년, '20년 대비 감소함.
 -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해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비율이 21.2%로 '20년(17.2%)에 비해 4.0%p 증가함.
 -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청소년 정책이나 수립과정에서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비율은 12.7%로 '17년(13.0%), '20년(13.1%)에 비해 소폭 감소함.
 - 사회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참여하는 경우는 17.5%로 '20년(14.3%)보다 3.2%p 증가함.
- 13-18세 청소년은 청소년 관련 문제와 정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19-24세 청소년은 사회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참여하는 비율이 더 높음.
 - 13-18세는 19-24세보다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해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비율,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청소년 정책이나 수립과정에서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비율이 높음.
 - 사회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참여하는 비율은 19-24세가 13-18세보다 높음.

표 11-72 청소년 사회참여율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전체		13-18세		19-24세	
			참여한다	평균	참여한다	평균	참여한다	평균
청소년관련 문제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함 (교칙 제정 등)	2017	6,177	21.1	1.75	26.1	1.88	17.2	1.65
	2020	5,628	17.2	1.70	19.2	1.73	15.7	1.67
	2023	5,680	21.2	1.90	23.3	1.93	19.5	1.8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이나 수립 과정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함	2017	6,177	13.0	1.57	13.8	1.63	12.5	1.53
	2020	5,628	13.1	1.59	13.4	1.60	12.9	1.59
	2023	5,680	12.7	1.70	13.1	1.70	12.3	1.70
사회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참여함 (인터넷 의견 제시, 집회 참여, 단체 가입 등)	2020	5,628	14.3	1.61	15.2	1.62	13.6	1.60
	2023	5,680	17.5	1.78	16.6	1.75	18.3	1.80

* 자료: 백혜정 외 (2017).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김기현 외 (20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13-24세 청소년이 사회참여 필요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청소년 관련 문제에 참여하거나 의견 제시하는 것, 청소년 정책이나 수립과정에 참여하는 것, 사회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0년 대비 모두 증가함.

- 청소년 관련 문제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6.6%로 '20년 대비 3.1%p 증가함.
-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청소년 정책이나 수립과정에서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1.0%로 '20년 대비 소폭 증가함.
- 사회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1.4%로 '20년 대비 3.4%p 증가함.

○ 연령별로는 19-24세 청소년이 13-18세 청소년 보다 청소년 관련 문제, 청소년 정책 수립 과정, 그리고 사회 문제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 등 청소년의 사회참여가 더 필요하다고 응답함.

- 청소년 관련 문제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9-24세가 67.3%로 13-18세(65.8%)보다 높음.
-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청소년 정책이나 수립과정에서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9-24세가 62.7%로 13-18세(58.9%)보다 높음.
- 사회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9-24세가 63.9%로 13-18세(58.3%)보다 높음.

표 II-73 청소년 사회참여 필요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전체		13-18세		19-24세	
			필요하다	평균	필요하다	평균	필요하다	평균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해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함 (교칙 제정 등)	2017	6,176	64.0	2.64	68.4	2.72	60.5	2.59
	2020	5,628	63.5	2.65	66.4	2.71	61.5	2.60
	2023	5,680	66.6	2.69	65.8	2.67	67.3	2.7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이나 수립 과정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함	2017	6,176	59.8	2.58	63.0	2.64	57.3	2.53
	2020	5,628	60.4	2.62	61.4	2.63	59.6	2.61
	2023	5,680	61.0	2.64	58.9	2.60	62.7	2.68
사회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참여함 (인터넷 의견 제시, 집회 참여, 단체 가입 등)	2020	5,628	58.0	2.55	60.1	2.59	56.6	2.53
	2023	5,680	61.4	2.63	58.3	2.58	63.9	2.67

* 자료: 백혜정 외 (2017).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김기현 외 (20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청소년의 존중 여부에 따른 청소년 사회참여 비율을 살펴보면, 가족, 친구, 학생, 사회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응답한 집단이 청소년 관련 문제, 청소년 정책 수립 과정, 그리고 사회 문제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사회참여 비율이 높음.

표 II-74 청소년 의견 존중 여부에 따른 사회참여 비율(13-18세)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해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함(교칙 제정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이나 수립 과정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함	사회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참여함 (인터넷 의견 제시, 집회참여, 단체 가입 등)
가족의 존중	그렇다	2,460	23.3	13.2	16.6
	아니다	101	21.4	11.7	16.6
친구들의 존중	그렇다	2,427	23.5	13.2	16.8
	아니다	135	18.8	11.5	12.2
학교의 존중	그렇다	2,057	25.3	14.7	17.0
	아니다	492	14.8	6.1	14.7
사회의 존중	그렇다	1,709	27.5	16.1	19.4
	아니다	852	14.8	7.1	10.9

4-3. 결혼 및 성역할의식, 다문화수용성

① 결혼에 대한 인식

- 13-24세 청소년의 결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8.5%로 '17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특성별로는 남자 청소년(41.7%), 초등학생(41.6%), 중학생(42.4%)이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고,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27.7%), 저소득층 청소년(200만원 미만, 31.0%),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청소년(28.1%)은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낮음.
- 부모의 결혼에 대한 인식에 따라 청소년의 결혼에 대한 인식이 달라짐. 부모가 결혼해야 한다고 인식할수록 청소년도 결혼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짐.

- 13-24세 청소년의 결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8.5%로 '1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17년 51.0%에서 '23년 38.5%로 감소함.
 - 13-18세 청소년이 결혼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7년 53.5%에서 '23년 40.4%로 13.1%p 감소함.
 - 19-24세 청소년이 결혼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7.0%로 '17년(49.1%)에 비해 12.1%p 감소함.
- 특성별로는 남자 청소년(41.7%), 초등학생(41.6%), 중학생(42.4%)이 결혼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고,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27.7%),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 가구 청소년(31.0%),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청소년(28.1%)이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낮음.
 -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결혼을 해야 한다고 인식함.
 - 학교급 및 재학여부에 따라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보다 결혼을 해야 한다고 인식함.
 -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연령별로 차이를 보여 13-18세에서는 대도시 청소년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 19-24세에서는 농산어촌 청소년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인식한 비율이 높음.
 - 한편,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과 한부모 및 조손 가족의 청소년이 결혼해야 한다고 인식한 비율은 낮은 편으로 나타남.

표 11-75 결혼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전체			13-18세			19-24세		
			그렇다	그렇지 않다	평균	그렇다	그렇지 않다	평균	그렇다	그렇지 않다	평균
연도별	2017	6,183	51.0	49.0	2.50	53.5	46.5	2.54	49.1	50.9	2.46
	2020	5,628	39.1	60.9	2.36	43.4	56.6	2.41	36.0	64.0	2.32
	2023	5,680	38.5	61.5	2.34	40.4	59.6	2.36	37.0	63.0	2.32
청소년 성별	남자	2,942	41.7	58.3	2.39	43.3	56.7	2.41	40.4	59.6	2.37
	여자	2,737	35.1	64.9	2.28	37.3	62.7	2.30	33.3	66.7	2.27
학교급 및 재학 여부	초등학교	37	41.6	58.4	2.43	41.6	58.4	2.43	-	-	-
	중학교	1,200	42.4	57.6	2.38	42.4	57.6	2.38	-	-	-
	고등학교	1,264	38.6	61.4	2.34	38.9	61.1	2.34	31.7	68.3	2.32
	대학교	2,608	39.1	60.9	2.35	34.7	65.3	2.24	39.2	60.8	2.35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	570	27.7	72.3	2.20	40.1	59.9	2.32	27.5	72.5	2.20
거주 지역	대도시	2,430	38.9	61.1	2.36	42.8	57.2	2.40	36.1	63.9	2.33
	중소도시	2,511	37.5	62.5	2.32	38.1	61.9	2.33	37.1	62.9	2.31
	농산어촌	738	40.5	59.5	2.35	40.7	59.3	2.33	40.2	59.8	2.37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381	31.0	69.0	2.24	32.2	67.8	2.20	30.8	69.2	2.25
	200~400만원 미만	979	41.0	59.0	2.34	44.9	55.1	2.38	37.6	62.4	2.31
	400~600만원 미만	2,744	38.5	61.5	2.35	38.0	62.0	2.34	39.0	61.0	2.36
	600만원 이상	1,576	38.8	61.2	2.34	42.5	57.5	2.39	35.5	64.5	2.29
가구 형태	양부모	4,945	39.5	60.5	2.35	41.0	59.0	2.37	38.0	62.0	2.34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291	28.1	71.9	2.14	27.6	72.4	2.14	28.4	71.6	2.14

* 자료: 백혜정 외 (2017).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김기현 외 (20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부모의 결혼에 대한 인식에 따라 청소년의 결혼에 대한 인식이 달라짐. 부모가 결혼해야 한다고 인식할수록 청소년도 결혼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짐.

표 11-76 부모의 결혼에 대한 인식과 청소년 자녀의 결혼에 대한 인식 비교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체				13-18세				19-24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부모의 결혼에 대한 인식	전혀 그렇지 않다	245	35.5	44.5	18.0	2.0	29.4	48.4	21.4	0.8	42.0	41.2	13.4	3.4
	그렇지 않다	2125	9.5	66.8	22.1	1.6	9.5	66.0	22.8	1.7	9.4	67.7	21.3	1.5
	그런 편이다	2508	4.2	45.9	46.6	3.3	4.7	43.6	48.9	2.8	3.8	48.1	44.4	3.7
	매우 그렇다	360	8.1	27.5	49.2	15.3	6.6	19.8	54.5	19.2	9.4	34.4	44.8	11.5

② 성역할 의식

- 13-24세 청소년들의 성역할 의식 수준은 2.73점으로 '20년(2.71점) 보다 소폭 증가함.
- 19-24세의 성역할 의식 수준은 2.74점으로 13-18세(2.72점)보다 약간 높음.
- 특성별로는 대도시 청소년(2.78점), 고소득층 청소년(600만원 이상, 2.79점)이 성역할 의식수준이 높았으며, 초등학생이 2.55점으로 가장 낮음.

- 1-4점 척도로 측정한 13-24세 청소년들의 성역할 의식 수준은 2.73점으로 '20년(2.71점) 보다 소폭 증가함.
- 연령별로는 19-24세의 성역할 의식 수준이 2.74점으로 13-18세(2.72점)보다 약간 높음.
- 특성별로는 대도시 청소년(2.78점), 고소득층 청소년(600만원 이상, 2.79점)이 성역할 의식수준이 높음.
 -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학교급 높을수록 성역할 의식 수준이 높음.
 -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대도시 청소년(2.78점)이 중소도시 청소년(2.69점)보다 성역할 의식 수준이 높음.
 - 가구소득별로는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 청소년이 성역할 의식 수준이 높음. 연령에 따른 경향은 차이가 있어 19-24세에서는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청소년(2.77점)도 성역할 의식 수준이 높음.
 - 가구형태에 따라서는 13-18세는 양부모 가족 청소년이, 19-24세는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청소년의 성역할 의식 수준이 높음.

표 II-77 성역할 인식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전체	13-18세	19-24세
연도별	2020	5,628	2.71	2.70	2.71
	2023	5,680	2.73	2.72	2.74
청소년 성별	남성	2,942	2.70	2.69	2.70
	여성	2,737	2.76	2.75	2.77
학교급 및 재학여부	초등학교	37	2.55	2.55	-
	중학교	1,200	2.71	2.71	-
	고등학교	1,264	2.73	2.73	2.66
	대학교	2,608	2.74	2.81	2.74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	570	2.74	2.72	2.74
거주지역	대도시	2,430	2.78	2.77	2.79
	중소도시	2,511	2.69	2.68	2.69
	농산어촌	738	2.72	2.72	2.72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381	2.75	2.67	2.77
	200~400만원 미만	979	2.67	2.66	2.68
	400~600만원 미만	2,744	2.72	2.72	2.71
	600만원 이상	1,576	2.79	2.76	2.81
가구형태	양부모 가족	4,945	2.73	2.72	2.73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291	2.75	2.66	2.80

* 자료: 김기현 외 (20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③ 다문화수용성

- 13-24세 청소년들의 다문화 수용성 수준은 2.94점으로 '20년(2.91점)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17년(2.99점)에 비해서는 감소한 수치임. 이와 달리 13-18세 청소년의 '17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함.
- 연령별로는 19-24세의 다문화 수용성은 2.97점으로 13-18세(2.91점)보다 높음.
- 특성별로는 여자 청소년(2.95점), 대학생(2.97점) 및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의 청소년(2.98점), 대도시 거주 청소년(2.98점)의 다문화 수용성이 높음.

○ 1-4점 척도로 측정한 13-24세 청소년들의 다문화 수용성 수준은 2.94점으로 '20년(2.91점)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17년(2.99점)에 비해서는 감소한 수치임. 이와 달리 13-18세 청소년의 '17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함.

- 13-18세는 '17년 3.01점에서 '23년 2.91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함.
- 19-24세는 '17년 2.98점에서 '20년 2.91점으로 감소하였으나 '23년 2.97점으로 증가함.

○ 연령별로는 19-24세의 다문화 수용성은 2.97점으로 13-18세(2.91점)보다 높음.

○ 특성별로는 여자 청소년(2.95점), 대학생(2.97점) 및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의 청소년(2.98점), 대도시 거주 청소년(2.98점)의 다문화 수용성이 높음.

-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대학생 및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대도시 청소년(2.98점)의 다문화 수용성이 높음.
-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연령별 차이가 있음. 13-18세에서는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집단(2.95점)이, 19-24세에서는 200만원 미만인 집단(3.05점)에서 다문화 수용성이 높음.
- 가구형태에 따라서는 연령별 차이를 보임. 13-18세에서는 양부모 가족 청소년(2.91점)이 19-24세에서는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청소년(3.02점)이 다문화 수용성이 높음.

표 11-78

다문화 수용성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전체	13-18세	19-24세
연도별	2017	6,183	2.99	3.01	2.98
	2020	5,628	2.91	2.92	2.91
	2023	5,680	2.94	2.91	2.97
청소년 성별	남성	2,942	2.93	2.91	2.95
	여성	2,737	2.95	2.90	3.00
학교급	초등학교	37	2.83	2.83	-
	중학교	1,200	2.91	2.91	-
	고등학교	1,264	2.89	2.90	2.74
	대학교	2,608	2.97	3.00	2.97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	570	2.98	3.01	2.98
거주지역	대도시	2,430	2.98	2.97	2.99
	중소도시	2,511	2.91	2.86	2.95
	농산어촌	738	2.92	2.87	2.97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381	2.99	2.72	3.05
	200~400만원 미만	979	2.86	2.82	2.89
	400~600만원 미만	2,744	2.95	2.92	2.97
	600만원 이상	1,576	2.97	2.95	2.99
가구형태	양부모 가족	4,945	2.93	2.91	2.96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291	2.97	2.89	3.02

* 자료: 백혜정 외 (2017).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김기현 외 (20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4-4. 사회관 및 사회문제인식, 사회문제 위험인식

① 사회관

- 13-24세 청소년이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 인권을 존중한다, 다양성을 인정한다고 인식한 비율은 각각 54.7%, 67.3%, 66.9%로 '17년과 '20년 대비 증가하여, 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아짐.
- 13-18세 청소년은 19-24세 청소년보다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다양성을 인정하고, 부정부패가 없다고 인식한 비율이 높음.
- 측정항목별로 비교하면, 사회가 인권존중 및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부정부패가 없다는 비율은 2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사회에 대한 신뢰수준도 절반에 미치지 못함.
- 특성별로는 특히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이 우리 사회가 공정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한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낮고, 부정부패가 있다고 인식한 비율은 높음.

○ 13-24세 청소년의 사회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 '인권을 존중한다', '다양성을 인정한다'고 인식한 비율은 각각 54.7%, 67.3%, 66.9%로 '17년과 '20년 대비 증가하여 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아짐.

-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는 인식은 54.7%로 '17년(46.3%)과 '20년(47.6%) 대비 증가함.
- '우리 사회가 인권을 존중한다'는 비율은 67.3%로 '17년(59.6%)과 '20년(62.8%) 대비 증가함.
- '우리 사회가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비율은 66.9%로 '17년(61.2%)과 '20년(61.9%) 대비 증가함.
- '부정부패가 없다'고 인식한 비율은 24.1%로 '20년 대비 소폭 감소함.

○ 연령별로 살펴보면, 13-18세 청소년은 19-24세 청소년보다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다양성을 인정하고, 부정부패가 없다고 인식한 비율이 높음.

-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고 인식은 13-18세가 58.9%로 19-24세(51.2%)보다 높음.
- '우리 사회는 인권을 존중한다'는 인식은 13-18세가 68.5%로 19-24세(66.2%)보다 높음.
- '우리 사회는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비율은 13-18세(69.0%)가 19-24세(65.3%)보다 높음.
- '우리 사회는 부정부패가 없다'는 비율은 13-18세(28.9%)가 19-24세(20.1%)보다 높음.
- '우리 사회는 믿을 수 없다'는 응답 또한 13-18세(55.3%)가 19-24세(47.8%)보다 높음.

- 측정항목별로 살펴보면, 사회가 인권존중 및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부정부패가 없다는 비율은 2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인권 존중과 다양성 인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각각 67.3%와 66.9%임.
 - 13-24세 청소년의 54.7%는 사회가 공정하다고 응답했으며, 51.2%는 사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약 절반 정도가 사회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부정부패가 없다는 인식은 24.1%에 불과하여 특히 낮음.
- 특성별로 살펴보면,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의 경우, 사회의 공정성, 인권 존중 정도, 다양성을 인정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낮음. 부정부패가 없다고 인식하는 비율도 낮음.
 - 농산어촌 지역 청소년은 사회가 공정하다는 인식, 인권을 존중한다는 인식이 낮음.
 -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으로 낮은 집단은 사회가 공정하고,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인식이 낮음.

표 11-79

사회관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우리 사회는 대체로 공정하다						우리 사회는 인권을 존중한다						우리 사회는 다양성을 인정한다						우리 사회는 부정부패가 없다						우리 사회는 믿을 수가 없다					
			전체		13-18세		19-24세		전체		13-18세		19-24세		전체		13-18세		19-24세		전체		13-18세		19-24세		전체		13-18세		19-24세	
			그렇다	평균	그렇다	평균	그렇다	평균	그렇다	평균	그렇다	평균	그렇다	평균	그렇다	평균	그렇다	평균	그렇다	평균	그렇다	평균	그렇다	평균	그렇다	평균	그렇다	평균	그렇다	평균	그렇다	평균
연도별	2017	6,183	46.3	2.41	52.8	2.48	41.0	2.35	59.6	2.61	64.6	2.68	55.7	2.56	61.2	2.60	64.8	2.66	58.4	2.56	-	-	-	-	-	-	-	-	-	-	-	-
	2020	5,628	47.6	2.44	50.8	2.47	45.3	2.43	62.8	2.69	63.8	2.68	62.2	2.69	61.9	2.65	63.8	2.67	60.6	2.64	25.0	2.08	27.0	2.11	23.7	2.06	-	-	-	-	-	-
	2023	5,680	54.7	2.54	58.9	2.59	51.2	2.50	67.3	2.75	68.5	2.79	66.2	2.73	66.9	2.75	69.0	2.78	65.3	2.72	24.1	2.06	28.9	2.13	20.1	1.99	51.2	2.48	55.3	2.52	47.8	2.45
청소년 성별	남자	2,942	54.8	2.54	58.2	2.58	52.1	2.51	67.5	2.76	68.0	2.79	67.2	2.73	66.2	2.73	68.6	2.77	64.3	2.70	24.0	2.05	28.5	2.13	20.4	1.99	51.5	2.49	56.3	2.53	47.7	2.45
	여자	2,737	54.5	2.54	59.7	2.60	50.2	2.49	66.9	2.75	69.1	2.80	65.2	2.71	67.7	2.77	69.3	2.79	66.4	2.75	24.1	2.06	29.3	2.13	19.8	2.00	50.8	2.48	54.2	2.51	48.0	2.45
학교급 및 재학 여부	초등학교	37	88.7	3.01	88.7	3.01	-	-	58.5	2.74	58.5	2.74	-	-	58.5	2.65	58.5	2.65	-	-	51.0	2.50	51.0	2.50	-	-	60.6	2.64	60.6	2.64	53.2	2.53
	중학교	1,200	62.7	2.64	62.7	2.64	-	-	70.4	2.83	70.4	2.83	-	-	69.8	2.80	69.8	2.80	-	-	31.5	2.19	31.5	2.19	-	-	57.8	2.55	57.8	2.55	50.0	2.48
	고등학교	1,264	55.7	2.55	55.7	2.55	56.0	2.58	67.9	2.78	67.7	2.78	70.9	2.77	69.2	2.77	69.2	2.78	70.0	2.65	26.9	2.09	26.3	2.08	39.6	2.37	53.1	2.49	53.1	2.49	53.2	2.53
	대학교	2,608	53.4	2.53	43.4	2.46	53.8	2.53	68.2	2.76	61.4	2.63	68.4	2.76	66.8	2.75	62.7	2.70	66.9	2.75	20.9	2.01	21.7	2.01	20.9	2.01	50.0	2.48	52.3	2.49	50.0	2.48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	570	39.2	2.34	34.7	2.15	39.3	2.35	55.8	2.56	53.3	2.37	55.9	2.56	57.2	2.61	43.0	2.31	57.5	2.62	15.0	1.89	16.1	1.54	15.0	1.90	37.5	2.34	28.6	2.16	37.7	2.34
거주 지역	대도시	2,430	55.3	2.56	58.1	2.59	53.3	2.54	70.4	2.80	72.3	2.83	69.0	2.77	69.9	2.79	71.1	2.81	69.0	2.78	19.4	1.99	23.5	2.04	16.3	1.95	51.3	2.49	55.6	2.53	48.2	2.45
	중소도시	2,511	55.7	2.55	61.6	2.62	50.9	2.49	66.1	2.74	66.4	2.78	65.8	2.71	64.9	2.73	67.9	2.77	62.4	2.70	27.8	2.11	33.3	2.20	23.2	2.04	52.4	2.50	57.1	2.55	48.5	2.47
	농산어촌	738	49.0	2.45	53.0	2.52	44.6	2.38	60.9	2.64	64.6	2.70	57.0	2.58	64.1	2.68	66.2	2.73	61.9	2.63	26.9	2.10	30.3	2.18	23.2	2.01	46.5	2.41	48.9	2.42	44.0	2.39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381	48.7	2.44	53.5	2.47	47.7	2.44	66.1	2.69	67.9	2.71	65.7	2.69	61.2	2.64	74.0	2.85	58.5	2.60	21.5	1.91	24.4	2.03	20.9	1.89	43.9	2.37	48.2	2.32	42.9	2.38
	200~400만원 미만	979	57.5	2.56	62.1	2.61	53.5	2.51	65.2	2.70	64.8	2.72	65.6	2.68	62.9	2.69	64.2	2.73	61.8	2.66	32.8	2.17	38.7	2.25	27.6	2.09	50.5	2.45	54.6	2.50	46.9	2.42
	400~600만원 미만	2,744	56.9	2.57	59.8	2.61	54.3	2.54	68.4	2.79	69.6	2.81	67.3	2.76	67.8	2.77	68.6	2.80	67.0	2.75	25.1	2.11	27.5	2.14	22.9	2.09	54.4	2.54	57.0	2.55	52.0	2.52
	600만원 이상	1,576	50.5	2.50	55.9	2.56	45.8	2.45	66.9	2.75	69.0	2.81	65.0	2.70	69.4	2.77	72.1	2.77	67.1	2.77	17.5	1.92	25.7	2.05	10.4	1.81	47.9	2.44	53.4	2.50	43.1	2.39
가구 형태	양부모	4,945	55.3	2.55	59.3	2.60	51.5	2.51	67.6	2.77	68.6	2.79	66.7	2.74	67.5	2.76	68.9	2.78	66.1	2.75	24.7	2.07	29.2	2.14	20.2	2.01	52.6	2.50	55.7	2.53	49.6	2.47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291	53.8	2.49	51.0	2.49	55.6	2.49	64.5	2.66	67.6	2.72	62.4	2.62	67.5	2.73	71.1	2.76	65.2	2.72	23.8	2.06	22.0	2.04	25.0	2.08	45.2	2.40	46.2	2.38	44.5	2.42

* 자료: 백혜정 외 (2017).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김기현 외 (20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② 사회이슈나 쟁점, 정치문제에 대한 관심도

- 13-24세 청소년들의 사회 이슈나 쟁점, 정치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5.13점으로 '20년 대비 소폭 감소함.
- 연령별로는 19-24세 청소년(5.26점), 대학생(5.33점)의 사회 이슈나 쟁점, 정치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음.

- 0-10점 척도로 측정한 13-24세 청소년들의 사회 이슈나 쟁점, 정치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5.13점으로 '20년 대비 소폭 감소함. 이러한 결과는 19-24세 연령대의 결과가 반영된 것임.
 - 13-24세 청소년들의 사회 이슈나 쟁점, 정치문제에 대한 관심도 5.13점으로 '20년 5.18점에 비해 소폭 감소함.
 - 13-18세 청소년은 '20년 4.91점에서 '23년 4.97점으로 증가함.
 - 19-24세 청소년은 '20년 5.37점에서 '23년 5.26점으로 감소함.
- 연령별로는 19-24세 청소년(5.26점)이 13-18세 청소년보다 사회 이슈나 쟁점, 정치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성별로는 비교해보면, 대학생(5.33점)의 사회 이슈나 쟁점, 정치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으며, 중학생(4.92점), 저소득층 청소년(200만원 미만, 4.83점)의 사회 이슈나 쟁점, 정치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낮음.
 - 청소년 특성별로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대학생이 중고등학생,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보다 사회 이슈나 쟁점, 정치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음.
 - 가구특성별로는 대도시 거주 청소년(4.98점), 200미만 미만의 저소득 청소년(4.83점)이 사회 이슈나 쟁점, 정치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11-80

사회이슈나 쟁점, 정치문제에 대한 관심도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전체	13-18세	19-24세
연도별	2017	6,183	4.93	4.86	4.99
	2020	5,628	5.18	4.91	5.37
	2023	5,680	5.13	4.97	5.26
청소년 성별	남자	2,942	5.20	5.02	5.34
	여자	2,737	5.05	4.90	5.17
학교급 및 재학여부	초등학교	37	5.24	5.24	-
	중학교	1,200	4.92	4.92	-
	고등학교	1,264	4.98	4.98	4.98
	대학교	2,608	5.33	5.25	5.33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	570	4.97	4.65	4.98
거주지역	대도시	2,430	4.98	4.76	5.14
	중소도시	2,511	5.24	5.14	5.32
	농산어촌	738	5.25	5.01	5.51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381	4.83	4.55	4.89
	200~400만원 미만	979	5.24	5.19	5.28
	400~600만원 미만	2,744	5.16	4.94	5.37
	600만원 이상	1,576	5.07	4.91	5.21
가구형태	양부모	4,945	5.14	4.98	5.30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291	5.08	4.62	5.38

* 자료: 백혜정 외 (2017).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김기현 외 (20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③ 사회문제 중 염려가 되는 문제

- 13-24세 청소년은 가장 염려되는 사회문제로 범죄와 폭력이 27.4%로 가장 많이 지적함. 다음으로 지구의 미래와 환경(22.7%), 경제 불황 및 위기(16.7%)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13-18세는 지구의 미래와 환경, 사회와 시민갈등, 첨단기술이 가져올 미래, 19-24세는 세계정치 불안정 및 전쟁, 불평등 심화, 경제불황 및 위기가 염려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특성별로 살펴보면, 고등학생은 지구의 미래와 환경, 불평등 심화를 염려하는 비율이 특히 높고, 중소도시 청소년은 범죄와 폭력, 경제불황 및 위기를 염려하는 비율이 높음.

○ 13-24세 청소년의 가장 염려되는 사회문제 1순위를 분석한 결과, 범죄와 폭력이 27.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지구의 미래와 환경(22.7%), 경제 불황 및 위기(16.7%)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첨단기술이 가져올 미래(2.9%), 사회와 시민 갈등(4.9%)으로 응답한 비율은 낮음.

○ 염려된다고 응답한 사회문제가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임.

- 13-18세는 지구의 미래와 환경, 사회와 시민갈등, 첨단기술이 가져올 미래가 염려된다고 응답한 반면, 19-24세는 세계정치 불안정 및 전쟁, 불평등 심화, 경제불황 및 위기가 염려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특성별로 살펴보면, 고등학생은 지구의 미래와 환경, 불평등 심화를 염려하는 비율이 특히 높고, 중소도시 청소년은 범죄와 폭력, 경제불황 및 위기를 염려하는 비율이 높음.

- 지구의 미래와 환경(34.7%), 불평등 심화(29.1%)가 염려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고등학생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세계정치 불안정 및 전쟁이 염려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대도시 청소년(12.9%),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청소년(12.7%)에게서 높게 나타남.

- 범죄와 폭력(32.5%), 경제불황 및 위기(22.8%)가 염려된다는 응답은 중소도시 청소년이 특히 높았으며, 농산어촌 청소년(29.7%)에게서 범죄와 폭력이 염려된다는 응답이 높음.

표 11-81 가장 염려되는 문제(1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체								13-18세								19-24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연도별	2023	5,680	22.7	14.4	10.9	27.4	16.7	4.9	2.9	0.0	24.9	14.1	10.0	27.7	14.0	5.9	3.3	0.1	20.8	14.7	11.7	27.1	18.9	4.1	2.7	-
청소년 성별	남자	2,561	24.9	14.1	10.0	27.7	14.0	5.9	3.3	0.1	25.2	13.9	9.7	26.6	14.9	6.0	3.6	0.1	20.5	13.6	13.1	27.4	19.2	3.8	2.3	-
	여자	3,118	20.8	14.7	11.7	27.1	18.9	4.1	2.7	-	24.6	14.4	10.3	28.9	13.0	5.9	2.9	0.1	21.2	15.9	10.2	26.7	18.4	4.5	3.1	-
학교급 및 재학 여부	초등학교	2,942	22.6	13.7	11.6	27.1	17.3	4.8	2.9	0.0	34.7	29.1	10.9	13.7	6.7	4.8	-	-	-	-	-	-	-	-	-	-
	중학교	2,737	22.7	15.2	10.2	27.7	16.0	5.1	3.0	0.0	26.5	13.6	9.8	26.9	13.2	6.6	3.3	0.1	-	-	-	-	-	-	-	-
	고등학교	37	34.7	29.1	10.9	13.7	6.7	4.8	-	-	23.3	14.5	10.2	28.8	14.2	5.5	3.5	-	25.4	19.7	2.0	19.7	25.5	7.6	-	-
	대학교	1,200	26.5	13.6	9.8	26.9	13.2	6.6	3.3	0.1	23.4	12.6	10.7	27.3	19.8	4.4	1.9	-	21.2	14.4	13.0	26.1	17.9	4.5	2.9	-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	1,264	23.4	14.7	9.9	28.5	14.7	5.5	3.3	-	6.4	-	-	44.4	43.6	5.6	-	-	18.8	15.2	6.9	32.3	22.4	2.3	2.1	-
거주 지역	대도시	2,608	21.3	14.4	12.9	26.1	18.0	4.5	2.8	-	23.4	14.4	9.5	29.8	15.0	4.5	3.3	0.1	21.2	13.7	11.8	29.5	17.7	2.5	3.5	-
	중소도시	570	18.6	14.9	6.8	32.5	22.8	2.3	2.1	-	25.6	14.0	10.9	27.0	13.1	6.1	3.2	0.1	20.4	14.5	11.6	25.6	20.1	5.7	2.0	-
	농산어촌	2,430	22.1	14.0	10.8	29.7	16.6	3.4	3.4	0.0	26.9	13.9	8.6	24.1	13.8	9.3	3.4	-	21.4	19.0	11.7	23.4	18.5	4.3	1.8	-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2,511	22.8	14.3	11.3	26.2	16.9	5.9	2.6	0.0	27.9	12.8	7.4	36.9	9.2	3.9	1.9	-	26.3	13.2	9.1	23.5	20.5	6.0	1.5	-
	200~400만원 미만	738	24.2	16.3	10.1	23.8	16.1	6.9	2.6	-	25.8	15.4	8.8	25.6	13.2	7.0	4.2	-	23.0	11.5	8.8	28.0	20.7	5.9	2.1	-
	400~600만원 미만	381	26.6	13.1	8.8	25.8	18.5	5.6	1.5	-	24.2	14.7	9.6	26.9	14.9	5.8	3.8	0.1	20.4	15.7	12.2	28.5	16.6	3.7	2.9	-
	600만원 이상	979	24.3	13.3	8.8	26.9	17.2	6.4	3.0	-	25.3	12.5	11.7	29.7	13.3	5.7	1.9	-	18.2	15.5	13.6	25.5	20.9	3.0	3.2	-
가구 형태	양부모	2,744	22.2	15.2	10.9	27.7	15.8	4.7	3.3	0.1	25.1	14.4	10.1	27.0	14.2	5.9	3.3	0.1	20.2	15.0	12.3	26.7	18.5	4.2	3.1	-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1,576	21.5	14.1	12.7	27.4	17.4	4.3	2.6	-	21.7	8.0	8.1	42.4	10.4	6.9	2.6	-	19.7	17.2	8.8	32.4	19.2	1.5	1.1	-

* 주: 1) 이 문항은 '23년부터 신규로 측정된 문항임.

2) ① 지구의 미래와 환경, ② 불평등 심화, ③ 세계정치 불안정 및 전쟁, ④ 범죄와 폭력, ⑤ 경제 불황 및 위기, ⑥ 사회와 시민 갈등, ⑦ 첨단기술이 가져올 미래, ⑧ 기타

④ 사회문제 위험 인식

- 13-24세 청소년이 인터넷매체를 이용한 성범죄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3.4%로 높음. 다음으로 마약류 접촉(64.1%), 유해한 업소의 이용(63.8%)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19-24세 청소년이 13-18세 청소년보다 마약류 접촉,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성범죄 피해, 유해한 업소의 이용에 노출되고 있다고 인식한 비율이 높음.
- 특성별로 비교해보면, 마약류 접촉, 인터넷매체를 이용한 성범죄 피해, 유해한 업소의 이용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인식한 비율은 대학생,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의 청소년, 저소득(200만원 미만), 고소득(600만원 이상)인 집단에서 높음.
- 주양육자 특성별로는 주양육자가 남자인 경우, 50대 이상인 경우 마약류 접촉, 인터넷매체를 이용한 성범죄 피해에 노출 인식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 13-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문제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인터넷매체를 이용한 성범죄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3.4%로 높음. 다음으로 마약류 접촉(64.1%), 유해한 업소의 이용(63.8%)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19-24세 청소년이 13-18세 청소년보다 마약류 접촉,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성범죄 피해, 유해한 업소의 이용에 노출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모두 높음.
 - 마약류 접촉에 노출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9-24세가 68.4%로 13-18세(58.9%)보다 높음.
 -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성범죄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9-24세가 76.2%로 13-18세(69.9%)보다 높음.
 - 유해한 업소의 이용에 노출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19-24세(67.8%)가 13-18세(59.1%)보다 높음.
- 특성별로 비교해보면, 마약류 접촉, 인터넷매체를 이용한 성범죄 피해, 유해한 업소의 이용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인식한 비율은 대학생,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의 청소년, 저소득(200만원 미만), 고소득(600만원 이상)인 집단에서 높음.
 -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청소년은 여자 청소년보다 마약류 접촉을, 여자 청소년은 남자 청소년보다 인터넷매체를 이용한 성범죄 피해와 유해한 업소의 이용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인식한 비율이 높음.
 - 대학생,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이 마약류 접촉,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성범죄 피해, 유해한 업소의 이용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거주지역별로는 중소도시, 농산어촌이, 가구소득별로는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과, 6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에서 마약류 접촉,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성범죄 피해, 유해한 업소의 이용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표 11-82

사회문제 위험 인식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마약류 접촉						인터넷매체를 이용한 성범죄 피해						유해한 업소의 이용					
			전체		13-18세		19-24세		전체		13-18세		19-24세		전체		13-18세		19-24세	
			노출 되고 있다	평균	노출 되고 있다	평균	노출 되고 있다	평균	노출 되고 있다	평균	노출 되고 있다	평균	노출 되고 있다	평균	노출 되고 있다	평균	노출 되고 있다	평균	노출 되고 있다	평균
연도별	2023	5,680	64.1	2.67	58.9	2.57	68.4	2.76	73.4	2.91	69.9	2.82	76.2	2.97	63.8	2.69	59.1	2.60	67.8	2.76
청소년 성별	남자	2,942	65.2	2.71	59.7	2.60	69.6	2.80	73.1	2.91	70.5	2.83	75.3	2.97	63.5	2.70	59.1	2.61	67.1	2.77
	여자	2,737	63.0	2.64	58.1	2.53	67.1	2.72	73.7	2.90	69.4	2.81	77.3	2.97	64.2	2.68	59.1	2.59	68.5	2.75
학교급 및 재학 여부	초등학교	37	79.6	2.93	79.6	2.93	-	-	69.7	2.92	69.7	2.92	-	-	63.6	2.67	63.6	2.67	-	-
	중학교	1,200	53.6	2.46	53.6	2.46	-	-	65.8	2.74	65.8	2.74	-	-	56.8	2.54	56.8	2.54	-	-
	고등학교	1,264	63.1	2.64	63.6	2.65	51.1	2.22	72.8	2.88	73.4	2.90	58.1	2.54	60.6	2.64	60.9	2.65	53.5	2.43
	대학교	2,608	68.6	2.75	57.8	2.52	69.0	2.76	76.4	2.97	76.6	2.89	76.4	2.97	67.4	2.75	59.6	2.65	67.7	2.76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	570	67.4	2.82	68.3	3.16	67.4	2.81	77.1	3.02	73.4	3.17	77.2	3.01	69.5	2.79	81.3	3.13	69.2	2.78
거주 지역	대도시	2,430	61.8	2.64	57.8	2.55	64.7	2.71	72.2	2.89	70.8	2.85	73.3	2.92	61.3	2.64	56.6	2.56	64.8	2.70
	중소도시	2,511	66.3	2.70	59.1	2.56	72.4	2.82	74.2	2.92	68.7	2.79	78.8	3.03	65.9	2.72	60.7	2.62	70.2	2.81
	농산어촌	738	64.5	2.69	61.6	2.62	67.6	2.76	74.6	2.92	71.4	2.86	78.0	2.99	65.4	2.72	61.2	2.64	69.8	2.81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381	67.6	2.82	58.4	2.60	69.6	2.87	81.9	3.10	77.9	2.98	82.8	3.13	70.3	2.85	63.8	2.64	71.7	2.89
	200~400만원 미만	979	56.3	2.54	50.1	2.41	61.7	2.65	65.4	2.78	62.0	2.72	68.3	2.83	60.1	2.66	55.4	2.58	64.2	2.72
	400~600만원 미만	2,744	62.0	2.61	55.5	2.48	67.9	2.72	71.4	2.85	67.7	2.75	74.8	2.94	61.1	2.62	56.1	2.52	65.7	2.71
	600만원 이상	1,576	71.8	2.84	70.5	2.81	72.9	2.87	79.8	3.03	78.2	3.00	81.3	3.07	69.4	2.78	66.3	2.75	72.1	2.81
가구 형태	양부모	4,945	63.9	2.66	59.3	2.57	68.4	2.74	72.9	2.89	69.8	2.82	76.0	2.96	63.0	2.66	58.8	2.59	67.1	2.73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291	57.9	2.64	52.1	2.48	61.6	2.75	71.6	2.89	73.2	2.89	70.5	2.89	65.5	2.75	65.7	2.74	65.4	2.75

주: 이 문항은 '23년부터 신규로 측정된 문항임.

○ 주양육자 특성별에 따라 사회문제의 위험 노출 인식 비율에 차이가 있음.

- 주양육자가 남자인 경우 여자인 경우보다 마약류 접촉, 인터넷매체를 이용한 성범죄 피해, 유해한 업소의 이용에 노출되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주양육자가 50대 이상인 경우 마약류 접촉, 인터넷매체를 이용한 성범죄 피해에 노출 인식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30대인 경우는 유해한 업소의 이용 노출 인식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11-83

사회문제의 위험 노출 인식 비율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마약류 접촉						인터넷매체를 이용한 성범죄 피해						유해한 업소의 이용					
			전체		13-18세		19-24세		전체		13-18세		19-24세		전체		13-18세		19-24세	
			노출 되고 있다	평균	노출 되고 있다	평균	노출 되고 있다	평균	노출 되고 있다	평균	노출 되고 있다	평균	노출 되고 있다	평균	노출 되고 있다	평균	노출 되고 있다	평균	노출 되고 있다	평균
주양 육자 성별	남자	869	67.6	2.81	61.2	2.63	71.2	2.91	77.5	2.99	76.7	2.94	78.0	3.02	69.6	2.80	63.8	2.70	72.9	2.86
	여자	4,810	63.5	2.65	58.6	2.56	67.8	2.73	72.7	2.89	69.0	2.81	75.9	2.96	62.8	2.67	58.4	2.59	66.6	2.73
주양 육자 연령	30대 이하	612	66.7	2.80	54.5	2.49	71.1	2.91	76.4	2.98	65.4	2.70	80.3	3.08	70.2	2.82	65.2	2.63	72.0	2.89
	40대	2,914	59.2	2.57	56.6	2.51	64.4	2.67	69.8	2.82	68.0	2.78	73.5	2.89	59.4	2.60	56.9	2.55	64.4	2.70
	50대 이상	2,154	70.0	2.79	70.2	2.82	70.0	2.78	77.4	3.01	79.9	3.04	76.7	3.00	68.1	2.76	66.3	2.80	68.6	2.75
주양 육자 학력	고졸 이하	1,941	62.3	2.64	56.2	2.54	66.5	2.71	73.4	2.91	70.2	2.84	75.5	2.95	62.2	2.65	58.3	2.59	64.8	2.69
	대졸 이상	3,295	64.3	2.66	60.1	2.58	69.1	2.76	72.5	2.88	69.8	2.81	75.7	2.96	63.7	2.68	59.4	2.60	68.7	2.77
주양 육자 경제 활동 상태	활동 중	3,808	63.5	2.66	59.6	2.58	67.1	2.73	73.1	2.90	70.2	2.83	75.6	2.96	63.5	2.67	59.9	2.60	66.8	2.73
	활동하지 않음	1,428	63.6	2.65	57.3	2.52	70.4	2.78	72.3	2.88	69.2	2.81	75.5	2.95	62.3	2.66	57.2	2.59	67.6	2.74

주: 이 문항은 '23년부터 신규로 측정된 문항임.

5. 학습과 활동

5-1. 학습

① 학교생활 만족도

- 청소년(9-18세)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4점 만점에 2.83점으로, '20년(2.90점) 대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 비교해 보면, 9-12세의 학교생활 만족도(2.93점)는 전체 평균(2.83점)보다 높은 반면, 13-18세(2.76점)의 만족도 수준은 전체 평균보다 낮음.
- 특성별로는 학교급이 높을수록, 대도시 청소년,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양부모 집단 청소년의 학교생활 만족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음.

- 청소년(9-18세)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4점 만점에 2.83점으로, '20년(2.90점) 대비 0.07점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 '17년 2.89점→'20년 2.90점→'23년 2.83점
- 연령대별로 비교해 보면, 9-12세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전체 평균(2.83점)보다 높은 반면, 13-18세(2.76점)의 만족도 수준은 전체 평균보다 낮음.
 - 9-12세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2.93점, 13-18세 2.76점으로, 9-12세의 학교생활 만족도 수준이 13-18세에 비해 높음.
- 특성별로 비교해 보면, 학교급이 높을수록, 대도시 청소년,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양부모 집단의 학교생활 만족도 수준이 높게 나타남.
 -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교생활 만족도가 낮아지며 초등학생의 만족도(2.93점)가 가장 높고, 고등학생 만족도(2.73점)가 가장 낮음.
 - 거주지역별로는 대도시 청소년의 학교생활 만족도(2.87점)가 가장 높은 반면 농산어촌지역 청소년의 만족도(2.75점)가 가장 낮음.
 -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생활 만족도(2.90점)가 높아, 600만원 이상 집단의 만족도가 (2.90점) 가장 높은 반면 200만원 미만 집단(2.75점)의 만족도 수준이 가장 낮음.
 - 가구형태는 양부모 집단 청소년(2.84점)이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의 집단(2.72점)에 비해 만족도 수준이 높음.

- 연령대별로는 9-12세의 거주지역, 13-18세 연령대의 가구소득, 가구형태에 따른 학교생활 만족도 점수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큼.
- 9-12세의 거주지역별로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농산어촌 지역 청소년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대도시와의 점수 차이(0.13점)가 큼.
 - 13-18세의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생활 만족도 점수가 높고, 600만원 이상(2.85점) 집단과 400만원 이하 집단(2.66점)과의 격차(0.19점)가 다른 특성들에서 나타나는 격차 대비 상대적으로 큼.
 - 13-18세의 양부모(2.77점) 집단과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2.61점) 간의 만족도 점수 차이 (0.16점)가 상대적으로 큼.

표 11-84 학교생활 만족도(9-18세)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전체	9-12세	13-18세
연도별	2017	4,210	2.89	3.02	2.82
	2020	3,870	2.90	2.97	2.85
	2023	4,191	2.83	2.93	2.76
청소년 성별	남자	2,161	2.82	2.92	2.76
	여자	2,030	2.84	2.94	2.77
학교급 및 재학 여부	초등학교	1,626	2.93	2.93	2.85
	중학교	1,354	2.80	2.88	2.79
	고등학교	1,211	2.73	-	2.73
거주지역	대도시	1,686	2.87	3.00	2.78
	중소도시	1,847	2.82	2.89	2.78
	농산어촌	659	2.75	2.87	2.66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00	2.75	2.90	2.66
	200~400만원 미만	846	2.77	2.90	2.66
	400~600만원 미만	2,158	2.82	2.92	2.75
	600만원 이상	1,087	2.90	2.98	2.85
가구형태	양부모	4,004	2.84	2.93	2.77
	한부모 및 조손 가족 등	187	2.72	2.86	2.61

* 주: 학교생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개별 문항의 평균은 다음과 같으며, 개별 문항별 응답항목 빈도는 기초통계표 참고.
 '나는 수업시간이 재미있다'(2.74점), '우리 학교는 우리들의 의견을 잘 반영한다'(2.83점), '우리 학교는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다'(2.91점), '우리 학교는 교칙이 엄격하다'(2.72점), '현재 학교생활이 만족스럽다'(2.84점)

* 자료: 백혜정 외 (2017).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김기현 외 (20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② 학업성취도

- **(학업성취도)** 자신의 학업성취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청소년(13-18세) 비율은 40.0%,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8.7%이며, '긍정 평가는 20년 대비 3.7%p 감소한 반면, 부정평가는 '20년 대비 2.0%p 증가함.
- 특성별로 여학생, 학교급이 높을수록, 대도시 거주자,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양부모 가구 청소년의 긍정 평가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남자 청소년, 학교급이 높을수록, 농산어촌 거주자,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집단의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부정 평가 비율이 높음.
- **(학업성취도와 자존감)** 학업성취도와 자존감 수준을 비교 분석한 결과, 자존감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학업성취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13-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신의 학업성취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긍정 평가 응답은 40.0%, 부정 평가 응답은 8.7%로 나타나며, 긍정 평가는 '20년 대비 3.7%p 감소한 반면 부정 평가는 2.0%p 증가함.
 - 긍정 평가(잘한다+매우 잘한다): '17년 42.2%→'20년 43.7%→'23년 40.0%
 - 부정 평가(못한다+매우 못한다): '17년 9.8%→'20년 6.7%→'23년 8.7%
- 특성별로 학교급이 높을수록, 대도시 거주자일수록,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양부모 가구 청소년일수록 긍정 평가 응답이 높게 나타나며, 가구소득 수준에 의한 긍정, 부정 평가의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남.
 - 학업성취도에 대해 여자 청소년은 긍정평가(41.4%)가 남자 청소년(38.8%)보다 높은 반면 부정 평가는 남자(10.1%)가 여자(7.2%)보다 높음.
 - 학교급이 높을수록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비율이 모두 높고, 고등학생의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비율이 가장 높으나, 긍정 평가의 학교급별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남.
 - 거주지역별로는 긍정 평가는 대도시 청소년(42.4%)이 가장 높고 농산어촌 청소년(35.1%)이 가장 낮으나, 부정 평가는 반대로 농산어촌 청소년(12.5%)이 가장 높고 대도시 청소년(7.4%)이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소득 수준별로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긍정 평가 비율이 높아, 600만원 이상 집단의 긍정 평가 비율은 48.1%로 가장 높음. 반면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부정 평가 비율이 높아,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200만원 집단의 부정 평가는 24.2%로 부정평가 비율이 가장 높음.
 - 가구형태별로는 양부모 집단의 긍정 평가(40.7%)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19.4%) 집단의 부정 평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85

학업성취도(13-18세)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13-18세			
			부정적	보통	긍정적	평균
연도별	2017	4,013	9.8	48.0	42.2	3.35
	2020	3,841	6.7	49.6	43.7	3.40
	2023	2,448	8.7	51.2	40.0	3.32
청소년 성별	남자	1,267	10.1	51.1	38.8	3.29
	여자	1,181	7.2	51.4	41.4	3.36
학교급 및 재학 여부	초등학교	37	5.7	67.3	27.0	3.26
	중학교	1,200	8.1	53.1	38.8	3.32
	고등학교	1,211	9.5	48.8	41.7	3.33
거주지역	대도시	992	7.4	50.2	42.4	3.37
	중소도시	1,094	8.6	51.8	39.6	3.32
	농산어촌	361	12.5	52.4	35.1	3.22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63	24.2	51.2	24.6	2.95
	200~400만원 미만	433	16.3	52.5	31.2	3.15
	400~600만원 미만	1,248	7.9	52.8	39.4	3.32
	600만원 이상	704	4.2	47.7	48.1	3.46
가구형태	양부모	2,342	8.2	51.1	40.7	3.34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107	19.4	55.1	25.5	3.04

* 주: 리커트 척도의 항목별 응답 빈도(매우 못한다, 못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잘하는 편이다, 매우 잘한다)는 기초통계표 참고

* 자료: 백혜정 외 (2017).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김기현 외 (20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학업성취도와 자존감 수준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자존감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학업성취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86

학업성취도와 자존감 수준(13-18세)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13-18세				
		매우 못한다	못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잘하는 편이다	매우 잘한다
자존감	2,448	2.47	2.80	3.00	3.11	3.25

③ 사교육 경험

- **(사교육 경험)** 청소년(9-18세)의 사교육 경험률은 81.4%로, '20년(77.8%)에 비해 3.6%p 증가하였고, 9-12세에 비해 13-18세의 사교육 경험(경험률, 시간량)의 격차가 크게 나타남.
- **(사교육 경험률)** 연령대별 사교육 경험률은 9-12세는 '20년(79.4%) 대비 3.8%p 증가한 83.2%, 13-18세는 '20년(78.7%) 대비 1.3%p 증가한 80.0%임.
- 특성별로는 남자 청소년, 학교급이 높을수록, 대도시,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양부모 가구 집단의 사교육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사교육 시간)** 사교육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주당 사교육 시간은 평균 9시간 40분으로, '20년(9시간 7분) 대비 33분 증가함.
- 연령대별 주당 사교육 시간은 9-12세 8시간 48분, 13-18세 10시간 18분으로, '20년 대비 각각 45분과 24분 증가함.
- 특성별로는 남자, 학교급이 높을수록, 중소도시 청소년,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양부모 가구 집단의 사교육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음.

- 청소년(9-18세)의 최근 1년간 사교육 경험률은 81.4%로, '20년에 비해 3.6%p 증가함.
 - '17년 82.9%→'20년 77.8%→'23년 81.4%
- 연령대별 사교육 경험률은 9-12세 '20년 대비 3.8%p 증가한 83.2%이며, 13-18세는 '20년 대비 1.3%p 증가한 80.0%임.
 - 9-12세: '17년 89.5%→'20년 79.4%→'23년 83.2%
 - 13-18세: '17년 79.0%→'20년 78.7%→'23년 80.0%
- 특성별로는 남자 청소년, 학교급이 낮을수록, 대도시 거주자,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양부모 가구 집단의 사교육 경험률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82.0%)이 여자 청소년(80.6%)에 비해 사교육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 학교급이 낮을수록 사교육 경험이 높게 나타나, 고등학생의 사교육 경험률은 77.8%로 가장 낮은 데 반해 초등학생의 사교육 경험률은 82.9%로 가장 높음.
 - 거주지역별로는 대도시 청소년(83.2%)의 사교육 경험률이 가장 높고, 농산어촌 청소년(75.3%)이 가장 낮음.

- 가구소득 수준별로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 경험률이 높게 나타나며, 600만원 이상 집단(88.7%)의 사교육 경험률이 가장 높은 반면 200만원 미만 집단(69.2%)의 사교육 경험이 가장 낮음.
 - 가구형태별로는 양부모 집단(81.9%)이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집단(70.4%)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교육 경험률이 높음.
- 연령대별로는 13-18세의 특성별 따른 사교육 경험률 격차가 9-12세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거주지역별로는 대도시 13-18세 청소년(82.4%)의 사교육 경험률이 가장 높은 반면 농산어촌 청소년(73.7%)의 사교육 경험률이 가장 낮게 나타나며 그 차이(8.7%p)는 9-12세보다 큼.
 - 가구소득 수준별로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 경험률 응답이 높으며, 13-18세의 600만원 이상(89.0%) 집단과 200만원 미만(59.9%) 집단 간 사교육 경험률 격차(29.1%p)는 다른 특성들에 의한 격차보다 상대적으로 가장 크게 나타남.
 - 가구형태별로는 13-18세의 양부모 집단(80.7%) 사교육 경험이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64.6%)에 비해 사교육 경험률의 차이(16.1%p)가 9-12세에 비해 큼.

표 11-87 사교육 경험(9-18세)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체		9-12세		13-18세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연도별	2017	4,013	82.9	17.1	89.5	10.5	79.0	21.0
	2020	3,841	77.8	22.2	79.4	20.6	78.7	21.3
	2023	4,191	81.4	18.6	83.2	16.8	80.0	20.0
청소년 성별	남자	2,161	82.0	18.0	84.2	15.8	80.5	19.5
	여자	2,030	80.6	19.4	82.1	17.9	79.6	20.4
학교급 및 재학 여부	초등학교	1,626	82.9	17.1	83.3	16.7	62.9	37.1
	중학교	1,354	82.7	17.3	81.9	18.1	82.8	17.2
	고등학교	1,211	77.8	22.2	-	-	77.8	22.2
거주지역	대도시	1,686	83.2	16.8	84.2	15.8	82.4	17.6
	중소도시	1,847	81.9	18.1	84.7	15.3	80.0	20.0
	농산어촌	659	75.3	24.7	77.2	22.8	73.7	26.3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00	69.2	30.8	84.9	15.1	59.9	40.1
	200~400만원 미만	846	71.7	28.3	74.3	25.7	69.1	30.9
	400~600만원 미만	2,158	82.0	18.0	85.1	14.9	79.8	20.2
	600만원 이상	1,087	88.7	11.3	88.1	11.9	89.0	11.0
가구형태	양부모	4,004	81.9	18.1	83.5	16.5	80.7	19.3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187	70.4	29.6	78.1	21.9	64.6	35.4

* 주 : 2017년과 2020년에는 9-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측정하였으나, 2023년에는 9-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측정함.

* 자료: 백혜정 외 (2017).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김기현 외 (20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사교육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1주일간 사교육에 보내는 시간은 평균 9시간 40분으로, '20년 대비 33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17년 9시간 26분→'20년 9시간 7분→'23년 9시간 40분
- 연령대별로 9-12세의 사교육 시간은 '20년 대비 45분 늘어난 8시간 48분이며, 13-18세의 사교육 시간은 '20년 대비 24분 늘어난 10시간 18분으로 나타남.
 - 9-12세: '17년 8시간 37분→'20년 8시간 3분→'23년 8시간 48분
 - 13-18세: '17년 9시간 58분→'20년 9시간 54분→'23년 10시간 18분
- 특성별로는 남자, 학교급이 높을수록, 중소도시 청소년,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양부모 가구의 사교육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자(9시간 44분)가 여자(9시간 35분)보다 사교육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많음.
 - 학교급별로는 학교급이 높을수록 사교육 시간이 많으며, 고등학생(10시간 40분)의 사교육 시간이 가장 많고 초등학생(8시간 48분)의 사교육 시간이 가장 적게 나타남.
 - 거주지역별로는 중소도시 청소년(10시간 2분), 농산어촌 청소년(9시간 34분), 대도시 청소년(9시간 18분) 순으로 나타남.
 - 가구소득 수준별로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 시간이 많으며, 600만원 이상(10시간 21분)의 사교육 시간이 가장 많은 반면 200만원 미만(7시간 24분)의 사교육 시간이 가장 적음.
 - 가구형태별로는 양부모 집단(9시간 41분)의 사교육 시간이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9시간 5분)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음.
- 성별을 제외한 특성에 따른 사교육 시간의 격차는 13-18세가 9-12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13-18세의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 사교육 시간(11시간)이 가장 많고 중학생의 사교육 시간(9시간 55분)의 사교육 시간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격차(1시간 5분)가 9-12세보다 큼.
 - 13-18세의 거주지역별로는 중소도시(10시간 48분)와 대도시(9시간 51분)와의 사교육 시간 차이(57분)가 큼.
 - 13-18세의 가구소득별로는 가구소득 200만원 이상에서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 시간이 많으며, 사교육 시간이 가장 많은 600만원 이상(11시간 14분) 집단과 사교육 시간이 가장 적은 200만원 이하(7시간 37분) 집단간 격차(3시간 37분)는 다른 특성에 의한 격차보다 상대적으로 큼.

- 13-18세의 가구형태별로는 양부모 집단(10시간 20분)의 사교육 시간과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9시간 16분) 집단의 사교육 시간 차이(1시간 4분)가 9-12세보다 큼.

표 11-88 주당 사교육 시간(9-18세)

(단위: 명, 시간)

구분		사례수	전체	9-12세	13-18세
연도별	2017	3,328	9:26	8:37	9:58
	2020	2,989	9:07	8:03	9:54
	2023	3,410	9:40	8:48	10:18
청소년 성별	남자	1,773	9:44	8:53	10:22
	여자	1,637	9:35	8:43	10:14
학교급 및 재학 여부	초등학교	1,348	8:48	8:45	11:00
	중학교	1,120	9:51	9:17	9:55
	고등학교	943	10:40	-	10:40
거주지역	대도시	1,402	9:18	8:31	9:51
	중소도시	1,512	10:02	9:00	10:48
	농산어촌	496	9:34	9:01	10:02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69	7:24	7:09	7:37
	200~400만원 미만	606	8:37	8:08	9:07
	400~600만원 미만	1,770	9:44	9:11	10:09
	600만원 이상	965	10:21	8:41	11:14
가구형태	양부모	3,278	9:41	8:48	10:20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132	9:05	8:54	9:16

* 주: 2017년과 2020년에는 9-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측정하였으나, 2023년에는 9-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측정함.

* 자료: 백혜정 외 (2017).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김기현 외 (20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④ 혼자 공부한 시간

- **(혼자 공부한 시간)** 청소년(9-18세)이 하루에 혼자 공부하는 시간은 평균 1시간 40분으로, '20년(1시간 46분) 대비 6분 줄어듦.
- 연령대별로 9-12세는 '20년(1시간 25분) 대비 4분 줄어든 1시간 21분이며, 13-18세는 '20년(2시간) 대비 7분 줄어든 1시간 53분임.
- 특성별로 학교급이 높을수록, 중소도시 거주자,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양부모 가구 청소년의 혼자 공부한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음.
- **(사교육 경험 유무별 혼자 공부한 시간)** 사교육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혼자 공부한 시간이 사교육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음.

- 청소년(9-18세)이 하루 평균 혼자 공부한 시간은 1시간 40분이며, '20년 대비 6분 줄어들었음.
 - '17년 1시간 31분→'20년 1시간 46분→'23년 1시간 40분
- 연령대별 하루 평균 혼자 공부한 시간은 9-12세는 '20년 대비 4분 줄어든 1시간 21분이며, 13-18세는 '20년 대비 7분 줄어든 1시간 53분임.
 - 9-12세: '17년 1시간 8분→'20년 1시간 25분→'23년 1시간 21분
 - 13-18세: '17년 1시간 44분→'20년 2시간→'23년 1시간 53분
- 특성별로는 학교급이 높을수록, 중소도시 거주자,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양부모 가구 집단 청소년의 혼자 공부한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게 나타남.
 - 학교급이 높을수록 혼자 공부한 시간이 많으며, 고등학생의 혼자 공부한 시간(2시간 9분)이 가장 많은 반면 초등학생의 혼자 공부한 시간(1시간 20분)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음.
 - 거주지역별로는 중소도시 청소년의 혼자 공부한 시간(1시간 41분)이 가장 많은 반면 농산어촌 청소년의 혼자 공부한 시간(1시간 34분)이 가장 적음.
 - 가구소득 수준별로는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혼자 공부한 시간이 많게 나타나는데, 600만원 이상 집단의 혼자 공부한 시간(1시간 44분)이 가장 많은 반면 400만원 이하 집단의 혼자 공부한 시간(1시간 34분)은 가장 적음.
 - 가구형태별로는 양부모 집단(1시간 40분)의 혼자 공부한 시간이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집단(1시간 30분)에 비해 많음.

- 특성별 혼자 공부한 시간의 격차는 9-12세는 거주지역, 13-18세는 성별, 가구소득, 가구형태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13-18세 여자(1시간 55분)와 남자(1시간 51분)와의 차이(4분)는 9-12세보다 큼.
 - 9-12세 대도시 청소년(1시간 23분)의 혼자 공부한 시간은 중소도시 청소년과 크게 차이 나지 않으나, 농산어촌 청소년(1시간 16분)과의 차이(7분)가 13-18세보다 큼.
 - 13-18세의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혼자 공부한 시간이 많고, 600만원 이상 집단 혼자 공부한 시간(1시간 57분)과 400만원 이하 집단의 혼자 공부한 시간(1시간 47분)간 차이(10분)는 9-12세보다 큼.
 - 13-18세의 가구형태별로는 양부모 집단의 혼자 공부한 시간(1시간 54분)과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집단의 공부 시간(1시간 40분) 간 차이(14분)가 9-12세보다 크게 나타남.

표 II-89 하루 동안 혼자 공부한 시간(9-18세)

(단위: 명, 시간)

구분		사례수	전체	9-12세	13-18세
연도별	2017	4,013	1:31	1:08	1:44
	2020	3,841	1:46	1:25	2:00
	2023	4,191	1:40	1:21	1:53
청소년 성별	남자	2,161	1:38	1:20	1:51
	여자	2,030	1:41	1:21	1:55
학교급 및 재학 여부	초등학교	1,626	1:20	1:20	1:21
	중학교	1,354	1:37	1:32	1:38
	고등학교	1,211	2:09	-	2:09
거주지역	대도시	1,686	1:40	1:23	1:53
	중소도시	1,847	1:41	1:20	1:55
	농산어촌	659	1:34	1:16	1:49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00	1:34	1:12	1:47
	200~400만원 미만	846	1:34	1:20	1:47
	400~600만원 미만	2,158	1:40	1:21	1:53
	600만원 이상	1,087	1:44	1:21	1:57
가구형태	양부모	4,004	1:40	1:21	1:54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187	1:30	1:15	1:40

* 자료: 백혜정 외 (2017).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김기현 외 (20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혼자 공부한 시간을 사교육 여부에 따라 비교 분석한 결과, 사교육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혼자 공부한 시간이 사교육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90 사교육 경험 여부별 하루 동안 혼자 공부한 시간(9-18세)

(단위: 명, 시간)

구분		사례수	전체	9-12세	13-18세
사교육 경험	있음	3,410	1:36	1:17	1:51
	없음	781	1:53	1:40	2:01

5-2. 활동 경험

① 청소년 활동 경험

- **(청소년 활동 경험)** 청소년(9-18세)의 참여율이 가장 높은 활동은 문화/예술 관련 활동(59.2%), 환경 보존 관련 활동(21.1%), 건강/보건 관련 활동(19.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9-12세와 13-18세 모두 문화/예술 관련 활동의 참여율이 가장 높고 국제 교류 활동의 참여율이 가장 낮음.
- '20년 이후 청소년의 참여가 증가한 활동은 문화/예술 관련 활동(2.2%p)이 유일하며, 참여 감소폭이 가장 큰 활동은 자원봉사 활동(9.6%p)임.
- 환경보존 관련 활동은 9-12세의 참여가 13-18세보다 상대적으로 가장 높고 활동이며, 진로/직업 관련 활동은 13-18세의 참여가 9-12세보다 상대적으로 가장 높고 활동임.
- 연령대별로 '20년 대비 감소폭이 가장 큰 활동은 9-12세 과학/정보 관련 활동(9.5%p), 13-18세 자원봉사 활동(10.8%p)으로 나타남.
- **(본인이 직접 활동 주제와 내용에 대해 아이디어를 내거나 진행한 경험)** 청소년이 참여한 활동에서 직접 활동 주제와 내용에 대해 아이디어를 내거나 진행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10.3%로, '20년 대비 0.6%p 증가하였으며, 연령별로는 9-12세 9.2%, 13-18세는 11.0%로 나타남.
- 특성별로 남자, 학교급이 높을수록, 농산어촌,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양부모 가구 집단 청소년은 자신이 참여한 활동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 청소년(9-18세)이 참여가 가장 많은 활동은 문화/예술 관련 활동, 환경 보존 관련 활동, 건강/보건 관련 활동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 관련 활동(59.2%) > 환경 보존 관련 활동(21.1%) > 건강/보건 관련 활동(19.5%) > 과학/정보 관련 활동(17.2%) > 직업/진로 관련 활동(15.9%) > 자기(인성)계발 관련 활동(15.0%) > 모험/개척 관련 활동(13.3%) > 자원봉사 활동(11.9%) > 국제 교류 활동(2.5%)

○ 연령대별로는 9-12세와 13-18세 모두 문화/예술 관련 활동 참여율은 가장 높으나, 나머지 활동별로는 참여율이 다르게 나타남.

- 9-12세: 문화/예술 관련 활동(55.9%) > 환경 보존 관련 활동(24.1%) > 건강/보건 관련 활동(17.6%) > 과학/정보 관련 활동(17.5%) > 모험/개척 관련 활동(14.1%) > 자기(인성)계발 관련 활동(12.7%) > 직업/진로 관련 활동(10.1%) > 자원봉사 활동(7.1%) > 국제 교류 활동(1.5%)

- 13-18세: 문화/예술 관련 활동(61.4%) > 건강/보건 관련 활동(20.8%) > 직업/진로 관련 활동(19.9%) > 환경 보존 관련 활동(19.0%) > 과학/정보 관련 활동(16.9%) > 자기(인성)계발 관련 활동(16.5%) > 자원봉사 활동(15.2%) > 모험/개척 관련 활동(12.7%) > 국제 교류 활동(3.1%)
- 청소년 활동별로는 유일하게 문화/예술 관련 활동만 '20년 대비 참여율이 증가하고 나머지 활동은 모두 참여율이 감소하였는데, 감소폭이 가장 큰 활동은 자원봉사 활동임.
 - 문화/예술 관련 활동: '17년 63.4%→'20년 57.0%→'23년 59.2% (+2.2%p)
 - 환경 보존 관련 활동: '17년 15.6%→'20년 21.1%→'23년 21.1% (0.0%p)
 - 자원봉사 활동: '17년 24.9%→'20년 21.5%→'23년 11.9% (-9.6%p)
 - 자기(인성)계발 관련 활동: '17년 13.2%→'20년 21.6%→'23년 15.0% (-6.6%p)
 - 모험/개척 관련 활동: '17년 18.4%→'20년 18.4%→'23년 13.3% (-5.1%p)
 - 직업/진로 관련 활동: '17년 24.7%→'20년 20.9%→'23년 15.9% (-5.0%p)
 - 국제 교류 활동: '17년 3.4%→'20년 6.7%→'23년 2.5% (-4.2%p)
 - 건강/보건 관련 활동: '17년 18.1%→'20년 21.6%→'23년 19.5% (-2.1%p)
 - 과학/정보 관련 활동: '17년 16.4%→'20년 18.9%→'23년 17.2% (-1.7%p)
- 연령대별로 참여율이 높은 활동 종류는 다르게 나타남.
 - 9-18세 청소년 전체 참여율보다 9-12세 연령대의 참여율이 높은 활동은 과학/정보 활동(17.5%), 모험/개척 관련 활동(14.1%), 환경 보존 관련 활동(24.1%)이며, 특히 환경 보존 관련 활동 참여는 9-12세가 13-18세에 비해 5.1%p 높게 나타나, 9-12세의 참여 경험은 높은 활동 중 13-18세와의 참여율의 격차가 가장 큰 활동으로 나타남.
 - 9-18세 청소년 전체 참여율에 비해 13-18세 연령대의 참여율이 높은 활동은 문화/예술 관련 활동(61.4%), 자원봉사활동(15.2%), 직업/진로 관련 활동(19.9%), 국제 교류 활동(3.1%), 건강/보건 활동(20.8%), 자기(인성)계발 관련 활동(16.5%)이며, 특히 진로/직업 관련 활동의 참여 응답은 13-18세가 9-12세에 비해 9.8%p 높게 응답해, 13-18세의 참여 경험이 높은 활동 중 9-12세와의 참여율 편차가 가장 큰 활동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 '20년 대비 청소년 참여의 변화폭이 큰 활동은 상이함.
 - 9-12세의 '20년 대비 청소년 참여의 변화폭이 가장 큰 주요 활동 5순위는 과학/정보 관련 활동(-9.5%p), 자원봉사 활동(-8.2%p), 자기(인성)계발 관련 활동(-7.9%p), 모험/개척 관련 활동(-7.5%p), 직업/진로 관련 활동(-6.3%p) 순임.

- 13-18세의 '20년 대비 변화폭이 가장 큰 주요 활동 5순위는 자원봉사활동(-10.8%p), 자기(인성)계발 관련 활동(-7.1%p), 문화/예술 관련 활동(+6.7%p), 모험/개척 관련 활동(-6.2%p), 과학/정보 관련 활동(-5.2%p) 순임.

표 11-91 청소년 활동 경험률(9-18세)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체	9-12세	13-18세
문화/예술 관련 활동	2017	7,676	63.4	57.5	60.2
	2020	7,170	57.0	51.9	54.7
	2023	4,305	59.2	55.9	61.4
과학/정보 관련 활동	2017	7,676	16.4	32.4	23.5
	2020	7,170	18.9	27.0	22.1
	2023	4,305	17.2	17.5	16.9
모험/개척 관련 활동	2017	7,676	18.4	25.2	21.7
	2020	7,170	18.4	21.6	18.9
	2023	4,305	13.3	14.1	12.7
자원봉사 활동	2017	7,676	24.9	16.8	37.9
	2020	7,170	21.5	15.3	26.0
	2023	4,305	11.9	7.1	15.2
직업/진로 관련 활동	2017	7,676	24.7	20.7	34.6
	2020	7,170	20.9	16.4	22.3
	2023	4,305	15.9	10.1	19.9
국제 교류 활동	2017	7,676	3.4	2.4	3.4
	2020	7,170	6.7	5.1	6.6
	2023	4,305	2.5	1.5	3.1
건강/보건 관련 활동	2017	7,676	18.1	24.6	24.7
	2020	7,170	21.6	21.5	24.7
	2023	4,305	19.5	17.6	20.8
자기(인성)계발 관련 활동	2017	7,676	13.2	15.4	16.8
	2020	7,170	21.6	20.6	23.6
	2023	4,305	15.0	12.7	16.5
환경 보존 관련 활동	2017	7,676	15.6	26.8	17.6
	2020	7,170	21.1	26.8	22.8
	2023	4,305	21.1	24.1	19.0

* 주: 2017년과 2020년에는 9-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측정하였으나, 2023년에는 9-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측정함.

* 자료: 백혜정 외 (2017).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김기현 외 (20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9-18세 청소년이 참여한 활동에서 직접 활동 주제와 내용에 대해 아이디어를 내거나 진행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0.3%로 나타났으며, '20년 대비 0.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년 9.7%→'23년 10.3%
- 연령대별로 9-12세는 '20년 대비 2.1%p 감소한 9.2%, 13-18세는 '20년 대비 0.2%p 증가한 11.0%로 나타남.
 - 9-12세: '20년 11.3%→'23년 9.2%
 - 13-18세: '20년 10.8%→'23년 11.0%
- 특성별로는 남자, 학교급이 높을수록, 농산어촌 거주자,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양부모 가구 집단 청소년이 자신이 참여한 활동에서 적극적 참여를 한 경험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 남자(11.3%)가 여자(9.3%)에 비해 참여 활동에서 활동 주제에 대해 아이디어를 내거나 진행한 경험의 응답이 높음.
 - 학교급이 높을수록 참여 활동에서의 적극적 참여 응답이 높으며, 대학생(12.1%)의 응답이 가장 높은 반면 초등학교(9.1%)의 응답이 가장 낮음.
 - 거주지역별로는 농산어촌 거주자의 참여 활동에서 적극적 참여 응답(13.4%)이 가장 높은 반면 중소도시 거주자(9.4%)에서의 응답이 가장 낮음.
 - 가구소득 수준별로는 400~600만원 미만 구간의 청소년 참여 활동에서의 적극적 참여(8.8%)가 가장 낮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적극적 참여율이 높아 200만원 미만(13.1%)의 적극적 참여율이 가장 높음.
 - 가구형태별로는 양부모 집단(10.4%) 청소년이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9.2%) 청소년에 비해 참여 활동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험 응답이 높음.
- 특성별 청소년 참여 활동에서의 적극적 경험률의 격차는 9-12세의 거주지역, 가구소득별 격차와 13-18세의 성별, 학교급, 가구형태별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성별로는 13-18세의 남학생(12.1%)과 여학생(9.9%) 간 참여 활동에서의 적극적 경험률 응답의 격차(2.2%p)가 9-12세에 비해 큼.
 - 거주지역별로는 9-12세의 참여 활동에서의 적극적 활동 응답이 가장 높은 농산어촌(12.8%)과 가장 낮은 중소도시(8.2%)간 격차(4.6%p)가 13-18세에 비해 큼.
 - 가구소득 수준별로는 9-12세의 참여 활동에서의 적극적 활동 응답이 200만원 집단에서 가장 높고(22.1%) 400~600만원 미만 집단(7.8%)에서 가장 낮아, 이들 집단 간 차이(14.3%p)는 13-18세에 비해 크며 다른 특성에 의한 차이보다 상대적으로 가장 큼.

- 가구형태별로는 13-18세 양부모 집단(11.1%)과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9.6%) 집단 간 응답의 차이(1.5%p)가 9-12세보다 큼.

표 11-92 본인이 직접 활동 주제와 내용에 대해 아이디어를 내거나 진행한 경험(9-18세)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체		9-12세		13-18세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연도별	2020	5,178	9.7	90.3	11.3	88.7	10.8	89.2
	2023	2,960	10.3	89.7	9.2	90.8	11.0	89.0
청소년 성별	남자	1,529	11.3	88.7	10.0	90.0	12.1	87.9
	여자	1,431	9.3	90.7	8.3	91.7	9.9	90.1
학교급 및 재학 여부	초등학교	1,052	9.1	90.9	9.1	90.9	9.0	91.0
	중학교	942	10.5	89.5	9.4	90.6	10.6	89.4
	고등학교	873	11.4	88.6	-	-	11.4	88.6
	대학교	86	12.1	87.9	-	-	12.1	87.9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	8	11.7	88.3	-	-	11.7	88.3
거주지역	대도시	1,116	10.2	89.8	8.6	91.4	11.1	88.9
	중소도시	1,381	9.4	90.6	8.2	91.8	10.0	90.0
	농산어촌	464	13.4	86.6	12.8	87.2	13.9	86.1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74	13.1	86.9	22.1	77.9	9.3	90.7
	200~400만원 미만	526	10.2	89.8	8.1	91.9	12.0	88.0
	400~600만원 미만	1,534	8.8	91.2	7.8	92.2	9.5	90.5
	600만원 이상	826	12.9	87.1	12.1	87.9	13.3	86.7
가구형태	양부모	2,818	10.4	89.6	9.2	90.8	11.1	88.9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143	9.2	90.8	8.6	91.4	9.6	90.4

* 자료: 김기현 외 (20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② 청소년의 정서와 활동 참여

- 청소년 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9-18세)의 대인관계 역량과 자존감 수준 '하' 집단 비율이 청소년 활동을 하는 청소년에 비해 높음.

- 청소년 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9-18세)은 대인관계 역량, 자존감 수준 '하' 집단에 속한 비율이 높음.
 - 청소년 활동 여부와 일상생활 스트레스 경험 여부, 무기력 상태 경험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 활동 여부에 따른 대인관계 역량, 자존감 수준을 살펴보면, 청소년 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이 청소년 활동을 하나라도 하는 청소년에 비해 대인관계 역량과 자존감 수준이 '하'인 집단에 속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이는 청소년 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이 대인관계 역량과 자존감 수준 '상', '중', '하' 집단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향성을 보인다고는 할 수 없으나, 공통으로 청소년 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 집단에서 대인관계 역량, 자존감 수준 '하'의 비율이 높음.
- 연령대별로 청소년 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은 대인관계 역량이나 자존감 수준 '하' 집단에 속한 비율이 높으나, 연령대별 차이를 보임.
 - 9-12세 청소년 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의 대인관계 역량 '하' 집단에 속한 비율은 높지 않으나, 13-18세의 경우 청소년 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의 대인관계 역량 '하' 집단에 속한 비율은 '상'이나 '중'에 속한 비율보다 높게 나타남.
 - 9-12세와 13-18세 모두 청소년 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의 자존감 수준 '하' 집단에 속한 비율은 자존감 수준 '상'이나 '중'에 속한 비율보다 높음.

표 11-93

청소년 활동여부와 청소년 정서(9-18세)

(단위: 명, %)

구분			전체		9-12세		13-18세	
			안함	하나라도 함	안함	하나라도 함	안함	하나라도 함
스트레스	일상생활 스트레스	경험함	30.4	69.6	37.0	63.0	27.3	72.7
		경험하지 않음	33.0	67.0	31.4	68.6	35.2	64.8
	무기력 상태	경험함	35.2	64.8	45.8	54.2	30.3	69.7
		경험하지 않음	30.1	69.9	32.1	67.9	28.5	71.5
대인관계 역량		상(10-12점)	32.8	67.2	36.3	63.7	30.3	69.7
		중(7-9점)	29.6	70.4	32.9	67.1	27.4	72.6
		하(3-6점)	39.1	60.9	31.6	68.4	42.0	58.0
자존감		상(10-12점)	33.3	66.7	38.0	62.0	29.7	70.3
		중(7-9점)	29.6	70.4	31.8	68.2	28.2	71.8
		하(3-6점)	39.3	60.7	42.5	57.5	35.8	64.2

③ 주 양육자의 청소년 활동에 대한 관심

- **(주 양육자의 청소년 활동에 대한 관심도)** 주 양육자의 청소년 활동 관심도와 청소년 활동별 참여 여부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주 양육자의 활동 관심도가 높은 청소년이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 활동에 대한 주 양육자의 관심도는 9-12세 자녀의 주 양육자가 13-18세 자녀를 둔 주 양육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임.
- 청소년 활동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주 양육자 관심도의 차이가 가장 큰 활동은 9-12세(0.10점)와 13-18세(0.11점) 모두 모험/개척 관련 활동으로 나타남.
- **(주 양육자가 청소년 활동에 관심을 두는 주된 이유)** 청소년 활동과 주 양육자의 청소년 활동에 대한 관심의 이유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주 양육자가 청소년 활동에 관심을 두는 주된 이유는 모든 종류의 청소년 활동에 걸쳐 ‘다양한 경험을 쌓기를 희망하여’로 나타남.
- 9-12세의 주 양육자가 청소년 활동에 관심을 갖는 주된 이유가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하여’에 집중되는 반면 13-18세 주 양육자 관심의 주된 이유는 9-12세 주 양육자에 비해 ‘다양한 경험’의 응답은 낮아지고 성적 또는 입시, 스트레스 해소 등 이유의 응답이 높아짐.
- **(주 양육자의 자녀 학습 및 활동 관심도)** 주 양육자의 자녀의 학습, 학습 외 활동에 대한 관심도를 분석한 결과, 자녀 학습에 대한 관심도 수준은 4점 만점에 3.14점, 학습 외 활동(체험, 동아리)에 대한 관심도는 2.97점으로, 자녀의 활동보다는 학습에 대한 관심 수준이 높으며, '20년 대비 각각 0.07점, 0.04점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 자녀 학교급이 낮을수록,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주 양육자가 여성인 경우, 주 양육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 학습에 대한 관심도와 활동에 대한 관심도 모두 높음.

- 주 양육자의 청소년 활동에 대한 관심도와 청소년(9-18세)의 활동 참여 여부를 분석한 결과, 주 양육자의 청소년 활동에 대한 관심도 수준이 높은 집단이 청소년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주 양육자를 대상으로 측정한 청소년 활동에 대한 관심도 수준과 청소년의 활동 참여 여부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국제 교류 활동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활동에서 참여자의 주 양육자 관심도 수준은 활동 비참여자의 주양육자 관심도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청소년 연령대별로 13-18세는 주 양육자의 관심도 점수가 높은 집단이 청소년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9-12세는 일부 활동에서는 차이를 보임.
 - 9-12세는 자원봉사 활동과 국제 교류 활동 비참여자의 주 양육자 관심도 점수가 참여자의 주 양육자 관심도 점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활동 참여자의 주 양육자 관심도 수준이 비참여자의 주 양육자 관심도 수준에 비해 높게 나타남.
 - 13-18세는 모든 종류의 활동의 참여자의 주 양육자의 관심도 수준이 활동 비참여자의 주 양육자 관심도 수준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청소년 활동에 대한 관심도는 9-12세의 주 양육자 점수가 13-18세의 주 양육자 점수에 비해 높음.
 - 주 양육자의 청소년 활동에 대한 관심도 점수는 자원봉사 활동을 제외한 모든 활동에서 9-12세 주 양육자의 점수가 13-18세 주 양육자의 점수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청소년 활동 참여 여부별 주 양육자의 관심도의 차이가 가장 큰 활동은 9-12세와 13-18세 모두 모험/개척 관련 활동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 청소년 활동 참여 여부별 주 양육자의 관심도 점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활동으로는 9-12세(0.10점)와 13-18세(0.11점) 모두 모험/개척 관련 활동으로 나타남.

표 II-94

주 양육자의 청소년 활동(체험활동, 동아리활동)에 대한 관심도와
청소년 활동 참여 여부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주 양육자의 청소년 활동에 대한 관심도		
			전체	9-12세	13-18세
문화/예술 관련 활동	참여	2,548	3.17	3.22	3.15
	비참여	1,757	3.11	3.15	3.08
과학/정보 관련 활동	참여	739	3.20	3.24	3.17
	비참여	3,566	3.14	3.18	3.12
모험/개척 관련 활동	참여	572	3.24	3.27	3.22
	비참여	3,732	3.14	3.17	3.11
자원봉사 활동	참여	514	3.17	3.17	3.17
	비참여	3,791	3.15	3.19	3.11
직업/진로 관련 활동	참여	686	3.16	3.24	3.13
	비참여	3,619	3.15	3.18	3.12
국제 교류 활동	참여	106	3.15	3.16	3.15
	비참여	4,198	3.15	3.19	3.12
건강/보건 관련 활동	참여	840	3.16	3.22	3.13
	비참여	3,465	3.15	3.18	3.12
자기(인성) 계발 관련 활동	참여	645	3.18	3.25	3.14
	비참여	3,660	3.14	3.18	3.12
환경 보존 관련 활동	참여	907	3.19	3.20	3.18
	비참여	3,397	3.14	3.18	3.11

- 주 양육자가 청소년 활동에 관심을 두는 주된 이유와 청소년이 경험한 활동을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모든 활동에 걸쳐 ‘다양한 경험을 쌓기를 희망하여’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양한 경험을 쌓기를 희망하여 > 아이의 적성 개발 등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 아이의 활동이 성적 또는 입시와 관련되기 때문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주 양육자가 청소년 활동에 관심을 두는 주된 이유에 따라 청소년의 참여가 가장 높은 활동이 차이를 나타냄.
 - 아이의 활동이 성적 또는 입시와 관련되기 때문에: 건강/보건 관련 활동(19.6%)
 -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하여: 국제 교류 활동(44.0%)
 - 아이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자원봉사 활동(7.9%)
 - 주변의 아이들도 하기 때문에: 직업/진로 관련 활동(6.9%)
 - 아이의 적성 개발 등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자기(인성)계발 관련 활동(29.8%)
 - 아이의 체력단련 등 건강을 위해서: 모험/개척 관련 활동(6.9%)
 - 아이가 원해서: 건강/보건 관련 활동(4.3%)
- 9-12세 주 양육자의 청소년 활동에 대한 관심의 주된 이유가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하여’에 집중되는 반면 13-18세 주 양육자는 9-12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한 경험’의 응답이 낮고 성적 또는 입시, 스트레스 해소 등 다른 이유들의 응답이 높아짐.
 - 9-12세의 청소년 활동 전반적으로 주 양육자가 관심을 두는 주된 이유로 ‘다양한 경험을 쌓기를 희망하여’의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반면 13-18세는 9-12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기를 희망하여’의 응답 비율이 낮아지고 ‘아이의 활동이 성적 또는 입시와 관련되기 때문에’, ‘아이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주변의 다른 아이들도 하기 때문에’ 등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아짐.

표 II-95 주 양육자의 청소년 활동(체험활동, 동아리활동)에 관심을 두는 주된 이유와 청소년 활동

(단위: 명, %)

구분		청소년 활동에 관심을 두는 주된 이유																							
		전체								9-12세								13-18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청소년 활동	문화/예술 관련 활동	16.7	39.4	7.2	3.3	25.7	4.8	2.8	-	13.3	44.9	5.7	2.6	25.8	5.1	2.6	-	18.7	36.0	8.1	3.7	25.7	4.7	3.0	-
	과학/정보 관련 활동	14.7	40.0	6.5	4.0	25.9	6.7	2.3	-	14.3	42.2	4.8	3.3	26.6	5.7	3.2	-	15.0	38.4	7.7	4.5	25.3	7.5	1.7	-
	모험/개척 관련 활동	15.3	37.9	7.1	3.4	26.1	6.9	3.3	-	14.3	40.6	6.7	2.6	26.1	6.4	3.2	-	16.0	35.8	7.5	4.0	26.0	7.3	3.3	-
	자원봉사 활동	18.9	39.5	7.9	3.6	23.7	4.2	2.2	-	17.1	49.3	3.9	1.8	23.9	2.0	2.1	-	19.5	36.4	9.2	4.2	23.6	4.9	2.3	-
	직업/진로 관련 활동	16.0	39.6	7.0	6.9	23.6	4.1	2.8	-	11.8	45.4	8.9	4.1	23.7	2.6	3.4	-	17.5	37.6	6.4	7.8	23.6	4.6	2.6	-
	국제 교류 활동	11.2	44.0	5.8	5.1	28.3	4.9	0.7	-	8.6	52.1	9.2	6.6	21.5	2.0	-	-	12.0	41.4	4.7	4.6	30.5	5.9	0.9	-
	건강/보건 관련 활동	19.6	37.3	6.3	4.5	23.3	4.7	4.3	-	16.9	44.2	4.0	2.7	22.6	3.3	6.2	-	21.1	33.3	7.6	5.6	23.7	5.4	3.2	-
	자기(인성)개발 관련 활동	18.0	34.6	6.5	4.8	29.8	4.4	1.8	-	18.5	40.7	5.8	3.7	25.1	3.7	2.5	-	17.7	31.4	6.9	5.4	32.2	4.8	1.5	-
	환경 보존 관련 활동	14.3	40.3	5.2	4.3	27.8	5.3	2.9	-	13.7	45.2	3.9	3.5	25.3	4.7	3.8	-	14.8	36.1	6.3	5.0	30.0	5.8	2.1	-

주: ① 아이의 활동이 성적 또는 입시와 관련되기 때문에, ② 다양한 경험을 쌓기를 희망하여, ③ 아이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④ 주변의 다른 아이들도 하기 때문에, ⑤ 아이의 적성 개발 등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⑥ 아이의 체력단련 등 건강을 위해서, ⑦ 아이가 원해서, ⑧ 기타

- 주 양육자를 대상으로 자녀 학습에 대한 관심도와 학습 외 활동(체험활동, 동아리 활동 등)에 대한 관심도를 측정한 결과, 학습 관심도는 4점 만점에 3.14점, 활동 관심도는 2.97점으로 나타나, 활동보다 학습에 대한 관심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며, '20년 대비 각각 0.07점, 0.04점 낮아짐.
- 주 양육자와 가구 특성별로 살펴보면, 자녀의 학교급이 낮을수록,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주 양육자 성별이 여성인 경우, 주 양육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 학습에 대한 관심도와 활동에 대한 관심도가 모두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주 양육자의 자녀 학습에 대한 관심도의 특성별 차이가 활동 관심도의 특성별 차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며, 특히 자녀 학교급에 따른 학습 관심 수준의 차이가 가장 큼.
 - 자녀 학습에 대한 관심도의 특성별 차이는 자녀 학교급 0.46%p, 가구소득 0.38%p, 주 양육자 성별 0.17%p, 주 양육자 연령 0.30%p로 나타남.
 - 자녀 활동에 대한 관심도의 특성별 차이는 자녀 학교급 0.21%p, 가구소득 0.13%p, 주 양육자 성별 0.05%p, 주 양육자 연령 0.1%p로 나타남.

표 11-96 주 양육자의 자녀 학습 및 활동 관심도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자녀 학습 관심도	자녀 활동 관심도
연도별	2020년	4,808	3.21	3.01
	2023년	3,801	3.14	2.97
자녀 학교급	초등학교	1,368	3.28	3.04
	중학교	1,005	3.18	2.96
	고등학교	994	3.02	2.94
	대학교	383	2.96	2.89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	51	2.82	2.83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01	2.84	2.90
	200~400만원 미만	799	3.12	2.91
	400~600만원 미만	1,959	3.13	2.97
	600만원 이상	942	3.22	3.03
주 양육자 성별	남성	478	3.00	2.93
	여성	3,324	3.17	2.98
주 양육자 연령별	30대 이하	757	3.26	3.02
	40대	2,556	3.15	2.97
	50대 이상	488	2.96	2.92

④ 참여 희망 활동

- 청소년(9-18세)이 가장 하고 싶어 하는 활동은 문화/예술 관련 활동(43.6%), 모험/개척 관련 활동(13.5%), 과학/정보 관련 활동(12.5%) 등의 순으로 나타나며, '20년 대비 응답이 증가함.
- 연령대별로 9-12세는 문화/예술 관련 활동(44.7%), 과학/정보 관련 활동(13.2%), 모험/개척 관련 활동(15.1%), 환경 보존 관련 활동(4.7%)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고, 13-18세는 자원봉사 활동(4.9%), 직업/진로 관련 활동(9.0%), 국제 교류 활동(6.9%), 건강/보건 관련 활동(5.0%), 자기(인성)계발 관련 활동(4.1%)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 '20년 대비 문화/예술 관련 활동(7.9%p)의 응답이 가장 크게 늘었으며, 자기(인성)계발 활동(4.1%p)의 응답이 가장 많이 감소함.

○ 청소년(9-18세)이 가장 하고 싶어 하는 활동은 문화/예술 관련 활동, 모험/개척 관련 활동, 과학/정보 관련 활동 등의 순으로 나타나며, '20년 대비 각각 7.9%p, 1.2%p, 3.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 관련 활동: '17년 39.3%→'20년 35.7%→'23년 43.6%
- 모험/개척 관련 활동: '17년 14.8%→'20년 12.3%→'23년 13.5%
- 과학/정보 관련 활동: '17년 8.3%→'20년 9.1%→'23년 12.5%

○ 연령대별로 9-12세와 13-18세 모두 가장 하고 싶어 하는 활동은 문화/예술 활동, 모험/개척 관련 활동, 과학/정보 관련 활동 등의 순으로 나타남.

- 9-12세: 문화/예술 관련 활동(44.7%) > 모험/개척 관련 활동(15.1%) > 과학/정보 관련 활동(13.2%) 등
- 13-18세: 문화/예술 관련 활동(42.9%) > 모험/개척 관련 활동(12.4%) > 과학/정보 관련 활동(12.1%) 등

○ 각 연령대별로 참여 희망이 높은 활동은 차이를 나타냄.

- 9-12세가 전체(9-18세) 청소년에 비해 참여 희망이 높은 활동은 문화/예술 관련 활동(44.7%), 과학/정보 관련 활동(13.2%), 모험/개척 관련 활동(15.1%), 환경 보존 관련 활동(4.7%)임.
- 13-18세가 전체(9-18세) 청소년에 비해 참여 희망이 높은 활동은 자원봉사 활동(4.9%), 직업/진로 관련 활동(9.0%), 국제 교류 활동(6.9%), 건강/보건 관련 활동(5.0%), 자기(인성)계발 관련 활동(4.1%)임.

- 청소년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활동 응답의 '20년 대비 변화폭은 활동마다 다름.
 - '20년 대비 응답이 증가한 활동은 문화/예술 관련 활동(7.9%p), 과학/정보 관련 활동(3.4%p), 모험/개척 관련 활동(1.2%p), 환경 보존 관련 활동(1.0%p)이며, 이 가운데 문화/예술 관련 활동의 응답 증가폭이 가장 큼.
 - '20년 대비 응답이 감소한 활동은 자기(인성)계발 관련 활동(4.1%p), 자원봉사 활동(3.3%p), 국제 교류 활동(3.1%p), 직업/진로 관련 활동(3.0%p)으로, 이 가운데 자기(인성)계발 활동의 응답 감소폭이 가장 큼.
- 청소년이 가장 하고 싶어 하는 활동 중 과학/정보 관련 활동과 건강/보건 관련 활동의 참여 희망 응답은 9-12세와 13-18세에서 변화의 방향이 반대로 나타남.
 - 과학/정보 관련 활동을 가장 하고 싶다는 응답은 9-12세는 '20년 대비 2.2%p 감소한 반면 13-18세는 2.5%p 증가함.
 - 건강/보건 활동을 가장 하고 싶다는 응답은 9-12세는 '20년 대비 0.5%p 감소한 반면 13-18세는 0.1%p 증가함.

표 11-97 참여 희망 활동(1순위)(9-18세)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체	9-12세	13-18세
문화/예술 관련 활동	2017	7,676	39.3	33.3	37.8
	2020	7,170	35.7	33.4	35.5
	2023	4,305	43.6	44.7	42.9
과학/정보 관련 활동	2017	7,676	8.3	16.8	9.7
	2020	7,170	9.1	15.4	9.6
	2023	4,305	12.5	13.2	12.1
모험/개척 관련 활동	2017	7,676	14.8	20.9	15.2
	2020	7,170	12.3	18.2	12.7
	2023	4,305	13.5	15.1	12.4
자원봉사 활동	2017	7,676	6.7	5.3	7.2
	2020	7,170	7.8	6.5	8.0
	2023	4,305	4.5	3.9	4.9
직업/진로 관련 활동	2017	7,676	8.6	7.0	8.7
	2020	7,170	10.8	6.4	11.2
	2023	4,305	7.8	6.0	9.0
국제 교류 활동	2017	7,676	11.2	5.2	10.2
	2020	7,170	9.0	4.4	8.2
	2023	4,305	5.9	4.4	6.9
건강/보건 관련 활동	2017	7,676	3.5	4.0	4.0
	2020	7,170	4.8	4.9	4.9
	2023	4,305	4.8	4.4	5.0
자기(인성)계발 관련 활동	2017	7,676	4.0	2.8	3.9
	2020	7,170	8.0	7.3	7.6
	2023	4,305	3.9	3.6	4.1
환경 보존 관련 활동	2017	7,676	3.5	4.7	3.4
	2020	7,170	2.4	3.7	2.3
	2023	4,305	3.4	4.7	2.6

* 주: 2017년과 2020년에는 9-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측정하였으나, 2023년에는 9-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측정함.

* 자료: 백혜정 외 (2017).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김기현 외 (20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청소년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활동의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모두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선호하는 활동에 대한 응답이 1순위 응답 결과의 경향과 동일하게 나타남.
- 청소년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활동의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면, 과학/정보 관련 활동, 모험/개척 관련 활동, 국제 교류 활동을 하고 싶다는 응답은 9-12세와 13-18세의 '20년 대비 응답 변화 방향이 반대로 나타남.
 - 과학/정보 관련 활동을 하고 싶다는 응답은 9-12세는 '20년 대비 0.6%p 감소한 반면 13-18세는 6.9%p 증가함.
 - 모험/개척 관련 활동을 하고 싶다는 응답은 9-12세는 '20년 대비 0.7%p 감소한 반면 13-18세는 1.9%p 증가함.
 - 국제 교류 활동을 하고 싶다는 응답은 9-12세는 '20년 대비 1.7%p 증가한 반면 13-18세는 1.3%p 감소함.

표 11-98 참여 희망 활동(1+2순위)(9-18세)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체	9-12세	13-18세
문화/예술 관련 활동	2017	7,676	51.1	47.1	49.9
	2020	7,170	45.4	45.4	44.1
	2023	4,305	54.2	55.2	53.5
과학/정보 관련 활동	2017	7,676	17.5	34.9	19.2
	2020	7,170	18.5	31.5	19.5
	2023	4,305	28.2	30.9	26.4
모험/개척 관련 활동	2017	7,676	32.6	41.5	33.9
	2020	7,170	25.9	35.4	27.5
	2023	4,305	31.5	34.7	29.4
자원봉사 활동	2017	7,676	17.4	12.2	17.1
	2020	7,170	18.2	14.9	18.1
	2023	4,305	13.2	11.9	14.2
직업/진로 관련 활동	2017	7,676	20.7	17.3	21.4
	2020	7,170	24.7	16.1	24.8
	2023	4,305	19.8	15.7	22.6
국제 교류 활동	2017	7,676	23.5	12.9	21.8
	2020	7,170	19.0	9.6	18.1
	2023	4,305	14.5	11.3	16.8
건강/보건 관련 활동	2017	7,676	10.4	9.4	11.0
	2020	7,170	15.2	15.1	16.4
	2023	4,305	12.8	12.7	12.9
자기(인성)계발 관련 활동	2017	7,676	14.4	8.6	14.6
	2020	7,170	23.3	18.7	23.3
	2023	4,305	13.0	12.1	13.7
환경 보존 관련 활동	2017	7,676	12.3	15.9	10.8
	2020	7,170	9.8	13.4	8.2
	2023	4,305	12.7	15.5	10.8

* 주: 2017년과 2020년에는 9-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측정하였으나, 2023년에는 9-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측정함.

⑤ 청소년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거나 진행하는 활동에 참여할 기회에 대한 인식

- 청소년(9-18세)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거나 진행하는 활동에 참여할 기회에 대해 '있다(조금 있다+많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6.9%로 '20년(39.5)% 대비 2.6%p 낮아짐.
- 연령대별로 9-12세는 '20년(38.3%) 대비 1.9%p 낮아진 36.4%, 13-18세는 '20년 대비 3.8%p 낮아진 37.2%로 나타남.
- 특성별로 여자, 학교급이 높을수록, 중소도시 거주자,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양부모 가구 집단에서 청소년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거나 진행하는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 청소년(9-18세)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거나 진행하는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기회가 '있다(조금 있다+많이 있다)'는 응답은 36.9%로 '20년(39.5%) 대비 2.6%p 낮아짐.
- 연령대별로 9-12세는 '20년 대비 1.9%p 낮아진 36.4%, 13-18세는 '20년 대비 3.8%p 낮아진 37.2%로 나타남.
 - 9-12세: '20년 38.3%→'23년 36.4%
 - 13-18세: '20년 41.0%→'23년 37.2%
- 특성별로 여자, 학교급이 높을수록, 중소도시 거주자,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 양부모 가구의 경우 청소년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거나 진행하는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 성별로는 여자(37.0%)가 남자(36.8%)에 비해 청소년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거나 진행하는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는 응답이 높음.
 - 학교급별로는 대학생이 청소년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거나 진행하는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는 응답(42.6%)이 가장 높은 반면 대학 미진학 및 졸업한 청소년(13.7%)의 응답이 가장 낮음.
 - 거주지역별로는 중소도시 청소년(40.3%)의 응답이 가장 높은 반면 대도시 청소년(31.9%)의 응답이 가장 낮음.
 - 가구소득 수준별로는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44.2%)의 응답이 가장 높은 반면 200~400만원 미만(31.1%)의 응답이 가장 낮음.
 - 가구형태별로는 양부모(37.1%) 집단의 응답이 학부모 및 조손가족 등(33.0%) 집단보다 높음.

○ 청소년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거나 진행하는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 응답에 대한 특성별 응답의 격차는 9-12세의 가구형태별, 13-18세의 학교급, 가구소득 수준에 의한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9-12세는 양부모 가구 집단(36.8%)과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28.2%)의 응답의 격차(8.6%p)가 13-18세보다 상대적으로 큼.
- 13-18세 초등학생(43.7%)과 중학생(38.1%)간 차이(5.6%p)와 가구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46.5%)과 200~400만원 미만(32.0%)의 차이(14.5%p)는 9-12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이가 큼.

표 II-99

청소년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거나 진행하는 활동에 참여할 기회에 대한 인식(9-18세)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체			9-12세			13-18세		
			없다	있다	평균	없다	있다	평균	없다	있다	평균
연도별	2020	7,170	60.6	39.5	2.33	61.7	38.3	2.32	59.0	41.0	2.37
	2023	4,305	63.1	36.9	2.32	63.6	36.4	2.31	62.8	37.2	2.32
청소년 성별	남자	2,215	63.2	36.8	2.31	63.7	36.3	2.31	62.9	37.1	2.30
	여자	2,090	63.0	37.0	2.33	63.4	36.6	2.32	62.7	37.3	2.34
학교급 및 재학 여부	초등학교	1,626	63.6	36.4	2.31	63.8	36.2	2.31	56.3	43.7	2.4
	중학교	1,354	61.9	38.1	2.34	61.7	38.3	2.34	61.9	38.1	2.34
	고등학교	1,211	64.1	35.9	2.29	-	-	-	64.1	35.9	2.29
	대학교	102	57.4	42.6	2.38	-	-	-	57.4	42.6	2.38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	12	86.3	13.7	2.14	-	-	-	86.3	13.7	2.14
거주 지역	대도시	1,730	68.1	31.9	2.25	67.9	32.1	2.25	68.3	31.7	2.25
	중소도시	1,895	59.7	40.3	2.37	61.3	38.7	2.35	58.6	41.4	2.38
	농산어촌	680	59.9	40.1	2.34	59.3	40.7	2.38	60.4	39.6	2.3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104	55.8	44.2	2.36	60.0	40.0	2.29	53.5	46.5	2.39
	200~400만원 미만	866	68.9	31.1	2.22	69.9	30.1	2.22	68.0	32.0	2.21
	400~600만원 미만	2,217	62.3	37.7	2.33	61.7	38.3	2.35	62.8	37.2	2.32
	600만원 이상	1,117	60.8	39.2	2.36	61.7	38.3	2.34	60.4	39.6	2.37
가구 형태	양부모	4,109	62.9	37.1	2.32	63.2	36.8	2.32	62.7	37.3	2.32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195	67.0	33.0	2.26	71.8	28.2	2.28	63.5	36.5	2.24

* 주: 2017년과 2020년에는 9-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측정하였으나, 2023년에는 9-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측정함.

* 자료: 김기현 외 (20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⑥ 단체(동아리) 활동 경험

- 청소년(9-18세)이 현재 가입하고 있는 단체(동아리)는 청소년 단체(동아리)(6.9%), 기타 단체(동아리)(6.3%),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단체(동아리)(2.0%) 순으로 나타나며, '20년 대비 단체(동아리) 가입률이 모두 감소함(각 1.9%p, 6.3%p, 5.3%p).
- 연령대별로 9-12세는 청소년 단체(동아리)(7.1%), 13-18세는 기타 단체(동아리)(5.0%)를 가장 많이 가입함.
- 단체(동아리) 종류별로 가입률이 높은 청소년의 특성이 다르나, 특히 농산어촌 청소년은 모든 단체(동아리)의 가입률이 대도시나 중소도시 청소년에 비해 높음.

- 청소년(9-18세)의 단체(동아리) 가입률은 '청소년 단체(동아리)', '기타 단체(동아리)',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단체(동아리)' 순으로 나타나며, '20년 대비 각각 1.9%p, 6.3%p, 5.3%p 감소함.
 - 청소년 단체(동아리): '17년 12.5%→'20년 8.8%→'23년 6.9%
 -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단체(동아리): '17년 16.9%→'20년 8.3%→'23년 2.0%
 - 기타 단체(동아리): '17년 18.3%→'20년 11.6%→'23년 6.3%
- 연령대별로 9-12세는 '청소년 단체(동아리)(7.1%)', 13-18세는 '기타 단체나 동아리'를 가장 많이 가입함.
 - 9-12세: 청소년 단체나 동아리(7.1%) > 기타 단체(동아리)(5.0%) >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단체(동아리)(1.0%)
 - 13-18세: 기타 단체(동아리)(7.1%) > 청소년 단체(동아리)(6.8%) >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단체(동아리)(2.7%)
- 단체(동아리)별로 가입률이 높은 청소년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지만, 농산어촌 청소년은 모든 단체(동아리)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 청소년 단체(동아리)는 중학생(7.5%), 농산어촌(10.3%),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8.0%), 양부모 가구(6.9%) 집단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 인터넷을 통한 단체(동아리)는 남자(2.1%),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13.4%), 농산어촌(2.8%), 가구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 기타 단체(동아리)는 여자(6.7%), 대학생(14.1%), 농산어촌(7.2%),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7.7%),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7.9%) 집단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 청소년 단체(동아리)의 경우 9-12세 성별, 13-18세 거주지역, 가구소득, 가구형태에 의한 가입률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큼.
 - 성별로는 9-12세 여자(7.1%)의 청소년 단체나 동아리 가입률이 남자(7.0%)보다 높으며, 응답의 격차(0.1%p)가 13-18세보다 큼.
 - 13-18세 농산어촌 청소년의 단체(동아리) 가입률(12.1%)이 가장 높은 반면 대도시 청소년의 가입률(4.1%)이 가장 낮아 가입률의 격차(8.0%p)가 9-12세보다 상대적으로 큼.
 - 가구소득 수준별로는 13-18세의 청소년 단체(동아리) 가입률이 가장 높은 집단은 600만원 이상 집단(8.5%)이며 가입률이 가장 낮은 집단은 400만원~600만원 미만 집단(5.5%)으로, 소득수준에 의한 단체(동아리) 가입률의 격차(3.0%p)가 9-12세보다 큼.
 - 가구형태별로 13-18세 양부모 집단(6.8%)의 가입률이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4.8%) 집단 간의 격차(2.0%p)가 9-12세보다 큼.

-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단체(동아리)의 경우 9-12세 성별, 가구소득, 가구형태, 13-18세 거주지역별 가입률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9-12세 남자(1.1%)는 여자(0.9%)에 비해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단체(동아리)의 가입률이 높으며, 성별 격차(0.2%p)는 13-18세보다 상대적으로 큼.
 - 13-18세 농산어촌 청소년(4.2%)과 중소도시 청소년(2.4%)의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단체(동아리) 가입률의 격차(1.8%p)는 9-12세보다 상대적으로 큼.
 - 9-12세의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4.2%) 집단과 400~600만원 집단(0.5%)간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단체(동아리) 가입률(3.7%p) 격차는 13-18세보다 크게 나타남.
 - 9-12세의 양부모 가구(1.0%)와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0.8%) 집단 간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단체(동아리) 가입률 격차(0.2%p)는 13-18세보다 크게 나타남.

- 기타 단체(동아리)의 경우 9-12세 가구소득별, 13-18세 성별, 거주지역, 가구형태별 가입률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큼.
 - 13-18세 여자(8.0%)는 남자(6.3%)에 비해 기타 단체(동아리)의 가입률이 높아, 성별 격차(1.7%p)가 9-12세에 비해 큼.
 - 13-18세 농산어촌 청소년(8.5%)은 대도시 청소년(6.8%)에 비해 기타 단체(동아리) 가입률이 높으며, 가입률의 격차(1.7%)는 9-12세보다 큼.
 - 9-12세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11.6%)과 200~600만원 미만(4.5%)간 가입률 격차(7.1%p)는 13-18세 연령대(2.4%p)보다 크며, 다른 특성들에 의한 격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큼.

- 13-18세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9.5%) 집단의 기타 단체(동아리) 가입률과 양부모 가구(7.0%) 집단 간 격차(2.5%p)는 9-12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큼.

표 II-100 현재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단체(동아리)(9-18세)

(단위: 명, %)

구분	연도	사례수	전체			9-12세			13-18세		
			청소년 단체나 동아리 (스카우트, 누리단· 한별단, 해양소년 단 등)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단체나 동아리 (인터넷 카페 등)	기타 단체나 동아리 (종교 단체 포함)	청소년 단체나 동아리 (스카우트, 누리단· 한별단, 해양소년 단 등)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단체나 동아리 (인터넷 카페 등)	기타 단체나 동아리 (종교 단체 포함)	청소년 단체나 동아리 (스카우트, 누리단· 한별단, 해양소년 단 등)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단체나 동아리 (인터넷 카페 등)	기타 단체나 동아리 (종교 단체 포함)
연도별	2017	7,676	12.5	16.9	18.3	19.6	4.2	11.2	15.9	13.8	17.2
	2020	7,170	8.8	8.3	11.6	11.8	2.7	6.6	10.4	7.1	9.8
	2023	4,305	6.9	2.0	6.3	7.1	1.0	5.0	6.8	2.7	7.1
청소년 성별	남자	2,215	6.9	2.1	5.9	7.0	1.1	5.2	6.8	2.7	6.3
	여자	2,090	6.9	2.0	6.7	7.1	0.9	4.7	6.8	2.7	8.0
학교급	초등학교	1,626	7.2	1.0	5.0	7.1	1.0	5.1	8.4	2.0	1.5
	중학교	1,354	7.5	2.7	6.6	6.5	1.4	3.3	7.7	2.8	7.0
	고등학교	1,211	6.1	2.5	6.8	-	-	-	6.1	2.5	6.8
	대학교	102	4.4	3.5	14.1	-	-	-	4.4	3.5	14.1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	12	-	13.4	13.4	-	-	-	-	13.4	13.4
거주 지역	대도시	1,730	4.8	1.8	5.8	6.0	0.5	4.4	4.1	2.6	6.8
	중소도시	1,895	7.5	2.0	6.3	7.8	1.4	5.2	7.4	2.4	7.0
	농산어촌	680	10.3	2.8	7.2	7.9	1.0	5.4	12.1	4.2	8.5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104	5.8	5.0	7.7	6.0	4.2	11.6	5.7	5.5	5.6
	200~400만원 미만	866	7.6	2.6	6.3	7.3	1.6	4.5	7.8	3.6	8.0
	400~600만원 미만	2,217	6.1	1.8	5.6	7.1	0.5	4.5	5.5	2.7	6.4
	600만원 이상	1,117	8.0	1.7	7.3	6.8	1.1	5.8	8.5	2.1	8.1
가구 형태	양부모	4,109	6.9	2.0	6.2	7.1	1.0	4.9	6.8	2.7	7.0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195	5.5	2.0	7.9	6.5	0.8	5.6	4.8	2.8	9.5

* 주: 2017년과 2020년에는 9-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측정하였으나, 2023년에는 9-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측정함.

* 자료: 백혜정 외 (2017).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김기현 외 (20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7 단체(동아리) 활동 경험과 주 양육자의 관심도

- 청소년(9-18세)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동아리)와 주 양육자가 청소년 활동에 관심을 두는 가장 주된 이유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모든 단체(동아리)에 걸쳐 주 양육자가 관심을 두는 이유는 ‘다양한 경험을 쌓기를 희망하여’의 응답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아이의 적성 개발 등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아이의 활동이 성적 또는 입시와 관련되기 때문에’ 등의 순으로 분석됨.
- 청소년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단체(동아리)별 주 양육자가 청소년 활동에 관심을 두는 가장 주된 이유는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임.

- 청소년(9-18세)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동아리)와 주 양육자가 청소년 활동에 관심을 두는 가장 주된 이유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모든 단체(동아리)에 걸쳐 주 양육자가 청소년 활동에 관심을 두는 주요 이유는 ‘다양한 경험을 쌓기를 희망하여’, ‘아이의 적성 개발 등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아이의 활동이 성적 또는 입시와 관련되기 때문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청소년 단체(동아리): 다양한 경험을 쌓기를 희망하여(37.3%) > 아이의 적성 개발 등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28.0%) > 아이의 활동이 성적 또는 입시와 관련되기 때문에(17.3%) 등
 -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단체(동아리): 다양한 경험을 쌓기를 희망하여(29.0%) > 아이의 적성 개발 등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26.3%) > 아이의 활동이 성적 또는 입시와 관련되기 때문에(23.6%) 등
 - 기타 단체(동아리): 다양한 경험을 쌓기를 희망하여(37.1%) > 아이의 적성 개발 등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27.6%) > 아이의 활동이 성적 또는 입시와 관련되기 때문에(11.4%) 등
- 청소년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단체(동아리)별 주 양육자가 청소년 활동에 관심을 두는 가장 주된 이유의 연령대별 차이가 나타남.
 - 자녀가 청소년 단체(동아리)에 가입한 경우, 주 양육자가 청소년 활동에 관심을 두는 이유의 응답은 자녀가 9-12세인 경우 다양한 경험을 쌓기를 희망하여(42.5%), 아이의 적성 개발 등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28.9%), 아이가 원해서(1.8%)의 응답 비율이 13-18세에 비해 높은 반면 자녀가 13-18세인 경우 아이의 활동이 성적 또는 입시와 관련되기 때문에(18.1%), 아이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8.7%), 주변의 다른 아이들도 하기 때문에(5.7%), 아이의 체력 단련 등 건강을 위해서(5.1%)의 응답이 9-12세에 비해 높음.
 - 자녀가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단체(동아리)에 가입한 경우, 주 양육자가 청소년 활동에 관심을 두는 이유의 응답은 자녀가 9-12세인 경우 주변의 다른 아이들도 하기 때문에(4.2%),

아이가 원해서(7.1%)의 응답이 13-18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자녀가 13-18세인 경우 아이의 활동이 성적 또는 입시와 관련되기 때문에(24.0%), 다양한 경험을 쌓기를 희망하여(29.3%), 아이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9.6%), 아이의 적성 개발 등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26.1%), 아이의 체력 단련 등 건강을 위해서(2.7%)의 응답이 9-12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자녀가 기타 단체(동아리)에 가입한 경우, 주 양육자가 청소년 활동에 관심을 두는 이유의 응답은 자녀가 9-12세인 경우 다양한 경험을 쌓기를 희망하여(44.2%), 아이의 적성 개발 등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28.4%), 아이가 원해서(5.4%)의 응답이 13-18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자녀의 연령이 13-18세인 경우에는 아이의 활동이 성적 또는 입시와 관련되기 때문에(12.8%), 아이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7.9%), 주변의 다른 아이들도 하기 때문에(7.0%), 아이의 체력 단련 등 건강을 위해서(7.0%)의 응답이 9-12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101

청소년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단체(동아리)와 주 양육자가 청소년 활동에 관심을 두는 주된 이유(9-18세)

(단위: %)

구분		청소년 활동에 관심을 두는 주된 이유																							
		전체								9-12세								13-18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자녀가 참여하 는 단체 (동아리)	청소년 단체 (동아리)	17.3	37.3	6.7	4.7	28.0	4.5	1.7	-	16.1	42.5	3.9	3.2	28.9	3.7	1.8	-	18.1	33.6	8.7	5.7	27.3	5.1	1.6	-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단체 (동아리)	23.6	29.0	9.5	4.0	26.3	2.6	5.0	-	21.6	28.1	9.2	4.2	27.4	2.4	7.1	-	24.0	29.3	9.6	4.0	26.1	2.7	4.5	-
	기타 단체 (동아리)	11.4	37.1	7.1	5.5	27.6	6.7	4.6	-	8.4	44.2	5.5	2.1	28.4	6.0	5.4	-	12.8	33.7	7.9	7.0	27.3	7.0	4.2	-

* 주: ① 아이의 활동이 성적 또는 입시와 관련되기 때문에, ② 다양한 경험을 쌓기를 희망하여, ③ 아이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④ 주변의 다른 아이들도 하기 때문에, ⑤ 아이의 적성 개발 등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⑥ 아이의 체력 단련 등 건강을 위해서, ⑦ 아이가 원해서, ⑧ 기타

⑧ 시설 이용 경험

- 청소년(9-18세)의 시설 이용 경험에 대해 측정한 결과, 이용률이 가장 높은 시설은 공연시설(62.7%)이며, 도서관(52.5%), 전시 시설(37.9%) 등의 순으로 나타나며, 전시 시설(4.8%p)을 제외한 모든 시설 이용 경험률은 '20년 대비 감소함.
- 연령대별로 9-12세와 13-18세의 시설 이용 경험도 전체 청소년의 경향성과 같으며, 공연시설과 전시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시설의 이용률이 '20년 대비 감소함.
- 시설별 이용률이 연령대별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전시시설, 사회복지관, 수목원/수목림/자연휴양림의 이용률은 9-12세가 상대적으로 높고, 청소년수련관, 유스호스텔, 도서관, 공연시설의 이용률은 13-18세가 상대적으로 높음.
- 연령대별 '20년 대비 이용률 변화폭이 가장 큰 시설은 9-12세(5.6%p)와 13-18세(6.3%p) 모두 청소년수련관으로 나타남.

○ 청소년(9-18세) 시설 이용 경험에 대해 측정한 결과, 청소년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시설은 공연시설, 도서관, 전시시설 등의 순으로 나타나며, 전시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이용률은 '20년 대비 감소함.

- 청소년수련관: '17년 23.8%→'20년 21.7%→'23년 20.5%
- 유스호스텔: '17년 11.7%→'20년 9.6%→'23년 5.8%
- 도서관: '17년 52.1%→'20년 54.9%→'23년 52.5%
- 공연시설: '17년 84.4%→'20년 64.1%→'23년 62.7%
- 전시시설: '17년 38.7%→'20년 33.1%→'23년 37.9%
- 사회복지관: '17년 5.6%→'20년 10.1%→'23년 6.1%
- 수목원/수목림/자연휴양림: '17년 28.8%→'20년 30.7%→'23년 30.6%

○ 연령대별로 9-12세와 13-18세 모두 이용률이 가장 높은 시설은 공연시설, 도서관, 전시시설 등의 순으로 나타나며, 두 연령대 모두 공연시설과 전시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시설의 이용률이 '20년 대비 감소함.

- 9-12세: 공연시설(59.1%) > 도서관(48.1%) > 전시시설(40.6%) 등
- 13-18세: 공연시설(65.2%) > 도서관(55.5%) > 전시시설(36.0%) 등

○ 시설별 이용률은 연령대별로 다르게 나타남.

- 전시시설(40.6%), 사회복지관(6.3%), 수목원/수목림/자연휴양림(35.3%)은 9-12세의 이용률이 13-18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청소년수련관(21.5%), 유스호스텔(6.4%), 도서관(55.5%), 공연시설(65.2%)은 13-18세의 이용률이 9-12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연령대별 '20년 대비 시설 이용률의 변화폭이 가장 큰 시설은 청소년수련관으로 나타남.

- 9-12세의 '20년 대비 시설 이용률 변화폭이 가장 큰 시설은 청소년수련관(-5.6%p), 전시시설(+4.7%p), 공연시설(+4.4%p) 등으로 나타남.
- 13-18세의 '20년 대비 시설 이용률 변화폭이 가장 큰 시설은 청소년수련관(-6.3%p), 사회복지관(-5.1%p), 도서관(-3.4%p), 공연시설(+3.4%p) 등으로 나타남.

표 II-102 시설 이용률(9-18세)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체	9-12세	13-18세
청소년수련관	2017	7,676	23.8	35.9	37.0
	2020	7,170	21.7	24.7	27.8
	2023	4,305	20.5	19.1	21.5
유스호스텔	2017	7,676	11.7	11.2	15.6
	2020	7,170	9.6	8.3	9.7
	2023	4,305	5.8	5.0	6.4
도서관	2017	7,676	52.1	50.3	59.0
	2020	7,170	54.9	49.3	58.9
	2023	4,305	52.5	48.1	55.5
공연시설	2017	7,676	84.4	79.8	83.0
	2020	7,170	64.1	54.7	61.8
	2023	4,305	62.7	59.1	65.2
전시시설	2017	7,676	38.7	49.4	36.2
	2020	7,170	33.1	35.9	33.0
	2023	4,305	37.9	40.6	36.0
사회복지관	2017	7,676	5.6	5.6	8.1
	2020	7,170	10.1	8.7	11.1
	2023	4,305	6.1	6.3	6.0
수목원/수목림/ 자연 휴양림	2017	7,676	28.8	36.9	26.6
	2020	7,170	30.7	36.9	29.5
	2023	4,305	30.6	35.3	27.5

* 주: 2017년과 2020년에는 9-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측정하였으나, 2023년에는 9-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측정함.

* 자료: 백혜정 외 (2017).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김기현 외 (20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5-3. 학업 중단 경험

① 학업 중단 경험

- **(학업 중단 경험)** 학업 중단 경험이 있다는 응답을 한 청소년(13-24세)은 0.6%이며, 청소년의 학업 중단 경험은 '1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함('17년 0.9%→'20년 0.8%→'23년 0.6%).
- 연령대별로 13-18세는 '20년(0.9%) 대비 0.7%p 감소한 0.2%, 19-24세는 '20년(0.7%) 대비 0.2%p 증가한 0.9%로 나타남.
- 특성별로는 남자, 대학에 미진학했거나 졸업한 청소년, 농산어촌 청소년,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 양부모 가구 청소년의 학업 중단 경험 응답이 높게 나타남.
- **(학업 중단이 있는 청소년의 향후 3년 이내 진로 계획)** 학업 중단 경험이 있는 청소년(33명)은 향후 3년 이내 취창업(19명), 미결정 및 기타(10명), 상급학교 진학(4명)을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학업 중단 경험이 있다는 응답을 한 13-24세 청소년은 0.6%로 나타나며, 청소년의 학업 중단 경험은 '17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함.
 - '17년 0.9%→'20년 0.8%→'23년 0.6%
- 학업 중단 경험은 연령대별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13-18세는 '20년 대비 학업 중단 경험이 감소(0.7%p)한 반면 19-24세는 '20년 대비 증가(0.2%p)함.
 - 13-18세: '17년 0.4%→'20년 0.9%→'23년 0.2%
 - 19-24세: '17년 1.2%→'20년 0.7%→'23년 0.9%
- 특성별로는 남자, 대학에 미진학했거나 졸업한 청소년, 농산어촌,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 양부모 가구 청소년의 학업 중단 경험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성별로는 남자(0.8%)가 여자(0.4%)에 비해 학업 중단 경험 응답이 높음.
 - 학교급별로는 대학에 미진학했거나 및 졸업한 청소년(2.5%) 집단에서 학업 중단 경험 응답이 높음.
 - 거주지역별로는 농산어촌 청소년(1.2%)이 중소도시(0.6%)나 대도시 청소년(0.4%)에 비해 학업 중단 경험 응답이 높음.
 - 가구소득 수준별로는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0.9%) 집단에서 학업 중단 경험이 가장 높게 응답되며, 400~600만원 미만(0.4%) 구간에서 가장 낮음.
 - 가구형태별로는 학업 중단 경험이 있는 청소년 모두 양부모 집단(0.6%)임.

표 II-103 학업 중단(초·중·고등학교) 경험(13-24세)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체		13-18세		19-24세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연도별	2017	6,183	0.9	99.1	0.4	99.6	1.2	98.8
	2020	5,628	0.8	99.2	0.9	99.1	0.7	99.3
	2023	5,680	0.6	99.4	0.2	99.8	0.9	99.1
청소년 성별	남자	2,942	0.8	99.2	0.1	99.9	1.3	98.7
	여자	2,737	0.4	99.6	0.2	99.8	0.5	99.5
학교급	초등학교	37	-	100.0	-	100.0	-	-
	중학교	1,200	-	100.0	-	100.0	-	-
	고등학교	1,264	0.3	99.7	0.1	99.9	2.7	97.3
	대학교	2,608	0.6	99.4	-	100.0	0.6	99.4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	570	2.5	97.5	21.6	78.4	2.1	97.9
거주 지역	대도시	2,430	0.4	99.6	-	100.0	0.7	99.3
	중소도시	2,511	0.6	99.4	0.2	99.8	0.9	99.1
	농산어촌	738	1.2	98.8	0.5	99.5	2.0	98.0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381	0.8	99.2	-	100.0	1.0	99.0
	200~400만원 미만	979	0.6	99.4	0.4	99.6	0.7	99.3
	400~600만원 미만	2,744	0.4	99.6	0.1	99.9	0.6	99.4
	600만원 이상	1,576	0.9	99.1	0.1	99.9	1.6	98.4
가구 형태	양부모	4,945	0.6	99.4	0.2	99.8	1.0	99.0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291	-	100.0	-	100.0	-	100.0

* 자료: 백혜정 외 (2017).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김기현 외 (20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학업 중단 경험이 있는 13-24세 청소년의 향후 3년 이내 진로 계획 응답을 분석한 결과, 학업 중단 경험이 있는 청소년(33명)은 취업이나 창업(19명), 미결정 및 기타(10명), 상급학교 진학(4명)을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1-104

학업 중단(초·중·고등학교) 경험 있는 청소년의 향후 3년 이내 진로 계획(13-24세)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체	13-18세	19-24세
향후 3년 이내 진로 계획	상급 학교 진학	4	11.8	37.7	8.0
	취업	13	39.5	42.3	39.1
	창업	4	11.7	-	13.5
	현 직장(직업) 유지	2	4.9	-	5.6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였다	9	28.4	20.0	29.7
	기타	1	3.5	-	4.1

* 자료: 백혜정 외 (2017).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김기현 외 (20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② 학업 중단 시기

- 학업 중단 경험이 있는 청소년(13-24세)의 가장 최근 학업 중단 시기는 '고등학교 때' 82.0% '중학교 때' 18.0%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 13-18세는 '중학교 때', 19-24세 연령대는 '고등학교 때' 학업을 중단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 학업 중단 경험이 있는 청소년(13-24세)의 가장 최근 학업 중단 시기는 '고등학교 때' 82.0%, '중학교 때' 18.0%로 나타남.

- 중학교 때: '17년 23.1%→'20년 35.2%→'23년 18.0%
- 고등학교 때: '17년 75.9%→'20년 49.0%→'23년 82.0%

○ 연령대별 학업중단 시기는 13-18세 '중학교 때', 19-24세 '고등학교 때'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105 가장 최근 학업 중단 시기(13-24세)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체	13-18세	19-24세
중학교 때	2017	54	23.1	42.8	18.1
	2020	44	35.2	38.9	31.7
	2023	33	18.0	21.2	17.5
고등학교 때	2017	54	75.9	52.3	81.9
	2020	44	49.0	34.8	62.7
	2023	33	82.0	78.8	82.5

* 자료: 백혜정 외 (2017).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김기현 외 (20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③ 학업 중단 사유

- **(학업 중단 사유 1순위)** 학업 중단 경험이 있는 청소년(13-24세)의 학업 중단 사유 1순위는 ‘신체 건강의 이유’, ‘학교친구들과의 문제’, ‘심리·정신적인 문제’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 13-18세는 ‘검정고시’, 19-24세는 ‘신체 건강의 이유’ 응답이 가장 많고, 19-24세는 학업 중단 사유가 13-18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함.
- **(가구소득 수준별 학업 중단 사유)** 청소년의 학업 중단 사유는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가구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200만원 미만 집단은 ‘신체 건강의 이유’, ‘학교친구들과의 문제’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고,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 집단에서는 타소득 수준 집단에서는 응답되지 않은 ‘집안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학업성적이 잘 안나와서’, ‘공부하기 싫어서’, ‘이민 또는 해외 유학’, ‘선생님의 체벌’과 같은 사유가 응답됨.
- **(학업 중단 사유 1~3순위)** 청소년의 학업 중단 사유를 1순위부터 3순위 응답을 모두 포함하면, 1순위 사유에는 응답되지 않았던 ‘부모님의 무관심’, ‘학교를 그만둔 친구의 영향’, ‘선생님의 차별’, ‘선생님과 싸워서’, ‘학교 규칙 위반으로 인한 징계’, ‘학교 분위기가 맞지 않아서’, ‘유해환경 때문에’와 같은 사유들이 학업 중단의 사유로 응답되어 청소년의 학업 중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학업 중단 경험이 있는 청소년(13-24세)의 학업 중단 1순위 사유는 신체 건강의 이유(24.1%), 학교친구들과의 문제(15.1%), 심리·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10.6%) 등의 순으로 나타나며, 신체 건강의 이유는 ‘20년 대비 응답이 대폭 낮아졌음에도 학업 중단의 주요 이유로 나타남.
- 연령대별 학업 중단 사유는 13-18세는 검정고시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 19-24세는 신체 건강의 이유 응답 비율이 가장 높으며, 19-24세의 학업 중단 사유가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남.

표 II-106

학업 중단 사유(1순위)(13-24세)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체	13-18세	19-24세
신체 건강의 이유로	2017	54	9.0	17.0	6.9
	2020	44	48.3	47.1	49.5
	2023	33	24.1	21.2	24.5
심리·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2017	54	7.9	14.2	6.2
	2020	44	7.6	9.4	5.9
	2023	33	10.6	21.5	9.0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서	2017	54	12.2	7.0	13.5
	2020	44	-	-	-
	2023	33	10.0	20.0	8.5
집안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2017	54	-	-	-
	2020	44	1.9	-	-
	2023	33	7.4	-	8.5
학업성적이 잘 안 나와서	2017	54	3.1	-	3.9
	2020	44	2.7	-	5.4
	2023	33	3.5	-	4.1
검정고시를 준비하려고	2017	54	5.2	-	-
	2020	44	11.3	6.4	-
	2023	33	4.8	37.2	-
공부하기 싫어서	2017	54	13.1	-	11.6
	2020	44	7.5	-	-
	2023	33	4.9	-	5.6
이민 또는 해외 유학 가려고	2017	54	7.3	-	7.9
	2020	44	-	-	-
	2023	33	7.4	-	8.5
다른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서	2017	54	-	-	-
	2020	44	1.9	-	-
	2023	33	7.0	-	8.0
학교친구들과의 문제 (폭력, 왕따 등)로 인해	2017	54	1.1	-	-
	2020	44	-	-	-
	2023	33	15.1	-	17.3
선생님의 체벌 때문에	2017	54	-	-	-
	2020	44	-	-	-
	2023	33	5.2	-	5.9

* 주: '23년에 응답이 있는 항목만 '17년, '20년과 비교함.

* 자료: 백혜정 외 (2017).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김기현 외 (20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청소년의 학업 중단 사유별 응답은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가구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200만원 미만 집단은 ‘신체 건강의 이유’, ‘학교친구들과의 문제’와 같은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으며,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 집단에서는 타소득 수준 집단에서는 응답되지 않은 ‘집안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학업성적이 잘 안나와서’, ‘공부하기 싫어서’, ‘이민 또는 해외 유학’, ‘선생님의 체벌’과 같은 사유가 응답됨.

표 II-107 가구소득 수준별 학업 중단 사유(1순위)(13-24세)

(단위: 명, %)

구분	전체				13-18세				19-24세			
	200만원 미만	200~400만원 미만	400~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400만원 미만	400~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400만원 미만	400~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신체 건강의 이유로	61.0	24.8	44.8	-	-	-	51.5	-	61.0	36.5	43.4	-
심리·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	16.3	11.3	10.3	-	51.0	-	-	-	-	13.7	10.8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서	-	43.2	8.4	-	-	-	48.5	-	-	63.5	-	-
집안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	-	-	17.6	-	-	-	-	-	-	-	18.5
학업성적이 잘 안 나와서	-	-	-	11.5	-	-	-	-	-	-	13.9	-
검정고시를 준비하려고	-	15.7	-	-	-	49.0	-	100.0	-	-	-	-
공부하기 싫어서	-	-	-	11.6	-	-	-	-	-	-	-	12.3
이민 또는 해외 유학 가려고	-	-	-	17.6	-	-	-	-	-	-	-	18.5
다른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서	-	-	-	16.5	-	-	-	-	-	-	-	17.4
학교친구들과의 문제(폭력, 왕따 등)로 인해	39.0	-	24.0	9.2	-	-	-	-	39.0	-	29.0	9.7
선생님의 체벌 때문에	-	-	-	12.3	-	-	-	-	-	-	-	12.9

○ 학업 중단 사유를 1순위부터 3순위 응답을 모두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1순위 사유에는 응답되지 않았던 ‘부모님의 무관심’, ‘학교를 그만둔 친구의 영향’, ‘선생님의 차별’, ‘선생님과 싸워서’, ‘학교 규칙 위반으로 인한 징계’, ‘학교 분위기가 맞지 않아서’, ‘유해환경 때문에’와 같은 사유들이 학업 중단의 사유로 응답되어 청소년의 학업 중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표 II-108 학업 중단 사유(1+2+3순위) : 13-24세 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체	13-18세	19-24세
신체 건강의 이유로	2017	54	10.6	24.9	6.9
	2020	44	48.3	47.1	49.5
	2023	33	30.1	41.2	28.5
심리·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2017	54	16.1	40.9	9.8
	2020	44	12.5	19.3	5.9
	2023	33	20.7	21.5	20.6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서	2017	54	22.8	29.2	21.1
	2020	44	2.1	4.2	-
	2023	33	14.5	20.0	13.7
집안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2017	54	2.6	-	3.2
	2020	44	7.0	-	4.7
	2023	33	7.4	-	8.5
부모님(또는 양육자)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	2017	54	-	-	-
	2020	44	-	-	-
	2023	33	7.4	-	8.5
학업성적이 잘 안 나와서	2017	54	11.6	14.8	10.8
	2020	44	2.7	-	5.4
	2023	33	6.1	20.0	4.1
검정고시를 준비하려고	2017	54	32.8	8.5	39.0
	2020	44	24.1	14.2	33.7
	2023	33	11.8	37.2	8.0
공부하기 싫어서	2017	54	21.9	-	19.6
	2020	44	9.9	-	2.9
	2023	33	8.5	-	9.7
이민 또는 해외 유학 가려고	2017	54	7.3	-	7.9
	2020	44	3.4	-	6.7
	2023	33	21.8	-	25.0

* 주: '23년에 응답이 있는 항목만 '17년, '20년과 비교함.

* 자료: 백혜정 외 (2017).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김기현 외 (20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표 11-109 학업 중단 사유(1+2+3순위) : 13-24세 ②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체	13-18세	19-24세
다른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서	2017	54	16.2	-	19.3
	2020	44	1.9	-	-
	2023	33	14.3	-	16.5
학교친구들과의 문제(폭력, 왕따 등)로 인해	2017	54	13.5	19.8	11.9
	2020	44	5.6	8.4	2.9
	2023	33	21.4	21.5	21.4
학교를 그만둔 친구의 영향으로	2017	54	8.6	-	10.8
	2020	44	-	-	-
	2023	33	4.9	-	5.6
선생님의 차별 때문에	2017	54	17.0	-	19.7
	2020	44	-	-	-
	2023	33	5.2	-	5.9
선생님의 체벌 때문에	2017	54	-	-	-
	2020	44	-	-	-
	2023	33	5.2	-	5.9
선생님과 싸워서	2017	54	9.8	-	10.7
	2020	44	-	-	-
	2023	33	5.2	-	5.9
학교규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아서	2017	54	-	-	-
	2020	44	1.5	-	-
	2023	33	4.3	-	5.0
학교 분위기(문화, 동아리, 자치활동 등)가 나와 맞지 않아서	2017	54	11.5	25.2	-
	2020	44	2.9	-	-
	2023	33	2.1	16.5	-
유해환경(유해업소, 폭력집단 등) 때문에	2017	54	-	-	-
	2020	44	-	-	-
	2023	33	4.1	-	4.7

* 주: '23년에 응답이 있는 항목만 '17년, '20년과 비교함.

* 자료: 백혜정 외 (2017).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김기현 외 (20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④ 학업 중단 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 이용 경험

- 학업 중단 경험이 있는 청소년 가운데 학교를 그만둔 이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를 이용한 청소년(13-24세)은 31.4%로, '20년(7.3%) 대비 24.1%p 증가함.
- 연령대별 이용률은 13-18세 20.7%, 19-24세 33.0%로 나타나며, '20년 대비 각각 13.8%p, 25.4%p 증가함.
- 특성별로 여자, 대학에 미진학했거나 졸업한 청소년, 대도시 청소년, 가구소득 200~400만원 집단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 학업 중단 경험이 있는 청소년(13-24세) 가운데 학교를 그만둔 이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를 이용한 청소년은 31.4%이며, '20년 대비 24.1%p 증가함.
 - 학업 중단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률은 '17년 이후로 증가세를 보이나, 특히 '20년 이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17년 4.5%→'20년 7.3%→'23년 31.4%).
- 연령대별 이용률은 13-18세 20.7%로 '20년 대비 13.8%p 증가했고, 19-24세 33.0%로 '20년 대비 25.4%p 증가함.
 - 13-18세: '17년 13.3%→'20년 6.9%→'23년 20.7%
 - 19-24세: '17년 2.3%→'20년 7.6%→'23년 33.0%
- 특성별로 여자, 대학에 미진학했거나 졸업한 청소년, 대도시 청소년, 가구소득 200~400만원 집단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110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 이용 경험(13~24세)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체		13-18세		19-24세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연도별	2017	54	4.5	95.5	13.3	86.7	2.3	97.7
	2020	44	7.3	92.7	6.9	93.1	7.6	92.4
	2023	33	31.4	68.6	20.7	79.3	33.0	67.0
청소년 성별	남자	23	29.0	71.0	50.9	49.1	27.2	72.8
	여자	10	37.0	63.0	-	100.0	49.5	50.5
학교급	고등학교	3	-	100.0	-	100.0	-	100.0
	대학교	15	24.2	75.8	-	-	24.2	75.8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	14	45.9	54.1	35.3	64.7	48.2	51.8
거주 지역	대도시	9	39.1	60.9	-	-	39.1	60.9
	중소도시	15	28.5	71.5	-	100.0	34.3	65.7
	농산어촌	9	28.0	72.0	49.4	50.6	22.7	77.3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3	39.0	61.0	-	-	39.0	61.0
	200~400만원 미만	6	58.9	41.1	49.0	51.0	63.5	36.5
	400~600만원 미만	10	24.0	76.0	-	100.0	29.0	71.0
	600만원 이상	14	23.9	76.1	-	100.0	25.2	74.8
가구 형태	양부모	30	30.6	69.4	20.7	79.3	32.2	67.8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	-	-	-	-	-	-

* 자료: 백혜정 외 (2017).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김기현 외 (20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5 향후 진로 계획

- 청소년(13-24세)의 향후 3년 이내 진로 계획의 응답 비율은 상급 학교 진학이 45.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취업(34.7%),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하였다(11.5%) 등의 순으로 응답됨.
- 연령대별로 13-18세는 상급학교 진학(88.4%)에 응답이 집중된 반면, 19-24세는 취업(59.9%)의 응답이 가장 높고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였다'(15.3%), '현 직장(직업) 유지(11.6%)' 등의 응답이 13-18세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 청소년(13-24세)의 향후 3년 이내 진로 계획을 측정한 결과, 상급 학교 진학이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내며, 다음으로 취업,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였다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상급 학교 진학: '17년 42.3%→'20년 44.2%→'23년 45.1%
 - 취업: '17년 34.9%→'20년 35.3%→'23년 34.7%
 -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였다: '17년 11.6%→'20년 13.6%→'23년 11.5%
- '20년 대비 응답의 증가폭이 가장 큰 항목은 현 직장(직업) 유지(1.4%p)이며, 감소폭이 가장 큰 항목은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였다(2.1%p)'임.
 - 응답 비율이 증가한 항목은 상급학교 진학(0.9%p), 가업(0.2%p), 이직(0.4%p), 현 직장(직업) 유지(1.4%p)로 나타남.
 - 응답 비율이 감소한 항목은 취업(0.6%p), 창업(0.2%p),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였다(2.1%p)임.
- 연령대별로 13-18세는 상급학교 진학에 응답이 집중된 반면, 19-24세는 취업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 나머지 진로들의 응답 비율이 13-18세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 13-18세: 상급 학교 진학(88.4%) >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였다(6.9%) > 취업(4.0%)
 - 19-24세: 취업(59.9%) >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였다(15.3%) > 현 직장(직업) 유지(11.6%)
- 특성별로 향후 진로 계획이 다르게 나타남.
 - 성별로 남자는 상급학교 진학, 취업, 창업,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여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여자는 남자보다 이직이나 현 직장 유지의 응답이 남자보다 높음.
 -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 이하의 학교급에서는 상급 학교 진학에 응답이 집중된 반면 대학생은 취업의 응답이 높게 나타나며, 대학에 미진학했거나 졸업한 청소년은 현 직장(직업) 유지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 거주지역별로는 대도시의 청소년은 취업, 현 직장(직업) 유지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고, 농산어촌 청소년은 상급 학교 진학, 이직,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였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 가구형태별로는 양부모 가구에서는 상급 학교 진학,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집단에서는 취업, 가업, 이직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111

향후 진로 계획(13~24세)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체								13~18세								19~24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연도별	2017	6,169	42.3	34.9	0.7	0.0	3.1	6.7	11.6	0.8	82.1	9.6	0.3	-	0.2	0.3	7.2	0.1	10.9	54.8	0.9	0.0	5.3	11.6	15.0	1.3
	2020	5,628	44.2	35.3	0.9	0.0	0.3	5.1	13.6	0.6	85.8	5.3	0.3	-	0.1	0.3	7.9	0.3	14.9	56.4	1.4	0.0	0.5	8.5	17.6	0.7
	2023	5,680	45.1	34.7	0.7	0.2	0.7	6.5	11.5	0.6	88.4	4.0	0.1	0.1	0.0	0.2	6.9	0.3	9.6	59.9	1.3	0.2	1.2	11.6	15.3	0.9
청소년 성별	남자	2,942	45.3	35.0	0.9	0.2	0.6	5.2	11.8	1.0	89.0	3.7	0.1	-	-	0.3	6.5	0.4	9.8	60.4	1.5	0.3	1.1	9.3	16.0	1.6
	여자	2,737	44.9	34.4	0.6	0.1	0.7	7.8	11.2	0.2	87.8	4.3	-	0.2	0.1	0.1	7.3	0.2	9.4	59.4	1.1	0.1	1.3	14.2	14.5	0.2
학교급 및 재학 여부	초등학교	37	86.3	2.1	-	2.4	-	-	9.3	-	86.3	2.1	-	2.4	-	-	9.3	-	-	-	-	-	-	-	-	-
	중학교	1,200	90.7	0.9	0.1	0.1	-	0.3	7.7	0.1	90.7	0.9	0.1	0.1	-	0.3	7.7	0.1	-	-	-	-	-	-	-	
	고등학교	1,264	89.4	4.4	0.1	0.1	0.1	0.4	5.3	0.2	92.2	2.9	-	0.1	0.1	-	4.5	0.2	24.9	38.0	2.7	-	-	9.5	25.0	-
	대학교	2,608	11.1	68.0	0.8	0.2	0.2	3.0	15.7	1.1	23.5	48.7	-	-	-	0.8	25.0	2.0	10.6	68.8	0.9	0.2	0.2	3.0	15.3	1.1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	570	4.2	22.6	3.0	0.4	5.5	49.4	14.3	0.6	29.2	52.4	-	-	-	5.8	6.2	6.4	3.7	22.0	3.1	0.4	5.6	50.3	14.5	0.4
거주 지역	대도시	2,430	45.2	35.4	0.8	0.2	0.5	6.9	10.3	0.8	90.5	3.4	-	-	-	0.2	5.6	0.2	11.4	59.1	1.3	0.4	0.9	11.9	13.7	1.2
	중소도시	2,511	44.6	35.1	0.8	0.1	0.7	6.5	11.7	0.5	87.9	3.4	0.1	0.2	0.1	0.3	7.6	0.3	8.4	61.6	1.3	-	1.2	11.7	15.1	0.6
	농산어촌	738	46.9	30.9	0.5	0.2	1.1	4.8	14.9	0.7	84.2	7.4	-	-	-	-	8.0	0.4	6.9	56.1	1.1	0.3	2.2	10.0	22.3	1.0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381	20.6	58.1	1.0	0.3	0.8	4.4	14.7	-	78.6	8.8	-	-	-	1.0	11.6	-	8.2	68.7	1.3	0.4	0.9	5.1	15.4	-
	200~400만원 미만	979	41.1	32.7	0.3	0.2	1.1	9.0	14.9	0.7	81.1	8.2	-	0.2	-	0.2	9.8	0.5	6.7	53.7	0.5	0.2	2.1	16.7	19.3	0.7
	400~600만원 미만	2,744	49.5	34.5	0.7	0.0	0.5	4.4	9.8	0.5	90.5	3.0	0.1	0.1	-	-	6.1	0.3	12.1	63.3	1.2	-	1.0	8.4	13.1	0.8
	600만원 이상	1,576	46.0	30.5	1.0	0.3	0.6	8.9	11.6	0.9	90.2	2.8	-	0.1	0.2	0.5	6.0	0.1	7.5	54.7	1.9	0.5	1.0	16.3	16.5	1.6
가구 형태	양부모	4,945	49.1	32.6	0.7	0.1	0.5	4.8	11.4	0.7	88.6	3.7	0.1	0.1	0.0	0.2	6.9	0.3	10.4	60.9	1.3	0.2	1.0	9.4	15.8	1.0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291	39.2	39.0	0.7	0.4	2.3	12.0	5.9	0.5	83.9	10.3	-	-	-	-	5.8	-	10.2	57.6	1.2	0.7	3.8	19.7	5.9	0.9

* 주: ① 상급 학교 진학, ② 취업, ③ 창업, ④ 가업(부모님이 하시는 일 물려 받음), ⑤ 이직, ⑥ 현 직장(직업) 유지, ⑦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다, ⑧ 기타

* 자료: 백혜정 외 (2017).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김기현 외 (20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5-4. 대학 입학 이후 경험

① 대학 입학 이후 휴학 경험

- **(휴학 경험률)** 대학 입학 이후 휴학 경험이 있다는 19-24세 청소년은 23.3%로, '20년(20.8%) 대비 2.5%p 증가함.
- 특성별로 남자(33.9%), 중소도시(24.4%),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28.0%),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23.5%) 집단이 상대적으로 휴학 경험이 응답이 높게 나타남.
- **(휴학 사유)** 휴학 경험이 있는 경우, 휴학 사유는 군입대 응답이 65.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취업 및 취업준비(6.5%), 어학연수/해외여행(6.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특성별로 휴학 사유의 응답에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남자는 군입대(85.2%), 여자는 군입대를 제외한 모든 사유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남자보다 높게 나타나, 휴학 사유의 성별 차이가 뚜렷함.

○ 19-24세 청소년 가운데 대학 입학 이후 휴학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3.3%로, '20년 대비 2.5%p 증가함.

- '17년 30.0%→'20년 20.8%→'23년 23.3%

○ 특성별로는 남자, 중소도시 청소년,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집단이 상대적으로 휴학 경험률이 높음.

- 성별로는 남자(33.9%)가 여자(11.8%)에 비해 휴학 경험률이 높음.

- 거주지역별로는 중소도시(24.4%) 청소년이 대도시(22.8%)나 농산어촌(21.3%) 청소년에 비해 휴학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 가구소득 수준별로는 가구소득 600만원 미만의 구간에서는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휴학 경험률이 높아지며,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집단의 휴학 경험률은 28.0%로 가장 높음.

- 가구형태별로는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23.5%) 집단이 양부모 가구(22.6%)에 비해 휴학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112 대학 입학 이후 휴학 경험(19-24세)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19-24세		
			있다	없다	해당 없음
연도별	2017	3,326	30.0	70.0	-
	2020	2,994	20.8	79.2	-
	2023	3,118	23.3	67.6	9.1
청소년 성별	남자	1,622	33.9	55.5	10.6
	여자	1,496	11.8	80.7	7.4
학교급 및 재학 여부	고등학교	53	-	-	100.0
	대학교	2,506	26.0	74.0	-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	559	13.7	45.1	41.2
거주 지역	대도시	1,394	22.8	69.2	8.0
	중소도시	1,368	24.4	66.6	9.0
	농산어촌	356	21.3	64.9	13.8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314	28.0	59.1	12.9
	200~400만원 미만	526	23.7	56.0	20.3
	400~600만원 미만	1,437	21.4	71.9	6.7
	600만원 이상	842	24.6	70.7	4.7
가구 형태	양부모	2,498	22.6	70.3	7.1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176	23.5	66.8	9.8

* 주: 학교급에서 '해당 없음'은 응답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 대학 미입학자임. 대학교는 대학교 재학을 의미하며,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에는 대학 입학 경험은 있으나 재학중이 아닌 경우(휴학, 중퇴, 졸업, 대학원 재학 등)이 포함됨.

* 자료: 백혜정 외 (2017).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김기현 외 (20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휴학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휴학 사유를 조사한 결과, 군입대, 취업 및 취업준비, 어학연수/해외 여행 등의 순으로 응답됨.

- 군입대(65.5%) > 취업 및 취업준비(6.5%) > 어학연수/해외여행(6.1%) > 아르바이트(5.2%) > 편입학 및 재수 준비(4.3%) > 자격증 및 고시 준비(3.9%) > 인턴 등 대외 활동(2.7%) > 경제적인 이유(2.1%) > 건강상의 이유(2.0%) > 기타(1.5%) > 대학원 준비(0.2%)

○ 군입대(18.6%p), 인턴 등 대외활동(0.9%p), 기타 사유(1.4%p)는 '20년에 비해 응답이 증가한 반면, 나머지 모든 휴학 사유들은 '20년 대비 응답이 감소함.

○ 특성별로 휴학 사유의 응답이 다르게 나타남.

- 성별로는 남자의 휴학 사유는 군입대(85.2%) 응답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며, 여자는 군입대를 제외한 모든 휴학 사유의 응답 비율이 남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학교급별로는 대학 재학생은 어학연수/해외여행(6.3%), 편입학 및 재수 준비(4.6%), 자격증 및 고시 준비(3.9%), 대학원 준비(0.2%), 인턴 등 대외 활동(3.1%), 군입대(66.5%), 기타(1.5%) 사유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현재 대학에 재학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르바이트(11.2%), 경제적인 이유(4.8%), 건강상의 이유(4.8%), 취업 및 취업 준비(11.5%)의 응답 비율이 대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됨.
- 거주지역별로는 대도시에서는 어학연수/해외여행(9.6%), 아르바이트(6.5%), 건강상의 이유(3.4%), 대학원 준비(0.4%), 인턴 등 대외활동(3.7%)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고, 중소도시에서는 경제적인 이유(3.6%), 군입대(73.0%)의 응답이 높았으며, 농산어촌에서는 편입학 및 재수 준비(8.2%), 자격증 및 고시 준비(6.8%), 취업 및 취업 준비(7.8%), 기타(6.0%) 사유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 가구소득별로는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상대적으로 응답이 높은 사유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 집단에서는 편입학 및 재수 준비(5.1%), 대학원 준비(0.6%), 군입대(70.7%) 사유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반면 가구소득이 가장 낮은 200만원 미만 집단에서는 건강상의 이유(4.3%), 취업 및 취업준비(14.1%) 사유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가구형태별로는 양부모 가구에서는 편입학 및 재수 준비(4.8%), 경제적인 이유(2.1%), 인턴 등 대외활동(3.5%), 군입대(66.9%) 응답이 높은 반면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집단에서는 어학연수/해외여행(8.1%), 아르바이트(11.9%), 자격증 및 고시 준비(5.4%), 건강상의 이유(3.0%), 취업 및 취업준비(10.5%)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113 휴학 사유(19-24세)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19-24세										
			여학연수/ 해외여행	아르 바이트	편입학 및 재수준비	경제적인 이유로	자격증 및 고시준비	건강상의 이유로	대학원 (유학) 준비	인턴 등 대외활동	취업 및 취업준비	군 입대	기타
연도별	2017	988	9.2	4.7	4.0	3.6	2.8	1.1	-	1.6	6.4	65.2	1.5
	2020	624	9.3	5.3	10.4	5.4	8.4	4.5	0.7	1.8	7.2	46.9	0.1
	2023	727	6.1	5.2	4.3	2.1	3.9	2.0	0.2	2.7	6.5	65.5	1.5
청소년 성별	남자	550	2.2	2.5	3.4	0.8	1.6	1.1	-	-	2.9	85.2	0.4
	여자	177	18.3	13.8	7.2	6.2	10.8	4.7	0.7	11.3	17.6	4.3	5.1
학교급 및 재학 여부	대학교	650	6.3	4.5	4.6	1.8	3.9	1.6	0.2	3.1	5.9	66.5	1.5
	대학 졸업 등	77	4.5	11.2	1.4	4.8	3.2	4.8	-	-	11.5	57.1	1.5
거주 지역	대도시	318	9.6	6.5	5.6	0.6	5.7	3.4	0.4	3.7	6.0	58.1	0.4
	중소도시	334	3.1	4.8	2.2	3.6	1.4	1.0	-	2.4	6.7	73.0	1.6
	농산어촌	76	4.7	1.6	8.2	1.5	6.8	-	-	-	7.8	63.4	6.0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88	2.0	5.7	3.7	-	2.6	4.3	-	-	14.1	62.8	5.0
	200~400만원 미만	125	6.3	6.2	2.5	4.1	5.1	1.9	-	1.1	5.8	64.5	2.6
	400~600만원 미만	308	7.2	5.3	4.7	3.3	2.9	2.2	-	5.1	5.0	63.2	1.1
	600만원 이상	207	6.2	4.4	5.1	-	5.1	0.6	0.6	1.3	5.9	70.7	-
가구 형태	양부모	564	6.5	4.8	4.8	2.1	3.3	1.7	-	3.5	5.3	66.9	1.2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41	8.1	11.9	-	-	5.4	3.0	-	-	10.5	61.2	-

* 자료: 백혜정 외 (2017).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김기현 외 (20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② 대학 재학 중 사교육 경험

- 19-24세 청소년이 대학 재학 중 받아 본 경험이 있는 사교육은 영어(25.8%)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전공 공부(11.5%), 여타 취업준비(9.8%)를 위한 사교육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년 대비 전공 공부(1.4%p), 여타 취업 준비(1.8%p), 기타(1.1%p) 사교육 응답은 증가했으며, 영어(2.1%p), 제2외국어(2.1%p) 사교육은 감소함.
- 특성별로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 양부모 가구 집단에서는 모든 종류의 사교육 경험의 가장 높게 나타남.

○ 19-24세 청소년의 대학 재학 중 사교육(학원 수강, 과외 수업, 학습지 과외 등) 경험을 측정한 결과, 응답이 가장 높은 사교육은 영어이며 다음으로 전공 공부, 여타 취업 준비를 위한 사교육, 제2외국어, 기타 순으로 응답됨.

- 영어(25.8%) > 전공 공부(11.5%) > 여타 취업 준비를 위한 사교육(9.8%) > 제2외국어(7.4%) > 기타(1.8%)

○ 여타 취업 준비를 위한 사교육(1.8%p), 기타 사교육을 받은 경험(1.1%p)은 '20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영어 사교육(2.1%p), 제2외국어 사교육(2.1%p), 전공 공부를 위한 사교육(1.4%p)은 '20년 대비 감소함.

- 전공 공부를 위한 사교육: '17년 17.2%→'20년 12.9%→'23년 11.5%
- 영어 사교육: '17년 31.7%→'20년 27.9%→'23년 25.8%
- 제2외국어 사교육: '17년 10.2%→'20년 9.5%→'23년 7.4%
- 여타 취업 준비를 위한 사교육: '17년 8.2%→'20년 8.0%→'23년 9.8%
- 기타: '17년 0.5%→'20년 0.7%→'23년 1.8%

○ 특성별로는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 가구형태가 양부모 가구 집단은 모든 종류의 사교육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으나, 성별, 학교급별, 거주지역별로는 사교육 경험률 응답이 다르게 나타남.

- 성별로는 여자는 기타 사교육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사교육 경험률이 남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 학교급별로는 취업 준비를 위한 사교육 경험은 대학 졸업 등 청소년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나머지 모든 종류의 사교육은 대학교 재학생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음.
- 거주지역별로는 대도시에서는 제2외국어와 기타 사교육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나머지 모든 사유들은 중소도시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됨.

- 가구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600만원 이상인 구간에서 모든 종류의 사교육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 가구형태별로는 양부모 가구 집단이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집단에 비해 모든 종류의 사교육 경험률이 높음.

표 II-114 대학 재학 중 받은 사교육 경험(19-24세)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19-24세				
			전공 공부 (복수전공, 이중전공, 부전공 포함)을 위한 사교육	영어 사교육	제2외국어 (영어 제외) 사교육	여타 취업 준비를 위한 사교육	기타
연도별	2017	3,326	17.2	31.7	10.2	8.2	0.5
	2020	2,994	12.9	27.9	9.5	8.0	0.7
	2023	2,929	11.5	25.8	7.4	9.8	1.8
청소년 성별	남자	1,512	11.0	21.2	6.7	8.7	2.1
	여자	1,418	12.0	30.7	8.1	11.0	1.5
학교급 및 재학 여부	고등학교	32	-	20.8	6.1	5.4	-
	대학교	2,501	12.1	27.2	7.5	9.5	2.0
	대학 졸업 등	396	8.7	17.1	6.8	12.4	0.6
거주 지역	대도시	1,304	11.2	25.7	9.1	8.9	2.9
	중소도시	1,298	12.5	26.0	5.5	11.1	0.9
	농산어촌	327	8.7	25.7	8.2	8.5	0.8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283	7.2	18.3	6.2	6.9	2.5
	200~400만원 미만	447	12.1	23.7	7.0	8.9	1.8
	400~600만원 미만	1,386	9.6	23.1	5.2	10.1	1.0
	600만원 이상	814	15.9	34.2	11.7	10.8	3.0
가구 형태	양부모	2,393	12.3	27.2	7.8	10.1	1.7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161	3.5	22.1	2.6	5.8	-

* 자료: 백혜정 외 (2017).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김기현 외 (20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6. 진로 및 직업탐색

6-1. 진로 교육 및 체험활동

① 진로교육을 받아 본 경험

- 청소년(9-24세)이 받아 본 진로 교육은 진로심리검사가 42.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수업 중 진로 탐색(41.0%), 진로 상담(34.5%), 진로체험(27.3%), 창업 체험하기(10.7%) 순임.
- 모든 종류의 진로교육 경험의 응답이 '20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특히 창업 체험하기 경험(24.8%p)의 응답 감소폭이 가장 큼.
- 연령대가 높을수록 모든 종류의 진로교육 경험률의 응답이 높아 19-24세의 진로교육 경험률이 가장 높으며, 9-12세는 수업 중 진로탐색, 13-18세와 19-24세는 진로심리검사의 경험률이 가장 높음.

○ 청소년(9-24세)의 진로교육 경험률의 응답 비율은 진로심리검사, 수업 중 진로 탐색, 진로 상담, 진로체험, 창업 체험하기 순으로 나타남.

○ '20년 대비 모든 종류의 진로교육 경험률이 감소했으며, 창업 체험하기 경험률의 감소폭이 24.8%p로 가장 큼.

- 수업 중 진로 탐색: '20년 53.0%→'23년 41.0%
- 진로심리검사: '20년 49.9%→'23년 42.6%
- 진로체험: '20년 41.6%→'23년 27.3%
- 진로 상담: '20년 42.8%→'23년 34.5%
- 창업 체험하기: '20년 35.5%→'23년 10.7%

○ 연령대가 높을수록 모든 종류의 진로 경험의 응답 비율이 높아 19-24세의 진로교육 경험률이 가장 높으며, 연령대별로 9-12세는 수업 중 진로탐색, 13-18세와 19-24세는 진로심리검사 경험률이 각 연령대에서 가장 높음.

- 9-12세: 수업 중 진로 탐색(30.6%) > 진로심리검사(22.0%) > 진로상담(12.9%) > 진로체험(12.5%) > 창업 체험하기(3.8%)
- 13-18세: 진로심리검사(46.2%) > 수업 중 진로탐색(42.6%) > 진로상담(36.5%) > 진로체험(25.5%) > 창업체험하기(7.5%)

- 19-24세: 진로심리검사(51.1%) > 수업 중 진로탐색(45.5%) > 진로상담(44.8%) > 진로체험(37.1%) > 창업체험하기(17.3%)

표 II-115

진로 교육 경험(9-24세)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체	9-12세	13-18세	19-24세
수업 중 진로탐색	2020	1,542	53.0	53.0	-	-
	2023	7,423	41.0	30.6	42.6	45.5
진로심리검사	2020	1,542	49.9	49.9	-	-
	2023	7,423	42.6	22.0	46.2	51.1
진로체험	2020	1,542	41.6	41.6	-	-
	2023	7,423	27.3	12.5	25.5	37.1
진로 상담	2020	1,542	42.8	42.8	-	-
	2023	7,423	34.5	12.9	36.5	44.8
창업 체험하기	2020	1,542	35.5	35.5	-	-
	2023	7,423	10.7	3.8	7.5	17.3

* 주: 2020년에는 9-12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측정하였으나, 2023년에는 9-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측정함.

* 자료: 김기현 외 (20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② 진로 체험활동 경험

- 청소년(13-24세)의 경험률이 가장 높은 진로 체험활동은 진로 박람회(24.7%)이며, 다음으로 청소년 수련관, 사회복지관 등의 진로 체험 프로그램(20.2%), 대학 학과(전공) 견학 프로그램(17.4%), 산업체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11.7%)의 순으로 나타남
- 모든 진로 체험활동 경험률이 '20년 대비 낮아졌으며, 대학에서 실시하는 학과 관련 견학 프로그램 경험률의 감소폭(28.2%p)이 가장 큼.
- 진로활동별로 상대적으로 많이 참여하는 연령대가 다르며, 특히 산업체에서 실시하는 진로 프로그램과 대학에서 실시하는 학과 관련 견학 프로그램은 19-24세가 13-18세에 비해 경험률이 크게 높음.

○ 청소년(13-24세) 경험률이 가장 높은 진로 체험활동은 진로 박람회(24.7%)이며, 다음으로 청소년 수련관, 사회복지관 등의 진로 체험 프로그램(20.2%), 대학 학과(전공) 견학 프로그램(17.4%), 산업체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11.7%)의 순으로 나타남.

○ 모든 종류의 진로 체험활동 경험의 응답은 '20년 대비 낮아졌으며, 대학에서 실시하는 학과 관련 견학 프로그램 경험의 감소폭(28.2%p)이 가장 큼.

- 진로 박람회에 간 경험: '17년 28.2%→'20년 43.9%→'23년 24.7%
- 청소년 수련관, 사회복지관 등에서 실시하는 진로 체험 프로그램: '17년 31.3%→'20년 46.0%→'23년 20.2%
- 산업체에서 실시하는 진로 및 취업 관련 프로그램: '17년 25.8%→'20년 39.7%→'23년 11.7%
- 대학에서 실시하는 학과 관련 견학 프로그램: '17년 34.8%→'20년 45.6%→'23년 17.4%

○ 연령대별로 진로 체험활동 경험의 응답이 다르게 나타남.

- 13-18세: 진로 박람회(23.2%) > 청소년 수련관, 사회복지관 등의 진로 체험 프로그램(19.3%) > 대학 학과(전공) 견학 프로그램(7.5%) > 산업체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6.2%)
- 19-24세: 진로 박람회(25.8%) > 대학 학과(전공) 견학 프로그램(25.6%) > 청소년 수련관, 사회복지관 등의 진로 체험 프로그램(20.9%) > 산업체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16.3%)

○ 진로 체험활동에 따라 참여 연령대가 다르게 나타남.

- 진로 박람회나 청소년 수련관, 사회복지관 등에서 실시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경우 13-18세 와 19-24세 경험률의 차이가 크지 않음.
- 산업체에서 실시하는 진로 및 취업 관련 프로그램과 대학에서 실시하는 학과 관련 견학 프로그램은 19-24세 경험률이 13-18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차이남.

표 II-116 진로 체험활동 경험(13-24세)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체	13-18세	19-24세
진로 박람회(잡월드, 키자니아 포함)에 간 경험	2017	6,183	28.2	31.2	25.8
	2020	5,628	43.9	40.1	46.6
	2023	5,680	24.7	23.2	25.8
청소년 수련관, 사회복지관 등에서 실시하는 진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	2017	6,183	31.3	35.9	27.7
	2020	5,628	46.0	43.7	47.6
	2023	5,680	20.2	19.3	20.9
산업체에서 실시하는 진로 및 취업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	2017	6,183	25.8	21.0	29.6
	2020	5,628	39.7	31.8	45.2
	2023	5,680	11.7	6.2	16.3
대학에서 실시하는 학과(전공) 관련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	2017	6,183	34.8	23.9	43.4
	2020	5,628	45.6	33.1	54.4
	2023	5,680	17.4	7.5	25.6

* 자료: 백혜정 외 (2017).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김기현 외 (20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6-2. 장래 희망 직업

① 장래 희망 직업 결정 여부

- **(장래 희망 직업 결정 여부)** 청소년(9-24세)의 31.5%는 장래 희망 직업을 정하였다고 응답했으며, '20년(32.3%) 대비 0.8%p 낮아짐.
- 연령대가 높을수록 장래 희망 직업을 정했다는 응답이 높으며, 장래 희망 직업을 정했다는 응답은 9-12세 20.0%, 13-18세 26.5%, 19-24세 42.0%로 나타남.
- 특성별로는 여자, 대학 미진학 및 졸업한 청소년, 중소도시 청소년, 가구소득 수준 양극단(600만원 이상과 200만원 미만), 한부모 및 조손가족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희망 직업을 결정했다는 응답이 높음.
- **(장래 희망 직업 결정 여부별 대학 재학 중 사교육 경험)** 장래 희망 직업 결정 여부와 대학 재학 중 사교육 경험을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장래 희망 직업을 결정한 청소년의 사교육 경험이 높게 나타남.

- 청소년(9-24세)의 장래 희망 직업 결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 31.5%는 장래 희망 직업을 정한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20년 대비 0.8%p 낮아짐.
 - '17년 39.6%→'20년 32.3%→'23년 31.5%
- 장래 희망 직업을 정했다는 응답 비율은 9-12세가 가장 낮고 19-24세가 가장 높으며, '20년 대비 9-12세는 감소, 13-18세와 19-24세 연령대에서는 증가함.
 - 장래 희망 직업을 정했다는 응답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으며, 9-12세 20.0%, 13-18세 26.5%, 19-24세 42.0%임.
 - 장래 희망 직업을 정했다는 응답 비율은 9-12세는 '20년 대비 1.6%p 감소한 반면, 13-18세는 0.1%p, 19-24세 연령대는 1.4%p 증가함.
- 특성별로는 여자, 대학 미진학 및 졸업한 청소년, 중소도시 청소년, 소득수준 양극단(600만원 이상과 200만원 미만), 한부모 및 조손가족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장래 희망 직업을 결정했다는 응답이 높음.
 - 성별로는 여자(33.3%)가 남자(29.7%)보다 장래 희망 직업을 결정했다는 응답이 높음.
 - 학교급별로는 대학에 미진학했거나 졸업한 청소년은 장래 희망 직업을 결정했다는 응답은 54.1%로 가장 높으며, 초등학교(20.0%)의 응답이 가장 낮고 학교급이 높을수록 희망 직업을 정했다는 응답이 높아져 대학생은 39.1%로 나타남.

- 거주지역별로는 중소도시(32.4%) 청소년의 장래 희망 직업을 정했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반면 농산어촌(29.4%) 지역 청소년의 응답이 가장 낮음.
 - 가구소득 수준별로는 소득 수준 양극단인 600만원 이상(36.9%) 집단과 200만원 미만 집단(36.8%)에서 높고 200~400만원 미만(26.0%) 집단 청소년의 장래 희망 직업을 정했다는 응답이 가장 낮음.
 - 가구형태별로는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36.5%) 집단 청소년이 양부모(30.3%) 집단에 비해 희망 직업을 정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 특성별 장래 희망 직업을 결정했다는 응답은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이며, 19-24세 특성에 의한 장래 희망 직업 결정 응답의 격차가 9-12세나 13-18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큼.
- 청소년 성별로는 9-12세 남자(20.3%)가 여자(19.6%)에 비해 희망 직업을 결정했다는 응답이 높으나 13-18세와 19-24세에서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응답이 높게 나타나는데, 19-24세의 여자(46.4%)와 남자(37.9%)의 격차(8.5%p)는 다른 연령대의 격차에 비해 큼.
 - 거주지역별로는 장래 희망 직업을 결정했다는 응답 분포가 연령대별로 다른데, 9-12세는 중소도시, 대도시, 농산어촌 순이며, 13-18세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순, 19-24세는 중소도시, 농산어촌, 대도시 순이며, 거주지역의 응답의 격차는 19-24세의 격차(3.8%p)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가구소득별로는 연령대별로 희망 직업을 정했다는 응답의 분포가 다르게 나타나며, 9-12세는 가구소득 400~600만원 미만(21.3%) 집단의 응답이 가장 높고 200만원 미만 집단(9.9%)에서 가장 낮으며, 13-18세는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집단(30.6%)의 응답이 가장 높은 반면 200~400만원 미만 집단(21.6%)의 응답이 가장 낮으며, 19-24세는 600만원 이상 집단(49.8%)에서 응답이 가장 높고 200~400만원 미만(36.8%) 집단의 응답이 가장 낮으며, 가구소득에 의한 응답 격차는 19-24세의 차이(13.0%p)가 다른 연령대에 의한 차이보다 상대적으로 큼.
 - 가구형태별로는 9-12세와 13-18세는 양부모 집단 청소년이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집단 청소년보다 장래 희망 직업을 정했다는 응답이 높지만 19-24세는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집단(53.7%)이 양부모 가구 집단(40.5%)에 비해 장래 희망 직업을 정했다는 응답이 높아 대조적으로 나타나며, 19-24세의 가구형태에 의한 응답 격차(13.2%p)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고, 다른 특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표 II-117

장래 희망 직업 결정 여부(9-24세)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체		9-12세		13-18세		19-24세	
			정하였음	정하지 않았음	정하였음	정하지 않았음	정하였음	정하지 않았음	정하였음	정하지 않았음
연도별	2017	6,183	39.6	60.4	-	-	30.4	69.6	46.9	53.1
	2020	7,170	32.3	67.7	21.6	78.4	26.4	73.6	41.4	58.6
	2023	7,423	31.5	68.5	20.0	80.0	26.5	73.5	42.0	58.0
청소년 성별	남자	3,837	29.7	70.3	20.3	79.7	26.1	73.9	37.9	62.1
	여자	3,586	33.3	66.7	19.6	80.4	26.9	73.1	46.4	53.6
학교급	초등학교	1,626	20.0	80.0	20.2	79.8	13.5	86.5	-	-
	중학교	1,354	21.2	78.8	17.8	82.2	21.7	78.3	-	-
	고등학교	1,264	31.3	68.7	-	-	31.6	68.4	24.3	75.7
	대학교	2,608	39.1	60.9	-	-	27.1	72.9	39.5	60.5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	570	54.1	45.9	-	-	27.9	72.1	54.6	45.4
거주 지역	대도시	3,124	31.1	68.9	19.0	81.0	27.5	72.5	39.9	60.1
	중소도시	3,263	32.4	67.6	21.6	78.4	26.1	73.9	43.7	56.3
	농산어촌	1,036	29.4	70.6	18.1	81.9	25.2	74.8	43.5	56.5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418	36.8	63.2	9.9	90.1	30.6	69.4	41.3	58.7
	200~400만원 미만	1,392	26.0	74.0	17.0	83.0	21.6	78.4	36.8	63.2
	400~600만원 미만	3,654	30.0	70.0	21.3	78.7	25.8	74.2	39.4	60.6
	600만원 이상	1,959	36.9	63.1	21.2	78.8	30.4	69.6	49.8	50.2
가구 형태	양부모	6,607	30.3	69.7	20.0	80.0	26.7	73.3	40.5	59.5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372	36.5	63.5	18.6	81.4	22.7	77.3	53.7	46.3

* 자료: 백혜정 외 (2017).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김기현 외 (20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19-24세 연령대만을 대상으로 장래 희망 직업 결정 여부와 대학 재학 중 사교육 경험의 응답을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장래 희망 직업을 정한 경우 사교육 경향이 높아, 대학 재학 중 취업 준비를 위한 사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118

장래 희망 직업 결정 여부별 대학 재학 중 사교육 경험(19-24세)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대학 재학 중 사교육 경험				
			전공 공부를 위한 사교육	영어 사교육	제2 외국어 사교육	여타 취업 준비를 위한 사교육	기타
장래 희망 직업 결정 여부	정하였음	1,309	15.3	28.3	8.9	12.8	2.5
	정하지 않았음	1,809	8.7	23.9	6.3	7.6	1.3

② 직업 선택 기준

- 청소년(13-24세)의 직업 선택 기준 1순위 응답 비율은 자신의 능력(43.0%)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자신의 적성(17.1%), 직업의 장래성(11.1%) 등의 순으로 나타나며, '자신의 능력'은 '20년 대비 응답이 가장 많이 증가(5.2%p)함.
- 연령대별로 13-18세(41.8%)와 19-24세(44.1%) 모두 직업 선택 기준으로 자신의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직업선택 기준의 항목별 연령대별 응답 비율 차이가 나타나는데, 사회적 지위, 대중적 인기, 의사결정권, 창의성 발휘 항목은 13-18세가 상대적으로 높고, 자신의 능력, 안정성, 자신의 적성, 자아성취 항목은 19-24세가 13-18세에 비해 높음.

- 청소년(13-24세)이 생각하는 직업 선택의 기준 1순위 응답 비율은 자신의 능력이 43.0%로 가장 높고, 자신의 적성(17.1%), 직업의 장래성(11.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자신의 능력(43.0%) > 자신의 적성(17.1%) > 직업의 장래성(11.1%) > 안정성(10.9%) > 경제적 수입(5.8%) > 사회적 지위(5.3%) > 대중적 인기(3.7%) > 의사결정권(1.2%) > 창의성 발휘(0.8%), 자아성취(0.8%) > 사회에 대한 기여도(0.1%) > 기타(0.0%)
- '20년 대비 응답 증가폭이 가장 큰 항목은 자신의 능력이며, 감소폭이 가장 큰 항목은 안정성으로 나타남.
 - '20년 대비 응답이 증가한 항목은 자신의 능력(5.2%p), 사회적 지위(0.6%p), 대중적 인기(1.6%p), 자신의 적성(0.3%p)으로 나타남.
 - '20년 대비 응답이 감소한 항목은 안정성(4.7%p), 경제적 수입(1.0%p), 창의성 발휘(0.6%p), 자아성취(0.9%p), 사회에 대한 기여도(0.1%p)임.
 - '20년 대비 변동이 없는 항목은 의사결정권임.
- 연령대별로 13-18세와 19-24세 모두 자신의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13-18세: 자신의 능력(41.8%) > 자신의 적성(17.1%) > 직업의 장래성(11.1%) 등
 - 19-24세: 자신의 능력(44.1%) > 자신의 적성(17.2%) > 안정성(11.5%) 등

- 직업선택 기준 항목별로 연령대별 응답에 차이가 나타남.
 - 사회적 지위, 대중적 인기, 의사결정권, 창의성 발휘 항목은 13-18세 연령대가 19-24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자신의 능력, 안정성, 자신의 적성, 자아성취 항목은 19-24세 연령대의 응답이 13-18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직업의 장래성, 사회에 대한 기여도, 기타 항목은 연령대별 응답의 차이가 없음.

표 II-119 직업선택 기준(1순위)(13-24세)

(단위: 명, %)

구분		전체	13-18세	19-24세
자신의 능력	2017	30.4	32.0	29.1
	2020	37.8	38.8	37.1
	2023	43.0	41.8	44.1
사회적 지위	2017	4.1	5.1	3.2
	2020	4.7	4.2	5.1
	2023	5.3	6.5	4.3
대중적 인기	2017	1.0	1.2	0.8
	2020	2.1	2.5	1.9
	2023	3.7	4.9	2.7
안정성	2017	17.6	13.6	20.8
	2020	15.6	12.6	17.7
	2023	10.9	10.3	11.5
직업의 미래성	2017	11.3	10.0	12.4
	2020	11.4	11.2	11.6
	2023	11.1	11.1	11.1
의사결정권	2017	0.4	0.6	0.2
	2020	1.2	1.2	1.3
	2023	1.2	1.3	1.1
경제적 수입	2017	10.9	9.8	11.8
	2020	6.8	6.4	7.1
	2023	5.8	5.3	6.2
창의성 발휘	2017	1.3	1.2	1.3
	2020	1.4	1.8	1.1
	2023	0.8	1.0	0.7
자신의 적성	2017	20.6	23.7	18.1
	2020	16.8	18.8	15.4
	2023	17.1	17.1	17.2
자아성취	2017	2.2	2.6	1.9
	2020	1.7	2.2	1.3
	2023	0.8	0.6	0.9
사회에 대한 기여도	2017	0.2	0.3	0.1
	2020	0.4	0.5	0.3
	2023	0.1	0.1	0.1
기타	2017	-	0.0	0.2
	2020	-	-	-
	2023	0.0	0.0	-

* 자료: 백혜정 외 (2017).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김기현 외 (20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청소년이 생각하는 직업 선택의 기준의 1순위와 2순위 응답 모두를 고려한 결과도 1순위 응답과 유사하게 나타남.

표 II-120 직업선택 기준(1+2순위)(13-24세)

(단위: 명, %)

구분		전체	13-18세	19-24세
자신의 능력	2017	43.5	46.2	41.4
	2020	45.2	46.3	44.5
	2023	52.2	50.9	53.3
사회적 지위	2017	9.3	11.7	7.3
	2020	9.2	9.2	9.2
	2023	13.8	16.4	11.6
대중적 인기	2017	3.3	3.6	3.1
	2020	4.7	5.7	4.0
	2023	8.2	11.3	5.7
안정성	2017	37.2	30.8	42.2
	2020	33.7	27.5	38.0
	2023	28.3	25.6	30.5
직업의 장래성	2017	27.6	25.3	29.5
	2020	29.9	28.3	31.1
	2023	29.0	27.8	30.0
의사결정권	2017	1.8	2.4	1.4
	2020	4.1	4.8	3.6
	2023	3.7	4.0	3.4
경제적 수입	2017	31.8	29.1	34.0
	2020	23.4	21.5	24.7
	2023	21.1	19.4	22.6
창의성 발휘	2017	4.5	4.8	4.3
	2020	6.4	7.3	5.8
	2023	4.1	5.0	3.4
자신의 적성	2017	33.5	37.6	30.4
	2020	34.9	38.8	32.2
	2023	34.4	33.4	35.3
자아성취	2017	6.1	7.4	5.1
	2020	6.8	8.8	5.5
	2023	4.4	5.4	3.6
사회에 대한 기여도	2017	0.9	1.0	0.9
	2020	1.7	1.9	1.6
	2023	0.6	0.7	0.5
기타	2017	-	0.1	0.3
	2020	-	-	-
	2023	0.0	0.0	-

* 자료: 백혜정 외 (2017).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김기현 외 (20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③ 주 양육자가 생각하는 자녀의 직업 선택 기준

- (주 양육자가 생각하는 자녀의 직업 선택 기준) 주 양육자가 생각하는 자녀가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 1순위 응답은 자신의 능력이 28.0%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자신의 적성(20.8%), 직업의 장래성(16.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주 양육자가 생각하는 자녀의 직업 선택 기준 1순위 응답은 '20년 대비 자신의 능력이 가장 큰 폭(4.3%p)으로 증가한 반면 자신의 적성이 가장 큰 폭(2.9%p)으로 감소함.
- 주 양육자 특성별로 자녀의 직업 선택 기준의 응답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남자는 자신의 능력, 자신의 적성 응답이 높은 반면, 여자는 나머지 항목의 응답이 높으며, 50대 이상은 자신의 능력, 경제적 수입, 자신의 적성, 사회에 대한 기여도 응답이 높은 반면 30대 이하에서는 사회적 지위, 대중적 인기, 의사결정권, 창의성 발휘 응답이 높음.
- (주 양육자가 생각하는 자녀의 직업 선택 기준 1+2순위) 주 양육자가 생각하는 자녀의 직업 선택 기준을 1순위와 2순위까지 모두 포함할 경우, 자신의 적성(38.8%)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자신의 능력(38.6%), 직업의 장래성(33.8%) 등으로 나타나며, 주 양육자의 성별에 따른 직업 선택 기준의 응답이 1순위 응답과 차이를 보임.
- (주 양육자와 자녀의 직업 선택 기준 비교) 주 양육자와 자녀의 직업 선택 기준 1~3순위 응답을 비교한 결과, 주 양육자와 자녀의 응답이 일치하는 비율은 '자신의 능력' 65.0%, '자신의 적성' 35.8%, '직업의 장래성' 23.9%로 나타남.

- 주 양육자를 대상으로 자녀가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측정한 결과, 자신의 능력, 자신의 적성, 직업의 장래성 등의 순으로 응답함.
 - 자신의 능력(28.0%) > 자신의 적성(20.8%) > 직업의 장래성(16.0%) > 안정성(15.0%) > 사회적 지위(6.8%) > 대중적 인기(3.7%), 경제적 수입(3.7%) > 창의성 발휘(1.9%) > 자아성취(1.6%) > 사회에 대한 기여도(0.0%)
- '20년 대비 자신의 능력의 응답이 가장 크게 증가한 반면 자신의 적성의 응답이 가장 크게 감소함.
 - '20년 대비 응답이 증가한 항목은 자신의 능력(4.3%p), 사회적 지위(1.7%p), 대중적 인기(0.7%p), 직업의 장래성(1.3%p), 의사결정권(0.1%p)으로 나타남.
 - '20년 대비 응답이 감소한 항목은 안정성(2.3%p), 경제적 수입(1.4%p), 창의성 발휘(0.3%p), 자신의 적성(2.9%p), 자아성취(0.8%p), 사회에 대한 기여도(0.3%p)로 나타남.

○ 주 양육자 특성별로 자녀의 직업 선택 기준의 응답이 다르게 나타남.

- 주 양육자가 남자이면 자신의 능력, 자신의 적성 응답이 여성 양육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여성 양육자는 나머지 모든 항목에 대해 남자 양육자에 비해 응답이 높음.
- 주 양육자의 연령대가 가장 높은 50대 이상인 집단은 자신의 능력, 안정성, 경제적 수입, 자신의 적성, 사회에 대한 기여도의 응답이 다른 연령대 대비 상대적으로 높고, 반면 연령대가 가장 낮은 30대 이하 양육자는 사회적 지위, 대중적 인기, 의사결정권, 창의성 발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121 주 양육자가 생각하는 자녀의 직업 선택 기준(1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자신의 능력	사회적 지위	대중적 인기	안정성	직업의 장래성	의사 결정권	경제적 수입	창의성 발휘	자신의 적성	자아 성취	사회에 대한 기여도
연도	2020	4,808	23.7	5.1	3.0	17.3	14.7	2.4	5.1	2.2	23.7	2.4	0.3
	2023	4,822	28.0	6.8	3.7	15.0	16.0	2.5	3.7	1.9	20.8	1.6	0.0
주 양육자 성별	남성	597	28.5	6.5	3.4	14.3	14.6	1.4	3.0	1.3	25.1	1.6	0.1
	여성	4,225	27.9	6.8	3.8	15.1	16.2	2.6	3.8	1.9	20.2	1.6	0.0
주 양육자 연령별	30대 이하	758	27.5	9.9	4.5	13.5	15.4	3.6	2.1	2.8	18.9	1.7	-
	40대	2,848	27.9	6.9	3.6	15.0	16.1	2.8	3.9	2.1	20.1	1.5	0.0
	50대 이상	1,216	28.4	4.5	3.5	16.0	16.1	0.9	4.2	0.8	23.7	1.8	0.1

○ 주 양육자가 생각하는 자녀의 직업 선택 기준을 1순위와 2순위까지 모두 포함하면 자신의 적성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 1순위 응답과 차이를 보임.

- 자신의 적성(38.8%) > 자신의 능력(38.6%) > 직업의 장래성(33.8%) > 안정성(32.0%) > 경제적 수입(16.0%) > 사회적 지위(13.6%) > 대중적 인기(8.2%) > 자아성취(6.8%) > 창의성 발휘(6.2%) > 사회에 대한 기여도(0.5%)

○ 주 양육자가 생각하는 자녀의 직업 선택 기준을 1순위와 2순위까지 모두 고려하면, 주 양육자의 성별 자녀의 직업 선택 기준의 응답이 1순위 응답과 차이를 보임.

- 성별로는 주 양육자가 남자인 경우 자신의 능력, 의사결정권, 경제적 수입, 창의성 발휘, 자신의 적성, 자아성취, 사회에 대한 기여도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여자보다 높게 나타나며, 주 양육자가 여자인 경우 사회적 지위, 대중적 인기, 안정성, 직업의 장래성의 응답이 남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주 양육자 연령이 50대의 경우 자신의 능력, 직업의 장래성, 경제적 수입, 자신의 적성의 응답이 가장 높으며, 반대로 주 양육자 연령이 30대 이하인 경우 사회적 지위, 대중적 인기, 의사결정권, 창의성 발휘, 자아성취의 응답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122 주 양육자가 생각하는 자녀의 직업 선택 기준(1+2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자신의 능력	사회적 지위	대중적 인기	안정성	직업의 장래성	의사 결정권	경제적 수입	창의성 발휘	자신의 적성	자아 성취	사회에 대한 기여도
연도	2020	4,808	32.4	8.4	5.1	35.3	33.9	6.6	19.1	7.3	42.7	8.3	0.9
	2023	4,822	38.6	13.6	8.2	32.0	33.8	5.6	16.0	6.2	38.8	6.8	0.5
주 양육자 성별	남성	597	39.0	12.6	6.4	30.3	31.1	6.0	17.0	6.3	43.6	7.0	0.6
	여성	4,225	38.5	13.7	8.4	32.3	34.2	5.5	15.8	6.2	38.1	6.8	0.5
주 양육자 연령별	30대 이하	758	37.1	18.0	9.8	28.6	33.0	6.8	13.0	7.6	37.8	7.6	0.7
	40대	2,848	38.8	14.4	8.3	32.7	33.6	6.1	15.5	6.5	37.2	6.5	0.4
	50대 이상	1,216	39.1	8.9	6.8	32.6	34.7	3.5	18.8	4.8	43.1	6.9	0.7

- 주 양육자가 생각하는 자녀의 직업 선택 기준과 청소년이 생각하는 직업 선택 기준의 응답이 가장 높았던 3순위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주 양육자와 자녀의 기준이 일치하는 비율은 자신의 능력 65.0%, 자신의 적성 35.8%, 직업의 장래성 23.9%로 나타남.

표 II-123 주 양육자와 청소년 자녀의 직업 선택 주요 기준 응답 비교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청소년								
			전체			13-18세			19-24세		
			자신의 능력	자신의 적성	직업의 장래성	자신의 능력	자신의 적성	직업의 장래성	자신의 능력	자신의 적성	직업의 안정성
(주양육자) 자녀의 직업 선택 기준 3순위	자신의 능력	1,450	65.0	9.1	6.6	61.8	11.3	5.8	68.1	7.0	8.1
	자신의 적성	1,166	34.3	35.8	10.7	34.2	36.2	11.9	34.5	35.6	9.9
	직업의 장래성	873	29.1	20.8	23.9	26.8	19.3	26.1	31.3	22.5	11.8

* 주: 주 양육자가 생각하는 자녀의 직업 선택 시 고려 기준 1순위 문항의 응답이 가장 높은 3개 항목의 각각을 100.0%로 할 때, 청소년의 직업 선택 기준 1순위 문항의 응답이 가장 높은 3개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냄.

④ 진로성숙도

- **(진로성숙도)** 청소년(9-24세)의 진로성숙도 점수는 4점 만점에 평균 2.77점으로, '20년 대비 0.03점 낮아짐.
- 연령대별로 9-12세 2.59점, 13-18세 2.74점, 19-24세 2.91점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 점수가 높음.
- 특성별로 여자, 학교급이 높을수록, 대도시 거주자,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양부모 집단의 진로성숙도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음.
- **(장래 희망 결정 여부에 따른 진로성숙도)** 청소년의 장래 희망 직업 결정 여부별 진로성숙도 점수를 비교한 결과, 장래 희망 직업을 결정한 청소년(3.01점)의 진로성숙도 점수는 희망 직업을 결정하지 않은 청소년(2.67점)에 비해 높으며, 희망 직업 결정 여부에 따른 진로성숙도 점수의 격차는 13-18세와 19-24세(각각 0.31점)가 9-12세(0.29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진로성숙도 수준별 주관적 웰빙과 자존감)**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수준에 따른 주관적 웰빙과 자존감 수준을 비교한 결과, 진로성숙도 점수가 높은 집단의 주관적 웰빙과 자존감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대학 재학 중 사교육 경험 여부별 진로성숙도)** 청소년의 대학 재학 중 사교육 경험 여부별 진로성숙도 점수를 비교한 결과, 사교육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점수가 사교육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청소년(9-24세)의 진로성숙도는 4점 만점에 평균 2.77점으로 '20년 대비 0.03점 낮아짐.
- '20년 2.80점→'23년 2.77점

○ 연령대별로 9-12세는 2.59점, 13-18세는 2.74점, 19-24세는 2.91점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 점수가 높음.
- 9-12세: '20년 2.52점→'23년 2.59점
- 13-18세: '20년 2.77점→'23년 2.74점
- 19-24세: '20년 2.95점→'23년 2.91점

○ 특성별로 여자, 학교급이 높을수록, 대도시 거주자,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양부모 집단의 진로성숙도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음.
- 성별로는 여자(2.79점)가 남자(2.76점)에 비해 진로성숙도 점수가 높음.

- 학교급별로는 학교급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 점수가 높으며, 대학교(2.91점)의 점수가 가장 높은 반면 초등학교(2.59점)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음.
 - 거주지역별로는 대도시(2.80점) 청소년의 점수가 가장 높은 반면 농산어촌(2.78점)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점수가 가장 낮음.
 - 가구소득 수준별로는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2.86점) 집단의 진로성숙도 점수가 가장 높은 반면 200~400만원 미만 집단(2.70점)의 진로성숙도 점수가 가장 낮음.
 - 가구형태별로는 양부모(2.76점) 집단이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2.73점) 집단에 비해 진로성숙도 점수가 높음.
- 연령대별 특성에 따른 진로성숙도 점수의 격차는 연령대별 차이를 보이며, 9-12세 특성에 따른 진로성숙도 점수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큼.
- 성별로는 9-12세 여자(2.60점)는 남자(2.57점)에 비해 진로성숙도 점수가 높으며, 성별 격차(0.03점)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19-24세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거주지역별로는 9-12세 농산어촌(2.66점)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점수가 가장 높고 중소도시(2.55점) 청소년이 가장 낮으며, 진로성숙도의 격차(0.11점)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큼.
 - 가구소득 수준별로는 9-12세의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 점수가 높으며,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의 집단(2.65점)과 200만원 미만 집단(2.53점)의 진로성숙도 점수의 격차(0.12점)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큼.
 - 가구형태별로는 9-12세 양부모 집단(2.60점)과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집단(2.43점)간 진로성숙도 점수의 격차(0.17점)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며, 다른 특성들에 의한 진로성숙도 점수의 격차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가장 큼.

표 11-124 진로성숙도(9-24세)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전체	9-12세	13-18세	19-24세
연도별	2020	7,170	2.80	2.52	2.77	2.95
	2023	7,423	2.77	2.59	2.74	2.91
청소년 성별	남자	3,837	2.76	2.57	2.74	2.88
	여자	3,586	2.79	2.60	2.74	2.94
학교급	초등학교	1,626	2.59	2.58	2.71	-
	중학교	1,354	2.69	2.64	2.69	-
	고등학교	1,264	2.78	-	2.78	2.87
	대학교	2,608	2.91	-	2.78	2.91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	570	2.89	-	2.71	2.90
거주 지역	대도시	3,124	2.80	2.60	2.77	2.91
	중소도시	3,263	2.75	2.55	2.70	2.90
	농산어촌	1,036	2.78	2.66	2.73	2.93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418	2.86	2.53	2.69	2.93
	200~400만원 미만	1,392	2.70	2.55	2.67	2.85
	400~600만원 미만	3,654	2.76	2.58	2.72	2.90
	600만원 이상	1,959	2.84	2.65	2.80	2.96
가구 형태	양부모	6,607	2.76	2.60	2.74	2.90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372	2.73	2.43	2.64	2.92

* 주: 학교생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개별 문항의 평균은 다음과 같으며, 개별 문항별 응답항목 빈도는 기초통계표 참고.
 '내가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2.87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2.98점), '장래희망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적이 있다'(2.81점), '나는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2.87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본 적이 있다'(2.67점), '나는 관심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직업에 대하여 알아본 적이 있다'(2.43점)

* 자료: 김기현 외 (20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장래 희망 직업 결정 여부와 진로성숙도 점수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장래 희망 직업을 결정한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점수는 4점 만점에 3.01점으로 장래 희망 직업을 결정하지 않은 청소년(2.67점)에 비해 높음.
- 모든 연령대에서 장래 희망 직업을 결정한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점수가 희망 직업을 정하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이며, 장래 희망 직업 선택 여부에 따른 진로성숙도 점수의 격차는 13-18세와 19-24세 연령대가 9-12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남.
 - 모든 연령대에서 장래 희망 직업을 결정한 청소년의 진로성숙도가 희망 직업을 정하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데, 희망 직업 선택 여부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격차는 9-12세 연령대는 0.29점, 13-18세와 19-24세는 0.31점으로 나타남.

표 II-125 장래 희망 직업 결정 여부에 따른 진로성숙도(9-24세)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진로성숙도			
			전체	9-12세	13-18세	19-24세
장래 희망 직업 선택 여부	정하였음	2,336	3.01	2.82	2.96	3.09
	정하지 않았음	5,087	2.67	2.53	2.65	62.78

- 진로성숙도 수준과 주관적 웰빙, 자존감 수준을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진로성숙도 점수가 높은 집단의 주관적 웰빙과 자존감 역시 높고, 진로성숙도 점수가 낮은 집단의 주관적 웰빙과 자존감 역시 낮게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 수준에 따른 주관적 웰빙과 자존감의 점수 차이가 뚜렷해짐.
 - 9-12세의 진로성숙도 수준이 '상'인 집단에 비해 '중', '하' 집단의 주관적 웰빙과 자존감의 차이가 적게 나타나지만,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차이가 뚜렷해지는데, 연령대가 가장 높은 19-24세는 진로성숙도 수준 '상', '중', '하'에 따라 주관적 웰빙(각 7.11점, 6.76점, 5.97점)과 자존감(각 3.17점, 2.98점, 2.66점)의 차이가 가장 뚜렷함.

표 II-126 진로성숙도 수준별 주관적 웰빙, 자존감(9-24세)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전체		9-12세		13-24세		19-24세	
			주관적 웰빙	자존감	주관적 웰빙	자존감	주관적 웰빙	자존감	주관적 웰빙	자존감
진로성숙도	상(18-24점)	2,967	7.15	3.19	7.47	3.25	7.07	3.18	7.11	3.17
	중(13-17점)	3,916	6.85	2.98	7.23	3.04	6.68	2.95	6.76	2.98
	하(6-12점)	540	6.83	2.93	7.26	3.04	6.64	2.89	5.97	2.66

- 청소년의 대학 재학 중 사교육 경험에 따른 진로성숙도 점수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사교육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진로성숙도 점수가 사교육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II-127 대학 재학 중 사교육 경험 여부별 진로성숙도(19-24세)

(단위: 명, 점)

구분	경험 없음	경험 있음				
		전공 공부를 위한 사교육	영어 사교육	제2 외국어 사교육	여타 취업 준비를 위한 사교육	기타
진로성숙도	2.89	3.03	2.95	3.07	2.98	3.20

5 직업관

- **(직업관)** 청소년(13-24세)의 직업관 측정 문항들의 동의 비율을 살펴보면 ‘나는 분명한 인생 목표가 있다’ 74.0%, ‘진로나 직업을 선택할 시기가 되면 내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선택할 것이다’ 85.8%, ‘내가 희망하는 직업을 미래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79.7%로 나타남.
- 응답 항목별로 ‘20년 대비 변화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나는 분명한 인생 목표가 있다’(2.8%p)와 ‘내가 희망하는 직업을 미래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1.1%p)에 동의하는 응답이 감소한 반면 ‘진로나 직업을 선택할 시기가 되면 내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선택할 것이다’(2.0%p)에 동의하는 응답은 증가함.
- 연령대별로 19-24세가 13-18세에 비해 직업관을 측정하는 모든 항목에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대학 재학 중 사교육 경험별 직업관 지수)** 19-24세 청소년이 대학 재학 중 사교육 경험 유무와 직업관 지수 점수를 비교한 결과, 사교육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사교육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직업관 지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남.
- **(주 양육자의 자녀 진로 관심 및 선택에서의 관여 정도)** 주 양육자를 대상으로 자녀의 진로선택에 대한 관심과 선택에서의 관여 정도를 측정한 결과, ‘아이가 원하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응답이 53.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아이의 진로선택에 관심은 있지만, 아이에게 맡기는 편이다’(41.3%), ‘아이의 진로 선택에 관심은 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다’(4.0%), ‘아이의 진로선택에 전혀 관심이 없다’(1.1%) 순으로 나타남.
- 특성별로는 주 양육자가 여성, 30대 이하, 자녀 사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에 주 양육자는 ‘아이가 원하는 진로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편이다’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아, 관심과 관여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직업관을 나타내는 문항들에 대해 청소년(13-24세)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나는 분명한 인생 목표가 있다’ 74.0%, ‘진로나 직업을 선택할 시기가 되면 내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선택할 것이다’ 85.8%, ‘내가 희망하는 직업을 미래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79.7%로 나타남.

○ 측정 항목별로 '20년 대비 응답 변화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나는 분명한 인생 목표가 있다'와 '내가 희망하는 직업을 미래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에 동의하는 응답이 감소한 반면 '진로나 직업을 선택할 시기가 되면 내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선택할 것이다'에 동의하는 응답은 증가함.

- 나는 분명한 인생 목표가 있다: '17년 69.7%→'20년 76.8%→'23년 74.0%
- 진로나 직업을 선택할 시기가 되면 내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선택할 것이다: '17년 86.8%→'20년 83.8%→'23년 85.8%
- 내가 희망하는 직업을 미래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17년 81.8%→'20년 80.8%→'23년 79.7%

○ 연령대별로 19-24세가 13-18세 청소년에 비해 직업관을 측정하는 모든 항목에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나는 분명한 인생 목표가 있다: 13-18세 69.5%, 19-24세 77.8%
- 진로나 직업을 선택할 시기가 되면 내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선택할 것이다: 13세-18세 84.2%, 19-24세 87.1%
- 내가 희망하는 직업을 미래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13-18세 77.0%, 19-24세 82.0%

표 II-128 직업관 측정 항목(13-24세) (단위: 명, 점)

구분		전체			13-18세			19-24세		
		그렇지 않다	그렇다	평균	그렇지 않다	그렇다	평균	그렇지 않다	그렇다	평균
나는 분명한 인생 목표가 있다	2017	30.3	69.7	2.81	36.4	63.6	2.75	25.5	74.5	2.85
	2020	23.1	76.8	2.87	29.0	71.0	2.78	19.0	81.0	2.93
	2023	26.0	74.0	2.83	30.5	69.5	2.77	22.2	77.8	2.88
진로나 직업을 선택할 시기가 되면 내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선택할 것이다	2017	13.2	86.8	3.05	14.4	85.6	3.05	12.3	87.7	3.05
	2020	16.2	83.8	3.02	18.3	81.7	2.97	14.7	85.3	3.06
	2023	14.2	85.8	3.02	15.8	84.2	2.98	12.9	87.1	3.06
내가 희망하는 직업을 미래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17	18.3	81.8	2.94	18.4	81.6	2.95	18.2	81.8	2.94
	2020	19.2	80.8	2.92	20.1	79.9	2.90	18.6	81.4	2.94
	2023	20.3	79.7	2.90	23.0	77.0	2.85	18.0	82.0	2.94

* 주: 리커트 척도의 항목별 응답 빈도(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는 기초통계표 참고

* 자료: 백혜정 외 (2017).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김기현 외 (20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직업관을 측정하는 전체 문항들의 평균인 직업관 지수를 산출하여 19-24세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대학 재학 중 사교육 경험 유무별 직업관 지수를 비교한 결과, 사교육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사교육을 받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직업관 지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남.

표 11-129 대학 재학 중 사교육 경험별 직업관 지수(19-24세)

(단위: 명, 점)

구분	경험 없음	경험 있음				
		전공 공부를 위한 사교육	영어 사교육	제2 외국어 사교육	여타 취업 준비를 위한 사교육	기타
직업관 지수	2.96	3.03	2.99	3.09	3.02	3.33

- 주 양육자를 대상으로 자녀의 진로선택에 대한 관심과 선택에서의 관여 정도를 측정한 결과, ‘아이가 원하는 진로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응답이 53.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아이의 진로선택에 관심은 있지만, 아이에게 맡기는 편이다’(41.3%), ‘아이의 진로 선택에 관심은 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다’(4.0%), ‘아이의 진로선택에 전혀 관심이 없다’(1.1%) 순으로 나타남.
- ‘아이가 원하는 진로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다’와 ‘아이의 진로선택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응답은 ‘20년에 비해 증가한 반면 ‘아이의 진로선택에 관심은 있지만, 아이에게 맡기는 편이다’와 ‘아이의 진로선택에 관심은 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응답은 ‘20년에 비해 감소함.
- 특성별로는 주 양육자가 여성, 주 양육자 연령이 30대 이하, 자녀 사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에 주 양육자는 ‘아이가 원하는 진로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편이다’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 주 양육자 성별이 여성인 경우 ‘아이가 원하는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와 ‘아이의 진로선택에 전혀 관심이 없다’의 응답이 남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주 양육자가 남자인 경우 ‘아이의 진로선택에 관심이 있지만 아이에게 맡기는 편이다’와 ‘아이의 진로선택에 관심은 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다’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 주 양육자 연령대별로는 30대 이하 양육자는 ‘아이가 원하는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이의 진로선택에 관심은 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아이의 진로선택에 전혀 관심이 없다’의 응답이 가장 높은 반면 50대 양육자는 ‘아이의 진로선택에 관심이 있지만 아이에게 맡기는 편이다’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 자녀 사교육 경험 여부별로는 자녀의 사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아이가 원하는 진로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사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항목들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130

주 양육자의 자녀 진로 관심 및 선택에서의 관여 정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아이가 원하는 진로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다	아이의 진로선택에 관심은 있지만, 아이에게 말기는 편이다	아이의 진로선택에 관심은 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아이의 진로선택에 전혀 관심이 없다
연도별	2020	4,808	49.7	45.6	4.5	0.2
	2023	4,822	53.6	41.3	4.0	1.1
주 양육자 성별	남성	597	46.7	47.2	5.2	1.0
	여성	4,225	54.6	40.4	3.9	1.1
주 양육자 연령별	30대 이하	758	66.4	26.2	4.9	2.4
	40대	2,848	57.2	38.0	3.7	1.1
	50대 이상	1,216	37.3	58.4	4.1	0.2
자녀 사교육 경험	있음	2,777	62.6	32.8	3.6	0.9
	없음	584	53.8	35.4	7.9	2.9

7. 사회진입 및 이행

7-1. 아르바이트, 취업 및 구직활동 여부

① 아르바이트 경험

- **(아르바이트 경험률)**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는 청소년(13-24세) 응답은 49.5%로 나타나며, '20년(39.9%) 대비 9.6%p 증가함.
- 연령대별로는 13-18세의 11.1%, 19-24세의 65.8%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함.
- 특성별로는 남자, 대학 미진학 및 졸업한 청소년, 중소도시 거주자,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집단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 **(주 양육자의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생각과 자녀의 아르바이트 경험)** 주 양육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생각을 측정하는 항목의 동의 비율을 자녀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와 비교 분석한 결과,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인 주 양육자의 자녀가 아르바이트 경험률이 높으며, 13-18세의 양육자가 19-24세의 양육자보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임.
- **(주 양육자의 자녀 아르바이트 경험과 현장실습 및 인턴경험 동의 정도)** 주 양육자를 대상으로 자녀 아르바이트, 현장실습 및 인턴 경험의 동의 정도를 측정한 결과, 자녀 아르바이트 동의 정도는 4점 만점에 2.55점으로 '20년(2.68점) 대비 0.13점 낮아졌으며, 현장실습 및 인턴 경험에 동의하는 정도는 2.85점으로 '20년(2.91점) 대비 0.06점 낮아짐.
- 자녀가 대학 미진학 및 졸업한 청소년, 농산어촌 거주자,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인 경우 주 양육자의 자녀 아르바이트 경험과 현장실습 및 인턴 경험의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청소년(13-24세)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49.5%로 나타나며, '20년 대비 9.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17년 48.7%→'20년 39.9%→'23년 49.5%

○ 연령대별로는 13-18세의 11.1%, 19-24세의 65.8%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20년 대비 각각 5.3%p, 1.8%p 증가함.

- 특성별로는 남자, 대학 미진학 및 졸업한 청소년, 중소도시 거주자,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집단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 성별로는 남자(50.5%)가 여자(48.4%)에 비해 아르바이트 경험률이 높음.
 - 학교급별로는 대학 미진학 및 졸업한 청소년(72.9%)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이 가장 높은 반면 고등학생(8.8%)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음.
 - 거주지역별로는 중소도시(51.8%) 거주자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이 가장 높은 반면 농산어촌(44.6%)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음.
 - 가구소득별로는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집단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률(72.2%)이 가장 높은 반면 400~600만원 미만(46.2%) 집단의 경험률이 가장 낮음.
 - 가구형태별로는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58.6%) 집단이 양부모(45.2%) 집단에 비해 아르바이트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 특성에 따른 아르바이트 경험 응답의 격차는 연령대별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13-18세의 성별, 학교급에 의한 격차와 19-24세의 거주지역, 가구소득, 가구형태에 의한 격차가 상대적으로 큼.
 - 13-18세 남자(12.8%)와 여자(9.3%)의 아르바이트 경험률 차이(3.5%p)는 19-24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큼.
 - 13-18세 대학 미진학 및 졸업한 청소년(56.5%)과 아르바이트 경험률이 가장 적은 고등학생(7.4%)의 차이(49.1%p)는 19-24세보다 상대적으로 크며, 다른 특성에 의한 아르바이트 경험의 격차보다 상대적으로 가장 크게 나타남.
 - 19-24세 중소도시 거주자(68.6%)와 농산어촌 거주자(60.4%)간 아르바이트 경험률 차이(8.2%p)는 13-18세보다 상대적으로 큼.
 - 19-24세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집단(77.5%)과 400~600만원 미만 집단(63.4%)의 아르바이트 경험률 차이(14.1%p)는 13-18세보다 큼.
 - 19-24세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집단(73.8%)과 양부모 집단(62.6%)간 아르바이트 경험률 차이(11.2%p)는 13-18세보다 큼.

표 II-131 아르바이트 경험(13-24세)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체		13-18세		19-24세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연도별	2017	6,183	48.7	51.3	12.8	87.2	76.8	23.2
	2020	5,628	39.9	60.1	5.8	94.2	64.0	36.0
	2023	4,443	49.5	50.5	11.1	88.9	65.8	34.2
청소년 성별	남자	2,314	50.5	49.5	12.8	87.2	66.6	33.4
	여자	2,129	48.4	51.6	9.3	90.7	64.9	35.1
학교급 및 재학 여부	고등학교	1,264	8.8	91.2	7.4	92.6	41.2	58.8
	대학교	2,608	64.1	35.9	49.9	50.1	64.6	35.4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	570	72.9	27.1	56.5	43.5	73.2	26.8
거주 지역	대도시	1,943	48.5	51.5	8.2	91.8	64.4	35.6
	중소도시	1,952	51.8	48.2	12.5	87.5	68.6	31.4
	농산어촌	548	44.6	55.4	15.2	84.8	60.4	39.6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345	72.2	27.8	19.4	80.6	77.5	22.5
	200~400만원 미만	743	51.4	48.6	15.8	84.2	66.1	33.9
	400~600만원 미만	2,127	46.2	53.8	10.5	89.5	63.4	36.6
	600만원 이상	1,227	47.6	52.4	8.8	91.2	65.3	34.7
가구 형태	양부모	3,757	45.2	54.8	10.8	89.2	62.6	37.4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242	58.6	41.4	17.5	82.5	73.8	26.2

* 자료: 백혜정 외 (2017).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김기현 외 (20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주 양육자를 대상으로 청소년의 아르바이트에 관한 생각을 측정하는 문항에 대한 동의(약간 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 비율을 자녀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청소년기 아르바이트 경험은 필요하다’, ‘청소년기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청소년의 권리이므로 존중해야 한다’, ‘청소년기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청소년의 진로 선택 및 결정에 도움을 준다’ 문항 모두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의 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청소년기 아르바이트 경험은 필요하다’: 아르바이트 유경험자 64.7%, 아르바이트 무경험자 52.2%
 - ‘청소년기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청소년의 권리이므로 존중해야 한다’: 아르바이트 유경험자 69.4%, 아르바이트 무경험자 58.3%
 - ‘청소년기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청소년의 진로 선택 및 결정에 도움을 준다’: 아르바이트 유경험자 63.1%, 아르바이트 무경험자 51.7%
-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한정해 살펴보면, 13-18세 주 양육자가 19-24세 주 양육자에 비해 청소년기 아르바이트에 대하여 동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청소년기 아르바이트 경험은 필요하다’: 13-18세 78.4% > 19-24세 63.5%
 - ‘청소년기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청소년의 권리이므로 존중해야 한다’: 13-18세 77.0% > 19-24세 68.8%
 - ‘청소년기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청소년의 진로 선택 및 결정에 도움을 준다’: 13-18세 73.9% > 19-24세 62.1%

표 II-132 주 양육자의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생각과 자녀 아르바이트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체			13-18세			19-24세		
			청소년기 아르바이트 경험은 필요하다	청소년기 아르바이트 경험은 청소년의 권리로 존중해야 한다	청소년기 아르바이트 경험은 청소년의 진로 선택 및 결정에 도움을 준다	청소년기 아르바이트 경험은 필요하다	청소년기 아르바이트 경험은 청소년의 권리로 존중해야 한다	청소년기 아르바이트 경험은 청소년의 진로 선택 및 결정에 도움을 준다	청소년기 아르바이트 경험은 필요하다	청소년기 아르바이트 경험은 청소년의 권리로 존중해야 한다	청소년기 아르바이트 경험은 청소년의 진로 선택 및 결정에 도움을 준다
아르바이트 경험	있음	2,199	64.7	69.4	63.1	78.4	77.0	73.9	63.5	68.8	62.1
	없음	2,244	52.2	58.3	51.7	51.5	60.5	52.3	53.0	55.6	51.0

○ 주 양육자를 대상으로 자녀의 아르바이트, 자녀의 현장실습 및 인턴 경험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아르바이트에 동의하는 정도는 4점 만점에 2.55점으로 '20년(2.68점) 대비 0.13점 낮아졌으며, 현장실습 및 인턴 경험에 동의하는 정도는 2.85점으로 '20년(2.91점) 대비 0.06점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 특성별로 자녀가 대학 미진학 및 졸업한 청소년, 농산어촌 거주자,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인 경우 주 양육자의 자녀 아르바이트 경험과 현장실습 및 인턴 경험의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대학 미진학 및 졸업한 청소년, 농산어촌 거주자,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상대적으로 자녀 아르바이트 경험의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 대학 미진학 및 졸업한 청소년, 농산어촌 거주자,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상대적으로 자녀 현장실습 및 인턴 경험의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옴.

표 II-133 주 양육자의 자녀 아르바이트 경험과 자녀 현장실습 및 인턴경험 동의 정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자녀 아르바이트 경험 동의 정도	자녀 현장실습 및 인턴 경험 동의 정도
전체	2020년	4,808	2.68	2.91
	2023년	4,822	2.55	2.85
학교급	초등학교	1,368	2.50	2.83
	중학교	1,005	2.49	2.85
	고등학교	1,004	2.55	2.86
	대학교	1,188	2.63	2.88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	258	2.69	2.88
지역규모별	대도시	2,121	2.48	2.86
	중소도시	2,055	2.60	2.84
	농산어촌	646	2.63	2.90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126	2.56	2.99
	200~400만원 미만	973	2.55	2.85
	400~600만원 미만	2,504	2.55	2.83
	600만원 이상	1,219	2.55	2.89

* 주: 1) 자녀 아르바이트 경험 동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개별 문항의 평균은 다음과 같으며, 개별 문항별 응답항목 빈도는 기초통계 참고.
 '청소년기 아르바이트 경험은 필요하다'(2.50점), '청소년기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청소년의 권리이므로 존중해야 한다'(2.63점),
 '청소년기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청소년의 진로 선택 및 결정에 도움을 준다'(2.52점)
 2) 자녀 현장실습 및 인턴 경험 동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개별 문항의 평균은 다음과 같으며, 개별 문항별 응답항목 빈도는 기초통계표 참고.
 '고등학교 재학 중 현장실습 및 인턴 경험은 진로선택에 도움이 된다'(2.68점), '대학교 재학 중 현장실습 및 인턴 경험은 진로선택에 도움이 된다'(3.03점)

② 취업 여부

- 지난 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였다는 청소년(13-24세)은 30.0%로, '20년 (18.7%) 대비 11.3%p 증가함.
- 연령대별로 13-18세의 5.5%, 19-24세의 40.3%는 지난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것으로 응답함.
- 특성별로 여자, 대학 미진학 및 졸업한 청소년, 중소도시 거주자,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집단에서 지난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였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 13-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난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였는지를 측정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은 30.0%로 '20년 대비 11.3%p 증가함.
 - '17년 23.4%→'20년 18.7%→'23년 30.0%
-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였다는 응답은 연령대별로 13-18세는 5.5%, 19-24세는 40.3로, '20년 대비 각각 3.0%p, 10.1%p 증가함.
 - 13-18세: '17년 4.1%→'20년 2.5%→'23년 5.5%
 - 19-24세: '17년 38.5%→'20년 30.2%→'23년 40.3%
- 특성별로는 여자, 대학 미진학 및 졸업한 청소년, 중소도시 거주자,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집단에서 지난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였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성별로는 여자(30.1%)가 남자(29.8%)에 비해 일하였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 학교급별로는 대학 미진학 및 졸업한 청소년(72.1%)의 응답이 가장 높은 반면 고등학생(5.4%)의 응답이 가장 낮음.
 - 거주지역별로는 중소도시(30.6%) 청소년의 일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반면 대도시(29.1%) 청소년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음.
 - 가구소득 수준별로는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49.0%) 청소년이 일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반면 400~600만원 미만(24.2%) 집단의 응답은 가장 낮음.
 - 가구형태별로는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42.0%) 집단이 양부모(24.5%) 집단에 비해 일하였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 특성별 청소년 취업의 격차는 연령대별로 다르게 나타는데, 13-18세 학교급별 격차와 19-24세 거주지역, 소득, 가구형태별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13-18세 대학 미진학 및 졸업한 청소년의 일하였다는 응답(30.6%)과 고등학생의 일하였다는 응답(3.4%)간 차이(27.2%p)는 19-24세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다른 특성들에 의한 응답의 격차보다 상대적으로 가장 큼.
 - 19-24세 농산어촌 청소년의 일하였다는 응답(42.6%)과 대도시 청소년의 일하였다는 응답(38.4%)간 차이(4.2%p)는 13-18세보다 상대적으로 큼.
 - 19-24세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집단의 일하였다는 응답(53.1%)과 400~600만원 집단의 일하였다는 응답(33.5%)의 차이(19.6%p)는 13-18세보다 상대적으로 큼.
 - 19-24세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집단의 일하였다는 응답(54.5%)과 양부모 집단(34.1%)의 차이(20.4%p)는 13-18세보다 상대적으로 큼.

표 II-134

취업 여부(13-24세)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체							13-18세							19-24세						
			1주간 수입 목적으로 근로 여부							1주간 수입 목적으로 근로 여부							1주간 수입 목적으로 근로 여부						
			예	아니오	무급가족종사자 여부					예	아니오	무급가족종사자 여부					예	아니오	무급가족종사자 여부				
					예	아니오	일시 휴직자 여부					예	아니오	일시 휴직자 여부					예	아니오	일시 휴직자 여부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연도별	2017	6,183	23.4	76.6	0.1	99.9	0.3	99.7	4.1	95.9	-	100.0	0.1	99.9	38.5	61.5	0.2	99.8	0.7	99.3			
	2020	5,628	18.7	81.3	0.4	99.6	0.4	99.6	2.5	97.5	0.2	99.8	0.0	100.0	30.2	69.8	0.6	99.4	0.8	99.2			
	2023	4,443	30.0	70.0	0.3	99.7	0.4	99.6	5.5	94.5	0.1	99.9	0.1	99.9	40.3	59.7	0.5	99.5	0.5	99.5			
청소년 성별	남자	2,314	29.8	70.2	0.3	99.7	0.5	99.5	5.4	94.6	0.1	99.9	0.1	99.9	40.2	59.8	0.4	99.6	0.7	99.3			
	여자	2,129	30.1	69.9	0.3	99.7	0.2	99.8	5.7	94.3	-	100.0	0.1	99.9	40.5	59.5	0.5	99.5	0.3	99.7			
학교급 및 재학 여부	고등학교	1,264	5.4	94.6	0.1	99.9	0.1	99.9	3.4	96.6	0.1	99.9	0.1	99.9	50.1	49.9	-	100.0	-	100.0			
	대학교	2,608	32.6	67.4	0.4	99.6	0.2	99.8	27.7	72.3	-	100.0	-	100.0	32.8	67.2	0.4	99.6	0.2	99.8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	570	72.1	27.9	1.1	98.9	4.2	95.8	30.6	69.4	-	100.0	-	100.0	72.9	27.1	1.1	98.9	4.4	95.6			
거주 지역	대도시	1,943	29.1	70.9	0.3	99.7	0.1	99.9	5.5	94.5	0.2	99.8	0.1	99.9	38.4	61.6	0.4	99.6	0.1	99.9			
	중소도시	1,952	30.6	69.4	0.4	99.6	0.6	99.4	4.7	95.3	-	100.0	0.1	99.9	41.7	58.3	0.7	99.3	0.9	99.1			
	농산어촌	548	30.5	69.5	-	100.0	0.4	99.6	8.0	92.0	-	100.0	-	100.0	42.6	57.4	-	100.0	0.7	99.3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345	49.0	51.0	1.1	98.9	0.3	99.7	8.8	91.2	-	100.0	-	100.0	53.1	46.9	1.3	98.7	0.3	99.7			
	200~400만원 미만	743	39.9	60.1	0.2	99.8	0.1	99.9	8.0	92.0	-	100.0	0.3	99.7	53.0	47.0	0.4	99.6	-	100.0			
	400~600만원 미만	2,127	24.2	75.8	0.2	99.8	0.1	99.9	4.7	95.3	0.1	99.9	0.1	99.9	33.5	66.5	0.3	99.7	0.1	99.9			
	600만원 이상	1,227	28.6	71.4	0.3	99.7	0.9	99.1	5.3	94.7	-	100.0	-	100.0	39.2	60.8	0.6	99.4	1.6	98.4			
가구 형태	양부모	3,757	24.5	75.5	0.3	99.7	0.4	99.6	5.4	94.6	-	100.0	0.1	99.9	34.1	65.9	0.6	99.4	0.6	99.4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242	42.0	58.0	0.7	99.3	0.5	99.5	7.9	92.1	1.6	98.4	1.1	98.9	54.5	45.5	-	100.0	-	100.0			

③ 구직활동 여부

- (일하지 않은 기간 한 일) 19-24세 비취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주 일하지 않았던 기간 동안 한 일을 측정한 결과, 학교생활을 했다는 응답이 60.9%로 가장 높으며, 휴식과 여가활동(23.6%), 취업 준비(11.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구직활동) 13-24세 비취업자 가운데 2.1%는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응답했고, 구직활동을 한 비취업자 비율은 '20년(5.3%) 대비 3.2%p 낮아짐.
- 연령대별로 13-18세의 0.1%, 19-24세의 3.5%가 구직활동을 했으며, 구직활동 비율은 '20년 대비 13-18세 0.4%p, 19-24세 6.5%p 낮아짐.
- 특성별로 여자, 대학 미진학 및 졸업한 청소년, 농산어촌 거주자, 가구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집단에서 구직활동을 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 (구직기간) 구직활동을 한 19-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구직기간을 측정한 결과, 구직활동에 0.49개월을 소요하며 '20년(0.63개월)에 비해 0.14개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특성별로 남자, 대학생, 대도시 거주자, 가구소득 200~400만원 미만 집단,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집단의 구직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남.

○ 19-24세 비취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주 일하지 않았던 기간 동안 한 일을 측정한 결과, 학교생활을 했다는 응답이 60.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휴식과 여가활동(23.6%), 취업 준비(11.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학교생활(60.9%) > 휴식과 여가활동(23.6%) > 취업 준비(11.5%) > 상급학교 진학 준비(2.4%) > 가사/가족 돌봄(0.6%), 기타(0.6%) > 창업 준비(0.4%)

○ 지난주 일하지 않았던 기간 동안 한 일의 응답은 휴식과 여가활동(10.3%p)의 증가폭이 가장 큰 반면 학교생활(7.9%p)의 감소폭이 가장 큼.

- 학교생활: '20년 68.8%→'23년 60.9%
- 취업 준비: '20년 13.7%→'23년 11.5%
- 창업 준비: '20년 0.5%→'23년 0.4%
- 휴식과 여가활동: '20년 13.3%→'23년 23.6%
- 상급학교 진학 준비: '20년 2.8%→'23년 2.4%
- 가사, 가족 돌봄: '20년 0.4%→'23년 0.6%
- 기타: '20년 0.4%→'23년 0.6%

○ 특성별로 지난주 일하지 않았던 기간 동안 한 일의 응답이 다르게 나타남.

- 성별로는 남자는 학교생활(61.8%), 창업준비(0.5%), 휴식과 여가활동(24.2%), 상급학교 진학 준비(2.8%), 기타(0.7%)의 응답이 여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여자는 취업준비(13.6%), 가사/가족 돌봄(0.7%)의 응답이 남자보다 높음.
-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은 창업준비(7.5%), 가사/가족돌봄(7.0%)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고, 대학생은 학교생활(66.1%)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대학 미진학 및 졸업한 청소년은 취업준비(46.5%), 휴식과 여가활동(32.1%), 상급학교 진학 준비(8.8%), 기타(1.8%)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 거주지역별로는 대도시 청소년은 학교생활(64.0%)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고, 중소도시 청소년은 상급학교 진학(2.7%)의 응답이 높으며, 농산어촌 청소년은 취업준비(15.1%), 휴식과 여가활동(24.9%), 기타(3.2%)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 가구소득별로는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집단은 창업준비(1.0%), 상급학교 진학 준비(6.7%), 가사/가족 돌봄(4.3%), 기타(1.7%)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고, 200~400만원 미만 집단은 취업준비(15.9%)의 응답이 높으며, 400~600만원 집단은 학교생활(65.2%)의 응답이 높으며, 600만원 이상 집단은 휴식과 여가활동(27.9%)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 가구형태별로는 양부모 집단은 창업준비(0.4%), 휴식과 여가활동(24.0%), 상급학교 진학 준비(2.1%), 가사/가족 돌봄(0.7%)의 응답이 높은 반면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집단은 학교생활(67.2%), 취업준비(15.8%), 기타(1.3%)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135

지난 주 일하지 않았던 기간 동안 한 일(19-24세)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19-24세						
			학교생활	취업준비	창업준비	휴식과 여가활동 (여행 등)	상급학교 진학 준비 (편입, 재수, 반수 포함)	가사, 가족 돌봄	기타
연도별	2020	2,271	68.8	13.7	0.5	13.3	2.8	0.4	0.4
	2023	1,842	60.9	11.5	0.4	23.6	2.4	0.6	0.6
청소년 성별	남자	959	61.8	9.5	0.5	24.2	2.8	0.5	0.7
	여자	883	59.9	13.6	0.4	23.0	2.0	0.7	0.5
학교급 및 재학 여부	고등학교	26	47.7	18.1	7.5	16.1	3.7	7.0	-
	대학교	1,673	66.1	8.4	-	23.0	1.9	0.2	0.5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	143	2.8	46.5	3.9	32.1	8.8	4.1	1.8
거주 지역	대도시	854	64.0	9.3	-	23.7	2.3	0.7	0.1
	중소도시	785	59.0	12.9	1.0	23.2	2.7	0.7	0.4
	농산어촌	203	55.0	15.1	-	24.9	1.9	-	3.2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145	51.7	12.1	1.0	22.6	6.7	4.3	1.7
	200~400만원 미만	246	54.3	15.9	-	25.5	3.1	0.7	0.4
	400~600만원 미만	951	65.2	10.5	0.4	21.1	2.0	0.3	0.5
	600만원 이상	501	58.6	11.0	0.5	27.9	1.6	-	0.5
가구 형태	양부모	1,628	61.1	11.2	0.4	24.0	2.1	0.7	0.5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80	67.2	15.8	-	15.7	-	-	1.3

* 자료: 김기현 외 (20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13-24세 비취업자 가운데 2.1%는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비취업자가 구직활동을 한 응답 비율은 '20년 대비 3.2%p 낮아짐.
 - '20년 5.3%→'23년 2.1%
- 연령대별로 구직활동을 했다는 응답은 13-18세 0.1%, 19-24세 3.5%이며, 구직활동을 했다는 응답은 '20년 대비 13-18세 0.4%p, 19-24세 6.5%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 13-18세: '20년 0.5%→'23년 0.1%
 - 19-24세: '20년 10.0%→'23년 3.5%
- 특성별로 여자, 대학 미진학 및 졸업자, 농산어촌 거주자,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집단의 구직활동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성별로는 여자(3.0%)가 남자(1.4%)보다 구직활동을 했다는 응답이 높음.
 - 학교급별로는 대학 미진학 및 졸업자(22.4%)의 구직활동 응답이 가장 높은 반면 고등학생의 구직활동 응답(0.2%)이 가장 낮음.
 - 거주지역별로는 농산어촌(2.8%) 거주자의 구직활동을 했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반면 대도시(1.8%) 거주자의 구직활동을 했다는 응답이 가장 낮음.
 - 가구소득별로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구직활동을 했다는 응답이 높아지며,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집단의 구직활동(5.6%) 응답이 가장 높은 반면 가구소득 600만원 미만(1.0%) 집단의 구직활동 응답이 가장 낮음.
 - 가구형태별로는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4.6%) 집단이 양부모(1.8%) 집단에 비해 구직활동을 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특성별 구직활동률은 19-24세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격차가 크게 나타남.
 - 19-24세 여자(4.9%)와 남자(2.3%)의 구직활동률의 격차(2.6%p)는 13-18세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19-24세 대학 미진학 및 졸업자(23.2%)와 대학생(1.8%)의 구직활동 응답의 격차(21.4%p)는 13-18세보다 상대적으로 큼.
 - 19-24세 농산어촌 청소년(4.9%)과 대도시 청소년(2.8%)의 구직활동 응답의 격차(2.1%p)는 13-18세보다 상대적으로 큼.
 - 19-24세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집단(6.7%)과 600만원 이상 집단(1.7%)의 구직활동 응답의 격차(5.0%p)는 13-18세보다 상대적으로 큼.
 - 19-24세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집단(7.2%)과 양부모 집단(3.1%)의 구직활동 응답의 격차(4.1%p)는 13-18세보다 상대적으로 큼.

○ 19-24세 청소년이 구직활동을 한 경우, 최종 학교를 졸업한 이후 구직활동에 0.49개월을 소요한 것으로 나타나며, '20년(0.63개월)에 비해 0.14개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특성별로는 남자, 대학생, 대도시 거주자, 가구소득 200~400만원 미만 집단,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집단의 구직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남.

- 성별로는 남자(0.56개월)가 여자(0.46개월)에 비해 구직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남.
- 학교급별로는 대학생(0.58개월)의 구직기간이 가장 길고 고등학생(0.08개월)의 구직기간이 상대적으로 가장 짧음.
- 거주지역별로는 대도시 청소년(0.60개월)의 구직기간이 가장 길고 농산어촌 청소년(0.19년)의 구직기간이 상대적으로 가장 짧음.
- 가구소득 수준별로는 가구소득 200만원~400만원 미만 집단(0.80개월)의 구직기간이 가장 길고 가구소득 400~600만원 미만 집단(0.31개월)의 구직기간이 상대적으로 가장 짧음.
- 가구형태별로는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집단(0.98개월)의 구직기간이 양부모 집단(0.37개월)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남.

표 II-136 구직활동 여부 및 구직 기간(13-24세)

(단위: 명, %, 개월)

구분		사례수	전체			13-18세		19-24세		
			예	아니오	구직 기간	예	아니오	예	아니오	구직 기간
연도별	2020	4,537	5.3	94.7	0.63	0.5	99.5	10.0	90.0	0.63
	2023	3,091	2.1	97.9	0.49	0.1	99.9	3.5	96.5	0.49
청소년 성별	남자	1,612	1.4	98.6	0.56	0.1	99.9	2.3	97.7	0.56
	여자	1,479	3.0	97.0	0.46	0.1	99.9	4.9	95.1	0.46
학교급	고등학교	1,194	0.2	99.8	0.08	0.0	100.0	5.6	94.4	0.08
	대학교	1,746	1.7	98.3	0.58	-	100.0	1.8	98.2	0.58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	151	22.4	77.6	0.43	8.1	91.9	23.2	76.8	0.43
거주 지역	대도시	1,371	1.8	98.2	0.60	0.1	99.9	2.8	97.2	0.60
	중소도시	1,340	2.3	97.7	0.51	-	100.0	4.0	96.0	0.51
	농산어촌	380	2.8	97.2	0.19	0.4	99.6	4.9	95.1	0.19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174	5.6	94.4	0.66	-	100.0	6.7	93.3	0.66
	200~400만원 미만	445	3.6	96.4	0.80	0.3	99.7	6.2	93.8	0.80
	400~600만원 미만	1,607	2.0	98.0	0.31	0.1	99.9	3.4	96.6	0.31
	600만원 이상	866	1.0	99.0	0.44	-	100.0	1.7	98.3	0.44
가구 형태	양부모	2,819	1.8	98.2	0.37	0.0	100.0	3.1	96.9	0.37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139	4.6	95.4	0.98	1.1	98.9	7.2	92.8	0.98

* 자료: 김기현 외 (20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7-2. 취업 내용

① 취업 내용

- **(직업)** 청소년(13-24세)이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직업은 서비스직(51.2%)이며, 다음으로 판매종사자(24.0%), 사무종사자(11.9%) 순으로 나타남.
- **(월소득)** 청소년의 월소득은 평균 135.99만원으로, '20년(120.19만원) 대비 15.8만원 증가했으며, 연령대별 소득은 13-18세 평균 72.42만원, 19-24세 평균 139.75만원으로 나타남.
- **(취업형태)** 청소년의 취업형태는 임금근로자 83.6%, 비임금근로자 16.4%이며, '17년 이후로 임금근로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특히 13-18세의 비임금근로자의 증가율이 19-24세에 비해 크게 나타남.
- **(임금근로자 근로형태)**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는 비정규직 70.2%, 정규직 29.8%으로 '20년(71.6%)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1.4%p 줄었으나 여전히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으며, 특히 13-18세의 비정규직 비율(88.0%)이 19-24세(69.4%)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임금근로자 근로시간)**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시간제 62.1%, 전일제 37.9%이며, '20년 (62.7%) 대비 시간제 응답이 0.6%p 줄었으나 여전히 시간제 비율이 전일제보다 높고, 특히 13-18세(84.6%)가 19-24세(61.1%)에 비해 시간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비임금근로자 종사상지위)**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44.5%, 무급가족종사자 29.7%,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25.9% 순으로, '20년 대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증가했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의 응답은 감소하였으며, 연령대별로 13-18세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54.3%) 비율이 높은 반면, 19-24세 연령대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26.9%)와 무급가족 종사자(30.0%)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청소년(13-24세)이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직업은 서비스직으로 51.2%이며, 다음으로 판매종사자(24.0%), 사무종사자(11.9%) 순으로 나타나며, 13-18세와 19-24세 연령대별로도 동일하게 나타남.

○ '20년 대비 서비스종사자(3.8%p)의 응답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사무종사자(4.1%p) 응답이 가장 많이 감소함.

- 관리자: '17년 0.9%→'20년 0.2%→'23년 0.2%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7년 6.9%→'20년 3.3%→'23년 4.0%
- 사무종사자: '17년 21.4%→'20년 16.0%→'23년 11.9%
- 서비스종사자: '17년 44.7%→'20년 47.4%→'23년 51.2%
- 판매종사자: '17년 18.1%→'20년 26.3%→'23년 24.0%
-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20년 0.3%→'23년 0.2%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7년 2.6%→'20년 1.8%→'23년 3.5%
-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7년 1.5%→'20년 0.4%→'23년 1.1%
- 단순노무 종사자: '17년 3.3%→'20년 4.1%→'23년 3.2%
- 직업군인: '17년 0.7%→'20년 0.2%→'23년 0.6%

○ 연령대별로 상대적으로 더 많이 종사하는 직업이 다르게 나타남.

- 13-18세가 19-24세보다 응답이 높은 직업은 서비스 종사자(63.5%), 판매 종사자(24.9%), 단순노무 종사자(3.3%)임.
- 19-24세가 13-18세에 비해 더 많이 종사하는 직업은 관리자(0.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4.2%), 사무종사자(12.2%),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3.7%), 직업군인(0.6%)임.

○ 13-24세 청소년의 월소득은 평균 135.99만원으로, '20년(120.19만원) 대비 15.8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17년 122.78만원→'20년 120.19만원→'23년 135.99만원

○ 월소득은 연령대별로 다르게 나타나며, 13-18세 평균 72.42만원, 19-24세 평균 139.75만원이며, '20년 대비 13-18세는 7.81만원, 19-24세는 16.23만원 증가함.

- 13-18세: '17년 64.50만원→'20년 64.61만원→'23년 72.42만원
- 19-24세: '17년 127.72만원→'20년 123.52만원→'23년 139.75만원

○ 취업자의 취업형태는 임금근로자 83.6%, 비임금근로자 16.4%로, '17년 이후로 임금근로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임금근로자: '17년 96.6%→'20년 89.0%→'23년 83.6%
- 비임금근로자: '17년 3.4%→'20년 11.0%→'23년 16.4%

- 취업형태는 연령대별로 13-18세와 19-24세 모두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높으며, 13-18세의 임금근로자 감소율이 19-24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13-18세: (임금근로자) '17년 94.8%→'20년 76.9%→'23년 63.4%
(비임금근로자) '17년 5.2%→'20년 23.1%→'23년 36.6%
 - 19-24세: (임금근로자) '17년 96.8%→'20년 89.7%→'23년 84.8%
(비임금근로자) '17년 3.2%→'20년 10.3%→'23년 15.2%
-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는 비정규직 70.2%, 정규직 29.8%이며, '20년(71.6%)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1.4%p 줄었으나 여전히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음.
 - 정규직: '17년 35.5%→'20년 28.4%→'23년 29.8%
 - 비정규직: '17년 64.5%→'20년 71.6%→'23년 70.2%
-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3-18세는 비정규직 88.0%, 정규직 12.0%이고 19-24세는 비정규직 69.4%, 정규직 30.6%로, 13-18세 연령대의 비정규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13-18세: 정규직 12.0% < 비정규직 88.0%
 - 19-24세: 정규직 30.6% < 비정규직 69.4%
-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시간제 62.1%, 전일제 37.9%이며, '20년(62.7%) 대비 시간제 응답이 0.6%p 줄었으나 여전히 시간제 비율이 전일제보다 높음.
 - 전일제: '17년 45.3%→'20년 37.3%→'23년 37.9%
 - 시간제: '17년 54.7%→'20년 62.7%→'23년 62.1%
-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3-18세는 시간제 84.6%, 전일제 15.4%이며 19-24세는 시간제 61.1%, 전일제 38.9%로 나타나, 13-18세 연령대가 19-24세에 비해 시간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13-18세: 전일제 15.4% < 시간제 84.6%
 - 19-24세: 전일제 38.9% < 시간제 61.1%

-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44.5%, 무급가족종사자 29.7%,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25.9% 순으로 나타나며, '20년 대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증가한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의 응답은 감소함.
 -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7년 33.9%→'20년 3.1%→'23년 44.5%
 -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17년 46.0%→'20년 41.5%→'23년 25.9%
 - 무급가족종사자: '17년 20.1%→'20년 55.4%→'23년 29.7%
- 연령대별로 13-18세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54.3%)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19-24세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26.9%)와 무급가족 종사자(30.0%)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13-18세: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54.3%) > 무급가족종사자(27.2%) >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18.5%)
 - 19-24세: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43.1%) > 무급가족종사자(30.0%) >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26.9%)

표 II-137 취업 내용 : 13-24세 ①

(단위: %)

구분		년도	전체	13-18세	19-24세
직업	관리자	2017	0.9	-	0.9
		2020	0.2	2.5	0.1
		2023	0.2	-	0.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017	6.9	-	7.5
		2020	3.3	-	3.5
		2023	4.0	1.0	4.2
	사무 종사자	2017	21.4	9.7	22.4
		2020	16.0	3.2	16.7
		2023	11.9	6.1	12.2
	서비스 종사자	2017	44.7	53.6	44.0
		2020	47.4	55.7	46.9
		2023	51.2	63.5	50.5
	판매 종사자	2017	18.1	27.6	17.3
		2020	26.3	22.2	26.6
		2023	24.0	24.9	24.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2017	-	-	-
		2020	0.3	-	0.3
		2023	0.2	-	0.2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017	2.6	0.6	2.8
		2020	1.8	1.5	1.8
		2023	3.5	1.2	3.7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2017	1.5	1.2	1.5
		2020	0.4	-	0.5
		2023	1.1	-	1.2
	단순노무 종사자,	2017	3.3	7.3	3.0
		2020	4.1	14.8	3.4
		2023	3.2	3.3	3.2
	직업군인	2017	0.7	-	0.7
		2020	0.2	-	0.2
		2023	0.6	-	0.6

* 자료: 백혜정 외 (2017).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김기현 외 (20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표 II-138

취업 내용 : 13-24세 ②

(단위: %, 만원)

구분		년도	전체	13-18세	19-24세
월소득	100만원 미만	2017	45.9	80.8	42.9
		2020	51.0	81.0	49.2
		2023	43.2	74.2	41.4
	100~200만원 미만	2017	32.6	17.3	33.8
		2020	25.5	17.0	26.0
		2023	25.1	20.4	25.4
	200~300만원 미만	2017	18.3	1.9	19.7
		2020	22.1	2.0	23.3
		2023	26.0	5.4	27.2
	300~400만원 미만	2017	1.9	-	2.0
		2020	0.9	-	1.0
		2023	5.2	-	5.6
	400~500만원 미만	2017	0.2	-	0.3
		2020	0.4	-	-
		2023	0.3	-	0.3
	500~600만원 미만	2017	0.2	-	0.2
		2020	0.1	-	0.4
		2023	0.1	-	0.2
	평균	2017	122.78	64.50	127.72
		2020	120.19	64.61	123.52
		2023	135.99	72.42	139.75
취업형태	임금근로자	2017	96.6	94.8	96.8
		2020	89.0	76.9	89.7
		2023	83.6	63.4	84.8
	비임금근로자	2017	3.4	5.2	3.2
		2020	11.0	23.1	10.3
		2023	16.4	36.6	15.2
(임금근로자) 근로형태	정규직	2017	35.5	16.3	37.0
		2020	28.4	3.7	29.6
		2023	29.8	12.0	30.6
	비정규직	2017	64.5	83.7	63.0
		2020	71.6	96.3	70.4
		2023	70.2	88.0	69.4
(임금근로자) 근로시간	전일제	2017	45.3	16.9	47.7
		2020	37.3	6.5	38.9
		2023	37.9	15.4	38.9
	시간제	2017	54.7	83.1	52.3
		2020	62.7	93.5	61.1
		2023	62.1	84.6	61.1

표 II-139

취업내용 : 13-24세 ③

(단위: %)

구분		년도	전체	13-18세	19-24세
비임금근로자 종사상지위	고용원(종업원) 있는 자영업자	2017	33.9	15.0	36.5
		2020	3.1	25.9	-
		2023	44.5	54.3	43.1
	고용원(종업원) 없는 자영업자	2017	46.0	15.3	50.2
		2020	41.5	9.7	45.8
		2023	25.9	18.5	26.9
	무급가족종사자	2017	20.1	69.7	13.3
		2020	55.4	64.4	54.2
		2023	29.7	27.2	30.0

* 자료: 백혜정 외 (2017).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김기현 외 (20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② 직업 선택 이유

- 취업자(13-24세)를 대상으로 현재의 일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를 조사한 결과,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라는 응답이 27.1%로 가장 높고, 근로조건에 만족해서(16.4%), 학업, 학원수강, 직업훈련, 취업준비 등을 병행하기 위해(14.3%) 등의 순으로 나타나며, 연령대별로도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의 응답이 가장 높음.
- 일자리 선택 이유의 '20년 대비 응답 변화를 살펴보면 '경력을 쌓아 다음 직장으로 이직하려고'의 응답이 가장 많이 증가(3.8%p)한 반면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서'의 응답이 가장 많이 감소(3.2%p)함.
- 연령대별로 상대적으로 응답이 높은 항목이 차이를 보이며, 13-18세는 '근로조건에 만족해서',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 '노력한 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어서', '가족의 일을 도와야 해서' 등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고, 19-24세는 '안정적인 일자리이기 때문에',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서', '경력을 쌓아 다음 직장으로 이직하려고', '육아, 가사 등을 병행하기 위해', '학업, 학원수강, 직업훈련, 취업준비 등을 준비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서'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 취업자(13-24세)를 대상으로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를 측정한 결과,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가 27.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근로조건에 만족해서(16.4%), 학업, 학원수강, 직업훈련, 취업준비 등을 병행하기 위해(14.3%) 등으로 나타남.
 -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27.1%) > 근로조건에 만족해서(16.4%) > 학업, 학원수강, 직업훈련, 취업준비 등을 병행하기 위해(14.3%) > 안정적인 일자리이기 때문에(8.7%) > 경력을 쌓아 다음 직장으로 이직하려고(8.5%) > 노력한 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어서(7.1%) >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서(5.3%), 근무시간을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서(5.3%) >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3.3%) > 가족의 일을 도와야 해서(2.0%) > 기타(1.9%) > 육아, 가사 등을 병행하기 위해(0.1%)
-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의 응답 변화를 살펴보면 '경력을 쌓아 다음 직장으로 이직하려고'의 응답이 가장 많이 증가한 반면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서'의 응답이 가장 많이 감소함.
 - '20년 대비 응답이 증가한 항목은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경력을 쌓아 다음 직장으로 이직하려고', '학업, 학원수강, 직업훈련, 취업준비 등을 병행하기 위해', '기타'이며 '경력을 쌓아 다음 직장으로 이직하려고'의 응답의 증가폭이 3.8%p로 가장 큼.

- '20년 대비 응답이 감소한 항목은 '근로조건에 만족해서', '안정적인 일자리이기 때문에',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서', '노력한 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어서', '근무시간을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서', '가족의 일을 도와야 해서'이며,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서'의 응답의 감소폭이 3.2%p로 가장 큼.

○ 연령대별로 13-18세와 19-24세 모두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의 응답이 가장 높음.

- 13-18세: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31.9%) > '근로조건에 만족해서'(28.0%) > '노력한 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어서'(13.2%) 등
- 19-24세: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26.8%) > '근로조건에 만족해서'(15.8%) > '학업, 학원수강, 직업훈련, 취업준비 등을 병행하기 위해'(14.6%) 등

○ 연령대별로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한 직업선택 사유는 다르게 나타남.

- 13-18세의 응답이 높은 항목은 '근로조건에 만족해서',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 '노력한 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어서', '가족의 일을 도와야 해서', '기타' 항목이며, 19-24세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항목은 '안정적인 일자리이기 때문에',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서', '경력을 쌓아 다음 직장으로 이직하려고', '육아, 가사 등을 병행하기 위해', '학업, 학원수강, 직업훈련, 취업준비 등을 준비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서'로 나타남.

○ 특성별로 직업선택의 이유가 다르게 나타남.

- 성별로는 남자는 여자에 비해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서', '경력을 쌓아 다음 직장으로 이직하려고', '학업, 학원수강, 취업준비 등을 병행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서', '가족의 일을 도와야 해서', '기타'의 응답이 높은 반면 여자는 '근로조건에 만족해서', '안정적인 일자리이기 때문에',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노력한 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어서'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은 '근로조건에 만족해서'와 '가족의 일을 도와야 해서'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대학생은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 '학업, 학원수강, 직업훈련, 취업준비 등을 병행하기 위해', '노력한 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어서', '근무시간을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서'의 응답이 높았으며, 대학에 미진학했거나 졸업한 청소년은 '안정적인 일자리이기 때문에',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서', '경력을 쌓아 다음 직장으로 이직하려고'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 거주지역별로는 대도시 청소년은 ‘학업, 학원수강, 직업훈련, 취업준비 등을 병행하기 위해’, ‘노력한 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어서’, ‘근무시간을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서’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중소도시 청소년은 ‘안정적인 일자리이기 때문에’,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경력을 쌓아 다음 직장으로 이직하려고’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농산어촌 청소년은 ‘근로조건에 만족해서’,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서’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 가구소득별로는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집단에서는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 200~400만원 미만 집단에서는 ‘근로조건에 만족해서’의 응답이 가장 높았고, 가구소득 400~600만원 미만 집단에서는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서’, ‘학업, 학원수강, 직업훈련, 취업준비 등을 병행하기 위해’, ‘노력한 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어서’의 응답이 높았으며,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 집단에서는 ‘안정적인 일자리이기 때문에’,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경력을 쌓아 다음 직장으로 이직하려고’, ‘근무시간을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서’, ‘가족의 일을 도와야 해서’, ‘기타’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 가구형태별로는 양부모 집단은 ‘전공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학업, 학원수강, 직업훈련, 취업준비 등을 병행하기 위해’, ‘노력한 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어서’,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서’, ‘가족의 일을 도와야 해서’, ‘기타’의 응답이 높았고,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집단은 ‘근로조건에 만족해서’, ‘안정적인 일자리이기 때문에’,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서’, ‘경력을 쌓아 다음 직장으로 이직하려고’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140

직업 선택 이유(13~24세)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체												13~18세												19~24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연도별	2020	1,091	17.4	10.9	24.2	8.5	2.8	4.7	0.1	12.7	7.5	6.9	4.3	-	10.3	3.2	20.7	12.3	2.6	3.3	12.0	6.8	16.1	12.7	-	17.9	11.4	24.4	8.3	2.8	4.7	0.1	12.7	7.6	6.4	3.8	-
	2023	1,352	16.4	8.7	27.1	5.3	3.3	8.5	0.1	14.3	7.1	5.3	2.0	1.9	28.0	-	31.9	1.2	0.7	2.2	9.2	13.2	5.2	4.9	3.4	15.8	9.2	26.8	5.6	3.5	8.9	0.1	14.6	6.7	5.3	1.8	1.8
청소년 성별	남자	702	15.2	5.9	27.4	7.2	2.3	9.6	0.2	14.4	7.0	5.5	2.5	2.6	26.5	-	33.4	-	-	-	4.7	19.6	6.9	4.7	4.3	14.6	6.3	27.0	7.6	2.5	10.2	0.3	14.9	6.3	5.4	2.4	2.6
	여자	650	17.8	11.7	26.7	3.3	4.4	7.3	-	14.2	7.1	5.0	1.3	1.1	29.7	-	30.3	2.5	1.5	4.5	14.0	6.4	3.5	5.1	2.4	17.1	12.4	26.5	3.4	4.6	7.4	-	14.2	7.2	5.1	1.1	1.0
학교급	고등학교	70	28.2	2.1	26.8	7.2	-	7.7	-	2.2	12.3	4.7	5.3	3.6	24.6	-	33.5	2.1	-	2.1	3.6	12.3	7.5	8.5	5.8	34.0	5.5	15.7	15.7	-	16.8	-	-	12.2	-	-	-
	대학교	862	14.8	2.9	32.5	3.2	1.3	3.3	0.2	21.9	7.9	7.8	2.3	2.0	32.0	-	30.7	-	1.9	-	19.1	16.2	-	-	-	14.3	3.0	32.5	3.3	1.2	3.4	0.2	22.0	7.6	8.1	2.4	2.1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	420	17.8	21.9	16.1	9.4	8.1	19.2	-	0.7	4.6	0.2	0.7	1.3	39.1	-	21.9	-	-	20.3	-	-	18.7	-	-	17.6	22.0	16.0	9.5	8.2	19.2	-	0.7	4.7	-	0.7	1.3
거주 지역	대도시	572	15.1	6.7	24.7	3.7	3.0	7.0	-	20.1	8.4	8.1	1.9	1.4	15.9	-	20.3	-	1.7	2.3	18.7	14.0	10.3	8.8	8.0	15.1	7.1	25.0	3.9	3.0	7.3	-	20.2	8.1	7.9	1.5	1.0
	중소도시	611	16.9	10.5	26.7	5.5	3.8	10.5	0.3	12.1	6.8	3.0	2.0	1.8	30.0	-	38.3	3.2	-	3.2	3.4	19.4	2.3	-	-	16.3	11.0	26.2	5.6	4.0	10.9	0.3	12.5	6.2	3.0	2.1	1.9
	농산어촌	168	19.4	9.1	36.3	10.3	2.8	6.2	-	2.3	3.5	4.0	1.9	4.3	49.8	-	44.3	-	-	-	-	-	-	5.9	-	16.3	10.0	35.5	11.3	3.1	6.8	-	2.6	3.8	4.3	1.5	4.7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172	15.7	2.5	57.5	4.1	-	5.9	-	5.2	2.1	3.7	1.8	1.4	23.7	-	50.0	-	-	-	-	26.3	-	-	-	15.6	2.6	57.6	4.2	-	6.0	-	5.3	1.7	3.7	1.9	1.5
	200~400만원 미만	298	17.7	9.6	36.2	5.8	4.3	9.7	-	4.4	7.2	1.3	2.1	1.8	14.7	-	41.9	-	-	-	16.2	8.9	3.7	10.5	4.1	17.9	10.2	35.8	6.1	4.6	10.3	-	3.7	7.1	1.2	1.6	1.6
	400~600만원 미만	520	17.5	8.2	21.7	5.9	3.0	5.8	0.3	21.4	8.5	4.3	1.5	1.8	32.6	-	22.7	2.7	1.6	2.1	7.4	20.3	-	5.3	5.3	16.4	8.8	21.7	6.2	3.1	6.0	0.4	22.4	7.7	4.6	1.2	1.5
	600만원 이상	362	14.3	11.7	12.8	4.7	4.5	12.6	-	16.5	7.2	10.7	2.6	2.5	32.7	-	36.2	-	-	4.5	7.5	3.1	16.2	-	-	13.2	12.4	11.4	4.9	4.8	13.1	-	17.0	7.4	10.4	2.8	2.6
가구 형태	양부모	939	15.4	8.7	21.9	4.3	3.3	8.4	0.2	18.5	7.9	6.8	2.5	2.2	28.8	-	30.7	1.3	0.8	2.4	10.1	13.4	4.8	4.0	3.7	14.3	9.4	21.2	4.5	3.5	8.9	0.2	19.2	7.4	7.0	2.3	2.0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103	16.3	14.6	36.3	6.9	1.2	9.0	-	6.5	5.3	0.6	2.1	1.3	20.6	-	44.7	-	-	-	-	10.9	9.8	14.0	-	16.0	15.6	35.7	7.3	1.3	9.6	-	7.0	5.0	-	1.2	1.4

* 주: ① 근로조건(근로시간, 임금 등)에 만족해서, ② 안정적인 일자리이기 때문에, ③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 ④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서, ⑤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⑥ 경력을 쌓아 다음 직장으로 이직하려고, ⑦ 육아, 가사 등을 병행하기 위해, ⑧ 학업, 학원수강, 직업훈련, 취업준비 등을 병행하기 위해, ⑨ 노력한 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어서, ⑩ 근무시간을 신중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서, ⑪ 가족의 일을 도와야 해서, ⑫ 기타

* 자료: 김기현 외 (20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7-3. 부당행위 경험

① 임금근로자가 일을 하면서 경험한 부당행위

- 청소년(13-24세)이 가장 많이 경험한 부당행위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 함’(20.8%)이며, 다음으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함’(11.7%),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함(8.4%)’ 등으로 나타남.
- 청소년이 경험한 부당행위 총 8개 항목 중 6개 항목의 경험률이 ‘20년 대비 증가했으며,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받음’의 경험률이 가장 크게 증가(5.5%p)한 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 함’의 경험률이 가장 크게 감소(9.4%p)함.
- 13-18세는 19-24세에 비해 총 8개 항목 중 7개 항목의 부당행위 경험률이 높게 나타남.
- 특성별로 경험한 부당행위의 응답에 차이를 나타내는데, 특히 남자는 여자에 비해 모든 종류의 부당행위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임금근로자(13-24세)가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경험한 부당행위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 함’의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함’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 함(20.8%) >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함(11.7%) >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함(8.4%) >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받음(8.2%) >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을 받지 못함(6.5%) > 정해진 근로시간을 과도하게 초과해 근무함(6.0%) > 일을 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함(2.9%) > 일을 하다가 다쳤지만 치료받지 못함(1.1%)

○ 부당행위 총 8개 항목 중 6개 항목의 경험률은 ‘20년 대비 증가했으며,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받음’은 ‘20년에 비해 응답이 가장 많이 증가(5.5%p)한 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 함’은 응답이 가장 많이 감소(9.4%p)하였음.

-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 함: ‘20년 30.2%→’23년 20.8%
- 일을 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함: ‘20년 0.8%→’23년 2.9%
-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받음: ‘20년 2.7%→’23년 8.2%
- 일을 하다가 다쳤지만 치료받지 못함: ‘20년 0.8%→’23년 1.1%
-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을 받지 못함: ‘20년 3.1%→’23년 6.5%
-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함: ‘20년 8.4%→’23년 11.7%
- 정해진 근로시간을 과도하게 초과해 근무함: ‘20년 6.4%→’23년 6.0%
-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함: ‘20년 5.7%→’23년 8.4%

- 13-18세는 19-24세에 비해 8개 항목 중 7개 항목의 부당행위 경험률이 높게 나타남.
 -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 함: 13-18세 29.7% > 19-24세 20.4%
 - 일을 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함: 13-18세 4.1% > 19-24세 2.9%
 -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받음: 13-18세 11.0% > 19-24세 8.1%
 - 일을 하다가 다쳤지만 치료받지 못함: 13-18세 2.0% > 19-24세 1.1%
 -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을 받지 못함: 13-18세 12.0% > 19-24세 6.2%
 -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함: 13-18세 18.5% > 19-24세 11.4%
 - 정해진 근로시간을 과도하게 초과해 근무함: 13-18세 9.2% > 19-24세 5.8%
 -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함: 13-18세 7.1% < 19-24세 8.4%

- 특성별로 경험한 부당행위의 응답에 차이를 나타내는데, 특히 남자는 여자에 비해 모든 종류의 부당행위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성별로는 남자는 여자보다 모든 종류의 부당행위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 학교급별로는 대학생은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 함’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고, 대학에 미진학했거나 졸업한 청소년은 ‘정해진 근로시간을 과도하게 초과해 근무함’과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함’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나머지 모든 부당행위들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고등학생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음.
 - 거주지역별로 중소도시 청소년은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 함’, ‘일을 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함’,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받음’, ‘일을 하다가 다쳤지만 치료받지 못함’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농산어촌 청소년은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을 받지 못함’,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함’, ‘정해진 근로시간을 과도하게 초과해 근무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함’을 경험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 가구형태별로는 양부모 집단에서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받음’,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함’, ‘정해진 근로시간을 과도하게 초과해 근무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함’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집단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 함’, ‘일을 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함’,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을 받지 못함’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특성별로 경험한 부당행위 응답은 연령대별로 차이를 나타냄.
 - 성별로는 19-24세 남자가 여자보다 모든 부당행위의 응답이 높게 나타나지만, 13-18세는 ‘일을 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함’과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받음’의 응답이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반면 나머지 모든 부당행위의 응답은 여자가 상대적으로 높게 남.

- 거주지역별로는 13-18세는 19-24세에 비해 농산어촌 청소년들이 경험한 부당행위의 종류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남.
- 13-18세 양부모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 함’은 19-24세에서는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집단에서 높게 나타나며, 13-18세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에서 높게 나타난 ‘정해진 근로시간을 과도하게 초과해 근무함’과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함’은 19-24세에서는 양부모 집단에서 높게 나타남.

표 II-141 일을 하면서 경험한 부당행위(13-24세)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체								13-18세								19-24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연도별	2020	1,091	30.2	0.8	2.7	0.8	3.1	8.4	6.4	5.7	48.0	2.4	2.4	0.8	3.7	17.1	8.1	14.3	29.1	0.7	2.8	0.8	3.0	7.8	6.3	5.2
	2023	1,130	20.8	2.9	8.2	1.1	6.5	11.7	6.0	8.4	29.7	4.1	11.0	2.0	12.0	18.5	9.2	7.1	20.4	2.9	8.1	1.1	6.2	11.4	5.8	8.4
청소년 성별	남자	576	21.9	3.1	8.9	1.4	8.2	12.5	6.0	8.8	17.9	4.3	13.8	3.4	8.7	17.7	6.6	3.2	22.1	3.0	8.7	1.3	8.2	12.2	6.0	9.1
	여자	553	19.7	2.8	7.5	0.8	4.6	11.0	5.9	8.0	47.5	3.8	6.8	-	16.9	19.7	13.1	13.1	18.7	2.8	7.5	0.9	4.2	10.6	5.7	7.8
학교급	고등학교	51	16.0	5.4	11.9	1.9	9.0	16.6	4.9	3.0	27.5	5.1	19.0	4.1	12.9	28.9	10.3	6.2	5.5	5.5	5.5	-	5.5	5.5	-	-
	대학교	693	25.1	2.2	9.7	1.2	7.1	14.0	5.1	7.8	36.2	3.4	3.4	-	12.6	9.2	9.2	9.2	24.7	2.2	9.9	1.2	6.9	14.1	5.0	7.8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	386	13.8	3.9	5.1	1.0	5.0	7.1	7.6	10.1	-	-	-	-	-	-	-	-	13.9	3.9	5.1	1.0	5.0	7.2	7.7	10.2
거주 지역	대도시	475	17.3	1.4	3.5	-	4.6	10.2	4.8	4.8	33.4	3.6	12.9	-	25.8	22.2	13.0	14.3	16.6	1.3	3.1	-	3.6	9.7	4.4	4.4
	중소도시	515	23.6	4.1	12.8	2.3	7.5	11.0	5.9	9.2	23.6	6.0	13.2	4.7	2.8	8.8	8.8	2.8	23.6	4.0	12.8	2.2	7.7	11.1	5.8	9.5
	농산어촌	140	22.2	3.7	7.3	0.8	9.1	19.4	10.1	17.3	36.4	-	-	-	-	35.7	-	-	21.4	3.9	7.7	0.9	9.5	18.5	10.7	18.2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144	19.5	4.8	5.2	1.8	6.8	12.2	4.6	6.8	-	-	-	-	-	-	-	-	19.6	4.9	5.2	1.8	6.8	12.3	4.6	6.8
	200~400만원 미만	247	18.1	2.5	7.0	0.8	5.9	10.6	5.9	7.5	51.7	19.7	34.7	-	32.4	37.6	37.6	25.2	16.6	1.8	5.9	0.9	4.8	9.5	4.6	6.8
	400~600만원 미만	423	20.3	1.9	10.9	0.4	6.0	12.5	6.0	7.9	30.0	-	9.2	-	9.2	15.8	-	4.6	19.9	2.0	11.0	0.4	5.8	12.3	6.3	8.1
	600만원 이상	315	24.2	3.8	6.9	2.1	7.5	11.4	6.7	10.4	17.6	-	-	5.7	3.9	11.3	3.9	-	24.6	4.0	7.3	1.9	7.7	11.4	6.8	11.0
가구 형태	양부모	767	20.4	2.3	9.7	1.3	6.6	12.1	6.8	8.0	29.7	4.4	10.7	2.2	11.7	18.8	8.7	6.4	19.8	2.1	9.6	1.3	6.2	11.7	6.6	8.1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90	21.6	6.8	9.2	-	7.4	11.0	4.6	5.4	28.9	-	15.4	-	15.4	15.4	15.4	15.4	21.3	7.1	8.9	-	7.0	10.8	4.1	4.9

* 주: ①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 함, ② 일을 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함, ③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받음, ④ 일을 하다가 다쳤지만 치료받지 못함, ⑤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을 받지 못함, ⑥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함, ⑦ 정해진 근로시간을 과도하게 초과해 근무함, ⑧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함.

* 자료: 김기현 외 (20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② 부당행위 경험

- **(고용주/다른 직원으로부터 경험한 부당행위)** 청소년(13-24세)이 고용주나 다른 직원으로부터 경험한 부당행위는 '20년에 비해 모든 항목의 경험률이 낮아졌으며, 청소년이 경험한 부당행위는 '욕설, 폭언, 모욕적인 말'의 4.1%로 가장 높고, '(성, 외모, 연령 등으로) 차별'(1.7%), '무시당하거나, 왕따'(1.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 13-18세는 '(성, 외모, 연령 등으로) 차별'(4.2%), 19-24세 연령대는 '욕설, 폭언, 모욕적인 말'(4.2%)을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손님으로부터 경험한 부당행위)** 청소년이 손님으로부터 경험한 부당행위는 '20년에 비해 모든 항목의 경험률이 낮아졌으며, 청소년이 경험한 부당행위는 '욕설, 폭언, 모욕적인 말'(9.8%), '무시당하거나, 왕따'(2.0%), '(성, 외모, 연령 등으로) 차별'(1.3%)과 '성희롱이나 성추행'(1.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 13-18세와 19-24세 모두 '욕설, 폭언, 모욕적인 말'을 가장 많이 경험했으며, 19-24세는 13-18세에 비해 다양한 종류의 부당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생애 아르바이트 경험과 사회에 대한 인식)**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사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낮음.

○ 청소년(13-24세)이 일을 하면서 고용주 혹은 다른 직원으로부터 경험한 부당행위로는 '욕설, 폭언, 모욕적인 말'의 경험률이 4.1%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성, 외모, 연령 등으로) 차별', '무시당하거나, 왕따' 등으로 나타는데, 모든 부당행위 경험률은 '20년에 비해 감소함.

- 욕설, 폭언, 모욕적인 말을 들은 적이 있다: '20년 4.3%→'23년 4.1%
-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20년 0.5%→'23년 0.1%
- 무시당하거나, 왕따를 당한 적이 있다: '20년 2.2%→'23년 1.3%
- (성, 외모, 연령 등으로) 차별을 당한 적이 있다: '20년 2.1%→'23년 1.7%
-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 '20년 1.0%→'23년 0.5%

○ 연령대별로 경험한 부당행위의 응답이 다르게 나타나며, 13-18세는 '(성, 외모, 연령 등으로) 차별', 19-24세는 '욕설, 폭언, 모욕적인 말'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13-18세: (성, 외모, 연령 등으로) 차별을 당한 적이 있다(4.2%) >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2.5%) > 욕설, 폭언, 모욕적인 말을 들은 적이 있다(1.7%) 등
- 19-24세: 욕설, 폭언, 모욕적인 말을 들은 적이 있다(4.2%) > (성, 외모, 연령 등으로) 차별을 당한 적이 있다(1.5%) > 무시당하거나, 왕따를 당한 적이 있다(1.3%) 등

- 고용주나 다른 직원으로부터 경험한 부당행위는 특성별로 차이를 나타냄.
- 성별로는 여자는 남자에 비해 ‘성희롱이나 성추행’(0.8%)을 경험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고, 남자는 나머지 모든 부당행위의 경험 응답이 여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 학교급별로 고등학생은 ‘(성, 외모, 연령 등으로) 차별’(7.7%)을 경험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고, 대학생은 ‘폭행’(0.2%), ‘무시당하거나 왕따’(1.5%), ‘성희롱이나 성추행’(0.5%)을 경험한 응답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으며, 대학에 미진학했거나 졸업한 청소년은 ‘욕설, 폭언, 모욕적인 말’(5.6%)을 경험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 거주지역별로 대도시 청소년은 ‘성희롱이나 성추행’(0.6%)의 경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고, 중소도시 청소년은 ‘욕설, 폭언, 모욕적인 말’(4.8%), ‘폭행’(0.3%)을 경험한 응답이 높으며, 농산어촌 청소년은 ‘무시당하거나 왕따’(2.7%), ‘(성, 외모, 연령 등으로) 차별’(5.4%)을 경험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 가구소득별로는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집단은 ‘욕설, 폭언, 모욕적인 말’(6.3%), ‘무시당하거나 왕따’(3.2%), ‘(성, 외모, 연령 등으로) 차별’(3.4%)을 경험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고, 400~600만원 미만 집단은 ‘폭행’(0.4%)의 경험 응답이 높음.
 - 가구형태별로는 양부모 집단은 ‘폭행’(0.2%)과 ‘(성, 외모, 연령 등으로) 차별’(1.4%)을 경험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고,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집단에서는 ‘욕설, 폭언, 모욕적인 말’(9.3%), ‘무시당하거나 왕따’(3.2%), ‘성희롱이나 성추행’(2.9%)을 경험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142 고용주/다른 직원으로부터 경험한 부당행위(13-24세)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체					13-18세					19-24세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연도별	2020	1,091	4.3	0.5	2.2	2.1	1.0	5.3	2.6	5.4	5.1	2.6	4.2	0.4	2.0	2.0	0.9
	2023	1,352	4.1	0.1	1.3	1.7	0.5	1.7	-	0.8	4.2	2.5	4.2	0.2	1.3	1.5	0.4
청소년 성별	남자	702	5.6	0.3	1.5	2.2	0.2	1.9	-	-	6.5	-	5.8	0.3	1.6	2.0	0.2
	여자	650	2.5	-	1.0	1.1	0.8	1.6	-	1.6	1.8	5.2	2.6	-	1.0	1.1	0.5
학교급 및 재학 여부	고등학교	70	8.2	-	0.8	7.7	-	3.0	-	1.3	5.7	-	16.7	-	-	11.0	-
	대학교	862	3.0	0.2	1.5	0.9	0.5	-	-	-	-	6.8	3.1	0.2	1.5	0.9	0.3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	420	5.6	-	0.9	2.4	0.4	-	-	-	18.7	-	5.7	-	0.9	2.2	0.4
거주 지역	대도시	572	3.9	-	0.4	0.7	0.6	2.3	-	-	2.9	6.0	4.0	-	0.4	0.6	0.2
	중소도시	611	4.8	0.3	1.7	1.6	0.5	2.1	-	2.1	2.3	-	4.9	0.3	1.7	1.6	0.6
	농산어촌	168	2.2	-	2.7	5.4	-	-	-	-	10.4	-	2.5	-	3.0	4.9	-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172	6.3	-	3.2	3.4	-	26.3	-	-	-	-	5.9	-	3.3	3.4	-
	200~400만원 미만	298	5.4	-	2.5	3.1	0.6	3.2	-	3.2	12.6	10.7	5.6	-	2.5	2.5	-
	400~600만원 미만	520	3.9	0.4	0.5	0.9	0.6	-	-	-	2.7	-	4.2	0.4	0.6	0.8	0.6
	600만원 이상	362	2.2	-	0.4	0.8	0.4	-	-	-	-	-	2.4	-	0.4	0.9	0.4
가구 형태	양부모	939	2.7	0.2	0.4	1.4	0.4	1.1	-	-	3.7	2.8	2.8	0.2	0.5	1.3	0.2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103	9.3	-	3.2	0.6	2.9	8.5	-	8.5	9.8	-	9.3	-	2.9	-	3.1

* 주: ① 욕설, 폭언, 모욕적인 말을 들은 적이 있다, ②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③ 무시당하거나, 왕따를 당한 적이 있다, ④ (성, 외모, 연령 등으로) 차별을 당한 적이 있다, ⑤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

* 자료: 백혜정 외 (2017).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김기현 외 (20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청소년이 일을 하면서 손님부터 경험한 부당행위로는 ‘욕설, 폭언, 모욕적인 말’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9.8%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무시당하거나, 왕따’, ‘(성, 외모, 연령 등으로) 차별’과 ‘성희롱이나 성추행’ 등으로 나타나며, 모든 부당행위 경험 응답은 ‘20년에 비해 감소함.
 - 욕설, 폭언, 모욕적인 말을 들은 적이 있다: ‘20년 15.2%→’23년 9.8%
 -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20년 0.9%→’23년 0.1%
 - 무시당하거나, 왕따를 당한 적이 있다: ‘20년 3.4%→’23년 2.0%
 - (성, 외모, 연령 등으로) 차별을 당한 적이 있다: ‘20년 4.6%→’23년 1.3%
 -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 ‘20년 2.1%→’23년 1.3%
- 연령대별로 13-18세와 19-24세 모두 ‘욕설, 폭언, 모욕적인 말’을 가장 많이 경험했으며, 19-24세가 13-18세에 비해 다양한 종류의 부당행위를 경험함.
 - 13-18세: 욕설, 폭언, 모욕적인 말을 들은 적이 있다(7.5%) > 무시당하거나, 왕따를 당한 적이 있다(0.8%), (성, 외모, 연령 등으로) 차별을 당한 적이 있다(0.8%)
 - 19-24세: 욕설, 폭언, 모욕적인 말을 들은 적이 있다(10.0%) > 무시당하거나, 왕따를 당한 적이 있다(2.1%) > (성, 외모, 연령 등으로) 차별을 당한 적이 있다(1.3%),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1.3%) >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0.2%)
- 손님에게서 경험한 부당행위는 특성별로 차이를 나타냄.
 - 성별로 남자는 여자에 비해 ‘욕설, 폭언, 모욕적인 말’(12.1%), ‘(성, 외모, 연령 등으로) 차별’(1.3%)을 경험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고, 여자는 남자보다 ‘무시당하거나 왕따’(2.6%), ‘성희롱이나 성추행’(1.5%)을 경험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 학교급별로 고등학생은 ‘무시당하거나 왕따’(2.2%), ‘(성, 외모, 연령 등으로) 차별’(2.9%), ‘성희롱이나 성추행’(2.4%)의 경험이 높으며, 대학을 미진학하거나 졸업한 청소년은 ‘욕설, 폭언, 모욕적인 말’(10.1%)을 경험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 거주지역별로 농산어촌 청소년은 ‘욕설, 폭언, 모욕적인 말’(12.1%), ‘(성, 외모, 연령 등으로) 차별’(2.5%), ‘성희롱이나 성추행’(1.6%)을 경험한 응답이 타 지역 청소년에 비해 높음.
 - 가구소득별로는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집단은 ‘무시당하거나 왕따’(3.1%), ‘(성, 외모, 연령 등으로) 차별’(3.8%)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고, 가구소득 200~400만원 미만 집단에서는 ‘욕설, 폭언, 모욕적인 말’(15.9%), ‘성희롱이나 성추행’(1.9%)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 가구형태별로는 양부모 집단은 ‘(성, 외모, 연령 등으로) 차별’(0.7%)을 경험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집단에서는 ‘욕설, 폭언, 모욕적인 말’(16.8%), ‘무시당하거나 왕따’(8.3%)를 경험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11-143

손님으로부터 경험한 부당행위(13~24세)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체					13~18세					19~24세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연도별	2020	1,091	15.2	0.9	3.4	4.6	2.1	4.7	1.3	2.8	4.1	3.2	15.8	0.9	3.4	4.7	2.0
	2023	1,352	9.8	0.1	2.0	1.3	1.3	7.5	-	0.8	0.8	-	10.0	0.2	2.1	1.3	1.3
청소년 성별	남자	702	12.1	0.3	1.4	1.3	1.0	5.1	-	-	-	-	12.5	0.3	1.5	1.4	1.1
	여자	650	7.4	-	2.6	1.2	1.5	10.1	-	1.6	1.6	-	7.2	-	2.7	1.2	1.6
학교급 및 재학 여부	고등학교	70	9.9	-	2.2	2.9	2.4	5.8	-	1.3	1.3	-	16.7	-	3.7	5.4	6.4
	대학교	862	9.7	0.2	2.0	1.7	1.7	8.7	-	-	-	-	9.7	0.2	2.0	1.7	1.7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	420	10.1	-	2.0	0.2	0.2	18.7	-	-	-	-	10.0	-	2.0	0.2	0.2
거주 지역	대도시	572	7.6	-	2.0	1.2	1.5	2.3	-	-	-	-	8.0	-	2.1	1.3	1.5
	중소도시	611	11.3	0.3	2.0	1.0	1.0	8.8	-	2.1	2.1	-	11.4	0.3	2.0	1.0	1.0
	농산어촌	168	12.1	-	2.0	2.5	1.6	16.0	-	-	-	-	11.7	-	2.2	2.7	1.8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172	9.1	-	3.1	3.8	1.0	26.3	-	-	-	-	8.8	-	3.2	3.9	1.0
	200~400만원 미만	298	15.9	0.7	1.7	2.9	1.9	13.8	-	3.2	3.2	-	16.0	0.7	1.6	2.8	2.0
	400~600만원 미만	520	10.9	-	2.4	0.4	1.6	7.2	-	-	-	-	11.2	-	2.5	0.5	1.7
	600만원 이상	362	3.6	-	1.2	-	0.4	-	-	-	-	-	3.9	-	1.3	-	0.4
가구 형태	양부모	939	8.9	0.2	1.4	0.7	1.2	6.5	-	-	-	-	9.1	0.2	1.5	0.7	1.3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103	16.8	-	8.3	0.6	1.2	18.3	-	8.5	8.5	-	16.7	-	8.3	-	1.3

* 주: ① 욕설, 폭언, 모욕적인 말을 들은 적이 있다, ②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③ 무시당하거나, 왕따를 당한 적이 있다, ④ (성, 외모, 연령 등으로) 차별을 당한 적이 있다, ⑤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

* 자료: 김기현 외 (20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별 사회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5가지 문항의 동의 비율(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모든 문항의 동의 비율이 낮게 나타남.
- 연령대별로도 13-18세와 19-24세 모두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사회에 대한 인식 측정 문항의 동의 비율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낮음.
-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에 따른 동의 비율의 격차는 연령대별로 다르게 나타남.
 - 우리 사회는 공정하다: 13-18세 8.5%p < 19-24세 12.0%p
 - 우리 사회는 인권을 존중한다: 13-18세 7.3%p > 19-24세 2.9%p
 - 우리 사회는 다양성을 존중한다: 13-18세 4.7%p > 19-24세 1.6%p
 - 우리 사회는 부정부패가 없다: 13-18세 6.1%p < 19-24세 14.3%p
 - 우리 사회는 믿을 수 없다: 13-18세 3.0p < 19-24세 5.7%p

표 II-144 생애 아르바이트 경험과 사회에 대한 인식(13-24세)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체		13-18세		19-24세	
			아르바이트 경험 있음	아르바이트 경험 없음	아르바이트 경험 있음	아르바이트 경험 없음	아르바이트 경험 있음	아르바이트 경험 없음
사회관	우리 사회는 대체로 공정하다	5,680	47.1	57.2	47.0	55.5	47.1	59.1
	우리 사회는 인권을 존중한다	5,680	64.9	68.0	60.6	67.9	65.2	68.1
	우리 사회는 다양성을 인정한다	5,680	64.7	67.7	64.3	69.0	64.7	66.3
	우리 사회는 부정부패가 없다	5,680	15.6	28.0	20.5	26.6	15.2	29.5
	우리 사회는 믿을 수 있다	5,679	46.1	52.4	50.2	53.2	45.9	51.6

제 III 장

주요 결과 요약 및 제언

1. 주요 결과의 요약
2. 조사 개선을 위한 제언

제 III 장

주요 결과 요약 및 제언

1. 주요 결과의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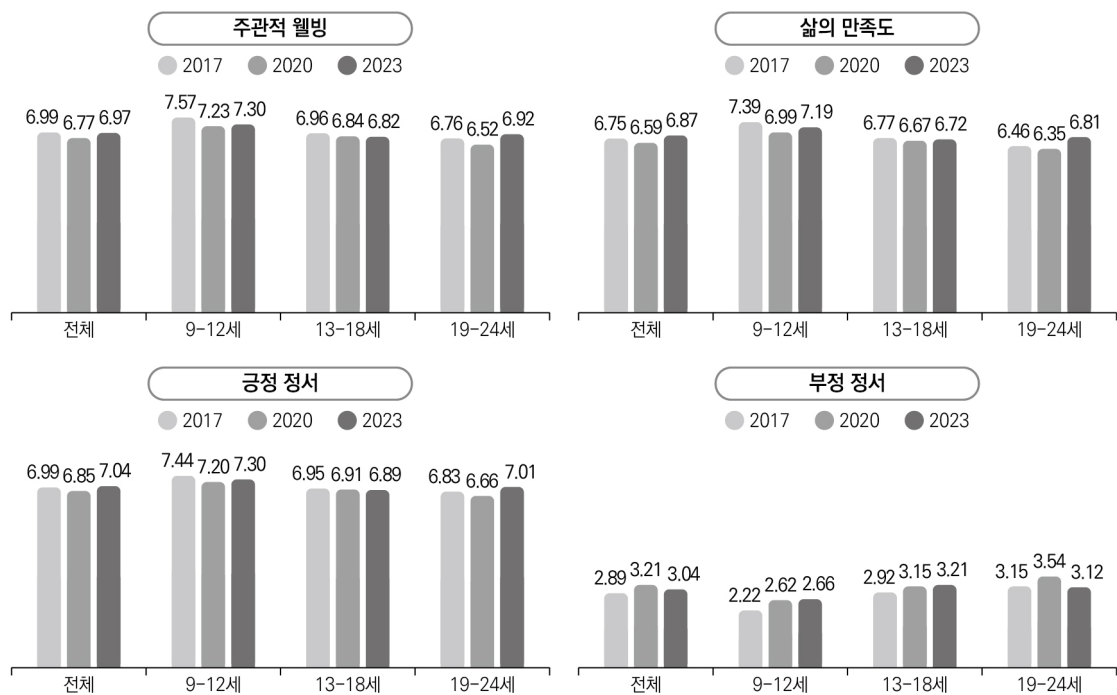
영역 1. 주관적 웰빙 및 일상생활 만족도

《주요 시계열 변화 및 결과 요약》

- ☞ (주관적웰빙) '20년 대비 소폭 증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된 것은 아님.
- ☞ (일상생활만족도) 9-24세 청소년의 일상생활만족도, '20년 대비 전반적으로 낮아짐.
- ☞ (코로나로 인한 삶의 변화) 9-24세 청소년의 절반 이상(58.5%)이 코로나로 인한 삶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인식,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는 응답률 '20년 대비 증가
- ☞ (디지털 기술로 인한 삶의 변화) 9-24세 청소년의 절반가량(51.8%)이 디지털 기술로 인한 삶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인식, 긍정적으로 변화를 인식한 청소년들이 주관적 웰빙수준이나 일상생활만족도 수준 상대적으로 높음.

1-1. 주관적 웰빙 및 일상생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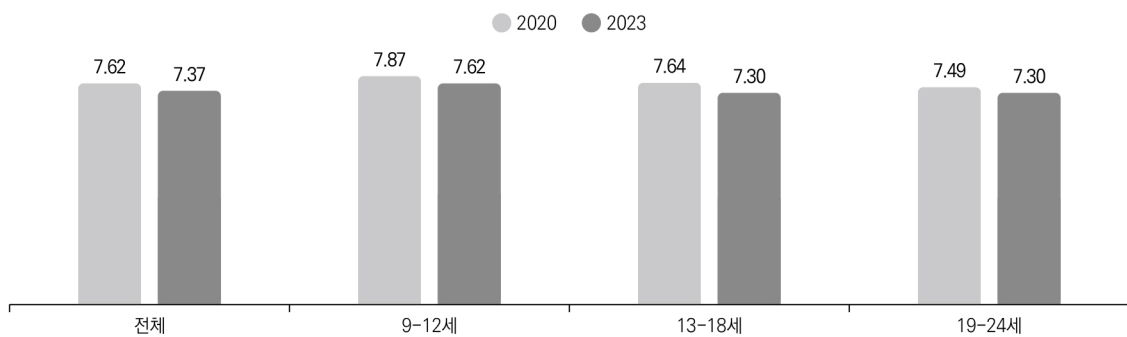
- ① 주관적 웰빙은 '20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코로나 이전 수준만큼 개선된 것은 아님.
코로나 이전 시기보다 9-18세의 주관적 웰빙은 감소, 19-24세는 증가
- 전체 청소년(9-24세)의 주관적 웰빙 인식 수준은 10점 중 6.97점으로, '20년(6.77점) 대비 소폭 상승함.
- 주관적 웰빙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긍정 정서, 부정 정서, 삶의 만족도) 중 긍정 정서와 삶의 만족도는 엔데믹 이후 증가하고, 부정 정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거나 코로나 이전 수준만큼 개선되지 않음.
- 연령대별로는 19세를 기점으로 차이를 보임. 즉, 9-12세, 13-18세 청소년은 코로나 이전 시기보다 긍정 정서와 삶의 만족도는 감소하고 부정 정서는 증가한 반면, 19-24세 후기 청소년은 긍정 정서와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고 부정 정서는 감소하는 긍정적인 변화 경향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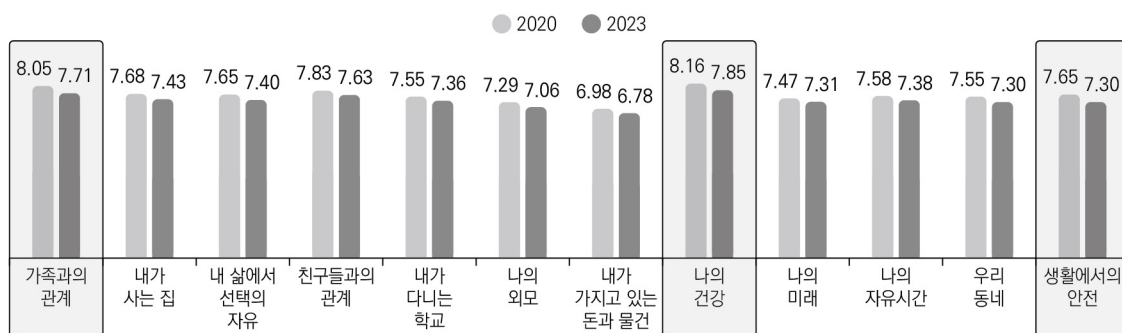
【그림 Ⅲ-1】 주관적 웰빙

② 일상생활 만족도 수준은 '20년 대비 감소, 특히 가족관계, 나의 건강, 생활에서의 안전 측면에서의 만족도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0~10점으로 측정된 '23년 전체 청소년(9-24세)의 일상생활 만족도 점수는 평균 7.37점으로 '20년 대비(7.62점) 대비 낮아짐.
- 측정 항목별로 비교해 보면, 12개의 항목 모두에서 '20년 대비 낮아졌으며, 특히 가족관계, 나의 건강, 생활에서의 안전 측면에서의 만족도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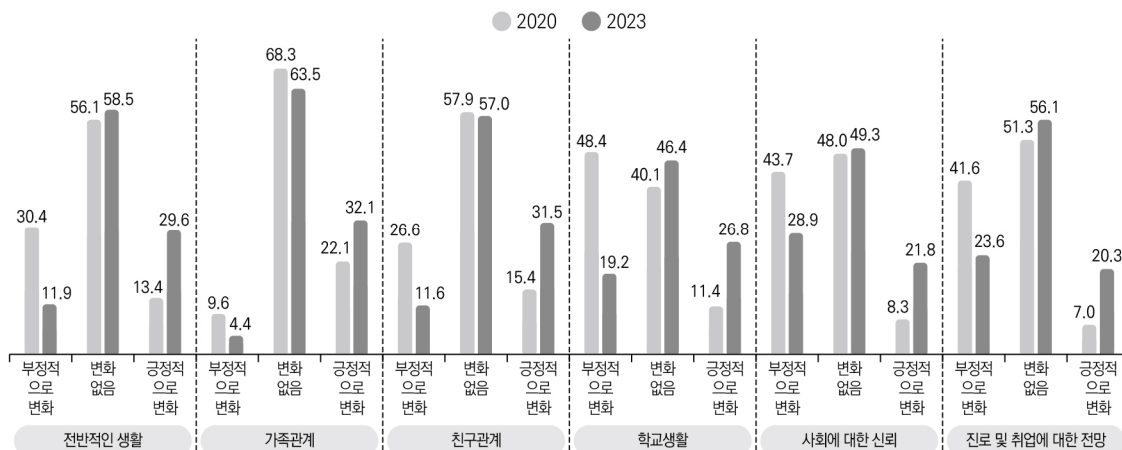
【그림 Ⅲ-2】 일상생활 만족도



【그림 III-3】 일상생활 만족도: 12개 측정 항목 비교

1-2. 코로나로 인한 삶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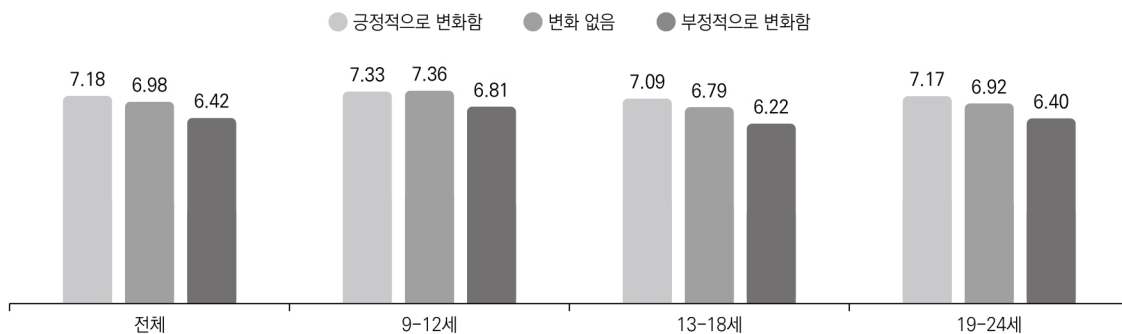
- ① 9-24세 청소년의 58.5%는 코로나 전·후 전반적인 생활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인식, 코로나로 인해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응답한 비율(29.6%)은 '20년(13.4%) 대비 16.2%p 증가
- 9-24세 청소년은 전반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변화가 없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년 대비 전반적인 생활, 가족 및 친구 관계, 학교생활, 사회 신뢰, 진로 및 취업 전망 등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응답한 비율 증가.



【그림 III-4】 코로나로 인한 삶의 변화

② 코로나로 인한 삶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주관적 웰빙 수준, 일상생활 만족도 수준이 높음.

○ 코로나로 인한 전반적인 삶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한 집단(7.18점)이 변화가 없거나(6.98점), 부정적으로 인식한 집단(6.42점)보다 주관적 웰빙 수준이 높음.



【그림 Ⅲ-5】 코로나로 인한 전반적인 생활 변화 인식에 따른 주관적 웰빙 수준

○ 코로나로 인한 가족관계의 변화, 친구관계의 변화, 학교생활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한 집단이 각각 가족관계의 만족도, 친구관계 만족도, 학교 만족도가 높음.

○ 코로나로 인한 전반적인 생활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내 삶에서 선택의 자유, 나의 건강, 나의 미래, 나의 자유 시간, 생활에서의 안전 등의 일상생활 만족도가 높음.

표 Ⅲ-1 코로나로 인한 일상생활 주요 변화 인식에 따른 만족도(9-24세)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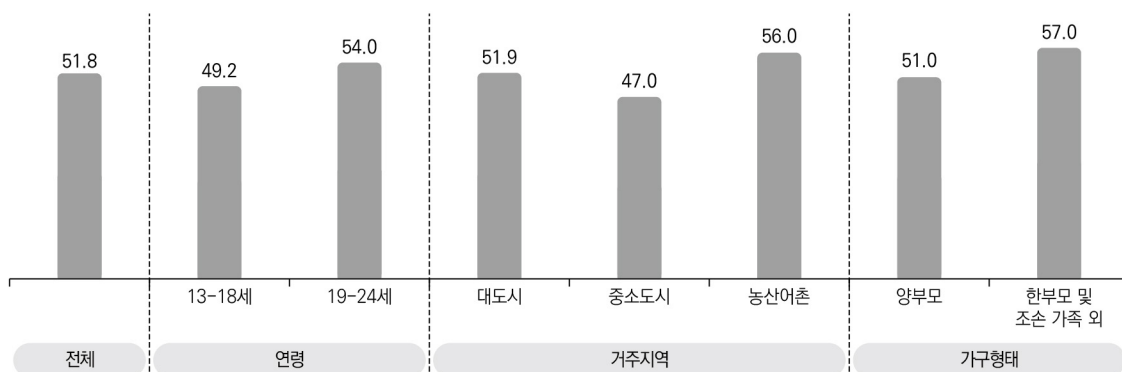
구분		긍정적으로 변화함	변화 없음	부정적으로 변화함
코로나로 인한 가족관계 변화에 따른 가족관계 만족도		8.02	7.64	7.64
코로나로 인한 친구관계 변화에 따른 친구관계 만족도		7.88	7.61	7.05
코로나로 인한 학교생활 변화에 따른 학교 만족도		7.71	7.33	6.96
코로나로 인한 전반적인 삶의 변화에 따른 일상생활만족도	내 삶에서 선택의 자유	7.77	7.32	6.91
	나의 건강	8.02	7.84	7.50
	나의 미래	7.66	7.23	6.80
	나의 자유 시간	7.69	7.33	6.90
	생활에서의 안전	7.62	7.26	6.73

1-3. 디지털 기술로 인한 삶의 변화

① 청소년의 51.8%가 디지털 기술로 인한 삶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특히 농산어촌,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가구의 청소년이 긍정적으로 인식함.

○ 13-24세 청소년 중 51.8%가 디지털 기술로 삶이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응답했으며,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41.8%, 부정적으로 변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6.4%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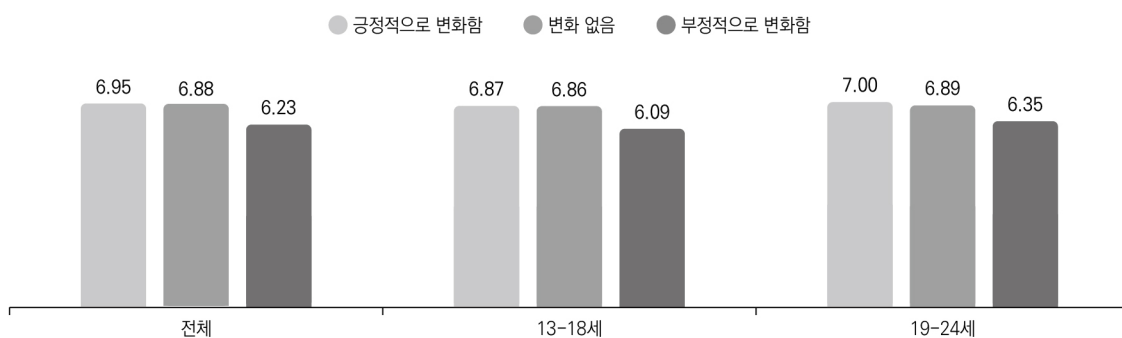
○ 디지털 기술로 인한 삶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19-24세(54.0%) 연령대를 제외하면, 농산어촌 거주 청소년(56.0%),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가구의 청소년(57.0%)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남.



【그림 III-6】 디지털 기술로 인한 삶의 변화: 긍정적으로 변화함 비율(%)

② 디지털 기술로 인한 삶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주관적 웰빙 수준, 일상생활 만족도 수준이 높음.

○ 디지털 기술로 인한 삶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한 집단(6.95점)이 변화가 없다고 인식(6.88 점)하거나 부정적으로 변했다고 인식한 집단(6.23점)에 비해 주관적 웰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7】 디지털 기술로 인한 삶의 변화 인식에 따른 주관적 웰빙 수준

- 디지털 기술로 인한 삶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가족관계, 내 삶에서 선택의 자유, 친구관계, 나의 미래, 나의 자유시간 등에 대한 일상생활 만족도가 높음.

표 III-2 디지털 기술로 인한 전반적인 삶의 변화에 따른 일상생활 만족도(9~24세) (단위: 명, %)

구분		긍정적으로 변화함	변화 없음	부정적으로 변화함
디지털 기술로 인한 전반적인 삶의 변화에 따른 일상생활만족도	가족관계	7.79	7.52	6.87
	내 삶에서 선택의 자유	7.54	7.24	6.77
	친구관계	7.76	7.44	6.90
	나의 미래	7.37	7.15	6.41
	나의 자유 시간	7.48	7.26	6.89

영역 2. 건강

《주요 시계열 변화 및 결과 요약》

- ☞ (수면시간) 13세-24세 청소년 중 주중 및 주말 적정시간을 초과하는 수면시간을 갖는 비율은 '20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17년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임.
- ☞ (식습관) 9세-24세 청소년의 아침식사 비율은 '17년 이래 낮아지는 추세이며, 취약계층 청소년의 아침식사 비율(월 200만원 미만 43.9%, 한부모·조손가족 등 52.7%)은 전체 평균(66.8%)에 크게 미치지 못함.
- ☞ (신체활동) 9세-24세 청소년의 '23년 신체활동 시간이 전 연령대에서 코로나 이전 시기인 '17년보다 더 긴 것으로 나타남.
- ☞ (정신건강) SNS스트레스나 무기력감을 경험한 9세-24세 청소년의 경우, 부모(주양육자)가 슬픔/절망감, 대인관계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이 높음.
- ☞ (대인관계역량) 9세-24세 청소년의 대인관계역량 수준은 '20년 대비 큰 변화가 없고, 자존감과 주관적 웰빙의 긍정성과 높은 관련성이 있음.
- ☞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이 낮은 청소년이 코로나로 인한 삶의 변화에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2-1. 생활습관: 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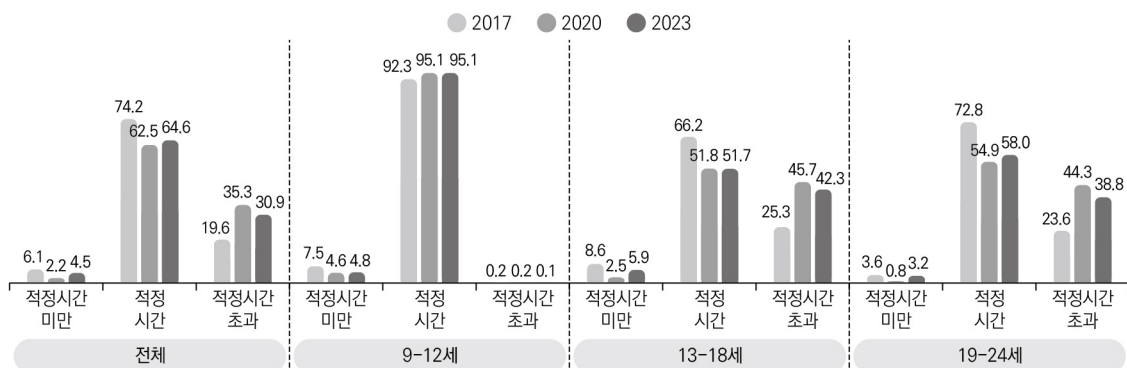
① 13-24세 청소년의 적정시간 초과 수면시간을 갖는 비율 '20년 대비 감소

* 적정 수면시간 : 9-12세(8시간~12시간), 13-24세(6~8시간)

○ 13-18세 청소년의 주중 적정 수면시간 초과 비율은 42.3%로 '20년(45.7%) 대비 낮아졌으나, 코로나 이전 '17년(25.3%)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

○ 13-18세 청소년 중 주말 적정 수면시간 초과 비율은 72.8%로 '20년(79.1%) 대비 낮아졌으나, 코로나 이전 '17년(69.3%)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

○ 19-24세 청소년의 주중 및 주말 적정 수면시간 초과비율도 13-18세와 유사 양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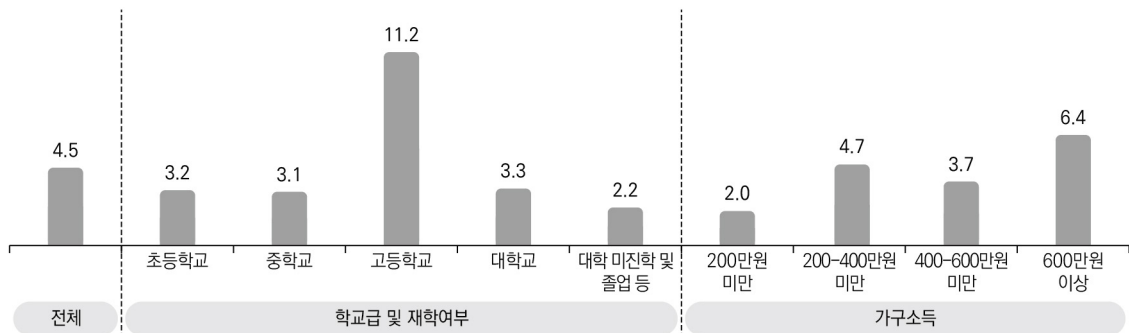
【그림 III-8】 청소년의 주중 수면시간 적정수준



【그림 III-9】 청소년의 주말 수면시간 적정수준

② 수면시간이 적정시간 미만인 비율은 고등학생,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인 경우 현저히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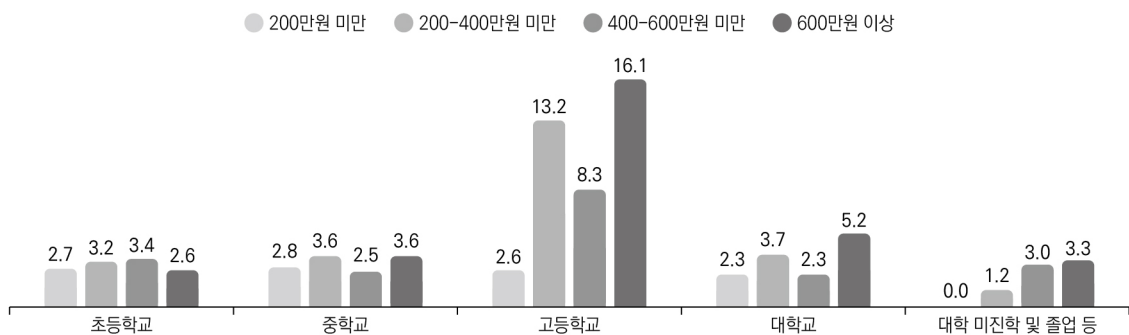
○ 9-24세 청소년 특성별로 주중 수면시간을 비교해 보면, 고등학생(11.2%),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청소년(6.4%)이 적정시간 미만으로 수면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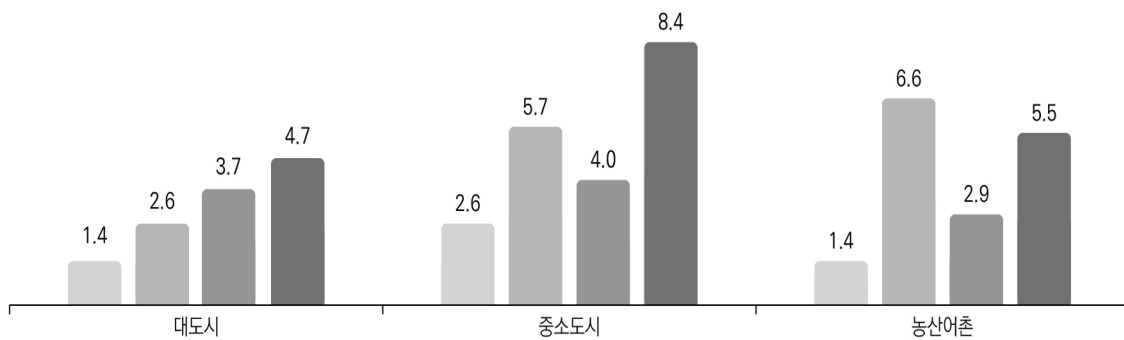
【그림 III-10】 청소년 특성별 주중 수면시간 : 적정시간 미만 비율(%)

○ 학교급 및 가구소득별 주중 수면시간을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고등학생의 비율이 높고, 특히 고등학생 중 월평균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16.1%)과 200만원-400만원 미만(13.2%)인 경우에서 주중 적정 수면시간 미만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지역 및 가구소득별 주중 수면시간을 비교해 보면, 중소도시 청소년 중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가 주중 적정 수면시간 미만인 비율이 8.4%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남.



【그림 III-11】 학교급 및 가구소득별 주중 수면시간 : 적정시간 미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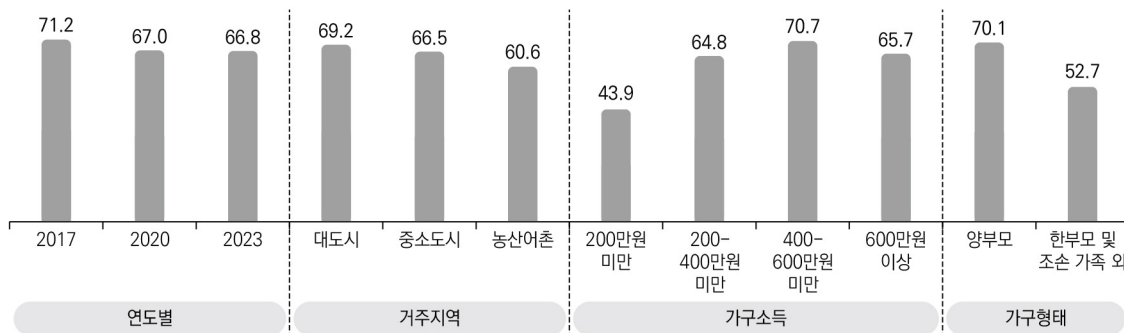


【그림 III-12】 지역 및 가구소득별 주중 수면시간 : 적정시간 미만 비율(%)

2-2. 생활습관: 식습관

① 청소년의 아침식사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아침식사 비율 특히 낮은 집단은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의 청소년, 저소득층, 한부모 조손가족 등 청소년임

- 9-24세 청소년의 아침식사 비율은 66.8%로 '17년(71.2%)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함.
- 특성별로 비교해보면, 200만원 미만 가구의 청소년(43.9%),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집단 청소년(52.7%)의 아침식사 비율이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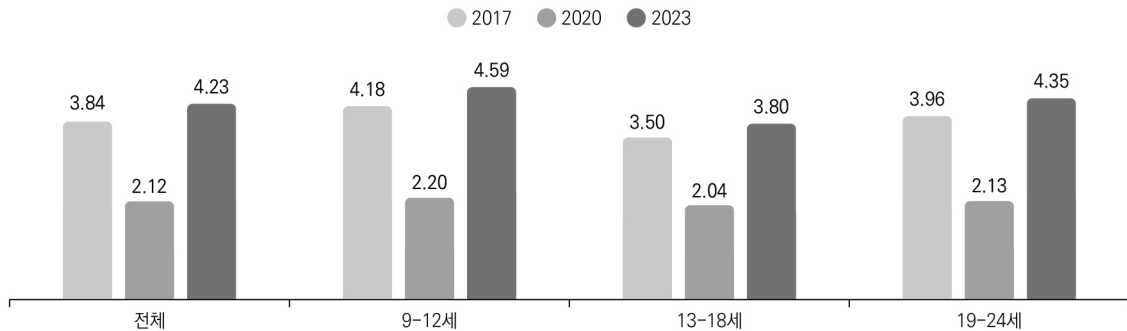


【그림 III-13】 아침 식사 비율

2-3. 생활습관: 운동습관

① 청소년의 운동 및 신체활동 시간은 주당 평균 4.23시간으로 '17년, '20년에 비해 증가

○ 지난 일주일 동안 운동 및 신체활동을 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청소년의 운동 및 신체활동 시간은 주당 평균 4.23시간임. 이는 '17년(3.84시간), '20년(2.12시간)에 비해 증가한 수치임.



【그림 III-14】 지난 일주일 동안의 운동 및 신체활동 시간

○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청소년의 운동 및 신체활동시간이 적정시간 이상인 비율 증가함. 구체적으로 '17년 13.8%에서 '20년 2.2%로 감소하였다 '23년 13.3%로 다시 증가함.



【그림 III-15】 지난 일주일 동안의 운동 및 신체활동 적정시간 수준

② 자신이 신체적으로 ‘건강하다’ 는 비율 다소 증가, 아침식사와 적정시간 수면 및 운동을 하는 청소년의 주관적 신체건강 평가 점수가 대체로 높음.

- 청소년(9-24세)이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7.6%로, '17년(97.4%), '20년(97.4%) 대비 증가함(표 II-38 참조).
- 청소년의 수면 시간, 식습관, 운동습관에 따라서는 주중 및 주말 시간이 적정시간인 경우, 아침식사를 하는 경우, 운동 및 신체활동을 하면서 주당 7시간 이상 하는 경우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신체건강 점수가 높음.

표 III-3 생활 습관: 수면, 식습관, 운동(9-24세)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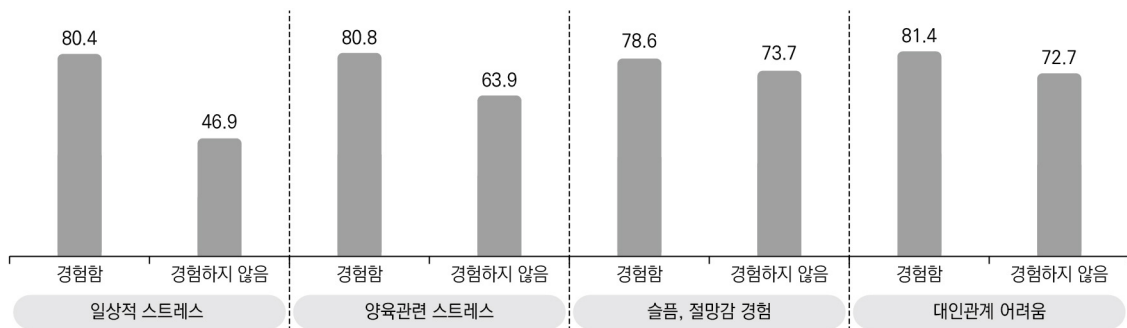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신체적 건강 수준			
				전체	9-12세	13-18세	19-24세
수면 시간	주중 수면 시간	적정시간 미만	334	3.37	3.30	3.37	3.43
		적정시간	4,793	3.44	3.47	3.39	3.43
		적정시간 초과	2,296	3.35	3.00	3.34	3.36
	주말 수면 시간	적정시간 미만	104	3.40	3.25	3.55	3.41
		적정시간	3,319	3.44	3.47	3.39	3.42
		적정시간 초과	4,000	3.38	3.27	3.36	3.40
	수면 시간 충분도	충분함	5,083	3.42	3.48	3.38	3.42
		충분하지 않음	2,340	3.36	3.39	3.35	3.37
식습관	아침식사 여부	식사함	4,958	3.44	3.48	3.40	3.45
		식사하지 않음	2,465	3.34	3.34	3.28	3.36
운동	실내운동 및 야외활동 여부	있음	3,996	3.44	3.51	3.40	3.41
		없음	3,427	3.37	3.34	3.32	3.40
	실내운동 및 야외활동 시간	적정시간 미만	3,467	3.43	3.49	3.40	3.41
		적정시간 이상	530	3.49	3.57	3.47	3.42

2-4. 정신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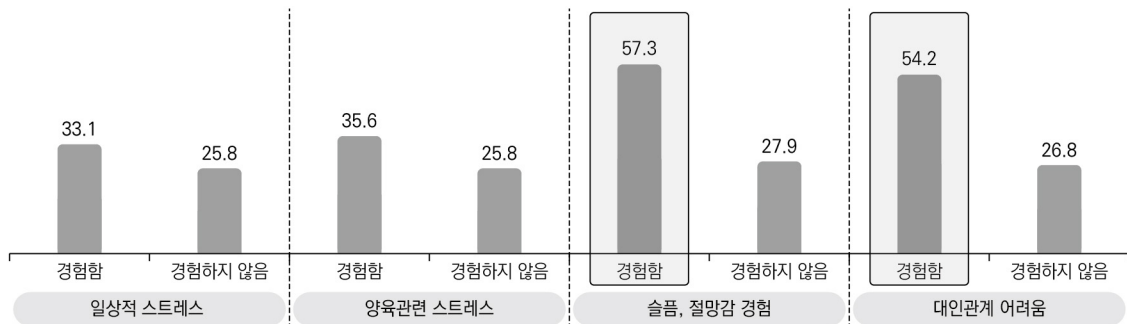
① 부모가 슬픔/절망감, 대인관계 어려움을 경험할 때, 청소년의 SNS 스트레스, 무기력감 경험률이 높음

○ 부모가 일상적인 스트레스, 양육 관련 스트레스, 슬픔/절망감,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 청소년도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 SNS로 인한 스트레스, 무기력감 경험률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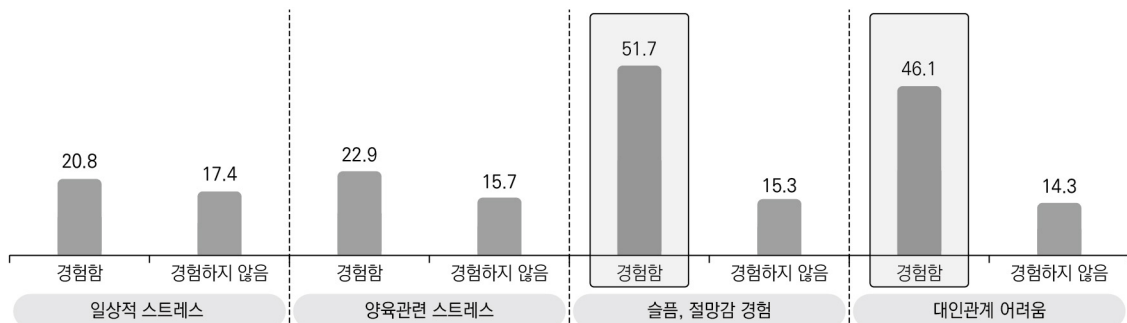
○ 특히, 부모가 슬픔/절망감, 대인관계 어려움이 있으면, 청소년 자녀의 SNS 스트레스, 무기력감 경험률이 높음.



【그림 Ⅲ-16】 부모의 스트레스 경험 유무에 따른 청소년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경험률



【그림 Ⅲ-17】 부모의 스트레스 경험 유무에 따른 청소년의 SNS 스트레스 경험률



【그림 Ⅲ-18】 부모의 스트레스 경험에 따른 청소년의 무기력감 경험률

② SNS 스트레스 및 무기력감 경험 집단이 무경험 집단보다 회복탄력성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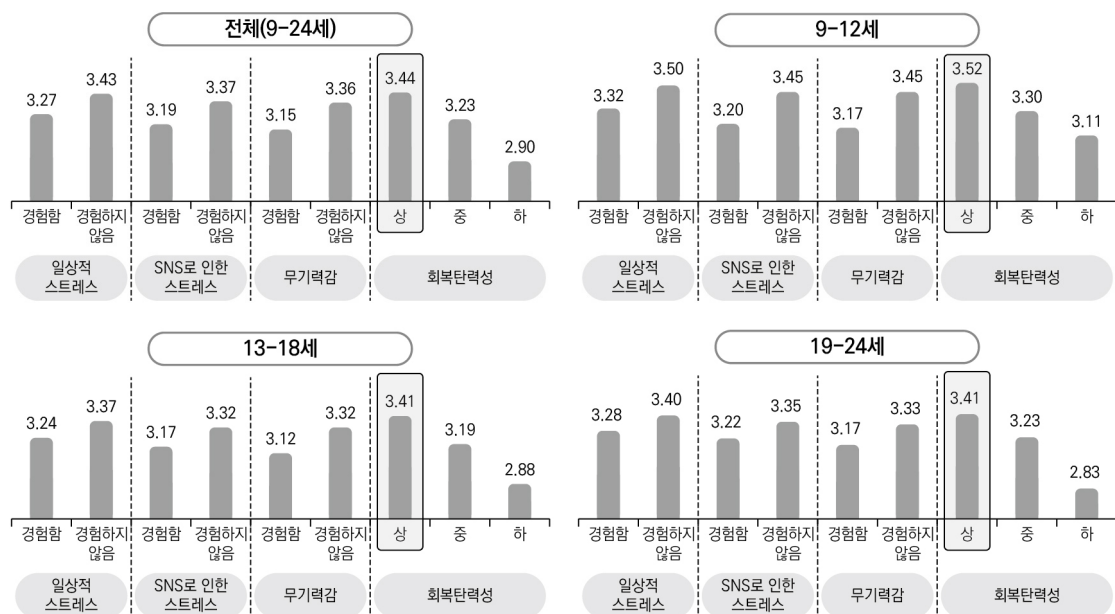
- 청소년의 스트레스 경험에 따른 회복탄력성 수준을 살펴보면, SNS로 인한 스트레스, 무기력감을 경험한 청소년이 무경험 집단보다 회복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4 스트레스 및 무기력 상태 경험 여부에 따른 회복탄력성(9-24세) (단위: 명, %)

구분		회복탄력성			
		전체	9-12세	13-18세	19-24세
일상적 스트레스	경험함	2.81	2.84	2.77	2.83
	경험하지 않음	2.80	2.77	2.77	2.83
SNS로 인한 스트레스	경험함	2.87	2.93	2.79	2.85
	경험하지 않음	2.67	2.58	2.66	2.70
무기력 상태	경험함	2.88	2.92	2.84	2.90
	경험하지 않음	2.59	2.57	2.59	2.62

③ 스트레스와 무기력감 무경험 집단, 회복탄력성 수준이 높은 집단이 정신적 건강 수준을 높게 평가

- 일상적 스트레스, SNS 스트레스, 무기력감을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이 경험한 청소년들보다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낮음.
- 회복탄력성 수준이 높을수록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19】 청소년의 스트레스 경험, 회복탄력성에 따른 정신적 건강 수준

④ 회복탄력성 높은 청소년은 코로나로 인한 삶의 변화가 없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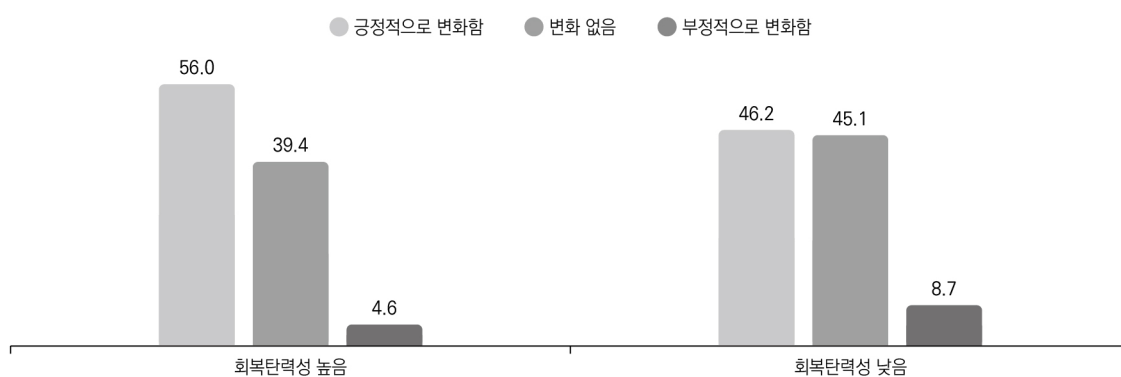
○ 회복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은 코로나로 인한 삶의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회복탄력성이 낮은 청소년은 코로나로 인한 변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I-5 회복탄력성 수준에 따른 코로나로 인한 삶의 변화 인식(9-24세) (단위: 명, %)

구분			변화 인식		
			긍정적으로 변화	변화 없음	부정적으로 변화
회복탄력성 수준에 따른 코로나로 인한 삶의 변화 인식	전반적인 생활	회복탄력성 높음	26.7	61.9	11.4
		회복탄력성 낮음	33.5	54.0	12.5
	가족 관계	회복탄력성 높음	30.4	66.5	3.2
		회복탄력성 낮음	34.4	59.5	6.2
	친구 관계	회복탄력성 높음	29.9	60.1	10.0
		회복탄력성 낮음	33.6	52.7	13.7
	학교 생활	회복탄력성 높음	26.2	54.7	19.2
		회복탄력성 낮음	32.1	44.7	23.2
	사회에 대한 신뢰	회복탄력성 높음	18.2	53.1	28.7
		회복탄력성 낮음	26.4	44.3	29.3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전망	회복탄력성 높음	16.8	59.9	23.3
		회복탄력성 낮음	25.0	51.0	24.0

㉑ 회복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은 낮은 청소년보다 디지털 기술로 인한 삶의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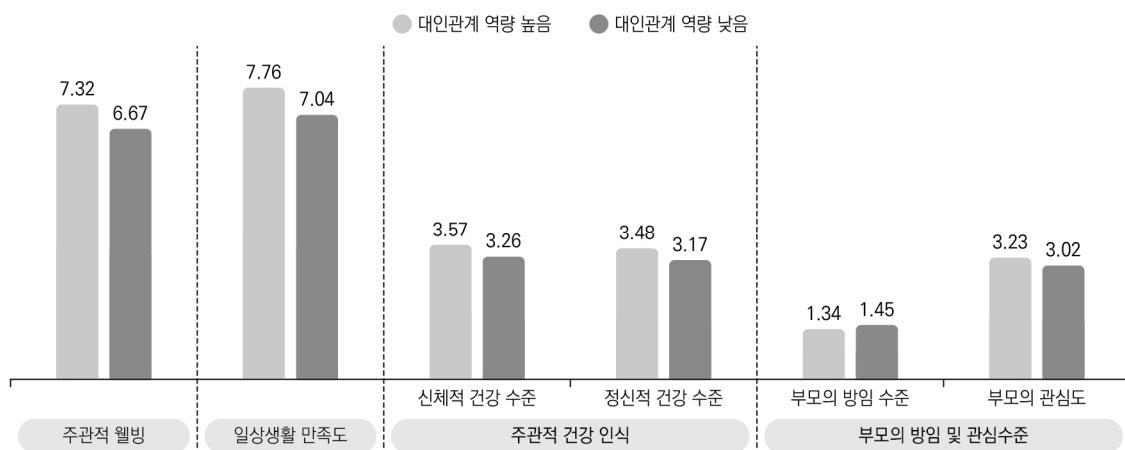
- 회복탄력성이 높은 청소년(56.0%)은 낮은 청소년(46.2%)보다 디지털 기술로 인한 삶의 변화를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함.
- 회복탄력성이 낮은 청소년은 높은 청소년보다 디지털 기술로 인한 삶이 변화하지 않았거나(높음: 39.4%, 낮음: 45.1%) 부정적으로 변했다고 인식하는 것(높음: 4.6%, 낮음: 8.7%)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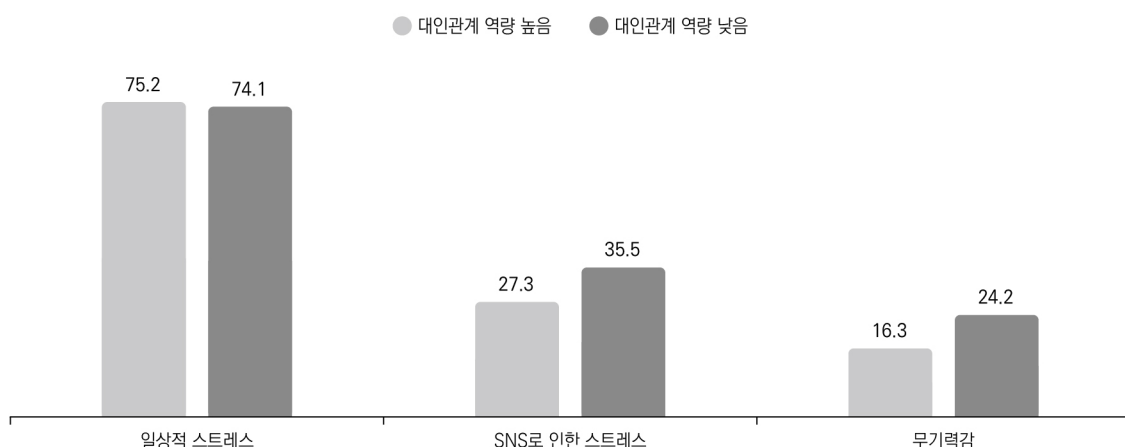
【그림 III-20】 회복탄력성 수준에 따른 디지털 기술로 인한 삶의 변화 인식

⑥ 대인관계 역량이 높은 청소년이 낮은 청소년에 비해 주관적 웰빙, 일상생활 만족도,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 부모의 관심도가 높고 부모의 방임 수준은 낮으며, SNS로 인한 스트레스, 무기력감 경험률 또한 낮음.

- 대인관계 역량이 높은 청소년이 낮은 청소년에 비해 주관적 웰빙을 구성하는 요소 중 삶의 만족도, 긍정 정서는 높고, 부정 정서는 낮음.
- 대인관계 역량이 높은 청소년은 낮은 청소년에 비해 12개 항목으로 측정한 일상생활 만족도가 모두 높으며,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수준도 높음.
- 대인관계 역량 수준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관심도가 높고, 방임 수준은 낮음.
- 대인관계 역량 수준이 높은 청소년은 낮은 청소년보다 일상적 스트레스 경험률이 높고, SNS로 인한 스트레스, 무기력감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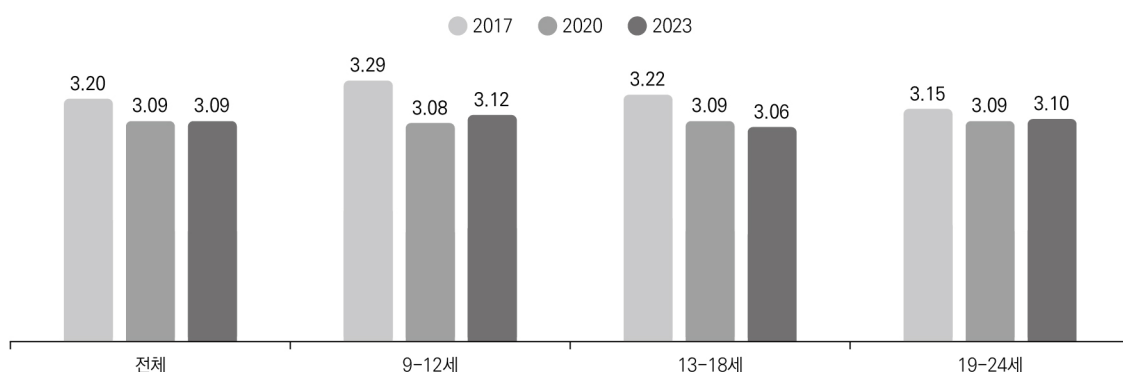
【그림 Ⅲ-21】 대인관계 역량 수준에 따른 주관적 웰빙, 일상생활 만족도, 주관적 건강 인식, 부모의 방임 및 관심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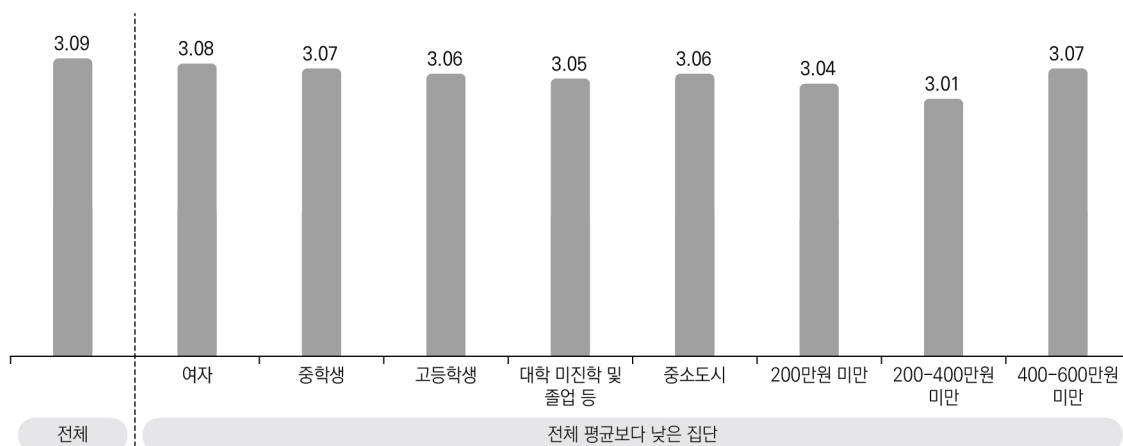
【그림 Ⅲ-22】 대인관계 역량 수준에 따른 스트레스 경험률

㉓ 청소년 대인관계 역량 평균 점수는 3.09점으로 '20년과 차이 없으나, 13-18세의 경우 '20년 대비 다소 감소

- 전체 청소년(9-24세)의 대인관계 역량 수준은 평균 3.09점으로, 이는 '17년(3.20점)에 비해 0.11점 감소한 것임.
- 대인관계 역량 수준이 평균보다 낮은 집단은 여자 청소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의 청소년, 중소도시 청소년으로, 특히 가구소득이 200-400만원 미만인 경우 가장 낮은 점수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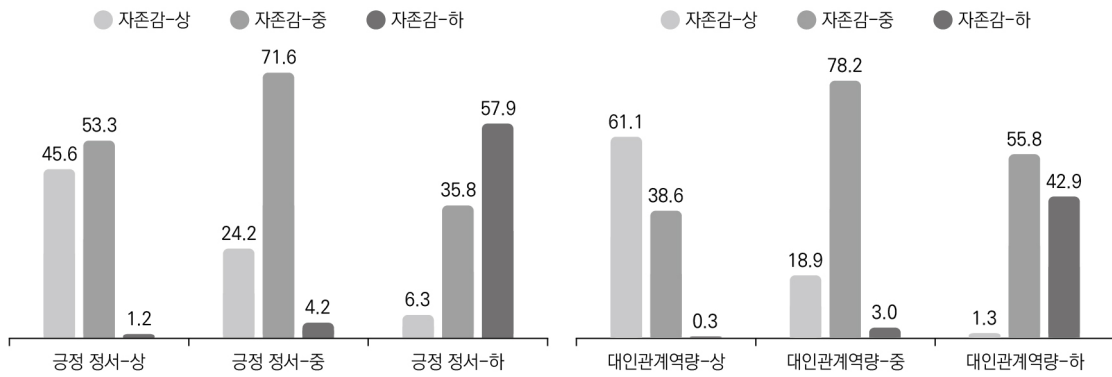
【그림 III-23】 대인관계 역량 수준



【그림 III-24】 청소년 특성별 대인관계 역량 수준 : 전체 평균보다 낮은 집단

⑧ 청소년의 긍정 정서, 대인관계 역량 수준에 따른 자존감 격차가 큼

- 주관적 웰빙 요소 중 긍정 정서(행복감, 하는 일의 가치)에 따라 자존감 격차가 큼. 긍정 정서가 '상'인 청소년이 높은 자존감 보이는 비율(45.6%) 보임.
- 대인관계 역량 수준이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음. 대인관계 역량이 '상'인 집단에서 자존감 '상'인 비율은 61.1%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함.



【그림 III-25】 긍정 정서에 따른 자존감 수준

【그림 III-26】 대인관계 역량에 따른 자존감 수준

영역 3. 부모와의 관계 및 지원 기대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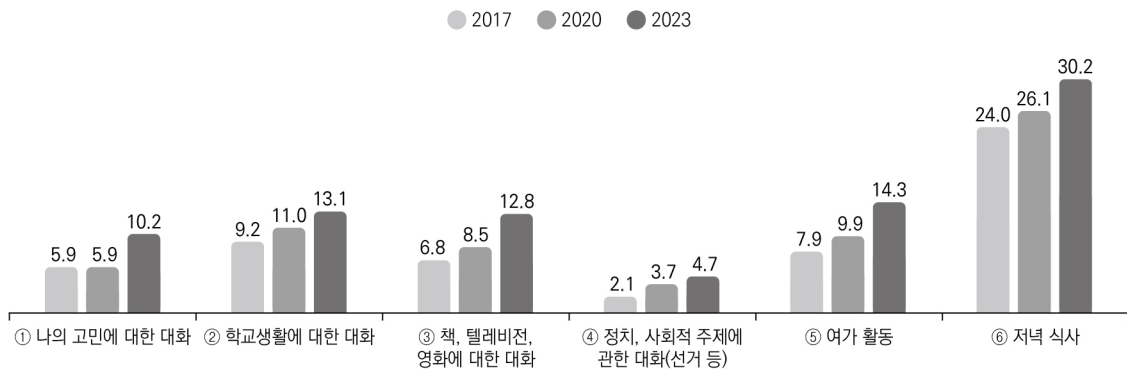
《주요 시계열 변화 및 결과 요약》

- ☞ (부모와의 대화 및 활동) 부모와 1~3회 활동 및 대화하는 9세~24세 청소년의 비율 등 부모와의 대화 빈도 및 시간이 전반적으로 '20년 대비 증가
- ☞ (부모의 방임 인식) 9세~18세 청소년의 주당 방과 후 돌봄 공백 일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부모 돌봄에 대한 방임 인식 비율 '17년 이래 지속 증가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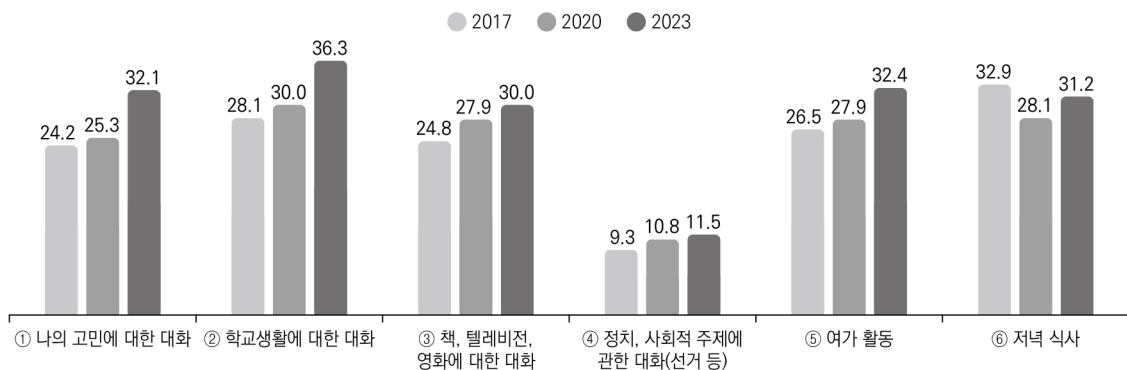
3-1. 부모와의 대화 및 활동 유형 및 빈도

① 9-24세 청소년이 부모와 주 1-3회나 주 4-6회 활동 및 대화하는 비율은 '20년 대비 증가

- 9-24세 청소년이 부모와 주 1-3회나 주 4-6회 활동 및 대화하는 비율은 '20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매일 또는 월 1-3회, 거의 대화하지 않는 비율은 '20년 대비 감소함.
- 저녁식사를 주 4-6회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0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함.
- 부모님과 대화 및 활동을 주 1-3회 한다는 비율은 '20년 대비 증가함. 부모와의 활동 및 대화 6개 항목 중 나의 고민, 학교생활에 관한 대화를 주 1-3회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함.



【그림 III-27】 부모와의 활동 및 대화 : 주 4-6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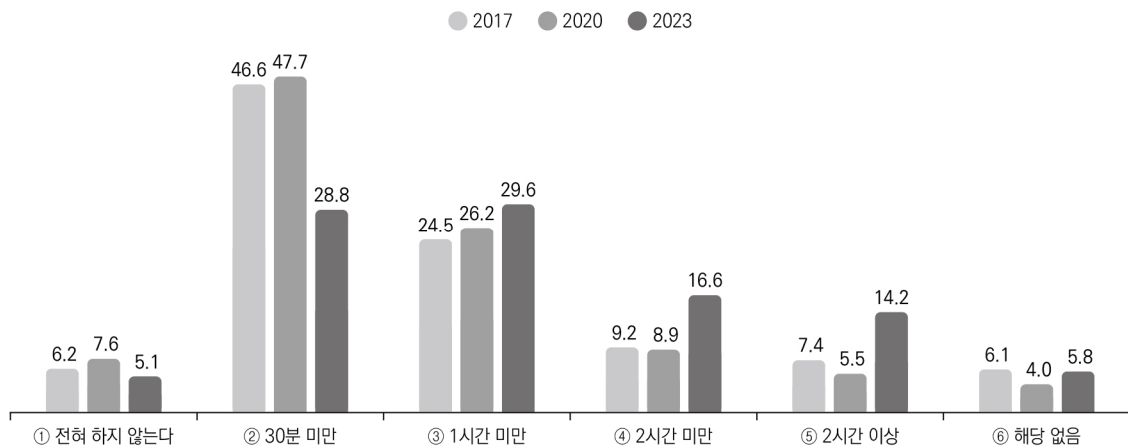


【그림 III-28】 부모와의 활동 및 대화 : 주 1-3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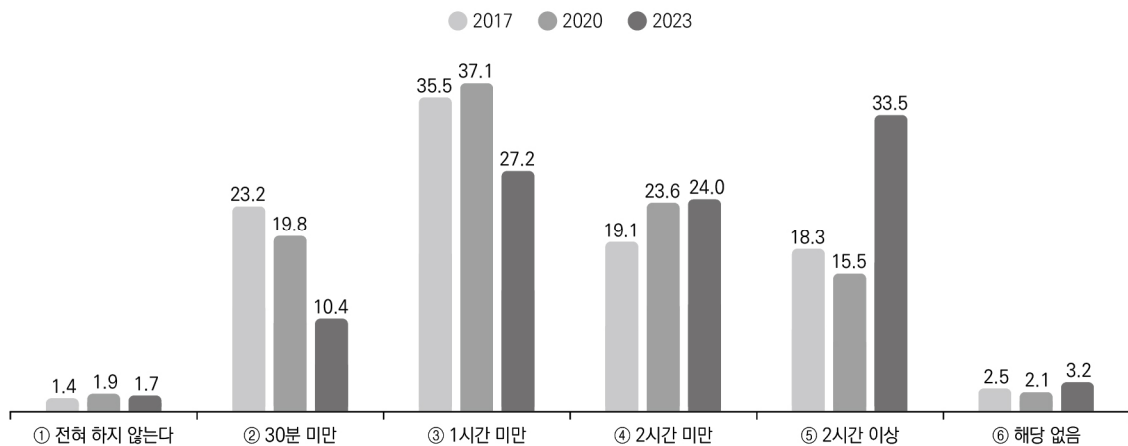
3-2. 부모와의 대화 시간

① 아버지, 어머니와 2시간 이상 대화하는 비율은 '17년, '20년보다 증가

- 청소년이 아버지와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대화하는 비율은 각각 16.6%, 14.2%, 어머니와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대화하는 비율은 각각 24.0%, 33.5%로 '17년과 '20년에 비해 증가함.
- 청소년이 아버지와 30분 미만으로 대화하는 비율은 28.8%, 어머니와 30분 미만 대화하는 비율은 10.4%로 '17년과 '20년에 비해 감소함.



【그림 III-29】 부모와의 대화 시간 : 아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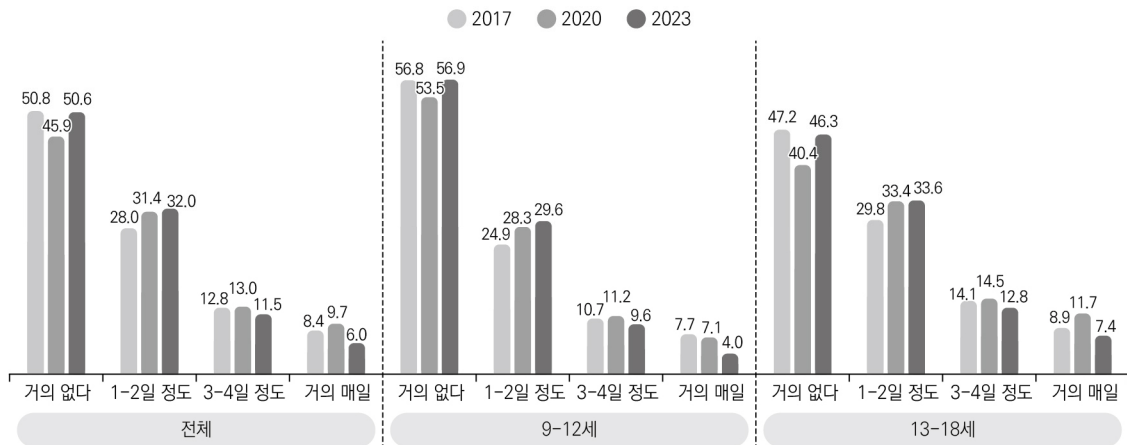


【그림 III-30】 부모와의 대화 시간 : 어머니

3-3. 방과 후 돌봄 공백 및 방임

① 방과 후 돌봄 공백 비율 전반적으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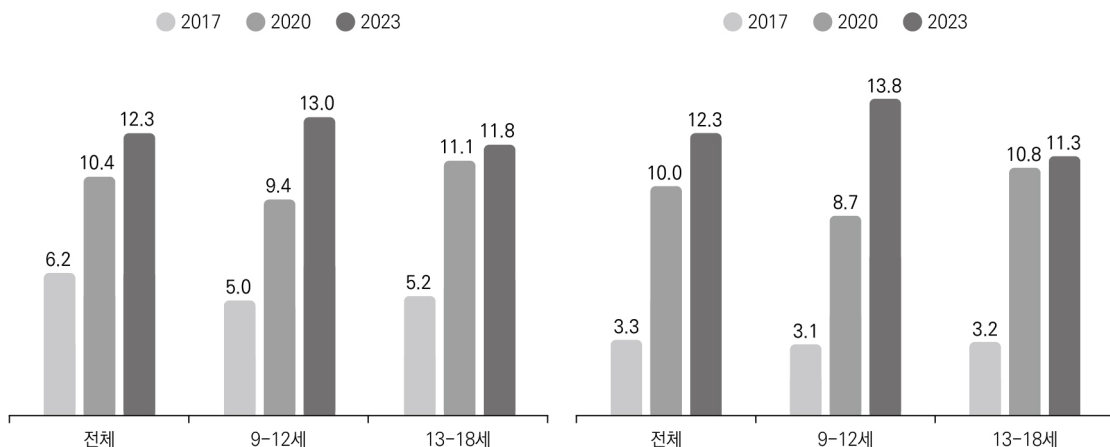
- 9-18세 청소년의 주당 돌봄공백 일수는 ‘거의 없다’는 응답이 50.6%로 과반을 차지하며, 주당 돌봄 공백 일수가 ‘3-4일 정도(11.5%)’, ‘거의 매일(6.0%)’의 응답은 ‘20년 대비 각 1.5%p, 3.7%p 감소함.



【그림 Ⅲ-31】 방과 후 돌봄 공백 일수

② 9-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임 비율 증가, 특히 9-12세 방임 비율 높음

- 학교 수업이 끝난 후 집에 늦게 들어와도 무관심한 비율은 12.3%, 고열이 나도 아파도 내버려둔다는 비율을 12.3%로 '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함.
- 연령대별은 저연령층(9-12세)의 방임 비율은 13-18세보다 높았음.



【그림 Ⅲ-32】 방임 비율
: 학교 수업(학원 포함)이 끝난 후
집에 늦게 들어와도 관심이 없다

【그림 Ⅲ-33】 방임 비율
: 고열이 나도 아파도 내버려둔다

영역 4. 참여·권리 및 사회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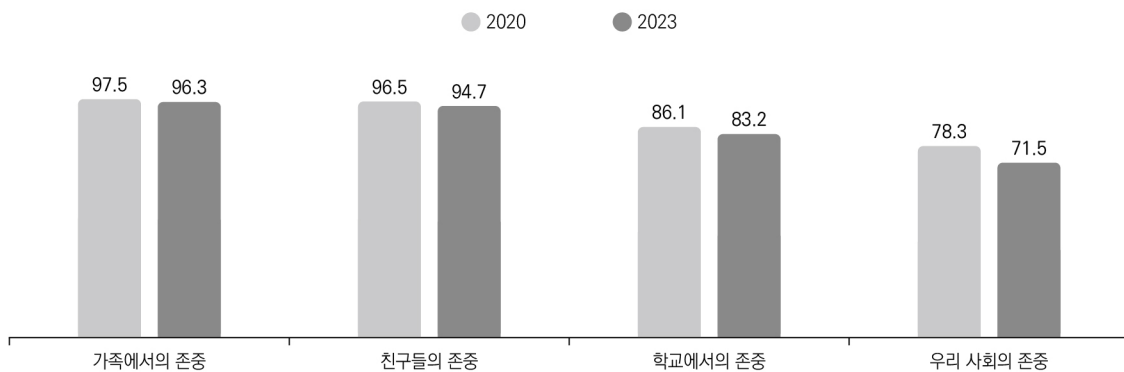
《주요 시계열 변화 및 결과 요약》

- ☞ (청소년 존중 인식) 9세-18세 청소년이 가족, 친구, 학교, 사회로부터 존중받는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20년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
- ☞ (부모의 존중) 부모가 청소년 자녀의 의견을 존중할 때, 청소년 자녀가 가족, 친구, 학교, 사회로부터 존중받는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고, 청소년 자녀의 대인관계 역량, 자존감, 회복탄력성, 긍정 정서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음.
- ☞ (결혼관) 13세-24세 청소년 중 '결혼해야 한다'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38.5%로 '17년 이래 지속 감소 추세
- ☞ (사회관) 13세-24세 청소년 중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라 인식하는 비율은 '17년 이래 증가 추세. 단, 우리 사회가 부정부패가 없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20년 대비 다소 감소
- ☞ (사회문제 인식) 13세-24세 청소년이 가장 염려하는 우리 사회의 문제는 '범죄와 폭력(27.4%)'이고, 다음으로는 '지구의 미래와 환경(22.7%)', '경제 불황 및 위기(22.7%)' 순임.

4-1. 청소년 존중

① 9-18세 청소년이 가족, 친구, 학교, 사회로부터 존중받는다고 인식하는 비율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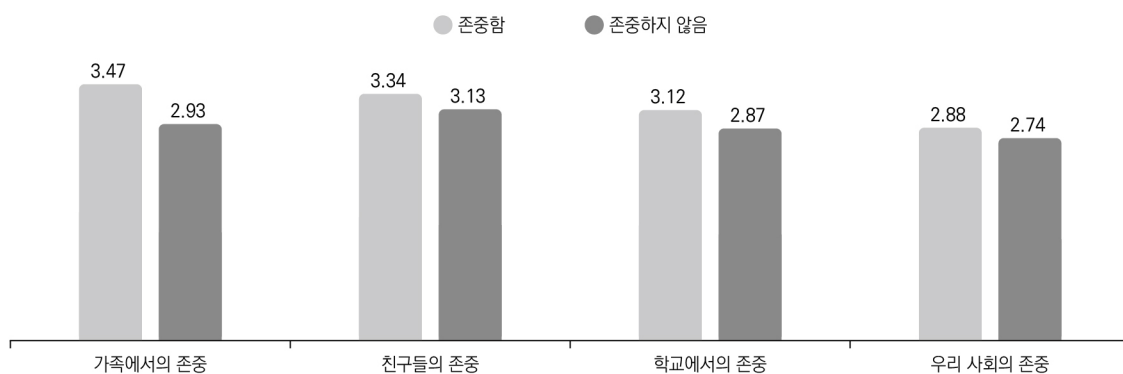
- 9-18세 청소년이 가족, 친구, 학교, 사회로부터 존중받는다는 인식하는 비율은 각각 96.3%, 94.7%, 83.2%, 71.5%였으며, '20년 대비 모두 감소함. 특히 사회로부터 존중받는다고 비율의 감소폭이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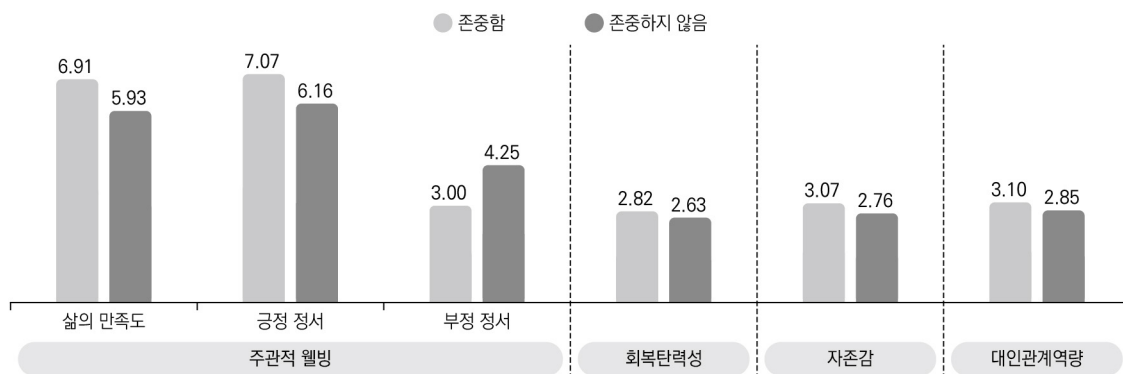
【그림 III-34】 청소년 존중 비율

② 부모가 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할 때, 청소년이 존중받는다고 인식하는 수준, 주관적 웰빙, 회복탄력성, 자존감, 대인관계역량 모두 높아짐

- 부모가 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응답한 경우 청소년이 가족, 친구, 학교, 사회로부터의 존중받는다고 인식하는 수준이 높음.
- 부모가 가족 내에서 청소년을 존중한다고 응답한 경우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긍정 정서는 높고, 부정 정서는 낮았음. 또한 회복탄력성, 자존감, 대인관계 역량도 모두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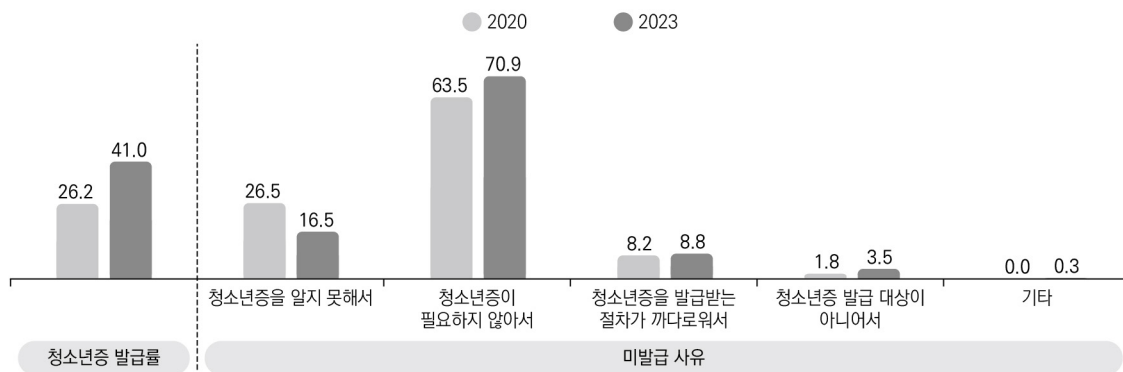
【그림 III-35】 부모가 인식하는 가족의 청소년 존중 여부에 따른 청소년의 존중 인식



【그림 III-36】 부모가 인식하는 가족의 청소년 존중에 따른 청소년의 주관적 웰빙, 회복탄력성, 자존감, 대인관계역량

③ 청소년증 발급률은 41.0%로 '20년 대비 증가, 미발급 이유의 주된 사유는 '청소년증이 필요하지 않아서'임.

- 13-18세 청소년들의 청소년증 발급여부를 살펴보면, 발급받은 비율이 41.0%로 '20년 26.2%에 비해 증가함.
- 청소년증 미발급 이유를 살펴보면, '청소년증이 필요하지 않아서'가 70.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청소년증을 알지 못해서(16.5%)였음. '20년에 비해 청소년증이 필요하지 않아 발급받지 않은 비율은 증가하고, 청소년증을 알지 못해서 발급받지 않은 비율은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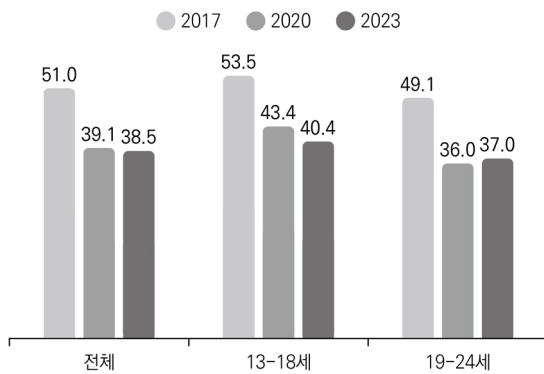
【그림 III-37】 청소년증 발급률 및 미발급 사유

4-2. 결혼 및 사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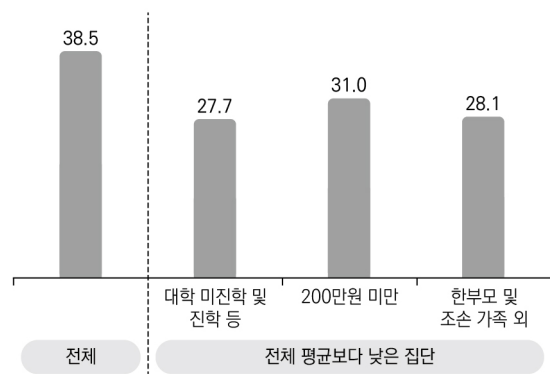
① 청소년이 결혼해야 한다는 인식은 38.5%로, '17년 이후 감소. 특히 취약계층일수록, 부모가 결혼해야 한다는 인식이 낮을수록 청소년의 결혼 인식 낮음

○ 13-24세 청소년의 결혼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8.5%로 '17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특히,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의 청소년(27.7%), 저소득층 청소년(200만원 미만, 31.0%),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청소년(28.1%)은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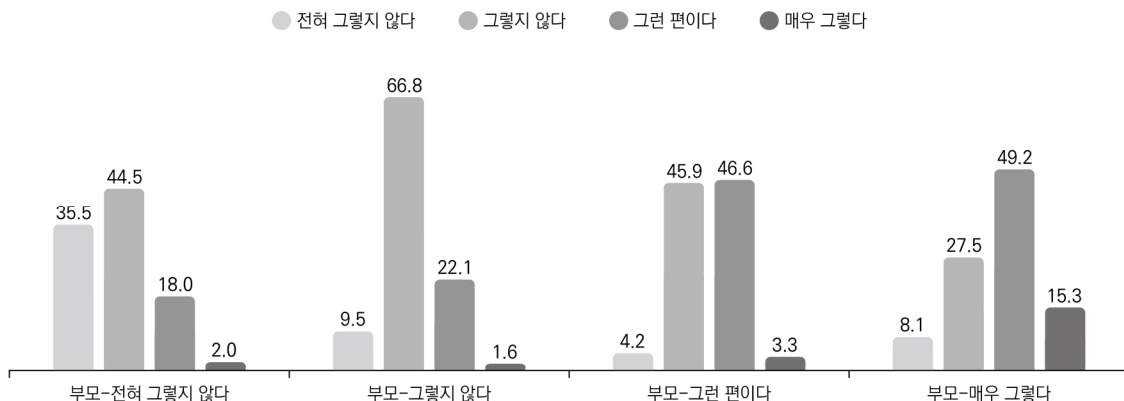
【그림 III-38】 결혼에 대한 인식 : 결혼해야 한다 응답 비율(%)



【그림 III-39】 특성별 결혼에 대한 인식 : 결혼해야 한다 응답 비율(%)

○ 부모가 '결혼해야 한다'에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 청소년의 15.3%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부모가 그런편이라고 응답한 경우, 청소년의 46.6%가 동일하게 그런편이라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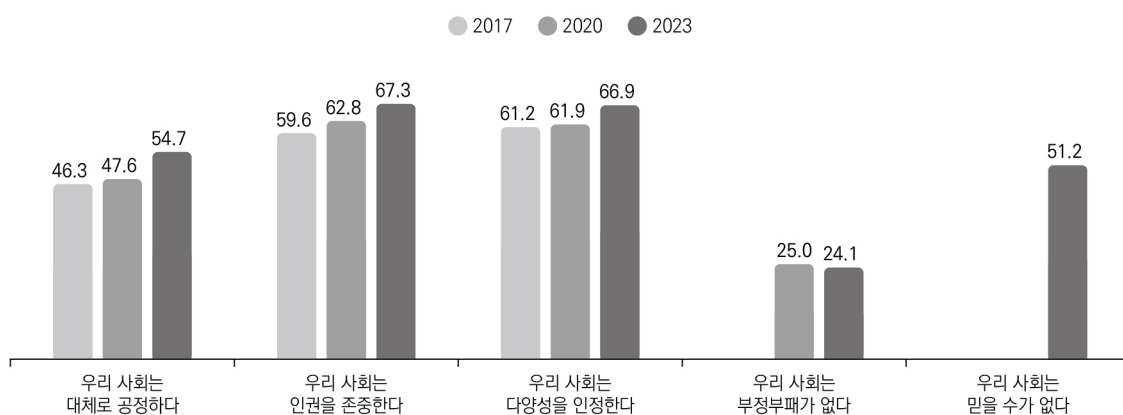
○ 부모가 '결혼해야 한다'에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경우, 청소년의 66.8%도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부모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경우, 청소년의 35.5%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그림 III-40】 부모의 결혼에 대한 인식에 따른 청소년의 결혼에 대한 인식

②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 인권을 존중한다, 다양성을 인정한다고 인식한 비율은 증가한 반면, 부정부패가 없다는 비율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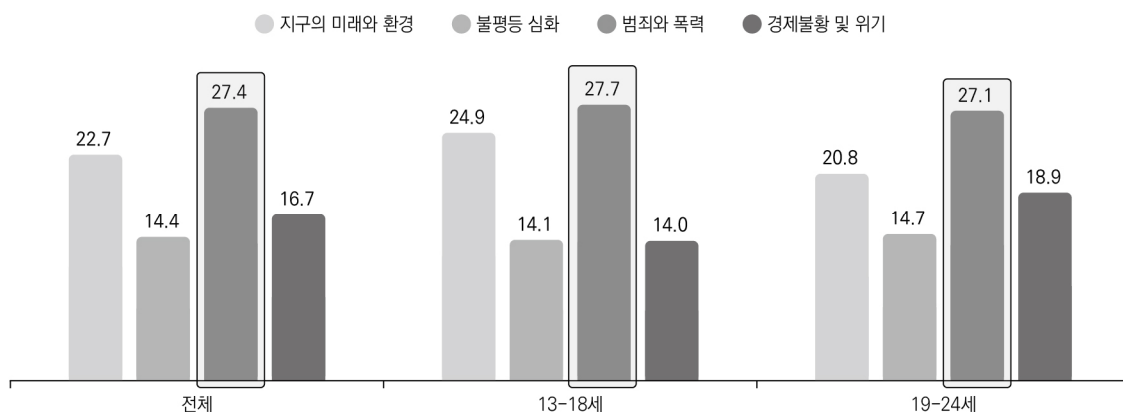
- 13-24세 청소년이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 인권을 존중한다, 다양성을 인정한다고 인식한 비율은 각각 54.7%, 67.3%, 66.9%로 '17년과 '20년 대비 증가함.
- 측정항목별로 비교하면, 사회가 인권존중 및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부정부패가 없다는 비율은 2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사회에 대한 신뢰수준도 절반에 미치지 못하였음.



【그림 III-41】 사회관

③ 13-24세 청소년의 27.4%가 가장 염려되는 사회문제로 '범죄와 폭력'을 지적

- 13-24세 청소년은 가장 염려되는 사회문제로 범죄와 폭력이 27.4%로 가장 지적함. 다음으로 지구의 미래와 환경(22.7%), 경제 불황 및 위기(16.7%) 순으로 나타남.



【그림 III-42】 사회문제 중 염려가 되는 문제

영역 5. 학습 및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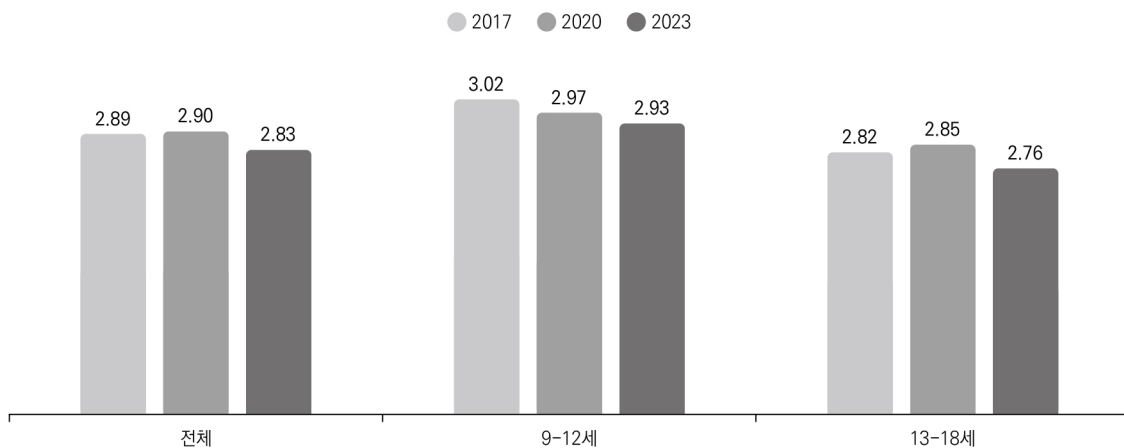
《주요 시계열 변화 및 결과 요약》

- ☞ (학교생활 만족도) 9세-18세 청소년의 학교생활 만족도 수준 '20년 대비 다소 낮아짐.
- ☞ (사교육 경험) 거주지역, 가구소득 및 가구형태에 따라 사교육 경험률과 시간의 격차가 상당함.
- ☞ (청소년활동) 9세-18세 청소년이 가장 하고 싶은 활동은 '문화/예술' 활동
- ☞ (단체 활동 및 시설) 9세-18세 청소년의 단체나 동아리 활동률, 청소년수련관이나 유스호스텔과 같은 시설 이용률은 '17년 이래 지속 감소
- ☞ (학업 중단 경험) 학업 중단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 경험률 '20년 대비 크게(24.1%p) 증가. (*단, 적은 수의 학업 중단 유경험자 응답 결과임에 유의)

5-1. 학교생활과 사교육 경험

① 청소년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20년 대비 0.07점 하락, 13-18세가 9-12세에 비해 학교생활 만족도 상대적으로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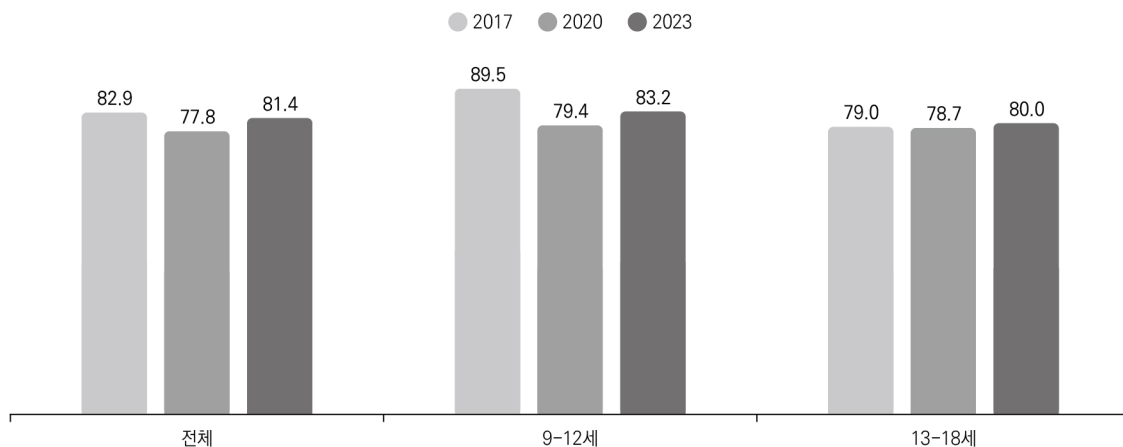
- 청소년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4점 만점에 2.83점으로 '20년(2.90점) 대비 0.07점 낮아짐.
- 연령대별로 9-12세의 만족도(2.93점)는 전체 평균(2.83점)보다 높은 반면 13-18세(2.76점)의 만족도 수준은 전체 평균보다 낮음.



【그림 III-43】 연도별 학교생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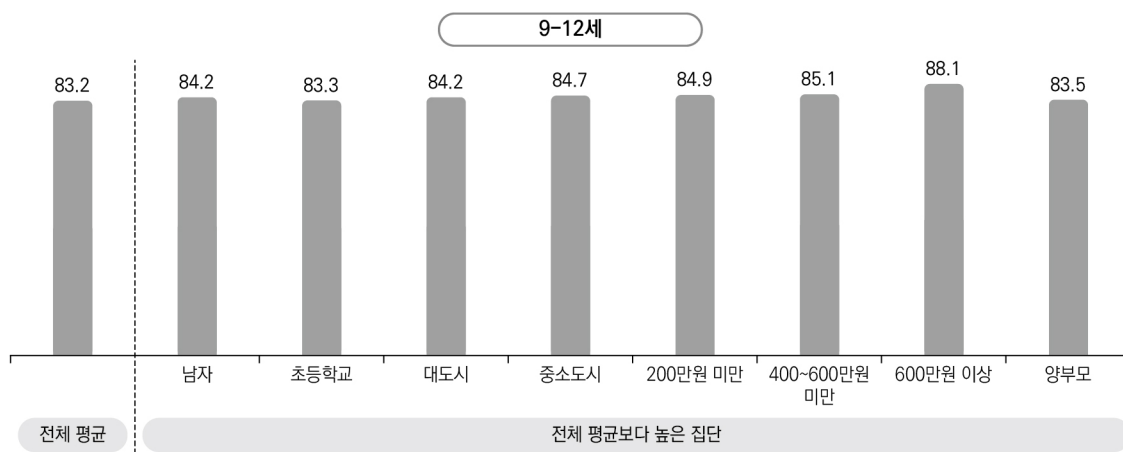
② 청소년의 사교육 경험률 '20년 대비 3.6%p 증가, 특히 13-18세가 9-12세에 비해 전반적인 사교육 경험(경험률, 시간량)의 격차 큼

○ 청소년 사교육 경험률 : ('17년) 82.9%→('20년) 77.8%→('23년) 8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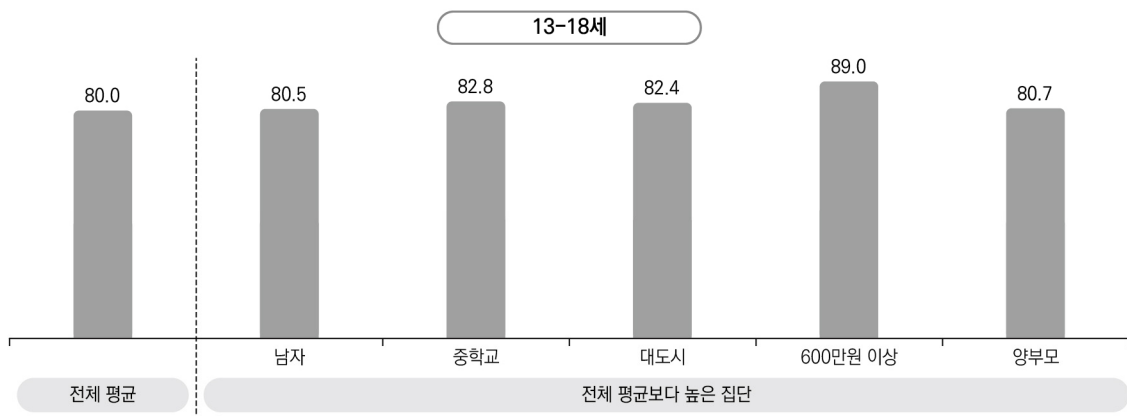


【그림 III-44】 연도별 사교육 경험률

○ 특성별로 살펴보면, 사교육 경험률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집단은 9-12세와 13-18세 공통 남자, 대도시 거주,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 양부모 집단임. 남자(84.2%), 초등학생(83.3%), 대도시(84.2%)와 중소도시 청소년(84.7%),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84.9%)이거나 400~600만원 미만(85.1%), 600만원 이상(88.1%), 양부모 집단(83.5%)이며, 13-18세에서는 남자(80.5%), 중학생(82.8%), 대도시 청소년(82.4%), 가구소득 600만원 미만(89.0%), 양부모 집단(80.7%)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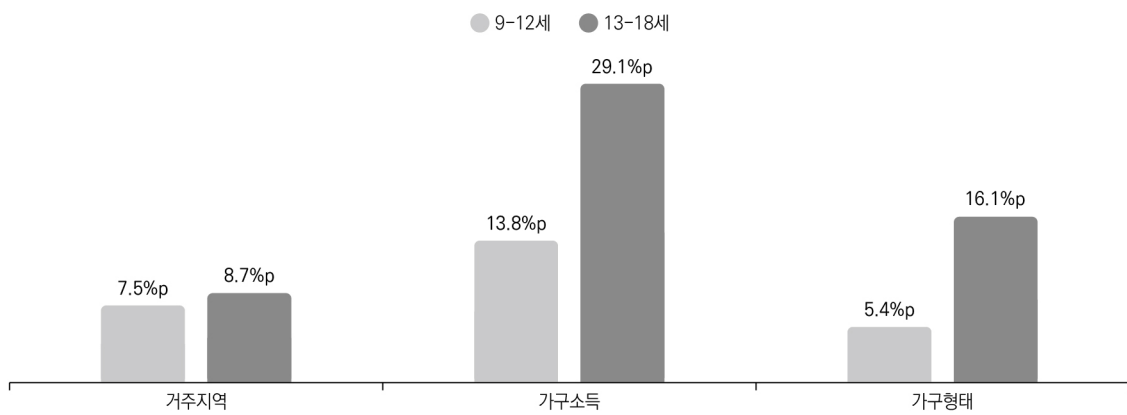


【그림 III-45】 사교육 경험률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집단(9-12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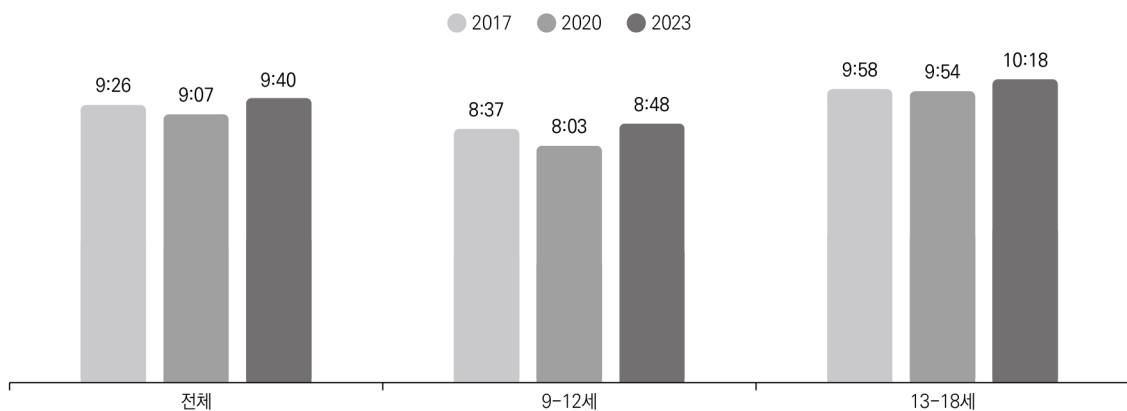
【그림 III-46】 사교육 경험률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집단(13-18세)

- 특성별 사교육 경험률이 가장 높은 집단과 가장 낮은 집단 간 격차: 9-12세 거주지역(7.5%p), 가구소득(13.8%p), 가구형태(5.4%p) < 13-18세 거주지역(8.7%p), 가구소득(29.1%p), 가구형태(16.1%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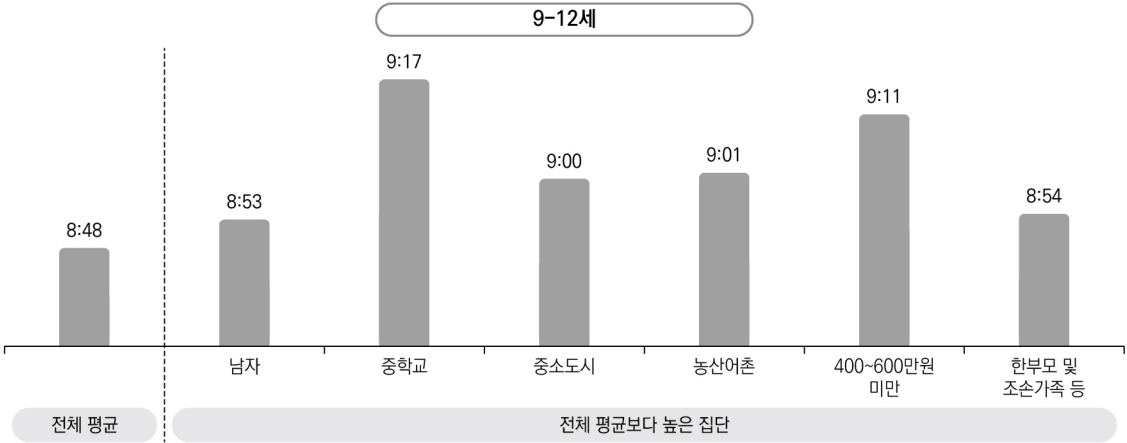
【그림 III-47】 연령대별 특성에 따른 사교육 경험률 격차

- 주당 사교육 시간: ('17년) 9시간 26분→('20년) 9시간 7분→('23년) 9시간 4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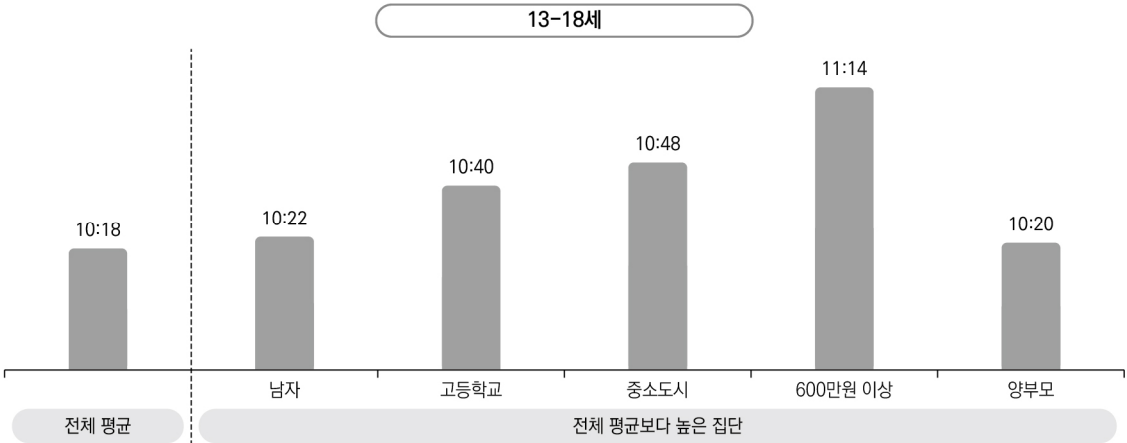


【그림 III-48】 연도별 주당 사교육 시간

○ 특성별로 사교육 시간이 평균보다 많은 집단으로는 9-12세의 경우 남자(8시간 53분), 중학생(9시간 17분), 중소도시(9시간)와 농산어촌(9시간 1분)의 청소년, 가구소득 400~600만원 미만(9시간 11분),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집단(8시간 54분)이며, 13-18세는 남자(10시간 22분), 고등학생(10시간 40분), 중소도시 청소년(10시간 48분),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11시간 14분), 양부모 집단(10시간 20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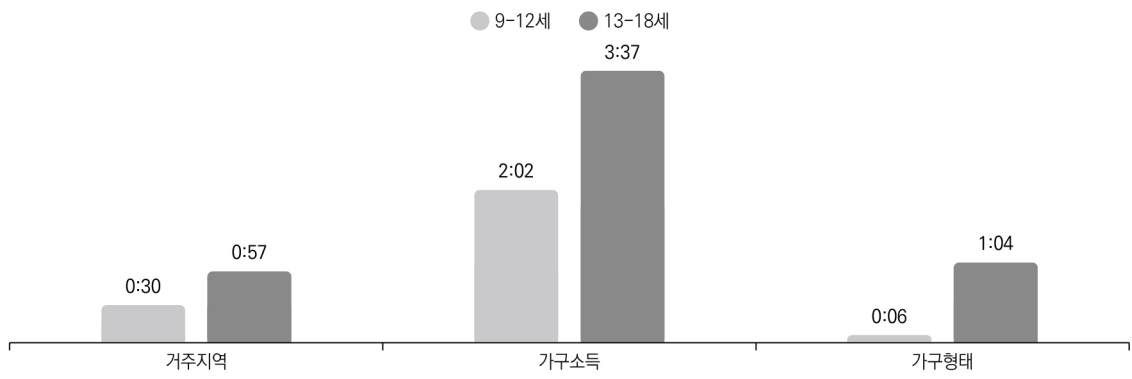


【그림 III-49】 주당 사교육 시간이 전체 평균보다 많은 집단(9-12세)



【그림 III-50】 주당 사교육 시간이 전체 평균보다 많은 집단(13-18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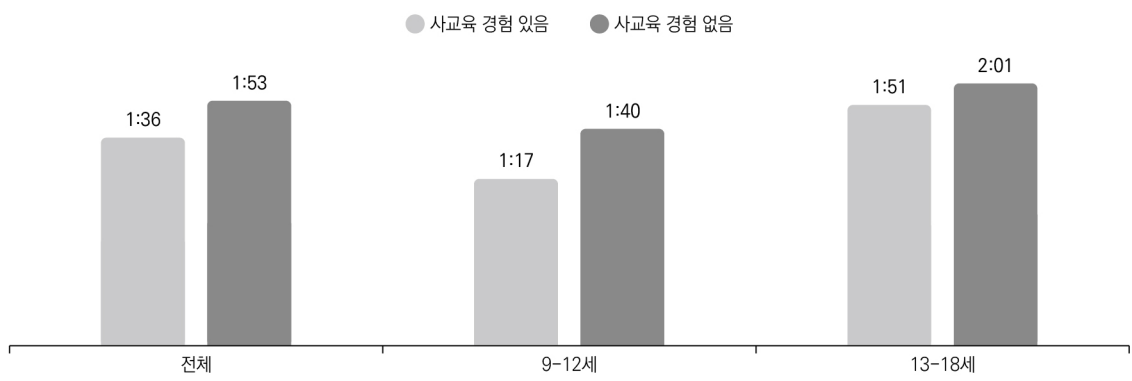
- 특성별 주당 사교육 시간이 가장 높은 집단과 가장 낮은 집단 간 격차: 9-12세 거주지역(30분), 가구소득(2시간 2분), 가구형태(6분) < 13-18세 거주지역(57분), 가구소득(3시간 37분), 가구형태(1시간 4분)



【그림 III-51】 연령대별 특성에 따른 주당 사교육 시간 격차

- ③ 사교육을 받는 청소년의 혼자 공부한 시간이 사교육을 받지 않는 청소년에 비해 짧음

- 청소년의 하루 평균 혼자 공부한 시간은 1시간 36분이며, 사교육 경험 유무에 따라 사교육을 받는 청소년은 하루 평균 1시간 40분, 사교육을 받지 않는 청소년의 하루 평균 1시간 53분을 혼자 공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52】 사교육 경험 여부별 하루 평균 혼자 공부한 시간

5-2. 청소년활동, 단체(동아리), 시설 이용

① 주 양육자가 청소년활동에 관심을 두는 가장 주된 이유는 ‘다양한 경험을 쌓기를 희망하여’

○ 주 양육자가 청소년 활동에 관심을 두는 주된 이유는 자녀가 참여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활동에 걸쳐 ‘다양한 경험을 쌓기를 희망하여’ > ‘아이의 적성 개발 등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 ‘아이의 활동이 성적 또는 입시와 관련되기 때문에’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III-6 주 양육자가 자녀의 청소년활동에 관심 갖는 주된 이유		(단위: 명, %)							
관심 이유	문화/예술 관련 활동	과학/ 정보 관련 활동	모험/ 개척 관련 활동	자원 봉사 활동	직업/ 진로 관련 활동	국제 교류 활동	건강/ 보건 관련 활동	자기 (인성) 개발 관련 활동	환경 보존 관련 활동
1순위 다양한 경험을 쌓기를 희망하여	39.4%	40.0%	37.9%	39.5%	39.6%	44.0%	37.3%	34.6%	40.3%
2순위 아이의 적성 개발 등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25.7%	25.9%	26.1%	23.7%	23.6%	28.3%	23.3%	29.8%	27.8%
3순위 아이의 활동이 성적 또는 입시와 관련되기 때문에	16.7%	14.7%	15.3%	18.9%	16.0%	11.2%	19.6%	18.0%	14.3%

② 청소년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활동은 ‘문화/예술 관련 활동(43.6%)’

○ 청소년이 가장 하고 싶어 하는 활동은 문화/예술 관련 활동(43.6%) > 모험/개척 관련 활동(13.5%) > 과학/정보 관련 활동(12.5%)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III-7 청소년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활동 종류(9-18세) : 1-3순위		(단위: 명, %)		
응답 순위	전체	9-12세	13-18세	
1	문화/예술 관련 활동(43.6%)	문화/예술 관련 활동(44.7%)	문화/예술 관련 활동(42.9%)	
2	모험/개척 관련 활동(13.5%)	모험/개척 관련 활동(15.1%)	모험/개척 관련 활동(12.4%)	
3	과학/정보 관련 활동(12.5%)	과학/정보 관련 활동(13.1%)	과학/정보 관련 활동(12.1%)	

③ 청소년의 단체(동아리) 활동률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자녀가 참여하는 청소년 단체(동아리)에 주 양육자가 관심을 갖는 주된 이유는 ‘다양한 경험을 쌓기를 희망하여’

○ 9-18세 청소년이 현재 가입하고 있는 단체(동아리)는 청소년 단체(동아리)(6.9%), 기타 단체(동아리)(6.3%),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단체(동아리)(2.0%) 순으로 나타나며, 모든 종류의 단체(동아리)의 가입률은 '20년 대비 감소함(각 1.9%p, 6.3%p, 5.3%p).



【그림 III-53】 연도별 청소년 단체(동아리) 활동률

○ 자녀가 참여하고 있는 모든 단체(동아리) 종류에 걸쳐 주 양육자가 관심을 두는 이유는 ‘다양한 경험을 쌓기를 희망하여’ > ‘아이의 적성 개발 등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 ‘아이의 활동이 성적 또는 입시와 관련되기 때문에’ 등의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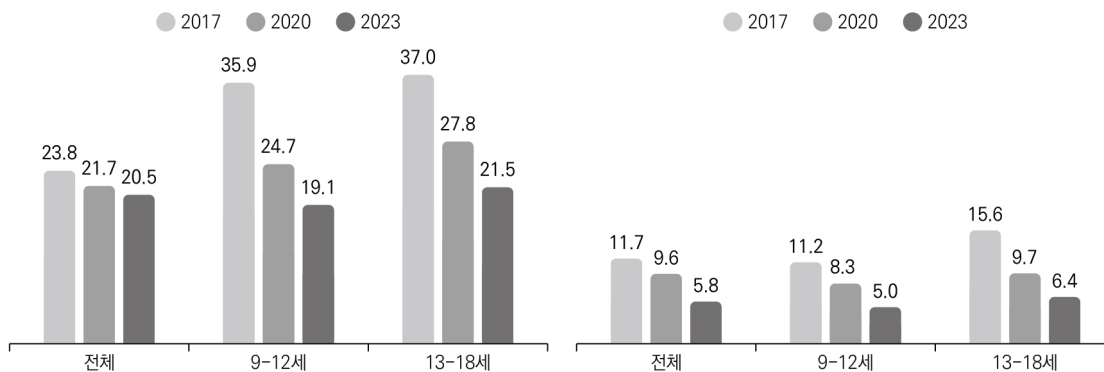
표 III-8 주 양육자가 자녀의 단체 및 동아리 활동에 관심을 갖는 주된 이유

(단위: 명, %)

관심 이유	청소년 단체(동아리)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단체(동아리)	기타 단체(동아리)
1순위 다양한 경험을 쌓기를 희망하여	37.3%	29.0%	37.1%
2순위 아이의 적성 개발 등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28.0%	26.3%	27.6%
3순위 아이의 활동이 성적 또는 입시와 관련되기 때문에	17.3%	23.6%	11.4%

④ 청소년 시설 중 청소년수련관 및 유스호스텔의 청소년 이용률이 지속 감소 추세

- 9-12세 이용 경험률 감소한 시설: 청소년수련관(5.6%p), 유스호스텔(3.3%p) 감소
- 13-18세 이용 경험률 감소한 시설: 청소년수련관(6.3%p), 유스호스텔(3.3%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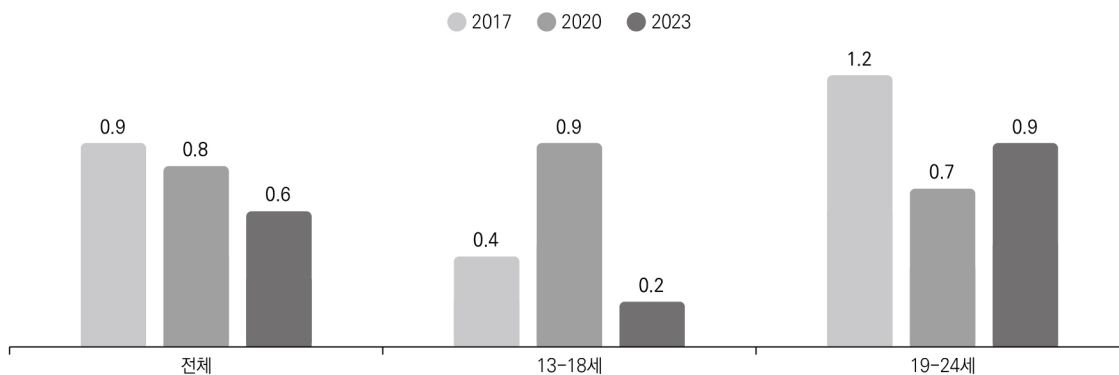
【그림 III-54】연도별 청소년수련관 이용률

【그림 III-55】연도별 유스호스텔 이용률

5-3. 학업 중단 경험

① 청소년 학업 중단 경험률 지속적 감소, 학업 중단 경험 있는 청소년의 향후 3년 이내 계획은 다수가 '취·창업'

- 학업 중단 경험에 있다는 응답은 0.6%로, 청소년의 학업 중단 경험은 '1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며, 연령대별로 '20년 대비 응답 변화가 다르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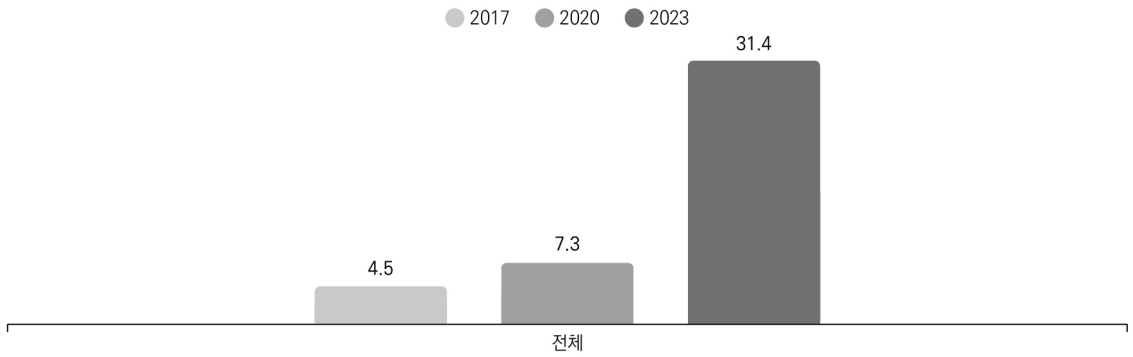
【그림 III-56】연도별 학업 중단 경험률

- 학업 중단 경험이 있는 청소년(33명)의 향후 3년 이내 진로 계획
 - 19-24세 대학 미진학 청소년의 비율이 높아 취창업 응답이 높음.

표 III-9	학업 중단 유경험 청소년의 향후 3년 이내 진로 계획			(단위: 명, %)
	진학	취창업	미결정 및 기타	
사례수	4명	19명	10명	

② 학업 중단 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 이용 경험 대폭(24.1%p) 증가

- 학업 중단 경험이 있는 13-24세 청소년(33명) 가운데 학교를 그만둔 이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를 이용한 청소년은 31.4%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 이용률은 '20년(7.3%) 대비 24.1%p 증가



【그림 III-57】 연도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률

영역 6. 직업선택 기준과 진로성숙도

《주요 시계열 변화 및 결과 요약》

- ☞ (직업선택) 13세-24세 청소년과 부모(주 양육자) 모두 직업 선택 1순위는 '자신의 능력', 부모와 자녀의 직업선택 기준이 일치하는 비율은 65.0%
- ☞ (진로성숙도) 13세-24세 청소년의 진로성숙도가 높을수록 주관적 웰빙과 자존감 수준 높음.

6-1. 직업선택 기준과 진로성숙도

① 주 양육자와 자녀 모두 직업 선택의 기준 1순위는 '자신의 능력(65.0%)'

- 청소년의 직업 선택 기준 3순위: 자신의 능력(43.0%) > 자신의 적성(17.1%) > 직업의 장래성(11.1%) > 안정성(10.9%) (표 II-114 참조)
- 주 양육자가 응답한 자녀 직업 선택 기준 3순위: 자신의 능력(28.0%) > 자신의 적성(20.8%) > 직업의 장래성(16.0%) (표 II-117 참조)
- 주 양육자와 자녀의 직업선택 기준이 일치하는 비율은 '자신의 능력' 65.0%, '자신의 적성' 35.8%, '직업의 장래성' 23.9%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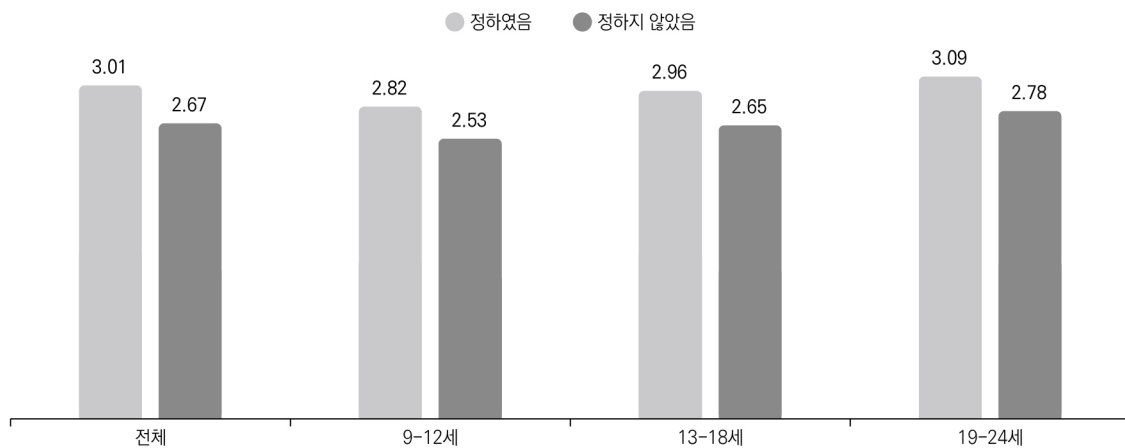
표 III-10 주 양육자와 청소년 자녀의 직업선택 기준 3순위

(단위: 명, %)

구분		청소년의 직업 선택 기준 3순위								
		전체			13-18세			19-24세		
		자신의 능력	자신의 적성	직업의 장래성	자신의 능력	자신의 적성	직업의 장래성	자신의 능력	자신의 적성	직업의 안정성
주양육자 자녀의 직업 선택 기준 3순위	자신의 능력	65.0%	9.1%	6.6%	61.8%	11.3%	5.8%	68.1%	7.0%	8.1%
	자신의 적성	34.3%	35.8%	10.7%	34.2%	36.2%	11.9%	34.5%	35.6%	9.9%
	직업의 장래성	29.1%	20.8%	23.9%	26.8%	19.3%	26.1%	31.3%	22.5%	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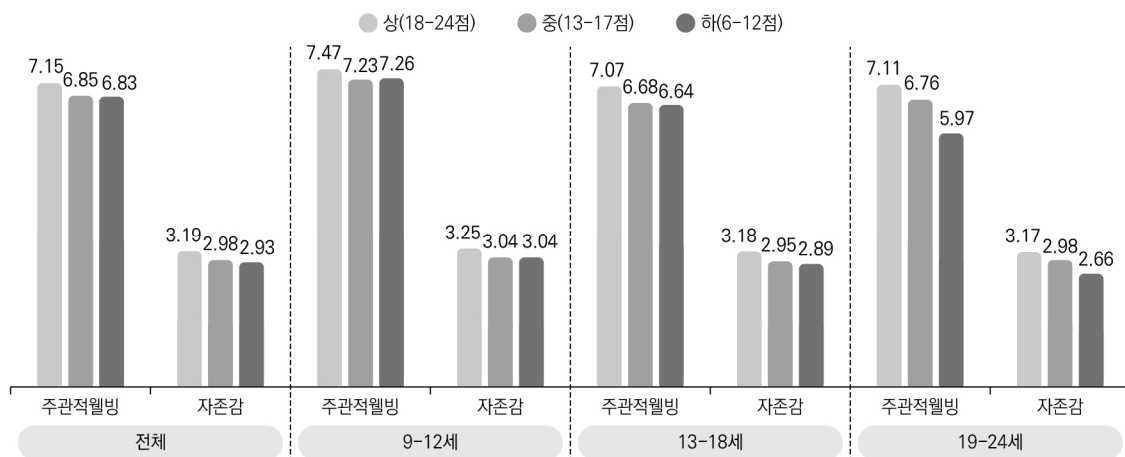
② 장래 희망 직업을 정한 청소년의 진로성숙도가 높고, 진로성숙도가 높을수록 주관적 웰빙과 자존감 수준 높음

- 장래 희망 직업을 결정한 청소년은 31.5%이며, 연령대별로 9-12세 20.0%, 13-18세 26.5%, 19-24세 42.0%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장래 희망 직업을 정했다는 응답이 높음(표 II-112 참조).
- 장래 희망 직업 결정 여부별 청소년의 진로성숙도는 희망 직업을 결정한 청소년(3.01점)의 진로성숙도 점수가 희망 직업을 결정하지 않은 청소년(2.67점)에 비해 높게 나타남.



【그림 III-58】 장래 희망 직업 결정 여부별 진로성숙도

- 진로성숙도 점수가 높은 청소년의 주관적 웰빙과 자존감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 수준에 따른 주관적 웰빙과 자존감의 점수 차이가 상대적으로 뚜렷해짐.



【그림 III-59】 진로성숙도 수준별 주관적 웰빙과 자존감

영역 7. 아르바이트 및 취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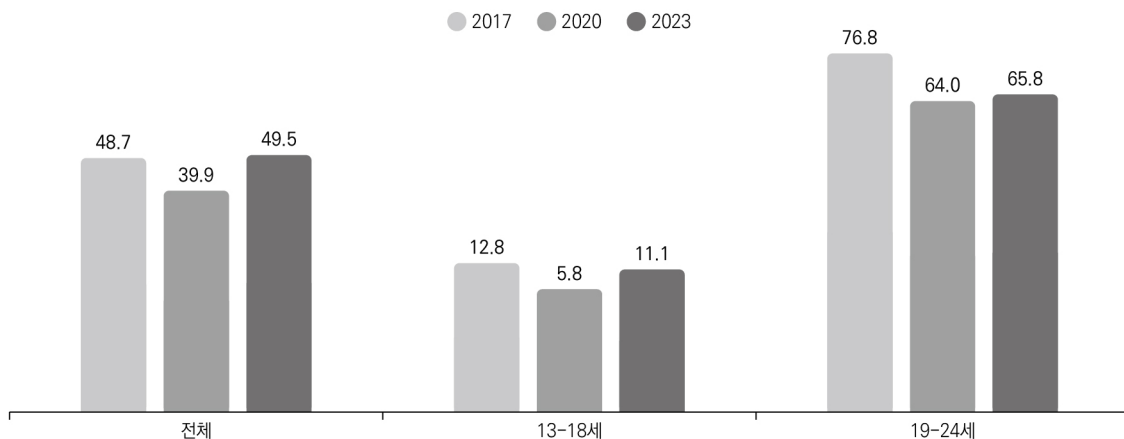
《주요 시계열 변화 및 결과 요약》

- ☞ (아르바이트 경험) 13세-24세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률(49.5%) '20년 대비 9.6%p 증가, 특히 13세-18세 경험률이 '20년 5.8%에서 '23년 11.1%로 증가
- ☞ (수입 목적 주당 1시간 이상 일 경험) 13-24세 청소년 중 주당 1시간 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경험률(30.3%)도 '20년 대비 11.3%p 증가, 특히 19세-24세 경험률이 '20년 30.2%에서 '23년 40.3%로 증가
- ☞ (일의 형태) 수입을 목적으로 임금근로형태로 일하는 13세-24세 청소년의 비중은 '17년 이래 지속 감소한 반면, 비임금근로 형태로 일하는 비중은 대폭 증가

7-1. 아르바이트 및 취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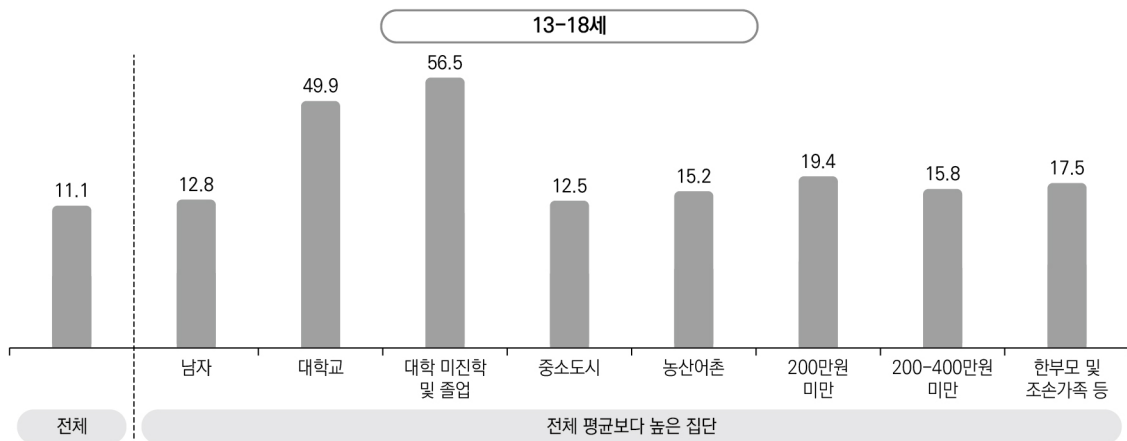
- ①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20년 대비 9.6%p 증가,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인 주 양육자 자녀의 아르바이트 경험률 높음

-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는 청소년은 49.5%로 '20년(39.9%) 대비 9.6%p 증가했고, 13-18세의 11.1%, 19-24세의 65.8%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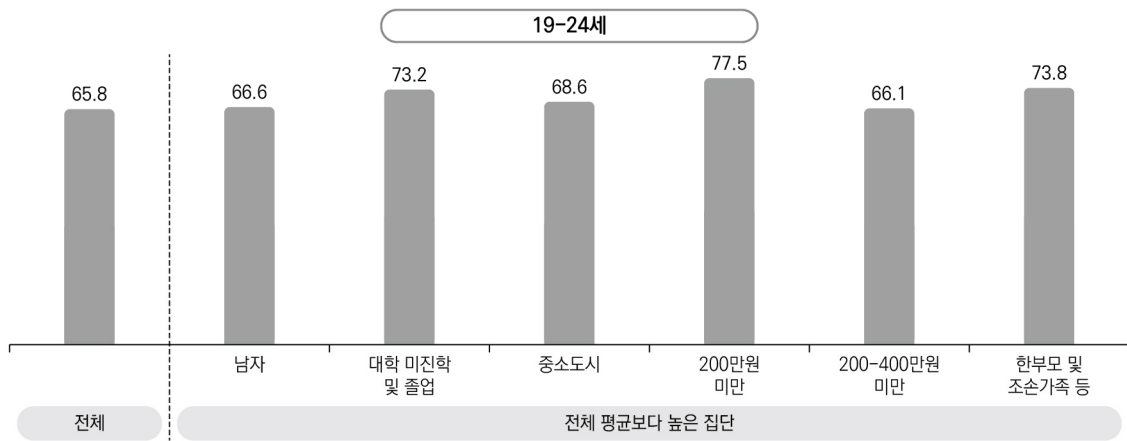


【그림 III-60】 연도별 아르바이트 경험률

- 특성별로 아르바이트 경험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집단은 13-18세와 19-24세 공통 남성, 대학 미진학 및 졸업자, 농산어촌 거주, 가구소득 400만원 미만,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에 해당하는 청소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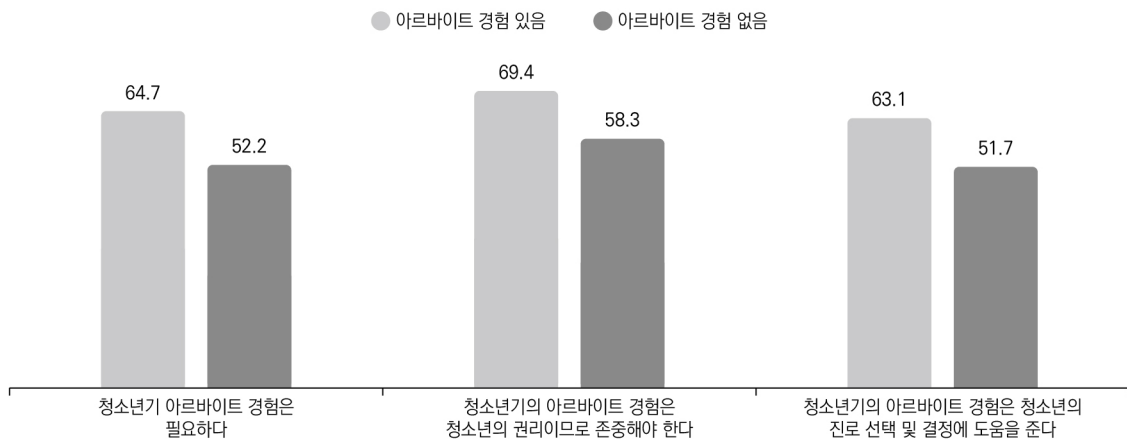


【그림 III-61】 아르바이트 경험률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집단(13-18세)



【그림 III-62】 아르바이트 경험률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집단(19-24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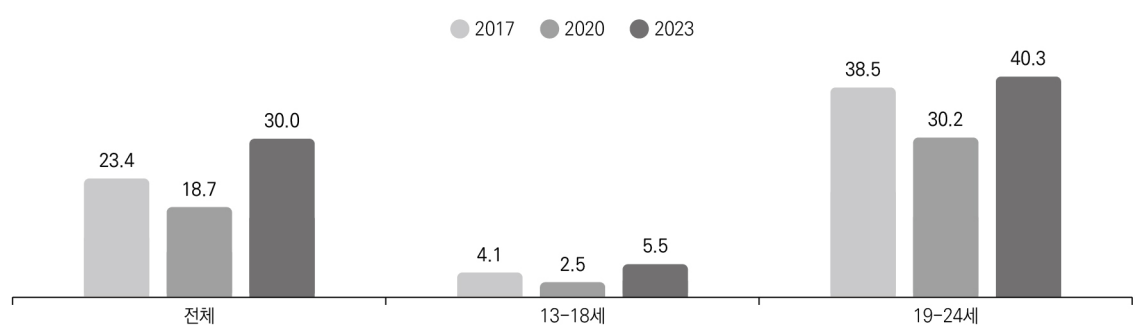
○ 주 양육자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항목 동의 비율과 자녀의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를 비교하면,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항목 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 양육자의 자녀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III-63】 주 양육자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항목의 동의 비율과 자녀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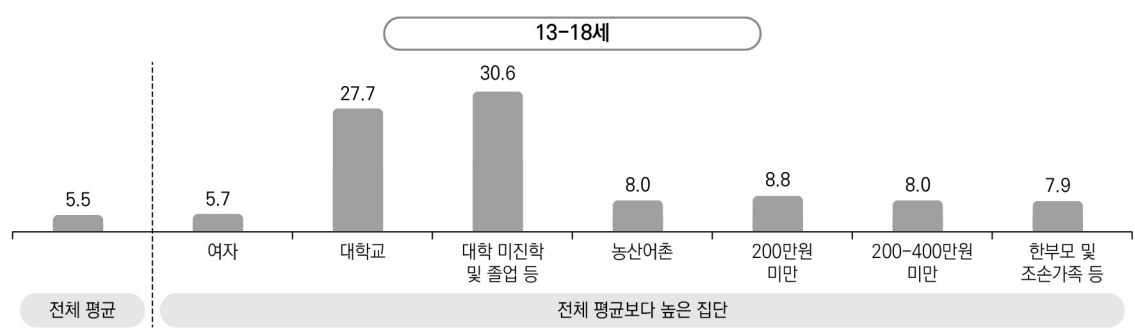
②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청소년은 '20년 대비 11.3%p 증가, 특히 여자,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 중소도시 거주자,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한부모 및 조손 가족 집단의 일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경험률 높음

○ 지난 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였다는 청소년은 30.0%로 '20년(18.7%) 대비 11.3%p 증가하였으며, 연령대별로는 13-18세의 5.5%, 19-24세의 40.3%는 지난 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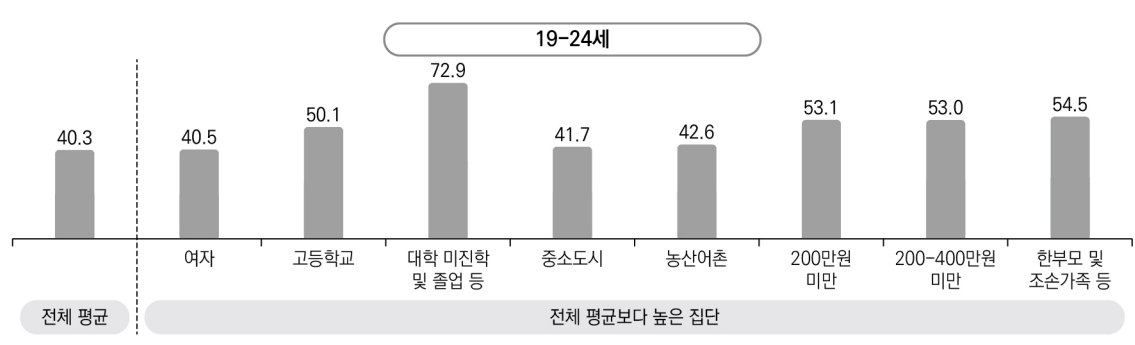


【그림 Ⅲ-64】연도별 지난 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했다는 응답

○ 특성별로 여자,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 중소도시 거주자,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한부모 및 조손 가족 외 집단에서 지난 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였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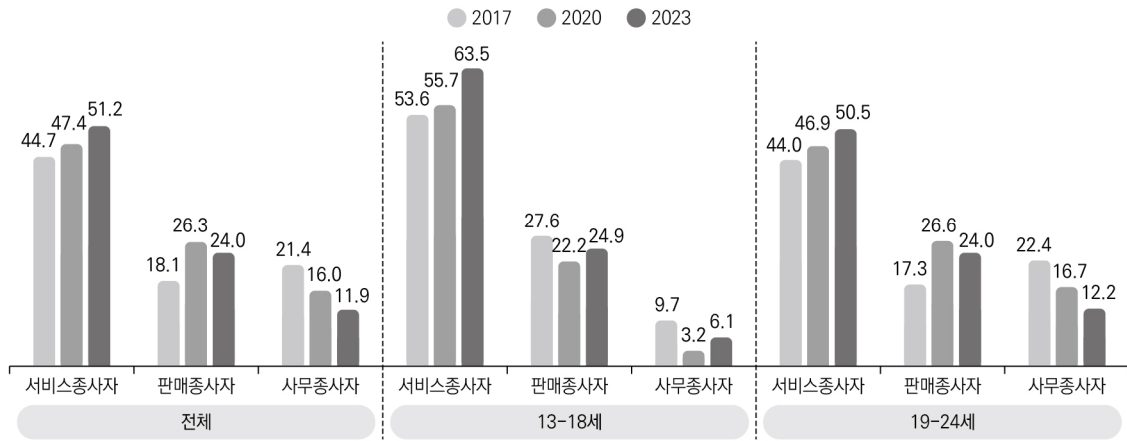
【그림 Ⅲ-65】지난 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했다는 응답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집단(13-18세)



【그림 Ⅲ-66】지난 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했다는 응답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집단(19-24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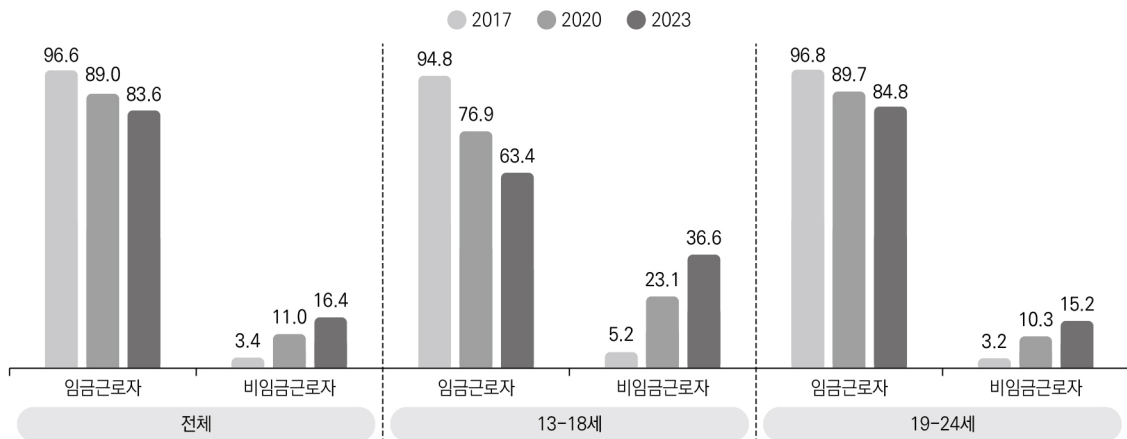
③ 청소년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직업은 '서비스직', 임금근로자 감소하고 비임금근로자 증가

○ 청소년이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직업은 서비스직(51.2%)이며, 다음으로 판매종사자(24.0%), 사무종사자(11.9%) 순으로 나타남.



【그림 III-67】 연도별 주요 직업(1~3순위 응답)

○ 청소년의 취업형태는 임금근로자 83.6%, 비임금근로자 16.4%로 나타나며, '17년 이후로 임금근로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13-18세의 비임금근로자 증가폭이 19-24세에 비해 크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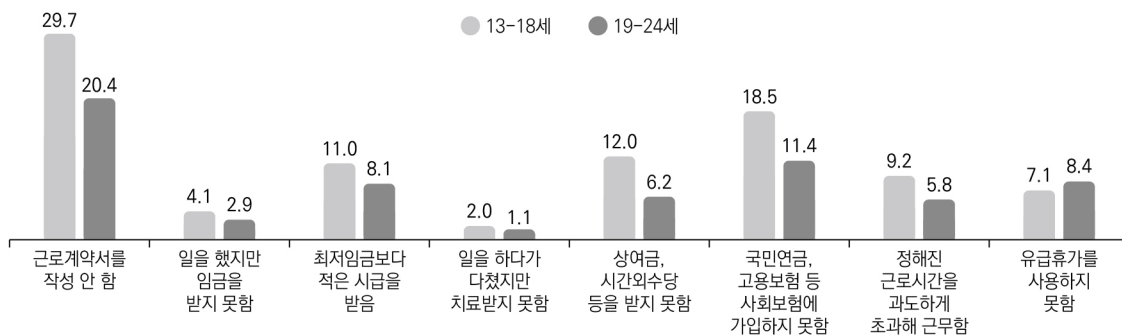


【그림 III-68】 연도별 취업형태

7-2. 부당행위 경험 및 아르바이트 경험에 따른 사회 인식

① 13-18세 임금근로자는 19-24세에 비해 더 다양한 부당행위를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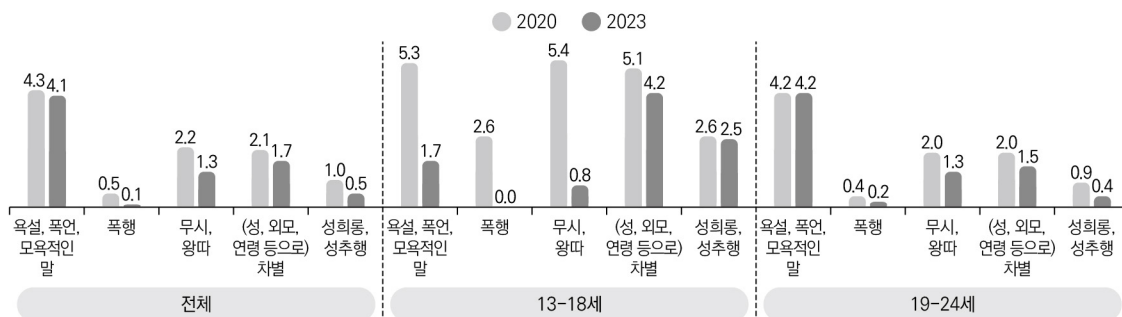
○ 일을 하면서 경험한 부당행위 경험률은 총 8개 항목 중 7개 항목에서 13-18세가 19-24세에 비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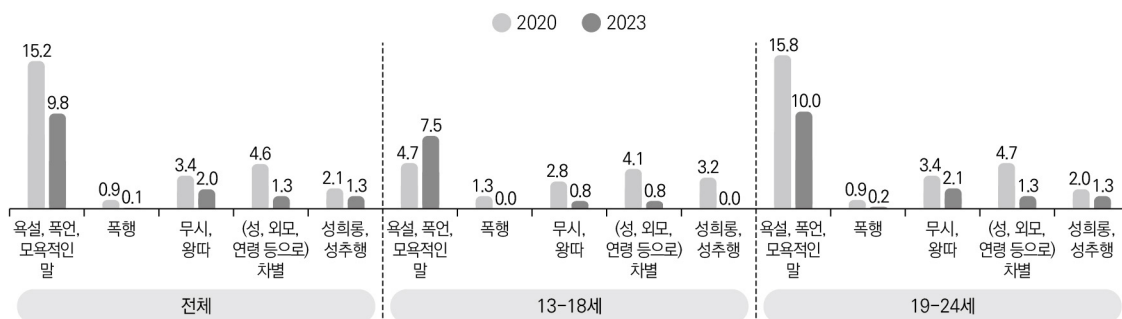
【그림 III-69】 연령대별 임금근로자가 경험한 부당행위

② 고용주/다른 직원, 손님으로부터 당한 부당행위 경험률 '20년 대비 감소

○ 13-24세 청소년이 일을 하면서 고용주/다른 직원으로부터 당한 부당행위 경험률과 손님으로부터 당한 부당행위 경험률은 모든 종류의 부당행위에 걸쳐 '20년 대비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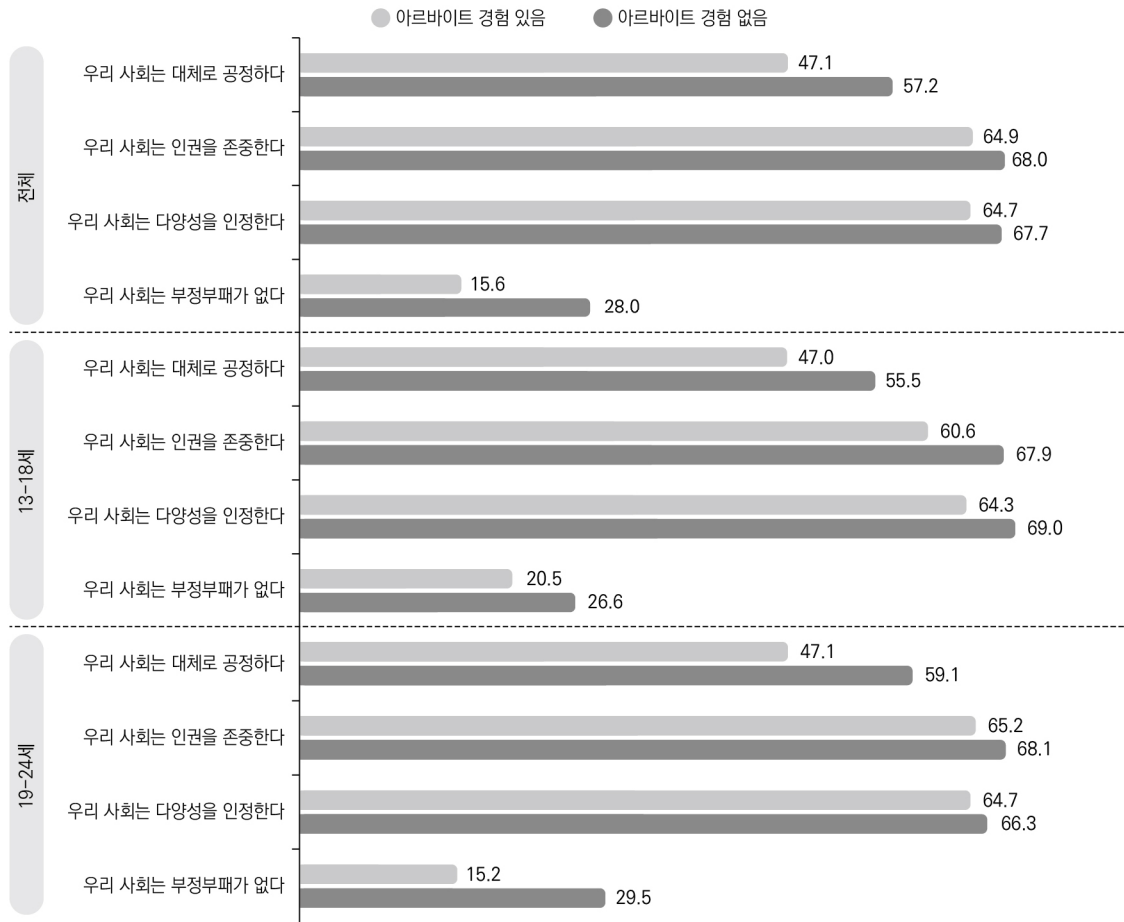
【그림 III-70】 고용주/다른 직원으로부터 당한 부당행위 경험률



【그림 III-71】 손님으로부터 당한 부당행위 경험률

③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사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낮음

○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우리 사회는 대체로 공정하다’, ‘우리 사회는 인권을 존중한다’, ‘우리 사회는 다양성을 인정한다’, ‘우리 사회는 부정부패가 없다’ 항목의 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그림 III-72】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별 사회 인식 동의 비율

2. 조사 개선을 위한 제언

2-1. 조사 표본 수 확대 및 예산 증액

① 정책 활용 측면에서의 필요

- 9-24세 청소년의 대표성 있는 표본 수 7,500여 명에 대한 조사자료로 전체의 경향성은 파악 가능하나, 다양한 상태로 존재하는 하위집단은 물론 정책 타겟 집단을 설정하고 필요 정책 사업을 계획하는데 필요한 세부 집단의 규모 파악과 특성 분석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는 표본 수의 제약이 큰 상황임.
- 표본 수가 대폭 확대된다면, 9-24세 전체 청소년과 다양한 하위집단(예: 학교밖, 위기 등)의 특성을 비교 분석할 수 있고 정책 현안으로 논의되는 대상(예: 고립·은둔, 자살위험 고위기 등)에 대한 대략적인 규모 파악부터 특성에 대한 이해까지 빠른 정책자료 생산이 가능하며, 근거기반 정책설계를 위한 검토 작업에 빠른 착수가 가능함.
- 이에 청소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서 본 실태조사의 활용도를 높이고, 충분한 활용을 위해서는 차년도 조사(2026년) 표본 수의 대폭 확대 추진이 필요함.

② 조사자료의 질적 제고 측면에서의 필요

- 2023년 조사를 위해 책정된 예산으로는 적정 수준의 응답자 사례를 하지 못하는 상황임.
 - 응답 답례품 또는 사례비는 조사 협조 및 응답률에 영향을 미침
- 조사연구 예산 증액의 어려움은 있겠으나, 조사 현장 면접원의 수당에 대한 물가상승분의 반영과 응답자 사례비 적정수준 반영을 위한 예산 증액은 차년도 조사(2026년)에 반영 필요

2-2. 조사내용 구성의 재편

① 정책대상자 ‘청소년’에 대한 이해 중심으로 영역 재편

- 2019년 2020년 실태조사를 위한 사전연구를 통해 조사설계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청소년과 청소년 성장의 미시환경으로서 주양육자의 응답을 연계하는 방식의 개선안이 도출되었고, 2020년에 적용하지 못하였으나 2023년 조사 및 분석에 연계 분석을 통한 함의를 다각적으로 도출하였음.

- 이와 같은 개선 노력의 연장선으로 현재 주요 7개 영역으로 측정하는 내용 구성을 오늘날 청소년의 일상의 실태와 태도, 의식을 파악하는 방향으로 주요 영역 구성을 검토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재편이 필요한 시점임.

② 핵심 측정 사항과 정책 현안 대응 관련 실태조사로 이원화된 모듈(module) 구성

- 비 가변적 핵심 측정 사항에 대해 지표화하고, 시계열 변화 추이 모듈을 기본으로 구성, 그 외 실태와 관련한 측정 문항은 기본계획 및 정책 현안 대응과 관련한 실태조사 모듈로 구성하여 조사 차수마다 탄력적으로 정책 이슈 대응 필요
- 주요 문항 전체에 대한 시계열성이 강조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며, 비 가변적 핵심지표 측정 부분과 가변적 정책이슈 대응 실태 측정 부분으로 재편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현행	7개 영역 나열 구성		
	<div> <div>↓</div> <div>↓</div> <div>↓</div> </div>		
제안	핵심 지표 측정 부분	+	정책 이슈 및 실태 측정 부분

2-3. 심층 분석연구 추진

① 3년 주기 활용 ‘사전 연구 - 본조사 실시 - 심층분석 연구’로 체계화

- 본 조사가 실시되는 해에 연구용역 계약 후 기존 문항 검토 및 신규문항 개발·작성을 통한 조사표를 확정하고 통계청 승인 및 현장 실사, 결과 분석을 통한 정책 함의 도출까지 시간 제약이 있음.
- 특히 문항 개발 및 작성에 시간을 할애하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으로 질적으로 개선된 기초자료의 확보하는데 제한점이 있음.
- 이에 본조사가 실시되기 전년도에는 사전 연구를 통해 조사표 개발을 완료하고, 조사가 실시되는 해에는 상반기에 빠른 현장실사를 착수하여 자료수집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조사 실시 이듬해에는 심층분석을 통해 정책사업 추진 및 검토에 필요한 실증 자료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함.

② 결과의 근거 기반 정책 활용 강화

- 제안된 시스템을 통해 3년 주기 본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한 근거 기반 정책수립의 강화는 물론, 새로운 정책연구 및 정책 사업의 발굴도 가능할 것임.

.....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보고서 본문에 인용된 참고 자료》

김기현, 문호영, 황세영, 유민상, 김균희, 이용혜(20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김지경, 김균희, 이민정(2019).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사전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백혜정, 임희진, 김현철, 유성렬(2017).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조사 문항 검토 및 신규 문항 작성 시 참고 자료》

관계부처합동(2023.02).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23~2027).
 로버타카츠, 세라 오길비, 제인 쇼, 린다 우드헤드(2022). GEN Z: 디지털 네이티브의 등장. 경기: ㈜ 문학동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 기본법」<https://www.law.go.kr> (2023.04.03. 검색 및 인출).
 이동한(2023.03.22.) 여론속의 여론 기획: Z세대에 대한 인식과 오해,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222-2호).
 통계청 e-나라지표, 국민삶의질 지표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LifeIndicator.do?cdNo=220>(2023.04.03. 검색).
 EURODESK(2022). Youth Info Survey 2022 : Mobility and the Role of Information. Eurodesk Brussels. https://eurodesk.eu/youth_info_survey_2022 (2023.04.03. 검색 및 인출).
 European Parliament(2021). European Parliament Youth Survey. European Union. <https://www.europarl.europa.eu/at-your-service/en/be-heard/eurobarometer/youth-survey-2021>(2023.04.03. 검색 및 인출).
 Mission Australia(2022). Mission Australia Youth Survey 2022. <https://www.missionaustralia.com.au/content/item/631-mission-australia> (2023.04.03. 검색 및 인출).
 OECD(2013). OECD 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9789264191655-en> (2023.04.03. 검색 및 인출).
 UN(2021). Global Youth Survey for the World Youth Report 2021: Improving Youth Wellbeing and Mental Health.

<https://www.un.org/development/desa/youth/world-youth-report/global-youth-survey-2021.html> (2023.04.03. 검색 및 인출).

부 록

1. 분석 결과 부표
2. 주요 지표 상대표준오차
3. 2023년 청소년 조사표 변경내역
4. 조사표 4종

[부 록]

1. 분석 결과 부표

부표 1 자기의존지향성 : 1순위+2순위+3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체									9-12세									13-18세									19-24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연도별	2023	7,423	82.6	35.8	75.8	19.2	40.0	4.1	13.0	29.2	0.3	75.8	35.2	83.9	24.1	43.1	4.2	12.0	21.1	0.5	80.5	35.4	76.0	20.0	42.7	4.4	11.7	29.0	0.2	88.1	36.5	71.1	15.8	36.0	3.8	14.5	33.9	0.2
청소년 성별	남자	3,837	82.5	35.8	75.3	18.8	40.2	4.0	13.1	30.0	0.2	76.5	35.1	83.7	24.9	41.1	4.0	12.3	22.0	0.3	80.6	34.6	76.1	19.7	42.2	4.7	12.2	29.7	0.1	87.3	37.2	70.0	14.6	38.1	3.5	14.4	34.6	0.2
	여자	3,586	82.7	35.9	76.4	19.6	39.7	4.2	12.8	28.4	0.4	75.0	35.4	84.2	23.1	45.2	4.5	11.7	20.2	0.7	80.5	36.3	76.0	20.3	43.2	4.1	11.1	28.2	0.3	89.0	35.8	72.3	17.0	33.7	4.1	14.7	33.2	0.2
학교급 및 재학 여부	초등학교	1,626	75.9	35.6	84.3	23.3	43.0	4.2	12.1	21.1	0.5	76.0	35.4	84.6	23.4	43.0	4.1	12.0	20.8	0.6	69.1	41.4	71.3	20.4	39.5	6.8	17.7	33.9	-	-	-	-	-	-	-	-	-	
	중학교	1,354	76.4	37.0	76.8	22.1	43.8	5.2	11.0	27.5	0.3	73.3	33.1	77.1	31.0	43.6	5.1	12.1	24.7	-	76.8	37.5	76.8	20.9	43.8	5.3	10.8	27.8	0.3	-	-	-	-	-	-	-	-	
	고등학교	1,264	84.0	34.1	75.3	18.5	43.1	3.9	12.4	28.6	0.1	-	-	-	-	-	-	-	-	-	84.0	33.7	76.3	18.7	42.4	3.6	12.1	29.0	0.1	86.0	43.0	51.6	13.4	58.1	10.3	19.7	17.9	-
	대학교	2,608	88.2	35.1	71.8	16.4	36.1	4.0	14.6	33.6	0.3	-	-	-	-	-	-	-	-	-	89.4	29.1	68.3	25.0	35.2	3.8	13.3	35.9	-	88.2	35.3	71.9	16.0	36.2	4.0	14.6	33.5	0.3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	570	87.8	41.4	68.8	14.9	33.3	1.9	13.7	38.1	-	-	-	-	-	-	-	-	-	-	68.0	44.3	55.9	12.6	32.3	-	18.1	68.8	-	88.2	41.4	69.0	14.9	33.4	2.0	13.6	37.5	-
거주 지역	대도시	3,124	84.6	37.8	77.0	19.5	39.5	3.4	10.3	27.6	0.4	77.8	37.1	87.6	25.1	40.7	4.0	8.7	18.3	0.5	82.3	35.6	79.1	19.7	42.7	3.4	9.8	27.2	0.2	89.7	39.7	70.2	16.5	36.5	3.1	11.4	32.6	0.4
	중소도시	3,263	81.5	33.3	75.9	19.0	39.3	4.8	14.7	31.3	0.2	75.6	33.3	82.2	23.0	42.5	4.5	14.1	24.2	0.4	79.3	34.0	76.5	19.9	42.0	5.0	12.3	30.9	0.2	86.7	32.7	72.0	16.1	35.3	4.7	17.0	35.6	-
	농산어촌	1,036	80.0	38.1	71.8	18.8	43.7	4.1	15.7	27.5	0.5	71.3	35.8	79.7	24.1	50.0	4.0	14.4	20.0	0.7	79.6	39.2	66.4	21.2	45.0	5.2	15.0	28.2	0.2	87.6	38.8	71.1	11.8	37.0	2.9	17.4	32.9	0.6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418	89.0	33.8	66.9	10.7	48.7	5.7	16.6	28.4	0.3	77.0	28.9	88.6	14.7	53.5	2.9	8.9	22.2	3.2	77.5	34.2	74.4	13.6	49.1	6.3	12.5	32.3	-	92.8	34.3	62.8	9.6	48.1	5.8	18.4	28.3	-
	200~400만원 미만	1,392	76.8	41.7	68.5	17.4	43.9	3.9	14.3	33.2	0.4	72.3	38.9	83.8	21.3	47.2	2.2	12.0	21.8	0.5	73.9	41.0	64.7	18.3	45.3	4.9	15.9	35.6	0.3	82.8	44.4	59.7	13.4	40.0	4.4	14.8	40.0	0.5
	400~600만원 미만	3,654	83.2	36.4	75.7	18.4	39.5	4.1	13.1	29.3	0.3	77.7	33.6	82.2	23.9	44.0	4.6	12.8	20.6	0.5	81.3	35.3	76.2	17.8	43.3	4.1	12.0	29.6	0.2	88.4	39.1	71.1	15.4	33.1	3.9	14.3	34.5	0.2
	600만원 이상	1,959	84.2	31.2	83.2	23.8	36.4	3.8	10.9	26.5	0.2	74.8	35.8	87.9	28.2	35.4	5.7	10.3	21.6	0.2	83.5	32.3	82.9	25.5	39.5	4.4	8.4	23.5	0.1	89.1	28.1	81.2	20.3	34.0	2.4	13.3	31.3	0.2
가구 형태	양부모	6,607	82.3	35.6	77.1	19.7	39.0	4.2	12.7	28.9	0.3	76.0	35.0	83.9	24.3	43.1	4.4	12.1	20.8	0.5	81.0	35.5	76.4	20.0	42.1	4.4	11.9	28.6	0.2	87.7	36.3	73.4	16.5	33.2	4.0	14.0	34.7	0.2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372	79.7	35.6	76.0	17.3	44.1	1.7	8.8	36.8	-	72.2	41.0	85.8	19.8	42.3	0.7	9.3	28.8	-	70.7	34.9	69.5	20.3	55.7	4.5	7.9	36.6	-	89.0	33.7	75.6	14.1	37.4	0.3	9.2	40.6	-

* 주: 1) ① 나 자신의 이성관, ② 나 자신의 이성관, ③ 부모/조부모 의견, ④ 형제 의견, ⑤ 친구들 의견, ⑥ 종교적 신념, ⑦ 과거 경험, ⑧ 인터넷 정보, ⑨ 기타

가장 염려되는 문제(1+2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체								13~18세								19~24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연도별	2023	5,680	37.5	26.9	25.9	46.3	39.2	15.2	9.0	0.0	40.6	27.5	24.2	47.5	33.3	17.0	9.7	0.1	35.0	26.5	27.2	45.3	44.0	13.7	8.4	-
청소년 성별	남자	2,942	37.1	24.9	27.3	45.8	40.5	14.7	9.7	0.1	40.2	26.1	24.4	46.0	35.0	17.1	11.1	0.1	34.5	23.9	29.6	45.7	44.9	12.8	8.5	-
	여자	2,737	38.0	29.1	24.3	46.9	37.8	15.7	8.2	0.0	41.0	29.0	24.0	49.2	31.5	17.0	8.2	0.1	35.4	29.2	24.6	44.9	43.0	14.6	8.2	-
학교급	초등학교	37	51.0	33.2	28.2	48.3	20.2	19.1	-	-	51.0	33.2	28.2	48.3	20.2	19.1	-	-	-	-	-	-	-	-	-	-
	중학교	1,200	42.7	26.2	24.2	47.3	31.4	18.6	9.3	0.2	42.7	26.2	24.2	47.3	31.4	18.6	9.3	0.2	-	-	-	-	-	-	-	-
	고등학교	1,264	38.8	28.7	24.5	47.4	35.3	15.7	9.6	-	38.5	28.4	24.8	47.9	34.9	15.5	10.0	-	45.6	35.9	18.4	34.6	43.4	22.1	-	-
	대학교	2,608	35.4	25.5	28.5	44.8	42.7	14.4	8.7	-	38.2	31.0	17.9	43.3	39.3	16.1	14.2	-	35.3	25.3	28.9	44.8	42.9	14.3	8.5	-
	대학 미진학 및 졸업 등	570	32.2	30.8	19.9	48.9	49.3	10.4	8.6	-	20.1	27.1	-	63.1	55.3	24.8	9.7	-	32.4	30.8	20.3	48.6	49.2	10.1	8.5	-
거주지역	대도시	2,430	37.8	25.9	26.3	49.7	39.2	11.8	9.3	0.0	41.2	27.7	24.0	49.7	32.2	15.2	9.9	0.1	35.3	24.6	28.0	49.6	44.3	9.3	8.9	-
	중소도시	2,511	36.7	26.7	26.6	43.9	40.0	17.3	8.7	0.1	40.2	26.7	25.7	45.8	35.4	16.7	9.4	0.1	33.9	26.7	27.3	42.2	43.9	17.9	8.1	-
	농산어촌	738	39.1	31.2	21.8	43.7	36.5	19.1	8.7	-	40.2	29.5	20.2	46.6	30.2	23.2	10.0	-	37.8	32.9	23.6	40.6	43.2	14.6	7.2	-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381	39.5	22.8	19.9	50.9	41.3	17.3	8.1	-	38.5	31.9	11.9	62.6	31.7	16.5	6.9	-	39.8	20.9	21.7	48.5	43.3	17.5	8.4	-
	200~400만원 미만	979	40.2	30.2	21.8	47.0	35.8	16.1	8.9	-	43.2	31.2	20.7	48.5	29.0	16.9	10.5	-	37.7	29.4	22.7	45.7	41.6	15.5	7.4	-
	400~600만원 미만	2,744	36.1	27.8	26.1	46.6	38.0	15.8	9.5	0.1	38.6	27.8	24.2	46.3	35.2	17.6	10.1	0.1	33.9	27.7	27.9	46.9	40.6	14.1	8.9	-
	600만원 이상	1,576	37.7	24.4	29.3	44.3	42.8	13.1	8.3	0.1	42.8	24.3	27.4	47.7	32.8	16.2	8.7	0.1	33.2	24.5	31.0	41.4	51.6	10.4	8.0	-
가구형태	양부모	4,945	37.9	27.1	26.4	45.5	38.4	15.5	9.1	0.0	40.8	27.5	24.5	47.1	33.3	17.0	9.8	0.1	35.0	26.8	28.3	43.9	43.3	14.1	8.4	-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291	33.4	31.4	19.8	55.1	41.7	11.7	7.0	-	35.8	28.7	17.4	57.8	33.0	18.6	8.7	-	31.8	33.1	21.4	53.3	47.3	7.1	5.9	-

주: 1) 이 문항은 '23년부터 신규로 측정된 문항임.

2) ① 지구의 미래와 환경, ② 불평등 심화, ③ 세계정치 불안정 및 전쟁, ④ 범죄와 폭력, ⑤ 경제 불황 및 위기, ⑥ 사회와 시민 갈등, ⑦ 첨단기술이 가져올 미래, ⑧ 기타

부표 3

청소년 정서와 활동 참여

(단위: 명, %)

구분			전체									9-12세									13-18세								
			문화/ 예술 관련 활동	과학/ 정보 관련 활동	모험/ 개척 관련 활동	자원 봉사 활동	직업/ 진로 관련 활동	국제 교류 활동	건강/ 보건 관련 활동	자기 (인성) 계발 관련 활동	환경 보존 관련 활동	문화/ 예술 관련 활동	과학/ 정보 관련 활동	모험/ 개척 관련 활동	자원 봉사 활동	직업/ 진로 관련 활동	국제 교류 활동	건강/ 보건 관련 활동	자기 (인성) 계발 관련 활동	환경 보존 관련 활동	문화/ 예술 관련 활동	과학/ 정보 관련 활동	모험/ 개척 관련 활동	자원 봉사 활동	직업/ 진로 관련 활동	국제 교류 활동	건강/ 보건 관련 활동	자기 (인성) 계발 관련 활동	환경 보존 관련 활동
주관적 웰빙	긍정 정서	상(14~20점)	63.7	64.7	62.5	54.6	52.8	57.2	63.5	55.3	62.1	72.1	75.3	72.3	69.0	65.2	74.3	76.9	65.0	70.0	58.5	57.2	55.1	50.0	48.5	51.6	55.8	50.2	55.2
		중(7~13점)	35.9	35.0	36.8	45.1	46.0	42.8	35.8	44.6	37.8	27.7	24.3	27.2	30.6	33.6	25.7	22.6	35.0	29.7	41.0	42.5	44.1	49.8	50.3	48.4	43.3	49.6	44.8
		하(0~6점)	0.4	0.3	0.6	0.3	1.2	-	0.8	0.1	0.1	0.2	0.4	0.5	0.4	1.3	-	0.5	-	0.3	0.5	0.3	0.7	0.2	1.2	-	0.9	0.2	-
	부정 정서	상(14~20점)	2.4	3.6	4.2	3.3	5.6	8.3	2.4	2.5	2.4	2.1	2.4	3.3	2.4	4.6	16.6	1.2	2.9	1.8	2.5	4.4	5.0	3.5	5.9	5.6	3.1	2.4	2.9
		중(7~13점)	40.4	44.0	43.9	43.6	47.9	38.6	49.6	43.2	39.3	32.6	35.4	32.1	31.5	34.4	32.4	41.2	30.4	31.0	45.3	50.0	52.8	47.4	52.5	40.6	54.4	49.9	46.4
		하(0~6점)	57.2	52.5	51.9	53.2	46.6	53.1	48.1	54.2	58.3	65.3	62.3	64.6	66.0	61.0	50.9	57.6	66.7	67.2	52.2	45.5	42.3	49.1	41.6	53.8	42.6	47.7	50.6
	삶의 만족	상(7~10점)	66.9	68.4	67.6	58.0	56.7	65.4	67.3	60.8	67.8	76.4	78.2	77.0	73.6	74.3	83.9	81.8	73.2	76.7	61.0	61.5	60.4	53.0	50.6	59.4	59.0	54.3	60.0
		중(4~6점)	31.1	29.9	31.4	39.6	40.0	34.6	30.4	36.0	30.9	21.9	21.0	21.6	25.4	23.9	16.1	16.4	23.7	22.5	36.8	36.3	38.8	44.1	45.5	40.6	38.4	42.5	38.1
		하(0~3점)	2.0	1.6	1.1	2.5	3.4	-	2.3	3.2	1.4	1.7	0.8	1.4	1.0	1.8	-	1.8	3.2	0.8	2.2	2.2	0.9	3.0	3.9	-	2.6	3.2	1.9
스트 레스	일상 생활 스트 레스	경험함	70.6	69.9	67.5	78.5	77.0	80.5	69.1	77.2	70.3	53.3	52.6	50.2	63.5	57.6	74.4	47.0	57.2	56.1	81.3	82.2	80.6	83.3	83.6	82.5	81.8	87.6	82.6
		경험하지 않음	29.4	30.1	32.5	21.5	23.0	19.5	30.9	22.8	29.7	46.7	47.4	49.8	36.5	42.4	25.6	53.0	42.8	43.9	18.7	17.8	19.4	16.7	16.4	17.5	18.2	12.4	17.4
	무기력 상태	경험함	20.1	22.4	23.1	27.9	28.4	29.9	20.6	25.6	21.5	13.0	15.7	16.7	26.9	21.6	36.8	11.7	16.5	14.5	24.4	27.2	27.9	28.3	30.7	27.6	25.7	30.3	27.6
		경험하지 않음	79.9	77.6	76.9	72.1	71.6	70.1	79.4	74.4	78.5	87.0	84.3	83.3	73.1	78.4	63.2	88.3	83.5	85.5	75.6	72.8	72.1	71.7	69.3	72.4	74.3	69.7	72.4
회복탄력성	상(18-24점)		8.6	9.9	9.9	8.2	8.8	15.1	8.5	13.3	10.2	9.0	11.1	11.2	11.2	10.3	38.1	9.8	16.2	10.6	8.3	9.1	8.9	7.2	8.3	7.6	7.7	11.7	9.9
	중(13-17점)		86.0	85.3	86.0	86.3	84.5	80.1	86.9	80.5	83.8	84.3	83.7	84.0	82.3	82.1	53.9	84.5	75.6	82.2	87.0	86.4	87.5	87.6	85.3	88.6	88.3	83.1	85.2
	하(6-12점)		5.4	4.8	4.1	5.5	6.7	4.9	4.6	6.2	6.0	6.7	5.2	4.9	6.5	7.6	7.9	5.7	8.2	7.2	4.6	4.5	3.5	5.2	6.4	3.9	4.0	5.2	5.0
대인관계 역량	상(10-12점)		45.1	48.8	49.0	42.9	42.3	47.7	42.3	49.8	49.2	47.7	49.5	52.3	51.2	47.0	51.4	42.9	52.9	50.5	43.5	48.3	46.5	40.3	40.6	46.4	42.0	48.2	48.1
	중(7-9점)		53.6	50.2	50.0	55.6	55.7	51.8	56.4	49.0	49.8	51.5	49.4	46.8	48.3	50.6	46.3	55.9	46.1	48.8	54.8	50.7	52.4	58.0	57.5	53.6	56.7	50.5	50.7
	하(3-6점)		1.3	1.0	1.0	1.4	2.0	0.6	1.3	1.2	1.0	0.9	1.1	0.9	0.5	2.4	2.3	1.3	0.9	0.7	1.7	1.0	1.1	1.8	1.9	-	1.3	1.3	1.2
자존감	상(10-12점)		35.9	44.9	44.8	38.0	36.2	46.9	36.4	40.4	40.8	38.3	47.8	47.8	40.4	43.8	45.7	37.6	45.0	43.3	34.4	42.8	42.5	37.2	33.5	47.2	35.7	38.0	38.7
	중(7-9점)		62.1	53.1	52.2	60.0	61.1	50.4	61.6	57.9	57.2	60.0	50.8	49.3	57.8	53.9	51.5	60.7	53.4	53.9	63.4	54.8	54.5	60.8	63.6	50.1	62.1	60.2	60.1
	하(3-6점)		2.0	2.0	3.0	2.0	2.8	2.7	2.0	1.7	2.0	1.6	1.5	2.9	1.8	2.4	2.8	1.7	1.6	2.8	2.2	2.4	3.0	2.0	2.9	2.7	2.2	1.8	1.3

2. 주요 지표 상대표준오차

표 1 주관적 웰빙		(단위: 점, %p)				
구분		추정값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상대표준오차 (RSE)
				하한	상한	
전체		6.9712	0.02994	6.9125	7.0300	0.430
청소년 성별	남성	6.9558	0.03372	6.8895	7.0220	0.485
	여성	6.9878	0.03289	6.9232	7.0524	0.471
청소년 연령별	만9~12세	7.2952	0.04306	7.2106	7.3797	0.590
	만13~18세	6.8164	0.03725	6.7433	6.8895	0.546
	만19~24세	6.9173	0.03788	6.8430	6.9917	0.548

표 2 일상생활 만족도		(단위: 점, %p)				
구분		추정값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상대표준오차 (RSE)
				하한	상한	
전체		7.3741	0.03099	7.3133	7.4350	0.420
청소년 성별	남성	7.3635	0.03372	7.2973	7.4297	0.458
	여성	7.3855	0.03365	7.3194	7.4516	0.456
청소년 연령별	만9~12세	7.6181	0.04114	7.5373	7.6988	0.540
	만13~18세	7.2996	0.03744	7.2261	7.3731	0.513
	만19~24세	7.2990	0.03668	7.2270	7.3710	0.502

표 3 **회복탄력성**

(단위: 점, %p)

구분		추정값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상대표준오차 (RSE)
				하한	상한	
전체		2.8137	0.00989	2.7943	2.8331	0.351
청소년 성별	남성	2.8302	0.01142	2.8078	2.8526	0.403
	여성	2.7960	0.01109	2.7742	2.8178	0.397
청소년 연령별	만9~12세	2.8420	0.01452	2.8135	2.8705	0.511
	만13~18세	2.7733	0.01207	2.7496	2.7970	0.435
	만19~24세	2.8310	0.01261	2.8062	2.8558	0.446

표 4 **대인관계역량**

(단위: 점, %p)

구분		추정값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상대표준오차 (RSE)
				하한	상한	
전체		3.0942	0.00965	3.0752	3.1131	0.312
청소년 성별	남성	3.1062	0.01071	3.0852	3.1272	0.345
	여성	3.0813	0.01137	3.0590	3.1037	0.369
청소년 연령별	만9~12세	3.1233	0.01271	3.0984	3.1483	0.407
	만13~18세	3.0638	0.01202	3.0402	3.0874	0.392
	만19~24세	3.1028	0.01324	3.0768	3.1288	0.427

표 5 자존감

(단위: 점, %p)

구분		추정값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상대표준오차 (RSE)
				하한	상한	
전체		3.0596	0.01004	3.0399	3.0793	0.328
청소년 성별	남성	3.0705	0.01134	3.0482	3.0928	0.369
	여성	3.0479	0.01144	3.0255	3.0704	0.375
청소년 연령별	만9~12세	3.0952	0.01338	3.0690	3.1215	0.432
	만13~18세	3.0274	0.01134	3.0052	3.0497	0.374
	만19~24세	3.0661	0.01401	3.0386	3.0936	0.457

표 6 성역할 의식

(단위: 점, %p)

구분		추정값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상대표준오차 (RSE)
				하한	상한	
전체		2.7299	0.01079	2.7087	2.7511	0.395
청소년 성별	남성	2.7004	0.01236	2.6761	2.7246	0.458
	여성	2.7616	0.01310	2.7359	2.7873	0.474
청소년 연령별	만9~12세	-	-	-	-	-
	만13~18세	2.7210	0.01154	2.6983	2.7437	0.424
	만19~24세	2.7372	0.01341	2.7108	2.7635	0.490

표 7 다문화 수용성

(단위: 점, %p)

구분		추정값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상대표준오차 (RSE)
				하한	상한	
전체		2.9421	0.01494	2.9128	2.9714	0.508
청소년 성별	남성	2.9302	0.01676	2.8973	2.9632	0.572
	여성	2.9549	0.01783	2.9198	2.9899	0.604
청소년 연령별	만9~12세	-	-	-	-	-
	만13~18세	2.9084	0.01517	2.8787	2.9382	0.521
	만19~24세	2.9698	0.01888	2.9327	3.0068	0.636

표 8 학교생활 만족도

(단위: 점, %p)

구분		추정값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상대표준오차 (RSE)
				하한	상한	
전체		2.8308	0.01079	2.8096	2.8519	0.381
청소년 성별	남성	2.8223	0.01292	2.7969	2.8477	0.458
	여성	2.8397	0.01208	2.8160	2.8635	0.426
청소년 연령별	만9~12세	2.9284	0.01193	2.9050	2.9518	0.407
	만13~18세	2.7612	0.01322	2.7353	2.7872	0.479
	만19~24세	-	-	-	-	-

표 9 진로 성숙도

(단위: 점, %p)

구분		추정값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상대표준오차 (RSE)
				하한	상한	
전체		2.7739	0.01056	2.7532	2.7947	0.381
청소년 성별	남성	2.7610	0.01170	2.7380	2.7839	0.424
	여성	2.7878	0.01270	2.7629	2.8127	0.455
청소년 연령별	만9~12세	2.5880	0.01619	2.5562	2.6198	0.626
	만13~18세	2.7361	0.01322	2.7102	2.7621	0.483
	만19~24세	2.9089	0.01478	2.8799	2.9379	0.508

표 10 직업관

(단위: 점, %p)

구분		추정값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상대표준오차 (RSE)
				하한	상한	
전체		2.9158	0.01204	2.8922	2.9394	0.413
청소년 성별	남성	2.9137	0.01400	2.8862	2.9412	0.480
	여성	2.9180	0.01367	2.8912	2.9449	0.469
청소년 연령별	만9~12세	-	-	-	-	-
	만13~18세	2.8649	0.01284	2.8397	2.8901	0.448
	만19~24세	2.9576	0.01539	2.9274	2.9878	0.520

3. 2023년 청소년 조사표 변경내역

3-1. 청소년 조사표 변경내역

- 조사영역 및 하위구성 요소

2023년				2020년		비고
영역	하위요소			영역	문항	
I. 주관적 웰빙 및 일상생활 만족도	1. 주관적 안녕감 2. 일상생활 만족도 평가 3. 삶의 변화			I. 건강	- 주관적 안녕감 - 수면, 식습관, 운동, 주거환경, - 스트레스, 심리상담, 건강평가, 일상생활 - 만족도 평가, 정서	[영역 신설]
II. 건강	1. 신체적 건강: 수면, 식습관, 운동 2. 정신건강 : 스트레스 및 무기력감 3. 회복탄력성, 상담경험 4. 주관적 건강평가 및 자존감			II. 권리와 존중	- 의견존중 - 부모님과과의 활동, 부모와의 관계 - 가족관·사회관	[신규] 회복탄력성
III. 부모와의 관계 및 지원기대 인식	1. 부모와의 대화 및 활동 2. 부모와 대화 시간 3. 부모의 돌봄 및 지원 기대			III. 참여 및 사회인식	- 참여 - 가족관, 사회관	
IV. 참여·권리 및 사회의식	1. 의견 존중 인식 및 청소년증 발급 2. 자기의존지향성 및 참여경험 3. 결혼 및 성역할의식, 다문화수용성, 4. 사회관 및 사회문제인식, 사회문제 위험 인식			IV. 학습과 활동	- 청소년 활동 경험, 동아리 경험 - 정책사업인지도, 청소년증 - 학교생활만족도, 학업성취도 - 사교육 경험, 방과 후 활동	[신규] 자기의존지향성 사회문제인식 사회문제위험인식
V. 학습과 활동	9-12세	13-18세	19-24세	V. 진로 및 직업탐색	- 진로 활동, 진로체험 경험 - 희망교육수준, 학업중단 경험 - 향후 진로계획, 장래 희망 직업 - 직업선택 기준, 진로성숙도, 직업관 - 인턴 또는 현장실습 여부, 직업훈련	
	1. 학습 및 활동 경험	1. 학습 및 활동 경험	-			
	-	2. 학업중단경험	2. 학업중단경험			
VI. 진로 및 직업탐색	-	3. 대학입학 이후 경험	3. 대학입학 이후경험	VI. 사회진입 및 이행	-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취업여부 - 직업분류, 월평균소득, 종사상지위 - 구직활동여부	
VII. 사회진입 및 이행	1. 아르바이트, 취업 및 구직활동 여부 2. 취업 내용 3. 부당행위 경험			VII. 코로나19 이후 청소년 삶의 변화	-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 - 온라인 학습 확대 찬성여부 - 온라인 학습기기 등 구비 여부 - 자신의 삶의 변화	[영역 삭제]
VIII. 응답자 특성	1. 성별 및 생년월 2. 교육수준			VIII. 응답자 특성	- 성별 및 생년월 - 교육수준	

- 문항별 변경 내역(※ 문항번호 13-18세 조사표 기준)

영역	2023년 조사표	2020년 조사표	조사 대상			변경 사항					변경 내용 및 근거 사유
			9-12세	13-18세	19-24세	문항 유지	문항 이동	문항 수정	문항 삭제	신규 추가	
I. 주관적 웰빙 및 일상생활 만족도	1. 주관적 안녕감 1~1.5	1. 주관적 안녕감 1~1.5	○	○	○		✓				[영역 변경: 문항 재배치] (‘20) I.건강 → (‘23) I.주관적 웰빙 및 일상생활만족도
	2. 일상생활 만족도 평가	10. 일상생활 만족도 평가	○	○	○		✓				[영역 변경: 연구진 문항 재배치] (‘20) I.건강 → (‘23) I.주관적 웰빙 및 일상생활만족도
	3.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변화	57.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변화	○ 1)-4)	○ 1)-6)	○ 1)-6)		✓				[영역 변경: 문항 재배치] (‘20) VII.코로나19 이후 청소년 삶의 변화 → (‘23) I.주관적 웰빙 및 일상생활만족도 [초등학생 측정 항목 축소] (‘20) 6개 항목 → (‘23) 4개 항목 - “5)사회에 대한 신뢰, 6)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전망” 초등학생 응답 항목에서 제외
	4. 새로운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인해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 ① 매우 부정적으로 변화함 ② 약간 부정적으로 변화함 ③ 변화 없음 ④ 약간 긍정적으로 변화함 ⑤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함	-	-	○	○					✓	[☆신규문항 추가: ‘21 정기통계품질진단 개선 사항 반영] · 활용도 낮은 항목 대신 시대변화나 청소년 특성 파악할 수 있는 항목 추가 · ‘미국·영국 z세대 설문조사’ 측정 문항 수정사용 (*출처: 로버타 카츠외(2022), 「GEN Z: 디지털 네이티브의 등장」, pp.46-47

영역	2023년 조사표	2020년 조사표	조사 대상			변경 사항					변경 내용 및 근거 사유											
			9-12세	13-18세	19-24세	문항 유지	문항 이동	문항 수정	문항 삭제	신규 추가												
II. 건강	5. 수면시간	2. 수면시간	○	○	○	✓																
	6. 지난 1주일 동안 자신의 수면 시간이 얼마나 충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충분하지 않았다 ② 충분하지 않은 편이었다 ③ 충분한 편이었다 ④ 매우 충분했다	3. 지난 1주일 동안 자신의 수면 시간이 충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부족했다 ② 부족한 편이었다 ③ 충분한 편이었다 ④ 매우 충분했다	○	○	○			✓			[질문 표현 및 측정 척도 수정] · 4점 측정 척도에 맞게 질문 및 척도 표현 보다 명확하게 수정											
	7. 하루 식습관	4. 하루 식습관	○	○	○	✓																
	8. 지난 1주일 동안 실내운동이나 야외에서의 운동·놀이를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있다)(→ 문 8-1로 이동) ② 아니오(없다) (→ 문 9로 이동)	5. 지난 1주일 동안 운동(정기적으로 배우는 운동 포함)이나 야외 신체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있다)(→ 문 5-1로 이동) ② 아니오(없다) (→ 문 6으로 이동)	○	○	○			✓			[질문 표현 수정] ·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하고 간결한 표현으로 수정											
	8-1. 활동 시간	5-1. 활동 시간	○	○	○	✓						[지시문 수정] · 명확한 응답 지침 전달 (’20) 예) 1시간 25분은 1시간, 1시간 40분은 2시간으로 작성(반올림) → 예) 1시간 25분은 1시간, 1시간 40분은 2시간으로 작성(30분 기준 반올림)										
		6. 자신이 사는 동네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 항목에 대해 응답해주시요. <table><tr><th>구분</th><th>그렇다</th><th>아니다</th></tr><tr><td>1) 내가 사는 동네에는 산책할 수 있는 곳(공원, 산책로 등)이 있다</td><td>①</td><td>②</td></tr><tr><td>2) 내가 사는 동네에는 청소년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운동장, 농구장, 축구장 등)이 있다</td><td>①</td><td>②</td></tr><tr><td>3) 내가 사는 동네에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철봉, 어깨 근육풀기 운동기구, 좌식 자전거 운동기구 등)가 설치되어 있다</td><td>①</td><td>②</td></tr></table>	구분	그렇다	아니다	1) 내가 사는 동네에는 산책할 수 있는 곳(공원, 산책로 등)이 있다	①	②	2) 내가 사는 동네에는 청소년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운동장, 농구장, 축구장 등)이 있다	①	②	3) 내가 사는 동네에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철봉, 어깨 근육풀기 운동기구, 좌식 자전거 운동기구 등)가 설치되어 있다	①	②							✓	
구분	그렇다	아니다																				
1) 내가 사는 동네에는 산책할 수 있는 곳(공원, 산책로 등)이 있다	①	②																				
2) 내가 사는 동네에는 청소년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운동장, 농구장, 축구장 등)이 있다	①	②																				
3) 내가 사는 동네에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철봉, 어깨 근육풀기 운동기구, 좌식 자전거 운동기구 등)가 설치되어 있다	①	②																				

영역	2023년 조사표	2020년 조사표	조사 대상			변경 사항					변경 내용 및 근거 사유																																		
			9-12세	13-18세	19-24세	문항 유지	문항 이동	문항 수정	문항 삭제	신규 추가																																			
	<div>9. 최근 1년(2022. 6. 1. ~ 2023. 5. 31.) 동안 다음의 상황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였습니까?</div> <table><tr><th>나는 ...</th><th>전혀 경험하지 않았다</th><th>별로 경험하지 않았다</th><th>가끔 경험했다</th><th>자주 경험했다</th></tr><tr><td>1)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느낀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2) SNS 소셜미디어 사용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3) 어떠한 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 상태를 느낀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able>	나는 ...	전혀 경험하지 않았다	별로 경험하지 않았다	가끔 경험했다	자주 경험했다	1)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느낀다	①	②	③	④	2) SNS 소셜미디어 사용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3) 어떠한 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 상태를 느낀다	①	②	③	④	<div>7. 최근 1년(2019. 6. 1. ~ 2020. 5. 31.) 동안 다음 내용에 대하여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div> <table><tr><th>나는 ...</th><th>전혀 경험하지 않았다</th><th>별로 경험하지 않았다</th><th>가끔 경험했다</th><th>자주 경험했다</th></tr><tr><td>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느낀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able>	나는 ...	전혀 경험하지 않았다	별로 경험하지 않았다	가끔 경험했다	자주 경험했다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느낀다	①	②	③	④	○	○	○			✓			<div>[기존 질문 및 측정 척도 수정]</div> <div>·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하고 간결한 표현으로 수정</div> <div>· 질문 내용에 맞게 4점 척도 표현 수정</div> <div>+ [☆신규문항 추가: '21 정기통계품질진단 개선 사항 반영]</div> <div>· “SNS 소셜미디어 사용에 따른 스트레스” 측정 추가</div> <div>· 최근 나타나는 청소년의 “무기력 상태” 측정 추가</div> <div>· ‘미국·영국 z세대 설문조사’ 측정 문항 수정사용</div> <div>(* 출처: 로버타 카츠외(2022), 「GEN Z: 디지털 네이티브의 등장」, p.246)</div>				
나는 ...	전혀 경험하지 않았다	별로 경험하지 않았다	가끔 경험했다	자주 경험했다																																									
1)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느낀다	①	②	③	④																																									
2) SNS 소셜미디어 사용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3) 어떠한 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 상태를 느낀다	①	②	③	④																																									
나는 ...	전혀 경험하지 않았다	별로 경험하지 않았다	가끔 경험했다	자주 경험했다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느낀다	①	②	③	④																																									
	<div>10. 다음 각 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응답해 주십시오.</div> <table><tr><th>나는 ...</th><th>전혀 그렇지 않다</th><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th>그런편이다</th><th>매우 그렇다</th></tr><tr><td>1) 힘든 시간을 보낸 후에는 빨리 회복하는 편이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2) 스트레스가 많은 사건을 이겨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3) 스트레스가 많은 사건에서 회복하는 데 그다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4)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돌이키기가 어렵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5) 보통 별 어려움 없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낸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6) 내 인생의 좌절을 극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향이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able>	나는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힘든 시간을 보낸 후에는 빨리 회복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2) 스트레스가 많은 사건을 이겨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①	②	③	④	3) 스트레스가 많은 사건에서 회복하는 데 그다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4)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돌이키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5) 보통 별 어려움 없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낸다	①	②	③	④	6) 내 인생의 좌절을 극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	○	○	○				✓	<div>[☆신규문항 추가: 여성가족부 요청사항 반영]</div> <div>· 회복탄력성 측정 짧은 척도(6문항)</div> <div>* 출처: Bruce W.S외(2008), The Brief Resilience Scale: Assessing the Ability to Bounce Back,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15: 194-200.</div>
나는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힘든 시간을 보낸 후에는 빨리 회복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2) 스트레스가 많은 사건을 이겨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①	②	③	④																																									
3) 스트레스가 많은 사건에서 회복하는 데 그다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4)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돌이키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5) 보통 별 어려움 없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낸다	①	②	③	④																																									
6) 내 인생의 좌절을 극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11. 심리상담전문가 도움받은 경험 유무	8. 심리상담전문가 도움 받은 경험 유무	○	○	○	✓																																							
	12. 주관적 건강평가	9. 주관적 건강평가	○	○	○	✓																																							
	13. 자존감	11. 정서	○	○	○	✓																																							

영역	2023년 조사표	2020년 조사표	조사 대상			변경 사항					변경 내용 및 근거 사유																																																							
			9-12세	13-18세	19-24세	문항 유지	문항 이동	문항 수정	문항 삭제	신규 추가																																																								
Ⅲ. 부모와의 관계 및 지원기대 인식	14. 부모와의 대화 및 활동	13. 부모님(또는 양육자)과의 활동	○	○	○		✓				[영역 변경: 문항 재배치] (‘20)Ⅱ. 권리와 존중 → (‘23) Ⅲ. 부모와의 관계 및 지원기대 인식 · ‘21 정기통계품질진단 개선 사항 고려하여 구성 · 문항 수정은 없으나, 측정 문항의 내용에 부합하는 하위요소명으로 수정 : (‘20)부모님(또는 양육자)과의 활동 → (‘23) 부모와의 대화 및 활동																																																							
	15. 주중에 매일 부모님(또는 양육자)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table><tr><th>구 분</th><th>전혀 하지 않는다</th><th>30분 미만</th><th>1시간 미만</th><th>2시간 미만</th><th>2시간 이상</th><th>해당 없음</th></tr><tr><td>1) 아버지</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d>⑥</td></tr><tr><td>2) 어머니</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d>⑥</td></tr><tr><td>3) 부모님 외 양육자</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d></td></tr></table>	구 분	전혀 하지 않는다	30분 미만	1시간 미만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해당 없음	1)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⑥	2)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⑥	3) 부모님 외 양육자	①	②	③	④	⑤		14. 주중에 매일 부모님(또는 양육자)과 함께 얼마나 시간(대화 시간 포함)을 보냅니까? <table><tr><th>구 분</th><th>전혀 하지 않는다</th><th>30분 미만</th><th>1시간 미만</th><th>2시간 미만</th><th>2시간 이상</th><th>해당 없음</th></tr><tr><td>1) 아버지</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d>⑥</td></tr><tr><td>2) 어머니</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d>⑥</td></tr><tr><td>3) 양육자</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d></td></tr></table>	구 분	전혀 하지 않는다	30분 미만	1시간 미만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해당 없음	1)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⑥	2)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⑥	3) 양육자	①	②	③	④	⑤		○	○	○		✓	✓		[영역 변경: 연구진 문항 재배치] (‘20) Ⅱ. 권리와 존중 → (‘23) Ⅲ. 부모와의 관계 및 지원기대 인식 · ‘21 정기통계품질진단 개선 사항 고려하여 구성 · 질문 표현 간결하게 수정 · 문항 수정은 없으나, 측정 문항의 내용에 부합하는 하위요소 명으로 수정 : (‘20) 부모님(또는 양육자)과의 관계 → (‘23)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 [질문 표현 수정] · 명확한 의미 전달 (‘20) 양육자 → 부모님 외 양육자
	구 분	전혀 하지 않는다	30분 미만	1시간 미만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해당 없음																																																											
1)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⑥																																																												
2)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⑥																																																												
3) 부모님 외 양육자	①	②	③	④	⑤																																																													
구 분	전혀 하지 않는다	30분 미만	1시간 미만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해당 없음																																																												
1)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⑥																																																												
2)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⑥																																																												
3) 양육자	①	②	③	④	⑤																																																													
16. 부모님(또는 양육자)은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돌보니까? <table><tr><th>구 분</th><th>전혀 그렇지 않다</th><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th>그런 편이다</th><th>매우 그렇다</th><th>해당 없음</th></tr><tr><td>1) 학교 수업(학원 포함)이 끝난 후 집에 늦게 들어와도 관심이 없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tr><td>2) 내가 고열이 나거나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td></tr></table>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1) 학교 수업(학원 포함)이 끝난 후 집에 늦게 들어와도 관심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고열이 나거나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다	①	②	③	④		15. 부모님(또는 양육자)은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돌보니까? <table><tr><th>구 분</th><th>전혀 그렇지 않다</th><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th>그런 편이다</th><th>매우 그렇다</th><th>해당 없음</th></tr><tr><td>1) 학교 수업(학원 포함)이 끝난 후 집에 늦게 들어와도 관심이 없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tr><td>2) 내가 고열이 나거나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 적이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td></tr></table>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1) 학교 수업(학원 포함)이 끝난 후 집에 늦게 들어와도 관심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고열이 나거나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	○	-		✓	✓		[영역 변경: 문항 재배치] (‘20) Ⅱ. 권리와 존중 → (‘23) Ⅲ. 부모와의 관계 및 지원기대 인식 · ‘21 정기통계품질진단 개선 사항 고려하여 구성 · 측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항목 서술 표현 수정 · 문항 수정은 없으나, 측정 문항의 내용에 부합하는 하위요소 명으로 수정 : (‘20) 부모님(또는 양육자)과의 관계 → (‘23) 부모의 돌봄 및 관심 · ‘해당 없음’ 응답 칸 삭제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1) 학교 수업(학원 포함)이 끝난 후 집에 늦게 들어와도 관심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고열이 나거나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다	①	②	③	④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1) 학교 수업(학원 포함)이 끝난 후 집에 늦게 들어와도 관심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고열이 나거나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영역	2023년 조사표	2020년 조사표	조사 대상			변경 사항					변경 내용 및 근거 사유																																			
			9-12세	13-18세	19-24세	문항 유지	문항 이동	문항 수정	문항 삭제	신규 추가																																				
	17. 방과 후 돌봄 부재	36. 방과 후 활동	○	○	-		✓				[영역 변경: 문항 재배치] (‘20) Ⅱ. 권리와 존중 → (‘23) Ⅲ. 부모와의 관계 및 지원기대 인식 · 문항 수정은 없으나, 측정 문항의 내용에 부합하는 하위요소 명으로 수정 : (‘20) 방과 후 활동 → (‘23) 방과 후 돌봄 부재 · 측정대상 범위 축소 (‘20) 19-24세 측정 → (‘23) 19-24세 연령대 제외 · 관련문항 이어질 수 있도록 문항 재배치																																			
	17-1. 방과 후 돌봄 부재 시 불안	36-1. 방과 후 활동	○	○	-		✓				[영역 변경: 문항 재배치]																																			
	18. 다음의 각 문항들에 대해 부모님 (또는 양육자)이 어디까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table><tr><th>내용</th><th>전혀 부담할 필요가 없다</th><th>일부 만을 부담</th><th>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th></tr><tr><td>1)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td><td>①</td><td>②</td><td>③</td></tr><tr><td>2)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td><td>①</td><td>②</td><td>③</td></tr><tr><td>3) 취업할 때까지</td><td>①</td><td>②</td><td>③</td></tr><tr><td>4) 결혼할 때까지</td><td>①</td><td>②</td><td>③</td></tr></table>	내용	전혀 부담할 필요가 없다	일부 만을 부담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	1)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①	②	③	2)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①	②	③	3) 취업할 때까지	①	②	③	4) 결혼할 때까지	①	②	③	18. 다음의 각 문항들에 대해 부모님 (또는 양육자)이 어디까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table><tr><th>내용</th><th>전혀 부담할 필요가 없다</th><th>일부 만을 부담</th><th>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th></tr><tr><td>1)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td><td>①</td><td>②</td><td>③</td></tr><tr><td>2) 취업할 때까지</td><td>①</td><td>②</td><td>③</td></tr><tr><td>3) 결혼할 때까지</td><td>①</td><td>②</td><td>③</td></tr></table>	내용	전혀 부담할 필요가 없다	일부 만을 부담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	1)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①	②	③	2) 취업할 때까지	①	②	③	3) 결혼할 때까지	①	②	③		○	○		✓			[영역 변경: 문항 재배치] (‘20) Ⅱ. 권리와 존중 → (‘23) Ⅲ. 부모와의 관계 및 지원기대 인식 · ‘21 정기통계품질진단 개선 사항 고려하여 구성 · 문항 수정은 없으나, 측정 문항의 내용에 부합하는 하위요소 명으로 수정 : (‘20) 가족관 → (‘23) 부모에 대한 지원 기대 · 측정 항목 ‘1)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추가 · 관련 문항 이어질 수 있도록 문항 재배치
내용	전혀 부담할 필요가 없다	일부 만을 부담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																																											
1)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①	②	③																																											
2)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①	②	③																																											
3) 취업할 때까지	①	②	③																																											
4) 결혼할 때까지	①	②	③																																											
내용	전혀 부담할 필요가 없다	일부 만을 부담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																																											
1)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①	②	③																																											
2) 취업할 때까지	①	②	③																																											
3) 결혼할 때까지	①	②	③																																											

영역	2023년 조사표	2020년 조사표	조사 대상			변경 사항					변경 내용 및 근거 사유
			9-12세	13-18세	19-24세	문항 유지	문항 이동	문항 수정	문항 삭제	신규 추가	
Ⅳ. 참여·권리 및 사회 의식	19. 의견존중	12. 의견존중	○	○	-		✓				[영역 변경: 문항 재배치] (‘20) Ⅱ. 권리와 존중 → (‘23) Ⅳ. =참여·권리 및 사회의식
	20. 청소년증 발급 여부	31. 청소년증 발급 여부	-	○	-		✓				[영역 변경: 연구진 문항 재배치] (‘20) Ⅳ. 학습과 활동 → (‘23)Ⅳ. 참여·권리 및 사회의식 · 측정 내용의 의미에 부합하게 영역 재배치
	20-1. 청소년증 미발급 사유	31-1. 청소년증 미발급 사유	-	○	-		✓				[영역 변경: 연구진 문항 재배치] (‘20) Ⅳ. 학습과 활동 → (‘23) Ⅳ. 참여·권리 및 사회의식 · 측정 내용의 의미에 부합하게 영역 재배치
	21. 어떤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내릴 때, 조언을 구하기 위해 다음 중 어느 것에 가장 의지합니까? 순서대로 세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____, 2순위____, 3순위____ ① 나 자신의 이성과 판단 ② 느낌과 직관 ③ 부모/조부모 의견 ④ 형제 의견 ⑤ 친구들 의견 ⑥ 종교적 신념 ⑦ 과거 경험 ⑧ 인터넷 정보 ⑨ 기타	-	○	○	○					✓	[☆신규문항 추가] · ‘참여’와 관련한 중요한 특성인 “자기의존지향성” 신규 문항으로 측정 · ‘미국·영국 z세대 설문조사’ 측정 문항 수정사용 (* 출처: 로버타 카츠외(2022), 「GEN Z: 디지털 네이티브의 등장」, p.197)
	22. 사회참여	17. 사회참여	-	○	○		✓				[영역 변경: 문항 재배치] (‘20) Ⅲ. 참여 및 사회인식 → (‘23) Ⅳ. 참여·권리 및 사회의식 [질문 표현 수정] · 응답자 개인의 참여도, 필요성 인식을 묻는 문항이므로 ‘청소년이’라는 표현 삭제 (‘20) 3) 청소년이 사회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참여함 → 사회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참여함

영역	2023년 조사표	2020년 조사표	조사 대상			변경 사항					변경 내용 및 근거 사유																																																																	
			9-12세	13-18세	19-24세	문항 유지	문항 이동	문항 수정	문항 삭제	신규 추가																																																																		
	23. 결혼 및 성역할의식, 다문화 수용성	16. 가족관·사회관	-	○	○		✓				[영역 변경: 문항 재배치] (‘20) II. 권리와 존중 → (‘23) IV. 참여·권리 및 사회의식 · 문항 수정은 없으나, 측정 문항의 내용에 부합하는 하위요소 명으로 수정 : (‘20) 가족관·사회관 → (‘23) 결혼 및 성역할의식, 다문화수용성																																																																	
	24. 다음의 각 문항들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칸의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table><tr><th>구 분</th><th>전혀 그렇지 않다</th><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th>그런 편이다</th><th>매우 그렇다</th></tr><tr><td>1) 우리사회는 대체로 공정하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2) 우리사회는 인권을 존중한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3) 우리사회는 다양성을 인정한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4) 우리사회는 부정부패가 없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5) 우리사회는 믿을 수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able>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사회는 대체로 공정하다	①	②	③	④	2) 우리사회는 인권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3) 우리사회는 다양성을 인정한다	①	②	③	④	4) 우리사회는 부정부패가 없다	①	②	③	④	5) 우리사회는 믿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19. 다음의 각 문항들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칸의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table><tr><th>구 분</th><th>전혀 그렇지 않다</th><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th>그런 편이다</th><th>매우 그렇다</th></tr><tr><td>1) 우리사회는 대체로 공정한 사회이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2) 우리사회는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이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3) 우리사회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이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4) 우리사회는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이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able> 20.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합니까? 아래의 해당하는 칸의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믿을 수 없다 그저 그렇다 매우 믿을 수 있다 <table><tr><td>⑩</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d>⑥</td><td>⑦</td><td>⑧</td><td>⑨</td><td>⑩</td></tr></table>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사회는 대체로 공정한 사회이다	①	②	③	④	2) 우리사회는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이다	①	②	③	④	3) 우리사회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이다	①	②	③	④	4) 우리사회는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이다	①	②	③	④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	○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사회는 대체로 공정하다	①	②	③	④																																																																								
2) 우리사회는 인권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3) 우리사회는 다양성을 인정한다	①	②	③	④																																																																								
4) 우리사회는 부정부패가 없다	①	②	③	④																																																																								
5) 우리사회는 믿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사회는 대체로 공정한 사회이다	①	②	③	④																																																																								
2) 우리사회는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이다	①	②	③	④																																																																								
3) 우리사회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이다	①	②	③	④																																																																								
4) 우리사회는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이다	①	②	③	④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영역	2023년 조사표	2020년 조사표	조사 대상			변경 사항					변경 내용 및 근거 사유																			
			9-12세	13-18세	19-24세	문항 유지	문항 이동	문항 수정	문항 삭제	신규 추가																				
	25. 사회적 이슈나 쟁점 관심 정도	21. 사회적 이슈나 쟁점 관심 정도	-	○	○		✓				[영역 변경: 문항 재배치] (‘20) Ⅲ. 참여 및 사회인식 → (‘23) Ⅳ. 참여·권리 및 사회의식 [보기 표현 수정] · 중간 척도 표현 변경 (‘20) 3) 그저 그렇다 → 보통이다																			
	26. 다음 중 가장 염려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지구의 미래와 환경 ② 불평등 심화 ③ 세계정치 불안정 및 전쟁 ④ 범죄와 폭력 ⑤ 경제 불황 및 위기 ⑥ 사회와 시민 갈등 ⑦ 첨단기술이 가져올 미래 ⑧ 기타	-	-	○	○					✓	[☆신규문항 추가] · 최근 해외 청소년조사에서 측정되는 내용 - European Parliament Youth Survey(2021) - Mission Australia Youth Survey(2022) · ‘미국·영국 z세대 설문조사’ 측정 문항 수정사용 (* 출처: 로버타 카츠외(2022), 「GEN Z: 디지털 네이티브의 등장」, p. 262)																			
	(사회문제 위험에 대한 인식) 27. 우리사회의 청소년들이 다음 각 문제의 위험에 얼마나 노출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table><tr><th>구 분</th><th>전혀 위험에 노출되고 있지 않다</th><th>위험에 노출되고 있지 않은 편이다</th><th>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편이다</th><th>높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편이다</th></tr><tr><td>1) 마약류 접촉</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2)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성범죄 피해</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3) 유해한 업소의 이용</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able>	구 분	전혀 위험에 노출되고 있지 않다	위험에 노출되고 있지 않은 편이다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편이다	높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편이다	1) 마약류 접촉	①	②	③	④	2)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성범죄 피해	①	②	③	④	3) 유해한 업소의 이용	①	②	③	④	-	-	○	○				✓	[☆신규문항 추가] · 최근 정책 현안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에 대한 실증 자료 확보를 위해 신규 문항 추가
구 분	전혀 위험에 노출되고 있지 않다	위험에 노출되고 있지 않은 편이다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편이다	높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편이다																										
1) 마약류 접촉	①	②	③	④																										
2)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성범죄 피해	①	②	③	④																										
3) 유해한 업소의 이용	①	②	③	④																										

영역	2023년 조사표	2020년 조사표	조사 대상			변경 사항					변경 내용 및 근거 사유																			
			9-12세	13-18세	19-24세	문항 유지	문항 이동	문항 수정	문항 삭제	신규 추가																				
		22. 투표 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8세입니다. 이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낮추어야 한다 ② 지금이 적당하다 ③ 높여야 한다									[★삭제] · 「공직선거법」개정으로 피선거 연령 18세로 제도화																			
		23. 귀하는 투표권이 있거나 앞으로 주어진다면 선거(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및 도지사, 교육감 선거 등)에 투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전혀 없다 ②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 투표할 것이다 ③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 ④ 잘 모르겠다									[★삭제] · 「공직선거법」개정으로 피선거 연령 18세로 제도화 · 22번에 연동되는 문항																			
		29. 다음의 각 문항들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칸의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table><tr><th>구 분</th><th>전혀 필요하지 않다</th><th>필요하지 않은 편이다</th><th>필요한 편이다</th><th>매우 필요하다</th></tr><tr><td>1) 남북통일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2) 우리나라가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3) 남북한 청소년들이 서로 교류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able>	구 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1) 남북통일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②	③	④	2) 우리나라가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②	③	④	3) 남북한 청소년들이 서로 교류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②	③	④								[★삭제] · 활용 목적이 불분명하고 활용도 또한 낮은 '통일관(통일의식)' 측정 문항 삭제
구 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1) 남북통일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②	③	④																										
2) 우리나라가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②	③	④																										
3) 남북한 청소년들이 서로 교류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②	③	④																										

영역	2023년 조사표	2020년 조사표	조사 대상			변경 사항					변경 내용 및 근거 사유																																																											
			9-12세	13-18세	19-24세	문항 유지	문항 이동	문항 수정	문항 삭제	신규 추가																																																												
V. 학습과 활동	28.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table><tr><th>구 분</th><th>전혀 그렇지 않다</th><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th>그런 편이다</th><th>매우 그렇다</th></tr><tr><td>1) 나는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2) 우리 학교는 우리들의 의견을 잘 반영한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3) 우리 학교는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4) 우리 학교는 교칙이 엄격하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5) 현재 학교생활이 만족스럽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able>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2) 우리 학교는 우리들의 의견을 잘 반영한다	①	②	③	④	3) 우리 학교는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다	①	②	③	④	4) 우리 학교는 교칙이 엄격하다	①	②	③	④	5) 현재 학교생활이 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32.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 대한 느낌은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table><tr><th>구 분</th><th>전혀 그렇지 않다</th><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th>그런 편이다</th><th>매우 그렇다</th></tr><tr><td>1) 나는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2) 우리 학교는 우리들의 의견을 잘 반영한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3) 우리 학교는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4) 우리 학교는 교칙이 엄격하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5) 선생님, 친구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생활이 만족스럽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able>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2) 우리 학교는 우리들의 의견을 잘 반영한다	①	②	③	④	3) 우리 학교는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다	①	②	③	④	4) 우리 학교는 교칙이 엄격하다	①	②	③	④	5) 선생님, 친구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생활이 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	○	-		✓	✓		[영역 변경: 문항 재배치] (‘20) IV. 학습과 활동 → (‘23) V. 학습과 활동 · 질문 표현 간결하게 수정 · 항목 5)기술 내용 간결하게 수정 [연령대별 응답 문항 재배치] · 19-24세 응답 제외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2) 우리 학교는 우리들의 의견을 잘 반영한다	①	②	③	④																																																																	
	3) 우리 학교는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다	①	②	③	④																																																																	
4) 우리 학교는 교칙이 엄격하다	①	②	③	④																																																																		
5) 현재 학교생활이 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2) 우리 학교는 우리들의 의견을 잘 반영한다	①	②	③	④																																																																		
3) 우리 학교는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다	①	②	③	④																																																																		
4) 우리 학교는 교칙이 엄격하다	①	②	③	④																																																																		
5) 선생님, 친구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생활이 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29. 학업성취도	31. 학업성취도	-	○	-		✓			[영역 변경: 문항 재배치] (‘20) IV. 학습과 활동 → (‘23) V. 학습과 활동 · 초등생 학업성취도 시험이 없는 것을 고려, 9-12세 조사표에서 문항 삭제 [연령대별 응답 문항 재배치] · 19-24세 응답 제외																																																												
	30. 사교육 여부	34. 사교육 여부	○	○	-		✓			[영역 변경: 문항 재배치] (‘20) IV. 학습과 활동 → (‘23) V. 학습과 활동 [연령대별 응답 문항 재배치] · 19-24세 응답 제외																																																												
	30-1. 주당 사교육 총 시간	34-1. 주당 사교육 총 시간	○	○	-		✓			[영역 변경: 문항 재배치] (‘20) IV. 학습과 활동 → (‘23) V. 학습과 활동 [연령대별 응답 문항 재배치] · 19-24세 응답 제외																																																												

영역	2023년 조사표	2020년 조사표	조사 대상			변경 사항					변경 내용 및 근거 사유																																																											
			9-12세	13-18세	19-24세	문항 유지	문항 이동	문항 수정	문항 삭제	신규 추가																																																												
	31. 하루 평균 혼자 공부한 시간	35. 하루 평균 혼자 공부한 시간	○	○	-		✓				[영역 변경: 문항 재배치] (‘20) IV. 학습과 활동 → (‘23) V. 학습과 활동 [연령대별 응답 문항 재배치] · 19-24세 응답 제외																																																											
	(활동 참여경험) 32. 최근 1년(2022. 6. 1. ~ 2023. 5. 31.) 동안 아래와 같은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회 입니까? <table><tr><th>구 분</th><th>있다</th><th>없다</th></tr><tr><td>1) 문화/예술 관련 활동 (공연 감상 등)</td><td>①</td><td>①</td></tr><tr><td>2) 과학/정보 관련 활동 (경진 대회, 과학 실험 등)</td><td>①</td><td>①</td></tr><tr><td>3) 모험/개척 관련 활동 (탐사·등반, 야영 등)</td><td>①</td><td>①</td></tr><tr><td>4) 자원봉사 활동 (일손 돕기, 자선·구호 등)</td><td>①</td><td>①</td></tr><tr><td>5) 직업/진로 관련 활동 (직업 체험, 진로 탐색 등)</td><td>①</td><td>①</td></tr><tr><td>6) 국제 교류 활동</td><td>①</td><td>①</td></tr><tr><td>7) 건강/보건 관련 활동 (신체단련, 안전·응급처치 등)</td><td>①</td><td>①</td></tr><tr><td>8) 자기(인성)계발 관련 활동 (자기표현, 마음 수련 등)</td><td>①</td><td>①</td></tr><tr><td>9) 환경 보존 관련 활동 (생태, 숲 체험, 환경 살리기 등)</td><td>①</td><td>①</td></tr></table>	구 분	있다	없다	1) 문화/예술 관련 활동 (공연 감상 등)	①	①	2) 과학/정보 관련 활동 (경진 대회, 과학 실험 등)	①	①	3) 모험/개척 관련 활동 (탐사·등반, 야영 등)	①	①	4) 자원봉사 활동 (일손 돕기, 자선·구호 등)	①	①	5) 직업/진로 관련 활동 (직업 체험, 진로 탐색 등)	①	①	6) 국제 교류 활동	①	①	7) 건강/보건 관련 활동 (신체단련, 안전·응급처치 등)	①	①	8) 자기(인성)계발 관련 활동 (자기표현, 마음 수련 등)	①	①	9) 환경 보존 관련 활동 (생태, 숲 체험, 환경 살리기 등)	①	①	(활동 참여경험) 16. 최근 1년(2019. 6. 1. ~ 2020. 5. 31.) 동안 아래와 같은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회 입니까? <table><tr><th>구 분</th><th>없다</th><th>있다</th></tr><tr><td>1) 문화/예술 관련 활동 (공연 감상 등)</td><td>①</td><td>①</td></tr><tr><td>2) 과학/정보 관련 활동 (경진 대회, 과학 실험 등)</td><td>①</td><td>①</td></tr><tr><td>3) 모험/개척 관련 활동 (탐사·등반, 야영 등)</td><td>①</td><td>①</td></tr><tr><td>4) 자원봉사 활동 (일손 돕기, 자선·구호 등)</td><td>①</td><td>①</td></tr><tr><td>5) 직업/진로 관련 활동 (직업 체험, 진로 탐색 등)</td><td>①</td><td>①</td></tr><tr><td>6) 국제 교류 활동</td><td>①</td><td>①</td></tr><tr><td>7) 건강/보건 관련 활동 (신체단련, 안전·응급처치 등)</td><td>①</td><td>①</td></tr><tr><td>8) 자기(인성)계발 관련 활동 (자기표현, 마음 수련 등)</td><td>①</td><td>①</td></tr><tr><td>9) 환경 보존 관련 활동 (생태, 숲 체험, 환경 살리기 등)</td><td>①</td><td>①</td></tr></table>	구 분	없다	있다	1) 문화/예술 관련 활동 (공연 감상 등)	①	①	2) 과학/정보 관련 활동 (경진 대회, 과학 실험 등)	①	①	3) 모험/개척 관련 활동 (탐사·등반, 야영 등)	①	①	4) 자원봉사 활동 (일손 돕기, 자선·구호 등)	①	①	5) 직업/진로 관련 활동 (직업 체험, 진로 탐색 등)	①	①	6) 국제 교류 활동	①	①	7) 건강/보건 관련 활동 (신체단련, 안전·응급처치 등)	①	①	8) 자기(인성)계발 관련 활동 (자기표현, 마음 수련 등)	①	①	9) 환경 보존 관련 활동 (생태, 숲 체험, 환경 살리기 등)	①	①	○	○	-		✓	✓		[영역 변경: 문항 재배치] (‘20) IV. 학습과 활동 → (‘23) V. 학습과 활동 [연령대별 응답 문항 재배치] · 19-24세 응답 제외 · 선택항목 순서와 응답 값 수정 (‘20) 없다(①), 있다(①) → (‘23) 있다(①), 없다(②)
구 분	있다	없다																																																																				
1) 문화/예술 관련 활동 (공연 감상 등)	①	①																																																																				
2) 과학/정보 관련 활동 (경진 대회, 과학 실험 등)	①	①																																																																				
3) 모험/개척 관련 활동 (탐사·등반, 야영 등)	①	①																																																																				
4) 자원봉사 활동 (일손 돕기, 자선·구호 등)	①	①																																																																				
5) 직업/진로 관련 활동 (직업 체험, 진로 탐색 등)	①	①																																																																				
6) 국제 교류 활동	①	①																																																																				
7) 건강/보건 관련 활동 (신체단련, 안전·응급처치 등)	①	①																																																																				
8) 자기(인성)계발 관련 활동 (자기표현, 마음 수련 등)	①	①																																																																				
9) 환경 보존 관련 활동 (생태, 숲 체험, 환경 살리기 등)	①	①																																																																				
구 분	없다	있다																																																																				
1) 문화/예술 관련 활동 (공연 감상 등)	①	①																																																																				
2) 과학/정보 관련 활동 (경진 대회, 과학 실험 등)	①	①																																																																				
3) 모험/개척 관련 활동 (탐사·등반, 야영 등)	①	①																																																																				
4) 자원봉사 활동 (일손 돕기, 자선·구호 등)	①	①																																																																				
5) 직업/진로 관련 활동 (직업 체험, 진로 탐색 등)	①	①																																																																				
6) 국제 교류 활동	①	①																																																																				
7) 건강/보건 관련 활동 (신체단련, 안전·응급처치 등)	①	①																																																																				
8) 자기(인성)계발 관련 활동 (자기표현, 마음 수련 등)	①	①																																																																				
9) 환경 보존 관련 활동 (생태, 숲 체험, 환경 살리기 등)	①	①																																																																				
	32-1. 위 활동 중 본인이 직접 활동주제와 내용에 대해 아이디어를 내거나 진행한 경험 유무	16-1. 위 활동 중 본인이 직접 활동주제와 내용에 대해 아이디어를 내거나 진행한 경험 유무	○	○	-	○																																																																

영역	2023년 조사표	2020년 조사표	조사 대상			변경 사항					변경 내용 및 근거 사유																							
			9-12세	13-18세	19-24세	문항 유지	문항 이동	문항 수정	문항 삭제	신규 추가																								
	33. 경험 여부와 상관없이, 37번 문항의 9가지 활동 중 가장 하고 싶은 활동을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input type="text"/> 2순위 <input type="text"/>	26. 경험 여부와 상관없이, 위 9가지 활동 중 가장 하고 싶은 활동을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input type="text"/> 2순위 <input type="text"/>	○	○	-		✓	✓			[영역 변경: 문항 재배치] (‘20) IV. 학습과 활동 → (‘23) V. 학습과 활동 · 질문 표현 명확하게 수정 [연령대별 응답 문항 재배치] · 19-24세 응답 제외																							
	34. 직접 참여할 기회 정도	27. 직접 참여할 기회 정도	○	○	-		✓				[영역 변경: 문항 재배치] (‘20) IV. 학습과 활동 → (‘23) V. 학습과 활동 [연령대별 응답 문항 재배치] · 19-24세 응답 제외																							
	(가입한 단체나 동아리 유무) 35. 현재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단체 또는 동아리가 있습니까? <table><tr><th>구 분</th><th>있다</th><th>없다</th></tr><tr><td>1) 청소년 단체나 동아리(스카우트, 아람단·누리단, 해양소년단 등) ☞ 학교 등 공식 기관의 단체 포함(종교 단체 제외)</td><td>①</td><td>②</td></tr><tr><td>2)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단체나 동아리(예. 인터넷 카페 등)</td><td>①</td><td>②</td></tr><tr><td>3) 기타 단체나 동아리 (종교 단체 포함)</td><td>①</td><td>②</td></tr></table>	구 분	있다	없다	1) 청소년 단체나 동아리(스카우트, 아람단·누리단, 해양소년단 등) ☞ 학교 등 공식 기관의 단체 포함(종교 단체 제외)	①	②	2)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단체나 동아리(예. 인터넷 카페 등)	①	②	3) 기타 단체나 동아리 (종교 단체 포함)	①	②	(가입한 단체나 동아리 유무) 28. 현재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단체 또는 동아리가 있습니까? <table><tr><th>구 분</th><th>없다</th><th>있다</th></tr><tr><td>1) 청소년 단체나 동아리(스카우트, 아람단·누리단, 해양소년단 등) ☞ 학교 등 공식 기관의 단체 포함(종교 단체 제외)</td><td>①</td><td>①</td></tr><tr><td>2)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단체나 동아리(예. 인터넷 카페 등)</td><td>①</td><td>①</td></tr><tr><td>3) 기타 단체나 동아리 (종교 단체 포함)</td><td>①</td><td>①</td></tr></table>	구 분	없다	있다	1) 청소년 단체나 동아리(스카우트, 아람단·누리단, 해양소년단 등) ☞ 학교 등 공식 기관의 단체 포함(종교 단체 제외)	①	①	2)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단체나 동아리(예. 인터넷 카페 등)	①	①	3) 기타 단체나 동아리 (종교 단체 포함)	①	①	○	○	-					[영역 변경: 문항 재배치] (‘20) IV. 학습과 활동 → (‘23) V. 학습과 활동 · 선택항목 순서와 응답 값 수정 [연령대별 응답 문항 재배치] · 19-24세 응답 제외 (‘20) 없다(①), 있다(①) → (‘23) 있다(①), 없다(②)
구 분	있다	없다																																
1) 청소년 단체나 동아리(스카우트, 아람단·누리단, 해양소년단 등) ☞ 학교 등 공식 기관의 단체 포함(종교 단체 제외)	①	②																																
2)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단체나 동아리(예. 인터넷 카페 등)	①	②																																
3) 기타 단체나 동아리 (종교 단체 포함)	①	②																																
구 분	없다	있다																																
1) 청소년 단체나 동아리(스카우트, 아람단·누리단, 해양소년단 등) ☞ 학교 등 공식 기관의 단체 포함(종교 단체 제외)	①	①																																
2)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단체나 동아리(예. 인터넷 카페 등)	①	①																																
3) 기타 단체나 동아리 (종교 단체 포함)	①	①																																
	(시설이용경험 유무) 36. 최근 1년(2022. 6. 1. ~ 2023. 5. 31.) 동안 아래와 같은 시설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시설이용경험 유무) 29. 최근 1년(2019. 6. 1. ~ 2020. 5. 31.) 동안 아래와 같은 시설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	○	-		✓				[영역 변경: 문항 재배치] (‘20) IV. 학습과 활동 → (‘23) V. 학습과 활동 [연령대별 응답 문항 재배치] · 19-24세 응답 제외 · 선택항목 순서와 응답 값 수정 (‘20) 없다(①), 있다(①) → (‘23) 있다(①), 없다(②)																							

영역	2023년 조사표			2020년 조사표			조사 대상			변경 사항					변경 내용 및 근거 사유
							9-12세	13-18세	19-24세	문항 유지	문항 이동	문항 수정	문항 삭제	신규 추가	
	구 분	있다	없다	구 분	없다	있다									
	1) 청소년수련관(청소년센터 등),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야영장	①	②	1) 청소년수련관(청소년센터 등),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야영장	①	②									
	2) 유스호스텔	①	②	2) 유스호스텔	①	②									
	3) 도서관 (단, 학교도서관은 제외)	①	②	3) 도서관 (단, 학교도서관은 제외)	①	②									
	4) 공연 시설(공연장, 화상영관 등)	①	②	4) 공연 시설(공연장, 화상영관 등)	①	②									
	5) 전시 시설(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 공원 등)	①	②	5) 전시 시설(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 공원 등)	①	②									
	6) 사회복지관	①	②	6) 사회복지관	①	②									
	7) 수목원/수목림/자연 휴양림	①	②	7) 수목원/수목림/자연 휴양림	①	②									
	37. 학업중단 경험 유무			40. 학업중단 경험 유무			-	○	○						[영역 변경: 문항 재배치] (‘20) V. 진로 및 직업탐색 → (‘23) V. 학습과 활동
	37-1. 학업중단 시기			40-1. 학업중단 시기			-	○	○						
	37-2. 학업중단 사유 세 가지			40-2. 학업중단 사유 세 가지			-	○	○						
	37-3. 꿈드림센터 이용 경험 유무			40-3. 꿈드림센터 이용 경험 유무			-	○	○						
	38. 앞으로 3년 이내에 진로에 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장 우선시 하는 계획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상급 학교 진학 ② 취업 ③ 창업 ④ 가업(부모님이 하시는 일 물려받음) ⑤ 이직 ⑥ 현 직장(직업) 유지 ⑦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였다 ⑧ 기타(적어주십시오:)			41. 앞으로 3년 이내에 진로에 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장 우선시 하는 계획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상급 학교 진학 ② 취업 ③ 창업 ④ 가업 ⑤ 이직 ⑥ 현 직장(직업) 유지 ⑦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였다 ⑧ 기타(적어주십시오:)			-	○	○						[영역 변경: 문항 재배치] (‘20) V. 진로 및 직업탐색 → (‘23) V. 학습과 활동 · 선택항목 수정 : (‘20) ‘④가업’ → (‘23) ‘④가업(부모님이 하시는 일 물려받음)’

영역	2023년 조사표	2020년 조사표	조사 대상			변경 사항					변경 내용 및 근거 사유																																												
			9-12세	13-18세	19-24세	문항 유지	문항 이동	문항 수정	문항 삭제	신규 추가																																													
		<div>30. 다음의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div> <table><thead><tr><th>청소년 정책 사업</th><th>모른다</th><th>알고 있다</th></tr></thead><tbody><tr><td>1) 청소년 참여활동(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역사회변화 프로그램 등)</td><td>①</td><td>②</td></tr><tr><td>2) 청소년 수련활동(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센터 등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프로그램)</td><td>①</td><td>②</td></tr><tr><td>3) 청소년어울림마당(청소년문화존)</td><td>①</td><td>②</td></tr><tr><td>4) 청소년자원봉사활동</td><td>①</td><td>②</td></tr><tr><td>5) 청소년국제교류활동</td><td>①</td><td>②</td></tr><tr><td>6) 청소년중</td><td>①</td><td>②</td></tr><tr><td>7) 위기청소년상담 및 복지 지원(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td><td>①</td><td></td></tr><tr><td>8) 가정 밖 청소년 복지지원(가출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td><td>①</td><td>②</td></tr><tr><td>9) 학교 밖 청소년 지원(꿈드림센터, 내일이룸학교)</td><td>①</td><td>②</td></tr><tr><td>10) 상담전화 1388(모바일 및 온라인 상담 포함)</td><td>①</td><td>②</td></tr><tr><td>11)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지원(국립중앙청소년다담센터,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td><td>①</td><td>②</td></tr><tr><td>12)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셋다운제)</td><td>①</td><td>②</td></tr><tr><td>13)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td><td>①</td><td>②</td></tr><tr><td>14) 아르바이트 청소년 권익 보호(청소년근로보호센터)</td><td>①</td><td>②</td></tr></tbody></table>	청소년 정책 사업	모른다	알고 있다	1) 청소년 참여활동(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역사회변화 프로그램 등)	①	②	2) 청소년 수련활동(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센터 등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프로그램)	①	②	3) 청소년어울림마당(청소년문화존)	①	②	4) 청소년자원봉사활동	①	②	5) 청소년국제교류활동	①	②	6) 청소년중	①	②	7) 위기청소년상담 및 복지 지원(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①		8) 가정 밖 청소년 복지지원(가출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①	②	9) 학교 밖 청소년 지원(꿈드림센터, 내일이룸학교)	①	②	10) 상담전화 1388(모바일 및 온라인 상담 포함)	①	②	11)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지원(국립중앙청소년다담센터,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①	②	12)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셋다운제)	①	②	13)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①	②	14) 아르바이트 청소년 권익 보호(청소년근로보호센터)	①	②						✓		<div>[★삭제]</div> <div>· 정책사업명에 대한 “정책사업 인지도” 측정의 적절성 문제가 있어 응답 값을 의미 있게 활용하기 어렵다는 근본적인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삭제</div>
청소년 정책 사업	모른다	알고 있다																																																					
1) 청소년 참여활동(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역사회변화 프로그램 등)	①	②																																																					
2) 청소년 수련활동(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센터 등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프로그램)	①	②																																																					
3) 청소년어울림마당(청소년문화존)	①	②																																																					
4) 청소년자원봉사활동	①	②																																																					
5) 청소년국제교류활동	①	②																																																					
6) 청소년중	①	②																																																					
7) 위기청소년상담 및 복지 지원(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①																																																						
8) 가정 밖 청소년 복지지원(가출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①	②																																																					
9) 학교 밖 청소년 지원(꿈드림센터, 내일이룸학교)	①	②																																																					
10) 상담전화 1388(모바일 및 온라인 상담 포함)	①	②																																																					
11)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지원(국립중앙청소년다담센터,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①	②																																																					
12)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셋다운제)	①	②																																																					
13)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①	②																																																					
14) 아르바이트 청소년 권익 보호(청소년근로보호센터)	①	②																																																					
	[19-24세 조사표] 26. 대학 입학 이후 휴학경험	[응답자 특성] D4. 대학 입학 이후 휴학경험	-	-	○						[영역 변경: 문항 재배치] (‘20)Ⅷ. 응답자 특성 → (‘23)Ⅴ. 학습과 활동																																												
	26-1. 주된 휴학 사유	D4-1. 주된 휴학 사유	-	-	○						[연령대별 응답 문항 재배치]																																												
	27. 대학 시절 사교육 경험	D5. 대학 시절 사교육 경험	-	-	○						· 13-18세 응답 제외																																												

영역	2023년 조사표	2020년 조사표	조사 대상			변경 사항					변경 내용 및 근거 사유
			9-12세	13-18세	19-24세	문항 유지	문항 이동	문항 수정	문항 삭제	신규 추가	
VI. 진로 및 직업탐색	39. 진로교육 경험 유무	37. 진로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	○	○	○			✓			[측정 문항 간소화 및 연령대별 동일하게 수정] · 9-12세 측정문항을 13-18세, 19-24세 연령대에도 동일하게 적용 · 각 항목의 경험 유무 만 측정하고, 활용도가 낮은 도움정도는 삭제
	40. 진로체험 경험 및 도움 정도	38. 진로체험 경험 및 도움 정도	-	○	○						[측정 문항 간소화] · 각 항목의 경험 유무 만 측정하고, 활용도가 낮은 도움정도는 삭제
	41. 장래 희망직업 유무	42. 장래 희망직업 유무	○	○	○						
	41-1. 희망직업	42-1. 희망직업	○	○	○						
	42. 직업선택 시 우선 고려 사항	43. 직업선택 시 우선 고려 사항	-	○	○						
	43. 진로성숙도	44. 진로성숙도	○	○	○						
	44. 직업관	45. 직업관	-	○	○						
		46. 고교재학 인턴 또는 현장실습 경험	-	-	-						[★삭제] · 응답자 수가 매우 적도 활용도가 낮아 삭제
		47. (15세 이상만) 직업훈련 경험 유무	-	-	-						
		47-1. 직업훈련 목적	-	-	-						
		47-2. 직업훈련 받지 않은 이유	-	-	-						
		47-3. 향후 직업훈련 계획	-	-	-						
		39. 희망교육수준	-	-	-				✓		[★삭제] · 활용도가 낮고, 10명 중 7명 이상이 진학하는 현 상황에서 시계열 측정 필요성 또한 낮음

영역	2023년 조사표	2020년 조사표	조사 대상			변경 사항					변경 내용 및 근거 사유
			9-12세	13-18세	19-24세	문항 유지	문항 이동	문항 수정	문항 삭제	신규 추가	
Ⅶ. 사회진입 및 이행	45.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48.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	○	○						
		48-1. 현재 아르바이트 여부	-	○	○				✓		[★삭제] · 49번 취업여부 판별 문항과 중복
	46. 지난주 1시간 이상 일 여부	49. 지난주 1시간 이상 일 여부	-	○	○	✓					
	46-1. 가족일 18시간 이상 여부	49-1. 가족일 18시간 이상 여부	-	○	○	✓					
	46-2. 지난주 직장 유무	49-2. 지난주 직장 유무	-	○	○	✓					
	47. 종사하였던 일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 사무 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 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 단순노무 종사자 ⑩ 직업군인	50.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은 다음 중 어느 직업에 해당합니까?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 사무 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 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 단순노무 종사자 ⑩ 직업군인	-	○	○			✓			[질문 표현 수정] ·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하고 간결한 표현으로 수정 · 지난주 했던 일에 대한 질문으로 '현재' 용어 삭제 및 응답자 기준의 시점에 맞게 표현 수정
	48. 일을 통해 얻는 월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월평균 <input type="text"/> 만원	51.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통해 얻는 월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월평균 <input type="text"/> 만원	-	○	○			✓			[질문 표현 수정] ·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하고 간결한 표현으로 수정 · 지난주 했던 일에 대한 질문으로 '현재' 용어 삭제 및 응답자 기준의 시점에 맞게 표현 수정
	49. 일의 형태는 다음 중 무엇이었습니까? ① 임금근로자(→ 53-1로 이동) ② 비임금근로자(→ 53-3으로 이동)	52.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에서의 지위는 무엇입니까? ① 임금근로자(→ 52-1로 이동) ② 비임금근로자(→ 52-3으로 이동)	-	○	○			✓			[질문 표현 수정] ·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하고 간결한 표현으로 수정 · 지난주 했던 일에 대한 질문으로 '현재' 용어 삭제 및 응답자 기준의 시점에 맞게 표현 수정

영역	2023년 조사표	2020년 조사표	조사 대상			변경 사항					변경 내용 및 근거 사유																																																					
			9-12세	13-18세	19-24세	문항 유지	문항 이동	문항 수정	문항 삭제	신규 추가																																																						
	(임금근로자) 근로형태 49-1. 귀하의 근로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기간제, 파견, 용역 등)	(임금근로자) 근로형태 52-1. 다음 중 근로형태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기간제, 파견, 용역 등)	-	○	○			✓			[질문 표현 수정] ·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하고 간결한 표현으로 수정 · 지난주 했던 일에 대한 질문으로 '현재' 용어 삭제 및 응답자 기준의 시점에 맞게 표현 수정																																																					
	49-2.(임금근로자) 근로시간형태	52-2. (임금근로자) 근로시간형태	-	○	○	✓					[질문 표현 수정] ·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한 표현으로 수정 ('20) 전일제(full-time), 시간제(part-time)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근로 시간은 전일제(full-time)와 시간제(part-time)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임금근로자) 부당행위 경험 49-3. 일을 하면서 다음의 사항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table><tr><th></th><th>있다</th><th>없다</th></tr><tr><td>1)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 함</td><td>①</td><td>②</td></tr><tr><td>2) 일을 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함</td><td>①</td><td>②</td></tr><tr><td>3)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받음</td><td>①</td><td>②</td></tr><tr><td>4) 일을 하다가 다쳤지만 치료받지 못함</td><td>①</td><td>②</td></tr><tr><td>5)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을 받지 못함</td><td>①</td><td>②</td></tr><tr><td>6)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함</td><td>①</td><td>②</td></tr><tr><td>7) 정해진 근로시간을 과도하게 초과해 근무함</td><td>①</td><td>②</td></tr><tr><td>8)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함</td><td>①</td><td>②</td></tr></table>		있다	없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 함	①	②	2) 일을 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함	①	②	3)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받음	①	②	4) 일을 하다가 다쳤지만 치료받지 못함	①	②	5)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을 받지 못함	①	②	6)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함	①	②	7) 정해진 근로시간을 과도하게 초과해 근무함	①	②	8)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함	①	②	(임금근로자) 부당행위 경험 52-6. 현재 일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table><tr><th></th><th>있다</th><th>없다</th></tr><tr><td>1) 근로계약서를 작성함</td><td>①</td><td>②</td></tr><tr><td>2) 일을 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함</td><td>①</td><td>②</td></tr><tr><td>3)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받음</td><td>①</td><td>②</td></tr><tr><td>4) 일을 하다가 다쳤지만 치료받지 못함</td><td>①</td><td>②</td></tr><tr><td>5)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을 받지 못함</td><td>①</td><td>②</td></tr><tr><td>6)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함</td><td>①</td><td>②</td></tr><tr><td>7) 정해진 근로시간을 과도하게 초과해 근무함</td><td>①</td><td>②</td></tr><tr><td>8)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함</td><td>①</td><td>②</td></tr></table>		있다	없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함	①	②	2) 일을 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함	①	②	3)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받음	①	②	4) 일을 하다가 다쳤지만 치료받지 못함	①	②	5)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을 받지 못함	①	②	6)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함	①	②	7) 정해진 근로시간을 과도하게 초과해 근무함	①	②	8)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함	①	②	-	○	○		✓			[영역 내 문항 배치 이동 및 질문, 항목 수정] · 간결한 표현으로 질문 수정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근로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경험 유무 측정이므로 임금근로자 질문에 이어질 수 있도록 위치 이동 · 2)~8)항목 모두 부당노동행위 항목이므로, 이에 맞추어 1)도 근로계약서 작성 안한 것으로 수정하여 내용 통일
	있다	없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 함	①	②																																																														
2) 일을 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함	①	②																																																														
3)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받음	①	②																																																														
4) 일을 하다가 다쳤지만 치료받지 못함	①	②																																																														
5)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을 받지 못함	①	②																																																														
6)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함	①	②																																																														
7) 정해진 근로시간을 과도하게 초과해 근무함	①	②																																																														
8)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함	①	②																																																														
	있다	없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함	①	②																																																														
2) 일을 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함	①	②																																																														
3)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받음	①	②																																																														
4) 일을 하다가 다쳤지만 치료받지 못함	①	②																																																														
5)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을 받지 못함	①	②																																																														
6)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함	①	②																																																														
7) 정해진 근로시간을 과도하게 초과해 근무함	①	②																																																														
8)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함	①	②																																																														

영역	2023년 조사표	2020년 조사표	조사 대상			변경 사항					변경 내용 및 근거 사유
			9-12세	13-18세	19-24세	문항 유지	문항 이동	문항 수정	문항 삭제	신규 추가	
	(비임금근로자) 종사상지위 49-4. 귀하의 근로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고용원(종업원)이 있는 자영업자 ② 고용원(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③ 무급가족종사자 (함께 사는 가족의 사업체 또는 농장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하는 경우)	(비임금근로자) 종사상지위 52-3.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고용원(종업원)이 있는 자영업자 ② 고용원(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③ 무급가족종사자 (함께 사는 가족의 사업체 또는 농장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하는 경우)	-	○	○	✓					[질문 표현 수정] ·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한 표현으로 수정
	(공통) 일을 하게 된 사유 50. 그 일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임금근로자) 일을 하게 된 사유 52-4. 현재 그 일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응답 대상자 범위 확대: 임금근로자 → 취업자 모두] · 비임금근로자도 해당되는 내용이나 임금근로자만 측정하고 있는 논리적 오류가 있어 별도 문항으로 수정하여 구성 · 지난주 했던 일에 대한 질문으로 '현재' 용어 삭제
	(공통) 폭력 및 성폭력 경험 51. 일을 하면서 손님, 고용주, 혹은 다른 직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임금근로자) 폭력 및 성폭력 경험 52-5. 현재 일을 하면서 손님, 고용주, 혹은 다른 직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	○			✓			[응답 대상자 범위 확대: 임금근로자 → 취업자 모두] · 비임금근로자도 해당되는 내용이나 임금근로자만 측정하고 있는 논리적 오류가 있어 별도 문항으로 수정하여 구성 · 지난주 했던 일에 대한 질문으로 '현재' 용어 삭제
	(19~24세) 41. 비취업자 - 비취업 기간 동안 한 일	50. (지난주 일 안 한자) 구직활동 여부	-	-	○	✓					
	52. (지난주 일 안 한자) 구직활동 여부	53. (지난주 일 안 한자) 구직활동 여부	-	○	○		✓				[영역 내 문항 배치 이동] · 취업여부 측정에 따른 연계 하위 질문이므로 위치 이동
	(19~24세) 42-1. 비취업자 - 구직기간	51-1. (지난주 일 안 한자) 구직활동 여부	-	-	○	✓					

영역	2023년 조사표	2020년 조사표	조사 대상			변경 사항					변경 내용 및 근거 사유
			9-12세	13-18세	19-24세	문항 유지	문항 이동	문항 수정	문항 삭제	신규 추가	
Ⅷ. 응답자 특성	H2-3 성별	D1. 성별	○	○	○	✓					
	H2-4 생년월	D2. 생년월	○	○	○	✓					
	D1. 정규교육수준 (9-12세) 현재 초등학교 몇 학년입니까? ① 3학년 ② 4학년 ③ 5학년 ④ 6학년 ⑤ 학년 없음	D3. 정규교육수준 (9-12세) 정규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습니까? ① 무 학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대학(4년제 미만) ⑤ 대학교(4년제 이상) ⑥ 대학원 이상	○	○	○	✓		✓ (9-12세)			[9-12세 수정: 정규교육정도 → 학년 대체 측정] · 9-12세 초등학교 연령대로 의무교육 대상자, · 정규교육 이수 학년으로 대체 측정
	D3-1. (고교졸업이상만) 현재 주 학업 상태	D3-1. (고교졸업이상만) 현재 주 학업 상태	-	○	○	✓					

- ① 졸업

② 재학

③ 수료

④ 휴학

⑤ 중퇴

3-2. 주 양육자 조사표 변경내역

- 조사영역 및 하위구성 요소

2023년			2020년		비고
영역	하위요소	문항	영역	문항	
Ⅰ. 청소년 조사 영역 연계	1. 건강	자녀 건강을 위한 지원 스트레스 경험	Ⅰ. 건강과 웰빙	자녀 건강을 위한 지원 자녀지원	
	2. 부모와의 관계 및 자원기대 인식	정서적 자녀지원 자녀의 방과 후 보호 자녀 양육 만족도	Ⅱ. 권리와 존중	청소년의 지위 및 존중 성인지 태도 및 다양성 수용	
	3. 참여·권리 및 사회의식	청소년의 지위 및 존중 결혼 및 성역할의식, 다문화수용성 청소년 사회참여에 대한 태도	Ⅲ. 참여 및 사회인식	청소년 사회참여에 대한 태도 선거투표연령 인식	
	4. 학습과 활동	자녀 학업 및 학습에 대한 관심 자녀 학업 및 학습 외 활동에 대한 관심	Ⅳ. 학습과 활동	자녀 학업 및 학습에 대한 관심 자녀 학업 및 학습 외 활동에 대한 관심 청소년 정책사업 인지도	
	5. 진로 및 직업탐색	자녀 진로 선택에 대한 관심 정도	Ⅴ. 진로 및 직업탐색	자녀 진로 관심 및 선택에서의 관여 정도	
	6. 사회진입 및 이행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생각 현장실습 및 인턴에 대한 생각 직업선택 시 우선 고려 사항	Ⅵ. 사회진입 및 이행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생각 현장실습 및 인턴에 대한 생각 직업선택에 대한 생각	
Ⅱ. 가구 및 주 양육자 특성	가구 특성	가구형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여부 생활도움 받은 경험 월소득 및 월평균 생활비	Ⅶ. 보호	자녀의 방과 후 보호	('23) 영역 삭제
			Ⅷ. 전반적인 가정환경 및 인식	생활도움 받은 경험 자녀 양육 만족도 미디어사용제한 정도 스트레스 경험	
			Ⅸ. 코로나19 이후 삶의 변화	온라인 학습활동 확대에 대한 동의 코로나19 영향 코로나19 이후 걱정	
	2. 주양육자 특성	성별, 생년월 청소년 설문응답자와의 관계 혼인상태, 최종학력 출신국 주양육자의 경제활동상태(취업여부, 근무시간, 근로시간, 일하지 않은 이유)	X. 가구 및 응답자 특성	성별, 생년월, 출신국, 혼인상태, 최종학력 청소년 설문응답자와의 관계 가구형태, 주택유형, 점유형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여부 월소득 및 월평균 생활비 가구주, 배우자, 비가구주양육자의 경제활동상태(취업여부, 근무시간, 근로시간, 일하지 않은 이유,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변화)	

- 문항별 변경 내역(※ 문항 번호 13-18세 조사표 기준)

영역	2023년 조사표	2020년 조사표	변경 사항					변경 내용 및 근거 사유
			문항 유지	문항 이동	문항 수정	문항 삭제	신규 추가	
I. 청소년조사 영역 연계	《건강》 자녀 건강을 위한 지원	자녀 건강을 위한 지원	✓					
	2. 스트레스 경험	19. 스트레스 경험		✓				[영역 변경: 문항 재배치] (‘20)Ⅰ.건강과 웰빙 → (‘23)Ⅰ. 청소년조사 영역 연계(1.건강) [질문 표현 수정] · 슬픔/절망감/대인관계에 대한 질문도 포함돼 있으므로 질문 표현 수정 (‘20) 스트레스를 얼마나 자주 경험~ → 다음 각각을 얼마나 자주 경험~
	《부모와의 관계 및 지원기대인식》 3. 정서적 자녀지원	2. 자녀 지원		✓				[영역 변경: 문항 재배치] (‘20)Ⅰ.건강과 웰빙 → (‘23)Ⅰ. 청소년조사 영역 연계(2. 부모와의 관계 및 지원기대인식)
	4. 자녀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이용 여부	15. 자녀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이용 여부		✓				[영역 변경: 문항 재배치] (‘20)Ⅶ. 보호 → (‘23)Ⅰ. 청소년조사 영역 연계(2. 부모와의 관계 및 지원기대인식)
	(보호자 없는 시간에 대한 불안감) 4-1. 초·중·고 재학 중인 자녀(또는 피양육자)가 방과 후 부모 또는 보호자 없이 1시간 이상 혼자 또는 형제자매끼리만 있는 경우에 얼마나 불안하십니까? ① 전혀 불안하지 않다 ② 별로 불안하지 않다 ③ 약간 불안하다 ④ 매우 불안하다	(보호자 없는 시간에 대한 불안감) 15-1. 초·중·고 재학 중인 자녀(또는 피양육자)가 방과 후 부모 또는 보호자 없이 1시간 이상 혼자 또는 형제자매끼리만 있는 경우에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① 전혀 불안하지 않다 ② 별로 불안하지 않다 ③ 약간 불안하다 ④ 매우 불안하다		✓				[영역 변경: 문항 재배치] (‘20)Ⅶ. 보호 → (‘23)Ⅰ. 청소년조사 영역 연계(2. 부모와의 관계 및 지원기대인식) [질문표현 수정] (‘20)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 얼마나 불안하십니까?
	5. (9-18세 자녀) 자녀 양육 만족도	17. (9-18세 자녀) 자녀 양육 만족도		✓				[영역 변경: 문항 재배치] (‘20)Ⅶ. 전반적인 가정환경 및 인식 → (‘23)Ⅰ. 청소년조사 영역 연계(2. 부모와의 관계 및 지원기대인식)

영역	2023년 조사표	2020년 조사표	변경 사항					변경 내용 및 근거 사유																		
			문항 유지	문항 이동	문항 수정	문항 삭제	신규 추가																			
	《참여·권리 및 사회의식》 6. 청소년 지위 및 존중	3. 청소년 지위 및 존중		✓				[영역 변경: 문항 재배치] (‘20)Ⅱ. 권리와 존중 → (‘23)Ⅰ. 청소년조사 영역 연계(3. 참여·권리 및 사회의식)																		
	7. 결혼 및 성역할의식, 다문화 수용성	4. 결혼 및 성역할의식, 다문화 수용성		✓				[영역 변경: 문항 재배치] (‘20)Ⅱ. 권리와 존중 → (‘23)Ⅰ. 청소년조사 영역 연계(3. 참여·권리 및 사회의식) · 측정내용의 개념 청소년조사표와 동일하게 수정 (‘20)성인지 태도 및 다양성 수용 → (‘23) 결혼 및 성역할의식, 다문화 수용성																		
	8. 청소년 사회참여에 대한 태도	5. 청소년 사회참여에 대한 태도		✓																						
	(사회문제 위험에 대한 인식) 9. 우리사회의 청소년들이 다음 각 문제의 위험에 얼마나 노출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table><tr><th>구 분</th><th>전혀 위험에 노출되고 있지 않다</th><th>위험에 노출되고 있지 않은 편이다</th><th>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편이다</th><th>높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편이다</th></tr><tr><td>1) 마약류 접촉</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2)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성범죄 피해</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3) 유해한 업소의 이용</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able>	구 분	전혀 위험에 노출되고 있지 않다	위험에 노출되고 있지 않은 편이다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편이다	높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편이다	1) 마약류 접촉	①	②	③	④	2)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성범죄 피해	①	②	③	④	3) 유해한 업소의 이용	①	②	③	④	-			✓	[☆신규문항 추가] · 최근 정책 현안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에 대한 실증 자료 확보를 위해 청소년조사에 신규 문항 추가하고, 부모와의 인식 차이를 함께 살펴보기 위해 주양육자 조사표에도 신규 문항으로 추가
	구 분	전혀 위험에 노출되고 있지 않다	위험에 노출되고 있지 않은 편이다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편이다	높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편이다																					
1) 마약류 접촉	①	②	③	④																						
2)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성범죄 피해	①	②	③	④																						
3) 유해한 업소의 이용	①	②	③	④																						
		6. 선거투표연령 인식				✓		[★삭제] · 「공직선거법」개정으로 피선거 연령 18세로 제도화로 청소년조사 문항 삭제, 동일 적용																		
《학습과 활동》 10. 자녀 학업 및 학습에 대한 관심	7. 자녀 학업 및 학습에 대한 관심		✓																							

영역	2023년 조사표	2020년 조사표	변경 사항					변경 내용 및 근거 사유
			문항 유지	문항 이동	문항 수정	문항 삭제	신규 추가	
	11. 자녀 학업 및 학습 외 활동에 대한 관심	8. 자녀 학업 및 학습 외 활동에 대한 관심	✓					[질문 표현 수정] · ‘알고 있다’가 곧 관심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질문 표현 수정 (‘20) ~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습니까? → ~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12. 자녀 학습 외 활동에 관심 갖는 주된 이유	9. 자녀 학습 외 활동에 관심 갖는 주된 이유	✓					[질문 표현 수정] ·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알아본다’, ‘돕는다’가 곧 관심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질문 표현 수정 (‘20) ~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습니까? → ~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10. 청소년 정책사업 인지도				✓		[★삭제] · 조사 내용의 적절성 등의 문제로 청소년조사표와 같이 삭제
	《진로 및 직업탐색》 13. 자녀 진로 선택에 대한 관심 정도	11. 자녀 진로 선택에 대한 관심 정도	✓					
	《사회진입 및 이행》 14.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생각	12.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생각	✓					
	15. 현장실습 및 인턴에 대한 생각	13. 현장실습 및 인턴에 대한 생각	✓					
	16. 직업선택 시 우선고려 사항	14. 직업선택 시 우선고려 사항	✓					

영역	2023년 조사표	2020년 조사표	변경 사항					변경 내용 및 근거 사유																																						
			문항 유지	문항 이동	문항 수정	문항 삭제	신규 추가																																							
Ⅱ. 가구 및 주 양육자 특성	《가구특성》 17. 청소년 응답자 부모의 출신국가	28. 청소년 응답자 부모의 출신국가		✓				[문항 재배치] [질문 표현 수정] (‘20) 설문에 응답한 자녀(또는 피양육자)의 부모님은 외국 출신입니까? → 귀댁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부모님은 외국 출신입니까?																																						
	18. 가구 형태	29. 가구형태		✓				[문항 재배치] [질문 표현 수정] (‘20) 설문에 응답한 자녀(또는 피양육자)의 가구형태 → 귀댁의 가구형태																																						
	19.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여부	32.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여부		✓				[문항 재배치]																																						
	20. 생활도움 받은 경험	16. 생활도움 받은 경험		✓				[영역 변경: 문항 재배치] (‘20) Ⅷ. 전반적인 가정환경 및 인식 → (‘23) Ⅱ. 가구 및 주양육자 특성(1. 가구특성) [보기 워딩 수정] · 지난 1년 동안의 도움 경험이므로 보기 표현도 과거형으로 변경 · ‘타인의 도움음’이라는 표현은 응답 결과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삭제																																						
	<table><tr><th>구분</th><th>전혀 없었다</th><th>한두 번 도움을 받았다</th><th>가끔 도움을 받았다</th><th>지속적인 도움을 받았다</th></tr><tr><td>1) 경제적 도움 (용돈, 생활비 등)</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2) 정서적 도움 (익는, 꾸념 상대 등)</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3) 생활의 도움(가사, 집 뵈주기, 간병 등)</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able>	구분	전혀 없었다	한두 번 도움을 받았다	가끔 도움을 받았다	지속적인 도움을 받았다	1) 경제적 도움 (용돈, 생활비 등)	①	②	③	④	2) 정서적 도움 (익는, 꾸념 상대 등)	①	②	③	④	3) 생활의 도움(가사, 집 뵈주기, 간병 등)	①	②	③	④	<table><tr><th>구분</th><th>타인의 도움은 전혀 없었다</th><th>한두 번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다</th><th>가끔 도움을 받는 편이다</th><th>지속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th></tr><tr><td>1) 경제적 도움 (용돈, 생활비 등)</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2) 정서적 도움 (익는, 꾸념 상대 등)</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3) 생활의 도움(가사, 집 뵈주기, 간병 등)</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able>	구분	타인의 도움은 전혀 없었다	한두 번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다	가끔 도움을 받는 편이다	지속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	1) 경제적 도움 (용돈, 생활비 등)	①	②	③	④	2) 정서적 도움 (익는, 꾸념 상대 등)	①	②	③	④	3) 생활의 도움(가사, 집 뵈주기, 간병 등)	①	②	③	④		✓		
구분	전혀 없었다	한두 번 도움을 받았다	가끔 도움을 받았다	지속적인 도움을 받았다																																										
1) 경제적 도움 (용돈, 생활비 등)	①	②	③	④																																										
2) 정서적 도움 (익는, 꾸념 상대 등)	①	②	③	④																																										
3) 생활의 도움(가사, 집 뵈주기, 간병 등)	①	②	③	④																																										
구분	타인의 도움은 전혀 없었다	한두 번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다	가끔 도움을 받는 편이다	지속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																																										
1) 경제적 도움 (용돈, 생활비 등)	①	②	③	④																																										
2) 정서적 도움 (익는, 꾸념 상대 등)	①	②	③	④																																										
3) 생활의 도움(가사, 집 뵈주기, 간병 등)	①	②	③	④																																										
21-1. 월소득	33. 월소득			✓				[질문 방식 변경] · 기존에는 개방형으로 묻고 응답을 거절한 사람에게만 폐쇄형으로 물었는데, 1) 응답 부담이 큰 점, 2) 분석 시 구체 금액보다는 구간 값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폐쇄형으로만 묻는 것으로 변경 (2020년 조사에서 구체 금액 응답 거절자는 109명)																																						
21-2. 월평균 생활비	33-1. 월평균 생활비			✓				[질문 방식 변경] · 기존에는 개방형으로 묻고 응답을 거절한 사람에게만 폐쇄형으로 물었는데, 1) 응답 부담이 큰 점, 2) 분석 시 구체 금액보다는 구간 값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폐쇄형으로만 묻는 것으로 변경 (2020년 조사에서 구체 금액 응답 거절자는 109명)																																						

영역	2023년 조사표	2020년 조사표	변경 사항					변경 내용 및 근거 사유
			문항 유지	문항 이동	문항 수정	문항 삭제	신규 추가	
		20.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학습활동 확대 동의				✓		[★삭제] '20년도 조사시기가 코로나19 상황임을 고려하여 구성된 문항으로 반복 측정 불필요
		21. 코로나19 이후 경험(소득, 돌봄, 생활비)				✓		
		22. 코로나19 이후 걱정				✓		
		30. 주택유형				✓		[★삭제] · 응답 부담은 높은 반면, 조사자료 활용도 낮아 삭제
		31. 주택 점유형태				✓		[★삭제] · 응답 부담은 높은 반면, 조사자료 활용도 낮아 삭제
	《주 양육자 특성》 H2-3. 성별	23. 성별	✓					
	H2-4. 생년월	24. 생년월	✓					
	22. 청소년 조사 응답자와의 관계	25. 청소년 조사 응답자와의 관계	✓					
	23. 혼인상태	26. 혼인상태	✓					
	24. 최종학력	27. 최종학력	✓					
	《주 양육자 경제활동 상태》 25. 지난주 1시간 이상 일 여부	34. 지난주 1시간 이상 일 여부		✓				[문항 재배치] · 주양육자 사회인구학적 특성 뒤에 경제활동상태 배치
	25-1. 주당 평균 근무시간	34-1. 주당 평균 근무시간		✓				
	25-2. 근로시간 형태	34-2. 근로시간 형태		✓				
	25-3. 일하지 않은 사유	34-4. 일하지 않은 사유		✓				
		34-3.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변화 여부				✓		[★삭제] · '20년도 조사시기가 코로나19 상황임을 고려하여 구성된 문항으로 반복 측정 불필요
		35.~35-4. 양육자(본인)의 배우자 경제활동상태				✓		[★삭제] · 주 양육자 이외자의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응답 부담 높은 반면, 활용도 낮아 삭제
		36.~36-4. 비가구주 주 양육자의 경제활동 상태				✓		

4. 조사표 4종

1) 청소년 9-12세 조사표



승인번호
제154001호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표본 가구번호

실사 관리 NO.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9 ~ 12세)

인 사 말 씀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청소년들의 생활수준을 측정하고,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소년 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만9 ~ 24세, 1998. 6. 1. ~ 2014. 5. 31.에 출생한 자)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되오니, 정확한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응답가구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 조사표는 만 9세부터 12세 이하(2010. 6. 1. ~ 2014. 5. 31.에 출생한 자)인 청소년 및 청년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응답하신 내용은 비밀이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 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전화문의
02-3702-2686



홈페이지
<https://csky.gallup.co.kr/>



※ 아래는 조사원이 직접 작성합니다.

조사구 번호										거처 번호			가구 번호			가구원 번호	

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도로명 주소	건물명	동	호수
	0	0	0	0	0	0	0				

조사원 성명											
조사원 ID											
조사표 번호		총 ()부 중 ()번째 조사표									
응답자 정보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생년월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30px; height: 20px; display: inline-block;"></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30px; height: 20px; display: inline-block;"></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30px; height: 20px; display: inline-block;"></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30px; height: 20px; display: inline-block;"></div>				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30px; height: 20px; display: inline-block;"></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30px; height: 20px; display: inline-block;"></div>		월		
	재학 중인 학교급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대학교	⑤ 해당 없음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갤럽



1. 주관적 웰빙 및 일상생활 만족도

주관적 안녕감

1-1 **어제** 어느 정도 행복했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 보통 → 매우 행복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	---	---	---	---	---	---	---	---

1-2 **어제** 어느 정도 근심 또는 걱정을 하였습니까?

전혀 하지 않았다 ← 보통 → 매우 많이 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	---	---	---	---	---	---	---	---

1-3 **어제** 어느 정도 우울하였습니까?

전혀 우울하지 않았다 ← 보통 → 매우 우울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	---	---	---	---	---	---	---	---

1-4 **요즘** 자신의 삶(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	---	---	---	---	---	---	---	---

1-5 **요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까?

※ 학생의 경우, 일이란 학교생활, 숙제, 공부 등을 말합니다.

전혀 가치 없다 ← 보통 → 매우 가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	---	---	---	---	---	---	---	---

일상생활 만족도

2 다음 각각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만족한다	해당없음
1) 가족과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내가 사는 집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내 삶에서 선택의 자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친구들과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내가 다니는 학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6) 나의 외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7)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물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8) 나의 건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9) 나의 미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0) 나의 자유 시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1) 우리 동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2) 생활에서의 안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삶의 변화

3 코로나19로 인해 다음의 사항들이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

구분	매우 부정적으로 변화함	약간 부정적으로 변화함	변화 없음	약간 긍정적으로 변화함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함	해당 없음
1) 전반적인 생활	① ② ③ ④ ⑤					
2) 가족관계	① ② ③ ④ ⑤					
3) 친구관계	① ② ③ ④ ⑤					
4) 학교생활	① ② ③ ④ ⑤					



II. 건강

신체적 건강

4 평소에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니까? (병학 외의 기간을 기준으로 기입해 주세요.)

예) 밤 10시 10분에 잠들었다면 22시 10분으로 기입합니다.		
구분	주중(월~금)	주말(토~일)
1) 잠자는 시간	약 □□시 □□분	약 □□시 □□분
2) 일어나는 시간	약 □□시 □□분	약 □□시 □□분

5 지난 1주일 동안 자신의 수면 시간이 얼마나 충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충분하지 않았다
 ② 충분하지 않은 편이었다
 ③ 충분한 편이었다
 ④ 매우 충분했다

6 하루 식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에 대해 각각 응답 바랍니다.

☞ 식사내용으로 빵, 선식 또는 미숫가루, 죽, 시리얼 등을 먹은 경우도 식사에 포함됩니다.

구분	전혀 먹지 않는다	먹지 않는 편이다	가급적 먹는 편이다	항상 먹는다
1) 아침	①	②	③	④
2) 점심	①	②	③	④
3) 저녁	①	②	③	④

7 지난 1주일 동안 실내운동이나 야외에서의 운동 놀이를 한 적이 있습니까?

☞ 활동시간에는 학교에서의 운동이 포함됩니다.

- ① 예(있다)
 ② 아니요(없다) → **8** 번 문항으로 이동

7-1 활동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시간

☞ 예) 1시간 25분은 1시간, 1시간 40분은 2시간으로 작성(30분 기준 반올림)

정신건강**8 최근 1년(2022. 6. 1. ~ 2023. 5. 31.) 동안 다음의 상황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였습니까?**

☞ 스트레스란 '주변 사람들이나 일 때문에 힘이 들고 어려운 느낌'을 말합니다.

나는...	전혀 경험하지 않았다	별로 경험하지 않았다	가끔 경험했다	자주 경험했다
1)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느낀다	①	②	③	④
2) SNS 소셜미디어 사용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3) 어떠한 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상태를 느낀다	①	②	③	④

9 다음 각 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응답해 주십시오.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힘든 시간을 보낸 후에는 빨리 회복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2) 스트레스가 많은 사건을 이겨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①	②	③	④
3) 스트레스가 많은 사건에서 회복하는 데 그다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4)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돌이키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5) 보통 별 어려움 없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낸다	①	②	③	④
6) 내 인생의 좌절을 극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10 최근 1년(2022. 6. 1. ~ 2023. 5. 31.) 동안 심리상담전문가(학교상담실,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학과 전문의 상담 등)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받았다
② 안 받았다

주관적 건강평가 및 자존감

11 다음 각 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응답해 주십시오.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신체적으로 건강하다	①	②	③	④
2)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①	②	③	④

12 다음 각 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응답해 주십시오.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린다	①	②	③	④
2) 다른 사람과 협력을 잘한다	①	②	③	④
3) 다른 사람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잘 해결한다	①	②	③	④
4)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5) 좋은 성품을 기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6) 나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Ⅲ. 부모(또는 양육자)와의 관계 및 지원기대 인식

부모(또는 양육자)와의 대화 및 활동

13 최근 1년(2022. 6. 1. ~ 2023. 5. 31.) 동안 부모님(또는 주양육자)과 다음 활동 각각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구분	거의 하지 않았다	월 1~3회	주 1~3회	주 4~6회	매일 한다	해당 없음
1) 나의 고민에 대한 대화	①	②	③	④	⑤	<input type="checkbox"/>
2)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	①	②	③	④	⑤	⑨
3) 책, 텔레비전, 영화에 대한 대화	①	②	③	④	⑤	<input type="checkbox"/>
4) 정치, 사회적 주제에 관한 대화(선거 등)	①	②	③	④	⑤	
5) 여가 활동	①	②	③	④	⑤	
6) 저녁 식사	①	②	③	④	⑤	

부모(또는 양육자)와의 대화 시간

14 주중에 매일 부모님(또는 양육자)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 함께한 시간을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구분	전혀 하지 않는다	30분 미만	1시간 미만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해당 없음
1)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⑨
2)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⑨
3) 부모님 외 양육자 ※ 위 1), 2)에서 모두 '해당 없음'인 경우만 응답	①	②	③	④	⑤	<input type="checkbox"/>

부모(또는 양육자)의 돌봄 및 지원 기대

15 부모님(또는 양육자)은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돌보니까?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학교 수업(학원 포함)이 끝난 후 집에 늦게 들어와도 관심이 없다	①	②	③	④
2) 내가 고열이 나거나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다	①	②	③	④

16

평일 방과 후에 부모님(또는 양육자)이나 돌봐 주는 어른 없이 집에 혼자 혹은 형제나 자매끼리만 있는 경우가 1주일에 며칠 정도나 됩니까?

- ① 거의 없다 → 17 번 문항으로 이동
 ② 1~2일 정도
 ③ 3~4일 정도
 ④ 거의 매일

16-1

평일 방과 후 혼자 또는 형제자매끼리만 있을 때, 얼마나 불안합니까?

- ① 전혀 불안하지 않다
 ② 별로 불안하지 않다
 ③ 약간 불안하다
 ④ 매우 불안하다



IV. 참여·권리 및 사회의식

의견 존중

17

다음 각 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1) 우리 가족은 나의 의견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2) 내 친구들은 나의 의견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3) 내가 다니는 학교는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사회는 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자기의존지향성

18

어떤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내릴 때 조언을 구하기 위해 다음 중 어느 것에 가장 의지합니까?
 순서대로 세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나 자신의 이성적 판단
 ② 느낌과 직관
 ③ 부모/조부모 의견
 ④ 형제 의견
 ⑤ 친구들 의견
 ⑥ 종교적 신념
 ⑦ 과거 경험
 ⑧ 인터넷 정보
 ⑨ 기타



V. 학습과 활동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 아닌 청소년은 22 번 문항으로 이동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학습

19 (초·중·고 재학 중인 청소년만 응답)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 대해 응답해주시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2) 우리 학교는 우리들의 의견을 잘 반영한다	①	②	③	④
3) 우리 학교는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다	①	②	③	④
4) 우리 학교는 교칙이 엄격하다	①	②	③	④
5) 현재 학교생활이 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20 (초·중·고 재학 중인 청소년만 응답) 최근 1년(2022. 6. 1. ~ 2023. 5. 31.) 동안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 수업, 학습지 과외 등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일주일에 총 몇 시간입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 21 번 문항으로 이동

20-1 학원 또는 과외 일주일 총시간 (소수점 이하는 없애고 기입합니다.)

일주일 총 시간

21 (초·중·고 재학 중인 청소년만 응답) 최근 1년(2022. 6. 1. ~ 2023. 5. 31.) 동안 학교 수업이나 학원/과외 수업 외에 혼자서 교과 공부를 한 시간은 하루 평균 몇 시간입니까?

* 숙제를 한 시간도 포함하되, 1일 평균 시간으로 표기합니다.

하루 시간 분

활동

22 최근 1년(2022. 6. 1. ~ 2023. 5. 31.) 동안 아래와 같은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구분	있다	없다
1) 문화/예술 관련 활동(공연 감상 등)	①	②
2) 과학/정보 관련 활동(경진 대회, 과학 실험 등)	①	②
3) 모험/개척 관련 활동(탐사 등반, 야영 등)	①	②
4) 자원봉사 활동(일손 돕기, 자선-구호 등)	①	②
5) 직업/진로 관련 활동(직업 체험, 진로 탐색 등)	①	②
6) 국제 교류 활동	①	②
7) 건강/보건 관련 활동(신체단련, 안전 응급처치 등)	①	②
8) 자기(인성)계발 관련 활동(자기표현, 마음 수련 등)	①	②
9) 환경 보존 관련 활동(생태, 숲 체험, 환경 살리기 등)	①	②

☞ **22** 번 문항에서 1)~9) 모두 '없다'에 응답한 경우 **23** 번 문항으로 이동

22-1 위 활동 중에 본인이 직접 활동주제와 내용에 대해 아이디어를 내거나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23 **경험 여부와 상관없이, 22번 문항의 9가지 활동 중 가장 하고 싶은 활동을 순서대로 두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문화/예술 관련 활동(공연 감상 등)
 ② 과학/정보 관련 활동(경진 대회, 과학 실험 등)
 ③ 모험/개척 관련 활동(탐사 등반, 야영 등)
 ④ 자원봉사 활동(일손 돕기, 자선-구호 등)
 ⑤ 직업/진로 관련 활동(직업 체험, 진로 탐색 등)
 ⑥ 국제 교류 활동
 ⑦ 건강/보건 관련 활동(신체단련, 안전 응급처치 등)
 ⑧ 자기(인성)계발 관련 활동(자기표현, 마음 수련 등)
 ⑨ 환경 보존 관련 활동(생태, 숲 체험, 환경 살리기 등)

24 청소년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거나 진행하는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별로 없다
 ③ 조금 있다
 ④ 많이 있다

25 현재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단체 또는 동아리가 있습니까?

구분	있다	없다
1) 청소년 단체나 동아리(스카우트, 누리단·한별단, 해양소년단 등) ☞ 학교 등 공식 기관의 단체 포함(종교 단체 제외)	①	②
2)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단체나 동아리(예, 인터넷 카페 등)	①	②
3) 기타 단체나 동아리(종교 단체 포함)	①	②

26 최근 1년(2022. 6. 1. ~ 2023. 5. 31.) 동안 아래와 같은 시설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구분	있다	없다
1) 청소년수련관(청소년센터 등),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야영장	①	②
2) 유스호스텔	①	②
3) 도서관(단, 학교도서관은 제외)	①	②
4) 공연 시설(공연장, 영화상영관 등)	①	②
5) 전시 시설(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 공원 등)	①	②
6) 사회복지관	①	②
7) 수목원/수목림/자연 휴양림	①	②



VI. 진로 및 직업탐색

진로 활동

27 다음의 각각에 해당하는 진로 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있습니까?

구분	있다	없다
1) 수업 중 진로 탐색 (나의 꿈, 미래 직업 관련 수업내용 혹은 관련 직업이 실생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배우는 것)	①	②
2) 진로심리검사 (검사지를 통해 적성, 흥미를 알아보는 것)	①	②
3) 진로체험 (직업인 특강, 인터뷰, 직업인 업무 체험 등 진로체험학습에 참여하는 것)	①	②
4) 진로 상담 (나의 꿈, 미래 직업, 직성 등에 관한 상담)	①	②
5) 창업 체험하기 (도전(기업가) 정신, 창의성 및 문제해결 능력 관련 활동 참여)	①	②

장래 희망

28 장래 희망 직업을 정하였습니까?

☞ 현재 직업이 있는 경우, ① 예(정하였음) 에 응답해 주십시오.

① 예 (정하였음)

② 아니오 (정하지 않았음) → 29 번 문항으로 이동

28-1 장래 희망 직업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 현재 직업이 있으며, 직업을 바꿀 계획이 없다면, 현재 직업을 기입해 주십시오.

☞ 현재 직업이 있으며, 직업을 바꿀 계획이 있다면, 바꾸기를 희망하는 직업을 기입해 주십시오.

직업 선택

29 다음 각 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응답해 주십시오.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2)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3) 장래 희망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6) 나는 관심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직업에 대하여 알아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Ⅷ. 응답자 특성

학년

D1 현재 초등학교 몇 학년입니까?

- ① 3학년
- ② 4학년
- ③ 5학년
- ④ 6학년
- ⑤ 학년 없음

귀중한 시간을 내어 조사에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사 후 기록표

응답자 기본정보	성명		
	전화번호	① 집 ② 휴대폰 ③ 직장 () - () - () <small>* 전화번호는 추후 자료 확인을 위한 목적이며, 절대로 다른 목적에 이용하거나 유출되지 않습니다.</small>	
조사표 작성 방법		① 조사원 면접식	② 자기기입식
응답 도구		① Tablet PC	② 종이조사표
응답 날짜		2023년 ()월 ()일	
응답 시간		① 오전 ② 오후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응답	

2) 청소년 13-18세 조사표



승인번호
제154001호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표본 가구번호

실사 관리 NO.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13 ~ 18세)

인 사 말 씀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청소년들의 생활수준을 측정하고,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소년 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9~24세, 1999. 6. 1. ~ 2014. 5. 31.에 출생한 자)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되오니, 정확한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응답가구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 조사표는 13세부터 18세 이하(2004. 6. 1. ~ 2010. 5. 31.에 출생한 자)인 청소년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응답하신 내용은 비밀이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 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전화문의(콜센터 운영시간 평일 09:30~17:30)
02-739-9489



홈페이지
<https://csky.gallup.co.kr/>



※ 아래는 조사원이 직접 작성합니다.

조사구 번호										거처 번호			가구 번호			가구원 번호	

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도로명 주소	건물명	동	호수
	0	0	0	0	0	0	0				

조사원 성명											
조사원 ID											
가구 내 조사표 번호		총 ()부 중 ()번째 조사표									
응답자 정보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생년월일					년			월		
	재학 중인 학교급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대학교	⑤ 해당 없음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갤럽



I. 주관적 웰빙 및 일상생활 만족도

주관적 안녕감

1-1 어제 어느 정도 행복했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 보통 → 매우 행복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	---	---	---	---	---	---	---	---

1-2 어제 어느 정도 근심 또는 걱정을 하였습니까?

전혀 하지 않았다 ← 보통 → 매우 많이 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	---	---	---	---	---	---	---	---

1-3 어제 어느 정도 우울하였습니까?

전혀 우울하지 않았다 ← 보통 → 매우 우울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	---	---	---	---	---	---	---	---

1-4 요즘 자신의 삶(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	---	---	---	---	---	---	---	---

1-5 요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까?

※ 학생의 경우, 일이란 학교생활, 숙제, 공부 등을 말합니다.

전혀 가치 없다 ← 보통 → 매우 가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	---	---	---	---	---	---	---	---

일상생활 만족도

2 다음 각각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구분	<div> <div>전혀 만족하지 않는다</div> <div>← 보통 →</div> <div>매우 만족한다</div> </div>										해당없음
1) 가족과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내가 사는 집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내 삶에서 선택의 자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친구들과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내가 다니는 학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6) 나의 외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7)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물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8) 나의 건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9) 나의 미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0) 나의 자유 시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1) 우리 동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2) 생활에서의 안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삶의 변화

3 코로나19로 인해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

구분	매우 부정적으로 변화함	약간 부정적으로 변화함	변화 없음	약간 긍정적으로 변화함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함	해당없음
1) 전반적인 생활	①	②	③	④	⑤	
2) 가족관계	①	②	③	④	⑤	
3) 친구관계	①	②	③	④	⑤	
4) 학교생활	①	②	③	④	⑤	
5) 사회에 대한 신뢰	①	②	③	④	⑤	
6)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전망	①	②	③	④	⑤	

4 새로운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인해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

- ① 매우 부정적으로 변화함
- ② 약간 부정적으로 변화함
- ③ 변화 없음
- ④ 약간 긍정적으로 변화함
- ⑤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함



II. 건강

신체적 건강

5 평소에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납니까? (방학 외의 기간을 기준으로 기입합니다.)

예) 밤 10시 10분에 잠들었다면 22시 10분으로 기입합니다.

문항	주중(월~금)	주말(토~일)
1) 잠자는 시간	약 <input type="text"/> 시 <input type="text"/> 분	약 <input type="text"/> 시 <input type="text"/> 분
2) 일어나는 시간	약 <input type="text"/> 시 <input type="text"/> 분	약 <input type="text"/> 시 <input type="text"/> 분

6 지난 1주일 동안 자신의 수면 시간이 얼마나 충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충분하지 않았다
- ② 충분하지 않은 편이었다
- ③ 충분한 편이었다
- ④ 매우 충분했다

7 하루 식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에 대해 각각 응답 바랍니다.

예) 식사대용으로 빵, 선식 또는 미숫가루, 죽, 시리얼 등을 먹은 경우도 식사에 포함됩니다.

구분	전혀 먹지 않는다	먹지 않는 편이다	가급적 먹는 편이다	항상 먹는다
1) 아침	①	②	③	④
2) 점심	①	②	③	④
3) 저녁	①	②	③	④

8 지난 1주일 동안 실내운동이나 야외에서의 운동놀이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 활동시간에는 학교에서의 운동이 포함됩니다.

- ① 예(있다)
- ② 아니요(없다) → **9** 번 문항으로 이동

8-1 활동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시간

예) 1시간 25분은 1시간, 1시간 40분은 2시간으로 작성(30분 기준 반올림)

정신건강

9

최근 1년(2022. 6. 1. ~ 2023. 5. 31.) 동안 다음의 상황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였습니까?

☞ 스트레스란 '주변 사람들이나 일 때문에 힘이 들고 어려운 느낌'을 말합니다.

나는...	전혀 경험하지 않았다	별로 경험하지 않았다	가끔 경험했다	자주 경험했다
1)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느낀다	①	②	③	④
2) SNS 소셜미디어 사용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3) 어떠한 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상태를 느낀다	①	②	③	④

10

다음 각 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응답해 주십시오.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힘든 시간을 보낸 후에는 빨리 회복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2) 스트레스가 많은 사건을 이겨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①	②	③	④
3) 스트레스가 많은 사건에서 회복하는 데 그다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4)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돌이키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5) 보통 별 어려움 없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낸다	①	②	③	④
6) 내 인생의 좌절을 극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11

최근 1년(2022. 6. 1. ~ 2023. 5. 31.) 동안 심리상담전문가(학교상담실,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학과 전문의 상담 등)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받았다
② 안 받았다

주관적 건강평가 및 자존감

12 다음 각 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응답해 주십시오.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신체적으로 건강하다	①	②	③	④
2)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①	②	③	④

13 다음 각 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응답해 주십시오.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린다	①	②	③	④
2) 다른 사람과 협력을 잘한다	①	②	③	④
3) 다른 사람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잘 해결한다	①	②	③	④
4)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5)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6) 나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III. 부모(또는 양육자)와의 관계 및 지원기대 인식

부모(또는 양육자)와의 대화 및 활동

14 최근 1년(2022. 6. 1. ~ 2023. 5. 31.) 동안 부모님(또는 주양육자)과 다음 활동 각각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구분	거의 하지 않았다	월 1~3회	주 1~3회	주 4~6회	매일 한다	해당 없음
1) 나의 고민에 대한 대화	①	②	③	④	⑤	X
2)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	①	②	③	④	⑤	
3) 책, 텔레비전, 영화에 대한 대화	①	②	③	④	⑤	
4) 정치, 사회적 주제에 관한 대화(선거 등)	①	②	③	④	⑤	
5) 여가 활동	①	②	③	④	⑤	
6) 저녁 식사	①	②	③	④	⑤	

부모(또는 양육자)와의 대화 시간

15 주중에 매일 부모님(또는 양육자)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 함께한 시간을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구분	전혀 하지 않는다	30분 미만	1시간 미만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해당 없음
1)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⑥
2)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⑥
3) 부모님 외 양육자	①	②	③	④	⑤	
☞ 위 1), 2)에서 모두 '해당 없음'인 경우만 응답						

부모(또는 양육자)의 돌봄 및 지원 기대

16 부모님(또는 양육자)은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돌보니까?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학교 수업(학원 포함)이 끝난 후 집에 늦게 들어와도 관심이 없다	①	②	③	④
2) 내가 고열이 나거나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다	①	②	③	④

17 평일 방과 후에 부모님(또는 양육자)이나 돌봐 주는 어른 없이 집에 혼자 혹은 형제나 자매끼리만 있는 경우가 1주일에 며칠 정도나 됩니까?

① 거의 없다 → 18 번 문항으로 이동

- ② 1~2일 정도
③ 3~4일 정도
④ 거의 매일

17-1 평일 방과 후 혼자 또는 형제자매끼리만 있을 때, 얼마나 불안합니까?

- ① 전혀 불안하지 않다
② 별로 불안하지 않다
③ 약간 불안하다
④ 매우 불안하다

18 다음의 각 시기별로 부모(또는 양육자)가 자녀(또는 피양육자)에게 어느 정도까지 경제적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용	전혀 부담할 필요가 없다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한다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①	②	③
2)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①	②	③
3) 취업할 때까지	①	②	③
4) 결혼할 때까지	①	②	③



IV. 참여·권리 및 사회의식

의견 존중

19 다음 각 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1) 우리 가족은 나의 의견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2) 내 친구들은 나의 의견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3) 내가 다니는 학교는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사회는 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청소년증

20 귀하는 **청소년증을 발급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21 번 문항으로 이동
 ② 아니요

20-1 만약 없다면, 귀하가 **청소년증을 발급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청소년증을 알지 못해서
 ② 청소년증이 필요하지 않아서
 ③ 청소년증을 발급받는 절차가 까다로워서
 ④ 청소년증 발급 대상이 아니어서
 ⑤ 기타(적을 것 : _____)

자기의존지향성

21 어떤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내릴 때 조언을 구하기 위해** 다음 중 어느 것에 가장 **의지합니까?**
 순서대로 **세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 ① 나 자신의 이성적 판단
 ② 느낌과 직관
 ③ 부모/조부모 의견
 ④ 형제 의견
 ⑤ 친구들 의견
 ⑥ 종교적 신념
 ⑦ 과거 경험
 ⑧ 인터넷 정보
 ⑨ 기타

사회참여

22 다음 각 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참여도				필요도			
	전혀 참여 하고 있지 않다	별로 참여 하고 있지 않다	가끔 참여 한다	적극적 으로 참여 한다	전혀 필요 하지 않다	별로 필요 하지 않다	가끔은 필요 하다	매우 필요 하다
1)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해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함(교칙 제정 등)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이나 수립 과정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함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 사회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참여함 (인터넷 의견 제시, 집회 참여, 단체 가입 등)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결혼 및 성역할 인식 · 다문화 수용성

23 다음 각 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2) 결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	①	②	③	④
3) 결혼을 해서 맞벌이를 하는 경우, 공동으로 가사를 분담하는 것은 당연하다	①	②	③	④
4)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할 책임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 크다	①	②	③	④
5) 나와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 속하는 또래를 친구로 사귄다	①	②	③	④
6) 나와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 속하는 또래를 이성친구로 사귄다	①	②	③	④

사회관 및 사회문제 인식

24 다음 각 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응답해 주십시오.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사회는 대체로 공정하다	①	②	③	④
2) 우리 사회는 인권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3) 우리 사회는 다양성을 인정한다	①	②	③	④
4) 우리 사회는 부정부패가 없다	①	②	③	④
5) 우리 사회는 믿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25 사회적 이슈나 쟁점, 정치문제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습니까? 아래 해당하는 칸의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관심 없다 ← 보통 이다 → 매우 관심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	---	---	---	---	---	---	---	---

26 다음 중 가장 염려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지구의 미래와 환경
- ② 불평등 심화
- ③ 세계정치 불안정 및 전쟁
- ④ 범죄와 폭력
- ⑤ 경제 불황 및 위기
- ⑥ 사회와 시민 갈등
- ⑦ 첨단기술이 가져올 미래
- ⑧ 기타

사회문제 위험 인식

27 우리사회의 청소년들이 다음 각 문제의 위험에 얼마나 노출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위험에 노출되고 있지 않다	위험에 노출되지 않은 편이다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편이다	높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1) 마약류 접촉	①	②	③	④
2) 인터넷매체를 이용한 성범죄 피해	①	②	③	④
3) 유해한 업소의 이용	①	②	③	④



V. 학습과 활동

※ 현재 초·중·고 재학 재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32 번 문항으로 이동하여 계속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28 (초·중·고 재학 중인 청소년만 응답)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2) 우리 학교는 우리들의 의견을 잘 반영한다	①	②	③	④
3) 우리 학교는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다	①	②	③	④
4) 우리 학교는 교칙이 엄격하다	①	②	③	④
5) 현재 학교생활이 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29 (초·중·고 재학 중인 청소년만 응답) 현재 학업 성적은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못한다
- ② 못하는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잘하는 편이다
- ⑤ 매우 잘한다

30 (초·중·고 재학 중인 청소년만 응답) 최근 1년(2022. 6. 1. ~ 2023. 5. 31.) 동안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 수업, 학습지 과외 등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일주일에 총 몇 시간입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 31 번 문항으로 이동

30-1 학원 또는 과외 일주일 총시간(소수점 이하는 없애고 기입합니다.)

일주일 총 시간

31 (초·중·고 재학 중인 청소년만 응답) 최근 1년(2022. 6. 1. ~ 2023. 5. 31.) 동안 학교 수업이나 학원/과외 수업 외에 혼자서 교과 공부를 한 시간은 하루 평균 몇 시간입니까?

※ 숙제를 한 시간도 포함하되, 1일 평균 시간으로 표기합니다.

하루 시간 분

활동

32 최근 1년(2022. 6. 1. ~ 2023. 5. 31.) 동안 아래와 같은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구분	있다	없다
1) 문화/예술 관련 활동(공연 감상 등)	①	②
2) 과학/정보 관련 활동(경진 대회, 과학 실험 등)	①	②
3) 모험/개척 관련 활동(탐사 등반, 야영 등)	①	②
4) 자원봉사 활동(일손 돕기, 자선·구호 등)	①	②
5) 직업/진로 관련 활동(직업 체험, 진로 탐색 등)	①	②
6) 국제 교류 활동	①	②
7) 건강/보건 관련 활동(신체단련, 안전 응급처치 등)	①	②
8) 자기(인성)계발 관련 활동(자기표현, 마음 수련 등)	①	②
9) 환경 보존 관련 활동(생태, 숲 체험, 환경 살리기 등)	①	②

32 번 문항에서 1)~9) 모두 '없다'에 응답한 경우 33 번 문항으로 이동

32-1 위 활동 중에 본인이 직접 활동주제와 내용에 대해 아이디어를 내거나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33 경험 여부와 상관없이, 33번 문항의 9가지 활동 중 가장 하고 싶은 활동을 순서대로 두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문화/예술 관련 활동(공연 감상 등)
② 과학/정보 관련 활동(경진 대회, 과학 실험 등)
③ 모험/개척 관련 활동(탐사 등반, 야영 등)
④ 자원봉사 활동(일손 돕기, 자선·구호 등)
⑤ 직업/진로 관련 활동(직업 체험, 진로 탐색 등)
⑥ 국제 교류 활동
⑦ 건강/보건 관련 활동(신체단련, 안전 응급처치 등)
⑧ 자기(인성)계발 관련 활동(자기표현, 마음 수련 등)
⑨ 환경 보존 관련 활동(생태, 숲 체험, 환경 살리기 등)

34 청소년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거나 진행하는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별로 없다
③ 조금 있다
④ 많이 있다

35 현재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단체 또는 동아리가 있습니까?

구분	있다	없다
1) 청소년 단체나 동아리(스카우트, 누리단·한별단, 해양소년단 등) ☞ 학교 등 공식 기관의 단체 포함(종교 단체 제외)	①	②
2)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단체나 동아리(예, 인터넷 카페 등)	①	②
3) 기타 단체나 동아리(종교 단체 포함)	①	②

36 최근 1년(2022. 6. 1. ~ 2023. 5. 31.) 동안 아래와 같은 시설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구분	있다	없다
1) 청소년수련관(청소년센터 등),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야영장	①	②
2) 유스호스텔	①	②
3) 도서관(단, 학교도서관은 제외)	①	②
4) 공연 시설(공연장, 영화상영관 등)	①	②
5) 전시 시설(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 공원 등)	①	②
6) 사회복지관	①	②
7) 수목원/수목림/자연 휴양림	①	②

학업 중단

37 초·중·고등학교(정규학교, 인가 대안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포함)를 그만둔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 **38** 번 문항으로 이동

37-1 가장 최근에 학교를 그만둔 때는 언제였습니까?

- ① 초등학교 때
② 중학교 때
③ 고등학교 때

37 초·중·고등학교(정규학교, 인가 대안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포함)를 그만둔 적이 있습니까?

37-2 학교를 그만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순서대로 세 가지를 응답해 주십시오.
(이유가 두 개 이하인 경우 1개 혹은 2개만 작성)

1순위

2순위

3순위

영역		내용
개인		① 신체 건강상의 이유로 ② 심리·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③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서
		④ 집안 경제사정이 어려워져서 ⑤ 부모님(또는 양육자)과의 갈등으로 인해 ⑥ 부모님(또는 양육자)의 별거, 이혼 등으로 인해 ⑦ 부모님(또는 양육자)의 폭력 때문에 ⑧ 부모님(또는 양육자)의 잦은 싸움 등 불화로 인해 ⑨ 부모님(또는 양육자)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
학교	학업/진로	⑩ 학업성적이 잘 안 나와서 ⑪ 검정고시를 준비하려고 ⑫ 공부하기 싫어서 ⑬ 내 특기를 살리려고 ⑭ 이민 또는 해외 유학 가려고 ⑮ 취업을 하여 돈을 벌고 싶어서 ⑯ 다른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서
	친구	⑰ 학교친구들과의 문제(폭력, 왕따 등)로 인해 ⑱ 이성문제로 인해 ⑲ 학교를 그만둔 친구의 영향으로
	교사	⑳ 선생님의 차별 때문에 ㉑ 선생님의 체벌 때문에 ㉒ 선생님과 싸워서
	환경	㉓ 학교의 규칙이 엄격해서 ㉔ 학교규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아서 ㉕ 학교 분위기(문화, 동아리, 자치활동 등)가 나와 잘 맞지 않아서 ㉖ 학교가 너무 멀어서 ㉗ 전학이 잘 안되어서
	기타	㉘ 유해환경(유해업소, 폭력집단 등) 때문에 ㉙ 아르바이트로 피곤해서 ㉚ 비행으로 보호처분 혹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서 ㉛ 그 외(적을 것 : _____)

37-3 학교를 그만둔 이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38

앞으로 3년 이내(2023. 6. 1. ~ 2026. 5. 31.)에 진로에 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장 우선시하는 계획 **하나만** 응답해 주십시오.

☞ 현재 직업이 없는 경우는 ⑤ 이직, ⑥ 현 직장(직업) 유지에 응답하실 수 없습니다.

- ① 상급 학교 진학
- ② 취업
- ③ 창업
- ④ 가업(부모님이 하시는 일 물려받음)
- ⑤ 이직
- ⑥ 현 직장(직업) 유지
- ⑦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였다
- ⑧ 기타(적을 것 : _____)



VI. 진로 및 직업탐색

진로 교육 및 체험활동

39

다음 각각에 해당하는 진로 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있습니까?

구분	있다	없다
1) 수업 중 진로 탐색 (나의 꿈, 미래 직업 관련 수업내용 혹은 관련 직업이 실생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배우는 것)	①	②
2) 진로심리검사 (검사지를 통해 적성, 흥미를 알아보는 것)	①	②
3) 진로체험 (직업인 특강, 인터뷰, 직업인 업무 체험 등 진로체험학습에 참여하는 것)	①	②
4) 진로 상담 (나의 꿈, 미래 직업, 적성 등에 관한 상담)	①	②
5) 창업 체험하기 (도전(기업가) 정신, 창의성 및 문제해결 능력 관련 활동 참여)	①	②

40

다음 각각에 해당하는 진로 체험활동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구분	있다	없다
1) 진로 박람회(잡월드, 키자니아 포함)에 간 경험	①	②
2) 청소년 수련관, 사회복지관 등에서 실시하는 진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	①	②
3) 산업체에서 실시하는 진로 및 취업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	①	②
4) 대학에서 실시하는 학과(전공) 관련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	①	②

장래 희망

41 장래 희망 직업을 정하였습니까?

☞ 현재 직업이 있는 경우, ① 예(정하였음) 에 응답해 주십시오.

① 예 (정하였음)

② 아니오 (정하지 않았음) → 42 번 문항으로 이동

41-1 장래 희망 직업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 현재 직업이 있으며, 직업을 바꿀 계획이 없다면, 현재 직업을 기입해 주십시오.

☞ 현재 직업이 있으며, 직업을 바꿀 계획이 있다면, 바꾸기를 희망하는 직업을 기입해 주십시오.

직업 선택

42 향후 직업을 선택할 때 다음 중 어떤 것을 가장 먼저 고려하였습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현재 직업이 있는 경우, 구직 당시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단, 직업 변경을 고려하실 경우, 현재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 ① 자신의 능력
- ③ 대중적 인기
- ⑤ 직업의 장래성
- ⑦ 경제적 수입
- ⑨ 자신의 적성
- ⑪ 사회에 대한 기여도

2순위

- ② 사회적 지위
- ④ 안정성
- ⑥ 의사결정권
- ⑧ 창의성 발휘
- ⑩ 자아성취
- ⑫ 기타(적을 것 : _____)

43 다음 각 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응답해 주십시오.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2)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3) 장래희망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6) 나는 관심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직업에 대하여 알아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44 다음 각 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분명한 인생목표가 있다	①	②	③	④
2) 진로나 직업을 선택할 시기가 되면 내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선택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3) 내가 희망하는 직업을 미래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초등학교, 중학교, 재학생은 **D1** 번 문항으로 이동하여 계속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Ⅶ. 사회진입 및 이행

아르바이트 경험

45 아르바이트를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있다)
- ② 아니요(없다)

취업 여부

46 지난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였습니까?

- ① 예 → **47** 번 문항으로 이동
- ② 아니요

46-1 지난주에 **함께 사는 가족의 사업체 또는 농장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18시간 이상 일하였습니까?

- ① 예 → **47** 번 문항으로 이동
- ② 아니요

46-2 지난주에 **일을 하지 않았지만 직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요 → **52** 번 문항으로 이동

50 그 일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근로조건(근로시간 임금 등)에 만족해서
- ② 안정적인 일자리이기 때문에
- ③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
- ④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서
- ⑤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 ⑥ 경력을 쌓아 다음 직장으로 이직하려고
- ⑦ 육아, 가사 등을 병행하기 위해
- ⑧ 학업, 학원수강, 직업훈련, 취업준비 등을 병행하기 위해
- ⑨ 노력한 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어서
- ⑩ 근무시간을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서
- ⑪ 가족의 일을 도와야 해서
- ⑫ 기타(적을 것 : _____)

51 일을 하면서 손님, 고용주, 혹은 다른 직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구분	고용주 혹은 직원		손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해당없음
1) 욕설, 폭언, 모욕적인 말을 들은 적이 있다	①	②	①	②	③
2)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①	②	③
3) 무시당하거나, 왕따를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①	②	③
4) (성, 외모, 연령 등으로) 차별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①	②	③
5)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①	②	③

응답 후 D1 번 문항으로 이동

비취업상태 및 특성

52 귀하는 지난주 일 또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활동을 하였습니다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요



VIII. 응답자 특성

교육 정도

D1 정규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습니까?

학교	졸업 상태				
① 무학					
② 초등학교	① 졸업	② 재학	③ 수료	④ 휴학	⑤ 중퇴
③ 중학교	① 졸업	② 재학	③ 수료	④ 휴학	⑤ 중퇴
④ 고등학교	① 졸업	② 재학	③ 수료	④ 휴학	⑤ 중퇴
⑤ 대학(4년제 미만)	① 졸업	② 재학	③ 수료	④ 휴학	⑤ 중퇴
⑥ 대학교(4년제 이상)	① 졸업	② 재학	③ 수료	④ 휴학	⑤ 중퇴
⑦ 대학원 이상	① 졸업	② 재학	③ 수료	④ 휴학	⑤ 중퇴

D1-1 현재 주 학업 상태를 응답해 주십시오.

- ① 대입준비
 ② 취업 및 취업준비
 ③ 기타(적을 것 : _____)

귀중한 시간을 내어 조사에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사 후 기록표

응답자 기본정보	성명	
	전화번호	① 집 ② 휴대폰 ③ 직장 () - () - () <small>* 전화번호는 추후 자료 확인을 위한 목적이며, 절대로 다른 목적에 이용하거나 유출되지 않습니다.</small>
조사표 작성 방법		① 조사원 면접식 ② 자기기입식
응답 도구		① Tablet PC ② 종이조사표
응답 날짜		2023년 ()월 ()일
응답 시간		① 오전 ② 오후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응답

3) 청소년 19-24세 조사표



승인번호
제154001호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표본 가구번호

실사 관리 NO.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19 ~ 24세)

인 사 말 씀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청소년들의 생활수준을 측정하고,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소년 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9~24세, 1999. 6. 1. ~ 2014. 5. 31.에 출생한 자)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되오니, 정확한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응답가구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 조사표는 19세부터 24세 이하(1998. 6. 1. ~ 2004. 5. 31.)인 청소년 및 청년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응답하신 내용은 비밀이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 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전화문의
02-3702-2686



홈페이지
<https://csky.gallup.co.kr/>



※ 아래는 조사원이 직접 작성합니다.

조사구 번호										거처 번호			가구 번호			가구원 번호	
										-							

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도로명 주소	건물명	동	호수
	0	0	0	0	0	0	0				

조사원 성명											
조사원 ID											
가구 내 조사표 번호		총 ()부 중 ()번째 조사표									
응답자 정보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생년월일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40px; height: 20px; display: inline-block;"></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40px; height: 20px; display: inline-block;"></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40px; height: 20px; display: inline-block;"></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40px; height: 20px; display: inline-block;"></div> 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40px; height: 20px; display: inline-block;"></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40px; height: 20px; display: inline-block;"></div> 월				
	재학 중인 학교급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대학교	⑤ 해당 없음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갤럽



1. 주관적 웰빙 및 일상생활 만족도

주관적 안녕감

1-1 어제 어느 정도 행복했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 보통 → 매우 행복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	---	---	---	---	---	---	---	---

1-2 어제 어느 정도 근심 또는 걱정을 하였습니까?

전혀 하지 않았다 ← 보통 → 매우 많이 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	---	---	---	---	---	---	---	---

1-3 어제 어느 정도 우울하였습니까?

전혀 우울하지 않았다 ← 보통 → 매우 우울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	---	---	---	---	---	---	---	---

1-4 요즘 자신의 삶(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	---	---	---	---	---	---	---	---

1-5 요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까?

※ 학생의 경우, 일이란 학교생활, 숙제, 공부 등을 말합니다.

전혀 가치 없다 ← 보통 → 매우 가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	---	---	---	---	---	---	---	---

일상생활 만족도

2 다음 각각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구분	<div> <div>전혀 만족하지 않는다</div> <div>← 보통 →</div> <div>매우 만족한다</div> </div>										해당없음
1) 가족과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내가 사는 집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내 삶에서 선택의 자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친구들과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내가 다니는 학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6) 나의 외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7)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물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8) 나의 건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9) 나의 미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0) 나의 자유 시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1) 우리 동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2) 생활에서의 안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삶의 변화

3 코로나19로 인해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

구분	매우 부정적으로 변화함	약간 부정적으로 변화함	변화 없음	약간 긍정적으로 변화함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함	해당 없음
1) 전반적인 생활	①	②	③	④	⑤	
2) 가족관계	①	②	③	④	⑤	
3) 친구관계	①	②	③	④	⑤	
4) 학교생활	①	②	③	④	⑤	⑥
5) 사회에 대한 신뢰	①	②	③	④	⑤	
6)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전망	①	②	③	④	⑤	

4 새로운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인해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

- ① 매우 부정적으로 변화함
- ② 약간 부정적으로 변화함
- ③ 변화 없음
- ④ 약간 긍정적으로 변화함
- ⑤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함



II. 건강

신체적 건강

5 평소에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납니까? (방학 외의 기간을 기준으로 기입합니다.)

예) 밤 10시 10분에 잠들었다면 22시 10분으로 기입합니다.

문항	주중(월~금)	주말(토~일)
1) 잠자는 시간	약 <input type="text"/> 시 <input type="text"/> 분	약 <input type="text"/> 시 <input type="text"/> 분
2) 일어나는 시간	약 <input type="text"/> 시 <input type="text"/> 분	약 <input type="text"/> 시 <input type="text"/> 분

6 지난 1주일 동안 자신의 수면 시간이 얼마나 충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충분하지 않았다
- ② 충분하지 않은 편이었다
- ③ 충분한 편이었다
- ④ 매우 충분했다

7 하루 식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에 대해 각각 응답 바랍니다.

예) 식사대용으로 빵, 샌드위치 또는 미숫가루, 죽, 시리얼 등을 먹은 경우도 식사에 포함됩니다.

구분	전혀 먹지 않는다	먹지 않는 편이다	가급적 먹는 편이다	항상 먹는다
1) 아침	①	②	③	④
2) 점심	①	②	③	④
3) 저녁	①	②	③	④

8 지난 1주일 동안 실내운동이나 야외에서의 운동놀이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 활동시간에는 학교에서의 운동이 포함됩니다.

- ① 예(있다)
- ② 아니요(없다) → **9** 번 문항으로 이동

8-1 활동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시간

예) 1시간 25분은 1시간, 1시간 40분은 2시간으로 작성(30분 기준 반올림)

정신건강

9

최근 1년(2022. 6. 1. ~ 2023. 5. 31.) 동안 다음의 상황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였습니까?

☞ 스트레스란 '주변 사람들이나 일 때문에 힘이 들고 어려운 느낌'을 말합니다.

나는...	전혀 경험하지 않았다	별로 경험하지 않았다	가끔 경험했다	자주 경험했다
1)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느낀다	①	②	③	④
2) SNS 소셜미디어 사용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3) 어떠한 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상태를 느낀다	①	②	③	④

10

다음 각 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응답해 주십시오.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힘든 시간을 보낸 후에는 빨리 회복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2) 스트레스가 많은 사건을 이겨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①	②	③	④
3) 스트레스가 많은 사건에서 회복하는 데 그다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4)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돌이키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5) 보통 별 어려움 없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낸다	①	②	③	④
6) 내 인생의 좌절을 극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11

최근 1년(2022. 6. 1. ~ 2023. 5. 31.) 동안 심리상담전문가(학교상담실,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학과 전문의 상담 등)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받았다
② 안 받았다

주관적 건강평가 및 자존감

12 다음 각 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응답해 주십시오.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신체적으로 건강하다	①	②	③	④
2)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①	②	③	④

13 다음 각 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응답해 주십시오.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린다	①	②	③	④
2) 다른 사람과 협력을 잘한다	①	②	③	④
3) 다른 사람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잘 해결한다	①	②	③	④
4)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5)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6) 나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III. 부모(또는 양육자)와의 관계 및 지원기대 인식

부모(또는 양육자)와의 대화 및 활동

14 최근 1년(2022. 6. 1. ~ 2023. 5. 31.) 동안 부모님(또는 주양육자)과 다음 활동 각각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구분	거의 하지 않았다	월 1~3회	주 1~3회	주 4~6회	매일 한다	해당 없음
1) 나의 고민에 대한 대화	①	②	③	④	⑤	X
2)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	①	②	③	④	⑤	
3) 책, 텔레비전, 영화에 대한 대화	①	②	③	④	⑤	
4) 정치, 사회적 주제에 관한 대화(선거 등)	①	②	③	④	⑤	
5) 여가 활동	①	②	③	④	⑤	
6) 저녁 식사	①	②	③	④	⑤	

부모(또는 양육자)와의 대화 시간

15 주중에 매일 부모님(또는 양육자)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 함께한 시간을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구분	전혀 하지 않는다	30분 미만	1시간 미만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해당 없음
1)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⑥
2)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⑥
3) 부모님 외 양육자	①	②	③	④	⑤	

☞ 위 1), 2)에서 모두 '해당 없음'인 경우만 응답

부모(또는 양육자)의 돌봄 및 지원 기대

16 다음의 각 시기별로 부모(또는 양육자)가 자녀(또는 피양육자)에게 어느 정도까지 경제적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용	전혀 부담할 필요가 없다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한다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①	②	③
2)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①	②	③
3) 취업할 때까지	①	②	③
4) 결혼할 때까지	①	②	③



IV. 참여·권리 및 사회의식

자기의존지향성

17 어떤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내릴 때 조언을 구하기 위해 다음 중 어느 것에 가장 의지하십니까?
순서대로 세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나 자신의 이성과 판단
- ② 느낌과 직관
- ③ 부모/조부모 의견
- ④ 형제 의견
- ⑤ 친구들 의견
- ⑥ 종교적 신념
- ⑦ 과거 경험
- ⑧ 인터넷 정보
- ⑨ 기타

사회참여

18 다음 각 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참여도				필요도			
	전혀 참여 하고 있지 않다	별로 참여 하고 있지 않다	가끔 참여 한다	적극적 으로 참여 한다	전혀 필요 하지 않다	별로 필요 하지 않다	가끔은 필요 하다	매우 필요 하다
1)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해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함(교칙 제정 등)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이나 수립 과정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함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 사회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참여함 (인터넷 의견 제시, 집회 참여, 단체 가입 등)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결혼 및 성역할 인식 · 다문화 수용성

19 다음 각 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2) 결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	①	②	③	④
3) 결혼을 해서 맞벌이를 하는 경우, 공동으로 가사를 분담하는 것은 당연하다	①	②	③	④
4)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할 책임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 크다	①	②	③	④
5) 나와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 속하는 또래를 친구로 사귄 수 있다	①	②	③	④
6) 나와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 속하는 또래를 이성친구로 사귄 수 있다	①	②	③	④

사회관 및 사회문제 인식

20 다음 각 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사회는 대체로 공정하다	①	②	③	④
2) 우리 사회는 인권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3) 우리 사회는 다양성을 인정한다	①	②	③	④
4) 우리 사회는 부정부패가 없다	①	②	③	④
5) 우리 사회는 믿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21 사회적 이슈나 쟁점, 정치문제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습니까? 아래 해당하는 칸의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관심 없다 ← 보통 이다 → 매우 관심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	---	---	---	---	---	---	---	---

22 다음 중 가장 염려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지구의 미래와 환경
- ② 불평등 심화
- ③ 세계정치 불안정 및 전쟁
- ④ 범죄와 폭력
- ⑤ 경제 불황 및 위기
- ⑥ 사회와 시민 갈등
- ⑦ 첨단기술이 가져올 미래
- ⑧ 기타

사회문제 위험 인식

23 우리사회의 청소년들이 다음 각 문제의 위험에 얼마나 노출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위험에 노출되고 있지 않다	위험에 노출되지 않은 편이다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편이다	높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1) 마약류 접촉	①	②	③	④
2) 인터넷매체를 이용한 성범죄 피해	①	②	③	④
3) 유해한 업소의 이용	①	②	③	④



V. 학습과 활동

학업 중단

24 초·중·고등학교(정규학교, 인가 대안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포함)를 그만둔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 25 번 문항으로 이동

24-1 가장 최근에 학교를 그만둔 때는 언제였습니까?

- ① 초등학교 때
② 중학교 때
③ 고등학교 때

24-2 학교를 그만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순서대로 세 가지를 응답해 주십시오.
(이유가 두 개 이하인 경우 1개 혹은 2개만 작성)

1순위

2순위

3순위

영역		내용
개인		① 신체 건강상의 이유로 ② 심리·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③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서
		④ 집안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⑤ 부모님(또는 양육자)과의 갈등으로 인해 ⑥ 부모님(또는 양육자)의 별거, 이혼 등으로 인해 ⑦ 부모님(또는 양육자)의 폭력 때문에 ⑧ 부모님(또는 양육자)의 잦은 싸움 등 불화로 인해 ⑨ 부모님(또는 양육자)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
		⑩ 학업성적이 잘 안 나와서 ⑪ 검정고시를 준비하려고 ⑫ 공부하기 싫어서 ⑬ 내 특기를 살리려고 ⑭ 이민 또는 해외 유학 가려고 ⑮ 취업을 하여 돈을 벌고 싶어서 ⑯ 다른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서
학교	학업/진로	⑩ 학업성적이 잘 안 나와서 ⑪ 검정고시를 준비하려고 ⑫ 공부하기 싫어서 ⑬ 내 특기를 살리려고 ⑭ 이민 또는 해외 유학 가려고 ⑮ 취업을 하여 돈을 벌고 싶어서 ⑯ 다른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서
	친구	⑰ 학교친구들과의 문제(폭력, 왕따 등)로 인해 ⑱ 이성문제로 인해 ⑲ 학교를 그만둔 친구의 영향으로
	교사	⑳ 선생님의 차별 때문에 ㉑ 선생님의 체벌 때문에 ㉒ 선생님과 싸워서
	환경	㉓ 학교의 규칙이 엄격해서 ㉔ 학교규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아서 ㉕ 학교 분위기(문화, 동아리, 자치활동 등)가 나와 잘 맞지 않아서 ㉖ 학교가 너무 멀어서 ㉗ 전학이 잘 안되어서
기타		㉘ 유해환경(유해업소, 폭력집단 등) 때문에 ㉙ 아르바이트로 피곤해서 ㉚ 비행으로 보호처분 혹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서 ㉛ 그 외(적을 것 : _____)

24 초·중·고등학교(정규학교, 인가 대안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포함)를 그만둔 적이 있습니까?

24-3 학교를 그만둔 이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25 앞으로 3년 이내(2023. 6. 1. ~ 2026. 5. 31.)에 진로에 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장 우선시하는 계획 하나만 응답해 주십시오.

☞ 현재 직업이 없는 경우는 ⑤ 이직, ⑥ 현 직장(직업) 유지에 응답하실 수 없습니다.

- ① 상급 학교 진학 ② 취업
③ 창업 ④ 가업(부모님이 하시는 일 물려받음)
⑤ 이직 ⑥ 현 직장(직업) 유지
⑦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였다 ⑧ 기타(적을 것 : _____)

대학 입학 이후 경험

26 대학 입학 이후 휴학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 현재 휴학 중인 경우 "① 예"에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예
② 아니요 → 27 번 문항으로 이동
③ 해당없음(대학 미입학) → 28 번 문항으로 이동

26-1 휴학을 한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어학연수/해외여행 ② 아르바이트
③ 편입학 및 재수준비 ④ 경제적인 이유로(학비가 없어서)
⑤ 자격증 및 고시준비 ⑥ 건강상의 이유로
⑦ 대학원(유학) 준비 ⑧ 인턴 등 대외활동
⑨ 취업 및 취업준비 ⑩ 군 입대
⑪ 기타(적을 것 : _____)

27 대학 재학 중 다음 각각의 사교육(학원 수강, 과외 수업, 학습지 과외 등)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구분	경험 여부	
	받음	받지 않음
1) 전공 공부(복수전공, 이중전공, 부전공 포함)를 위한 사교육	①	②
2) 영어 사교육	①	②
3) 제2외국어(영어 제외) 사교육	①	②
4) 여타 취업 준비를 위한 사교육	①	②
5) 기타(적을 것 : _____)	①	②



IV. 진로 및 직업탐색

진로 교육 및 체험활동

28 다음 각각에 해당하는 진로 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있습니까?

구분	있다	없다
1) 수업 중 진로 탐색 (나의 꿈, 미래 직업 관련 수업내용 혹은 관련 직업이 실생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배우는 것)	①	②
2) 진로심리검사 (검사지를 통해 적성, 흥미를 알아보는 것)	①	②
3) 진로체험 (직업인 특강, 인터뷰, 직업인 업무 체험 등 진로체험학습에 참여하는 것)	①	②
4) 진로 상담 (나의 꿈, 미래 직업, 적성 등에 관한 상담)	①	②
5) 창업 체험하기 (도전(기업가) 정신, 창의성 및 문제해결 능력 관련 활동 참여)	①	②

29 다음 각각에 해당하는 진로 체험활동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구분	있다	없다
1) 진로 박람회(잡월드, 키자니아 포함)에 간 경험	①	②
2) 청소년 수련관, 사회복지관 등에서 실시하는 진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	①	②
3) 산업체에서 실시하는 진로 및 취업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	①	②
4) 대학에서 실시하는 학과(전공) 관련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	①	②

장래 희망

30 장래 희망 직업을 정하였습니까?

☐ 현재 직업이 있는 경우, ① 예(정하였음)에 응답해 주십시오.

① 예 (정하였음)

② 아니오 (정하지 않았음) → 31 번 문항으로 이동

30-1 장래 희망 직업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 현재 직업이 있으며, 직업을 바꿀 계획이 없다면, 현재 직업을 기입해 주십시오.

☐ 현재 직업이 있으며, 직업을 바꿀 계획이 있다면, 바꾸기를 희망하는 직업을 기입해 주십시오.

직업 선택

- 31 향후 직업을 선택할 때 다음 중 어떤 것을 가장 먼저 고려하겠습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현재 직업이 있는 경우, 구직 당시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단, 직업 변경을 고려하실 경우, 현재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① 자신의 능력 | ② 사회적 지위 |
| ③ 대중적 인기 | ④ 안정성 |
| ⑤ 직업의 장래성 | ⑥ 의사결정권 |
| ⑦ 경제적 수입 | ⑧ 창의성 발휘 |
| ⑨ 자신의 적성 | ⑩ 자아성취 |
| ⑪ 사회에 대한 기여도 | ⑫ 기타(적을 것 : _____) |

- 32 다음 각 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응답해 주십시오.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2)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3) 장래희망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6) 나는 관심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직업에 대하여 알아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 33 다음 각 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분명한 인생목표가 있다	①	②	③	④
2) 진로나 직업을 선택할 시기가 되면 내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선택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3) 내가 희망하는 직업을 미래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Ⅶ. 사회 진입 및 이행

아르바이트 경험

34 아르바이트를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있다)
- ② 아니요(없다)

취업 여부

35 지난주에 수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였습니까?

- ① 예 → 36 번 문항으로 이동
- ② 아니요

35-1 지난주에 함께 사는 가족의 사업체 또는 농장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18시간 이상 일하였습니까?

- ① 예 → 36 번 문항으로 이동
- ② 아니요

35-2 지난주에 일을 하지 않았지만 직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요 → 41 번 문항으로 이동

36 번 문항부터 40 번 문항까지는 지난주에 했던 일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시오

취업 내용

36 종사하였던 일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직업분류표]를 참고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① 관리자
-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③ 사무 종사자
- ④ 서비스 종사자
- ⑤ 판매 종사자
-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⑧ 장차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⑨ 단순노무 종사자
- ⑩ 직업군인

37 일을 통해 얻은 월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 세금/ 인센티브 / 성과급 / 등을 포함한 월평균 소득을 세전 기준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월평균 만원

38 일의 형태는 다음 중 무엇이었습니다?

- ① 임금근로자
② 비임금근로자 → **38-4** 번 문항으로 이동

38-1 귀하의 근로 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기간제, 파견, 용역 등)

38-2 근로 시간은 전일제(full-time)와 시간제(part-time)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전일제
② 시간제

38-3 현재 일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구분	있다	없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 함	①	②
2) 일을 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함	①	②
3)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받음	①	②
4) 일을 하다가 다쳤지만 치료받지 못함	①	②
5)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을 받지 못함	①	②
6)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함	①	②
7) 정해진 근로시간을 과도하게 초과해 근무함	①	②
8)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함	①	②

응답 후 **39** 번 문항으로 이동

38-4 귀하의 근로 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고용원(종업원)이 있는 자영업자
② 고용원(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③ 무급가족종사자(함께 사는 가족의 사업체 또는 농장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하는 경우)

39 그 일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근로조건(근로시간 임금 등)에 만족해서
- ② 안정적인 일자리이기 때문에
- ③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
- ④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서
- ⑤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 ⑥ 경력을 쌓아 다음 직장으로 이직하려고
- ⑦ 육아, 가사 등을 병행하기 위해
- ⑧ 학업, 학원수강, 직업훈련, 취업준비 등을 병행하기 위해
- ⑨ 노력한 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어서
- ⑩ 근무시간을 신중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서
- ⑪ 가족의 일을 도와야 해서
- ⑫ 기타(적을 것 : _____)

40 일을 하면서 손님, 고용주, 혹은 다른 직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구분	고용주 혹은 직원		손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해당없음
1) 욕설, 폭언, 모욕적인 말을 들은 적이 있다	①	②	①	②	③
2)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①	②	③
3) 무시당하거나, 왕따를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①	②	③
4) (성, 외모, 연령 등으로) 차별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①	②	③
5)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①	②	③

응답 후 D1 번 문항으로 이동

비취업상태 및 특성

41 귀하는 지난주 일하지 않았던 기간 동안 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 ① 학교생활
- ② 취업 준비
- ③ 창업 준비
- ④ 휴식과 여가 활동(여행 등)
- ⑤ 상급학교 진학 준비(편입, 재수, 반수 포함)
- ⑥ 가사, 가족 돌봄
- ⑦ 기타(적을 것 : _____)

42 귀하는 지난주 일 또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활동을 하였습니다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요 → D1 번 문항으로 이동

42-1 귀하가 최종학교를 졸업한 이후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 년 □ □ 개월



VI. 응답자 특성

교육 정도

D1 정규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습니까?

학교	졸업 상태				
① 무학					
② 초등학교	① 졸업	② 재학	③ 수료	④ 휴학	⑤ 중퇴
③ 중학교	① 졸업	② 재학	③ 수료	④ 휴학	⑤ 중퇴
④ 고등학교	① 졸업	② 재학	③ 수료	④ 휴학	⑤ 중퇴
⑤ 대학(4년제 미만)	① 졸업	② 재학	③ 수료	④ 휴학	⑤ 중퇴
⑥ 대학교(4년제 이상)	① 졸업	② 재학	③ 수료	④ 휴학	⑤ 중퇴
⑦ 대학원 이상	① 졸업	② 재학	③ 수료	④ 휴학	⑤ 중퇴

D1-1 현재 주 학업 상태를 응답해 주십시오.

- ① 대입준비
- ② 취업 및 취업준비
- ③ 기타(적을 것 : _____)

귀중한 시간을 내어 조사에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사 후 기록표

응답자 기본정보	성명	
	전화번호	<div> <div>① 집</div> <div>② 휴대폰</div> <div>③ 직장</div> </div> <div>() - () - ()</div> <div>※ 전화번호는 추후 자료 확인을 위한 목적이며, 절대로 다른 목적에 이용하거나 유출되지 않습니다.</div>
조사표 작성 방법	<div>① 조사원 면접식</div> <div>② 자기기입식</div>	
응답 도구	<div>① Tablet PC</div> <div>② 종이조사표</div>	
응답 날짜	2023년 ()월 ()일	
응답 시간	<div>① 오전</div> <div>② 오후</div> <div>()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응답</div>	

4) 주 양육자 조사표



승인번호
제154013호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NO

--	--	--	--	--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주 양육자)

인 사 말 씀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청소년들의 생활수준을 측정하고,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소년 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9~24세, 1998. 6. 1 ~ 2014. 5. 31에 출생한 자)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되오니, 정확한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응답가구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응답하신 내용은 비밀이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 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전화문의
02-3702-2686



홈페이지
<https://csky.gallup.co.kr/>



※ 아래는 조사원이 직접 작성합니다.

조사구 번호										거처 번호			가구 번호			가구원 번호	
										-						0 1	

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도로명 주소			건물명		동	호수

조사원 성명											
조사원 ID											
조사표 번호		총 ()부 중 (1)번째 조사표									
응답자 정보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생년월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20px; height: 20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20px; height: 20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20px; height: 20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20px; height: 20px;"></div> </div> 년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20px; height: 20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20px; height: 20px;"></div> </div> 월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갤럽



H. 가구원 명부

H1

현재 귀덕에 살고 있는 '가구원'은 귀하를 포함하여 모두 몇 명입니까?
 가구원은 혈연이나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가구에서 함께 살고 있는 모든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그럼, 전체 가구원 중 만 9 ~ 24세(1998. 6. 1. ~ 2014. 5. 31. 출생) 청소년은 모두 몇 명입니까?

H1-1 전체 가구원 수

명

H1-2 청소년 가구원 수

명

H2

같이 살고 계신 '모든 가구 구성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체 가구원 중 청소년(만 9~24세)의 주 양육자 1인과, 만 9~24세 청소년이 조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조사 대상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가구원에 대해 아래 정보를 작성해 주십시오.

H2-1	H2-2	H2-3		H2-4				H2-5		H2-6		
가구원 번호	주 양육자와의 관계	성별		생년-월 (주민등록)				적격 여부		조사 여부		
	① 주 양육자 본인 ② 배우자(사실혼 포함) ③ 자녀 ④ 부모 ⑤ 손자녀 ⑥ 조부모 ⑦ 형제자매 ⑧ 친인척 ⑨ 19~24세 1인가구 ⑩ 기타	남자	여자	생년		생월		Y	N	참여	불응	불능
가구원1	① 주 양육자 본인	①	②		년		월	①	②	①	②	③
가구원2		①	②		년		월	①	②	①	②	③
가구원3		①	②		년		월	①	②	①	②	③
가구원4		①	②		년		월	①	②	①	②	③
가구원5		①	②		년		월	①	②	①	②	③
가구원6		①	②		년		월	①	②	①	②	③
가구원7		①	②		년		월	①	②	①	②	③
가구원8		①	②		년		월	①	②	①	②	③
가구원9		①	②		년		월	①	②	①	②	③
가구원10		①	②		년		월	①	②	①	②	③

H3

귀덕에 거주하는 전체 가구원 중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1. 청소년 조사영역 연계

건강

1 귀하는 자녀(또는 피양육자)의 건강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있습니까?

- ① 아이의 건강에 전혀 신경 쓸 겨를이 없다
- ②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아이에게 말기고 있는 편이다
- ③ 관심을 가지고 아이가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조금 신경 쓰는 편이다
- ④ 관심을 가지고 아이가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돌보고 있다

2 최근 1년(2022. 6. 1. ~ 2023. 5. 31.) 동안 평소 일상생활에서 다음 각각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십니까?

나는 ...	전혀 경험하지 않았다	별로 경험하지 않았다	가끔 경험했다	자주 경험했다
1)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느낀다	①	②	③	④
2)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느낀다	①	②	③	④
3) 평소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4) 평소에 대인 관계가 어렵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부모와의 관계 및 지원기대 인식

3 다음 각 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아이가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①	②	③	④
2) 우리 아이가 자신의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①	②	③	④

※ H3 문항 ② 응답자는 5 번 문항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4 자녀(또는 피양육자)의 방과 후 돌봄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까?

※ 방과 후 돌봄 서비스는 지역사회 돌봄교실(방과 후 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 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초등돌봄교실 등), 정부지원 아이돌보미 등을 의미합니다.

① 있다 ② 없다 → 5 번 문항으로 이동

4-1 초·중고 재학 중인 자녀(또는 피양육자)가 방과 후 부모 또는 보호자 없이 1시간 이상 혼자
또는 형제자매끼리만 있는 경우에 얼마나 불안하십니까?

- ① 전혀 불안하지 않다 ② 별로 불안하지 않다 ③ 약간 불안하다 ④ 매우 불안하다

5 다음 각 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현재 자녀(또는 피양육자)를 잘 키우고 있다	①	②	③	④
2) 앞으로 자녀(또는 피양육자)를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다	①	②	③	④
3) 현재 자녀(또는 피양육자)와의 관계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4) 평소 자녀(또는 피양육자)와의 대화가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5) 자녀(또는 피양육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6) 자녀(또는 피양육자)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있다	①	②	③	④

참여·권리 및 사회의식

6 다음 각 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집에서는 아이의 의견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2) 우리 사회는 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7 다음 각 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2) 결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	①	②	③	④
3) 결혼을 해서 맞벌이를 하는 경우, 공동으로 가사를 분담하는 것은 당연하다	①	②	③	④
4)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할 책임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 크다	①	②	③	④
5) 나의 자녀가 내 자녀와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 속하는 토래를 친구로 사귄다	①	②	③	④
6) 나의 자녀가 내 자녀와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 속하는 토래를 이성친구로 사귄다	①	②	③	④

8 다음 각 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가끔은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 청소년이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함(교칙 제정 등)	①	②	③	④
2) 청소년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이나 수립 과정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함	①	②	③	④
3) 청소년이 사회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참여함(인터넷 의견 제시, 집회 참여, 단체 가입 등)	①	②	③	④

사회문제 위험 인식

9 우리사회의 청소년들이 다음 각 문제의 위험에 얼마나 노출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위험에 노출되고 있지 않다	위험에 노출 되지 않은 편이다	위험에 노출 되고 있는 편이다	높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1) 마약류 접촉	①	②	③	④
2) 인터넷매체를 이용한 성범죄 피해	①	②	③	④
3) 유해한 업소의 이용	①	②	③	④

☞ 9~18세 자녀(또는 피양육자)가 없는 경우 13 번 문항으로 이동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학습과 활동

10 자녀(또는 피양육자)의 학습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다음 각 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응답해 주십시오.

☞ 9~18세 자녀(또는 피양육자) 각각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9~18세 중 첫 번째 자녀(또는 피양육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1)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아이가 사교육(학원, 문화센터, 과외 등)에서 배우는 내용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아이가 스스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4) 우리 아이가 무엇에 흥미를 느끼고 있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 9~18세 중 두 번째 자녀(또는 피양육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1)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아이가 사교육(학원, 문화센터, 과외 등)에서 배우는 내용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아이가 스스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4) 우리 아이가 무엇에 흥미를 느끼고 있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 9~18세 중 세 번째 자녀(또는 피양육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1)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아이가 사교육(학원, 문화센터, 과외 등)에서 배우는 내용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아이가 스스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4) 우리 아이가 무엇에 흥미를 느끼고 있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 9~18세 중 네 번째 자녀(또는 피양육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1)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아이가 사교육(학원, 문화센터, 과외 등)에서 배우는 내용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아이가 스스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4) 우리 아이가 무엇에 흥미를 느끼고 있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11

자녀(또는 피양육자)의 학업 및 학습 외 활동(체험활동, 동아리 활동 등)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다음 각 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응답해 주십시오.

☞ 9~18세 자녀(또는 피양육자) 각각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9~18세 중 첫 번째 자녀(또는 피양육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학업이나 학습 이외의 활동이 아이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아이가 학업이나 학습 이외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①	②	③	④
3) 아이가 학업이나 학습 이외의 활동을 원할 때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①	②	③	④

☞ 9~18세 중 두 번째 자녀(또는 피양육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학업이나 학습 이외의 활동이 아이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아이가 학업이나 학습 이외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①	②	③	④
3) 아이가 학업이나 학습 이외의 활동을 원할 때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①	②	③	④

☞ 9~18세 중 세 번째 자녀(또는 피양육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학업이나 학습 이외의 활동이 아이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아이가 학업이나 학습 이외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①	②	③	④
3) 아이가 학업이나 학습 이외의 활동을 원할 때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①	②	③	④

☞ 9~18세 중 네 번째 자녀(또는 피양육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학업이나 학습 이외의 활동이 아이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아이가 학업이나 학습 이외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①	②	③	④
3) 아이가 학업이나 학습 이외의 활동을 원할 때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①	②	③	④

12

9~18세 자녀(또는 피양육자)의 학업 및 학습 외 활동에 관심을 두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아이의 활동이 성적 또는 입시와 관련되기 때문에
- ② 다양한 경험을 쌓기를 희망하여
- ③ 아이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 ④ 주변의 다른 아이들도 하기 때문에
- ⑤ 아이의 적성 개발 등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 ⑥ 아이의 체력단련 등 건강을 위해서
- ⑦ 아이가 원해서
- ⑧ 기타(적을 것 : _____)

진로 및 직업탐색

13 귀하는 자녀(또는 피양육자)의 진로 선택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습니까?

- ① 아이가 원하는 진로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다
- ② 아이의 진로선택에 관심은 있지만, 아이에게 맡기는 편이다
- ③ 아이의 진로선택에 관심은 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다
- ④ 아이의 진로선택에 전혀 관심이 없다

사회진입 및 이행

14 귀하는 청소년(15~18세)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각 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응답해 주십시오.

☞ 15~18세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약간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청소년기 아르바이트 경험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2) 청소년기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청소년의 권리이므로 존중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3) 청소년기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청소년의 진로 선택 및 결정에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15 귀하는 청소년 시기의 현장실습 및 인턴 경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각 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응답해 주십시오.

☞ 10대 청소년의 현장실습 및 인턴 경험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약간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고등학교 재학 중 현장실습 및 인턴 경험은 진로선택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2) 대학교 재학 중 현장실습 및 인턴 경험은 진로선택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16 귀하는 자녀(또는 피양육자)가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 ① 자신의 능력
- ③ 대중적 인기
- ⑤ 직업의 장래성
- ⑦ 경제적 수입
- ⑨ 자신의 적성
- ⑪ 사회에 대한 기여도

2순위

- ② 사회적 지위
- ④ 안정성
- ⑥ 의사결정권
- ⑧ 창의성 발휘
- ⑩ 자아성취
- ⑫ 기타(적을 것 : _____)



II. 가구 및 주 양육자 특성

가구 특성

17 귀댁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부모님은 외국 출신입니까?

☞ 외국 출신이란 현재 외국인이거나 과거 외국인이었으나 현재 한국으로 귀화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구분	예	아니오
1) 아버지	①	②
2) 어머니	①	②

18 귀댁의 가구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양부모 가족 (부모가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부모와 조부모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포함)
- ② 한부모 가족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 아버지와 조부모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포함)
- ③ 한부모 가족 (어머니 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 어머니와 조부모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포함)
- ④ 조손 가족 (할아버지 혹은 할머니와 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 ⑤ 기타(적을 것 : _____)

19 귀하의 가구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한 다음의 급여를 지원받고 있습니까?

구분	예	아니오
1) 생계급여	①	②
2) 주거급여	①	②
3) 의료급여	①	②
4) 교육급여	①	②

20 최근 1년(2022. 6. 1. ~ 2023. 5. 31.) 동안 귀하는 배우자 외의 친인척이나 이웃, 지인 등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구분	전혀 없었다	한두 번 도움을 받았다	가끔 도움을 받았다	지속적인 도움을 받았다
1) 경제적 도움(용돈, 생활비 등)	①	②	③	④
2) 정서적 도움(익는, 푸념 상대 등)	①	②	③	④
3) 생활의 도움(가사, 집 바꾸기, 간병 등)	①	②	③	④

21 최근 1년(2022. 6. 1. ~ 2023. 5. 31.) 동안 가구 전체의 월평균 소득과 월평균 생활비는 각각 얼마입니까?
아래 보기 중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 보기 〉		
① 100만원 미만	② 100~200만원 미만	③ 200~300만원 미만
④ 300~400만원 미만	⑤ 400~500만원 미만	⑥ 500~600만원 미만
⑦ 600~700만원 미만	⑧ 700~800만원 미만	⑨ 800~900만원 미만
⑩ 900~1,000만원 미만	⑪ 1,000만원 이상	

구분	보기 번호
1) 가구 전체 월평균 소득 (세후)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모두 포함하며, 세후 기준	
2) 가구 전체 월평균 생활비 ※ 저금, 저축성 보험료, 계 부은 금액 등 재산 증가를 위한 지출과, 주택부금 상환, 월부, 외상, 빌린 돈(이자 포함) 등 부채 감소를 위한 지출은 총 생활비에서 제외	

주 양육자 특성

22 설문에 응답한 자녀(또는 피양육자)와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 조사에 참여한 자녀(또는 피양육자)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자녀(또는 피양육자)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아버지
- ② 어머니
- ③ 할머니
- ④ 할아버지
- ⑤ 친인척
- ⑥ 기타(적을 것 : _____)

23 귀하의 혼인상태는 어떠합니까?

- ① 배우자 있음
- ② 배우자 없음 (미혼, 이혼, 사별 포함)

24 귀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 ① 무학
- ① 초등학교 졸업
- ② 중학교 졸업
- ③ 고등학교 졸업
- ④ 전문대학 졸업
- ⑤ 대학졸업
- ⑥ 대학원 졸업

주 양육자(본인) 경제활동 상태

25 귀하는 지난 1주간 1시간 이상 소득이 있는 일을 하였거나 무급(무보수)으로 일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25-1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주당 평균 시간

25-2 근로 시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전일제

② 시간제

25-3 일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근로 무능력

② 군복무

③ 정규교육기관

④ 학업

⑤ 진학준비

⑥ 취업준비

⑦ 가사

⑧ 양육

⑨ 간병

⑩ 구직활동 포기

⑪ 근로의사 없음

⑫ 기타(적을 것 : _____)

귀중한 시간을 내어 조사에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사 후 기록표		
응답자 기본정보	성명	
	전화번호	<div> <div>① 집</div> <div>② 핸드폰</div> <div>③ 직장</div> </div> <div>() - () - ()</div> <div>※ 전화번호는 추후 자료 확인을 위한 목적이며, 절대로 다른 목적에 이용하거나 유출되지 않습니다.</div>
조사표 작성 방법		<div>① 조사원 면접식</div> <div>② 자기기입식</div>
응답 도구		<div>① Tablet PC</div> <div>② 종이조사표</div>
응답 날짜		2023년 ()월 ()일
응답 시간		<div>① 오전</div> <div>② 오후</div> <div>()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응답</div>

연구보고 2023-수탁25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인 쇄 2023년 12월 20일

발 행 2023년 12월 20일

발행인 김 현 숙

발행처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02) 2100-6000(代)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경성문화사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행정간행물등록번호 11-1383000-000253-12

